

국립국어원 2012-01-06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379-01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 연구책임자 : 강 정 희(한남대학교)

공동연구원 : 김 순 자(제주대학교)

김 지 숙(영남대학교)

박 원 호(한남대학교)

홍 기 옥(경북대학교)

■ 조사 주제 :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 조사 지역 : 제주도 근해(추자도)

동해 근해(울릉도)

서해 근해(외연도)

남해 근해(옥지도)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2년 9월 28일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연 구 기 관 : 한남대학교

연구책임자 : 강정희

공동연구원 : 김순자, 김지숙,
박원호, 홍기옥

사업 개요

제1장	연구 개요	3
1.	조사 개요	3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3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4
1.3.	조사 방법	5
1.3.1.	조사의 의의	
1.3.2.	조사 과정의 특징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2.	조사 지침	7
2.1.	현장 조사 지침	8
2.1.1.	일반 원칙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2.1.3.	제보자 선정 기준	
2.2.	전사 지침	10
2.3.	올림말 선정 지침	12
2.3.1.	일반 원칙	
2.3.2.	세부기준	
2.4.	뜻풀이 지침	15
2.4.1.	기본 원칙	
2.4.2.	뜻풀이 형식	
2.4.3.	뜻풀이 용어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제2장 제주도 근해(추자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19
1. 연구 추진 과정	19
1.1. 조사 계획__19	
1.2. 조사 보고__20	
1.2.1. 제보자	1.2.2. 조사 기간과 방법

1.2.3. 조사 장소	
1.3. 조사 내용_24	
1.4. 조사 결과물_24	
2. 조사된 어휘	25
2.1. 행위자_25	
2.1.1. 어부	2.1.2. 해녀
2.2. 환경_26	
2.2.1. 물때	2.2.2. 미세기
2.2.3. 하루	
2.3. 날씨_29	
2.3.1. 바람	2.3.2. 비
2.2.3. 눈	2.2.4. 해·달·별
2.2.5. 기타	2.2.6. 공간
2.4. 어획물_40	
2.4.1. 물고기	2.4.2. 조개류
2.4.3. 기	2.4.4. 해조류
2.4.5. 기타	
2.5. 어로 도구와 어로 방법_59	
2.5.1. 그물류	2.5.2. 낚시류
2.5.3. 배	2.5.4. 어로도구
2.5.5. 어로 행위	2.5.6. 음식
2.6. 민속_75	
2.6.1. 제의	2.6.2. 금기, 속설, 은어, 노래
3. 조사 결과	77
제3장 동해 근해(울릉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83
1. 연구 추진 과정	83
1.1. 조사 계획_83	
1.2. 조사 보고_84	
1.2.1. 제보자	1.2.2. 조사 기간 및 방법
1.2.3. 조사 장소	1.2.4. 조사 내용
1.2.5. 조사 결과물	
2. 연구 내용	91
2.1. 행위자_91	
2.1.1. 어부	2.1.2. 해녀

2.2. 환경__95	
2.2.1. 물때	2.2.2. 미세기
2.2.3. 하루	2.2.4. 바람
2.2.5. 비, 눈, 구름, 안개, 서리	2.2.6. 공간
2.3. 어획물__108	
2.3.1. 물고기	2.3.2. 조개류
2.3.3. 게	2.3.4. 해조류
2.3.5. 기타	2.3.6. 어획물 상태
2.4. 어로 도구와 어로 방법__127	
2.4.1. 그물류	2.4.2. 낚시류
2.4.3. 배	2.4.4. 어로 도구
2.4.5. 어로 행위	
2.5. 음식__145	
2.5.1. 젓갈류	
2.6. 민속__147	
2.6.1. 제의	2.6.1. 금기, 속설
3. 조사 결과	162
제4장 서해 근해(외연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170
1. 연구 추진 과정	170
1.1. 조사 계획__170	
1.2. 조사 보고__171	
1.2.1. 조사지역	1.2.2. 제보자
1.2.3. 조사 장소	1.2.4. 조사 기간 및 방법
1.2.5. 조사 내용	1.2.6. 조사 결과물
2. 연구 내용	179
2.1. 행위자__179	
2.1.1. 어부	2.1.2. 전노, 화노
2.2. 시간__180	
2.2.1. 물때	2.2.2. 미세기
2.2.3. 하루	
2.3. 날씨__183	
2.3.1. 바람	2.3.2. 비, 눈
2.3.3. 해·달·별	
2.4. 공간__187	

2.4.1 방위	2.4.2 바다
2.4.3 해안가	2.4.4 지형
2.5. 어획물__189	
2.5.1. 물고기	2.5.2. 조개류
2.5.3. 게	2.5.4. 해조류
2.5.5. 기타	
2.6. 어로 도구와 어로 방법__196	
2.6.1 그물류	2.6.2. 낚시류
2.6.3. 배	2.6.4. 기타 어로 도구
2.6.5. 어로 행위	
2.7. 음식__205	
2.7.1. 젓갈류	
2.8. 민속__206	
2.8.1. 제의	2.8.2. 금기
3. 조사 결과	207
제5장 남해 근해(육지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212
1. 연구 추진 과정	212
1.1. 조사 계획__212	
1.2. 조사 보고__212	
1.2.1. 조사지역	1.2.2. 제보자
1.2.3. 조사 기간 및 방법	1.2.4. 조사 장소
1.2.5. 조사 내용	1.2.6. 조사 결과물
2. 연구 내용	219
2.1. 행위자__219	
2.1.1. 어부/뱃사람/뱃놈	
2.1.2. 선주, 적군, 사공, 하장, 기관장/기관조, 기관사, 선장/센조	
2.1.3. 설래끼꾼/슬래끼꾼, 해패/일본조	
2.1.4. 해녀/보재이/보재기/물바리	
2.1.5. 상바리, 중바리, 하바리	
2.2. 시간__222	
2.2.1. 물때	2.2.2. 미세기
2.2.3. 하루	
2.3. 날씨__227	
2.3.1. 바람	2.3.2. 비

2.3.3. 눈	2.3.4. 해·달·별
2.3.5. 기타	
2.4. 공간_240	
2.4.1. 방위	2.4.2. 바다
2.4.3. 해안가	2.4.4. 지형
2.5. 어획물_248	
2.5.1. 물고기	2.5.2. 조개류
2.5.3. 게	2.5.4. 해조류
2.5.5. 기타	
2.6. 어로 도구와 어로 방법_268	
2.6.1. 그물류	2.6.2. 낚시류
2.6.3. 배	2.6.4. 기타 어로 도구
2.6.5 어로 행위	
2.7. 음식_286	
2.7.1. 젓갈류	2.7.2. 육지 음식
2.8. 민속_288	
2.8.1. 명칭	2.8.2. 행위
2.8.3. 기타	
3. 조사 결과	289

제 3 부

연구 결과

제6장 마무리	297
1. 제주도 근해(추자도)	297
2. 동해 근해(울릉도)	301
3. 서해 근해(외연도)	307
4. 남해 근해(욕지도)	309
참고문헌	316
부 록	321
기초 어휘 항목 분류표	547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질문지	557
찾아보기	587

제 1 부

사 업 개 요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장 연구 개요

1. 조사 개요

1.1.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본 조사는 2010년부터 한반도 남쪽 전 해안에 분포되어있는 어촌을 대상으로 한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사업의 제3차 년도에 해당하는 조사이다. 3차 년도인 2012년의 조사는 1차 ~ 2차 년도인 2010년과 2011년도에 실시한 해안 어촌 생활어를 기초로 한 섬 중심의 어촌 생활어이다.

최근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생태주의 언어학은 언어와 자연생태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생학문이다. 생태주의 언어학자들은 언어가 소멸하는 것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들이 멸종하는 현상을 같은 차원에서 보고 있다. 현대 사회의 산업화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파괴로 인한 많은 생물종들의 멸종은 해당 생물종들과 관련된 어휘, 표현법들의 소멸이 바로 언어와 생태계의 상호 관련성을 말해준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활 모형을 창조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인간 활동의 매개체는 바로 언어이다. 언어를 통해 축적된 문화를 전수하며, 또 언어를 이용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또한 시대, 문화가 변해가면서 언어가 또 다른 모습을 띄기도 한다. 새로운 언어가 생기고, 사용하던 언어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언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특히 언어의 소멸은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그것은 언어의 소멸은 곧 그 언어를 사용하던 지역, 인간들의 정신문화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 인류 언어학자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문화란 주로 말과 글이라는 언어로 전달되고 있고 이 언어의 죽음으로 인해 언어 전달이 무너지면 지식 상속에 심각한 손실이 일어나고 이는 다시 개별 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은 사라져 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은 바다라는 환경에 적응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지역이 많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가 다양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어촌 지역의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말을 어촌 생활어라 한다. 여기에는 어촌 지역의 환경, 전통사회, 경제, 문화 활동과 연계

된 어휘, 표현이 들어 있고, 또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수많은 문법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양 생태계의 변화와 어촌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와 이로 인한 경제 형태의 변화는 이와 관련된 어촌 생활어에도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전통 어촌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언어는 소멸되었거나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새로운 언어 - 표준어의 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어촌 생활어 소멸과 확산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앞에서 본 조사 사업의 시대적 요청은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어촌 생활어에 대한 수집, 조사는 그동안 정부기관이나 국어학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촌 생활어에 대한 조사, 정리는 현재 절실히 필요한 작업이다. 현장 조사를 통한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기층문화와 관련된 어휘, 어법 등에 대한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문서화란 데이비드 크리스털의 말처럼 사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언어의 다양한 모습을 영구적으로 그려 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사업의 목적은 한반도 남쪽의 해안 지역에 분포된 섬 중심의 어촌을 대상으로 하여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를 조사, 문서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해안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바다와 관련된 기초 어휘와 어촌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 작업은 해당 어촌 지역의 정체성을 살피고 그들의 삶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문화는 그 지역의 토속적인 언어와 기층 생활어의 결정체이다. 그러나 최근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의 속도와 함께 해당 지역의 토속 언어와 기층 생활어가 점점 소멸해가고 있다. 또한 섬과의 해양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사람들의 언어, 문화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기관이나 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왔던 지역어 조사는 대부분 농촌 생활 중심이었다. 이러한 조사 지역의 편중성은 곧 해안 지역-어촌 생활에 대한 본격적인 언어학적 조사 사업과 업적의 영세성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 사업은 이와 같은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또한 최근 표준어의 간섭과 기계화로 인하여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의 전통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기층 생활어를 조사하여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오늘날 어촌 사회의 급속한 도시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바다의 온도 상승은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또한 섬사람들의 생활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촌 사회의 환경, 생태계의 변화와 파괴는 어촌 생활과 문화의 변화, 소멸을 의미한

다. 이는 나아가 그것을 담고 있는 언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멸 위기의 개체들에 대한 기록과 보호는 현시점에서 필수적이며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소멸 위기의 언어를 조사하고 이를 문서화(documentation)하는 일은 언어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문서화는 언어 유산의 상징이 될 몇 가지 어휘만을 수집하는 식의 비교적 단순한 과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서화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전 편찬이라는 전통적인 작업의 수준을 넘어서 구술 발화 등과 같은 담화 자료를 녹음기, 사진, 동영상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하여 조사 대상을 하나의 언어 활동체로서 그려 내는 대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 모습 그대로를 그려내는 것이다.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구술 발화 자료는 지금까지 각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국어의 어휘, 표현법의 발굴이 기대되며 나아가 국어 어휘장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휘 체계를 정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어촌 지역에 관련된 국어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1.3. 조사 방법

어촌 생활의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질문지에 의한 현장에서 직접 조사방법을 채택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연구원 각자의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질문지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명하기 어려운 해당 어휘에 관해서는 사진을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해당 어휘 항목을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여 해당 어휘의 하위 항목의 어휘까지 수집한다. 질문지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자의 조사 어휘 항목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조사 대상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며, 조사 과정에서의 꼼꼼함과 성실함이 요구된다.

1.3.1. 조사의 의의

- 어촌 지역 기초 어휘와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에 관한 일련의 조사는 사라져 가고 있는 어휘의 보존 작업에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 질문지를 통한 조사는 기본적인 어휘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어촌 생활에 관련된 기초 생활 어휘를 수집하기에는 용이한 방법이다.
- 또한 이 조사 방법을 통해 여러 조사 지점의 해당 어휘를 비교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해당 어휘가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조사 후 해당 어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생활 어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질문지를 통한 해당 어휘의 조사 뿐 아니라 조사자의 심층 밀착 조사는 하위 항목의 어

휘를 수집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어촌 생활어의 어휘망 확충, 어휘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해안 어촌과 섬사람들의 어촌 생활어의 실태를 비교 파악할 수 있다.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조사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1차적 배경인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2차적 배경인 역사적인 조건과 외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조사 어휘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다양한 확장 어휘를 수집할 수 있다.
-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기초어휘 항목에 대한 선정과 이와 관련된 질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질문지를 통해 질문하기 어려운 어휘 항목에 대해서는 사진 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질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되어야 한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질 높은 어휘 수집을 위해서는 조사 어휘 범주, 어휘 항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수집 어휘가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보자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1.3.3. 조사 시 고려 사항

- 조사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어촌 지역이라는 일반적인 요소 이외에 해당 지역만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수집할 수 있는 어휘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조사 어휘가 가지는 특수성과 일반성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윤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 집단의 행동과 말이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설명을 위해서는 배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 조사 지침

기초 어휘 조사는 소멸해가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여야 한다. 어촌 생활 기초 어휘 조사를 위한 질문지는 어촌 생활에 관련된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로도와 어로방법, 음식, 민속에 관련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별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행위자
- 환경 : 시간(물때, 미세기, 하루), 날씨(바람, 비, 눈, 해·달·별, 기타), 공간(방위, 바다, 해안가, 지형)
- 어획물 : 물고기(부분 명칭, 종류, 상태), 조개류(부분 명칭, 종류, 상태), 게(부분 명칭, 종류) 해조류(종류, 상태), 기타(종류, 상태)
- 어로도와 어로행위 : 그물류(부분 명칭, 종류), 낚시류(부분 명칭, 종류), 배(부분 명칭, 종류), 어로 도구 기타, 어로 행위(조개류, 해조류, 그물류, 배, 기타)
- 음식 : 젓갈류, 기타
- 민속 : 제의(벉고사), 금기·속설·은어·노래

또한 소멸 위기의 기층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어촌의 집단별, 직업별, 영역별, 기층 생활어 중 조사 지역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상황에 맞는 범주를 정해 조사한다. 간략 질문지를 작성하고 질문지를 근거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고, 나아가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한다.

조사는 직접 질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행위자(제보자)의 구술발화를 채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어휘를 추출해내고 어휘의 용례를 추출하기 위함이다. 질문지의 범주별 조사 항목에 맞추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어를 조사한다. 또한 다양한 하위 항목의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사 지역의 제보자와 일정 기간 숙식을 함께 하는 심층, 밀착 조사 방법을 채택한다. 조사자와 제보자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조사 어휘 외의 주변 생활어까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자의 구술발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생활어 어휘, 의미, 용례, 행위, 사회·문화·생태·역사의 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주제와 관련이 없는 개인 생애사는 가급적 채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지를 이용한 심층 밀착 조사를 통해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의 어휘장을 넓히고 어휘체계를 구축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의 원칙으로 한다.

2.1. 현장 조사 지침

현장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원들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지리,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조사에 임하여 조사의 질을 높인다. 또한 기초 어휘를 먼저 조사한 후 개별 주제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가능한 기초 어휘의 확장 어휘, 어법을 보완 조사 한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이용하며, 개별 주제 조사는 간략 질문지를 이용한다.

2.1.1. 일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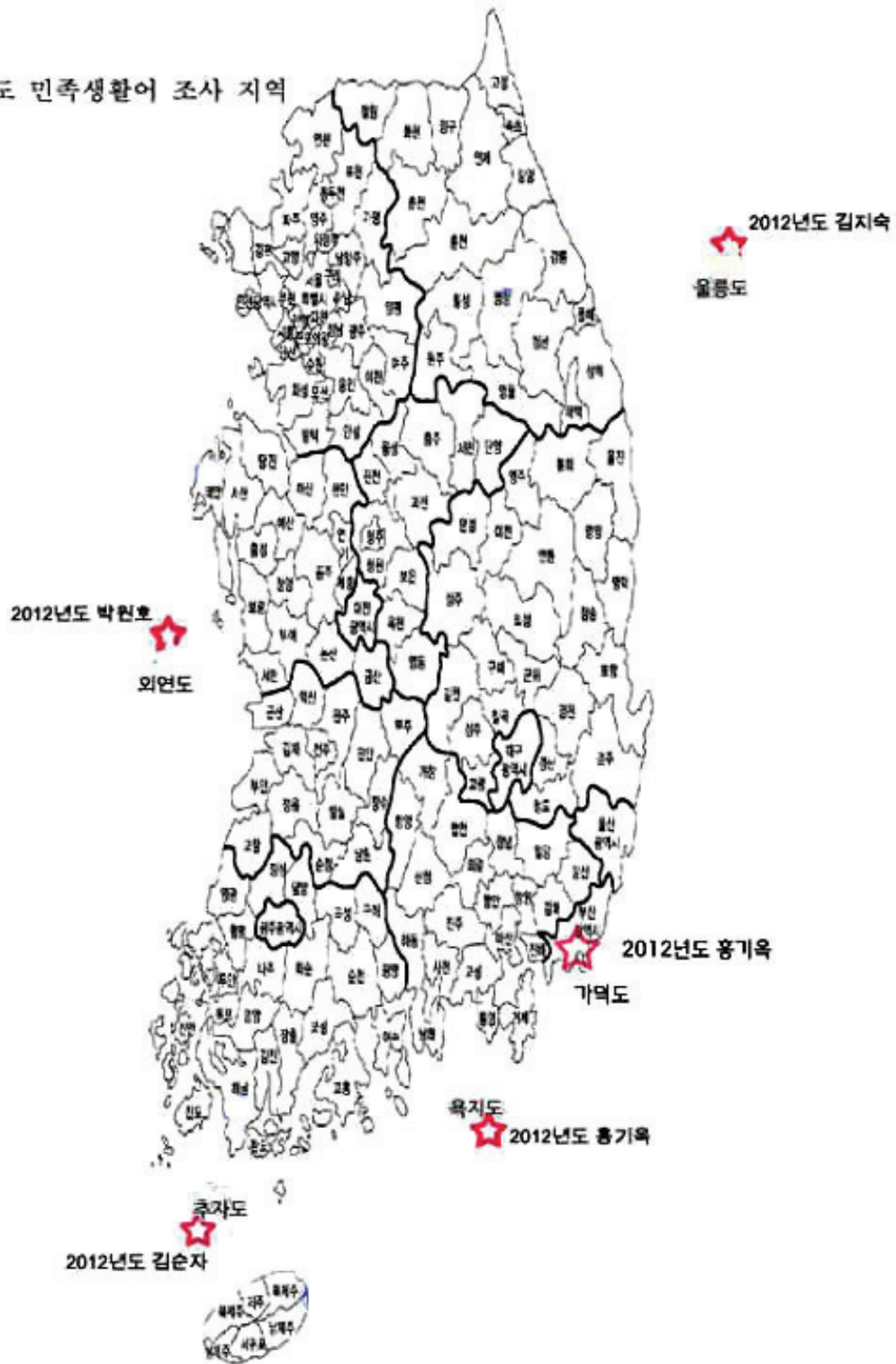
- 각 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어촌 생활 기초 어휘와 문법형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 조사 현장에서 채록된 모든 어휘를 수집하여 해당 어휘가 전형적인 의미를 가질 때 올림말로 상정할 수 있다. 또한 이에 확장된 여러 어휘를 수집하여 관련 어휘 체계망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 어휘론적 변종만을 올림말로 선정하며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상정하지 않는다.
- 조사된 어휘 항목에 대해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된 어휘 용례는 대표성과 일반성을 획득하기 위해 2개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
- 모든 사진 자료와 음성자료는 최종 어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어휘의 실물이 존재할 경우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과 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에 대한 행위와 실물에 연관된 동영상을 촬영하여 영상 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 조사 대상자를 통해 관련 그림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올림말 선별 기준에 의해서 올림말로 등록하지 못한 어휘도 조사 자료 정리 방식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어휘 목록은 국어원에서 검토, 올림말로 선정 가능한 어휘는 다시 조사자에게 보내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 조사 지역 선정의 기준은 한반도 남쪽의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의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서 역사적으로 어촌생활을 해온 어촌 섬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동일 해안에 분포한 어촌들에 분포되어있는 어촌 생활어의 기초 어휘와 기층 생활어의 다양한 어휘와 어떤 상관성 및 시차성을 보여주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 다음은 2012년도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 조사’를 위하여 선정된 각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 근해의 섬들이다.

☆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지역



2.1.3. 제보자 선정 기준

이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방언학에서 적용하여 왔던 제보자 선정 기준(NORMs)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촌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은 조사 상황에 맞게 정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는 조사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한 50~60세 이상으로 어업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지역 토박이로 한다.
- 70세 이상의 제보자는 되도록 학력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중학교 정도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구술 발화 자료의 채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담이 있는 사람이 제보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전사 지침

※ 어휘 수집을 위한 전사 지침을 따르되, 음운론적인 정밀 전사가 필요한 경우(구술전사 등)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전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 올림말(표제항) 및 용례

- 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어간을 밝혀 적는다.
- ② 유기음화, 경음화, ㄷ-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등과 같은 공시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한 음운변화나 음성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국또 → 국도, 가치 → 같이, 노코 → 놓고, 실라 → 신라, 감만 → 값만,
 흑또 → 흑도

- ③ 일반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해서 예상되지 않는 음운변화 혹은 음성변화 또한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어휘들이 올림말로 선정될 경우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예) 김빡 → 김밥, 양념간장 → 양념간장, 서울써 → 서울서, 돈또 → 돈도

- ④ 단모음 ‘ㄱ’이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 것도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단모음 ‘ㄴ’이 이중모음 [we]나 [e]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되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차웨 → 참웨(참외), 헤이 → 헤이(회의) 등

- ⑥ 이중모음 ‘ㄴ’이 예측가능한 음성환경에서 [e]나 [i]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민주주의 → 민주주의

나에 → 나의

이사 → 이사(의사)

이자 → 이자(의자)

- ⑦ 이중모음 ‘ㄴ’이 [ㄴ]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의사 → 으사(의사)

나으 → 나으(나의)

으자 → 으자(의자)

- ⑧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ㄷ’이 [d]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지혜 → 지혜

해성 → 해성

- ⑨ 단모음 ‘ㄷ’나 ‘ㅌ’이 [E]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ㄷ’이면 ‘ㄷ’, ‘ㅌ’이면 ‘ㅌ’로 전사한다.

예) 대떡[E-] → 대떡

- ⑩ 단모음 ‘ㅡ’나 ‘ㅣ’가 [ɐ]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ㅡ’이면 ‘ㅡ’, ‘ㅣ’이면 ‘ㅣ’로 전사한다.

- ⑪ 전설 모음 앞에서 ‘ㅅ’이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샤람 → 사람

세수 → 세수 등

- ⑫ 음장은 별도의 기호를 두어 전사하지 않으며, 다만 올림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 ⑬ 체언 어간말 자음 ‘ㄷ, ㅌ, ㅈ, ㅊ’ 등이 곡용 패러다임에서 마찰음 ‘ㅅ’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소리는 나는 대로 전사하고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둔다.

예) 바시 → 바티(발이)

저시 → 젓이(젓이)

꼬시 → 꽃이(꽃이)

- ⑭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변이형들은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보듬기다>보둥기다,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⑮ 변자음화에 의한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익꼬 → 있고, 묵꼬 → 묻고(埋) 등

- ⑯ 표준어에서 ㅅ-불규칙, ㅂ-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이 정칙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한다.

예) 이서서, 부서라, 지서라 등

추버서, 매버서, 짜버서 등

2.3. 올림말 선정 지침

2.3.1. 일반 원칙

- ① 모든 어휘론적 변종들은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 단순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장, 장단,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자음군단순화, 위치동화, 활음화, ㄷ-구개음화(형태소 경계)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의 예측이 가능한 표면형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다음의 올림말 선정 세부기준을 참고하되, 필요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올림말 선정의 예외를 결정한다.

2.3.2. 세부기준

- ① 움라우트 실현형 : 괴기, 핵교, 호랭이, 귀경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게재자음 제약에도 불구하고 움라우트가 실현된 경우에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매디(마디), 쇠리(소리), 개지다(가지다) 등).
- ② 어두경음화 실현형 : 걱정(걱정), 쏘주(소주), 까지, 깨구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ㄱ-구개음화 실현형 : 질(길), 지둥(기둥)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④ ㅎ-구개음화 실현형 : 성(형), 소자(효자), 심(힘), 송년(흥년) 등
 -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⑤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어간재구조화형 : 흑(흑), 닥(닭), 갑(값)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⑥ 체언 어간말 자음 ‘ㄷ’와 ‘ㄴ’의 음운론적 교체형 : 바대(바다), 가매(가마), 감재(감자), 봉에(봉어), 고등에(고등어), 잉에(잉어)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⑦ 치찰음화(혹은 구개모음화) 실현형 : 벼슬(벼실), 찌나물(쓰나물), 씨다(쓰다, 苦)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⑧ 모음 상승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ㅏ>ㅗ : 자두(자도), 삼촌(삼촌), 사둔(사돈), 가우리(가오리)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ㅡ : 그지(거지), 은니(언니), 그짓말(거짓말) 등
 -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ㅞ>ㅣ : 기(蟹), 시상(세상), 히푸다(헤푸다) 등

-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⑨ 유음 아래서 ‘一’의 전설모음화 : 흐리다(流), 마리다(마르다), 고리다(고르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⑩ 순음 아래서 ‘· > ㅓ’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 몰(馬), 팔(팔), 뵈다(봔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⑪ 어두음절에서 ‘ㅓ > ㅕ’의 교체형 : 새다리(사다리), 채곡채곡(차곡차곡), 재갈(자갈)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⑫ 순음 아래서 ‘ㅓ > ㅓ’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체형 : 봉어리(병어리), 볼(벌), 보짐(버짐), 모루(머루)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⑬ 자음첨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ㅁ-첨가 : 모가지 > 모감지, 호맹이 > 흙맹이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ㄴ-첨가 : 고치다 > 곤치다, 까치 > 깐치, 무치다 > 문치다, 나중 > 난중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ㄹ-첨가 : 고르다 > 골르다, 도르다 > 돌르다(숙이다, 흙치다), 지리 > 질리(길이)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ㅇ-첨가 : हे구다 > 행구다, 바우다 > 방우다(배우다), 베이다 > 뺑이다(배우다)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⑭ 단순 모음 교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ㄱ. ㅓ > ㅓ : 망 > 명(그물), 쇠망 > 쇠명, 살강 > 설경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ㅓ > ㅓ : 구석 > 구삭, 흘청 > 흘창, 베개청 > 베개창, 수령 > 수량, 뚜정 > 뚜깡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ㅣ > ㅓ : 비늘 > 베늘, 비누 > 베누, 함씨 > 함쎄(할머니), 개비 > 게베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 ㄹ. ㅓ > ㅓ : 고자리 > 괴자리, 도토리 > 뒀토리, 코 > 괴, 꼬랑 > 피랑(도랑), 고 > 괴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ㅁ. ㅓ > ㅓ : 괴기 > 게기, 괴비 > 게비(식물), 외우다 > 에우다, 뒀시다 > 메시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ㅂ. ㅓ > ㅓ : 구저리 > 귀저리(구더기), 굴뚝 > 꺄뚝, 꾸다 > 꺄다, 추다 > 취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ㅅ. ㅓ > ㅓ : 꿩이 > 꿩이, 왜홀태 > 외홀태, 산토펙이 > 산토펙이, 꿩 > 꺄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⑮ 단순 자음 교체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자음교체가 지역적 특성일 경우는 예외)
- ㄱ. ㅂ>ㄱ : 자봉침>자광침, 버마제비>거마제비, 덩석>덕석, 고부리다>고구리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ㄴ. ㅂ>ㄴ : 진눈깨비>진눈깨미, 버버리>버머리, 땅개비>땅개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ㄷ. ㅁ>ㅂ : 나막신>나박신, 대리미>대리비, 입감>입갑, 비점>비점(버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ㄹ. ㄱ>ㅂ : 주걱>주벽, 웅구럭대기>웅구럽대기(미꾸라지)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ㅁ. ㄱ>ㅇ : 닥성냥>당성냥, 복송씨>봉송씨, 꼭다리>꽁다리(꼬리), 물팍>물팡(무릎),
어덕>어딩(언덕), 꼭사리>꽁사리(송사리), 등
☞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 ㅂ. ㄱ>ㅎ : 아곱>아홉, 뚝>뚫, 숙->송-(雄), 군지>훈지(그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⑯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안기다>양기다, 암캐>양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⑰ ‘ㄹ’ 삽입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형 : 앓다>안즈다, 엮다>여끄다, 양기다>양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⑱ ‘ㄷ’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여수~여시, 가슬~가실, 잇다(이서라~잇꼬), 붓다(부서라~붓꼬)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⑲ ‘ㅂ’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술~소풀~소불(부추), 장팡~장꼬방(장독대), 마름~말밤, 덩다, 춥다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⑳ ‘ㄱ’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가새~가시개, 몰개~모래, 생강~새양, 시렁~실경, 개암~깨금, 질구다~지루다(기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㉑ 평음의 유기음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차꼬(자꾸), 혼차(혼자), 펑퐁(병풍), 팍나(밤낚), 폴세(벌써), 탐박질(달음박질), 몬차(먼저), 클씨(글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㉒ 어간말 자음 ‘ㅈ, ㅊ, ㅌ’ 등의 어간재구조화(마찰음화) : 꽃(꽃), 옷(옷), 빗(빗)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㉓ 용언의 어간재구조화형은 한글로 표기할 수 있을 경우 : 굶다(견다), 끓다(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2.4. 뜻풀이 지침

2.4.1. 기본 원칙

- ① 순환적인 뜻풀이를 피해야 하며 뜻풀이에 표제어의 일부나 관련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고리타분하다『형』 고리고 타분하다.
- ② 한 단어로 뜻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뜻풀이는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줄여 뜻풀이한다.
- ④ 가능하면 문학작품이나 입말 자료 등에서 다양한 용례를 찾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2.4.2. 뜻풀이 형식

- ① 정의항은 기본적으로 ‘종차+유개념’의 형식을 따른다. 이때 명사는 명사(형)로, 동사나 형용사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부사와 관형사는 각각 그에 맞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뜻풀이한다.
예) 자배기01 #5 「명」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종차
└>유개념
- ② 올림말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 부가 뜻풀이를 정의항 다음에 제시한다. 이때 ‘짧은 정의+설명’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설명’ 부분은 반드시 종결어미 ‘-다’로 끝나는 형식으로 한다.
예) 간01 #5 「명」 「1」 음식물에 짠맛을 내는 물질. 소금, 간장, 된장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③ 생활어 및 직업어에서 조사된 모든 올림말은 뜻풀이를 한다.

2.4.3. 뜻풀이 용어

- ① 뜻풀이에 사용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표제어로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 단, 해당 표제어가 전문어인 경우에는 표제어가 아닌 단어를 뜻풀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뜻을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는 용어를 고르되, 가급적 쉬운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③ 한자어와 고유어가 비슷한 빈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고유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원칙적으로 준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준말이 사용 빈도가 높거나 문맥상 준말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는 준말을 사용할 수 있다.

제 2 부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제 2 장 제주도 근해(추자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제 3 장 동해 근해(울릉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제 4 장 서해 근해(외연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제 5 장 남해 근해(욕지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제 2 장 제주도 근해(추자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1. 연구 추진 과정

1.1. 조사 계획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에서 어촌 생활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제주 문화의 고갱이가 바다와 관련한 어촌 생활어에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어촌생활의 역사가 언어유산으로 기록될 때 그 문화적 의미는 크다. 따라서 어촌 생활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지구 생태계의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변화는 어촌 생활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해양 자원의 고갈과 변종들의 등장으로 해양 자원과 관련된 어휘 소멸을 수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주의 어촌 생활어도 마찬가지다.

어촌 생활어는 어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업과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의해 생성된 문화, 즉 신앙·풍속·전승문화 등에서 배태된 언어를 말한다. 이번 2012년 민족 생활어 어촌 생활어 조사 지역을 추자도로 삼은 것은 지금까지 추자도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자도 주민들의 생활권이 제주도와 전라도라는 이중 지역에서 이루어져 그 언어 또한 특이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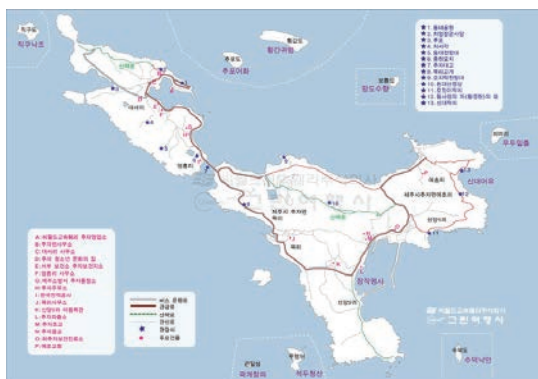
추자도(楸子島)는 동경 126° 17'3 북위 33° 57'30" 동 해안도와 제주도 중간 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행정구역으로는 제주도 추자면에 속해 있다. 대서리, 영흥리, 묵리, 신앙1·2리, 예초리 등 6개의 마을과 신상리·횡간도·신하리·장작리·추포리 등 9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추자도는 주변에 42개 도서(유인도 4, 무인도 38)로 형성된 제주도의 다도해로 전형적인 어촌 지역이다. 2012년 1월 31일 현재 6개 마을에 1228세대 240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775명(어업인 1642명, 잠수 133명)의 주민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추자도는 어종이 풍부할 뿐 아니라 조기, 멸치, 삼치 등 풍부한 어장을 형성한다. 전에는 멸치 어장과 삼치 어장이 주로 형성되었다면 요즘은 조기 어장이 잘 발달하여 조기가 추자도를 대표하는 어종이 되고 있다. 이처럼 추자도는 생태계의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지역이며 기존의 해양생태계와 현재의 해양생태계 관련 어휘가 공존하여 이에 관한 조사, 정리가 필요하다.

추자도 해녀들은 소라, 전복, 홍합, 오분자기, 굴 등의 해산물과 미역과 모자반, 툇 등의

해조류를 채취한다. 어부들은 조기, 삼치, 멸치, 방어 잡이 등 다양한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해안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추자도는 어촌 생활어가 잘 발달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추자도는 행정구역은 제주도, 생활권은 제주도와 전라도여서 언어 양상도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예비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방언과 별개라던 추측과는 달리 추자도의 어촌 생활어 속에 제주도방언과 같은 어형이 조사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추자도의 어촌 생활어의 집적은 물론이고, 추자도의 어촌 생활어가 제주도방언, 전라도방언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림 1] 추자도 지도



[사진 1] 추자도 신양항

제보자는 추자도 출신으로 섬을 오래 떠나지 않은 60대 이상의 어부와 잡녀 등을 선정하여, 밀착 조사하는 민족지적 방식을 취할 것이다. 조사는 미리 작성한 기초어휘 조사 질문지(314문항)를 토대로 하여 기본 문항과 관련된 어휘를 추가하여 어휘망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기초 어휘는 행위자, 환경(시간, 물때, 날씨, 바람, 공간 등), 어획물(물고기, 조개류, 게, 해조류, 기타), 어로도구(그물류, 낚시류, 배, 물질도구), 어로 방법과 어로 행위, 음식(종류, 행위, 맛, 상태 등), 민속(해녀굿, 금기어, 민요 등) 등과 관련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조사 항목과 관련한 사진 자료가 있으면 충실히 활용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보자를 여럿 선정하여 추자도의 어촌 생활어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2. 조사 보고

1.2.1. 제보자

추자도 어촌 생활어 조사를 위한 제보자는 추자면장과 추자도수협조합장의 도움을 얻어



[사진 2] 최소녀

선정된 제보자와 조사자가 조사 과정에서 직접 만난 제보자 등 총 8명이다.

① 최소녀(여·84세)/추자면 대서리

- 열일곱에 물질을 배워서 작년까지 무레꾼(해녀)으로 살고, 지금도 툼툼이 바다 일을 하고 있음.
- 평생을 물질하며 살아서인지 어촌생활과 관련해서 해박함.

- 슬하에 7남매를 두고 있음.

② 원용순(남·80세)/추자면 대서리

- 추자도의 유지 가운데 한 명임.
- 젊어서는 공직생활을 함.
- 대서리에서 민박을 운영하며 낚싯배도 운영하고 있음. 추자도 토박이여서 어촌 생활어 전반에 대하여 제보해 줌.
-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음.

③ 김석권(남·73세)/추자면 대서리.

- 추자도 대서리 노인회장.
- 추자도 어촌생활어 기초어휘 조사에 협조함.



[사진 3] 박철울 박은섭(오른쪽)

④ 박철울(남/65세)/추자면 신양리.

- 추자면 신양리 어촌계장.
- 어려서 배를 타기 시작하여 어부로 삼치잡이 등을 함.
- 무레꾼이 섬으로 무레질을 나갈 때 타고 가는 배의 선장임. 추자도의 특산물의 하나인 신양리의 '담추'(홍합) 잡이를 책임지고 있음.
- 담추잡이 배와 담추 사진 촬영에 도움을 줌.
- 제보자 박은섭의 남편임.

⑤ 박은섭(여·64세)/추자면 신양리.

- 추자면 신양리 태생으로 시집와서 무레질을 배워 상군 해녀로 무레질을 하고 있음.
- 기초 어휘 조사 일부와 물질 도구, '담추', '꾸죽' 등의 사진 촬영을 도와 줌.



[사진 4] 김옥섭

⑥ 김옥섭(여/83): 추자면 영흥리.

- 추자면 예초리 출신으로 영흥리로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물질을 배워서 무례꾼으로 살아옴. 지금도 바다 일을 하고 있어 어촌 생활어 제보자로 적합함.
- 젊어서는 남편과 함께 멸치잡이, 상어잡이를 한 경험을 갖고 있음.
- 김을 채취해 자연산 김을 만들어 팔기도 함. 김발과 김

틀을 갖고 있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었음.

- 제보자 집에는 바닷가에서 따온 배말과 새담추, 군벚 등이 있어서 해산물 촬영도 할 수 있었음.

⑦ 고창완(남·72세)/추자면 대서리.

- 평생을 어부로 살아옴.
- 열일곱 살에 하장으로 조깃배를 타기 시작하여 추자도에 조기어장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연평도와 흑산도까지 조기잡이를 다녀옴.
- 40대에 자신이 직접 배를 부리기 시작하여 지금도 배를 부리며 삼치잡이, 방어잡이 등을 하고 있음.
- 추자도의 어종에 대해서 조사함.

⑧ 이정자(여·68)/추자면 대서리

- 등대 민박 운영.
- 조기를 소금에 간질하고 말리는 과정과 조기구이 등을 촬영할 수 있게 도와줌.

제보자 일람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연번	조사대상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기타
1	추자도 어촌생활 기초어휘	최소녀	여	84	추자면 대서리	
2		원용순	남	80	추자면 대서리	
3		김석권	남	73	추자면 대서리	
4		박철을	남	65	추자면 신양리	
5		박은섭	여	64	추자면 신양리	
6		김옥섭	여	83	추자면 영흥리	
7		고창완	남	72	추자면 대서리	
8		이정자	여	68	추자면 대서리	

1.2.2. 조사 기간과 방법

추자도 어촌 생활어 조사는 2012년 2월부터 9월말까지다. 추자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였다. 기초어휘 현장 조사는 2012년 2월 4일부터 8일(5일)까지 1차 조사를 실시하고, 7월 27일부터 29일까지(3일간) 2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조사 기간에는 추자도의 어촌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사진 촬영을 하고, 2차 조사 기간에는 추가 확인 조사와 사진 촬영을 하였다. 조사는 면대면 방식으로 질문지 순서대로 조사를 하고, 확장 어휘가 조사될 수 있도록 구술채록 방식을 택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녹음기와 카메라, 사진 자료, 도감 등을 활용하였다.



[사진 5] 조사 장면

채록된 구술 자료는 전사하여 어휘와 용례를 추출한 후 뜻풀이를 정리하였다. 다음은 일정별 조사 내용이다.

일정별 조사 내용

일 정	조사내용	장 소	도 구
2~5월	문헌 조사		
2.4.	제보자 물색, 사진 촬영	신양리 바닷가	카메라
2.5.	어촌생활어 기초 어휘 1차 조사	대서리 노인회관, 고창완의 집	녹음기
2.6.	어촌생활어 기초 어휘 2차 조사	제보자 원용순, 최소녀의 집	녹음기 카메라
2.7.	어촌생활어 기초 어휘 3차 조사	신양리 마을회관	녹음기
2.8.	사진 촬영	신양 항구	카메라
7.27.	어촌생활어 기초 어휘 4차 조사, 사진 촬영	제보자 최소녀의 집	녹음기 카메라
7.28.	어촌생활어 기초 어휘 5차 조사, 사진 촬영	제보자 김옥섭, 박철율의 집, 신양리 항구, 영흥리 포구	녹음기 카메라
7.29.	사진촬영	대서리 바닷가, 추자도수협	카메라
5~8월	조사 음성 전사와 어휘 정리		
9월	보고서 작성		

1.2.3. 조사 장소

조사는 제보자(최소녀, 원용순, 박철율, 고창완)의 집과 추자도 대서리 노인회관, 신양리 마을회관, 신양리·대서리·영흥리 바닷가에서 이루어졌다.

1.3. 조사 내용

2012년 민족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는 미리 작성한 조사 질문지(314문항)를 토대로 하여 기본 문항과 관련한 어휘를 추가하여 어휘망을 확장하며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	세부 항목 조사
행위자	어부, 뱃놈, 뱃사람, 선장, 사공, 간판장, 보신, 해녀, 무레꾼 등
환경	한무새날, 두무새날, 서물, 열두무새날, 아적조기, 한조기, 무수, 민물, 선물, 물든다, 물쓰다, 샛바람, 하누바람, 마파람, 늦하누, 동마손, 솜눈, 달식, 월식, 큰개안, 독두말, 암바위, 평지바위, 둌병 등
어획물	조구, 멜치, 삼치, 고시, 농어, 방어 등 물고기 이름과 부분명칭, 펜푸, 해심, 담추, 꿀, 전복, 몰, 톳, 미역, 풍각, 퍼레 등 해조류 등
어로 도구	배, 조긱배, 상에배, 떼베, 어장배, 노, 살대, 치, 형서리, 두룽박, 조망태, 바굼지, 조락, 쪽바지, 낚시, 인조인깁, 술테, 술 등
어로 행위	파다, 따다, 잡다, 무레질, 몰리다, 땡기다, 수질가다, 올리다, 실파, 창질하다, 쏘다, 끌르다 등
음식	새비젓, 멜젓, 조구젓, 알금치젓, 펜푸젓, 담추젓, 우뭇국 등
민속	고사, 뱃고사, 치송하다,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예뻐네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가라, 물질 가기 전에 돈 놈 안 준다, 정월 초하룻날은 돈 안 빌려준다, 치자 든 고기는 제사상에 안 올린다 등

1.4. 조사 결과물

추자도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 조사 결과물은 한글 조사 보고서와 음성파일, 사진파일, 엑셀파일로 이루어진다. 조사 보고서는 어휘에 따른 대응표준어와 뜻풀이, 용례, 사진 자료 등을 곁들여 작성되었다. 엑셀파일도 뜻풀이와 용례 등을 담아내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추자도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와 관련하여 조사된 어휘는 509¹⁾개다. 이 가운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림말로 등재되지 않은 어휘는 304개다. 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조사내용	조사어휘		음성자료		영상자료	
기초어휘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	전사	사진	
	509	304	9	5	56	

1) 조사된 어휘 가운데는 개인 주제인 '추자도 고기잡이' 관련 어휘와 중복된 어휘도 포함되어 있다.

2. 조사된 어휘

2.1. 행위자

2.1.1. 어부

1) 어부, 뱃놈, 뱃사람

‘어부, 뱃놈, 뱃사람’은 추자도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뱃놈’은 ‘뱃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이름이다.

⇒ {뱃사람이라고}, 옛날에 흔히 {뱃놈} {뱃놈} 해여요.

2) 선장, 사공

‘선장’은 ‘배의 항해와 배 안의 모든 사무를 책임지고 선원들을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를 말한다. 예전에는 추자도에서 선장 대신 ‘사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다고 한다.

⇒ {선장이다} 했을 걸. {사공이라고도} 했구나. 옛날에는 {사공}.

⇒ 우리가 알기로는 치 잡은 사람은 {사공이고} 그러고 {선장} 밑에서 하는 간판장 말고.

3) 간판장

‘간판장’을 추자도에서 ‘갑판장’을 일컫는 말이다. ‘간판장’은 갑판에서 일하는 일반선원들의 책임자로, 선체와 갑판설비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책임진다.

⇒ 우리가 알기로는 치 잡은 사람은 사공이고 그러고 선장 밑에서 하는 {간판장} 말고.

4) 보신

‘보신’은 선장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간판장은 이물에서 일하고 선장 보조하는 사람보고 {보신이라고} 해요.

2.1.2. 해녀

1) 무레꾼, 해녀, 추자해녀, 제주해녀

‘무레꾼’은 바다에서 해산물 따위를 전문적으로 따는 사람을 일컫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해녀’



[사진 6] 무레꾼

의 다른 말이다. ‘추자해녀’는 추자도의 해녀를, ‘제주해녀’는 제주도 해녀를 가리킨다.

- ⇒ {무례꾼은} {해녀} 소라 잡고 있다 그라고.
- ⇒ {제주해녀들은} 이 저 성게라 하면서 그 굴밤수를 알을 많이 이렇게 크게 돈을 받는데 우리 {추자해녀들은} 성게를 굴밤수 그거 파서 뭐 돈 사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잘 먹지도 안 해요.

행위자에 대한 조사 어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		조사 어휘
행위자	어부	어부, 뱃놈, 뱃사람, 선장, 사공, 간판장, 보신
	해녀	무례꾼, 해녀, 추자해녀, 제주해녀

2.2. 환경

2.2.1. 물때

1) 한물, 한무새날, 한무셋날

‘한물, 한무새날, 한무셋날’은 추자도에서 한무날을 일컫는 말이다. 추자도에서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초열흘과 스무닷새일을 이르는 말이다.

- ⇒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
- ⇒ {한무새날부터} 아적조기부터 덩기른 한 열흘 덩겨. {한무새날이} 초열흘이 {한물}.
- ⇒ 담추는 {한무셋날} 두무셋날 이자 아적조기 그렇게 가서 따지. 담추도 물 썰 때는 못가.

2) 두물, 두무셋날

‘두물, 두무셋날’은 추자도에서 두무날을 일컫는 말이다.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11일과 26일의 물때를 말한다.

- ⇒ 한물 {두물} 서물 날이 좋으고 물때에 따라서 가요.
- ⇒ 담추는 한무셋날 {두무셋날} 이자 아적조기 그렇게 가서 따지. 담추도 물 썰 때는 못 가.

3) 서물

‘서물’은 추자도에서 ‘서무날’을 가리킨다.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12일과 27일의 물때를 말한다. ‘한무셋날, 두무셋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무날을 ‘서무셋날’이라고도 할 것 같다.

⇒ 한물 두물 {서물} 날이 좋고 물때에 따라서 가요.

4) 너무새날, 네물, 니물

‘너무새날, 네물, 니물’은 추자도에서 ‘너무날’을 가리키는 용어다.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13일과 28일의 물때를 말한다.

⇒ 그리고 {너무새날} 넘으론 물에서 시께 해녀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와서 쉬고.

⇒ 해가 질고 날이 좋을 때는 젊은 사람들은 {너무새날까지} 가요.

5)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다섯물’은 추자도에서 ‘다섯무날’을 가리키는 용어다. 무수기로 볼 때 음력으로 14일과 29일의 물때다. ‘여섯물’은 추자도에서 ‘여섯무날’을 가리키는 용어다. 무수기로 볼 때 음력으로 15일과 30일의 물때다. ‘일곱물’은 추자도에서 ‘일곱무날’을 가리키는 용어다. 무수기로 볼 때 음력으로 1일과 16일의 물때다. ‘여덟물’은 추자도에서 ‘여덟무날’을 가리키는 용어다. 무수기로 볼 때 음력으로 2일과 17일의 물때를 가리킨다. ‘아홉물’은 추자도에서 ‘아홉무날’을 가리키는 용어다. 무수기로 볼 때 음력으로 3일과 18일의 물때다. ‘열물’은 추자도에서 ‘열무날’을 가리키는 말이다. 무수기로 볼 때 음력으로 4일과 19일의 물때다. ‘열한물’은 추자도에서 ‘열한무날’을 가리키는 말이다. 무수기로 볼 때 음력으로 5일과 20일의 물때다.

⇒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

6) 열두물, 열두무새날

‘열두물, 열두무새날’은 추자도에서 ‘열두무날’을 가리키는 말이다. 무수기로 볼 때 음력으로 6일과 21일의 물때다.

⇒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

7) 조금

‘조금’은 조수(潮水)가 가장 낮은 때를 이르는 말이다. 추자도에서는 ‘아적조기, 한조기, 무수’ 때를 이른다. 표준어 ‘조금’과 같다.

8) 아적조기, 아침조기

‘아적조기, 아침조기’는 추자도에서 ‘아츠조금’을 일컫는 말이다. 음력으로 7일과 22일의

물때를 말한다.

- ⇒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
- ⇒ 한무새날부터 {아직조기부터} 덩기른 한 열흘 덩겨.
- ⇒ 담추는 한무새날 두무새날 이자 {아직조기} 그렇게 가서 따지. 담추도 물 썰 때는 못 가.

9) 한조기, 한조금

‘한조기, 한조금’은 추자도에서 무날을 썰 때 초여드레와 스무사흘의 물때를 말한다. 표준어로 ‘한조금’이라고 한다.

- ⇒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이제 {한조금이른} 인자 한 열흘이나 덩겼지.

10) 무수

‘무수’는 한무날과 한조금 사이에 있는 조금에 속한다. 밀물이 제일 적다. 추자도에서 초아흐레와 스무나흘의 물때를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무수’를 [1] ‘무쉬’의 잘못, [2]무쉬의 북한어로 올라 있다.

- ⇒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쓰무나흘이 {무수}/한물 전을 {무수라고} 해요.

2.2.2. 미세기

1) 민물, 선물

‘민물’은 조수의 간만으로 해면이 상승하는 현상. 간조에서 만조까지를 이르며 하루에 두 차례씩 밀려들어온다. 표준어 ‘밀물’에 해당하고, ‘선물’은 ‘달의 인력(引力)으로 바닷물이 밀려 나가서 해면이 낮아지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을 가리킨다. 표준어 ‘썰물’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2) 물든다, 물쓰다

‘물든다’는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들어오다’는 의미로 표준어 ‘물밀다’에 해당하고, ‘물쓰다’는 ‘밀려들어왔던 바닷물이 물러나가다’는 의미이다. 표준어 ‘물써다’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아적에는 {물쓰면은} 물에 갇가시 가고 {물들믄} 산에 가서 또 밭일 하고, 또 나무 하고 그레가지고 세상을 다 넘었어요.

⇒ 이렇게 바다에 {물쓰며는} 다 물이 뺏고 이렇게 군데 군데 고여 있는 그 보고 둠방이라고.

3) 사리빨

‘사리빨’은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를 말한다. 표준어 ‘한사리(=사리)’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2.2.3. 하루

1) 세백, 아침, 아적, 낮, 점심, 저녁, 밤

하루의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로 추자도에서 ‘세백, 아침, 아적, 낮, 점심, 저녁, 밤’이 있다. ‘세백’은 표준어 ‘새벽’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생활어고, ‘아적과 아침’은 ‘아침’, ‘낮과 점심’은 ‘낮’, ‘저녁’은 ‘저녁’, ‘밤’은 ‘밤’이다.

- ⇒ 물질 갈 때 {아침부터} 돈 놔 안 주는 거.
- ⇒ {아적에는} 물쓰면은 물에 갇가시 가고 물들문 산에 가서 또 밭일 하고, 또 나무 하고 그레가지고 세상을 다 넘었어요.
- ⇒ 지금 {아적} 아닙니까. {아침}, {점심}, {저녁}, {낮}. 열두시 {낮}. {저녁} 다섯시 여섯 시 되면은 {저녁} 아닙니까?{밤이라고} 해요.

2.3. 날씨

2.3.1. 바람

1) 섯바람, 동풍

‘섯바람’과 ‘동풍’은 추자도에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일컫는 말이다.

- ⇒ 동풍 {섯바람} 불어서 뉘친다. 하누바람 불어서 뉘친다 이 얘기는 하죠.
- ⇒ 추자도는 {동풍이} 올 때는 그렇게 쏘나기가 우우하니 떨어지지 않아요.

2) 하누바람, 늦바람

‘하누바람’과 ‘늦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일컫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동풍 섯바람 불어서 뉘친다. {하누바람} 불어서 뉘친다 이 얘기는 하죠.
- ⇒ {늦바람} 서쪽에서 부는 바람요. 바로 서쪽에서. {하누바람을} {늦바람이라} 그래요.
- ⇒ {하누바람을} 옛말로 {늦바람이다} 그래요.

3) 마파람

‘마파람’은 추자도에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일컫는 말이다.

⇒ 여기서 쏘나기가 올 때는 남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마파람이라} 하는데 {마파람} 쏘나기 떨어졌다.

4) 뽕바람

‘뽕바람’은 추자도에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일컫는 말이다.

⇒ 북쪽은 {뽕바람}.

5) 뽕새

‘뽕새’는 추자도에서 북쪽과 동쪽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일컫는 말이다.

⇒ 북동풍 {뽕새다} 그래요. 우리말로 {뽕새}.

6) 뽕하누

‘뽕하누[뽕파누]’는 추자도에서 북서풍을 가리키는 말이다.

⇒ 북서풍은 {뽕하누}.

7) 동마손

‘동마손’은 추자도에서 남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일컫는 말이다.

⇒ {동마손} 동남.

8) 뽕하누

‘뽕하누[뽕타누]’는 추자도에서 서남풍을 가리키는 말이다.

⇒ 서남 아니 남서풍을 뭐라 하나. 아 {뽕하누가}, {뽕하누구냐}.

9) 회오리바람

‘회오리바람’은 ‘갑자기 한곳의 기압이 낮아질 때 둘레의 공기가 한꺼번에 모여들어 나선모양으로 팔려 올라가는 바람’이다. 추자도에서도 ‘회오리바람’이라고 한다.

⇒ 그냥 {회오리바람이라} 하고.

10) 불다, 세다, 씨원하다

‘불다’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다’는 의미다. ‘세다’는 ‘물, 불, 바람 따위의 기

운이 크거나 빠르다’는 의미로 쓰인 경우이고, ‘알맞게 서늘하다’는 의미로 추자도에서는 ‘바람이 씨원하다’라고 말한다.

⇒ 하누바람 {불어서} 뉘친다 이 얘기는 하쵸/물이 {씨니까}.

2.3.2. 비

1) 쏘나기, 마파람 쏘나기 떨어지다

‘쏘나기’는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를 말한다. 표준어 ‘소나기’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마파람 쏘나기 떨어지다’는 추자도에서 마파람이 불 때 소나기가 잘 내리기 때문에 굳어진 관용어다.

⇒ 여기서 {쏘나기가} 올 때는 남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마파람이라 하는데 {마파람 쏘나기 떨어졌다}/추자도는 동풍이 올때는 그렇게 {쏘나기가} 우우하니 떨어지지 않아요.

2) 이슬비, 가랑비

‘이슬비’는 추자도에서는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를 말한다. 추자도에서는 ‘가랑비’도 ‘이슬비’의 다른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가랑비’를 ‘이슬비보다 굵게 내리는 비’라고 해서 구분하고 있다.

3) 장마

‘장마’는 추자도에서 ‘장맛비’를 일컫는 어휘다.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또는 그 비를 말한다.

⇒ 유월 {장마} 들었다. 인제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지요.

4) 억수장마

‘억수장마’는 추자도에서 ‘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말한다. 표준어 ‘억수’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억수장마로} 퍼부순다.

5) 호령이 장게가다

추자도에서 ‘여우비’에 대응하는 어촌 생활어는 조사되지 않았다. 대신 ‘여우비’의 의미로 쓰이는 ‘호령이 장게간다’는 관용구가 조사되었다. ‘호령이 장게간다’는 햇볕이 나면서 비가 오는 것을 말한다.

- ⇒ 인자 비가 왔다가 해빛이 나 {호령이 장계간다}. 할머니네가 하는 소리가 {호령이 장계간다}.
- ⇒ 비가 오다가 갑자기 개고 해나면 {호령이 장가 갈라}고 비왔다가 해가 비치고 한다고 그런 애기도 해요.

6) (비나 눈이) 오다, 내리다, 개다

‘비나 눈이’ 올 때 추자도에서는 ‘비 오다’ 또는 ‘비 내리다’라고 한다. ‘내리다’라는 표현 보다는 ‘오다’를 즐겨 쓰는 것 같다. ‘개다’는 흐리거나 궂은 날씨가 맑게 되다는 의미다.

- ⇒ 비가 {오다가} 갑자기 {개고} 해나면 호령이 장가 갈라고 비왔다가 해가 비치고 한다고 그런 애기도 해요.

2.2.3. 눈

1) 숨눈, 싸락눈, 눈비

‘숨눈’은 추자도에서 ‘함박눈’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선말대사전》에는 표제어로 올라 있고, 《우리말큰사전》에는 황해도의 방언으로 등재되어 있다. ‘싸락눈’은 ‘싸라기눈’, ‘눈비’는 ‘진눈깨비’를 가리키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숨눈} 온다.

2) 고드름

추자도에서 ‘고드름’은 표준어형인 ‘고드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추자도에서는 고드름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 ⇒ 옛날은 {고드름이} 얼었는데.

3) 얼다

‘얼다’는 ‘액체나 물기 있는 물체가 찬 기운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지다.’는 의미다. 표준어도 ‘얼다’다.

- ⇒ 옛날은 고드름이 {얼었는데}.

2.2.4. 해 · 달 · 별

1) 동쌀 준다, 동쌀 튼다, 샛바람 불라고 동쌀 튼다

‘동쌀 준다’는 추자도에서 해가 바로 뜰 무렵에 햇살이 퍼지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이다. ‘동쌀 튼다’는 해뜰 무렵에 동쪽이 벌겍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추자도 사람들은 ‘샛바람

불라고 동쌀 튼다’고 해서 아침에 동쪽이 벌개면 섯바람이 분다고 인식하고 있다.

- ⇒ 해가 뜰라고 딱 할 때 {동쌀 준다}.
- ⇒ 동쪽에 벌거니 할 때는 {섯바람 불라고 인자 동쌀 튼다} 서쪽에서 해가 질 때 벌가며는 이삼일 후에 비올라고 거시기 벌개졌다.

2) 붉새, 해가 질 때 벌가면은 이삼일 후에 비온다

‘붉새’는 ‘저녁 때 하늘이 붉게 물드는 현상’을 일컫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추자도 사람들은 ‘붉새’를 하면 날이 궂겠다고 관념하고 있다. ‘해가 질 때 벌가면은 이삼일 후에 비 온다’고 한다.

- ⇒ {날궂칠라고 비올라고 저녁 붉새한다} 그런 말도 한다.
- ⇒ {서쪽에서 해가 질 때 벌가며는 이삼일 후에 비올라고 거시기 벌개졌다}.
- ⇒ 날 궂칠라고 섯바람 짹에서 {붉새한다}.

3) 감새가 높이 뜨면 바람 분다

‘감새가 높이 뜨면 바람 분다’는 말은 갈매기가 높이 뜨면 바람이 분다는 뜻이다. ‘감새’는 ‘갈매기’의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감새가 높이 이렇게 뜨면 {감새가 높이 뜬 것이 바람 불것다} 우리 앉아서 그런 말 해요.

4) 햇머리, 햇머리 한 것이 날 궂치겠다

‘햇머리’는 햇빛이 대기 속의 수증기에 비치어 해의 둘레에 둥글게 나타나는 빛깔이 있는 테두리를 말한다. ‘햇머리’는 표준어 ‘햇무리’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추자도 사람들은 ‘햇머리를 하면 날이 우치겠다’고 인식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관용어가 ‘햇머리 한 것이 날 궂치겠다’다.

- ⇒ {햇머리 한 것이 날 궂치겠다}.

5) 달무리

‘달무리’는 달의 둘레에 생기는 둥근 고리 같은 것을 말한다. 추자도에서도 ‘달무리’라고 한다.

- ⇒ {달무리는} 쓰지요.

6) 은하수, 칠성, 은하수 꼬랑지다, 은하수 고랑지다

‘은하수’를 추자도에서는 ‘은하수’ 또는 ‘칠성’이라고 한다. 은하수가 길게 늘어진 모양을 두고는 ‘은하수 꼬랑지다, 은하수 고랑지다’라고 표현한다.

⇒ {은하수 꼬랑졌다}/{은하수가 물 흐르는 고랑졌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 많이 썼어요.

7) 뜨다

‘뜨다’는 ‘(해, 달, 별 같은 것이) 돌아 오르다’는 의미다.

⇒ 해가 {뜰라고} 딱 할 때 동쌀 준다.

8) 날 꺾치다

‘날 꺾치다’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때 하는 말이다.

⇒ 햇머리 한 것이 {날 꺾치겠다}.

2.2.5. 기타

1) 번개, 벼락, 천둥, 천둥소리, 하늘소리

추자도에서도 ‘번개’를 표준어형과 같게 쓴다. 벼락은 ‘베락, 벼락’이라고 하고, ‘천둥’은 ‘천둥’이라고 한다. 달리 ‘천둥소리’, ‘하늘소리’라고도 한다.

⇒ {천둥하면서} {번개} 친다. 비가 많이 올랑가 {번개} 친다.

⇒ {베락} 그것보고 날베락이야.

⇒ {하늘소리}나 {천둥소리}나 한 가지. 하늘에서 톱톱톱하고 {천둥소리}.

4) 구름

‘구름’은 추자도에서도 ‘구름’이라고 한다.

⇒ 달도 월식하고 해도 해식하고 달은 뭐시기 {구름이} 딱 개려불고.

5) 달식, 월식, 해식

‘일식’을 추자도에서는 ‘달식’과 ‘해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달식’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 전부나 일부가 보이지 아니함. 또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해식’은 ‘달이 태양의 일부나 전부를 가림. 또는 그런 현상.’을 말한다. ‘달식’은 달리 ‘월식’이라고 하는데, 표준어 ‘월식’에 해당하고, ‘해식’은 표준어 ‘일식’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달도 {월식하고} 해도 {해식하고} 달은 뭐시기 구름이 딱 개려불고.

7) 피말다

‘피말다[피마따]’는 ‘일식을 할 때 대야에 물 떠 놓아서 보면 개가 해나 달을 물었다 바로 빨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내빨다’의 전남 방언으로 올라 있다.

⇒ 영락없이 개가 그 해를, 달을 딱 물고 뜨겁게 {피말아부러}.

8) 달도 월식하고 해도 해식하는데 사람이라고 맘이 안 변하겠는가

이 말은 달도 월식하고 해도 해식(일식)하는데 사람도 맘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을 꼬집을 때 하는 말이다.

⇒ 옛날 말이 혹 {달도 월식을 하고 해도 일식을 하는데 사람이라고 맘이 안 변하겠냐고}.

9) 개리다

‘개리다’는 표준어 ‘가리다’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달도 월식하고 해도 해식하고 달은 뭐시기 구름이 딱 {개려불고}.

10) 시럽다

‘시럽다’는 표준어 ‘시리다’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11) 우네, 서리

‘우네’는 추자도에서 안개를 일컫는 말이고, ‘서리’는 표준어형인 ‘서리’를 그대로 쓴 경우다.

⇒ 안개 안 보이게 딱 끼는 것을 {우네} 찌다.

⇒ {서리라} 하는데 {서리는} 별로 많이 안 내리니까.

13) 무지개, 비가 올라고 무지개 친다, 무지개 치다

‘무지개’는 추자도에서도 ‘무지개’라고 한다. 추자도 사람들은 무지개가 뜨면 ‘비가 올라고 무지개 친다’고 인식한다. 무지개 뜬 것을 추자도에서는 ‘무지개 치다’라고 한다.

14) 맑다, 좋다

날이 맑은 상태를 추자도에서는 ‘맑다’ 또는 ‘좋다’라고 한다.

⇒ {맑다고} 하죠. 날 {좋다}. 날이 흐리다. 낮 굿칠라 한다.

15) 밝다, 춥다

추자도에서는 날이 밝은 것을 ‘밝다’라고 하고, 추운 것을 ‘춥다’라고 한다.

⇒ 날이 {춥다} 그러지.

2.2.6. 공간

2.2.6.1. 방위

1)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향’을 추자도에서는 ‘동쪽’, 서향은 ‘서쪽’, ‘남향’은 ‘남쪽’, ‘북향’을 ‘북쪽’이라고 표현한다.

- ⇒ {동쪽에} 벌거니 할 때는 셋바람 불라고 인자 동쌀 뜬다.
- ⇒ {서쪽에서} 해가 질 때 벌가며는 이삼일 후에 비올라고 거시기 벌개졌다.
- ⇒ 예를 들어 {북쪽에는} 많이 있고 인제 {남쪽에는} 없다.

2) 동남향, 동북향, 서남(서남향)

추자도에서 동남쪽을 ‘동남향’, ‘동북향’을 ‘동북’ 또는 ‘북동’이라고 하고, 서남향을 ‘서남’이라고 한다.

⇒ 사이를 {동남}, {서남}, {동북}, {북동} 이렇게.

2.2.6.2 바다

1) 바닥

‘바닥’은 추자도에서 바다를 일컫는 이름이다.



[사진 7] 바닥(대서리 항구)

2) 안골, 과깨바다

‘안골’은 추자도에서 육지 가까이에 있는 바다, 즉 해안가 근처에 있는 바다를 일컫는 이름이다. ‘과깨바다’는 추자도에서 관탈섬 근처의 바다를 일컫는다. 추자도에서 먼바다로 인식하는 곳이다. 추자도 인근 바다를 ‘안골’이라고 한다면 먼바다로 ‘과깨바다’를 예로 든다.

- ⇒ {안골} 갔다 왔다. 먼 {과깨바다} 갔다 왔다.
- ⇒ 옛날에는 조업을 할 때 동지나를 안 다녔거든요 과탈이 부근에서 잡었다. 이제 {안골서} 잡었다 이런 식으로/추자 {안골이라는} 말은 근해.

3) 갯가시

‘갯가시’는 추자도에서 ‘바닷가’를 지칭하는 어휘다.

- ⇒ 아적에는 물쓰면은 물에 {갯가시} 가고 물들은 산에 가서 또 밭일 하고, 또 나무 하고 그레가지고 세상을 다 넘었어요.

4) 갯물, 민물

‘갯물’은 추자도에서 ‘바닷물’을 일컫는 이름이고, ‘민물’은 표준어 ‘민물’을 말한다.

- ⇒ {갯물이} 짜다.
- ⇒ {민물이랑} 하는데 {민물}.

5) 뉘, 파도, 버끔, 뉘치다, 너울

‘뉘’는 추자도에서 파도를 일컫는 이름이다. 파도치는 것을 ‘뉘치다’라고 하고, 파도칠 때 허영게 올라오는 거품을 ‘버끔’이라고 한다. ‘너울’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파도가 크게 물결 지는 것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 ⇒ {뉘가} 썰다. {파도가} 썰다.
- ⇒ 파도 치면 {버끔이} 나쥬.
- ⇒ {너울이랑} 하쥬.
- ⇒ 동풍 셋바람 불어서 {뉘친다}. 하늬바람 불어서 {뉘친다} 이 얘기는 하쥬.

6) 넓다, 기프다, 얹다, 야차다

바다가 너른 것을 추자도에서는 ‘넓다’라고 말한다. 바다가 깊은 것은 ‘깊다’ 또는 ‘기프다’라고 하고, 얹은 것은 ‘얹다’, 또는 ‘야차다’라고 한다.

- ⇒ 추자도 바다가 제주도 바다와 합쳐져서 같이 조업을 하니까 {넓쥬}.
- ⇒ 근해 바다는 {얹고} 저 과탈 바다는 {깊고} 그래요.
- ⇒ 그 물밑에 가쁜은 무에나무도 있지. 나무가 이 산메로 이자 기프고 {야찬} 데가 그런데 거시기도 있고.

7) 높다

‘높다’는 표준어형 ‘높다’를 그냥 사용한다.

⇒ 전라도 말로 야차면은 논이고 {높으면} 산이고.

12) 짜다

‘짜다’는 소금과 같은 맛이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 갯물이 {짜다}.

13) 퍼렇다, 하얗다, 빠지다

‘퍼렇다, 하얗다, 빠지다’는 표준어형을 그대로 쓴다.

2.2.6.3. 해안가

1) 모래, 모래밭

‘모래’는 표준어 ‘모래’를 말한다. 모래가 많이 깔려 있는 ‘모래사장’을 추자도에서는 ‘모래밭’이라고 한다.

⇒ 추자도 바다가 맨 {모래밭이에요}.

2) 갯벌, 펄

‘펄’은 추자도에서 갯벌을 일컫는 이름이다. 표준어형인 ‘갯벌’도 사용되고 있다.

⇒ {갯벌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2.2.6.4. 지형

1) 포구, 항구, 축깡, 독두말, 큰개안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개의 어귀를 말한다. 추자도에서도 ‘포구’라고 말한다. 항구는 ‘항구’ 또는 ‘축깡’(축항)이라고 한다. 또 ‘큰개안’이라고도 한다. 추자도에서는 ‘독두말’이라는 특이한 어형이 조사되었는데, ‘독두말’은 포구에 쌓아진 독을 말한다.

⇒ 옛날 항구다 하기 전에 {포구} 식으로 지금 같으면 방파제였는데 그때는 뭐 그 {독두말이다}, 그 {독두말} 안에다 배 들어간다 나간다. 그게 지금 같으면 방파제 역할을 한 것이니까.

⇒ 동쪽 {축깡이라고} 불렀죠.

⇒ 요새는 {항구} 예전에는 {큰개안이라} 항구라.

2) 바우, 바위, 암바위, 평지바위

추자도에서는 ‘바위’를 ‘바우’ 또는 ‘바위’라고 한다. 나이든층에서는 ‘바우’, 젊은층에서는 ‘바위’를 사용하고 있다. ‘암바위’는 바위 바닥을 일컫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달리 ‘평바위, 평지바위’라고도 한다. ‘평바위, 평지바위’는 바위가 평평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바위라고} 하는데 나온 연똥 들어간 연똥.

⇒ {암바위} 납작한 바위 {평지바위} 그렇게 말했어요.

⇒ 예를 들어서 배가 가다가 바위가 부딪쳤다. 그러는 이자 사고가 나온 바위는 배가 많이 상하고 {평바위는} 배가 덜 상하잖아요. {평바위에서} {바위가} 고우니까 배가 덜 다쳤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죠.

3) 둥병

‘둥병’은 추자도에서 ‘바닷가에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너럭바위 위에 생긴 웅덩이’를 일컫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웅덩이’의 충청도 방언으로 올라 있다.

⇒ 이렇게 바다에 물쓰며는 다 물이 빠지고 이렇게 군데 군데 고여있는 그 보고 {둥병이라고}.

⇒ 뒤편에 물 쪼끔씩 쪼끔씩 있는 거 보고 {둥병}.

6) 연똥, 나온 연똥, 들어간 연똥

‘연똥’은 추자도에서 ‘여’를 일컫는 이름이다. 바다 위로 돌출해 있는 여를 ‘나온 연똥’이라고 하고, 바닷물 안으로 숨어 있는 여를 ‘들어간 연똥’이라고 한다.

⇒ 바위라고 하는데 {나온 연똥} {들어간 연똥}. 저 {연똥은} 물 속에 {들어간 연똥이다} 이 {연똥은} {나온 연똥이다}.

7) 절벽

‘절벽’은 추자도에서 ‘낭떠러지’를 일컫는 말이다.

환경과 관련한 조사어휘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환경	조사 어휘
시간	한물, 한무새날(한무셋날), 두물, 두무셋날, 서물, 너무새날, 네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열두무셋날, 조금, 아적조기, 아침조기, 한조기, 한조금, 무수, 민물, 선물, 물든다, 물쓰다, 사리빨, 세백, 아침, 아적, 낮, 점심, 저녁, 밤

환경	조사 어휘
날씨	셋바람, 동풍, 하누바람, 늦바람, 마파람, 눅바람, 눅새, 눅하누, 동마손, 늦하누, 회오리바람, 불다, 세다, 씨원하다, 쏘나기, 마파람 쏘나기 떨어지다, 이슬비, 가랑비, 장마, 억수장마, 호랭이 장계간다, 오다, 내리다, 개다, 숨눈, 씨락눈, 눈비, 고드름, 얼다, 동쌀준다, 붙새, 해가 질 때 벌가면은 이삼일 후에 비온다, 감새가 높이 뜨면 바람 분다, 햇머리, 햇머리 한 것이 날 곳치겠다, 달무리, 은하수, 칠성, 은하수 꼬랑지다(고랑지다), 뜨다, 날 곳치다, 번개, 벼락, 천둥, 천둥소리, 하늘소리, 구름, 달식, 월식, 해식, 피말다, 달도 월식하고 해도 해식하는데 사람이라고 맘이 안 변하겠는가, 개리다, 시럽다, 우네, 서리, 맑다, 좋다, 밝다, 춥다
공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남향, 동북향, 서남향, 바닥, 안골, 과깨바다, 갯가시, 갯물, 민물, 뉘, 파도, 버끔, 너울, 뉘치다, 넓다, 기프다, 얹다, 야차다, 높다, 짜다, 퍼렇다, 모래, 모래밭, 갯벌, 펄, 포구, 항구, 축깡, 독두말, 바우, 암바위, 평지바위, 둌병, 연똥, 나온 연똥, 들어간 연똥, 절벽

2.4. 어획물

2.4.1. 물고기

2.4.1.1. 부분명칭

1) 대가리, 머리, 주둥이, 아구지, 눈깔, 등때기

추자도에서 ‘대가리’는 물고기의 머리를 일컫는 이름이고, ‘주둥이’와 ‘아구지’는 입, ‘눈깔’은 눈, ‘등때기’는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 ⇒ {머리락} 하쥌.
- ⇒ 고기가 먹고 사는 디 {입} 없이 얼로 먹고 삼니까?

2) 알금치, 숨새다

‘알금치’는 추자도에서 ‘아가미’를 일컫는 이름이다. 표준어형인 ‘아가미’를 사용하기도 한다. 아가미로 숨 쉬는 것을 추자도에서는 ‘숨새다’라고 표현한다.

- ⇒ 고기가 {아가미로} {숨새잖아요}.
- ⇒ 갈치 같은 거 {알금치} 나온 것을 갖고 젓갈해요.

3) 날개쪽, 날개쪽, 비늘, 껍떡

‘날개쪽, 날개쪽’은 추자도에서 지느러미를 일컫는 말이다. ‘비늘’은 ‘비늘’이다. ‘껍떡’은 표준어 ‘껍질’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표준어 ‘껍질’도 사용된다.

- ⇒ 지느러미 {날개쪽} 그래요.
- ⇒ 와따 {껍질} 먹을 때 맛이 좋다.

4) 배, 배때기, 창시, 배창시, 창지

‘배때기’는 ‘배’의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창자’는 ‘창시, 배창시, 창시’ 어형이 쓰인다.

- ⇒ 고기 {배때기} 맛있다.
- ⇒ 타발 쓴단 말은요 고기를 {배를} 갈러가지고 양쪽으로 갈른 것을 타발 쓴다고 하지. 고기만 {창지만} 뺀 것을 타발 쓴다 말 안 해요.

5) 부레, 살, 알, 꼴랑지, 까시

‘부레’는 추자도에서도 ‘부레’라고 한다. ‘알’은 ‘알’이라고 하고, 고기 따위가 알을 싸는 것을 두고는 ‘알싸다’라고 표현한다. ‘살’은 ‘살’이고, ‘꼬리’는 ‘꼴랑지’라고 한다. 또 ‘가시’는 ‘까시’라고 한다.

- ⇒ {살은} 거 회로 사시미로 먹고 그 뼈는 국 끓여 먹고 그래요.
- ⇒ 점복은 하 저 {알쌔} 때는 못 잡아. 꾸죽도 그래. {알쌔} 때 못 따지.
- ⇒ 이거는 {꼴랑지다} 하고.

2.4.1.2. 종류

1) 물궤기

‘물궤기[물궤기]’는 추자도에서 ‘물고기’를 칭하는 말이다. 고기는 ‘궤기’라고 한다.

- ⇒ 옛날 {물궤기}.

2) 멜, 멜치, 꼭사리, 대멜치, 쫄멩이

‘멜, 멜치’는 추자도에서 ‘멸치’를 일컫는 말이다. ‘꼭사리’는 자잘한 멸치를 이르는 것이고, ‘대멜치’는 크기가 큰 멸치를 일컫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대멜치’를 추자도에서는 ‘쫄멩이’라고도 부른다.

- ⇒ 옛날부터 {멜이라고} 그래요.
- ⇒ {멜치가} 인자 부르는 이름이 있죠. {꼭사리}. 잘잘한 것을 {꼭사리}. 큰 것은 {대멜치}.

⇒ {멜은} 다 똑같다. 큰 거 있구나. {쫄멍이}.

3) 징어리

‘징어리’는 추자도에서 ‘정어리’를 일컫는 명칭이다.

⇒ 우리 말로는 {징어리}, {징어리란} 고기가 있어요.

4) 갈치

‘갈치’는 갈치과의 바닷물고기를 통칭하는 말이다.

⇒ {갈치가} 조꼬만 동력선 가지고 가면은 잡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일절 나지 않아요.

5) 고등에, 난쟁이, 난깡이, 낭쟁이

‘고등에’는 추자도에서 ‘고등어’를 칭하는 이름이다. ‘낭쟁이, 난깡이, 난쟁이’는 추자도에서 ‘고등어 새끼’를 말한다. 표준어 ‘고도리’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낭쟁이라고} 하는데 뭐 쪼꼬만 한 게. 이런 거 {낭쟁이라고} 하긴 해요.

⇒ 지금도 고등어 새끼를 {난깡이라고} 불러요./고등어 새끼는 {낭쟁이}.

6) 가오리, 황가오리, 홍에

추자도에서는 ‘가오리’를 표준어형과 같은 ‘가오리’를 쓴다. ‘가오리’는 가오릿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몸은 가로로 넓적한 마름모 모양이고 꼬리가 긴 근해어이다. 노랑가오리, 살홍어, 전기가오리, 홍어 따위가 있다. 추자도에서는 노란색을 띠는 ‘노랑가오리’를 ‘황가오리’라고 부른다. ‘홍에’는 표준어 ‘홍어’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홍에’도 가오릿과의 물고기로, 가오리와 비슷하나 더 둥글고 가로 퍼졌다.

⇒ {가오리와} 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홍에라고} 그래요.

⇒ {가오리} 같은 것은 많이 나니까. {황가오리}. 그런 거는 {가오리라} 그래요.

7) 땅게, 박대, 까자미, 까잘미, 가자미

‘땅게, 박대, 까자미, 까잘미, 가자미’는 모두 추자도에서 ‘가자미’를 칭하는 이름이다.

⇒ 광어하고 뭐 금방 말헌 그 {가자미} 조금 다른데 그걸 보고 그냥 {땅게라고} 해요.

⇒ {가자미} 아니 옛날에는 그냥 {땅게}라고 막 불렀어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 {까자미다} 하고 {까잘미다} 하고. {까잘미다} 하고 {박대다} 그런 거 같은데.

8) 멍태, 동태

‘멍태’는 추자도에서 ‘명태’를 가리키는 말이고, ‘동태’는 얼린 명태를 말한다.

- ⇒ 건 {명태라고} 그냥 이름만 거 들었을 뿐이지.
- ⇒ {멍태} 얼린 거는 또 {동태라고} 우리 사가 먹고 그랴요.

11) 조구, 백조구, 황조구, 굴비, 부세

‘조구’는 추자도에서 ‘조기’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백조구’는 ‘민엇과에 딸린 바닷물고기로, 몸길이 30~40cm쯤으로, 참조기와 비슷하게 생겼고, 몸빛은 희다’. 표준어 ‘보구치’에 대응하는 말이다. ‘황조구’는 색깔이 노르스름한 조기를 일컫는데, 추자도에서 잡히는 조기 대부분이 ‘황조기’다. 따라서 추자도 사람들은 ‘황조구’를 ‘조구’라고 한다. ‘굴비’는 조기 말린 것을 일컫는데, 예전에 추자도에서는 ‘굴비’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부세’는 민어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50cm 정도이며, 붉은 황색이다. 추자도 사람들은 ‘부세’를 조기 사촌 정도의 물고기라고 인식한다.

- ⇒ {조기} 비슷한 사촌, {부세란} 고기 있는데 {조구는} 다 {조구다} 그랴요.
- ⇒ {황조구다} 하고 그냥 {조구다} 그랴요.
- ⇒ 옛날에는 이렇게 {굴비라} 하질 않고 이거 집의서 조금씩 말리긴 했지마는 흔치 않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게 그렇게 막 말리거나 그렇지 않을 안 했어요.

12) 콩치, 학콩치

‘콩치, 학콩치’는 추자도에서 잡히는 ‘콩치’ 이름이다. 추자도에서 잡히는 콩치는 엄밀히 말하면 ‘학콩치’(공미리)인데 추자도에서는 ‘콩치’라고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학콩치’의 잘못으로 올라 있다.

- ⇒ 경상도 지방에서 저 강원도 지방에서 {학콩치다} 허고 우린 그냥 {콩치다} 그랴요

13) 뽕쟁이

‘뽕쟁이’는 추자도에서 ‘복’을 일컫는 이름이다.

- ⇒ 이 쪼꼬만 거 뽕아도 {뽕쟁이다} 하고 큰 걸 뽕아도 {뽕쟁이라고} 그러니까.

14) 상에

‘상에’는 추자도에서 ‘상어’를 일컫는 이름이다.

- ⇒ {상에도} 없어요.

15) 광에, 광어

‘광에, 광어’는 추자도에서 ‘광어’를 일컫는 이름이다.

⇒ 박대는 쫄 쪼고만한 이렇게 뭐 쪼고만 한 거야. {광어하고는} 완전히 틀린 고기. 어 {광에.}

16) 병장에, 봉장에, 짱에, 먹짱어

‘병장에’는 봉장어의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병장에’를 ‘먹짱어’, 또는 ‘짱에’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 옛날에 큰 {짱어보로} {먹짱어닥} 하고 그냥 {짱어라} 그래요. {먹짱어} {봉장에}.

19) 도미, 참돔

‘도미’는 추자도에서 ‘돔’을 일컫는 말이다. ‘도미’는 돔의 준말이다.

⇒ {도미도} 많이 나.

⇒ 저희들 커가지고는 {돔도} 잡아오고 여러 가지 방어도 잡고 삼치도 잡고 이런 것은 그 후에 다 했습니다.

20) 뱀어

‘뱀어’는 추자도에서 ‘뱀어’를 일컫는 말이다.

21) 삼치, 고시, 고씨

‘삼치’는 추자도의 주요 어종 가운데 하나다. 삼치 새끼를 ‘고시, 고씨’라고 한다.

⇒ 쪼꼬만한 거 {고씨다} 하고 큰 고기는 큰 고기 {삼치} 그래요.

⇒ 일 키로, 일 키로 미만은 {고씨라고} 그러는 거요.

22) 방어, 하마치, 야스, 부시리

‘방어’는 추자도에서 많이 잡히는 어종이다. ‘하마치(はまち)’는 일본어로, 방어 새끼를 말하는 데 제보자에 따라서는 ‘야스’라고 하기도 하였다. ‘부시리’는 ‘방어’와 비슷한 고기여 선지 추자도 제보자 가운데는 ‘방어’를 ‘부시리’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 {방어는} 그냥 {부시리}. 옛날엔 그냥 {부시리다} 그러구요.

⇒ 쪼꼬만한 {하마치}. {야스를} {하마치다고} 그러죠.

⇒ {방어하고} {야스는} 훌쳐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밑에서 이깎 놀아줘야 되니까. 움직일 거 아니예요?

23) 농어, 꺾떼기

추자도에서는 ‘농어’도 많이 잡힌다. 농어 새끼를 ‘꺾떼기’라고 한다.

⇒ 우럭이나 아튼 {농어나} 이런 게 많아요./큰 거는 {농어}. 금방 고씨처럼 적은 거는 {꺾떼기}.

24) 쥐꺾기, 쥐고기

‘쥐꺾기’는 추자도에서 ‘객주리’를 일컫는 이름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쥐고기가’
1. 쥐치의 잘못 2. 쥐포의 잘못으로 되어 있다.

⇒ 지금 {쥐고기} 옛날은 {쥐꺾기}.

25) 민어, 통치

‘민어’는 민엇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모양은 송어와 비슷하나 대가리가 덜 넓적하고 빛깔이 좀 검다. 알은 어란을 만들고, 부레는 민어풀을 만든다. 민어 새끼를 추자도에서는 ‘통치’라고 한다.

⇒ 조금 적은 거 {통치다} 하고. {통치}, {통치}. 그라고 큰 거는 {민어}.

26) 우럭, 꺼먼우럭, 빨간우럭

‘우럭’은 표준어 ‘우럭볼락’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꺼먼우럭’은 색깔이 거무스레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빨간우럭’은 색깔이 붉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우럭이나} 아튼 농어나 이런 게 많아요.

⇒ 놀래미도 나끄고 {우럭} 있잖아요 {꺼먼우럭도} {빨간우럭} {우럭도} 나끄고.

27) 잡패

‘잡패’는 추자도에서 ‘잡어’를 일컫는 말이다. ‘잡어’는 제철이 따로 없이 이것저것 여러가지가 뒤섞여 잡히는 자질구레한 물고기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 예를 들어서 뭐 삼치는 아니지만은 농어 도미고 이런 거 다 잡는 거요. 조기나 삼치나 방언 아니지마는 잡어 {잡패} 이런 거 잡는 거./잡어를 {잡패다} 해.

28) 쏘볼락, 쏘볼락

‘쏘볼락, 쏘볼락’은 볼락의 일종으로 모양이 자리돔처럼 생긴 물고기다. ‘노래미’의 일종이다.

- ⇒ 우리 어렸을 때는 잡패 나끄곡. {쪼불락이나} 우럭 같은 거 침대로. 놀래미, 우리말로 하면 동생이 {쪼불락이요}.

29) 놀래미

‘놀래미’는 표준어 ‘노래미’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놀래미도} 나끄고 우럭 있잖아요, 꺼면우럭도 빨간우럭 우럭도 나끄고.
- ⇒ {놀래미} 우리말로 하면 동생이 쪼불락이요.

2.4.1.3. 상태

1) 알브다, 굶다, 질다, 크다

‘알브다’는 추자도에서 ‘얕다’는 뜻으로 쓰이는 어휘고, ‘굶다’는 표준어형을 그대로 쓰고 있다. ‘질다’는 ‘물체의 두 끝이 서로 멀다.’는 의미로, 표준어 ‘길다’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크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는 의미로, 표준어 ‘크다’형을 그대로 쓰고 있다.

- ⇒ 모락스럽게 {알브다}. 아주 거 약하다 그 말이죠.
- ⇒ 물 밑에 꼴이 이래 {굶어}.
- ⇒ 짱어가 모락스럽게 {질어}.
- ⇒ 그 길이로 말하든 금방 말한 먹짱어가 젤 {질구요}. 지력수로는.
- ⇒ 모락스럽게 {크다} 그렇게 말하고.

2) 잘잘하다, 넓작하다, 성허다

‘잘잘하다’는 여럿이 다 잘다는 의미다. 표준어 ‘자잘하다’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며, ‘넓작하다’는 ‘판판하고 얇으면서도 좀 넓다’는 의미로 표준어 ‘넓적하다’에 해당한다. ‘성허다’는 채소나 과일, 생선 따위가 싱싱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물 밑에 꼴이 이래 굶어. 여기 추자도는. 이런 섬에덜은 {잘잘한디} 이렇게 굶어.

3) 타발 쓰다

‘타발 쓰다’는 생선의 배를 양쪽으로 가르다는 의미다. 표준어 ‘배파다’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타발 쏘단} 말은요 고기를 배를 갈러가지고 양쪽으로, 양쪽으로 갈른 것을 {타발 쏘다} 하지. 고기만 창지만 뺀 것을 {타발 쏘다} 말 안 해요.

4) (가시) 찢르다

‘찢르다’는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것으로 물체의 겉면이 뚫어지거나 쑥 들어가도록 세차게 들이밀다.’는 의미로, 표준어 ‘찌르다’에 해당하는 말이다.

⇒ 까시에 {찢러부렀다} 허는 거.

2.4.2. 조개류

추자도에서는 조개류가 거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조개류와 관련된 어휘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

2.4.2.1. 부분명칭

1) 입, 주둥이, 심장, 창지

‘주둥이’는 추자도에서 ‘입’을 가리키는 말이다. ‘심장’은 ‘심장’이라고 하고, 창자는 ‘창지’라고 한다.

⇒ 바지락 입요 {주둥이}.

2.4.2.2. 종류

1) 조개, 뽕지락

‘조개’는 ‘조개류’를 통칭하는 말이다. 바지락을 추자도에서는 ‘뽕지락’이라고 한다.

⇒ {조개} 호멍이 갖고 파갓고.

2) 꾸죽, 큰꾸죽, 작은꾸죽, 얼룩꾸죽, 생꾸죽, 잔소라, 큰소라, 꾸죽팽이

‘꾸죽’은 추자도에서 ‘참소라’를 일컫는 이름이다. 크기가 굵은 소라를 ‘큰꾸죽’, 작은 것을 ‘작은꾸죽’이라고 하였다. ‘얼룩꾸죽’도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한다. ‘생꾸죽’은 ‘날소라’를 일컫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큰꾸죽’ 대신 ‘큰소라’, ‘작은꾸죽’ 대신 ‘잔소라’라는 변화된 어형을 쓰기도 한다. ‘꾸죽팽이’는 소라 껍질을 일컫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꾸죽} {큰꾸죽} {작은꾸죽}.

⇒ {잔소라는} 잡었다든 걸린다고 다 뺏어 들이쳐. 물에다 들이쳐 부러.

⇒ {큰소라벧기} 못 잡어.

⇒ {얼룩꾸죽} 또 있다.

- ⇒ 소라도 {생꾸죽으로} 이렇게 깨서 기냥 잡아서 깨서 생으로 먹는 것이 훨씬 맛있어.
- ⇒ 소라 껍데기보고 {꾸죽팽이}.

3) 고동, 참고동, 도토리고동, 소라벙이

‘고동’은 추자도에서 ‘고둥’을 일컫는 이름이다. ‘참고동’은 ‘밤고동’처럼 둥글고 만질만질한 껍데기가 있는 ‘가사리고동’을 일컫는다. ‘도토리고동’은 껍데기가 두툼두툼하게 생긴 ‘두드럭고동’, ‘소라벙이’는 ‘매끈이고동’을 일컫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참고동은} 뚱그라이 멘질멘질한 것. 그거는 {참고동이고} 이렇게 쫑긋하니 길쭉한 것은 그냥 {고동이다} 하고
- ⇒ 소라같이 생긴 것이 {소라벙이라고} 길쭉길쭉하니.
- ⇒ 고동 중에서도 {도토리고동} 있잖습니까? 그거 먹고 나면 아주 달아요.

4) 베말

‘베말’은 추자도에서 ‘삿갓조개’를 일컫는 이름이다.

- ⇒ 조개삿갓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베말이라고} 그러니다.



[사진 8] 베말

4) 켜뵁, 전뵁, 점뵁(점뵁), 큰켜뵁, 작은켜뵁, 마다리, 귀머거리, 켜뵁껍떡, 게웃

‘켜뵁, 점뵁, 전뵁’은 추자도에서 ‘전뵁’을 일컫는 이름이다. 크기가 큰 것은 ‘큰켜뵁’, 작은 것은 ‘작은켜뵁’이라고 말한다. 전뵁의 새끼를 추자도에서는 ‘마다리’ 또는 ‘귀머거리’라고도 불렀다. 전뵁의 껍질은 ‘켜뵁껍떡’, 전뵁의 내장은 ‘게웃’이라고 말한다.

- ⇒ {켜뵁} {큰켜뵁} {작은켜뵁} 이렇게 하고. 쪼꼬만한 것은 오분자기라 그냥 마드레기라고.
- ⇒ 옛날에는 {전뵁} 안 따고 {전뵁} 소라 안 잡고. 요즘에가 {점뵁} 소라 잡았지. 미역을 땀어.
- ⇒ 점뵁 새끼라고 있는 것이 {귀머거리}. {마다리}.
- ⇒ {게웃을} 묵으면은 저 사람 살로 간다고.

5) 마드레기, 오분자기

‘마드레기’는 ‘오분자기’를 추자도에서 일컫는 이름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오분자기가 ‘떡조개’의 제주방언으로 올라 있는 것은 잘못이다.

- ⇒ 큰켜뵁 작은켜뵁 이렇게 하고. 쪼꼬만한 것은 {오분자기라} 그냥 {마드레기라고}.
- ⇒ {오분자기보고} {마드레기}.

⇒ {마드레기는} 이제 그 아픈 꼬랑 그런 데가 많이 살고. 전복은 깊은 데가 많이 살지.

6) 꿀, 자연산꿀

‘꿀’은 추자도에서 ‘굴’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추자도에서는 여름에 바다 속에서 ‘자연산 굴’을 채취하는데, 그 굴을 ‘꿀’이라고 말한다. 양식하는 굴보다 알맹이가 굵다.



[사진 9] 꿀

⇒ 이런 큰 돌에들 붙어 있는 거 {자연산 꿀이라고}.
⇒ 물 밑에 {꿀이} 이래 굵어.

7) 군붓

‘군붓’은 추자도에서 ‘군부’를 일컫는 말이다.



[사진 10] 새담치

8) 담추, 홍합, 새담추, 갯담추, 망지기

‘담추’는 추자도에서 ‘홍합’을 일컫는 이름이다. ‘홍합’은 조개의 한 종류로, 조가비는 썩기 모양으로 길이 15cm, 높이 10cm쯤 된다. 껍데기 빛깔은 검은 갈색이고 살은 붉은 빛을 띤 등색이다. 맛이 좋은데, 자디잔 진주가 난다. 깊은 바다 속 바위에 붙어산다. 추자도에서는 여름철에 ‘담추’를 채취하는데 양식 홍합보다 알이 굵다. 요즘은 ‘담추’ 대신 ‘홍합’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새담추’는 바닷가 인근에 바위에 붙어사는 종으로, 홍합보다 잘다. 표준어 ‘털격판담치’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갯담추’는 물써면 바닷가 인근에서 채취할 수 있는 ‘담추’의 다른 이름으로, ‘망지기’라고도 한다.



[사진 11] 담추

⇒ 큰거 보고(담추). 그 중간치에 이렇게 납작하니 이렇게 하는 거는 {망지기}. 그 거북손 한 가지 붙어 이렇게 생긴 거는 {새담추}.
⇒ {갯담추는} 물 많이 썰문은 잔 놈, 잔 놈 그런 게 무레 못한 사람들이. 이 무레질 못한 사람들이.

2.4.2.3. 상태

1) 똥그라하다, 멘질멘질하다, 길쭉하다, 길쭉길쭉하다, 쫓긋하다

‘똥그라하다’는 ‘원이나 공과 모양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의미의 표준어 ‘둥그랗다’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멘질멘질하다’는 ‘표면이 매끈매끈하다’는 의미로 표준어 ‘만질만질하다’에 대응한다. ‘길쭉하다’는 조금 길다는 뜻이고, ‘길쭉길쭉하다’는 조금 긴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다. ‘쫓긋하다’는 용례로 보아 표준어 ‘뽕족하다’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 ⇒ 참고동은 {똥그라이} {멘질멘질한} 것. 그거는 참고동이고, 이렇게 {쫓긋하니} {길쭉한} 것은 그냥 고동이다 하고.
- ⇒ 소리같이 생긴 것이 {소라뱅이라고} {길쭉길쭉하니.}

2.4.3. 기

‘기’는 표준어 ‘게’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추자도 어민들이 ‘게’잡이를 많이 하지 않아서인지 ‘게’와 관련한 어휘가 많이 조사되지는 않았다.

2.3.3.1. 부분명칭

1) 등때기, 배때기, 내장, 눈깔, 까시

추자도에서 게의 등껍질을 ‘등때기’라고 하고, ‘배’는 ‘배때기’, 눈은 ‘눈깔’, 창자는 ‘내장’, 가시는 ‘까시’라고 말한다.

- ⇒ {등때기} 있으니까 {배때기도} 있겠지
- ⇒ {내장} 있으니까 거 살아서 뭐.

2.4.3.2. 종류

1) 기, 기고동, 참게

‘기’는 추자도에서 표준어 ‘게’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기고동’은 갑각강 십각목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몸은 새우와 게의 중간 모양으로 머리가슴은 겹껍질로 싸여 있으며, 배는 말랑말랑하다. 뒤에 있는 두 쌍의 걷는 다리를 조개류의 껍데기에 박고 사는데 그것을 끌고 다닌다. ‘기고동’은 표준어 ‘소라게(=집게)’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참게’는 추자도에서 바닷가 조간대에서 사는 게의 한 종류로 자잘하다. 제보자가 ‘자잘하다’는 것으로 보아 《표준국어대사전》의 ‘참게’와는 종류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 ⇒ 빈껍질에 들어가 살고 있는 {기고둥}.
- ⇒ 반찬용으로 이렇게 잘잘한 {참게} 잡아다 반찬.

2.4.4. 해조류

2.4.4.1. 종류

1) 미역, 꿀통이, 뭇

‘미역’은 ‘갈조류 미역과의 한해살이 바닷말’로, 추자도에서도 ‘미역’이라고 한다. ‘꿀통이’는 미역귀를 일컫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추자도에서 미역을 셀 때는 ‘뭇’이라는 단위를 이용하는데, 1뭇은 미역 20가닥을 말한다. 미역 말린 거 하나 하나를 ‘가닥’이라고 한다.

- ⇒ 시무한 살에 여기 씨집와가지고 여기서 {미역} 따다가 해 묵고 살고 또 우무가사리가 또 있어.
- ⇒ 옛날에는 {미역을} 넓고 길게 해서 스무 가닥이 한 {뭇으로}. 스무 가닥을 이거이 한 {뭇이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예쁘게 묶어서 이렇게 저 목포 방향으로 나갔거든요.

2) 짐, 김, 해우, 돌짐, 돌김, 돌맹이짐, 완도짐, 추자짐, 첫짐, 두불짐, 툷, 매끼

‘짐, 해우’는 추자도에서 ‘김’을 가리키는 어촌 생활어다. 돌에서 자라기 때문에 달리 ‘돌김, 돌짐, 돌맹이짐’이라고 한다. 완도에서 생산되는 ‘완도짐’과 구별하기 위하여 ‘추자짐’이라는 명칭도 사용한다. 추자도 사람들은 자연산 돌김을 채취한 후 김을 네모나게 만들어 부업으로 판다. 나이든층은 ‘김’과 ‘해우’라고 하고, 젊은층으로 갈수록 표준어형인 ‘김’을 사용한다. 처음 채취해서 손질한 김을 ‘첫짐’, 두 번째 채취해서 손질한 김을 ‘두불짐’이라고 한다.

추자도에서는 김 열다섯 15장을 1툷, 20툷을 1매끼라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김 1툷을 100장이라고 되어 있고, 《조선말대사전》에는 40장, 《우리말큰사전》에는 40장 또는 100장, 《금성국어대사전》에는 30장 또는 100장을 1툷이라도 되어 있다.

- ⇒ {짐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 ⇒ 자연산 {돌김}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났는데 지금은 낚시 손님들이 밑밥을 쳐가지고 이제 그 돌에가 김이 잘 안 붙어요.
- ⇒ 우리말로 밥 싸먹는 {해우}. 그 바굼지 와깝게 쓰지.
- ⇒ 맛있어요. {돌짐이라} 맛도 있고.
- ⇒ 우리 {돌짐} 먹다가 {완도짐} 보기만 텍텍하니 그러지 우리 {추자짐은} 밭에다 빠져요. 그래서 {돌맹이짐이라} 맛있어요.
- ⇒ {첫짐은} 비싸고 {두불짐은} 좀 싸고.
- ⇒ {짐} 한 {매끼가} 스무 {툷}. 열다섯 장이 한 툷인디 스무 툷이 한 매끼라.

3) 개미역, 풍각

‘개미역’은 갈조류(褐藻類)의 해초(海艸). 원기둥 모양의 줄기는 1~2미터이며, 갈색이다. 전복의 먹이로 중요하며 깊은 바다에서 난다. 한국의 남해안·제주도,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표준어 ‘감태’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풍각’은 갈조류의 해초로, 잎이 넓은 바다풀이다. 제보자가 ‘미역하고 다시마하고 비슷하다’는 것으로 보아 두 종류와는 다른 바다풀로 보인다.



[사진 12] 짐발과 짐틀(위)

- ⇒ 옛날에는 그 {개미역} 그 전에 우리 여 식량들이 모자랐을 때는 그 {개미역} 가운데 그 이렇게 그 좀 두껍고 입싹은 다 떼어버리고 그걸 가운데 그 맛 좋은 걸 이제 말려서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 ⇒ 미역하고 비슷하고 다시마하고 비슷한 데요 이렇게 넓어요. 넓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자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다시마 비슷하게 먹기도 그러는데 {풍각이라고}.

4) 퍼레, 갈퍼레, 국퍼레

‘퍼레’는 추자도에서 ‘파래’를 일컫는 말이다. ‘갈퍼레’는 갈파렛과의 해조로, 몸은 엽상체로 질이 단단하다. 사료로 많이 쓰는데 물결이 잔잔한 바닷가에 많다. 표준어 ‘갈파래’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국퍼레’는 ‘갈퍼레’보다는 작고 부드러운 파래로, 추자도에서 주로 ‘국을 끓여 먹어서’ ‘국퍼레’라는 명칭이 붙었다.

- ⇒ 입 두껍고 큰 거는 {갈퍼레}.
- ⇒ 이렇게 저 파라니 찢잘한 거는 {국퍼레}. 인자 이 저 냉국으로 여름에들은 먹는 거는 {국퍼레}. 큰 거 보고는 {갈퍼레}.

5) 물, 자반, 참물, 참자반, 개물, 물뽕이

‘물’은 갈조류 모자반과의 해조(海藻)로, ‘자반’이라고도 한다. 표준어 ‘모자반’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참물’과 ‘참자반’은 모자반의 일종으로, 먹을 수 있는 모자반이라는 의미에서 접두사 ‘참-’을 붙여 어형을 분화시키고 있다. 반대로 접두사 ‘개-’가 붙은 ‘개물’은 먹을 수 없는 모자반을 말한다. ‘개물’은 주로 농사 짓을 때 밭의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물뽕이’는 ‘말린 물을 쌓아놓은 가리’를 일컫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그 {개물} 예전에는 밭에 비료용으로 많이 썼고. 지금은 그걸 이제 안 해요. 농사 많이 안 짓기 때문에. 그라고 이제 {참물} 아주 이제 가격이 아주 비싸죠. 그거 말려서 상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 ⇒ 그냥 이렇게 반찬 해 먹는 것은 {참물이다} 하고 먹지 못하는 것은 옛날에 비료용으로 쓰는 거는 {개물이다} 하고.

- ⇒ 해초는 아까 말한 우리가 {참몰이라} 그러는데 {참자반요}. {참몰}이 있고 그냥 {몰}이 있고.
- ⇒ {자반}. 이 몰이 파도에 의해서 떨어져가지고 해변가나 이제 조약돌 있는 데로 밀려오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주워가지고 말리신다고 말려가지고 마르면은 그거를 이제 그 우리 밧, 밧 옆에다가 우리 추자말로 {몰뺑이라} 그러죠. {몰뺑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람, 짚나람 이라든지 보릿대나람 해가지고 비가 안 들어가게 잘 무껴가지고 보관을 하여.

6) 툇, 봉알툇

‘툇’은 갈조류 모자반과의 해조. 몸은 섬유상의 뿌리로 지탱되며, 줄기는 원기둥 모양이다. 늦은 여름 발아하여 겨울에 자라기 시작하여 이듬해 봄이 되면 30~100cm까지 자라서 여름에 말라 죽는다. 바닷가 바윗돌에 붙어 자라는데 채취하여 잎을 식용한다. ‘봉알툇’은 길이가 짧은 어린 툇을 가리키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추자도에서 툇은 데쳐서 무쳐먹거나 여름에 냉국을 해서 먹는다.



[사진 13] 툇

- ⇒ 큰 거는 {툇이닥} 하고 이제 막 자랄 때 이제 반찬용으로 이렇게 데우쳐서 먹는 것은 {봉알툇이라고} 이렇게.

7) 우무

‘우무’는 추자도에서 ‘우뭇가사리’를 일컫는 이름이다. 요즘은 ‘우무’ 대신 표준어형인 ‘우뭇가사리’를 쓰기도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우무’를 우뭇가사리의 북한어라고 올라 있다.

- ⇒ {우무만} 해녀들이 그냥 이렇게 거친 {우무만} 해오는 거.
- ⇒ 시무한 살에 여기 씨집와가지고 여기서 미역 따다가 해 묵고 살고 또 {우무가사리가} 또 있어.

8) 곤포

‘곤포’는 추자도에서 ‘붉은말에 딸린 바다에 나는 풀’의 한 종류다. 제보자가 “곤포는 빨간 이파리가 넓적하니 그거는 이제 풀이 많이 나와요”라는 것을 보면, ‘곤포’는 풀을 뽑기 위해서 채취했던 바다풀이다. 일본어 ‘곤포’는 다시마를 일컫는 이름이어서 확인이 필요하다.

- ⇒ {곤포는} 빨간 이파리가 넓적하니 그거는 이제 풀이 많이 나와요.

9) 가사리, 풀까사리, 창가사리

‘가사리’와 ‘풀까사리’는 추자도에서 ‘풀가사리’를 일컫는 이름이다. ‘풀까사리’는 ‘파라니 꼬실꼬실’ 생겼고, ‘창가사리’는 ‘울퉁불퉁하게’ 생겼다.

- ⇒ {풀까사리} 그것도 파라니 그거는 꼬실꼬실 이렇게 생겼는데도 그것도 예전에는 돈으로 많이 팔아서 썼거든요. 지금은 그거를 캐지를 안 해요.
- ⇒ {가사리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울퉁불퉁한 거 {창가사리}, 또 이제 그저 울퉁불퉁한 {가사리} 그 걸 전부 사가요.

11) 뽕부기

‘뽕부기’는 바닷말의 하나. 줄기는 높이가 5~15cm이고 원기둥 모양이며, 작은 가지가 갈라지고 가지 끝에 공기주머니가 있다. 검은색이고 식용하거나 알긴산 원료로 쓴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포한다. 제보자 원용순은 ‘뽕부기’는 추자도에서 제사상에 빠지지 않고 올리는 해조류라고 소개했다.

- ⇒ 여자들이 하는 거니까. 모르지만은 그건 꼭 제사에 안 빠져. 그리고 또 그 아이고, 저 바닷가에 서 나는 건데 {뽕부기}.

12) 무에나무

‘무에나무’는 자포동물 산호충강의 산호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표준어 ‘산호’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그 물밑에 가문은 {무에나무도} 있지. 나무가 이 산 메로 이자 기프고 야찬 데가 그런데 거시기 도 있고.

2.4.4.2. 상태

1) 바르다, 우무 바르다

‘바르다’는 추자도에서 ‘우뭇가사리에 민물을 뿌리거나 별에 쪼며 빛깔을 희게 할 때 쓰는 말’인데, 이 과정을 ‘우무 바르다’라고 표현한다. 우뭇가사리를 ‘바른’ 후 끓여서 묵처럼 굳게 해서 만들어서 먹는데, 그렇게 만든 음식도 ‘우무’라고 한다. ‘바르다’는 표준어 ‘바래다’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시겻다 말렸다 인제 이렇게 하얗게 만드는 과정을 우무 {바른다}.

2) 간꽃, 간꽃 올르다, 간꼬짐, 간꼬짐 피었다

‘간꽃’은 미역이나 모자반 따위를 말릴 때 생기는 하얀 소금기를 말한다. 그렇게 소금기가 핀 것을 ‘간꽃 올르다’라고 한다. ‘간꼬짐’은 몸에 핀 소금기를 말한다. 몸에 소금기가 핀 것을 ‘간꼬짐 피었다’라고 말한다. 미역이나 모자반 따위에 핀 소금기는 ‘간꽃’이라고 하고, 몸에 핀 소금기는 ‘간꼬짐’이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 ⇒ 바다에서 나는 해초류는 이렇게 바로 막 이렇게 담으면은 상품이 안 되도 이렇게 딱 잠재게 한 사오 일 이렇게 눌러 놓면은 그렇게 {간꽃 올른 듯해야} 거 품질이 좋아요.
- ⇒ 사람 몸에 딱 바닷물이 이렇게 딱 해도 민물 하지 않고 그대로 몰랐을 때 이런 데 바닷물이 쫘 싸락싸락 {간꼬짐 피었다} 그래요.

2.4.5. 기타

2.4.5.1. 종류

1) 거북이

‘거북이’는 추자도에서 ‘거북’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 큰 {거북이는} 아니라도 이제 이런 조그만한 그런 모래밭에서 그런 거 가끔 보이더라고.

2) 편푸, 펜푸, 오징어

‘편푸, 펜푸’는 추자도에서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오징어, 오징에’도 조사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편포(片脯)’가 ‘마른 오징어’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다. ‘마른 오징어’를 가리키는 ‘편포’가 그 의미가 확장되어 추자도에서는 ‘오징어’로 쓰이고 있다.

- ⇒ {오징어를} 옛날에는 거 {편푸다} 했어요.

3) 구러기, 구레기

‘구러기, 구레기’는 자포동물 해파리강, 히드라충강의 부유 세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몸은 한천질이고 샷샷 모양으로 생겼으며 갓 밑에는 많은 촉수가 늘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 입이 있다. 촉수 표면에는 많은 자세포가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독침으로 먹이를 쏜다. 표준어 ‘해파리’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한 멧 년 전에 요 섬에서 물질을 하는데 엄청 그해는 {구러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 물발이 썰 때는 물 조류에 따라서 {구러기가} 막 떴어서 와요.
- ⇒ 해파리 그 저 {구레기} 발이 독성이 있더라구요.

4) 낙지, 문어, 꼴뚜기

‘낙지’는 추자도에서 ‘낙지’, ‘문어’는 ‘문어’, 꼴뚜기는 ‘꼴뚜기’라고 한다. 추자도에서 많이 잡히는 해산물이 아니어서 어휘망이 확장되어 있지는 않다.

7) 해심, 홍삼, 홍해심, 물 밑에 삼, 흑삼, 흑해심, 백해심, 백삼, 독해심

‘해심’은 바다에 나는 극피동물. 몸은 둥근 통꼴이며 온몸에 오돌도톨한 돌기가 나 있고, 몸빛은 검푸른 갈색 또는 검붉은 갈색을 띤다. 살은 날로 먹고 창자는 젓갈을 담근다. 표준어 ‘해삼’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해심’은 ‘홍삼, 홍해심, 흑삼, 흑해심, 백해심, 독해심’ 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홍해심’은 바닷가 돌이 깔려 있는 곳에 사는 해삼으로, 붉은 색을 띠는 해삼을 말하는데 ‘물 밑에 삼’이라고 해서 귀하게 여긴다. ‘흑해심’은 펄에 사는 해삼으로 검은빛을 띠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표준어 ‘흑해삼’, ‘백해심’은 빛이 희고 반투명한 해삼으로 표준어 ‘백해삼(=흰해삼)’에 해당한다. ‘독해심’은 기다란 모양을 하는 해삼으로, 먹지 않는다. ‘홍해심’을 줄여서 ‘홍삼’, ‘흑해심’을 줄여서 ‘흑삼’, ‘백해심’을 줄여서 ‘백삼’이라고도 한다.

- ⇒ {홍삼이란} 것이 삼이라고 {물밑에 삼}이라고 해서 그것이 많이 안 나요. 요즘에는. 옛날에 우리 무레할 때는 통으로 한나씩 잡아와서 왔어.
- ⇒ 빨간 것은 {홍해심}, 검은 것은 {흑삼}.
- ⇒ {독해심이라고} 모양도 없어요. 질다라게 이렇게 생긴 거는 안 먹어요.
- ⇒ {백삼도} 있어요 백해심.
- ⇒ {백해심도} 이렇게 여기 싸람. 저런 데서는 텔레비 한번 보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약 쥔다 그러는데 우리 추자 사람들 인식에는 그 {백해심} 안 먹어요.

8) 멍게, 돌멍게, 참멍게, 개멍게

추자도에서는 ‘멍게’ 종류도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멍게’도 ‘돌멍게, 참멍게, 개멍게’로 분화되어 나타난다. ‘돌멍게’는 돌에 붙어 있는 붉은색을 띠는 멍게로, ‘참멍게’라고도 한다. ‘개멍게’는 돌멩이 모양으로 둥글게 생긴 거무스레한 멍게를 말한다.

- ⇒ 그냥 돌에 붙은 그 저 빨간 거 보고는 그냥 이렇게 {돌멍게다}고까만 이렇게 둥그렇게 모양 없이 생긴 거는 또 {개멍게다}.
- ⇒ 그 {참멍게다}고 할 때는 그 돌에 부튼 것은 빨갭게 이렇게 저 양식하는 그 멍게하고 똑 같고 종류가. {개멍게는} 또 까만 이렇게 둥그렇게 모양도 안 이쁘고 그러대.

9) 굴밤수, 까만굴밤수, 하얀굴밤수, 뿔굴밤수

‘굴밤수’는 추자도에서 ‘성게’를 가리키는 말이다. ‘까만굴밤수’는 성게 돌기가 까만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얀굴밤수’는 돌기가 옅은 색인 ‘말똥성게’를 말한다. ‘뿔굴밤수’는 돌기가 많이 나 있는 보라성게를 추자도에서 일컫는 말이다.

- ⇒ 성게는 {굴밤수}.
- ⇒ 여기도 {굴밤수다고는} 하는데 이 추자 사람들은 별로 이 {굴밤수를} 신경 안 써요.
- ⇒ {까만굴밤수} 있다 요거. 또 {하얀굴밤수} 있다 이렇게.
- ⇒ {굴밤수} 있고. 보라성게라고 있지 않습니까 {빨굴밤수}.

10) 불가사리

‘불가사리’를 추자에서는 ‘불가사리’라고 말한다. 추자도 해녀들은 1년에 한두 번 전복과 소라 등을 잡아먹는 불가사리 채취 작업을 한다고 한다.

- ⇒ 우리 해녀들 이렇게 일 년에 한두 번 {불가사리} 채취하죠.

12) 보찰

‘보찰’은 표준어 ‘거북손’을 일컫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추자도에서는 ‘보찰’을 따다가 삶아서 먹는다고 한다.

- ⇒ 거북손 여기는 {보찰}. 그거는 삶아서 국물에 이렇게 씨원하니 먹어요. 까서 그 {보찰} 까서 그 국물 한 가지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13) 꿀통

‘꿀통’은 추자도에서 ‘따개비’를 일컫는 어촌 생활어다.

2.4.5.2. 상태

1) 비령내, 비령내 나다, 굶다

‘비령내’는 ‘날콩이나 물고기, 동물의 피 따위에서 나는 역겹고 매스꺼운 냄새’를 말한다. 생선을 뒤처리한 후에 나는 냄새를 ‘비령내 난다’라고 표현한다. ‘비령내’는 표준어 ‘비린내’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생선이 썩어 냄새나는 고기는 ‘굶다’라고 한다.

- ⇒ 냄새나는 고기보고는 {굶아부렀다}. 그 뒤치닥거리 하고 난 뒤 냄새는 {비령내 난다}.

2) 불다

‘불다’는 들이닿아서 떨어지지 않다는 의미다. 전복이나 오분자기가 돌에 달라붙어 있을 때 ‘불다’라고 표현한다.

- ⇒ 마드레기는 야픈 지역에 이렇게 꼬랑 꼬랑, 꼬랑 꼬랑에 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3) 빨강다, 노랑다, 검다

‘빨강다’는 표준어 ‘빨갓다’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노랑다, 검다’는 표준어 형과 같다.

⇒ {빨강} 것은 홍해삼, {검은} 것은 흑삼.

4) 쫓긋하다, 쫓긋쫓긋하다

‘쫓긋하다’, ‘쫓긋쫓긋하다’는 ‘물체의 끝이 점차 가늘어져서 날카로운 모양을 하다’는 의미의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표준어 ‘뾰족하다’에 대응하는 말이다.

⇒ 그냥 {쫓긋쫓긋하다}.

⇒ 참고동은 똥그라이 {멘질멘질한} 것. 그거는 참고동이고, 이렇게 {쫓긋하니} {길쭉한} 것은 그냥 고동이다 하고.

5) 딱딱하다

‘딱딱하다’는 ‘몹시 굳고 단단하다’는 의미의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고동 껍데기 {딱딱하죠}.

어획물과 관련한 어휘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어획물	조사 어휘
물고기	대가리, 머리, 주둥이, 아구지, 누갈, 등때기, 알금치, 숨새다, 날개쪽(날개쪽), 비늘, 껍떡, 배때기, 창시, 배창시, 창지, 타발쓰다, 부레, 살, 알, 꼬리, 까시, 물궤기, 뿔, 뿔치, 꼭사리, 징어리, 갈치, 고등에, 난쟁이, 난깅이, 낭쟁이, 가오리, 황가오리, 홍에, 땅게, 박대, 까자미, 까잘미, 멧태, 동태, 조구, 백조구, 황조구, 굴비, 부세, 쫓치, 학쫓치, 뽕쟁이, 상에, 광에, 병장에, 쟁에, 먹쟁어, 도미, 참돔, 벵어, 삼치, 고시(고씨), 방어, 하마치, 야스, 부시리, 농어, 꺾매기, 쥐궤기, 쥐고기, 민어, 통치, 우럭, 꺼먼우럭, 빨간우럭, 잡패, 쪼볼락(쪼불락), 놀래미, 알브다, 굽다, 질다, 크다, 잘잘하다, 넙작허다, 성허다, 타발쓰다, 찢르다
조개류	입, 주둥이, 심장, 창지, 조개, 뽕지락, 꾸죽, 큰꾸죽, 작은꾸죽, 얼룩꾸죽, 생꾸죽, 잔소라, 큰소라, 꾸죽뽕이, 고동, 참고동, 도토리고동, 소라벵이, 베말, 샘복, 전복, 큰샘복, 작은샘복, 마다리, 귀머거리, 샘복껍떡, 게옷, 마드레기, 오분자기, 꿀, 군북, 담추, 홍합, 새담추, 갓담추, 망지기, 똥그라하다, 멘질멘질하다, 길쭉하다, 길쭉길쭉하다, 쫓긋하다
게	등때기, 배때기, 내장, 눈갈, 까시, 기, 기고동, 참게

어휘물	조사 어휘
해조류	미역, 꿀통이, 뭇, 짐, 해우, 돌짐, 돌짐, 돌멩이짐, 완도짐, 추자짐, 첫짐, 두불짐, 뭇, 매끼, 개미역, 풍각, 퍼레, 갈퍼레, 국퍼레, 몰, 자반, 참몰, 참자반, 개몰, 몰뽕이, 톳, 봉알툇, 우무, 곤포, 가사리, 풀까사리, 창가사리, 뜸부기, 무에나무, 바르다, 우무 바르다, 간꼳, 간꼳 올르다, 간꼬짐, 간꼬짐 피엿다
기타	거북이, 편푸, 펜푸, 오징어, 구러기(구레기), 낙지, 문에, 꼴뚜기, 해심, 홍삼, 홍해심, 물 밑에 삼, 흑삼, 흑해심, 백삼, 백해심, 독해심, 멍게, 돌멍게, 참멍게, 개멍게, 굴밤수, 까만굴밤수, 하얀굴밤수, 빨굴밤수, 불가사리, 보찰, 비렁내, 비렁내 나다, 꿩다, 불다, 빨경다, 노랑다, 쫑끗하다, 쫑끗쫑끗하다, 딱딱하다

2.5. 어로 도구와 어로 방법

2.5.1. 그물류

2.5.1.1. 부분 명칭

1) 그물코

‘그물코’는 ‘그물에 뚫려 있는 구멍’을 말한다. 어종에 따라서 그물코의 크기가 달라진다.

⇒ 그냥 {그물코라고 그물코}.

2) 웃굽, 아바, 아랫굽, 히모

‘웃굽’은 그물의 윗부분을 말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일본어 ‘아바’라고도 한다. ‘아랫굽’은 그물이 밑으로 깔리는 부분을 일컫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일본어로 ‘히모’라고도 한다.

⇒ 우에는 {아바고} 밑에는 {히모다고} 말하는데, {웃굽} {아랫굽}.

2.5.1.2. 종류

1) 그물, 투망, 투망그물, 면그물, 쌀그물

‘구물’은 ‘노끈이나 실 따위로 여러 코의 구멍이 나게 엮은 물건’으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쓰는 말이다. 표준어 ‘그물’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그물을 던져서 고

기를 잡기 때문에 그물을 달리 ‘투망’이라고도 한다. ‘투망’은 표준어 ‘투망그물’에 해당한다. ‘투망그물’은 고기잡이를 할 때 배에서 던져서 고기잡이 하는 그물을 말한다. ‘면그물’은 면사로 짠 그물인데, 달리 ‘썰그물’이라고도 한다.

- ⇒ {투망이라고} 해요. {구물} 던지니까.
- ⇒ {면구물} 있죠. {썰구물}.
- ⇒ 조기 {투망구물이다}하고 그래요.



2) 형서리, 조망태, 전복망태

‘형서리’는 해녀가 채취한 해물 따위를 담아두는, 그물로 된 그릇을 말한다.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사용하는 ‘망사리’를 추자도에서는 ‘형서리’라고 말한다. ‘조망태’는 해녀들이 소라를 채취한 후에 담아서 물에 보관할 때 사용하는 망사리로, 크기가 작은 망사리를 말한다. ‘전복망태’는 해녀들이 물질을 때 전복을 따서 보관하는 작은 망사리이다.



[사진 14] 형서리와 두룽박 조망태(아래)

- ⇒ 우리는 {조망태}. {조망태덕} 해. 자기들이 사용하게 {조망태에다} 소라를 담아서 옮겨.
- ⇒ {전복망태라고} 했지.

3) 두룽박, 둘박

‘두룽박, 둘박’은 해녀들이 물질을 때 갖고 가서 물 위에서 타는 물건을 말한다. 채취한 해산물을 담는 ‘형서리’에 연결된 물건이다. ‘두룽박’은 예전에는 박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스티로폼으로 만들어 쓴다. 제주도의 ‘테왁’과 같은 것인데, 추자도의 ‘두룽박’은 제주도의 ‘테왁’보다 조금 더 크다.

2.5.2. 낚시류

2.5.2.1. 부분 명칭

1) 첨대, 술, 경심, 술뭉테, 술테

‘첨대’는 추자도에서 ‘낚싯대’를 일컫는 이름이고, ‘술’과 ‘경심’은 낚싯줄을 말한다. 낚싯줄 매는 것을 ‘술 맨다’, 또는 ‘경심 맨다’라고 말한다. ‘경심’은 ‘낚싯줄’의 재료인데, 낚싯줄의 의미로 쓰인 경우다. ‘술뭉테’는 낚싯줄을 감아놓은 실 뭉치이며, ‘술테’는 낚싯줄을 감는 ‘얼레’를 말한다.

- ⇒ 낚시다 하는데 {첨대하고} {경심 매고}.
- ⇒ {술} 맨다
- ⇒ 낚싯줄을 {술뭉테}.

2) 미늘, 낚시미늘

‘낚시미늘, 미늘’은 추자도에서 낚시 끝의 안쪽에 있는, 거스러미처럼 되어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작은 갈고리를 말한다. 낚시로 고기를 잡을 때 고기가 걸리는 부분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낚시미늘’이 미늘의 북한어로 올라 있다.

- ⇒ {낚시미늘이다} 하는가. {낚시미늘}/그냥 {미늘이다}.

3) 뽕돌

‘뽕돌’은 ‘낚싯바늘이 물속에 가라앉도록 낚싯줄 끝에 매어 다는 작은 쇠덩이’를 말한다. 표준어 ‘낚싯뽕’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낚으는 고기 그거 가가지고 줄 길게 매가지고 {뽕돌} 요렇게 해. 것도 철사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납 채워가지고 그렇게 잡더라고요. 낚싯대는 안 하고 줄낚시로.

2.5.2.2. 종류

1) 낚시, 삼봉, 펜푸낚시, 주낚, 줄낚시

‘낚시’는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작은 쇠갈고리를 말한다. 어종에 따라 낚시도 다르다. ‘삼봉’은 ‘세 갈래의 갈고리가 달린 낚시’를 일컫는다. 표준어 ‘삼봉낚시’를 말한다. ‘삼봉’은 주로 오징어잡이 때 사용하는 낚시다. ‘삼봉’을 추자도에서는 ‘펜푸낚시’라고도 한다. ‘주낚’은 한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개의 낚시를 단 고기잡이 기구다. 표준어 ‘주낙’에 해당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줄낚시’는 낚싯대 없이 낚싯줄 끝에 낚싯바늘을

맨 채로 고기를 낚는 낚시다. 대낚시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낚시에 미끼를 꿰어 물 밑에 던져두거나 미끼 없이 낚아채기도 한다.

- ⇒ {낚시} 옛날에는 경심하고 낚시 뭐. 뽕돌, 이런 거 많이 썼는데.
- ⇒ {삼뽕} 같은 건 안 써요.
- ⇒ 지금도 {주낚하는} 사람 있어요.
- ⇒ 낚으는 고기 그거 가가지고 줄 길게 매가지고 뽕돌 요렇게 해. 것도 철사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납 채워가지고 그렇게 잡더라고요. 낙싯대는 안 하고 {줄낚시로}.

2.5.3. 배

2.5.3.1. 부분 명칭

1) 간판

‘간판’은 ‘배 위에 나무나 철판으로 깔아 놓은 넓고 평평한 바닥’을 말한다. 표준어 ‘갑판’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2) 이물, 선수, 꼬불

‘이물’은 배의 머리 부분을 말한다. 달리 ‘선수’라고 한다. ‘꼬불’은 배의 뒷부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표준어 ‘고물’에 해당한다.

- ⇒ {이물} 앞에 쪽을 말하는 거죠. {선수} 쪽을.
- ⇒ 치 잡은 데가 {꼬불이고}.

3) 돛, 돛대

‘돛’은 표준어 ‘돛’, ‘돛대’는 ‘돛대’에 해당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여기서 {돛}.

4) 닻, 양까, 닻줄, 버리, 버릿줄, 버리 매다, 버릿줄 매다

‘닻’은 배를 한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다. 갈고리가 흙바닥에 박히어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닻’은 표준어 ‘닻’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일본어식으로 ‘양까’라는 말도 사용한다. ‘닻줄’은 표준어 ‘닻줄’에 해당되는데, 닻을 매다는 줄이다. 주로 밧줄이나 쇠줄로 되어 있다. ‘버리, 버릿줄’은 닻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키는 줄로, ‘버리’를 댈 때는 ‘닻 놓고 버리 매야지’처럼 표현한다.

- ⇒ {닷} 놓고 {버리 매야지}/그 줄로 매는 것 보고 {버리 맨다}.
- ⇒ {닷줄은} {닷이다} 하고 또 배가 가령 정박할 때 앞에도 줄을 매야쥬. {앙까} 하면은 양쪽으로 매는 것을 그 {버릿줄 맨다} 그래요.

5) 노, 밑노, 하노, 걸노

‘노’는 물을 헤쳐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를 말한다. ‘밑노’는 배의 뒤쪽인 고물에서 젓는 노를 말하는데, 배의 키 역할을 해주는 노다. 힘이 센 사람이 젓는 노다. ‘하노’는 ‘밑노’ 옆에서 젓는 노이고, ‘걸노’는 ‘하노’ 맞은편에서 젓는 노다.

- ⇒ {밑노} {하노} {걸노} {노가} 세 개거든.
- ⇒ 제일 앞에 노를 젓는 게 {밑노다} 했나.
- ⇒ {밑노}, 젓 근력 센 사람이 그게 키 역할까지 하는 거니까. {걸노} 보조해 주는 거.
- ⇒ 그 다음은 두 번 째 하는 사람은 {하노} 이쪽에서 하는 건 {걸노}.

6) 살대

‘살대’는 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로, 배를 댈 때나 띄울 때, 또는 물이 얇은 곳에서 배를 밀어 나갈 때 쓴다. 표준어 ‘상앗대’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샷대 옛날 말 {살대}.

7) 치, 키

‘치’는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를 말한다. 표준어 ‘키’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밑노, 젓 근력 센 사람이 그게 {키} 역할까지 하는 거니까. 걸노 보조해 주는 거.
- ⇒ 우리가 알기로는 {치} 잡은 사람은 사공이고 그러고 선장 밑에서 하는 간판장 말고.
- ⇒ {치} 잡은 데가 꼬불이고.

2.5.3.2. 종류

1) 어선, 고기 잡는 배, 어장배

‘어선’은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는 배다. 표준어 ‘고깃배’에 해당한다. 추자도에서는 ‘어선’을 풀어서 ‘고기 잡는 배’라 하기도 한다. ‘어장배’는 어장에 나가는 배라는 의미로 쓰인다. ‘어장’은 ‘물고기가 많은 곳 또는 고기잡이하는 곳’을 말하는데, 추자도에서는 고기잡이 가는



[사진 15] 딸딸이.

것을 ‘어장 나간다’라고 말한다.

- ⇒ {어선이다}. 고기 잡는 배.
- ⇒ {어장배}. {고기 잡는 배}.
- ⇒ 옛날 흔히 {어장배다} 그래요.

2) 똑딱선, 기계선, 발동기, 딸딸이, 작가, 작가선

‘똑딱선, 기계선, 발동기, 딸딸이, 작가선’은 모두 발동기로 움직이는 배를 일컫는 이름이다. ‘똑딱선’은 ‘똑딱’ 소리를 내는 발동기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딸딸이’는 모터 소리가 ‘딸딸딸’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가선’도 작은 기계선을 말한다.

- ⇒ 오 톤도 못 된 배보고 {똑딱선이다}. 전라도 말 있는데 {발동기}. {작가다} 했어. 지금 같으면 {발동기다} 하는데 {작가선}.
- ⇒ 사수도를 가মন은 물 밑에가 소라도 잇고 전복도 잇고 그라든 그땐 {기계선이} 있어.
- ⇒ 옛날에 우리 무례질 가মন은 섬으로 가. 섬으로 가고 {발동기} 타고 싹 물고. 한 앞에 만 원, 만 오천 원.
- ⇒ 갈치가 조꼬만 {동력선} 가지고 가면은 잡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일절 나지 않아요.

3) 전마선, 뽕마, 덴마

‘전마선’은 ‘큰 배와 육지 또는 배와 배 사이의 연락을 맡아 하는 작은 배’를 일컫는 말이다. 추자도에서 ‘전마선’은 뜻이 없는 작은 배를 말하는데, 줄여서 ‘전마’라고도 한다. 추자도 사람들은 ‘전마’는 일본어 ‘덴마, 뽕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 ⇒ 그리고 {뽕마}. 지금 말로 {전마선}.

4) 풍선

‘풍선’은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 그냥 {풍선이라고} 해요.

6) 떼배

‘떼배’는 ‘뗏목처럼 통나무를 엮어 만든 배로, 주로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 쓴다.’ 추자에서는 ‘떼배’를 이용하여 ‘몰’ 즉, 모자반을 캐서 실어 날랐다고 한다.

- ⇒ 저의 할아버지 때는 후포라 하는 데 {떼배가} 있어요. {떼배를} 가지고 몰대{몰떼}라 그러죠. 몰 캐는 거를 대 몰대 두 개를 넣어가지고 몰에다 감아요. 몰에다 감으면은 몰이 다 감깁니다.

7) 객선

‘객선’은 여객을 태워 나르기 위한 배이다. ‘여객선’이라고도 한다.

⇒ {객선} 오면은 우리들 혹시 누가 살란가 {객선으로} 가서 짐 풀고.

8) 수협배

‘수협배’는 추자도에서 수협에서 운영하는 배를 일컫는 말이다.

⇒ {수협배가} 있고. 궤기 배 물간에다 다 살려요.

9) 물칸, 물깁

‘물칸, 물깁’은 배에 일정한 규격으로 둘러막아 물을 넣어 두는 공간을 말한다. 낚은 고기가 살아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 안에 설치한다. 표준어 ‘물간’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물간’의 잘못으로 올라 있다.

⇒ 배 {물칸} 띄어가지고 아래에서 고기 살려.

⇒ {수협배가} 있고. 궤기 배 {물간에다} 다 살려요.

2.5.4. 어로도구

2.5.4.1. 기타

1) 창, 창질, 창질하다

‘창’은 추자도에서 물고기를 찢러 잡는 기구인 ‘작살’을 일컫는 말이다. 작살로 고기를 쏘는 행위를 추자도에서는 ‘창질’이라고 하고, 창으로 고기를 쏘는 것을 ‘창질하다’라고 표현한다.

⇒ {창이라고},/제주에서 해녀들은 맛 좋은 고기 {창질해서} 쏘아오는 데.

2) 통발

‘통발’은 가는 뗏조각이나 싸리, 그물 따위로 통같이 만든 고기잡이 기구를 말한다. 추자도에서는 통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 {통발은} 경상도배들이 하지 뭐.

3) 바구리, 바굼지, 웅둥바구리, 조락, 산태미

‘바구리, 바굼지’는 대오리 따위로 엮은 바구니를 말한다. 추자도에서 해산물을 캐고 담아올 때 사용했던 도구다. 1970년대까지 ‘바구리’를 사용했다고 한다. ‘웅둥바구리’는 작은 바구니를 말하고, ‘조락’은 대오리로 크게 결은 바구니를 말한다. 제주에서는 ‘조락’이 작은 바구니를 뜻해 추자도와는 정반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산태미’는 삼태기의 추자도 어촌 생활어로, 김을 말리는 과정에서 김의 간물을 뺄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삼태기의 방언(강원, 경남, 경북, 전남, 충북)으로 올라 있다.

- ⇒ 육십 년 칠십 년 대에는 저 그 {바구리에} 담아서.
- ⇒ {웅둥바구리} 베말 같은 작은 거 넣고.
- ⇒ {큰 바구리를} {조락}.
- ⇒ {조락} 여자들 산에 가서 나무해서 여자들이 이고 다니고 {바구리보다} 커요.
- ⇒ 우리말로 밥 싸먹는 해우. 그 {바굼지} 와깁게 쓰지.

4) 다라, 리아까

‘다라’는 대야를 일본어식으로 표현한 말이다. 추자도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갈 때 도구를 담아서 갈 때 사용하는 도구다. ‘리아까’는 리어커를 일본어식으로 표현한 말이다. 추자도에서 해녀들이 물질할 때 물질 도구를 싣고 갈 때 사용한다.

- ⇒ 옛날에는 고무옷을 안 입고 잠뱅이를 입었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치 않았어요. 그냥 수경이나 물수건 잠뱅이가 잠뱅이다 했어요. 그것만 헛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치 않아서 바구리 담아서 댕겼는데 지금은 고무옷을 입으면서 납도 있죠 이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고무옷도 부피가 좀 하나까 {다라에다가} 이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이제 {리아까에다}.

5) 호맹이, 까꾸리, 비창, 낫

‘호맹이’는 추자도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호미이고, ‘까꾸리’는 해녀들이 오분자기 딸 때 사용하는 호미를 말한다. ‘비창’은 전복 딸 때 사용하는 쇠로 된 도구다. ‘낫’은 추자도에서 톳을 베거나 모자반을 캐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준어 ‘낫’과 어형이 같다.



[사진 16] 까꾸리와 비창(아래)

- ⇒ 조개 {호맹이} 갖고 {파갖고}.
- ⇒ {까꾸리} 마드레기 딸 때. 그 {까꾸리} 옛날에는 {비창으로} 땀는데 지금은 {까꾸리가} 나와서 {까꾸리로} 그걸로 따지.
- ⇒ {비창을} 이제 몸에 차고 가서 썸북이 있을 {비창으로} 사용하고. 소라 있을 때는 맨손으로.

6) 속곳, 잠뱅이, 고무옷, 물수건

‘속곳’은 추자도에서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무명으로 만든 옷을 말한다. 요즘에는 ‘속곳’대신 ‘잠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여기에서 ‘잠뱅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잠방이’(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홉바지.)의 의미와는 다르다. ‘고무옷’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있는 고무로 만든 옷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고무로 만들어졌다. ‘고무옷’이 나오면서 해녀들의 물질 시간도 길어졌다. ‘물수건’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머리에 쓰는 무명천으로 만든 수건을 말한다.

⇒ 옛날에는 {고무옷을} 안 입고 {잠뱅이를} 입었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치 않았어요. 그냥 수경이나 {물수건} {잠뱅이다} {잠뱅이다} 했어요. 그것만 헛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치 않아서 바구리 담아서 덩겼는데 지금은 {고무옷을} 입으면서 납도 있죠, 이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고무옷도} 부피가 좀 하니까 다라에다가 이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이제 리아까에다.

7) 납, 오리발

‘납’은 해녀들이 고무옷을 입을 때 물에 가라앉지 못하게 허리에 차는 물건이다. 납으로 만들어져서 붙은 이름이다. 제주에서는 ‘뿔돌’이라고 한다. ‘오리발’은 사람이 물속에서 활동할 때에 발에 끼는 오리발 모양의 물건을 말한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발에 신는 도구다.

⇒ 옛날에는 고무옷을 안 입고 잠뱅이를 입었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치 않았어요. 그냥 수경이나 물수건 잠뱅이가 잠뱅이다 했어요. 그것만 헛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치 않아서 바구리 담아서 덩겼는데 지금은 고무옷을 입으면서 {납도} 있죠. 이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고무옷도 부피가 좀 하니까 다라에다가 이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이제 리아까에다.

⇒ 납을 차야 까라앉지 않지. 그거 메고 눈 써고 {오리발} 신고 그라문 들어가요.

8) 투거리

‘투거리’는 잠수부들이 잠수할 때 머리에 쓰는 잠수 기구다. 공기를 받는 변과 공기를 뿜는 변이 달려 있는데, 잠수부가 머리에 쓰고 두 변을 조절하면서 물속에서 활동한다. 표준어 ‘투구’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9) 수경, 눈, 큰눈

‘수경’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눈에 쓰는 기구다. 달리 ‘눈’이라고 한다. 해녀가 물질을 할 때에 쓰는, 큰 알이 하나인 물안경을 ‘큰눈’이라고 표현한다. ‘수경, 눈’은 표준어 ‘물안경’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그 해파리 이렇게 까만 떨어지는 발. 이 {수경을} 썼는데 입 부분에 요리가 나오니까 쏘아갓고 입이 이렇게 뉘뉘더라고. 엄청 아프더라고. 독이 있더라고.

⇒ 물질 갈 때 내 {눈} 어디로 갔지./큰 거는 {큰눈이라고}.

10) 바늘대

‘바늘대’는 그물을 만들거나 기울 때 쓰는 바늘이다. 쇠나 대, 뼈 따위로 만든다. 표준어 ‘그물바늘’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우리말로 {바늘대} 실 감아가지고 {바늘대} 꿰메는 거예요. 바느질하듯이.

⇒ {바늘대로} 그물 준다.

11) 쪽바지

‘쪽바지’는 추자도에서 그물에 걸린 멸치를 배에 옮겨 놓을 때 사용하는 기구다. 표준어 ‘뜰채’에 해당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배에서 멸 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물 떠갖고 있을 때 {쪽바지로} 배로 올려야.

12) 이깍, 인조이깍, 공갈낙시

‘이깍’은 ‘낙시에 끼워 물고기가 물게 하는 먹이’를 말한다. 표준어 ‘미끼’에 해당한다. ‘인조이깍’은 비닐 따위로 멸치 모양으로 만든 미끼를 말하는데, 달리 ‘공갈낙시’라고도 한다.

⇒ 조기 같은 거는 {이깍} 필요없지.

⇒ 삼치 낚는 거는 {인조이깍} 써야고.

13) 몰대

‘몰대’는 추자도에서 모자반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긴 막대기를 말한다.

⇒ 몰 캐는 거를 대 {몰대} 두 개를 넣어가지고 몰에다 감아요. 몰에다 감으면은 몰이 다 감깁니다.

14) 해우발, 짐발, 해우틀, 짐틀, 김틀

‘해우발’은 김을 말릴 때 사용하는 발로, 달리 ‘짐발’이라고도 한다. ‘해우틀’은 네모난 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김발 위에 얹어서 사용하는 ‘김틀’을 말한다. 달리 ‘짐틀’이라고도 부른다.

⇒ {짐발} {해우발은} 요 정도 돼요.

⇒ 짐 만든 거 {짐틀도} 있고.

2.5.5. 어로 행위

2.5.5.1. 조개류

1) 파다

‘파다’는 ‘속에 묻혀있는 것을 걸으로 드러나게 꺼내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모래 속에서 호미로 조개를 팔 때 하는 말이다.

⇒ 조개 호명이 갖고 {파갖고}.

2) 따다, 잡다, 생복 따다, 꾸죽 잡다

추자도에서는 해녀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산물 을 따는 것을 ‘따다’ 또는 ‘잡다’라고 한다. 전복이나 오분자기를 따는 것을 ‘생복 따다’, ‘오분제기 따다’라고 말하고, 홍합을 잡을 때는 ‘홍합 따다’, 소라를 잡을 때는 ‘꾸죽 잡다’라고 표현한다.



[사진 17] 꾸죽

- ⇒ 홍합 큰 것들은 손으로 {따지마는}.
- ⇒ 물이 깨끗이 벗어지고 나면, 물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나면 바다가 오분제긴 이런 트망에서 {따니까}.
- ⇒ {생복 따다}
- ⇒ {꾸죽은 잡는다}.
- ⇒ {오분자기도 그냥 따다}.

3) 무레질, 물질

‘무레질, 물질’은 해녀들이 바다에서 소라나 전복 따위를 따는 행위를 일컫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무레질하고} 돈 벌고.
- ⇒ 옛날에 우리 {무레질} 가문은 섬으로 가.

2.5.5.2. 해조류

1) 물리다, 말리다

‘물리다’는 젖어 있는 것을 햇볕에 널어 물기를 없애다는 의미다. 표준어 ‘말리다’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표준어형인 ‘말리다’도 조사되었다.

- ⇒ 쥐고기 {몰린} 것이라고.
- ⇒ 소금 간질해서 {말리고}.

2) 꾸득꾸득하다

‘꾸득꾸득하다’는 햇볕에 말려서 물기가 빠져 조금 굳다는 의미다. 표준어 ‘꾸들꾸들하다’ 정도에 해당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홍삼 살짝 썰로 꺾어서 널어놔다다 얼른 {꾸득꾸득해가지고} 하면은 특산물로 해서 저 일본 가면은 돈 많이 번다.

3) 소끄다

‘소끄다’는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찜통에 넣어서 익히다’는 의미다. 추자도에서는 소라를 깨서 알맹이만 솥에 넣어 찌서 먹는다.

- ⇒ 꾸죽은 깨가지고 {소까가지고} 저 회도 해서 먹고 {소까가지고} 그냥도 먹고.

2) 널다

‘널다’는 ‘별을 쪼거나 바람을 쐬기 위하여 펼쳐 놓다’는 의미다.

- ⇒ 홍삼 살짝 썰로 꺾어서 {널어놔다다} 얼른 꾸득꾸득해가지고 하면은 특산물로 해서 저 일본 가면은 돈 많이 번다.

2.5.5.3. 그물류

1) 짜다, 만들다

‘짜다’는 ‘실이나 끈 따위를 씨와 날로 곁어서 천 따위를 만들다’는 의미다. 추자도에서 그물 만드는 것을 ‘그물 짜다’ 또는 ‘그물 만든다’라고 표현한다.

- ⇒ 그물 {짜다}.
- ⇒ {그물 만든다} 해요.

2) 땡기다

‘땡기다’는 추자도에서 ‘그물 따위를 바다로 던지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 ⇒ 그물 {땡겨분다}.

2.4.5.4. 낚시류

1) 나끄다, 수질 가다

추자도에서 낚싯대를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고기 나끄러 가다’고 말한다. 또 ‘수질 가다’라고도 표현한다.

- ⇒ 고기 {나끄러} 가자.
- ⇒ 우리 어렸을 때는 잡패 {나끄곡}. 쪼불락이나 우럭 같은 거 침대로.
- ⇒ {수질} 간다

2) 흘치다

‘흘치다’는 고기잡이를 할 때 ‘낚싯바늘을 이리 저리 옮기다’는 의미로 쓰이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방어 잡이를 하는 사람이 낚싯줄을 가지고 손을 놀리는 모습이 ‘흘치는’ 것이다.

- ⇒ 방어하고 야스는 {흘쳐}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밑에서 이깎 놀아줘야 되니까. 움직일 거 아니예요?

3) 걸리다, 올리다

‘걸리다’는 고기 따위가 ‘그물 따위에 막히거나 잡히다’는 의미로 쓰인 경우다. ‘올리다’는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높은 곳으로 옮기다. 바다에 쳐 놓았던 그물을 배 위로 올릴 때 사용하는 어휘다.

- ⇒ 배에서 멜 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물 떠갖고 있을 때 쪽바지로 배로 {올려야}.

2.5.5.5. 배

1) (키를)잡다

‘잡다’는 ‘손가락으로 움켜쥐어 놓지 아니하다.’는 의미다.

- ⇒ 우리가 알기로는 치 {잡은} 사람은 사공이고 그러고 선장 밑에서 하는 간판장 말고.

2) 타다

‘타다’는 ‘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얹다’는 표현이다.

- ⇒ 배 {타고} 나간다.

3) 매다

‘매다’는 달아나지 못하도록 고정된 것에 끈이나 줄 따위로 잇대어 묶는다는 의미다.

⇒ 침대 {매는} 줄/뒹 놓고 버리 {매야지}.

4) 끌르다

‘끌르다’는 ‘맺은 것이나 맨 것을 풀다’는 의미다. 표준어 ‘끄르다’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버릿줄 매라. 버릿줄 {끌러라}.

5) 뜨다, 까랑지다

‘뜨다’는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르다’는 의미다. ‘까랑지다’는 ‘물 따위에 떠 있거나 섞여 있는 것이 밑바닥으로 내려앉다’는 말이다. 표준어 ‘가라앉다’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로, ‘뜨다’의 반의어다.

⇒ 배 {뜨다}. 배 {까랑져부렀다}.

6) 실따

‘실따’는 표준어 ‘신다’에 해당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무레꾼 {실꼬} 간다고 그라지요.

2.5.5.6. 기타

1) 쏘다, 창질하다

‘쏘다’는 작살 따위를 고기를 향하여 발사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어휘다. ‘창질하다’는 추자도에서 고기를 향해 ‘작살을 쏘다’는 의미다. ‘창’은 작살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제주 해녀들은 맛좋은 고기 {창질해서} {쏘아} 오는데.

2) 간질하다

‘간질하다’는 ‘생선을 소금에 절이다’는 의미로 쓰이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고기 잡아오면 소금 {간질해서} 말리고.

어로 도구와 어로 방법에 관련한 조사어휘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어로도구와 어로방법	조사 어휘
그물류	그물코, 옷굽, 아바, 아랫굽, 히모, 그물, 투망, 투망구물, 면그물, 썰그물, 형서리, 조망태, 전복망태, 두롱박, 돌박
낚시류	침대, 술, 경심, 술몽테, 술테, 미늘, 낚시미늘, 뽕돌, 낚시, 삼봉, 펜푸낚시, 주낚, 줄낚시
배	간판, 이물, 선수, 꼬불, 돛, 돛대, 닛, 닛줄, 버리, 버릿줄, 버리 매다, 버릿줄 매다, 노, 밑노, 하노, 걸노, 살대, 치, 어선, 고기 잡는 배, 어장배, 똑딱선, 기계선, 발동기, 딸딸이, 작가(작가선), 전마선, 뽕마(뽕마), 풍선, 떼배, 객선, 수협배, 물칸, 물간
어로도구	창, 창질, 창질하다, 통발, 바구리, 바굼지, 웅둥바구리, 조락, 산태미, 다라, 리아까, 호맹이, 까꾸리, 비창, 낫, 속곳, 잠뱅이, 고무옷, 물수건, 낚, 오리발, 투거리, 수경, 눈, 큰눈, 바늘대, 쪽바지, 이깁, 인조이깁, 공갈이깁, 몰대, 해우발, 짐발, 해우틀, 짐틀, 김틀
어로행위	파다, 따다, 잡다, 생복 따다, 꾸죽 잡다, 무레질, 물질, 물리다, 말리다, 꾸득꾸득하다, 소끄다, 널다, 짜다, 만들다, 뽕기다, 나끄다, 수질 가다, 흘치다, 걸리다, 올리다, 잡다, 타다, 매다, 끌르다, 뜨다, 까랑지다, 싹따, 쏘다, 창질하다, 간질하다

2.5.6. 음식

2.5.6.1. 젓갈류

1) 새비젓, 새비젓갈

‘새비젓, 새비젓갈’은 ‘새우를 넣어서 만든 젓갈’이다. 표준어 ‘새우젓’에 해당한다. ‘새비’는 표준어 ‘새우’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 {새비젓} 좋아하는 사람은 사다 먹고.
- ⇒ 굳이 {새비젓갈} 쓰거나 그런 것 없어요.

2) 멜젓, 멜치젓, 멜치젓갈

‘멜젓, 멜치젓, 멜치젓갈’은 추자도에서 ‘멸치를 넣어서 만든 젓갈’을 가리키는 말이다.

- ⇒ {멜치젓을} {멜젓}.

3) 조구젓

‘조구젓’은 ‘조기로 담근 젓갈’을 말한다. 표준어 ‘조기젓’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조구젓} 소금에 멜치젓 담듯이.

4) 갈치젓

‘갈치젓’은 ‘갈치로 담근 젓갈’이다. 보통 갈치 꼬리와 머리를 이용해서 젓갈을 담근다.

⇒ 젓갈 중에서도 {갈치젓이} 최고지. 갈치는 꼴랑지 젓이 최고야. 갈치는 먹을, 다 따로따로 다 해요. 데가리하고 꼴랑지하고는 간해 났다가 익은 젓갈로 먹고 탕탕 좇아갖고 젓갈로 먹고 그래요.

5) 알금치젓

‘알금치젓’은 갈치의 내장과 아가미 따위로 담근 젓을 말한다. ‘알금치’는 표준어 ‘아가미’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갈치 같은 거 알금치 나온 것을 갖고 젓갈해요. 갈치 {알금치젓}.

6) 오징에젓, 펜푸젓

‘오징에젓, 펜푸젓’은 추자도에서 ‘오징어로 담근 젓갈’을 말한다.

7) 홍합젓, 담추젓

‘홍합젓, 담추젓’은 추자도에서 ‘홍합으로 담근 젓갈’을 일컫는 말이다.

⇒ {담추젓이다} 하고 {홍합젓이라고} 그랬지.

2.5.6.2. 기타

1) 우뭇국

‘우뭇국’은 추자도에서 ‘우무로 만든 냉국’을 말한다. ‘우무’는 우뭇가사리를 끓여 묵처럼 식혀서 만든 음식이다.

2) 샘복죽

‘샘복죽’은 추자도에서 ‘전복죽’을 일컫는 말이다.

⇒ {삼복죽} 쑤운 언마나 맛있다고. 구할라든 {삼복죽} 쑤다.

3) 미역국

‘미역국’은 미역을 넣어서 끓인 국이다.

⇒ 아들 생일이나 손지 생일이나 {미역국} 끓여서 먹잖아요.

4) 끼리다

‘끼리다’는 표준어 ‘끓이다’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여기 사람은 저 담춧내 난다고 미역국 안 {끼려}. 그러디 제주도는 잘 {끼리더라고}.

음식과 관련한 조사어휘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음식	조사 어휘
음식(젓갈류)	새비젓, 새비젓갈, 멜젓, 멜치젓, 멜치젓갈, 조구젓, 갈치젓, 알금치젓, 오징에젓, 펜푸젓, 홍합젓, 담추젓
음식(기타)	우뭇국, 삼복죽, 미역국, 끼리다

2.6. 민속

2.6.1. 제의

2.6.1.1. 고사, 뱃고사, 치송, 치송하다

추자도에서 배에 고사를 지내는 것을 ‘고사, 뱃고사’라고 한다. 달리 음식을 해서 바다의 신에게 실어 보낸다는 의미에서 ‘치송’이라고 한다. ‘뱃고사’ 지내는 것을 ‘치송하다’라고 말한다.

2.6.2. 금기, 속설, 은어, 노래

2.6.2.1. 노래, 금기어

1) 뱃노래

‘뱃노래’는 추자도에서도 ‘뱃노래’라고 한다.

2.6.2.2. 금기어

1)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예펜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가라.

이 말은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갈 때 여자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이다.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은 여자를 부정한 존재로 보고, 새벽에 바다 나갈 때 여자를 만나는 것을 터부시했다. 환경이 달라 요즘은 부부가 함께 뱃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예펜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가라}. 거 옛날 아주 속담이여.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예펜네하고 그 얘기도 하지 말고 가라}.

2) 물질 가기 전에 돈 놈 안 준다.

이 말은 물질 가기 전에 돈을 남한테 빌려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바다에 해산물을 캐러 가는데, 집에 있는 돈을 내치면 좋지 않다는 속설을 반영한 금기어다.

⇒ 우리들이 마음 속으로 미신이라는게 {물질 갈 때 아침부터 돈 놈 안 주는 거}.

3) 정월 초하룻날은 돈 안 빌려준다.

이 말은 ‘정월 초하룻날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월 초하룻날부터 돈을 빌려주면 일 년 내내 집의 재물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속설을 반영한 금기어다.

⇒ {정월 초하룻날은 누가 돈 빌리레도 가지도 않지만은 돈 안 빌려줍니다}.

4) 제사상에는 치자 든 고긴 안 올린다

제사상에는 삼치, 갈치, 삼치와 같이 ‘-치’가 붙은 고기는 안 올린다는 말이다. 집안에 따라 약간씩 풍습이 다르기도 한다. 제보자 원용순은 ‘치자’ 든 바닷고기, 문어를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제보자는 삼치와 문어를 제사상에 올린다는 것으로 보아 가가레인 것 같다.

⇒ 제사상에 비늘 있는 고기는 다 올립니다. 문어라든지 이런 종류도 안 올리고. 그래서 갈치 삼치 무슨 {치 자 들어있는 음식은 안 올립니다}.

5) 제사상에는 비늘 없는 고기는 안 올린다

추라도에서는 제사상에 비늘 없는 고기는 안 올린다는 속설이 있다. 집안에 따라 삼치도 제수로 올린다는 것으로 보아 가가레인 것 같다.

⇒ 여기는 제사상에 그 비늘이 없는 고기는 안 올립니다.

6) 정월 초나흘날은 출항 안 한다.

추자도에서는 정월 초나흘날은 출항 안 하는 풍습이 있다. 초나흘날의 숫자 사(四)가 ‘죽을 사(死)’와 같아 이 날은 출항을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

⇒ 정월 초하룻날은 누가 돈 빌리레도 가지도 가지도 않지만은 돈 안 빌려줍니다. 그리고 초나흘날 있잖아요. 음력 정월 초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초나흘 있잖아요. {정월 초나흘날 출항 안 해요}.

민속과 관련한 조사어휘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민속	조사 어휘
제의	고사, 뱃고사, 치송, 치송하다
금기어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예뻐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가라, 물질 가기 전에 돈 놔 안 준다, 정월 초하룻날은 돈 안 빌려준다, 제사상에는 치자 든 고기 안 올린다, 제사상에는 비늘 없는 고기는 안 올린다, 정월 초나흘날은 출항 안 한다

3. 조사 결과

추자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는 2012년 2월부터 9월말까지 이루어졌다.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추자도 바다 관련 어휘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소녀 원용순 김석권 김옥섭 박철을 박은섭 고창완 이정자 등 8명의 제보자에게 2012년 2월 4일부터 8일까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8회에 걸쳐 2차례로 나눠 면대면 조사를 실시하여 어휘와 용례 구축을 하였다. 조사는 31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질문지 조사와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조사된 확장 어휘까지 509개가 조사되었다. 질문지 문항 가운데 48개는 추자도에서 조사되지 않았다. 조사된 509개 어휘 가운데 304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림말로 등재되지 않은 어휘다.

이번에 조사된 어휘 가운데 사전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특이한 어형을 보이는 어휘를 분야별로 나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자도 어업인인 어부와 해녀 관련 어휘를 조사하였다. 어부 관련 어휘로는 ‘어부, 뱃놈, 뱃사람, 선장, 사공, 간판장, 보신’ 등 7개의 어휘가 조사되었고, 해녀 관련 어휘는 ‘무레꾼, 추자해녀, 제주해녀’ 등이 조사되었다. ‘보신’은 ‘선장을 보조하는 사람’이고, ‘무레꾼’은 추자도에서 ‘해녀’를 뜻하는 명칭으로 두 어휘는 미등재 어

휘다.

- 2) 환경과 관련한 어휘는 ‘물때와 미세기, 날씨, 공간, 지형’ 등으로 나뉘어 어휘를 조사하였다. 추자도에서 물때는 ‘한물, 두물, 서물…열두물’, ‘한무새날(한무셋날), 두무새날, 열두무셋날’과 같이 세어 ‘-물’과 ‘-무새날’형이 나타나고, 조금으로 ‘아적조기, 한조기, 무수’를 센다. 한 달을 두 번으로 나뉘어 물때를 헤아리는데, 추자도에서 ‘한무셋날’(한무날)은 음력 초월흘과 스무닷새의 물때를 말하고, 열두무날은 음력 초엿새와 스무하루의 물때를 말한다. ‘아적조기’는 아츠조금, 한조기는 ‘한조금’, ‘무수’는 한무날과 한조금 사이에 있는 조금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무수’를 ‘무쉬’의 잘못, 또는 ‘무쉬’의 북한어로 등재해 놓고 있다.

‘미세기’ 관련 어휘로는 ‘민물, 선물, 물들다, 물쓰다’가 조사되었고,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의 밀물이 가장 높은 때를 ‘사리빨’이라고 하였다.

- 3) 바람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어휘가 조사되었다. 추자도에서 동풍은 ‘셋바람’, 서풍은 ‘하누바람, 늦바람’, 남풍은 ‘마파람’, 북풍은 ‘늦바람’, 북동풍은 ‘놉새’, 북서풍은 ‘놉하누’, 남동풍은 ‘동마손’, 남서풍은 ‘늦하누’라고 하였다. ‘놉바람’, ‘놉하누’, ‘동마손’, ‘늦하누’ 등은 사전에 올라있지 않은 어휘다. 소나기가 갑자기 떨어질 때는 ‘마파람 쏘나기 떨어진다’와 같이 관용구가 사용된다.

- 4) 비’와 ‘눈’과 관련해서는 특이한 어형이 조사되지 않았다. 추자도에서는 ‘여우비’가 조사되지 않은 대신 ‘호령이 장계 간다’는 관용구가 조사되었고, ‘함박눈’은 ‘숨눈’, ‘싸라기 눈’을 ‘싸락눈’, 안개를 ‘우네’라고 하였다. ‘해·달·별’과 관련해서는 관용구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추자도에서 해 뜰 무렵에 동쪽이 발개지는 현상을 ‘동쌀 준다, 동쌀 뜬다, 셋바람 불라고 동쌀 뜬다’처럼 표현하고, 해질 무렵 서쪽 하늘의 붉은 기운은 ‘붉새’라고 해서 ‘해가 질 때 별가면은 이삼일 후에 비 온다’고 했다. ‘감새가 높이 뜨면 바람이 분다’, ‘햇머리 한 것이 날 굿치겠다’, ‘은하수 꼬랑지다’, ‘달도 월식하고 해도 해식하는데 사람이라고 맘이 안 변하겠는가’, ‘비가 올라고 무지개 친다’라는 관용구도 조사되어 어휘 목록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추자도에서는 또 ‘천둥’을 ‘하늘소리’, 은하수를 ‘칠성’, 일식을 ‘해식’, 월식을 ‘달식’이라고 한다.

- 4) ‘바다’는 추자에서 ‘바닥’이라고 한다. 추자도 인근 바다를 ‘안골’, 추자도에서 먼바다를 ‘과깨바다’라고 하는데, ‘과깨바다’는 추자도에서 관탈섬 근처의 바다를 일컫는 이름이다. ‘바닷물’은 ‘갱물’, 파도는 ‘늬’, 거품은 ‘버꿈’이라고 하였다.

- 5) 지형과 관련해서는 포구를 ‘큰개안’ 또는 ‘축깡’이라고 하고, 포구에 쌓아진 방파제에 대응하는 말로 ‘독두말’이라는 특이한 어휘를 사용한다. 바위도 ‘암바위, 평지바위’로 나누고, ‘여’는 ‘연똥’이라고 하는데, ‘나온 연똥, 들어간 연똥’으로 구분하고 있다. 바닷가에서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너럭바위 위에 생긴 웅덩이를 ‘뚝병’이라고 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웅덩이’의 충청도 방언으로 올라 있다.
- 6) 어획물과 관련해서는 물고기, 조개류, 게, 해조류,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물고기를 추자도에서는 물궤기[물궤기]라고 발음하고, 입을 ‘주둥이, 아구지’라고 부르고, 아가미는 ‘알금치’, 비늘은 ‘날개쪽, 날개쪽’, 껍질은 ‘껍떡’, 창자는 ‘배창시, 창지’라고 하였다. 또 물고기명 가운데는 고유명과 일본어명이 혼효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이하다. 어명 가운데에는 또 ‘새끼 이름’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추자도의 대표어종인 ‘멸치’는 ‘멜, 멸치, 꼭사리, 대멜치, 쫄멩이’형이 조사되었다. ‘멜과 멸치’는 멸치, ‘꼭사리’는 자잘한 멸치, ‘쫄멩이와 대멜치’는 크기가 큰 멸치를 가리키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고등어’는 성어를 ‘고등에’라고 하고, 새끼를 ‘난쟁이, 난쟁이, 낭쟁이’ 등 이형태가 분화되어 나타난다. ‘가자미’를 일컫는 이름으로는 ‘땅게, 박대, 까자미, 까잘미’가 조사되었다. ‘조기’도 ‘조구, 백조구, 황조구, 굴비, 부세, 깡다리, 깡치, 봄조기’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난다. ‘깡다리와 깡치’는 조기 새끼를 일컫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붕장어는 ‘병장에, 붕장에, 짱어, 먹짱어’형이 조사되었고, 방어는 ‘방어, 하마치, 야스, 부시리’가 조사되었다. ‘하마치(はまち)’는 일본에서 ‘방어 새끼’를 가리키는 어휘인데 추자도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농어’의 새끼는 ‘꼴떼기’, 민어의 새끼는 ‘통치’라고 한다. 우럭은 ‘꺼먼우럭’과 ‘빨간우럭’이 조사되었다. 추자도에서는 ‘잡어’를 ‘잡패’라고 하였다. 생선의 배를 양쪽으로 가르다는 의미의 ‘배따다’를 추자도에서는 ‘타발 쓰다’라고 하였다.
- 7) 조개류로는 해녀들의 바다에서 채취하는 소라와 전복, 홍합, 꿀 등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어휘가 분화되어 나타난다. 소라는 ‘꾸죽’이라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큰꾸죽, 작은꾸죽, 큰소라, 잔소라’로 구분한다. ‘날 소라’는 ‘생꾸죽’, 소라 껍질은 ‘꾸죽팽이’라고 한다. 고동 종류로는 ‘참고동, 도토리고동, 소라벙이’가 조사되었다. 전복은 ‘셈복, 점복’이라고 하는데 큰 것은 ‘큰셈복’, 작은 것은 ‘작은셈복’, 전복 새끼를 ‘마다리, 귀머거리’라고 한다. 전복 내장은 ‘게웃’이라고 하였다. ‘오분자기’는 ‘마드레기’라고 하고, 깊은 바다에서 채취하는 자연산 굴은 ‘자연산 꿀’이라고 하였다. ‘홍합’을 담추라고 하는데, 깊은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을 ‘담추’라 하고, 바닷가 바위에 붙어사는 것을 ‘새담추’, 바닷가 인근의 작은 담추를 ‘갯담추’라고 구분해 불렀다. 상태와 관련해서는 ‘똥그라하다, 멘질 멘질하다, 길쭉길쭉하다, 쫙긋하다’가 조사되었다. ‘쫙긋하다’는 표준어 ‘뽕죽하다’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8) 계는 추자도에서 ‘기’라고 한다. 소라고동은 ‘기고동’이라고 하고, 추자도에서 ‘참계’라고 부르는 ‘계’는 다른 지역의 ‘참계’와는 다른 종류다.

9) 해조류와 관련해서는 미역, 김, 툇, 모자반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미역은 ‘미역’이라고 하고, 미역귀는 ‘꿀통이’라고 한다. 추자도에서 미역을 세는 단위로 ‘뭇’이 사용되는데, 말린 미역 20가닥을 ‘1뭇’이라고 한다. ‘김’과 관련한 어휘도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난다. ‘김’을 추자도에서는 ‘짐, 해우’라고 하는데, 돌에서 채취하는 김이라고 해서 ‘돌짐, 돌멩이짐’이라고 한다. 처음에 채취했다고 해서 ‘첫짐’, 두 번째 채취했다고 해서 ‘두불짐’이라고 한다. 김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인 ‘짐발, 해우발, 짐틀, 해우틀’도 조사되었다. 김을 세는 단위로는 ‘툇’과 ‘매끼’가 조사되었다. 추자도에서는 1툇을 김 15장, 김 20툇을 1매끼라 한다. 파래는 ‘퍼레, 갈퍼레, 국퍼레’가 조사되었고, 모자반은 ‘몰, 자반, 참몰, 참자반, 개몰, 몰뽕이’가 조사되었다. ‘몰뽕이’는 말린 모자반을 쌓아둔 가리를 일컫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이밖에도 어린 툇을 가리키는 ‘봉알툇’, 우뭇가사리를 나타내는 ‘우무’가 조사되었다. 풀가사리 종류도 ‘가사리, 풀까사리, 창가사리’가 조사되었다. 이밖에 추자도에서는 산호를 ‘무에나무’라고 하였다.

해조류 관련 행위와 상태 관련 어휘로는 ‘우무 바르다, 간꼇 올르다, 간꼬짐 피었다’가 조사되었다. ‘우무 바르다’는 우무를 하얗게 바랄 때 사용하는 말이고, ‘간꼇 올르다’는 미역이나 모자반 따위를 말릴 때 생기는 소금기를 말한다. ‘간꼬짐’은 더울 때 사람의 몸에 생기는 소금기를 일컫는 어휘다.

10) 기타 어종으로 오징어를 추자도에서는 ‘오징에, 펜푸’라고 하고, 해파리는 ‘구레기’라고 한다. 해삼은 ‘해심’이라고 하는데, ‘해심, 홍삼, 홍해심, 물 밑에 사는 삼, 흑삼, 흑해심, 백삼, 백해심, 독해심’ 등으로 다양한 어형이 조사되었다. 멍게(돌멍게, 참멍게, 개멍게)와 성게(굴밤수, 까만굴밤수, 하얀굴밤수, 빨굴밤수)도 어형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난다. ‘거북손’은 ‘보찰’, ‘파개비’는 ‘꿀통’이라고 한다.

냄새와 상태와 관련한 어휘로는 ‘비렁내, 비렁내 나다, 끓다, 쪼긋쪼긋하다’ 등이 조사되었다.

11)어로 도구 관련 어휘로는 그물류와 배, 기타 도구로 나눠 조사하였다. 그물류로는 그물의 윗부분을 ‘웃굽’, 아랫부분을 ‘아랫굽’이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아바’(웃굽)와 ‘히모’(아랫굽)라는 어휘도 조사되었다. 그물 종류로 ‘투망, 투망구물, 면그물, 썰그물’, 망사리로 ‘형서리, 조망태, 전복망태’가 조사되었다. ‘형서리’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갖고 가는 그물 주머니이고, ‘조망태’는 전복이나 오분자기 따위를 넣는 작은 망사리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바다에서 타는 도구’를 추자에서는 ‘두룽박, 둘박’이라고 하였다. 낚시류로는,

낙싯대를 ‘첨대’, 낙싯줄을 ‘술’, 열레를 ‘술몽테, 술테’라고 하였다. 낙시 종류로는 ‘삼봉, 펜푸낙시, 주낙, 줄낙시’가 조사되었다.

- 12) 배와 관련해서는, 부분 명칭으로 ‘간판, 이물, 선수, 꼬불, 돛, 돛대, 닻, 닻줄, 버릿줄, 버리 매다’ 등이 조사되었고, 노의 종류로 ‘밑노, 하노, 걸노’가 조사되었다. ‘밑노’는 배의 맨 뒤에서 젓는 노이고, ‘하노’와 ‘걸노’는 배의 양쪽에서 젓는 노다. ‘상앗대’는 ‘살대’, ‘키’는 ‘치’라고 하였다. 고깃배 종류로 ‘어선, 고기잡는 대, 어장배’가 조사되었고, ‘기켓배’ 명칭도 ‘뚝딱선, 기계선, 발동기, 딸딸이, 작가, 작가선’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전마선’은 ‘전마’라는 이름 대신 일본어형인 ‘텐마, 뽀마’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밖에 ‘풍선, 떼배, 수협배, 객선’ 등의 어휘도 조사되었다.
- 13) 기타 어구로 ‘창’(작살), 바구니류로 ‘바굼지, 웅둥바구니, 조락, 산테미’, 호미와 낫류로 ‘호맹이, 까꾸리, 비창, 낫’이 조사되었다. 추자도에서는 해녀들이 입는 물옷을 ‘속곳’ 또는 ‘잠벙이’라 하였다. ‘잠벙이’는 표준어 ‘잠방이’와는 다른 옷이다. 이밖에 해녀들이 물 질할 때 눈에 쓰는 ‘물안경’은 ‘눈’ 또는 ‘수경’이라고 하고, ‘인조미끼’는 ‘공갈낙시’, 미끼는 ‘이깍, 니끼’라고 한다. 모자반을 채취하는 긴 막대인 ‘몰대’도 조사되었다.
- 14) 어로 행위 관련 어휘로 ‘파다, 따다, 잡다, 무레질, 몰리다, 땡기다’도 조사되었는데, 여기에서 ‘땡기다’는 ‘당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물 따위를 바다에 던지다’는 의미로 쓰이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낙시 가다’의 의미인 ‘수질 가다’, ‘작살을 쏘다’는 의미의 ‘창질하다’도 고갱이 같은 어휘이다.
- 15) 음식 관련 젓갈 종류로는 ‘새비젓’(새우젓), ‘뽕젓·뽕치젓’(멸치젓), ‘조구젓’(조기젓), ‘갈치젓’, ‘알금치젓’(아가미젓), ‘오징에젓·펜푸젓’(오징어젓), ‘담추젓’(홍합젓)이 새롭게 발굴된 어휘다.
- 16) 민속과 관련해서는 금기어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이번에 조사된 어촌 생활 관련 금기어로는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예뻐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가라’, ‘물질 가기 전에 돈 놈 안 준다’, ‘정월 초하룻날은 돈 안 빌려준다’, ‘제사상에는 치자 든 고기 안 올린다’, ‘제사상에는 비늘 없는 고기는 안 올린다’, ‘정월 초나흘날은 출항 안 한다’ 등이다.

이번 추자도 어촌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에서 나타난 의의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조사에서는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재 어휘와 특이 어형이 많이 발굴되었다. 이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를 체계적으로 집적해 목록화했다는 자료 축적의 의미 외에도 우리의 언어 유산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언어 구축이라는 점에서 국어학적으로, 문화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조사 어휘들은 표준어형이 있는 부분은 표준어로 대역하였고, 표준어로 대역하지 못하는 부분은 뜻을풀이를 하여 이해를 도왔다. 모든 조사 어휘에는 용례를 실어 어휘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조사 어휘를 목록화하고 뜻을풀이를 하면서 기존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예를 들어 ‘한무날’과 ‘한조금’ 사이의 물때를 추자도에서 ‘무수’라고 하고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1]무쉬의 잘못, [2]무쉬의 북한어’로 올라 있다거나, 고깃배에서 물을 넣어 두는 ‘물간’을 ‘물칸, 물깁’ 형이 조사되었는데, 사전에는 ‘물간’의 잘못으로 올라 있는 것은 언어 종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셋째, 용례 자료는 조사 어휘를 용례 자료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추자도 방언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추자도 방언은 추자도 주민들의 생활 무대가 제주도와 전라도여서 두 지역과의 언어 접촉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언어 자료다.

넷째, 조사된 어휘 가운데는 표준어 대역어를 찾지 못하거나, 뜻을풀이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연구자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연계 조사도 필요하다.

다섯째, 매년 반복되는 문제지만 조사 기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현물 조사가 아니라 제보자들의 구술과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조사 내용의 오류도 생길 수 있다. 추자도 어촌 생활어 조사는 추자도 현지에서보다 어장, 또는 해녀들의 물질 공간인 다른 섬으로 조사를 가야하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이번 조사 기간에는 추자도의 주요 어장인 멸치 어장, 조기 어장, 삼치 어장이 형성되기 이전이어서 많은 제보자들의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홍합과 굴 관련 어휘는 채취 기간과 맞물려 수확물을 생생하게 사진 자료로 담을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장 조사를 덧붙여 추자도 어촌 생활어 보고서 내용을 보강한다면 추자도의 어촌 생활어의 체계적인 목록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제 3 장 동해 근해(울릉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1. 연구 추진 과정

1.1. 조사 계획

민족생활어란 민족이라는 범주와 생활이란 의미, 언어란 방식이 결합된 말로 이해된다. 민족생활은 우리민족이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한 문화에 기초한 생활방식을 말하며, 이러한 민족생활은 언어를 통해서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민족생활의 총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활 현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어휘는 표상하는 사물 또는 개념에 따라 생성하고 소멸하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도시화로 전환이 거의 완성된 단계이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생활방식도 산업화·도시화에 적합하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생활방식의 변화는 다시 사용하는 어휘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런 까닭에 우리민족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전통적인 생활어는 소멸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현대 일반인은 민족생활에 대한 지식을 얻기가 점점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민족생활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민족생활어 조사에서는 종전의 수행했던 공통주제인 ‘떡, 김치’와는 달리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라는 큰 주제 속에 지역을 ‘1) 동해안, 2) 서해안, 3) 남해안, 4) 제주의 해안’으로 나눈 후 공통된 질문지를 통해 기초어휘를 조사했다. 동해안의 경우는 2010년도에는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을, 2011년도에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을, 2012년도에는 울릉도(경상북도 울릉군)를 조사지역으로 했다. 특히 2012년도에는 도서지역의 어촌생활어에 중점을 두어 울릉도의 북면, 서면, 울릉읍을 모두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조사 지역에 차이를 둔 것은 동해안 지역의 다양한 언어 양상을 채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그 결과 강원도와 경상북도, 내륙과 섬이라는 지역과 지형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생활상의 차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기층생활어를 반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로 인해 동해안 어촌 지역에서 사용되는 기초 어휘를 담을 수 있었는데 이는 경상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의 언어를, 내륙과 도서지역의 언어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닐 것이다.

1.2. 조사 보고

1.2.1. 제보자

공통주제인 ‘어촌 생활어’는 동해안 섬 중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유일한 곳인 울릉군을 선정해 ‘울릉도’ 지역의 기초생활어를 고찰하였다. 조사 지역인 울릉도도 기존의 조사된 동해안 지역과 같이 해안어, 내륙어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울릉도의 성격상 이들은 모두 해안어로 볼 수 있다. 가능한 많은 해안어를 담기 위해 특정 행정구역만을 조사하지 않고 울릉군에 위치한 어촌 마을인 ‘울릉읍(도동, 저동, 사동), 서면(태하리), 북면(천부리)’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해안어를 수록했다. 이처럼 조사 지역은 모든 행정 구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는 섬 전반에 걸친 언어 사용 실태를 담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 조사 일정은 섬이라는 지형적인 요소와 계절상의 조건을 고려해 그 순서를 ‘북면 ⇒ 서면 ⇒ 울릉읍’으로 정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지역 구분 외에도 60대, 70대, 80대라는 세대별 연령 차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어휘와 그에 따른 변이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보자는 이주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토착민을 중심으로 하되 그 이주 시기가 40년이 넘는 경우는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어부라는 하나의 직업군 안에서도 그 세대에 따라 또 자신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기초생활어와 관련된 어휘와 함께 해당 지역의 방언형과 세대, 직종에 따른 언어도 찾아볼 수 있었다.

〈표 1〉 제보자

제보자	지역	기타
 이경우(87)	울릉군 북면 천부리	울릉도 북면 천부리 출생이고, 아버지는 경주지역에서 있다가 울릉도 천부로 이주했다. 오징어잡이를 30년 했고, 독학으로 초등학교를 마쳤다.
 강원도(87)	울릉군 북면 천부리	경북 청도 태생이지만 울릉도에 온지 44년이 넘었다. 울릉도에서 오징어 잡이를 한 지 25년이 되었다.(국졸, 육군 병장)

제보자	지역	기타
 견학용(87)	울릉군 북면 천부리	울릉도 북면 천부리 태생(아버지는 경주 태생)으로 35년 동안 오징어바리를 했고, 60~70년대는 다른 사람의 배를 탔다. 그 뒤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무학이나 서당을 다닌 적이 있음)
 임기학(81)	울릉군 북면 천부리	울릉도 북면 천부리 태생이고, 아버지도 이 지역에서 태어났다. 배를 타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상점을 하면서 노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국졸)
 정상권(86)	울릉군 북면 천부리	울릉도 북면 천부리 태생이고, 아버지도 울릉도 태생이다. 선대에서 물러받은 재산으로 20년 정도 선주를 하기도 했고 배도 타기도 했다.(국졸, 6.25 유공자임)
 정익선(70)	울릉군 북면 천부리	12살에 북한에서 부산으로 내려갔고 그 뒤 46년 전에 울릉도로 들어왔다. 울릉도에 와서 45년 동안 오징어배에서 어부로 일했다.(국졸)
 박봉식(70)	울릉군 서면 태하리	실제 나이는 71세이며, 울릉도 서면 태하리에서 태어났다. 증조부 때 울릉도에 들어왔으며(경북 영양 출생) 아버지도 이곳에서 태어났다. 선주를 20년 동안 했고, 오징어바리 선원을 3년, 오징어 건조를 10년 했다. 현재 울릉군 어촌계회장을 맡고 있다.(중 중퇴, 육군 제대)
 김성호(66)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울릉도에서 7대째 살고 있다.(130년 정도) 울릉도 도동에서 살다가 울릉도 천부로 다시 현포에서 저동으로 옮겨 살았다. 오징어 채낚기와 선원을 3년, 선장을 5년, 선주는 30년 정도 해 총 5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울릉도 수협조합장을 맡고 있다.(고졸이나 후에 대학을 진학했음. 육군 제대)

제보자	지역	기타
 김문관(60)	울릉군 울릉읍 도동	군위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 역시 군위 태생이다. 유아시절에 울릉도에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다시 군위로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쳤다. 그 뒤 70년부터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42년 동안 살고 있다. 중학교 졸업 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오징어 잡이를 하고 있다.(중졸)
 김세운(56)	울릉군 서면 태하리	울릉도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경북 울진군 태생인 아버지를 따라 들어왔다. 오징어 선주를 10년 했고, 선장과 선원을 35년 했다. 현재 태하2리 어촌계장을 맡고 있다.(중졸, 육군 제대)
 김형수(56)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아버지는 울릉도 태생이나 제보자는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시 아버지를 따라 울릉도로 들어왔고 현재 울릉도에 들어온 지 40년이 넘었다. 오징어배 선주를 25년, 선장을 29년 동안 했다.(고중퇴, 육군 제대)
 강영길(56)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어업을 했고, 어머니는 제주 해녀 출신이다. 제주시 용담동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때 울릉도로 들어왔다가 강원도 고성에서 5년 정도 잠시 거주했다. 그 뒤 울릉도에 다시 들어왔고 현재 40년이 넘었다. 오징어 채낚기를 40년 했고, 머구릿배를 11년 정도 운영했다.(고중퇴, 방위)

1.2.2. 조사 기간 및 방법

2012년 1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민족생활어 조사는 크게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 어촌생활어에 대한 참고문헌 조사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문헌에 기록된 조사 어휘를 항목별로 수집하고 목록화하여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본격적인 현지조사는 1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밀착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후 보완조사를 통해 자료를 보강하였다.

〈표 2〉 조사 세부 추진 계획표(2012년 1월 28일 ~ 2012년 9월 28일)

연번	세 부 추 진 계 획(월, 일)	비고
1	문헌 조사(1. 1. ~ 1. 12.)	
2	밀착 조사(1. 13. ~ 7. 5.) 조사 지역- 울릉읍(도동, 저동, 사동), 서면(태하리), 북면(천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어휘 조사 ○ 구술생애 ○ 낚시의 종류, 부분 명칭 ○ 기타 어로 도구 ○ 어로 활동 과정 ○ 어획물 종류 ○ 어로 행위와 관련된 관용표현 ○ 동영상, 사진 촬영
3	중간 조사 결과 정리(2. 20. ~ 5. 20.)	
4	중간 보고(5. 29.)	
5	trs로 전사하기, 전사 수정, 엑셀 작업	
6	최종 보고(8. 22.)	
7	보고서 작성 및 멀티미디어 자료 정리(8. 23.~9. 10.)	○ 음성, 사진, 동영상 정리
8	보고서 작성 완료(9. 28.)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 방법론으로,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조사자가 융통성을 발휘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제보자가 어로 행위와 관련한 설명을 할 때, 조사자는 민속지적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준비한 질문지 항목은 물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지의 하위 항목이나 어로 과정과 어로 활동과 관련한 용어도 조사하였다.

1.2.3. 조사 장소

동해안 어촌 생활 기초 어휘 조사는 대부분 어촌계 회관과 제보자의 집, 그리고 작업 공간인 바닷가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좀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울릉군에 12일 간 방을 구해 살았다(1차 조사: 1월 13~18일, 2차 조사: 7월 1일~5일). 12일 간 진행된 본 조사에 연구자는 처음 조사에 참여한 제보자와 동시에 새로운 제보자를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러한 방법은 밀착조사와 함께 더 많은 수의 제보자를 통해 다양한 어휘를 채록하고자 하는 본 조사의 목적과도 부합한다. 그 결과 조사의 중심축이 되는 주제보자와 함께 확인조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조사마다 새로운, 더 많은 경험

을 지닌, 말 주변이 좋은 보조제보자도 만날 수 있었다. 먼저 어휘조사를 한 후 채록한 어휘를 바탕으로 확인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모든 조사는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해 동일한 제보자는 최소 2번 이상에서 8번까지의 만남을 가졌다. 이러한 조사로 주제보자와 같은 이들과는 친분을 쌓아 제보자의 집에 식사 초대, 사진 촬영, 주변 관광지 동반을 하기도 했다. 이는 밀착조사의 일환으로 제보자가 조사에 대해 가지는 부담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일상을 공개함으로써 서로 간의 라포를 쌓는 역할을 했다. 또 이들의 작업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수시로 어판장, 바닷가, 어촌계 사무실에 나가 이들과 이야기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필요한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 상시조사를 겸했다.

아래는 조사 장소인 울릉도의 전경과 항구이다.



[사진 1] 울릉도 전경



[사진 2] 천부항



[사진 3] 저동항



[사진 4] 현포 어화



[사진 5] 저동 어판장



[사진 6] 천부리 덕장과 오징어동상



[사진 7] 사동 오징어 덕장



[사진 8] 조사 모습

1.2.4. 조사 내용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서는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라는 큰 주제 속에 지역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제주의 해안’으로 나눈 후 공통조사를 실시하였다. 공통조사는 기초 어휘 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각 지역의 생활 근간이 되는 어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초 어휘 조사는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기층생활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해당 지역의 확장

어휘의 토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데,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기초생활어란 무엇인가?
- 물때, 바람, 방향의 명칭
- 어획물 채취에 사용하는 도구
- 어로 행위
- 어획물의 종류
- 어촌 생활 관련 관용표현

조사한 내용은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조사한 내용

구 분	조사 항목
행위자	어업 관련 행위자
환경	물때, 시간, 날씨, 공간
어획물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기타류
어획 도구와 어로 방법	그물, 낚시, 배 등
민속	명칭, 금기
음식	명칭, 조리법

1.2.5. 조사 결과물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사 결과는 어휘 엑셀 자료,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구분하여 국어원에 제출하였다. 조사 어휘는 범주를 나누고, 해당 어휘의 올림말·해당 표준어·발음·품사·뜻풀이·실제 용례를 기록하였다.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분절하여 저장하고, 조사 어휘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도 가능한 모두 수집하였다. 이 중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저장한 후, 이를 transcrib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사하고, 이를 저장하였다. 제보자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와 작업에 관한 이야기는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였다.

동해안 지역의 기초 어휘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조사 결과 총 정리표

조사 대상	조사 내역 구분	조사 어휘		음성 자료		영상 자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동해안 기초 어휘		729	389	25 / 25	*729	58	-

2. 연구 내용

‘어촌 생활 기초 어휘’는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획 도구와 어로 방법, 민속, 음식 등의 하위범주를 나누어 기초가 되는 어휘 항목을 추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질문지를 만들었다. 즉, 질문지를 통해 기초어휘를 채록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확장어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동해안 해안은 남해나 서해에 비해 그 구조가 단순하고 조수 간만의 차이도 적다. 이러한 환경적 특징은 동해안 어로 방법과 도구, 시기, 어선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그 결과 이들 지역에 비해 어로의 형태도 단순하고 사용되는 도구나 어선의 형태도 다양하지 않았다.¹⁾ 이러한 동해안 북부 지역의 기초어휘를 질문지에 따라 조사한 것을 중심으로 특이 어형이나 확장어형을 중심으로 서술하려 한다. 이를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획 도구와 어로 방법, 음식, 민속’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하자.²⁾

2.1. 행위자

2.1.1. 어부

어촌 지역의 어로 활동을 하는 직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직업은 어부이다. 이러한 어부는 배 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선장, 화장, 영자, 보신’과 같이 구분되기도 했고, 고기를 잡을 때 있는 위치에 따라 ‘원도모, 오른도모’와 같이 구분되기도 했다. 또 행위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아니지만 잡는 고기에 따라 그 행위도 ‘꽂치바리, 명태바리, 오징어바리’로, 계절에 따라 ‘동삼바리, 가실바리, 춘태바리’로, 잡는 시간대에 따라 ‘낮바리, 해치기, 밤치기, 새벽치기’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어휘는 ‘우야다가 여 뭐 그저 명태바리 할 때 뭐 몇 마리 잡았지. 그 전 요새 잡는 배가 없으니까’와 ‘예. 낮오징어. 예. 저~ 낮바리라 안 하고 순 낮빠리. 낮치기 오징어 주로 많이 이래 얘기한다. 낮에 잡는다고’로 표현되기도 해 행위자를 나타내는 명칭과도 관련이 깊었다. 즉 어부를 나타내는 명칭은 자신의 역할, 잡는 시기 또는 계절, 잡는 어종에 따라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녀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그 출생으로 인해 ‘제주사람’으로 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해녀라는 직업을 천대해서 부르는 명칭과 일본어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었는데 ‘보지기, 히바리, 오야지’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 이러한 점은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99:418)에서 조사한 동해안 수산에도 언급된 바 있다.

2) 어촌 생활과 관련된 관용표현은 ‘민속’에서 함께 다루었다.

1) 배선원, 뱃사람, 뱃놈, 어부, 배짖까리, 선장짖까리, 선원짖까리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서 ‘선장, 화장, 영자, 막내이, 간판장’ 또는 ‘오징어바리, 명태바리, 쾡치바리’를 총칭하는 의미로 어부라는 말보다는 ‘배선원, 뱃사람’을 사용한다. 이 외에 어부를 가리키는 상스러운 표현으로 ‘뱃놈’이 사용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역할에 따라 받는 배당금을 ‘-짖까리’을 붙여 ‘선장짖까리, 선원짖까리’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 이러한 행위를 아울러 ‘뱃짖까리’라고 하기도 했다. 배의 배당금을 나눌 때 사용되는 ‘짖까리’를 통해서도 선장과 선원의 구분을 볼 수 있었다.

⇒ 뱃선원. {뱃선원} 이렇지. 뭐 그래.

⇒ 야. {뱃놈이라고}.

⇒ 내가 직접 {선장이} 하늘 치받아 보고 천기 보고. 천기 보고 날이 나빠진다 날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 판단해가. 아~ 이기 선장 밑에는 간판장이란 게 있었고 그 답에 그 {본선원} 그라는 게 있었어요.

⇒ 이게 인자 {무중바리라는} 건데. 무중바리. 경비를 공동으로 지급을 하고 지불을 하고 인자 이렇게 부합으로 나눈다는 거. 그걸 무중바리라고.

2) 선장, 선쪼, 선원, 기관장, 기관쪼, 간판장, 화장, 영자(어른), 막내(이), 보신, 남박, 조기장, 오피야, 아부라사시, 미나라이

어부는 배 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선장, 선원(본선원)’으로 일차적으로 구분한 후 선원은 다시 ‘기관장, 간판장, 화장, 영자, 막내이’와 같이 구분하였다. 이 중 ‘선장, 기관장’ 등은 ‘선쪼, 기관쪼’로 말해지기도 했다. 한편, ‘선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모두 ‘선원’으로 총칭하고 있었지만 이는 이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 구분되고 있음을 이러한 어휘로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오른도모, 원도모, 한장’으로도 사람을 지칭하기도 했는데 위치와 행위자의 명칭이 대응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출항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5~7명의 사람이 같이 바다로 나가는데 이때 배에서 밥 짓는 일을 맡은 사람을 ‘화장’, 기관실을 책임지는 사람을 ‘기관장’, 배 위에서 일하는 사람 중 총책임자를 ‘간판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영자, 영자어른’, 나이가 적은 사람 ‘막내이, 막내’라고 한다. 또 큰 배의 경우 12명 정도의 사람이 타는데 이때 ‘남박’ 또는 ‘조기장’으로 불리는 기관장의 일을 도와주는 조수를 ‘아부라사시’로, ‘막내’보다 더 어리고 초보인 사람을 ‘오피야’로, ‘화장’을 장난 삼아 ‘영양사’로 부르기도 했다. 이들을 총책임하는 사람을 ‘선장’이라 하고 이러한 이들을 모두 ‘선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선원들은 배 안에서 서열이 있는데 ‘선장>기관장>간판장>화장>영자>보신>막내’로 나타났다.

이 중 ‘화장’은 배 위에서 밥을 짓고 음식을 하는 이를 말하는데 주로 가장 나이가 어린 이를 가리키는 ‘막내이, 막내’가 담당하고 있었다. ‘막내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영자’와 ‘영자어른’, ‘좌상’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연령에 따라 명칭의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배 위에서도 나이가 많고 적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

은 ‘좌상, 어른’이라는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최고 연령자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 남박이라고 있었는데 남박 밑에 이제 또 기관실에 삼명이 냉동하고 기계가 연대가 되기 때문에 남박 밑에 그걸 참 일본말인데 {아부라사시라} 그랬는데.
- ⇒ 그 담 {보신}. {보신}. 저저. {풍조정하는사람} 보신이고.
- ⇒ 저가 그 당시에 남으 배에 인제 내 배를 갖고 한 게 아니고 남의 배에 인자 기관장이라 그랬어. 기관쑈. 일본말로 기관쑈. 그때는 선장을 {센쑈}. {기관장을} {기관쑈}. 그 다음에 인제 {기관장을} 어떻게. 가판. {보싱}. 보싱이라 그랬거든. 인자.
- ⇒ 그래 그 용어는 남방이란 말은 인자 그 지금으로 치면 {조기장이란} 말을. 아마 조기장을 칭하는 걸 걸 겁니다. 우리 우리 순수한 말로 하자면. 조기. 인자 조기장. 인자 그 기관장을 보조하는 사람. 제가 알기론 그 전에는 그렇게.
- ⇒ 젤 나이 어린애를 야 {막내야} 막내야 이렇게 부르.
- ⇒ 예. 고 담에 고 담에 배 전체에서 선원들 중에 일반 선원들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나이 젤 많으시는 분을 {영자라} 그래요. 영자.

3) 편지바리, 그물바리, 춘태바리, 동태바리, 초등바리, 가을바리, 동삼바리, 낮치기, 밤치기, 달치기, 샛별치기, 원양바리, 당일바리, 갯바리

어부는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편지바리, 그물바리’로 표현하기도 했다. 어로 도구가 ‘산자꾸’인 경우에는 그 행위에 연유해 ‘편지바리’로, 그물인 경우는 ‘그물바리’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잡는 계절에 따라 ‘가을바리, 가실바리, 동삼바리, 춘태바리, 동태바리, 초등바리’로, 그 대상에 따라 ‘명태바리, 쫄치바리, 이까바리’로 구분되었다. 이 중 ‘초등바리’는 가장 먼저 나오는 오징어, 즉 ‘초물’을 잡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오징어의 경우 낮에 잡는 행위는 ‘낮치기, 낮바리’로, 밤에 잡는 행위는 ‘샛별치기, 밤치기, 조모순이, 달치기’로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부들은 그 거리에 따라 ‘원양바리, 당일바리, 갯바리’로 구분되었는데, ‘원양바리’는 먼바다에서 작업하는 것을, ‘당일바리’는 5~6시간의 거리에서 작업하는 것을, ‘갯바리’는 1시간 거리에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 ⇒ 요거 인자 조금 있으면 {한치바리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물로가 들면 그물로가. 막 이래 떠요.
- ⇒ 뭐 {이까바리}. 하이튼 있어. / 예. 오늘 오징어 얼마 잡았노 그러든 백 축 잡았다 이래 얘기하는 게 아이고. {이까빠리나} 잡았더라. 한 바리 잡았더라 이 말이거든.
- ⇒ 네. 그걸로 가지고 오징어를 잡았었고. 또 산작꾸를 가지고 거 {편지바리라고} 하는 게 있어.
- ⇒ 한치. 그래 한치를 여기서는 조기라 그래. 조기. 그것도 일종의 오징어지. 오징어고 가끔씩 갑오징어 큰~ 거. 그런 거는 가끔씩 잡히고. 잡히고. 뭐 그 외에는 인자 쓰는 용어로는 우리가 겨울에는 {동삼지기}. 동삼이니까 뭐. 초등에나 {초등바리}. 초등바리. 그 담에 가을에 나는 거는 추석 쇠고 나는 거는 {가을바리}. 그렇게 분류. 그래 그렇게 분류하고. 가장 맛이 있을 철에는 이제 지금 잡는 오징어가 가장 맛이 있다.
- ⇒ 예. 낮오징어. 예. 저~ {낮바리라} 안 하고 순 {낮빠리}. {낮치기} 오징어 주로 많이 이래 얘기한다. / 낮에 잡는다고.

2.1.2. 해녀

1) 제주사람, 보지기, 오야지, 히바리, 하다까, 머구리, 다이버

해녀는 모두 통칭해 ‘제주사람’으로 나타났다. 해녀들을 몇 명씩 무리를 지어서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물질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동해안 남부에서는 무리 중에 자물질을 잘하는 사람을 ‘상군’, ‘중군’, ‘하군’으로 구분한 바 있었는데 동해안 북부와 울릉도에서는 이러한 어휘를 찾아볼 수 없었다.³⁾ 그러나 해녀에 대한 명칭 중 일본어와 비속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보지기’는 여성의 성기에 비유한 것인데 이와 비슷한 의미로 ‘히바리’가 사용되었다. 이 중 제주도 해녀는 ‘제주산, 제주해녀, 제주사람, 오야지’로, 남자 잠수부는 ‘해남, 머구리, 하다까, 다이버’로 나타났다. 해녀에 대한 명칭이 어부에 비해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섬이라는 지형적인 특성과 함께 주된 어업이 오징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 결과 해녀의 명칭의 분화가 일어나지 않아 ‘보지기, 오야지, 히바리, 제주사람’과 같은 명칭만 찾아볼 수 있었다.

⇒ 옛날엔 지금은 해녀라 그러는데 옛날엔 보지기. {보지기}. 옛날엔 그랬잖어요. 보지기. 보지기. 그 몰래 그래. 해녀 우리 어릴 때 보지기. 요새 나와 해녀라 그러는데 우리 옛날 보지기.

⇒ {하다까} 하는 거 여자도 있고. 뭐뭐.

⇒ {머구리}. 머구리 하는 잠수기. 또 그게 있어. 또 머구리하고 똑같아요.

행위자에 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행위자 명칭

구분		어휘 항목
해녀	출신 지역에 따라	제주사람, 제주산, 오야지
	비하어	보지기, 히바리
해남		머구리, 다이버, 하다까, 해남
어부	하는 일에 따라	선장=센쵸, 선원(기관장=기관쵸, 갑판장, 화장, 영자(어른), 좌상, 보신, 남박, 막내(이), 오끼야, 아부라사시, 조기장)
	배의 위치에 따라	한장, 원도모, 오른도모
	기타	선장짓까리, 선원짓까리 / 배짓까리
	잡는 어종에 따라	꽁치바리, 이까바리(한치바리, 조기바리), 명태바리
	어로 도구에 따라	떨지바리, 그물바리
	잡는 계절에 따라	동삼바리, 가실바리, 춘태바리, 동태바리, 초등바리
	잡는 시기에 따라	낮치기=낮바리, 밤치기, 조무순이, 셋별치기, 달치기
	육지와 거리에 따라	원양바리, 당일바리, 갯바리

3)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2010)에서는 해녀가 제보자로 포함된 반면 2012년 조사에는 해녀가 제보자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이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2. 환경

2.2.1. 물때

울릉도에서는 물때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 ‘한물, 두물’과 같은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해안 남부에서부터 사용되고 있는 ‘만들’, ‘들물’ 등의 표현과 ‘조금’에 대한 표현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 역시도 조류의 차가 크지 않은 동해안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는 미세기와 관련되는 ‘들물, 날물, 새발물, 새안들물, 마안들물, 마발물’과 같은 표현이 물때와 관련되는 ‘조금’, ‘초조금’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여. 여기는 조수 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런 건.’과 ‘조금이란 말 옛날에 조금 조금 소리 해다 여는 사용 하도 안 하고 그거는 잘 안 써’라는 제보자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조류의 차를 볼 수 없다고 한다.

1) 조금, 초조금, 열흘조금, 보름조금, 대조금, 초이레조금

‘물때’란 아침 저녁으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를 의미한다. 물때에 대한 어휘는 ‘조금, 초조금, 대조금’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도 대부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 물때에 대한 인식이 크게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초조금’은 이 지역에서 음력 8일을, ‘조금’은 음력 9일을, ‘대조금’은 음력 23일을 의미하고 있었다. 다시 24일이 한물이 되는 주기를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음력 9일과 23일이 조금 이 된다. 즉 물때는 보름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물의 양의 차이가 거의 없어 실제로는 ‘조금’ 외에 다른 어휘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초조금} 인제 여 {대조금} 이렇게 보는데 초조금은 음력으로 팔일을 초조금이라 하고 대조금은 음력 예 이십삼일을 대조금이라 그래. 음력으로. 팔일. 그냥 {조금은} 예 초조금이라는 걸 팔일. 그 담에 대조금은 이십삼일. 예. 그렇게 부른다고.

2.2.2. 미세기

1) 썰물, 들물, 냇물(내물), 만물, 이숫물

일반적으로는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들물, 날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음을 말하면서 이를 ‘들물’과 ‘썰물’로 표현하고 있었다.⁴⁾ 한편 ‘썰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북쪽과 동쪽 사이로 흐르는 물을, ‘이숫물’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만물’은 남쪽과 동쪽 사이에서 흐르는 물을, ‘들물’은 서쪽으로 흐르는 물을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명칭을 보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명칭과도 관련이 깊음을

4) 동해안 남부의 경주 지역에서는 ‘날물’ 외에도 ‘만물’이라는 표현도 나타났는데 이 의미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알 수 있다. 즉 ‘새’는 북쪽을 가리키는 말, ‘맞(만)’은 남쪽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러한 표현들을 미세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의 합성관계를 보면 ‘방위’에 ‘물’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날물’, ‘들물’ 또한 ‘나다(出)’, ‘들다(入)’의 어간에 ‘물’이 붙어 만들어진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 ⇒ 들물 {썰물} 없으니까네 안 하지.
- ⇒ 물은 물은 저기제? {들물} {넛물} 아이가. 예 들물이니.
- ⇒ 아 그거는 저희들이 통상으로는 {썰물} 그란 건 북쪽으로 가는 거를 썰물이라 하고 남쪽으로 가는 물을. 남쪽으로 가는 물을 {만물이라} 하고 그 담에 저 동쪽으로 가는 물을 그걸 동쪽으로 가는 물을 우리들이 부르기는 거의 야 {이스물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마이 했었는데.

2) 물이 뿔다, 마발물 간다, 이숫물 간다, 들물 채다, 물이 뿔었다, 물이 간다

바다에서 육지로 물이 들어와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물이 뿔다’로, 이와 반대되는 물을 ‘마발물 간다’, ‘이숫물 간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또 서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들물 채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물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물의 양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물이 뿔었다, 물이 간다’로 나타내고 있었다.

- ⇒ 그 담에 서쪽으로 가는 물을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 바다에서 통상으로 선장들하고 선원들이 쓰는 말을 야야 {들물 채었다} 이라거든. 들물이라 그래.
- ⇒ {세발물은} 세발물은 바로 그걸 북쪽으로 가는 거를 세발물. 세발물이라고. 네네. {셋물이나} 세발. 세발물이나.
- ⇒ {물 불 혹은 그레 불. 뿌는} 수는 있지. 그것도 잘 없다. 여 올릉도는.
- ⇒ 이스물이라고 하기 전에 그 뭐 야 물이 뭐뭐 {마발물 간다} 뭐 {바깥으로 빠진다} 이런 말도 마이 쓰지만 야 {이스물 많이 간다} 이렇게도 쓰고 이랬어.

물때와 미세기에 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물때 명칭

구분		어휘 항목
물때	주기	보름에 한 번씩 돌아오며 8일이 초조금, 9일이 조금이다. 한물로 시작해 23일이 대조금이 된 후 다시 24일이 한물이 되는 주기이다. 즉, 음력 9일과 24일이 조금이다.
	기타 명칭	조금, 초조금, 대조금 썰물, 들물, 넛물(내물), 만물, 이숫물 / 물이 뿔다, 마발물 간다, 이숫물 간다, 들물 채다, 물이 뿔었다, 물이 간다

2.2.3. 하루

1) 해치기, 식전, 새벽, 아침나절, 아침, 점심, 참때, 동이 튼다, 해 뜬다, 아침

해가 떠 오르기 전을 ‘해치기’로, 해가 떠 오를 무렵을 ‘새복’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중 ‘해치기’는 작업 행위와 하루 표현이 관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보통 식사 시간 전을 가리키는 의미인 ‘식전’이 하루의 일정한 시간, 즉 새벽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점심을 가리키는 말에도 ‘아침, 점심, 참때’가 사용되고 있었다. 아침을 가리키는 말에는 이 외에도 ‘동이 튼다’와 같이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점심’과 동일한 의미로는 ‘한낮’과 ‘한나절’이, 저녁과 동일한 의미로는 ‘어둠사리 낀다, 저녁나절’을 사용하고 있었다. 저녁 시간은 그 시간에 따라 ‘초저녁’과 ‘저녁’으로 구분되고 있었고, 밤을 의미하는 말로는 ‘밤중’과 ‘셋별치기, 별치기’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하루 표현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해치기 ➡ 식전, 새벽 ➡ 동이 튼다, 아침, 아침나절 ➡ 점심, 한낮, 한나절 ➡ 참때 ➡ 초저녁 ➡ 저녁, 어둠사리 낀다, 저녁나절 ➡ 밤 ➡ 밤중 ➡ 별치기, 셋별치기’로 볼 수 있다.

⇒ {새복이라} 하나. / {새복}.

⇒ {식전}. 아이. 아이야.

⇒ 이야~ 저 뭐 날이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서 날이 이래 새면은 야~ 인자 저 {동 튼다}. 동 튼다 이라고 그 뭐 다른 뭐.

2) 한낮, 한나절, 참때

‘점심’을 의미하는 말로는 ‘한낮’과 ‘한나절’이, 저녁과 점심의 중간 시간은 ‘참때’가 나타나고 있었다.

⇒ {참때라} 참때라고.

3) 해가 기울어진다, 물애저녁, 저녁, 어둠사리 낀다, 초저녁, 저녁나절, 밤중, 한밤중, 셋별치기, 별치기

오후를 의미하는 말은 해가 지는 무렵과 저녁 시간 그리고 밤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오후’, ‘해가 기울어진다’, ‘저녁때’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고, 저녁 시간은 해가 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이제 저녁의 시작을 나타낼 때는 ‘초저녁’으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먹는 저녁을 나타낼 때는 ‘물애저녁’으로, 밤을 나타낼 때에는 ‘밤중’과 ‘한밤중’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물애저녁’은 주로 어부들이 바다에 가기 전에 먹는 식사를 가리키는 의미로 바다에 가기 전의 저녁이라면 ‘물애저녁’으로, 이른 저녁을 의미하면 ‘물애저녁’으로 볼 수 있다. 또 ‘해치기’와 같이 작업 행위와 관련시킨 어휘로 ‘셋별치기, 별치기’가 나타났

는데 새벽에 셋별 또는 별을 보면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이다.

- ⇒ 그러니까 안 하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예. 덩어리가 허여이 해가 {초저녁에} 많이 잡힐 때가 있고 밤 새도록 전부 몬 잡다가 새벽에 날 다 썰 때
- ⇒ 보통 뭐 저 인자 오후 뭐~ 세시 네시 다섯시 되는데 멀리 나가면 일찍 묵고 안 그러면 네시 다섯시. 거기 인자 물에. {물애저녁이라} 하죠. 예. 물애저녁 묵나 카거든. 물애저녁 묵나 카면은 인자 물에 인자 갈 때 밥을 묵나 이 말이라.
- ⇒ 어두워질 때 어둠. {어둠사리지}. / {어두사리 낀다} 그러. 그러든 동 그런 그런 말 쓰지.
- ⇒ {밤중이라} 하나?

하루를 가리키는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하루를 가리키는 명칭

구분	어휘 항목
하루	새벽, 아침 해치기, 식전, 새벽
	아침 아침나절, 동이 뜬다, 해 뜬다, 아침
	낮 한낮, 한나절, 참때
	저녁 해가 기울어진다, 물애저녁(물애저녁), 저녁, 어둠사리 낀다, 초저녁, 저녁나절
	밤 밤중, 셋별치기, 별치기

2.2.4. 바람

1) 동새, 동새바람, 청풍, 하늘바람, 댕갈바람, 댕갈, 댕갈청풍, 처진갈, 남갈, 새바람, 셋바람, 북새

울릉도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바람에 대한 명칭이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먼저 방위를 기준으로 동, 서, 남, 북을 나누면 이에 해당하는 바람도 동풍, 서풍, 남풍, 북풍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동은 ‘동새, 동’으로 ‘서’는 ‘새’로, 남은 ‘맞’으로, 북은 ‘새’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바람의 명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동풍은 ‘동새바람, 동새’으로, 서풍은 ‘청풍, 댕갈바람, 댕갈청풍, 댕갈, 하늘바람’으로, 남풍은 ‘처진갈, 남갈, 갈바람’으로, 북풍은 ‘셋바람, 북새, 새바람’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서풍은 ‘내분다’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은 ‘들이분다’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바람이 분다를 ‘북청 터졌다’, ‘웁새 터졌다’, ‘을진으로 빼가 동새로 땡긴다’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터지다, 둘러켜지다, 딱아분다’를 통해서는 바람의 세기를, ‘빼다, 땡기다’를 통해서는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 ⇒ {청풍}. 북청 뭐. / 아이지. 청풍은 {서풍을가} 청풍이라 하고.
- ⇒ 여기 울릉도 여기에 용어를 쓰면은 전부 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 바람을 뭐라고.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야~ 이 {셋바람} 분다 이래요.

- ⇒ 돌아가는 기 동. {을진}. {동새}. {인간풍} {북새}.
- ⇒ {동새풍이} 섯파람이 불면 {동새}. {동섯바람이} 분다. 동쪽은 동새.

2) 북새, 인간풍, 동새, 섯바람, 된새바람, 북청바람, 청풍, 을진바람, 을진, 동갈, 갈바람, 댜갈바람, 댜갈, 처진갈

바람은 동북풍, 북서풍과 같이 사이로 부는 바람이 있는데 이러한 어휘도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하게 나타났다. 동북풍은 ‘북새⁵⁾, 동새, 섯바람, 인간풍’이, 북서풍은 ‘된새바람, 북청바람, 청풍, 북청’이, 동남풍은 ‘을진바람, 을진, 동갈’이, 서남풍은 ‘갈바람, 댜갈바람, 댜갈, 처진갈’이 나타났다. 이처럼 바람의 명칭은 ‘북새, 동새, 된새, 처진갈’과 같이 방위와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서쪽으로 치우진 바람, 북새 다음으로 북쪽으로 치우진 바람, 남쪽으로 치우친 바람’과 같이 나타나기도 했고, ‘남동풍, 남서풍’과 같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바람은 계절에 따라서 주로 부는 바람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 봄에는 ‘갈바람’이, 여름에는 ‘남서풍, 북동풍, 갈바람’이, 가을에는 ‘북청, 북서풍, 청풍바람’이, 겨울은 ‘섯바람, 북청, 북동풍’이 많이 불었다.

- ⇒ 동새풍이 섯파람이 불면 {동새}. {동섯바람이} 분다.
- ⇒ {북청}. / {청풍}. 청풍 그라지 뭐. / 북서쪽에서 부는 걸 {북청 터졌다} 이래. 북청. {북청}.
- ⇒ 동새. 동북방향에. 북동. 북동 {북동풍을} {동새라} 그러지.
- ⇒ 돌아가는 기 동. {을진}. 동새. {인간풍} {북새}.
- ⇒ {댜갈은} 인자 {갈바람에서도} 좀 이렇게 땡기부는 걸 댜갈. / 인자 서쪽으로 많이 땡기믄. 남에서 서쪽으로 많이 땡기믄 댜갈. {댜갈청풍이고}. 들어오이소.
- ⇒ 남쪽을 빼먼은 {처진갈이고}.

5) 울릉도의 서면 지역에서는 북풍을 ‘북새’로, 북동풍을 ‘섯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울릉읍에서는 북풍을 ‘섯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동새’, ‘북새’에서 알 수 있듯이 ‘새’는 북쪽이라는 의미와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었다.

3) 급새, 왁새, 급풍, 광풍, 순풍, 악풍, 오방풍, 호도로바람, 돌풍

회오리바람을 ‘돌풍’, ‘돌개바람’, ‘호도로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돌풍’, ‘돌개바람’, ‘호도로바람’은 모두 회돌아서 치는 바람으로 바람 소리가 ‘휙~’ 나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북에서 서로 주로 부는 바람을 ‘북청’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달리 ‘악새’라고 하기도 했다. 가장 세게 부는 바람인 ‘악새’가 한번 오면 한참 동안 나타나는데 배 사고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바람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급하게 빨리 왔다가 가는 바람이라는 의미로 ‘급새’가 나타나고 있었다. ‘악새’는 강풍으로, ‘급새’는 급하게 왔다 가는 바람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또 바람이 순하고 곱게 오는 것은 ‘순풍’으로, 급하고 강하게 오는 것은 ‘악풍, 광풍’으로, 적당하게 오는 바람은 ‘시원하게 분다, 마침맞게 분다’로 구분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바람 중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을 ‘오방풍’으로 말하기도 했는데

이는 ‘오두방정 편다’라는 말에서 연유된 것이었다. 이러한 바람의 세기와 기운을 가르켜 ‘바람쌀’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바람은 출항을 하기 전에 살펴야 하는 하루의 천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 {호도로바람이나}. 팽팡팡팡팡 이래 막 돌아치는 거 안 있어. / {호도로바람이라} 카는 건 바람이 이래 획 소리가 나고.
- ⇒ 바람이~ 갑자기 나오는 걸 {웁새라} 그래. 웁새. 여. 여기서 우리. 야 {웁새 터졌다} 이래 이야기 하고.
- ⇒ 바람이 인자 획 돌아치는 거. {오방풍}.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하는 거 오방풍이라.
- ⇒ {웁새}. 글쎄. 갑자기 엄청 센 거지.
- ⇒ {돌풍도} 있어. 있는데 여도 불면 {돌개바람} 분다 이라지.
- ⇒ {순풍}. / {순풍}. 고건 순풍이라. / {순풍은} 술. 술술 부는 기. 곱. 곱게 부는 기 술술.

바람에 대한 명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바람 명칭

구분		어휘 항목			
바람	방향	동(동쪽, 동새)풍	서(새쪽)풍	남(맞쪽)풍	북(새쪽)풍
		동새바람, 동새, 이스바람	청풍, 댕갈바람, 댕갈청풍(갈바람 중 서쪽으로 치우친 바람), 하늘바람, 댕갈, 댕갈	치진갈, 사이스바람, 갈바람, 남갈, 남풍	새바람, 셋바람, 북새
		동북풍	북서풍	동남풍	서남풍
		북새(북쪽으로 치우친 바람), 인간풍(북새 다음으로 북쪽으로 치우친 바람), 북동풍, 동새(동쪽으로 치우친 바람), 셋바람	된새바람(북쪽으로 치우친 바람), 북청바람(서쪽으로 치우친 바람), 북청, 청풍	을진바람(동남간 중 동쪽과 가까움), 을진, 남동풍(동남풍, 순풍), 동갈	갈바람(남쪽으로 치우친 바람), 댕갈바람(서쪽으로 치우친 바람), 댕갈, 치진갈(남쪽으로 치우친 바람), 남서풍
기타	기타	마갈바람(봄) 남서풍, 북동풍, 갈바람(여름) 북청, 북서풍, 청풍바람(가을) 셋바람, 북청, 북동풍, 북풍(겨울)			
		급새, 웁새, 급풍, 빗바람, 광풍, 순풍, 악풍(=급풍), 오방풍, 돌풍=돌개바람=호도로바람, 들이분다, 내분다, 하늬바람, 온다, 내린다, 세다(시다), 시원하게 분다, 마침맞게 분다, 북청 터졌다, 웁새 터졌다, 빼다, 댕기다			

2.2.5. 비, 눈, 구름, 안개, 서리

1) 소낙비, 보슬비, 갈방비, 이슬비, 가랑비, 안개비, 해비, 멀건 날에 비 온다, 각재비가 오다

비는 양의 정도와 그 비의 성격에 따라 그 명칭이 분화되어 나타났다. 이 비의 종류

중 가장 적게 오는 비, 즉 안개 같이 오는 비라는 의미로는 ‘안개비’로, 그 굵기가 이슬과 같다고 ‘이슬비’로, 빗줄기가 가늘다는 의미로는 ‘가랑비, 갈방비’가, 또 그 내리는 형태가 보슬보슬 내린다는 의미로는 ‘보슬비’가, 가장 굵고 많이 오는 비로는 ‘소낙비’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그 비의 성격에 따라 ‘해비, 멀건 날에 비 온다, 각재 비가 오다, 소낙비, 장마비, 전장마’라는 표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들은 모두 비가 동반하고 있는 날씨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러한 비를 그 세기의 정도에 따라 나타내면 ‘소낙비, 각재 비가 오다 > 이슬비 > 갈방비, 가랑비, 보슬비, 안개비 > 해비, 멀건 날에 비 온다’로 볼 수 있다. 이 중 ‘해비’, ‘멀건 날에 비 온다’와 같은 표현을 ‘날씨가 거짓말걸다, 변덕스럽다, 날씨가 니 다했다, 언제 바람 불었는 거걸이 댔네’로 표현하기도 했다.

- ⇒ {소나기}. 비가 갑자기. / 소나기. 참 소나기 카는 거는 각재 비가 와르르 따루는 소나기라 한다. {소낙비}.
- ⇒ 가라고 갈방비. 있이라고 {이슬비}. 이슬비나 {가랑비나} 한 가지라.
- ⇒ 예. 아주 작게 오는 걸 야 {안개비} 온다. 쥔 작게 오는 걸 안개비 온다.
- ⇒ {소낙비라} 하지 뭐. 예. 소낙비는 그 없고. 해가 나면서도. / 멀건. {멀건 날에 비가 온다}.
- ⇒ 그걸 뭐라 그러는교. {각재 비 오다가 썩 글는 거는}. / 말라 썩하고 소리나는 거. 썩하고 해 뜰라 소리.

2) 좀 오네, 스슬 들어봣다, 들어봣다, 퍼부어뽀다, 억수로 온다, 날이 개다

날씨가 나쁜 것은 ‘비가 오다’로, 날씨가 좋은 것은 ‘날이 개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중 ‘비나 눈이 와서 날씨가 좋지 못한 것’을 비의 정도와 양에 따라 ‘좀 오네 > 스슬 들어봣다 > 들어봣다 > 퍼부어뽀다 > 억수로 온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또 비가 왔다가 다시 해가 뜨는 상황은 ‘날이 개인다’로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었지만 이 외에도 ‘각재 날이 좋아졌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 ⇒ 조금 오네. 야 조금 들어. 거. 거기 좀 오네 이래도. 야 {스슬 들어 봇는다} 이라믄.
- ⇒ 억수로 온다는 그거는 갓다. 갓다 {들어 봇는} 거고.
- ⇒ 그 담 강도 높은 게 더 씨게 {퍼부어뽀다}.
- ⇒ 퍼부어 뽀다. {억수로 온다} 이러믄 많이 오는 거고.
- ⇒ 어. 날이 갓다. {개다}. 개인다. 날이 {개인다}. / {개인다} 그러지.

3) 넙떡눈, 함박눈, 솜눈, 우박눈, 우박, 싸락눈, 싸래기, 쌀눈, 찌그레기, 진갈비

눈은 그 크기와 성격에 따라 ‘넙떡눈, 함박눈, 솜눈, 우박눈, 싸락눈, 싸래기, 쌀눈, 찌그레기, 진갈비’로 나타났다. 이 중 ‘넙떡눈’은 그 모양새가 크고 넙떡넙떡하다는 의미를 지니 가장 크고 굵은 눈을 의미하는 말로, ‘함박눈, 솜눈’은 크고 그 송이가 탐스러운 눈을, ‘우박눈’은 크고 굵은 눈으로 강하게 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 싸라기 같이 내리는 싸라기눈을 ‘싸락눈, 싸래기, 쌀눈, 찌그레기’로, 진눈깨비와 같이 내리는

눈은 ‘진갈비’라고 했다. 이 중 ‘쌀눈’은 눈의 모양이 쌀과 같다는 의미로, ‘찌그레기’는 그 형체가 명확하지 않고 작다는 의미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 ⇒ {넙디기눈}.
- ⇒ 그거 {진갈비}. / {진갈비}. 눈하고 비하고 섞였는 게 진갈비.
- ⇒ {싸락눈이라도} 싸대기 매로 이런 기 싸다다 떨어지는 그런 거. / {싸락눈은} 뿔방뿔방한 게.
- ⇒ 그래 우박. {우박눈이가}? / 와 아이라. 우리는 {우박이랑} 한 가지지. 우박이 떨어졌다. 그거 연에 굵닥굵한 게.

4) 해무리, 해물, 달무리, 해물 미왔다, 해꽃, 달무리 생겼다

해 주변에 붉은 띠가 둘러진 것을 ‘해물, 해무리, 해꽃, 해물 미왔다’로, 달 주변에 흰 띠가 둘러진 것을 ‘달무리, 달무리 생겼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중 ‘해무리, 해가 물 먹었다’는 경우 3일 또는 4일 이후에 비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물’이 들어간 형태인 ‘해물’ 또는 ‘해물 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달무리’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무리’와 ‘달무리’ 모두 주변에 띠가 둘러진 것을 ‘생겼다, 미왔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 ⇒ 아 {물이 깎다}.
- ⇒ 그거는 {해꽃이라} 그러나.
- ⇒ {해물 미왔다고} 있고. / {물 미왔다}. / 어 {물 미왔다}.
- ⇒ 그거는 {달무리 생겼다}.

5) 마른번개, 벼락 때린다, 뇌성, 검은구름, 흑구름, 먹구름, 흰구름, 맑은구름, 구름빨, 우내, 우무, 물안개, 물보라, 우무 깎다

번개를 ‘번개질 한다, 벼락 때린다, 벼락 맞다, 뇌성’으로, 천둥은 ‘천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 번개는 그 성격에 따라 ‘마른번개’로, 안개는 ‘우내, 우무, 물안개, 우무 깎다’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구름에 관한 표현으로 ‘검은구름, 흑구름, 먹구름, 흰구름, 맑은구름’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구름이 움직이는 형상을 ‘구름빨’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구름빨이 시다, 구름빨이 약하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또 구름의 색과 형태에 따라 ‘검은구름, 흑구름, 먹구름’과 ‘흰구름, 맑은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한편 구름, 비, 눈, 해, 달, 별로 인해 날씨가 좋은 상황은 ‘청명하다, 맑다, 땀랐다, 뽕랐다’로,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은 ‘우중충하다, 우중중하다, 끼다, 번덕스럽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제보자들의 ‘서리는 많이 오면 눈이 한 가지고 허영지만, 비는 안 글썽아. 이슬은. 이슬은 비 한 가진 데’라는 말을 통해 ‘서리’는 눈으로 보고 ‘이슬’은 비로 보는 눈과 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 ⇒ {마른번개} 친다. 마른번개 친다.

- ⇒ 천둥부터 먼저. 먼저 {들췌고}. / 기양 기양은 천둥할 때도 있고.
- ⇒ {구름빨} 씨는. 바람이 불고 구름이 빨리 간다. 인제 구름빨이 씨다는.
- ⇒ 뭐 {흰구름}. {검은구름} 구름은 구름도 여러 질이지.
- ⇒ 어 {운해} 깬다 그러지.
- ⇒ 예 깬다 그래요. {우무 깬다}.
- ⇒ {서리는 많이 오면 눈이 한 가지고} 허영지만, 비는 안 글썽아. 이슬은. {이슬은 비 한 가진데}.

비, 눈, 해·달·별, 구름에 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비, 눈, 해·달·별, 구름 관련 명칭

구분		어휘 항목
날씨	비	소낙비, 각재 비가 오다 > 이슬비 > 갈방비, 가랑비, 보슬비, 안개비 > 해비, 멀건 날에 비 온다 > 장마비, 건장마 (비) 좀 오네 > 슬슬 들어붓는다 > 들어붓다 > 퍼부어뽀다, 억수로 온다 장마/오다, 해갈, 오다, 그친다, 각재 날이 좋아졌다, 개인다, 날씨가 거짓말걸다, 변덕스럽다, 날씨가 니 닮았다, 언제 바람 불었는 거겄이 뻤네
	눈	넙떡눈 > 함박눈, 솜눈 > 우박눈, 우박 > 싸락눈, 싸래기, 쌀눈, 찌그레기 > 진갈비, 고드름(고드름), 얼다, 녹다
	해·달·별	동 뜬다 > 먼동 뜬다, 해가 뜬다, 해돋이 > 해 났다, 날 섰다, 동 뜬다/해가 진다, 해 빠졌다, 해 졌다/해물, 달무리, 물 미왔다, 해살 비쳤다, 해물 미왔다, 달무리 생겼다, 해돋이, 해맞이, 석양, 해 진다, 해 빠진다
	기타	복두칠성, 은하수, 번개, 마른번개, 벼락 때린다, 벼락 맞다, 뇌성, 천둥, 번개질(한다), 마른번개, 흰구름, 검은구름 흑구름, 맑은구름, 먹구름, 구름빨이 시다, 안개, 물안개, 물보라, 우내, 우무, 우무 깬다, 서리, 무지개, 맑다, 청명하다, 뻤랐다, 뻤혔다, 우중충하다, 우중중하다, 끼다, 변덕스럽다, 한방중이다, 깜깜하다, 환했다, 밝다, 날 섰다, 따뜻하다

2.2.6. 공간

1) 동새, 동쪽, 동바다, 서바다, 서쪽, 남바다, 남쪽, 새쪽, 북쪽, 북바다

방위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동새, 동바다, 서바다, 서쪽, 남바다, 남쪽, 새쪽, 북바다’가 나타나고 있었다. 동향은 ‘동새, 동쪽, 동바다’로, 서향은 ‘서쪽, 서바다’로, 남향은 ‘남쪽, 남바다’로, 북향은 ‘새쪽, 북쪽, 북바다’로 표현하고 있었고, 동서향은 ‘동서간’으로, 동남향은 ‘동남, 동남간’으로, 동북향은 ‘동북간, 동북’으로, 서남향은 ‘서남, 남서간’으로, 서북향은 ‘서북간’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어휘 중 방위를 나타내는 표현과 ‘바다’가 함께 결합되어 나타난 ‘동바다, 서바다, 남바다, 북바다’를 통해 울릉도의 지형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한 제보자는 ‘이스쪽, 웨스쪽, 사이스쪽, 노스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 ⇒ {동쪽이라} 하죠. {동새} 동새.
- ⇒ 서쪽? {서쪽은} 뭐. {산쪽이라든가}. 그러지 뭐.
- ⇒ 동서. {동서간}.

2) 근해바다, 앞바다, 이쪽바다, 가새, 짚, 연안, 이바다, 먼바다, 저쪽바다, 저바다

해안과 바다와의 거리가 가까운 바다를 ‘앞바다’, ‘근해바다’, ‘가새’, ‘짚’, ‘연안’, ‘이바다’라고 했다. 바로 앞에 있는 바다, 이쪽에 있는 바다라는 의미에서 ‘앞바다’, ‘이바다’, ‘이쪽바다’라고, 해안가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가새, 짚’이라고 했다. 한 제보자는 가까운 바다를 의미하는 ‘연안’을 먼 바다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육지와 바다의 거리가 먼 곳을 ‘먼바다’, ‘저쪽바다’, ‘저바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지시사 ‘이, 저’와 ‘바다’가 결합된 합성어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그건 {먼바다} 그래. 먼바다. / 이 뭐 보통 한 너더 시간 이렇게 너더 시간씩 나가면은 야 오늘 조금 멀리 가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뭐 굳이 뭐 {먼바다니} 뭐 어땠니 그런 표현을 쓰고 그런 거는 우리 당시에는 요
- ⇒ 그런. 그런 말은 쓰지. {저쪽바다} {이쪽바다}. 그런 말.
- ⇒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은 여기서 바다 쪽에 보면 밤에 이렇게 오징어 잡는 배 보이죠. 아 저 배는 가에 있다. 뭐 {땡땡가에} 있네. 그거는 아주 가깝게 있다 말을 땡땡가에 있다.
- ⇒ 그냥 {가에} 가에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나간 거고. 썸 어느 정도 떨어진 거는 저 {중바다 썸} 되겠다.

3) 바닷물, 꺾물, 짚물, 맹물

바닷물을 의미하는 말로 ‘꺾물’과 ‘짚물’이 쓰이고 있었고 이와는 다른 대조적인 의미로는 ‘맹물’이 쓰이고 있었다. 이러한 말은 짜고 싱거움을 나타내는 ‘짭다, 맹물이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꺾물’은 ‘짚물’을 의미하는데 ‘짚물’을 강조한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 {짚물} 뭐 이게 {바닷물이지}. 다 짭은데. 바닷물 그러지 뭐.
- ⇒ 그 인자 보통 우리가 인자 물로 까. {꺾물이라} 그러지. 꺾물.
- ⇒ 어 {맹물} 섞인 거를. / 어어. 이쪽 우리 묵는 물은 {맹물}.

4) 너울성파도, 너울파도, 큰파도, 적은파도, 너울(놀), 구무니, 거품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을 ‘너울 있다, 시부끼 들터나’로 표현했는데 이는 명칭에서도 그대로 ‘너울’, ‘시부끼’가 나타나고 있었다. ‘너울’은 파도가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러한 상황을 ‘너울성파도, 너울파도’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 파도가 크게 이는 것은 ‘큰파도’로, 파도가 적게 이는 것은 ‘적은파도’로 나타냈다. ‘너울’은 다른 말로 ‘놀’ 또는 ‘구무니’라고 하는데 이러한 파도

가 치는 것은 ‘올라가다, 치다, 높다, 때리다, 덮어씌우다’로 표현했었다.

- ⇒ 뭐 너. {너울성파도다}. 여는 너울성파도가 있다 해도 그 사. 사용도 안 하고.
- ⇒ 아~ 이 참 {멀기} 큰 거 온다 이렇게 부르지 뭐.
- ⇒ {큰파도다}. 어. {적은파도}.
- ⇒ 어 파도가 {때린다}. 파도가 {덮어씌운다}.

5) 너린 바다글다, 소다, 좁다, 짚우다, 얹우다

바다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데 이 중 얕은 곳은 ‘얹우다’로 표현하고 있었고, 땅에 발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은 곳은 ‘짚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바다의 공간 중 넓은 곳은 ‘너리다, 너린 바다글다, 평평하다’로, 그 반대의 곳은 ‘소다, 좁다’로 나타났다.

- ⇒ {바다글다}. 바다. 바다글다. 이게 바다글다. 바다가 {너리기} 때문에.
- ⇒ 너린 너린 바다글다. 반대는 {소~다}.
- ⇒ 수심. 수심이 {깊으다}. 수심이 {얹우다}.

6) 축강, 물항장, 선착장, 이루꾸찌, 항구목, 항목, 축강목, 뿔, 잔자갈, 돌너덜, 자갈밭, 돌삔밭, 낭낭끄티(기), 뱅치, 좇대바위

배가 들어오는 해안의 어귀를 가리키는 말로는 ‘항구’, ‘축강’이 있었다. 이때 ‘축강’은 ‘축+항’의 결합형으로 ‘항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물항장, 이루꾸찌, 항구목, 항목, 축강목’도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 지역에는 없는 지형이지만 갯벌을 ‘뿔, 갯뿔’로, 자갈이 있는 공간은 ‘잔자갈, 돌너덜, 자갈밭, 돌삔밭’으로, 바다쪽의 깎아지는 바위를 ‘좇대바위, 절벽, 뱅치, 낭낭끄티, 낭낭끄티기’로 표현하고 있었다.

- ⇒ {축강}. / {축강이} 있잖아.
- ⇒ {항구가} 있잖아. 천부항구. 울릉군 북면 천부항 / {항구} 있잖아. 쪼매는 거 있어.
- ⇒ 저게 인자 과일같은 거 여 울릉도 마구망 뭐 볼뚜 카는 거 이런 거 여는데 그 담 동백꽃같은 거 저~썩 {낭낭끄티기라} 카거든. 그런 것도 아시죠?
- ⇒ 절벽을 갖다 {뱅치라} 이라지.

공간에 대한 어휘를 바다와 해안으로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공간 관련 명칭

구분		어휘 항목				
바다	방위	동향	서향	남향	북향	
		동새, 동쪽, 이스쪽, 동, 동바다	서쪽, 웨스쪽, 서바다	남쪽, 사이스쪽, 남바다	새쪽, 북쪽, 노스, 북, 북바다	
		동서향	동남향	동북향	서남향	서북향
		동서간	동남, 동남간	동북간, 동북	서남, 남서간	서북간
	거리에 따라	근해바다, 앞바다, 이쪽바다, 가새, 잘, 연안(축간 안쪽), 이바다				
		먼바다, 저쪽바다, 저바다				
	염도에 따라	바닷물, 감물, 짠물				
		맹물				
	파도	파도, 시부끼(시부께), 물보라, 너울성파도, 너울파도, 큰파도, 적은파도, 거품, 허연 거, 너울, 놀, ⁶⁾ 구무니, (파도가) 올라가다, 높다, 친다, 때린다, 덮어씌운다				
	기타	바닷날이 뻥하다, 날이 뻥하다, 호수 같다				
해안	모래사장	몰개, 백사장, 모래밭, 모래사장, 뿔, 갯뿔, 돌, 몽돌, 잔자갈, 돌너덜, 자갈밭, 돌빼밭, 땃섬, 방구, 돌방구, 바우, 바위, 촛대바위, 반석, 병치, 뱅치, 낭낭끝이, 절벽(절벽)				
	어귀	축강, 포구, 물항장, 선착장, 항구, 항, 축강 입구, 추빨, 이루꾸찌, 항목, 항구목, 축강목, 강포구, 콧, 개안,				
	기타	바다걸다, 너린 바다걸다, 너리다, 평평하다/소다, 좁다, 적다 짚다, 깊우다(짚우다)/얕우다 높다/얕다, 아주 낮다, 최하다 짹다/싱겁다 파랗다, 청색/히다, 하얗다 빠지다, 죽을다, 가라앉다,				

6) 제보자는 ‘너울’은 잔잔한 것이고, ‘파도’는 크게 넘실대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2.3. 어획물

2.3.1 물고기

1) 대갈빠리, 조디(주디), (괴기)눈까리, 등때기, 등사등뼈, 꼬랑대기, 쯔지, 날개끝, 배찌느러미, 뱃대기, 아구태가리, 창대기, 살따구, 몸티, 뼈다구, 날개미, 아감지, 고기빚, 날감지, 알

물고기는 ‘고기, 괴기’로 부르는데 이는 그 부위에 따라 ‘머리, 배, 꼬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어부라는 직업으로 인해 더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⁷⁾ 그래서 머리는 ‘대갈빠리’로, 입은 ‘주디, 조디’로, 눈은 ‘눈까리, 눈띠’로, 등은 ‘등때기, 등사등뼈, 등더리’로, 아가미는 ‘아감지, 고기빚, 아구태가리’로, ‘배’는 ‘배때기’로, 꼬리는 ‘쯔지, 쯔랑대기, 쯔대기’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적인 지느러미의 위치보다 낮게 또 따로 달린 것은 날개와 같다는 의미에서 ‘날개미, 날개끝’으로, 뒤쪽에 있는 지느러미도 ‘뒤날기’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중 ‘뒤날기’는 그 모양새를 본따 ‘그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지느러미를 ‘등사등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제보자에 따라서는 등에 난 뼈로 달리 표현하기도 했다. 이 외에 비늘을 ‘껍데기, 비늘’로, 부레를 ‘부레’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중 ‘주디, 대가리, 눈까리, 눈티, 뼈다구, 뱃대기, 꼬랑대기’를 통해서 사람과 달리 어류를 표현하는 말에 속된 표현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 예. 여 주. 중앙에. 보통 {고기주디}. / {입}. 입이야.
- ⇒ 이건 {대빠리라} 카는데. {고기대빠리}. 명태만 {대가리가} 따가. / {대갈빠리}. 대갈빠리.
- ⇒ 그 {날감지} 아이가.
- ⇒ 고기 {배때기라는} 말 써요.
- ⇒ {뒤날기}. 뒤 그네가 움적거려가 헤엄쳐 나오는 거.

2) 칼치, 깔치, 잔칼치, 굽은칼치, 먹칼치, 은칼치, 쌍칼치

칼치는 이 지역에서는 ‘칼치, 깔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칼치는 그 상태와 크기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고 있었다. 우선 그 크기에 따라 칼치는 ‘굽은칼치 > 잔칼치’로 구분될 수 있다. 칼치는 그 특성에 따라 ‘먹칼치, 은칼치, 쌍칼치’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먹칼치’는 검은 빛을 띠고 있는 것을, ‘은칼치’는 은빛을 띠고 있는 것을, 그 모양이 쌍칼과 같은 것은 ‘쌍칼치’로 나타났다.

- ⇒ 여는 {칼치} 안 나는데.

7) 반면 어류와 달리 음식과 해조류에 대한 명칭은 부녀자들이 더 세분화된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다양한 직업군을 통한 조사의 필요성을 말한다.

3) 사바, 고등어, 사바고, 사바새끼, 작은고등어

고등어는 다른 말로 ‘사바’ 또는 ‘고등어’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등어는 다 자란 고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고, ‘작은고등어, 사바새끼’는 덜 자란 고등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사바’와 함께 ‘사바고’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사바’에 고등어를 의미하는 ‘고’가 결합된 말이다. 즉 고등어의 ‘-고’가 접미사로 나타난 것이다.

⇒ {고등어}. / {고등어} 아이가.

4) 간자미, 가부리, 가오리, 참가오리, 참가부리, 물가오리, 간재미, 홍어, 오동가오리

가오리는 이 지역에서 잡히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그 명칭이 세분화되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특징에 따라 하위 범주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가오리는 ‘간자미, 가부리, 가오리’로 나타났고 이 중 먹을 수 있는 가오리는 ‘참가오리, 참가부리’로, 물이 많은 가오리는 ‘물가오리’로, 꼬리에 침이 없지만 오동나무와 같이 단단한 가오리는 ‘오동가오리’로 나타났다.

5) 까재미, 까자미, 도다리, 넙치, 참까재미, 돌까재미, 이시가리, 광어, 물까재미, 그저까자미, 넙떡치, 풀까재미, 뭉디까재미, 안경까재미, 흑물까재미

가자미는 ‘까자미’ 또는 ‘까재미’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가자미는 그 색과 형태적 특징에 따라 ‘돌까재미, 이시가리, 넙떡치, 안경까재미, 흑물까재미’로, 그 성질에 따라 ‘풀까재미, 뭉디까재미, 물까재미, 참까재미’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검은 흙색으로 돌처럼 단단하다는 의미에서 ‘돌까재미, 이시가리’로, 그 생김이 안경을 쓴 모습과 유사하다고 해서 ‘안경까재미’로, 꺼칠고 검다고 해서 ‘흑물까재미’로, 그 모양새가 넙떡넙떡하다고 ‘넙떡치’로 말하고 있었다. 또 ‘풀까재미’는 풀잎의 색을 띠고 있다는 말로, ‘뭉디까재미’는 먹을 수는 있으나 그 생긴 모습이 뭉디와 같이 못 생겼다는 의미로, ‘물까재미’는 물이 많아 헛거리로 많이 이용되는 가자미로, 먹었을 때 맛도 좋고 요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자미는 ‘참까재미’로 나타났다. 이 중 ‘이시가리’는 ‘이시(돌)+가레이(가자미)=이시가레이 ⇒ 이시가리’로 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그저까자미’라는 명칭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명칭 외에 나머지 가자미를 통칭해 사용하는 어휘였다.

⇒ 저 보통 인자 {넙떡치라} 이라는데.

⇒ {까재미} 까재미네. / {까자미}. 까자미. 몇 가지 뭐 {그저까자미} 카는 그 뿐이고 여러 가지 있어도 이름도 모르고 하나 하나 하나씩에 모르고. /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가면은 그물 하는데도 우리가 고기도 {가자미} 이런 거도 도다리라 카고 이래 안 나옵니까. 이런 쪽으로 사투리를 써가면서 얻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들 짚에는 그런 기 별로 없어요.

⇒ 광어 {도다리} {아구} 뭐 /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가면은 그물 하는데도 우리가 고기도 가자미 이런 거도 {도다리라} 카고 이래 안 나옵니까. 이런 쪽으로 사투리를 써가면서 얻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들 짚에는 그런 기 별로 없어요.

6) 춘태, 대태, 중태, 소태, 생태, 꼬다리, 노가리, 째거, 황태, 동태, 얼은명태, 말른명태, 북어, 찢는거, 작은명태, 명태새끼

명태는 이 지역에서는 ‘명태’로 말해지고 있었다. 먼저, 명태에 대한 어휘 분화는 그 크기에 따라 나타나고 있었다. 그 결과 가장 큰 명태는 ‘대태’로, 중간 크기의 명태는 ‘중태’로, 중태보다 조금 적은 크기는 ‘소태’로, 명태 새끼는 ‘노가리, 째거, 작은명태’로 말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명태의 상태에 따라 어휘 분화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생태, 북어, 황태, 동태, 얼은명태, 말른명태, 꼬다리’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 ‘꼬다리’는 명태를 반쯤 말린 명태로 코를 꿰어 몇 마리를 묶음 지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또 ‘대태, 중태, 소태’와 달리 ‘춘태’라는 말이 나타났는데 옛날 울릉도에서 명태가 많이 날 때 봄에 나는 명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다.

- ⇒ {춘태} 봄에 나는 춘태. 봄. 봄 춘차. / 봄에 나는 기지.
- ⇒ {중태}. 중태. 중 중. 가운데 중자 중. / {중태} 그렇지. 중태. {황태}. / {황}. {대태}.
- ⇒ 그거는 {생태} 아이가. 예. 생태. 살았으니까 생태.

7) 뽕지, 보구, 뽕찌, 음뽕, 비단뽕, 참뽕(참뽕), 자주뽕, 까치뽕, 황뽕, 밀뽕, 까칠뽕, 은뽕
 북어는 이 지역에서 ‘뽕지’ 또는 ‘보구’로 표현되고 있었고, 이러한 북어에는 ‘참뽕, 밀뽕, 까치뽕, 음뽕, 비단뽕, 자주뽕, 까치뽕, 까칠뽕, 황뽕’이 나타났다. 먼저, 나뭇잎에 대한 반대 의미로 사용하는 것에는 진짜 제대로의 의미를 지닌 ‘참-’이 결합되어 ‘참뽕, 참뽕’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북은 그 색에 따라, 또 그 특징에 따라 그 명칭이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그 결과 그 색에 따라 누른 빛을 내는 북은 ‘밀뽕’으로, 노란 빛을 띠고 있는 북은 ‘황뽕’으로, 붉은 자주 빛을 내고 있는 북은 ‘자주뽕’으로, 은색 빛을 띠고 있는 것은 ‘은뽕’으로, 비단과 같이 화려한 것은 ‘비단뽕, 음뽕’으로 나타났다. 또 그 모양새에 따라 짙은 청색을 띤 그 모습이 까치와 닮았다는 점에서 ‘까치뽕’으로, 겉면이 거칠거칠한 것은 ‘까칠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 ⇒ {뽕지도} 나고. 뽕지도 나고 여기는. / {북어} 저래면 모~ 알아 듣는데. {뽕}. {뽕찌}. / 예. 뽕. / {북우라} 해소. 북우라. 강태구.
- ⇒ 까칠까칠한 {까칠뽕찌} 있고 참뽕찌 있고 그렇지.
- ⇒ 까칠까칠한 까칠뽕찌 있고 {참뽕찌} 있고 그렇지. / {참뽕} 있고 / 참. {참뽕} 있어요. 참뽕도 있어.
- ⇒ {가시뽕지}.

8) 밍크, 흑돔고래, 범고래, 돌고래, 날감지, 곱새기

고래는 지금은 흔히 잡히는 어류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한번씩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고래도 그 특징에 따라 어휘가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는데 흑이 난 돔과 닮았다는 점에서 ‘흑돔고래’로, 그 생김새가 범과 같다는 점에서 ‘범고래’로, 등이 곱었다(곱았다)는 점에

서 굵은 돌고래와 얇은 고래는 ‘곰새기’로 나타났다. 또 이 지역에서는 고래를 ‘날감지’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 꼬리가 뭐 그런노. 꼬리 함 보자. 그케 꼬리. 가마 있어봐라. / 저저 {고래글다}.

9) 임면수, 새치, 가리재이

임면수어는 이 지역에서는 ‘이면수’ 또는 ‘새치’로 말해지고 있었다. 임면수어는 그 어휘 분화가 나타나지 않고 성어와 치어에 대한 어휘만 나타났는데 새끼를 의미하는 말로는 ‘가리재이’가 나타났다.

⇒ {새치} 그래 거 이면수라. 같은. 어 그런 말은 똑같은 말 아이라도 연에 이면수. 새치를 이면수라 카는 거라.

⇒ {가리재이라} 그라지.

⇒ 새치. 새치라 카는 인자 {이면수라} 카는 거는 저 이면에서 잡. 그때 저기 나가가 이름을 이면수라고 지았고 보통 우리 딴 데는 새치 새치 이라거든.

10) 잿방어, 떡사배기, 납짝새기, 노란사배기, 떡방어, 히라수, 똥방어(똥빠~), 살찐방어, 사배기, 가을방어, 여름방어, 봄방어, 이면수, 새치, 가리재이, 부실이, 사배기새끼

방어는 표준어와 동일한 형태와 ‘사배기’라는 명칭이 나타났다. 이는 계절에 따라 또 그 특징에 따라 어휘가 분화되어 나타났다. ‘봄방어’, ‘여름방어’, ‘가을방어’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여름방어’는 먹지 못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었다. 울릉도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과 같이 방어의 특성상 여름에는 방어를 먹기 좋지 않지만 봄과 가을에는 먹어도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⁸⁾ 한편, 방어는 그 특징에 따라 떡과 같이 찰진 것은 ‘떡사배기, 떡방어, 잿방어’로, 노란색의 납작한 모양의 방어는 ‘납짝새기, 노란사배기’로, 똥이 찬 것처럼 몸이 뽕뽕한 방어는 ‘똥방어, 똥빠~, 살찐방어’로 나타났다. 방어 새끼에 대한 명칭은 ‘가리재이, 새치, 사배기새끼’로⁹⁾ 표현하고 있었다.

⇒ 방어 자자콸한 거 고 {사백이라} 칸다.

⇒ 인자 가을 {가을방어}.

⇒ {여름방어도. 여름방어도 맛이 없어}. / 맛은 없어도 묵어요.

11) 참돔, 아까다이, 붉은돔, 사배기, 능성돔, 흑돔, 구로다이, 시마다이, 뺨치, 자리돔, (제주)옥돔, 흑돔, 노란돔, 참돔, 흑돔, 코돔, 독도돔, 코쟁이, 톨돔(돌돔), 뱀어돔

8) 여름철에 나는 방어는 속에 벌레가 생겨 먹지 못한다는 ‘오뉴월 방어 개도 안 먹는 거 누가 먹노’와 같은 말은 동해안 중부인 영덕, 경주, 강원도 주문진 지역에서 확인한 바 있다.

9) 이러한 명칭은 동해안 남부에 위치한 경주 지역에서는 ‘야주’로, 강원도 주문진에서는 ‘마레이’로 나타나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돔은 그 색, 형태 특징, 서식지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고 있었다. 그 결과 색에 따라 ‘흑돔, 구로다이, 붉은돔, 아까다이, 노란돔’으로 나타났고, 서식지에 따라 ‘제주옥돔, 독도돔’으로, 형태 특징에 따라 ‘코쟁이, 톨돔, 뱅어돔, 자리돔, 참돔, 능성돔, 흑돔’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울릉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돔으로 ‘코돔, 독도돔, 코쟁이’라는 명칭이 나타났는데 이는 돔의 겉면이 끈적끈적해 마치 코를 톸 것 같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 ⇒ 흑, 흑돔이다. {흑돔}. / {흑} 있다고. / 어데. 흑이 어디 있노. 거기.
- ⇒ 아니야 이거 {코돔이지} 싶다가. 코돔 아니가? 몰라.
- ⇒ 줄이 거 일곱 개가 있다 해서. 울. 내가 알기론 과거에 거 뭐 {칠돔}. 뭐 그렇게~ 부르고 {뺨치라고} 부르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 ⇒ 그거를 {돌돔} 어린 걸 여기서 뺨치.

12) 쥐치, 쥐고기, 주치, 납짝치, 월남쥐치, 강남쥐치, 뿔쥐치, 말쥐치, 얼룩쥐치

쥐치라는 말은 육지의 쥐와 모양이 비슷하다 점에서 나온 말이다. 이 지역에서는 ‘쥐치’ 외에도 ‘쥐고기, 주치’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쥐고기는 그 모양, 특징, 서식지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어 나타났다. 서식지에 대한 명칭으로는 위쪽 지역에서 온 쥐고기라는 의미에서 ‘강남쥐치’가 사용되었다. 또 모양과 그 특징에 따라 ‘월남쥐치, 뿔쥐치, 말쥐치, 얼룩쥐치’로 나타났다. 큰 쥐치를 가리키는 말로는 ‘말쥐치’가, 생김새가 뿔죽해 마치 뿔이 난 것같이 생긴 쥐치를 ‘뿔쥐치’가, 어둡지만 얼룩덜룩한 모양새를 지닌 것은 ‘얼룩쥐치’로, 그 모양이 작고 납작한 것이 월남에서 온 사람과 같다는 의미는 ‘월남쥐치’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흔히 볼 수 있어 천한 고기였지만 예전과 달리 요즘은 자주 볼 수 없는 고기가 되었다고 한다.

- ⇒ 요거는 꼭 {쥐치글네}. / {쥐치는}. / {쥐고기라} 하기도 하고. {주치라} 하기도 하고.
- ⇒ 고거는 이름은 우리가 지아가 {납짝치라고} 짓지.

13) 종달치, 과메기, 손꽂치, 사요리, 학꽂치

울릉도는 오징어 외에도 꽂치도 많이 잡힌다고 한다. 이러한 꽂치는 이 지역에서 ‘종달치’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 특징에 따라 분화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이 중 그 모습이 학처럼 긴 것은 ‘학꽂치, 사요리’로, 예전에 꽂치가 많아 손으로 잡을 수 있었던 시기에 잡은 꽂치는 ‘손꽂치’로 나타났다. 한편, 얼었다 녹았다 한 꽂치는 ‘과메기’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는 꽂치가 많이 잡히기는 하지만 그 가치가 없었는데 이는 꽂치에 관한 관용적인 표현인 ‘홀당가지 없는 개장사라’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어부는 고생스럽게 잡지만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마치 길가에 있는 주인 없는 개를 파는 것과 같다는 말로 사용한 것이다.

- ⇒ {꽂치} 종류 없어요. / {학꽂치} 있기가 있지.

- ⇒ {학꽂치는} 조디가 빼직한 거. / 그래 빼직.
 ⇒ 그래 이 사람들이 밤 새도록 잡어와 가지고 와서 판로가 없잖아. 이 사람들 그냥 줘요. 그 여
 앓아가 파는 사람. {홀당가지 없는 개장사라}. 지금까지 형태는 그래 왔다고. 개를~ 줄도 없이
 그냥 불러가 판다 카는 게. 아면 뭐 그런 어떤 밀천도 안 들이고 개가 길거리에 있는 걸 판다.
 이런 뜻이겠조.

물고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1> 물고기 부분 명칭

구분		어휘 항목
부분 명칭		고기, 물고기, 껍기
	울릉읍	눈띠, 눈까리, 아가리, 조디, 등때기, 꼬랑대기, 지느러미(날개끝), 이늘, 비늘, 꺾데기, 배찌느러미, 배때기, 창대기, 부레, 살따구, 알, 뼈다구
	북면	대갈빠리, 이빨, 입, (고기)주디, 조디, 눈까리, 눈, 껍기눈까리, 등싸등배, 등더리, 아감지, 고기빋, 날개미, 날감지, 비늘, 꺾데기, 배때기, 배, 창지, 살, 알, 뒤날기, 쏭지, 고기뺏다구
	서면	대갈빠리, 조디(주디), 눈까리, 등사등뼈, 아구태가리, 아가미, 지느러미(등사등뼈), 비늘, 꺾데기, 몸티, (고기)창대기, 내장, 부레, 살, 알, 꼬랑대기(뽕대기), 뼈다구, 뺏따구

<표 12> 물고기 기초 어휘와 확장 어휘

구분		어휘 항목
확장 어휘	가자미	변이형 까재미, 까자미, 까재미
		어종명 도다리, 넙치, 참까재미, 돌까재미, 이시가리, 광어, 물까재미, 그저까자미, 넙떡치, 풀까재미, 뽕디까재미, 안경까재미, 흑물까재미
	상어	변이형 상어
		어종명 귀상어, 백상어, 개상어, 식인상어, 철갑상어
	복어	변이형 뽕지, 보구, 뽕찌
		어종명 음뽕=비단복, 참복=참뽕, 자주복, 까치복, 황복, 밀복, 밀복, 까칠복, 은복
	가오리	어종명 간자미, 가부리, 가오리
		변이형 참가오리=참가부리, 물가오리, 간재미, 홍어, 오동가오리, 광어(넙치: 새끼)
	멸치	변이형 머르치, 이루꾸, 메레치
	고등어	변이형 사바, 고등어, 사바고, 사바새끼
		어종명 작은고등어
	방어	변이형 방어

구분		어휘 항목
	어종명	젓방어=떡사배기, 납짝새기=노란사배기, 떡방어, 히라수, 동방어(동빠~)=살찐방어, 사배기, 가을방어, 여름방어, 봄방어, 이면수=새치=가리재이, 부실이, 동방어, 젓방어, 사배기새끼
쥐치	변이형	쥐치, 쥐고기, 주치
	어종명	월남쥐치, 강남쥐치, 뿔쥐치, 말쥐치, 얼룩쥐치
명태	변이형	명태
	어종명	춘태, 대태, 중태, 소태, 생태, 꼬다리, 노가리=짬거, 황태, 동태=얼은명태, 말른명태=북어=쨌는거, 작은 명태, 명태새끼
장어	변이형	장어
	어종명	바다장어, 곶치, 아나고
돔	변이형	돔
	어종명	참돔=아까다이=붉은돔, 사배기, 능성돔, 흑돔=구로다이, 시마다이=뺨치, 자리돔, 옥돔=제주옥돔, 흑돔, 노란돔, 참돔, 흑돔, 코돔=독도돔=코쟁이, 톨돔(돌돔), 뱅어돔
조기	변이형	조기, 조구, 조기
	기타명	참조기
임연수어	변이형	임명수, 새치, 가리재이
고래	변이형	고래
	어종명	밍크, 흑돔고래, 범고래, 돌고래, 날감지, 곶새기
상어	변이형	상어
	어종명	새아리, 귀상어, 꼬빠리, 범상어, 청상어, 곶새기, 백상어
칼치	변이형	칼치, 깔치
	어종명	잔칼치, 굽은칼치, 먹칼치, 은칼치, 쌍칼치
꽁치	변이형	꽁치
	어종명	종달치, 과메기, 손꽁치, 사요리=학꽁치
도루묵	변이형	도루매기, 말짱도루매기, 도루묵

2.3.2. 조개류

1) 양식전복, 독도전복, 수퍼전복, 참전복, 말전복, 둥근전복, 까막전복, 참전복, 종패, 치패, 종자용전복

조개류는 각각의 부분에 따라 ‘껍데기, 껍질, 입, 주디, 뿔, 아가미, 빗, 위, 창대기, 내장, 심, 발, 침’으로 말해지고 있었다. 조개류 중 전복은 일반적으로 서식지, 생김새, 색에 따라 어휘가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 서식지에 따른 명칭으로 나타난 ‘독도전복’은 독도에서 서식하는 전복을 가리킨다. 생김새에 따른 명칭으로는 그 둥근 형상으로 ‘둥근전

북'이, 크고 덩치가 크다는 점으로 '수퍼전복, 말전복'이, 그 색이 까맣다는 점에서 '까막전복'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양식되어 배양된 전복은 '양식전복'이, 좋다는 의미에서 '참전복'이 있었다. 한편 이러한 전복의 종자는 '치패, 종패, 종자용전복'으로 나타났다. 예전에 울릉도에서는 전복이 많이 낚였는데 이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우찌로도느 나무에 전복이 열린다'가 나타났다. 이러한 시절 어두워지면 바닷가에 횃불을 들고 가서 전복을 주어오는 상황을 '해바리'라고 했다.

- ⇒ 전복은 뭐 참미역. {참전복} 있고 이런 건 우리 못 들어봤어. 그냥 전복 그러면은 단일종으로 그렇게 불렀었고.
- ⇒ 거 {전복은} 어예 아나. 묵어라.
- ⇒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뭐 그거 하이튼 울릉도전복이다 이라는데 {울릉도전복이} 굉장히 아물어요. 인자 딱딱하지. 좀 다른 거 양식 잡는 거 무르지만 굉장히 아물니다. 아물고 그래서 인자 고런 물살이 세기 때문에 이 전복이 자체적으로 자기 그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하다 보니까 살이 좀 굉장히 얇아요. 운동 많이 하면 살이 저.
- ⇒ 야. 그래서 나무가 작 떨어지니까 바닷가에 축 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복이 저녁 되면 다 올라와요. 슬슬 다 올라와요. 그래 우리가 어릴 때 박일주 안 있어요. 가~ 들고 가면은. 짚불 짚해가 횃불 해가지고 해바리. {해바리라} 하죠.
- ⇒ 그 때 당시에는 울릉도를 일본말로 우찌로도라니까. 우찌로도라 이러는데. 여기서 {우찌로도느 나무에 전복이 열린다} 이랬어.

2) 참소라, 뿔소라, 뿔고디, 뿔고동, 참고디, 참고동, 해방고디, 맨들고디, 동그란고디, 사말고디, 게고디

소라는 '고디, 고동, 소라고동, 소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중 뿔처럼 길게 생긴 소라는 '참소라, 참고디, 뿔소라, 뿔고디, 뿔고동'라고 한다. 또 그 모양이 작고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소라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은 '동그란고디'로, 작고 매끈매끈한 것은 '맨들고디'로, 게가 속에 사는 소라는 '게고디, 기고디'로, 해방된 시기에 있었던 소라는 '해방고디'로, 길고 가는 소라는 '사말고디'로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패류의 상태는 '동그랗다, 푹방하다, 돌방하다, 기다, 질쫙하다, 뺨쫙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기도 했다.

- ⇒ {고동이네}. 고동. {고디} 카는 여. 소라 카는 거 왜말이고. / 어. {고디}. 소라. {소라는} 아니고.
- ⇒ {사말고디}. 와 본토 와 저 마이 안 나나. 고디 여도 마. / {사말고디}.
- ⇒ 요거 가지고 우리 {맷싸고디라꼬} 했어요. / {맷싸고딘데} 안에 드가서 사는 기는 뭐냐 이기라. 이름이 뭐냐 이기라. / 무슨 {맷싸고디라}.
- ⇒ 안에 기 들었는 건 {기고디를} 얘기하나.
- ⇒ {동그란고딘데} 이름은 뭐가 잘 생각 안 난다.

3) 홍합, 열합, 처갓집물건

홍합은 '열합, 처갓집물건'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처갓집물건'은 여성의 성기와 홍합의 모습이 닮았다는 점에서 나타난 말이다.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요즘

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 {열합}. 열합 매로 그런 거.

조개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조개류의 기초어휘와 확장어휘

구분		어휘 항목
패류	부분 명칭	껍데기, 껍질, 입, 주디, 뿔, 아기미, 빗, 위, 창대기, 내장, 심, 발, 침
	전복 ¹⁰⁾	변이형 전복
		패류명 양식전복, 독도전복, 수퍼전복, 참전복, 말전복, 둥근전복, 까막전복, 참전복, 종패, 치패, 종자용전복
	소라	변이형 고디, 고동, 소라고동, 소라
		패류명 참소라, 뿔소라, 뿔고디, 뿔고동, 참고디, 해방고디, 맨들고디, 동그란고디, 사말고디, 참고동, 해방고디, 뿔고디, 게고디
	홍합	변이형 홍합, 열합, 처갓집물건
	조개	변이형 조개
		패류명 키조개, 말조개

2.3.3 게

1) 게껍데기, 기등어리, 게딱지, 등떠리, 게조디, 기조디, 기이빨, 눈티, 눈까리, 달구지, 대갈빼기, 기이빨, 게오동발, 집게발, 배대기, 배대지, 게창대기, (게)살따구, 살케이, 살따구, 게알, 창대기, 기장, 심장, 염통

게는 이 지역에서 ‘기’ 또는 ‘게’로 실현된다. 이러한 게는 몸과 다리를 중심으로 어휘가 분화되어 나타났는데, 다리는 일반적으로 ‘기이빨, 게오동발, 집게발’로, 딱딱한 껍데기는 ‘게껍데기, 기등어리, 게딱지, 등떠리’로 내장은 ‘게창대기, 기장, 창대기’로, 살 부분은 ‘(게) 살따구, 살케이, 살따구’로, 눈 부분은 ‘눈티, 눈까리’로, 입부분은 ‘게조디, 기조디, 기이빨’로 나타났다. 이 중 입부분과 집게발을 모두 ‘기이빨’로 나타났는데 집게발로 먹이를 먹는다는 점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 외에도 ‘심장, 염통, 대갈빼기’ 등도 나타나고 있었다.

⇒ {기} {기이빨이네}. 이빨. / 발을 떠가 왔다. 조디. {게}. {게딱지} 아이가. 딱지. {등떠리고}.
⇒ 기. {기조디글네}. 기. 기. 기 기 {이빨이네}. 이빨. / {기조디가} 아이고.

10) 문화재관리국(1999:422)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전복을 ‘말전복, 둥근전복, 시볼트전복, 전복, 오분자기’로 다섯 종류로 구분한 바 있는데 이 중 ‘둥근전복, 말전복’은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볼트 전복은 껍질의 너비가 넓고 편평하며 둥근 귀모양으로 생긴 전복을 나타낸다.

2) 빵게, 방게, 여식애, 털기, 털게, 철갑게, 참게, 홍게, 대게, 꽃게, 큰기, 참기, 홍게, 먹는기, 못먹는기, 바다기, 돌새기, 자갈기, 영덕기

게는 크게 암컷과 수컷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그 특징적 성격에 따라, 서식지에 따라, 식용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수컷은 별 다른 명칭이 없었지만 암컷은 ‘빵게, 방게, 여식애’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중 ‘빵게’는 알이 들어 있어서 빵빵하다에서 연유한 말이고, ‘여식애’는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암컷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그 서식지에 따라 ‘돌새기, 자갈기, 영덕기, 바다기’가 나타났는데 돌 사이에서 사는 게는 ‘돌새기’로, 자갈 사이에서 사는 게는 ‘자갈기’로, 바다에서 사는 게는 ‘바다기’로 나타났다. 또 그 특징적 형태에 따라 발에 털이 있는 게는 ‘털기, 털게’로, 겹이 딱딱한 기는 ‘철갑게’로, 덩치가 큰 게는 ‘큰기’로, 다리의 모습이 대나무와 같이 뻗어 있다는 점에서 ‘대게’, ‘박달게’가, 붉은 색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는 ‘홍게’가 나타났다. 한편 식용의 유무에 따라 게를 ‘먹는기’와 ‘못먹는기’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 ⇒ 몇 가지 없어. / 몇 가지 여 두 한 두~ 두 가지 뿐이지 싶은데. 저 바다에 나는 {돌새기} 있고 또 자갈. {자갈 밑에서 나는 기} 있고. 자갈 들썬면은 {자갈기}. 자갈 고게 나는 그거.
- ⇒ {털게라} 하지 뭐.
- ⇒ 돌새 {큰기고}. / 아니 기 여러 질이거든. 기 인자 {먹는기가} 있고 {못먹는기가} 있는데 그거 저 바. {바다기} 있긴 있어. 와 고 돌 들썬면 기 안 나나. {참기} 안 나오느교. 돌 들썬면 돌 잔 불에 돌 들썬면 빨간 거 그냥 많이 나오잖느교.

이러한 게의 부분 명칭과 종류에 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 <표 15>와 같다.

<표 14> 게의 부분 명칭

구분	표준어	어휘 항목
게	게	기, 게
	등딱지	게껍데기, 기등어리, 게딱지, 등떠리
	입	게조디, 기조디, 기이빨
	눈	눈티, 눈까리
	다리	달구지
	머리	대갈빼기
	집게발	기이빨, 게오동발, 집게발
	배	배대기, 배때지, 게창대기, (게)살따구, 살케이, 살따구, 게알
	내장	창대기, 기장, 심장, 염통

〈표 15〉 게 종류 명칭

구분		어휘 항목
게	암수에 따라	빵게, 방게, 여식애
	특징에 따라	털기, 털게, 철갑게, 참게, 홍게, 대게, 꽃게, 큰기, 참기, 홍게
	식용에 따라	먹는기, 못먹는기
	서식지에 따라	돌새기, 자갈기 / 영덕기

2.3.4. 해조류

1) 미역, 참미역, 돌미역, 지네발미역

미역은 그 특징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미역은 ‘귀다리, 귀, 미역 쫄거지, 줄기, 쫄거리, 꼬타리, 귀다리, 이파리, 잎, 구다리, 빨거지, 발’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빨거지, 발’은 미역의 뿌리 부분을, ‘꼬타리, 귀다리’는 미역에서 솔방울과 같이 둥근 부분을, ‘미역쫄거지, 쫄거리, 줄기’는 줄기 부분을, 잎 부분은 ‘잎, 이파리’를 말한다. 또 미역은 미역의 종에 따라서도 명칭이 나누어지는데 이 지역에서는 미역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다. 먼저, ‘참미역’은 물이 깊은 곳에서 나는 일반적인 미역을, ‘지네발(참)미역’은 발뿌리의 모습이 지네의 발과 비슷한 미역을, ‘돌미역’은 돌 위에 서식하는 미역으로 수분이 많지 않은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미역을 말리는 과정에서 흰 색의 소금기가 생기는 것을 그 과정과 색에 연유해 ‘색태가 바뀐다, 안개가 찌다, 색깔이가 변하다, 간 찼다, 염분 찼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이 하얀 분가루가 생기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이를 ‘안개가 찌다, 분 찼다’로 표현하기도 했다.

- ⇒ 미역 나는 미역. {참미역이란} 있고.
- ⇒ {꼬타리}. {미역꼬타리} 아이가? 꼬타리도 하고 {구다리도} 하고. / 그거를 {미역꼬다리라} 한다. {미역구다리라} 구다리.
- ⇒ 미역 미역 {쫄거리}. / 미역 {줄기}.
- ⇒ 돌. {빨거지가} 돌에 빠혔으니 돌미역.
- ⇒ {귀다리} 카는 거라. 귀다리. 기다리는 아이라. / {기다리가} 내나 꼬다리라. {기다리} 여그 빨거지 붙었는 거.
- ⇒ 전복은 뭐 {참미역}. 참전복 있고 이런 건 우리 못 들어봤어. 그냥 전복 그러면은 단일종으로 그렇게 불렀었고.
- ⇒ 여기 다 {돌미역이지} 뭐워.
- ⇒ {색태가 바뀐다}. 그거는 비가 오고 뭐 이러든 날씨가 좋으면은 건조가 잘 되고 비가 안개가 찌고 비가 오면은 잘 안 돼. 잘 안 말리고. {색태 낀다}.
- ⇒ 그거 {분 찼다} 그래. / 맞아. {분 찼다} 맞아. 분 찼다 해도 되고 {감 찼다} 해도 되고.

2) 도박, 참도박, 개도박

바다에서 나는 풀의 일종으로 몸이 납작하며 선 모양의 짧은 줄기가 있으며 빛깔은 어두운 녹색, 누런 녹색을 띠는 도박은 이 지역에서는 ‘도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도박은 일반적으로 식용의 유무에 따라 개도박과 참도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통해 식용으로 사용하는 도박은 ‘참도박’으로, 식용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도박은 ‘개도박’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도박은} 그거는 납뽁납뽁하이 전부 납뽁한데. 종류 그래 뭐 그렇지. 그렇지만 보통 납뽁납뽁하지.
- ⇒ 도박이 거 {참도박} {개도박} 뭐 이래서 하이튼 저가 알기론 도. 도박이 한 너댓 가지 될 거 같애요.

3) 천초, 우무가시리, 우무까시리, 우뭇가사리

붉은 갈색을 띠고 있으며 가늘고 짧은 가지로 되어 있는 ‘천초’는 주로 따뜻한 바다 밑 암초 위에서 자란다. ‘우뭇가시리’는 의약품, 제과, 화장품, 세균 배양에 필요해 한때는 해외 수출품으로 각광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우무가사리가 지금은 한천을 만드는 재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었고, 우무가사리로 만든 음식을 ‘우무’라고 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우뭇가사리는 ‘우무가시리, 우무까시리, 우뭇가사리, 천초’라고 부르고 있었다. 요즘은 조류의 흐름이 바뀌어서인지 예전과 달리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 ⇒ 이거는 {천초네}. / {우뭇가시리}. 우뭇가시리라 카기도 하고. {우뭇}. 요게 우뭇가시리인가.
- ⇒ 그게 인제 잡초를 말하면 {우뭇가시리라는} 게는 돌새 가새 나고 천초라 키는 건 바닷물 속에 나고. {우뭇}. 요게 우뭇가시리인가.

4) 대왕, 대방, 솟대황, 암대황

‘대황’ 또는 ‘대왕’은 이 지역에서만 나는 해조류이다. 이 지역에서는 이를 이용해 ‘대왕밥’, ‘대왕쌈’과 같은 음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대황’은 암수에 따라 ‘솟대황, 암대황’으로 분화되어 나타났는데 그 모양이 크고 잎이 가늘고 긴 것은 ‘솟대황’으로, 둥글고 잎이 넓고 길이가 짧은 것은 ‘암대황’으로 나타났다.

- ⇒ 다른 지역에서는 저 {대황과} 비슷한 게 제주도나 가면 그게 감태라 그래. 감태. 감태라고 그러는데 단 감태와 {대왕이}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저는 이 대황은 식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제주도 감태는 거의 이 거름. 퇴비로 많이 쓰죠.
- ⇒ 어. 인제 {솟대황이란} 것은 인자 줄기가 줄기가 가늘고. 잎이 인자 넓지가 않고 잎이 좁으면서 가는 거. 가는. 가늘고 {암대왕은} 잎이 넓죠. 줄기 가지 수가 적으면서 잎이 넓은 거 그걸 인자 암대황이라 해서. 인제 {암대황이} 맛있다.

해조류에 대한 기초어휘와 확장어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6>과 같다.

<표 16> 해조류의 기초어휘와 확장어휘

구분		어휘 항목
해조류	미역	확장명 참미역, 돌미역, 지네발미역, 지네발참미역
	부분명	귀다리, 귀, 미역줄거지, 잎, 발, 줄기, 빨거지, 쫄거리, 꼬타리, 이파리, 구다리
	천초	변이형 천초, 우무가시리, 우무까시리, 우뭇가사리
	파래	확장명 파래
	도박	확장명 도박(참도박, 개도박)
	톳	확장명 킴(방구뜯었는거, 돌킴)
	대황	확장명 대왕, 대황, 대방(숫대황, 암대황)
	기타명	색태가 바뀐다, 안개가 찌다, 색깔이가 변하다, 분 뿜다, 간 뿜다, 염분 뿜다

2.3.5. 기타

1) 이까, 오징어, 수매, 수루매, 피둥어꼴뚜기, 초등오징어, 사꾸라지기, 갑오징어, 조기, 한치, 큰기, 굽은기, 적은기, 잔기, 골뚜기, 대, 중, 소

오징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까’로 많이 말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오징어’와 ‘수루매, 수매, 피둥어꼴뚜기’라는 말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까’는 주로 생오징어를, ‘수루매’는 말린 오징어로 구분해 말하기도 했었다. 이 중 큰 것으로 주로 먼 바다에서 잡아오는 것은 ‘갑오징어’로, 오징어가 처음 나는 4~5월에 잡은 오징어는 ‘초등오징어, 초물, 사꾸라지기’로, 오징어와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것으로 ‘한치’ 또는 ‘조기’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크기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굽은기, 큰기, 잔기, 적은기, 대, 중, 소’로 나타내고 있었다.



[사진 9] 이까

- ⇒ {수루매는} 일본말이고 {수매고}. 수. 수 수매고.
- ⇒ 예. 같은 종류라도 생긴 거 다 같드라다. 조기하고 오징어. / {조기가} 육지서 {한치라} 한다.
- ⇒ 큰 거는 큰 거라. 적은 거는 적은 거라. 잔. {잔 기라} 그라고 굵은 {굵은 기라} 그라고. {잔오징어} {굵은오징어}.¹¹⁾
- ⇒ {갑오징어는} 고기 자체가 틀리잖아. 종류가 틀리잖아. / 종자가 종류가.
- ⇒ 그래 {꼭디기} 맞다. / {뿔띠기}. 뿔띠기. / {꿀뚜기} 아이가. 꿀뚜기.

2) 문애, 문대, 문애, 참문어, 참문애, 돌문어, 돌문애, 물문어, 물문애, 수커, 암커, 큰문애
문어는 ‘문어’ 또는 ‘문애, 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어는 그 특징에 따라 ‘물문어, 돌문어, 참문어’로, 암수에 따라 ‘암커, 수커’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 돌처럼 단단한 문어는 ‘돌문어, 돌문애’로, 물이 많아 물렁물렁한 것은 ‘물문어, 물문애’로, 살이 찰지고 맛이 좋은 것은 ‘참문어, 참문애’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어의 머리는 ‘두겁, 대빠리’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관용표현으로는 ‘여름에 잡으면 인자 개도 안 묵는다’가 나타났다.

- ⇒ 아이다 그건 {문애고}. / {문애}. {문어}. 문어. / {문어} 보다 그래 하지. 문어만.
- ⇒ 참문애 아니가. {물문애도} 있고.
- ⇒ 와 저 그거 큰 거는 뭐고. 돌문애 {참문애}. 아이다. {돌문애하고}.
- ⇒ 그먼 숯거는? {암거는}? 난 그런 거 모르겠더라. / {암거는} 아~를 가지기 때문에 대번 포 나지. 암거하고 틀리지. 틀래고 {숯거는} 하마 저저 다리 꼬티가.
- ⇒ 머리 머리를 {두겁이라} 하는데. 문어 머리만
- ⇒ {여름에 잡으면 인자 개도 안 묵는다} 이 말이시더. 맛없다 말이지



[사진 10] 돌문어

3) 불가사리, 별가사리, 별, 문애비개, 독한거, 별, 작은거, 큰게, 큰불가사리

불가사리를 이 지역에서는 ‘별, 불가사리’ 또는 이들이 결합한 ‘별가사리’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별’은 바다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육지로 건져내어 밭에 비료로 사용하는

11) 이 글에 나타난 명칭의 경우는 ‘큰기’와 같이 붙여쓰를, 예문의 경우는 전체 통일을 위해 띄어쓰를 밝히둔다.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불가사리가 바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한거’라는 표현이, 문어가 자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애비개’로도 나타났다. 이 역시도 그 크기에 따라 ‘작은거, 큰게, 큰불가사리’로 쓰이기도 했다.



[사진 11] 문애비개

- ⇒ {조개비개네}, {불가사리}, / {문애비개} 저거.
- ⇒ 그거 이름 짓기 달렸지. {왕불가사리라도}.
- ⇒ {큰거} 있고 작은거 있는데. 그 이름이 확정한 이름이 없지. 그것도 {큰불가사리고} 그렇지 뭐.

4) 보라성게, 북쪽말뚝성게, 말뚝성게, 아까성게(알: 은단), 왕장구, 까만성게, 노란성게
성게를 이르는 표현은 ‘성게’로 나타나고 있었다. 둥근 몸에 석회질의 가시가 뾰족하게 박혀있는 성게는 색상에 따라 ‘보라성게, 아까성게, 까만성게, 노란성게’로 나누어진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색을 띠고있는 성게는 ‘아까성게’로, 검은 빛을 띠고있는 성게는 ‘까만성게’로, 보랏빛을 띠고있는 성게는 ‘보라성게’로, 말뚝과 닮았다는 점에서 ‘말뚝성게, 북쪽말뚝성게’로 부른다. 이러한 ‘아까성게’의 알을 ‘은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성게를 ‘왕장구’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 12] 성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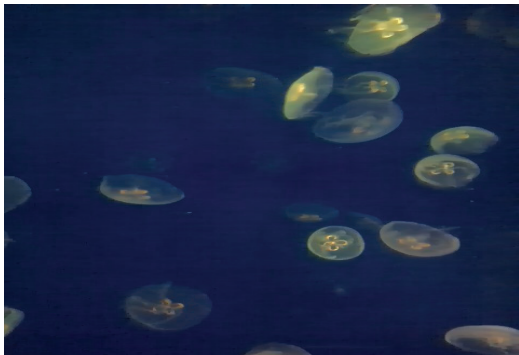
[사진 13] 미역

- ⇒ {성게}, / {왕장구}. 성게를 말하고 옛날에는 완장구. 왕장구.
- ⇒ 이름 보이 {까만성게가} 요새 나는 게 까만성게가 있고 {노란성게가} 있거든. 작은 거 {노란성게}

데}. 그거 쪼매난 긴데 {알이} 많이 차. 저거 일본 수출 많이 하거든. 요새 좀 육지 가면 구룡포 그런 데 가면 요새 수출을 마이 한다. 쪼매난 거.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하거든. 지금.

5) 해피, 해파리, 오무라해파리, 큰게, 큰기, 큰해피, 작은해피, 적은기

해파리는 해파리라는 명칭보다는 ‘해피’라는 명칭이 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확장어휘에서는 ‘큰해피, 작은해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오무라해파리’는 일본에서 온 큰 크기의 해파리를, 가장 큰 크기의 흰 색을 띠고 있는 해파리는 ‘큰해피, 큰기, 큰게’로, 가장 작은 크기의 해파리는 ‘적은기, 작은해피’로 표현하고 있었다. 즉, 크기에 따른 확장 어휘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독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해파리를 구별하기도 하였다.



[사진 14] 해피



[사진 15] 큰해피

- ⇒ {해피도} 보면 이래 인자 {큰 기} 있거든. 이래 큰 게 있고 / 그게 {해파리} 저거 해파리 저게. {독이 있는 기} 있고 또 {없는 기} 있다고. 독이 있는 거는 어데 문데는 데 거기 앉아가 예를 들어가지고 다~보거나 그러거나 하면 큰일 난다고.
- ⇒ 큰 거 있고 {적은해피}. / 그래 하몬 되지. 큰 거는 {큰해피라} 하고 작은 거는 {작은해피라} 하고

6) 해삼, 삼, 청해삼, 청삼, 흑해삼, 흑삼, 흰해삼, 홍해삼, 홍삼, 흰해삼, 백삼

해삼은 이 지역에서는 ‘삼, 해삼’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해삼은 색상에 따라 ‘청해삼, 홍삼, 흑해삼, 흰해삼’으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붉으스름한 빛깔을 띠고 있는 해삼은 ‘홍해삼, 홍삼’으로, 검은 빛을 띠고 있는 해삼은 ‘흑해삼, 흑삼’으로, 흰 색을 띠고 있는 해삼은 ‘흰해삼, 백삼’으로, 푸른 빛을 띠고 있는 해삼은 ‘청해삼, 청삼’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해삼과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보찰’, ‘부채손’이라고 하는 것을 ‘손톱할마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했는데 특색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미는 할머니의 손톱 모양과 닮았다는 것이다.

- ⇒ {해삼}. 나지 많이 나지.
- ⇒ {홍삼이} 있고. / {홍삼}. {백삼은} 없어.
- ⇒ {흑삼이} 있고. / 이게 봐라 그 {흑삼이라}.



[사진 16] 흑삼, 홍삼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7>과 같다.

<표 17> 기타류의 기초어휘와 확장어휘

구분			어휘 항목
기타류	해삼	변이형	해삼, 삼
		확장명	청해삼, 청삼, 흑해삼, 흑삼, 흰해삼, 홍삼, 청삼, 백삼
	불가사리	변이형	불가사리, 별가사리, 별, 문애비개, 독한거, 별
		확장명	작은거, 큰게, 큰불가사리
	오징어 ¹²⁾	변이형	이까, 오징어, 수매, 수루매, 피둥어꼴뚜기
		확장명	초등오징어, 사꾸라지기, 갑오징어, 조기, 한치, 큰기, 적은기, 꼴뚜기, 대, 중, 소
	문어	변이형	문어, 문대, 문애
		확장명	참문어, 참문애, 돌문어, 돌문애, 물문어, 물문애, 수커, 암커, 큰문애
	해파리	변이명	해피, 해파리
		확장명	오무라해파리, 큰게, 큰기, 큰해피, 작은해피, 적은기
	성게	변이형	성게
		확장명	보라성게, 북쪽말뚝성게, 말뚝성게, 아까성게(알: 은단), 왕장구, 까만성게, 노란성게
	멍게	확장명	멍게
		확장명	홍멍게, 붉은멍게, 돌멍게, 개멍게, 참멍게
	말미잘	변이형	말미잘, 물보지

12) 오징어에 관한 자세한 기술은 개별주제 ‘오징어잡이에서 덕장까지’를 살펴보라.

2.3.6. 어획물 상태¹³⁾

1) 빼죽하다, 날 섰다, 칼날 섰다, 자짤하다, 빼빼하다, 빼죽하다, 통통하다, 살 찼다, 굵다, 질이 질다, 작다

앞에서 물고기의 명칭이 그 모양, 상태, 색, 서식지에 따라서 분화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물고기의 상태를 굵기와 길이, 모양새, 색상에 따라 나타내기도 했는데, 굵은 것을 ‘통통하다, 굵다, 살 찼다’로, 가는 것을 ‘빼빼하다, 빼죽하다, 예비다’로, 또 긴 것은 ‘질이 질다’로, 반대의 의미로는 ‘작다, 자짤하다’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길고 뾰족한 모습은 ‘날 섰다, 쫄쫄하다’로 나타났다.

- ⇒ 보통 그 고기 다 할 때 크면 {예빈} 것보다 {살 찼다} 이런 소리도 주장 많이 하지 뭐. / 살 찼다.
- ⇒ {쫄쫄하고}. / 길이가 {지지}. 지 질구만.
- ⇒ {짜리지}. 짜리지. 보통 고기 뭐. {크면} 크다고 적으면 {적다고} 그러지 뭐.
- ⇒ 망치는 {넙덕하고} 전어는 {쫄쫄하고} 그래. 그거
- ⇒ {날 섰다}. / 날. {날이. 칼날 섰다}. 이런 거.
- ⇒ 그양 끝에 {빼죽하다}. / {빼죽하지}.

2) 썩었다, 쿠쌌다, 쿼퀴하다, 시큼하다, 드리친다, 비릉내 난다, 안주 살아있네, 생생하다, 싱싱하다, 삐죽삐죽하다, 날 섰다, 날 되게 섰다, 비끼겠다, 손 비킨다

신선도에 따라 좋지 않은 것은 ‘썩었다, 쿼퀴하다, 시큼하다, 드리친다, 비릉내 난다’로, 그 반대로 싱싱한 것은 ‘안주 살아있네, 생생하다, 싱싱하다’로 나타내고 있었다. 어획물의 상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생선의 가시, 즉 ‘치’에 찔린 것을 ‘삐죽삐죽하다, 날 섰다, 날 되게 섰다, 비끼겠다, 손 비킨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 ⇒ {안주 살아있네} 카고. 싱. {생생하다} 그러지 뭐.
- ⇒ {썩었다}. / 고기가 {썩었다}. 썩은 거지
- ⇒ {쿠쌌다} 그거 저 까무태뿌소. {상해뿌렸다} 하던지 그래야지. 쿠사 일본말을 갖다 써.

한편 어류의 상태에 대한 표현 중 특징적인 것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8>과 같다.

13) 상태 표현은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류를 모아서 함께 정리한 것이다.

〈표 18〉 어획물 상태 표현

구분	표준어	어휘 항목
어획물-물고기-상태	물렁물렁하다/ 딱딱하다	딱딱하다 땡땡하다 / 물렁물렁하다
	가늘다	자짤하다
	길쭉하다	빼쭉하다, 날 섰다, 칼날 섰다, 빼쭉빼쭉하다, 날 되게 섰다, 비끼겠다, 손 비긴다
	볶다	볶다
	물다(상하다)	썩었다, 쿠쌌다, 쿼퀴하다, 시큼하다, 드리친다, 비룽내 난다

2.4. 어로 도구와 어로 방법

2.4.1. 그물류

이 지역에서는 ‘오징어’와 ‘꽁치’를 주로 잡는데 ‘오징어’는 낚시로, ‘꽁치’는 그물로 잡는다. 그러나 울릉도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익성과 판로가 좋지 않아 ‘꽁치바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물류에 대한 어휘는 많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도구를 활용한 방법 중 그물을 쳐놓고 고기 떼가 지나가면서 걸리도록 한 후 고기를 잡는 행위는 ‘그물바리’로, 낚시를 던져서 잡는 행위는 ‘편지바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1) 그물살, 원줄, 코, 아바, 비대, 낚

‘시망’을 넓게 펼치면 위, 아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물의 가장 위쪽 부분으로 위쪽에 연결되어 있는 줄은 ‘원줄’로, 그물을 엮는 줄은 ‘그물살’로, 그물을 고정시키기 위해 아래쪽 부분에 다는 것은 ‘낚’이라고 한다. 한편 그물 아래쪽 부분에 매는 줄을 가리키는 말로 ‘비대’가, 그물 위쪽 부분에 매는 것으로 작고 둥근 모양을 지닌 것은 ‘아바’로 나타나고 있었다. 울릉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물의 부분 명칭에는 일본어의 영향으로 인한 외래어와 한자어, 고유어가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코} 여네 살 이기 코가 아니가.
- ⇒ {그물살}. / 그거는 {살이고}.
- ⇒ 우에 뚝뚝뚝한 거 그거는 {아바고} 거 낚도 있고.
- ⇒ 비대. 이거 아바 아바 하든지 밑에는 {비대고}. 비대 요기 요기 비대지. 줄을 갖다가 비대라 하지.
- ⇒ {원줄로} 땡긴다.

2) 그물, 후리치, 후리치기, 후리치기하는그물

‘그물’은 ‘후리치기그물’만이 나타났다. 이 ‘후리치기그물’은 간단히 ‘후리치, 후리치기’로 표현하기도 했고, ‘후리치기하는그물’로 풀어서 말하기도 했다.

- ⇒ {후리치기하는그물}. 그래 맞다. 후리치기하는그물.
- ⇒ 나 저거. 저거 투. {투망인데} 그자. 투망 치는 거.

2.4.2. 낚시류

낚시와 같은 말을 이 지역에서는 ‘낚시, 낚수’라고 한다. 이러한 낚시류에는 예전에 명태가 많이 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여러 개의 낚시바늘이 달려있는 것을 ‘주낙’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낚수’라는 말을 제보자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1) 낚싯대, 줄, 자새, 이늘, 갱심, 찻돌, 낚시비늘, 이늘

‘낚싯대’는 낚시를 쫓는 대나무 대를 가리키는 말로, 이러한 낚시에 다는 고기의 밥은 ‘미끼’로 나타났다. 낚싯대 끝에서 낚시를 직접 다는 곳까지의 낚시줄을 ‘원줄’로, 낚시 끝에 다는 작은 추 모양의 돌로 이 돌로 인해 물살에서도 낚시가 고정될 수 있는 것은 ‘찻돌’로, 실 따위를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얼레’로, 낚시바늘은 ‘낚시비늘, 이늘’로 나타났다.

한편 오징어잡이에 처음 사용된 ‘사도’라는 낚시에 다는 것으로 ‘사기단자’와 ‘낚시바늘’을 연결하는 줄을 ‘시울’이라고 했다. 이 ‘시울’을 사용한 다음 나온 것이 ‘경침’으로 이때부터 투명한 나이롱줄을 사용했다고 한다.

- ⇒ {낚싯대네}. 한 발 뿐이네. 한 발. 낚싯대네.
- ⇒ {갱심}. 낚시 뭐 도구들. / 요기에다가. 요기에다가 이제 여 갱심 그라는 심을 고 여기다 매는 거예요. {갱심을} 매는 거예요.
- ⇒ 연. 연 {자새} 아이가?
- ⇒ 몰라 육지서 {얼레}. 얼레라 하는가 여기서는 고기를 안 잡으니까 이거 이름을 모르지.
- ⇒ 이기 인자 {사듭니다}. 사도. 이기 하얀 {사기로가} 돼있어요. 요렇게 돼있어. 사기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인자 이 줄. 줄인데. 줄 이거를 갖다가 이걸 시. {시울이라} 캐요. 시울. 시울이라고 하고 요건 인자 사도.
- ⇒ 낚시를 인자 아까 얘기했던 {로라낚시} 산작꾸 {찻돌} 갱심 그라는 배에 담배까지 다 싣고 가요. 선주 측에서. 싣고 와가지고 배에 사무장이 있어요.
- ⇒ 아 낚시~ {낚시비늘}. / {이늘} 이늘.

2) 낚시, 낚수, 자채, 주낙

낚시는 긴 줄이 하나인 낚시는 ‘낚시, 낚수’로, 긴 줄이 여러 개인 낚싯대는 ‘주낙’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고기를 보관하거나 담는 도구에 대한 명칭으로 ‘두름박, 꼬드박, 쪽대, 망태기, 고기망태기, 쪼래기’도 나타났다.

- ⇒ {낚시} 중에도 그거 뭐. / 즉 맞으면은 {낙수를} 이래 줄줄 매가 낙수를 여 쳐가지고 바다 가가지고 해가 빠지면은 낙수를 여가 이래 돌리면은 그 낙수에서 시거리가. 시거리 불. 불이 난다고. 불. 여 낙수를 이래 하면은 낙수 이 거서 불이 난다고. 실컷 불이 나니까 오징어가 {미끼를} 달려들고 달려들고 그래가 잡는 기야.
- ⇒ {주낙}. 주낙. / {주낙}. / 그래. 고기도 저거 {주낙} 한다.
- ⇒ 그때는 낚시가~ 이거 할 땐 낚시가 그~ 이후에 났는가. 옛날에 오징어 낚시도 {거일낚시라고}.

한편 어로 도구 명칭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9>와 같다.

〈표 19〉 어로 도구 명칭

구분			어휘 항목
어로 도구	그물류	부분명칭	그물살, 원줄, 코, 아바, 비대
		종류	그물, 후리치, 후리치기, 후리치기하는그물
	낙시류	부분명칭	낙싯대, 줄, 자새, 이늘
		종류	낙시, 낙수, 자채, 주낙
	기타류	종류	두름박, 꼬드박, 쪽대, 망태기, 고기망태기, 쪼래기

2.4.3. 배

섬이라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울릉도는 고기잡이에 사용하는 어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연락선도 중요하였다. 즉 주민들의 대표적인 운송 수단이자 생계 수단이 ‘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는 어촌 생활의 변화와 같이 변천되어 왔는데 그 결과 다양한 종류와 모양의 배를 볼 수 있다.

1) 오징어배, 명태배, 어선, 잠수선, 목선, 기젓배, 철선, 에프알피, 뗏목, 뗏마, 떼배, 냉동선, 발동기, 동력선, 그물배, 모다, 간꼬, 무동력선, 풍선, 통통배, 작은배

어선은 잡는 어종에 따라 ‘오징어배, 명태배’로, 어떠한 일에 중심을 두냐에 따라 ‘어선, 잠수선, 머구리배, 낙시배, 연락선’로, 배의 재질, 즉 소재에 따라 ‘목선, 기젓배, 철선, 에프알피, 뗏목, 뗏마, 떼배’로, 그 특성에 따라 ‘냉동선, 발동기, 동력선, 그물배, 모다, 간꼬, 무동력선, 풍선, 통통배, 작은배, 택택이, 기관선, 도풍배’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배에 장착하는 엔진인 ‘야끼다마’와 ‘택택이(=착택이, 땡기작가)’에 따라 배를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엔진의 이름, 엔진의 속성이 배의 명칭을 대신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 ⇒ {잠수기}. / {잠수기} 하잖아. 여기 일월달부터 한다고.
- ⇒ {낙시배} 가는 낙시 몇 시 돼가 간다. 이래 한 서너 시간 어떤 배 타고 가면 이 배 타고 간다 이라는 기라.
- ⇒ 그때 일본 사람들이 쓰다 가고 남은 배 거기 인제 요즘 발동기 {기관선이라}. 이런 거 몇 척 있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간꼬지요}.
- ⇒ 그 모다라 하는 기 {뚝딱선이라}. / 맞아 {모다}.
- ⇒ 자연적으로 {어선들도} 인자 거 우리가 일본쪽에 참 부럽게 생각했던 저 우리도 저런 배 한번 타볼 수 있을까 했는 {에프알피선들}. 요즘 우리나라 지금 전부다 에프알피잖아요.
- ⇒ 그래서 옛날 엔진도 땡기작가. 착택이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택택이} 하던가. 기계 소리가 택택택 난다 해서 그런 건지.
- ⇒ 여기 인자 오징어를 판장에서 전부다 할복하면 이기 다 떠내려와 물 씻으면 배수로 따라 자루에 다 담겨요. 그러면 {통통배가} 꼬집고 저기 한 일 마일 정도 꼬집고 나갑니다. 거서 터뜨려 버려요.
- ⇒ 근데 뭐 이 짓. 짓거리나 이런 걸 하는 걸 {잠수선도} {머구리배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인제 선

주하고 정하는 그 부합에 따라서 주는 거고 옛날에는 요즘은 뭐 프로수로 계산을 하니까 쉬운 데 옛날에는 그 짓가리란 말이 와 나왔노 하먼. 옛날에 막 열직. 열 점 놓자 스무 점 놓자 이래서 거기서 몇 개서 갖, 갖고 가는데 거 계산 방법은 나는 암만 생각해도 거 이해가 안 가. 줌.

이러한 배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20>과 같다.

<표 20> 어선 명칭

구분		어휘 항목
어선	잡는 어종에 따라	오징어배, 명태배
	하는 일에 따라	어선, 잠수선, 머구리배, 낚시배, 연락선
	재료에 따라	목선, 기꺾배, 철선, 에프알피, 뗏목, 뗏마, 떼배 ¹⁴⁾
	특성에 따라	냉동선, 발동기, 동력선, 그물배, 모다, 간꼬, 무동력선, 풍선, 통통배, 작은배, 택택이, 기관선, 도풍배

<울릉도 배의 변천 과정>

1. 오징어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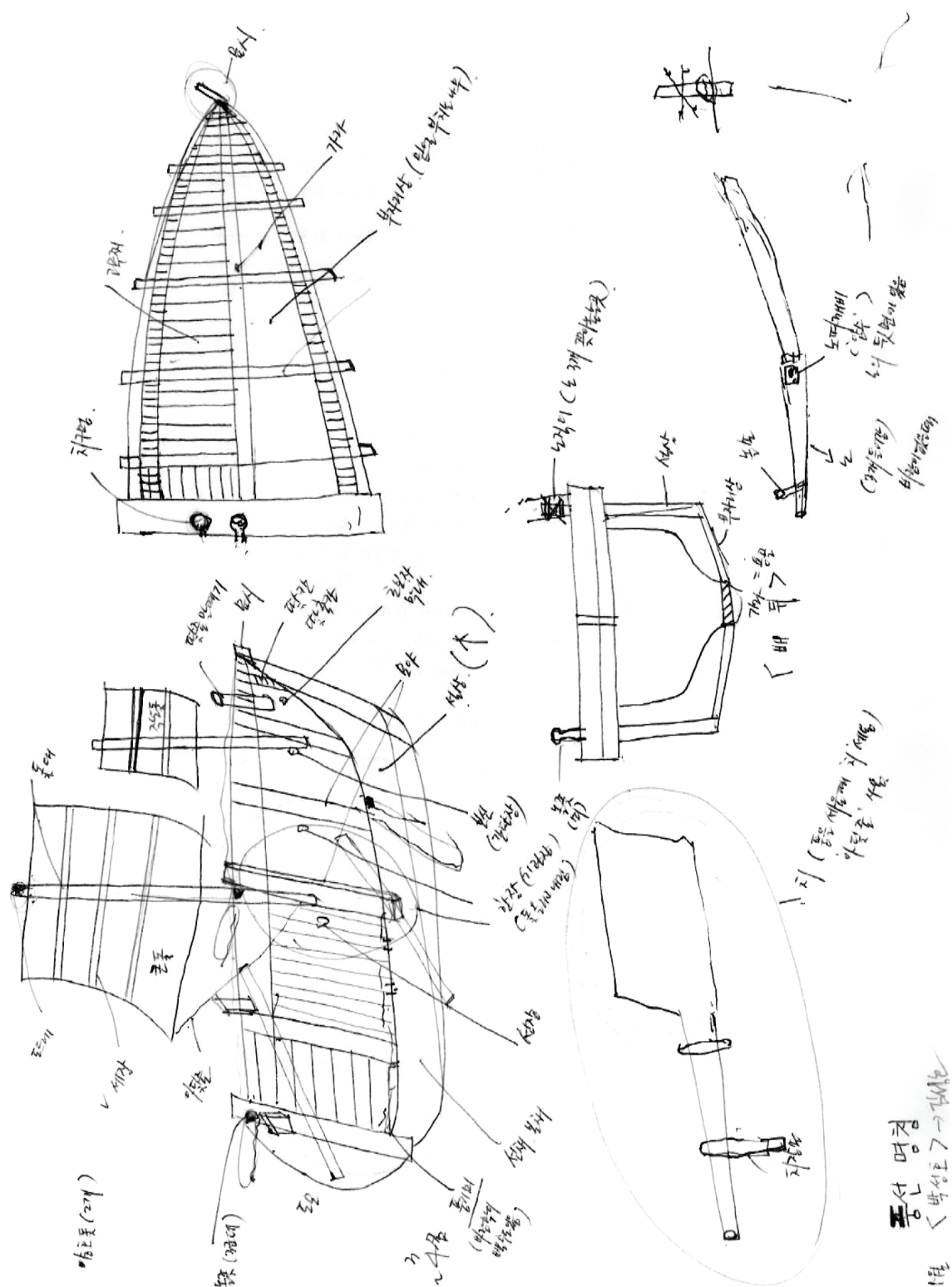


[사진 17] 간꼬(측면)



[사진 18] 간꼬(전면)

14) ‘떼배, 뗏마’의 경우는 떼서 사용한다는 점과 나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징과 재료 모두를 포괄하고 있지만 ‘뗏목’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함께 다루었다.



[그림 2] 제보자가 설명해 준 간꼬



[사진 19] 동력선(목선)



[사진 20] 에프알피

2. 연락선¹⁵⁾



[사진 21] 금파호(1960년)



[사진 22] 동해호(1963년)

15) ‘연락선’에 관한 사진은 울릉군청에서 지원해준 사진을 활용한 것임을 밝힌다. 연락선은 1882년 울릉도 개척령이 반포된 이래로 울릉도 주민에게는 정기적인 해상교통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이 중 천양호, 영풍호, 대흥호, 금파호는 모두 목선이었다. 인구의 증가로 승객과 화물이 많아지자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63년부터 200톤급 동해호(東海號)가 취항하여 정기적으로 운항하였다. 1977년 5월에 선착장 준공과 더불어 808톤급 한일1호가 취항하였고, 1983년 9월 1일자로 2,035톤급 대아 카훼리호가 취항하였으며 1986년 6월 20일에는 한일 2호가 취항하였다. 지금은 속초·묵호~도동, 울진 후포~도동에 정기 취항하는 카타마란, 오션플라워가 있고 포항에서 출입항하는 2,394톤급(정원 815명) 셉플라워호가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사진 23] 한일호(1977년)



[사진 24] 카웨리호(1982년)



[사진 25] 선플라워호(1997년)

3. 기타 어선



[사진 26] 떼배



[사진 27] 떼목1



[사진 28] 떼목2



[사진 29] 떼목3



[사진 30] 떼목4



[사진 31] 뗏마

배의 명칭은 과거 오징어 잡이에 사용되었던 ‘간꼬’와 기타 운송 수단으로 사용한 ‘뗏마’와 ‘떼배’를 살펴본 후 최근에 사용되는 ‘동력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간꼬’를 살펴본 후 ‘뗏마, 떼배’를 보고 그 후 ‘동력선’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되었던 배 명칭의 변화 양상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간꼬

‘간꼬’는 처음 오징어 잡이에 사용된 배로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목선’이라고도 하고 ‘풍’을 달고 있다는 점에서 ‘풍선’, ‘돛’을 달고 있다는 점에서 ‘돛단배’라고도 한다. 이외에도 돛대가 달린 배로 동력이 아닌 바람을 이용해 움직이는 배라는 점에서 ‘무동력선’이라고도 하고, 오징어를 잡는데 사용한다는 점에서 ‘오징어배’라고도 한다. 이러한 배는 2개의 돛대를 지니고 이곳에 다는 풍은 ‘큰풍, 적은풍’이라고 했다. ‘간꼬’는 단순히 고기를 잡는 것 뿐만 아니라 어획물을 팔고 주민과 물건을 싣어 나르는 운송수단으로도 이용했다고 한다(사진, 그림 참고).

- ⇒ {간꼬는} 무동력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무동력선}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동력선}을 만들게 됐겠 조. 그래서 옛날 엔진도 댕기자까. 차택이 뭐 뭐 이런 식으로.
- ⇒ {돛단배} 카는 아주 옛날. 아주 옛날에 풍선 카는 거 인자 그거 타고 그런 거 아주 옛날 하마 오래 돼요. 몇 십 년 전에. 한 육칠십 년 전에.
- ⇒ {풍선} 그래 그걸 타고 잡았고 그 담에 {기렛배} 해가 잡고. 아주 옛날에 그때 뭐 기렛배 기계가 있나.

배의 명칭뿐만 아니라 배의 부분에 대한 명칭은 동해안 지역에서 사용되는 명칭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는 사용하는 ‘간꼬’의 명칭은 다음과 같았다. 배는 간단히 ‘배 뒤, 배 앞, 배 중앙, 배 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배 뒷부분은 ‘선미, 도모’로 사용

되었고, 배 앞부분은 ‘뱃머리’로 ‘꼬대기, 이물, 묘시, 선수’로 사용되었고, 배 가운데 부분은 ‘배 한장’으로, 밑부분은 배의 밑바닥을 말하고 있었는데 ‘배밑, 배빨다리, 배밭’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도모의 위치에 따라 ‘윈도모, 오른도모, 오른도모꼬티, 윈도모꼬티’로 나타내기도 했고, 배에 다는 풍은 두 개의 뜻이 달린다는 점에서 ‘양호돛’으로, 돛에 다는 풍, 바람을 맞는 풍이라는 점에서 ‘돛풍, 바람풍’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다시 그 풍의 크기에 따라 ‘큰풍, 적은풍’으로 나타났다. 배 안의 각각의 구역을 ‘뺏칸, 선장집, 선채, 본채’로 나타내기도 하고 각 부분에 놓이는 배의 부속품을 ‘풍기미, 치, 놀손, 노파개비, 노잎, 아도줄, 노우데, 치구멍, 놀쭈, 고무찌’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나무판자의 위치에 따라 ‘가라, 용골, 부자리상, 설상, 모야, 뺏줄말때기’라고 하였다. 이 중 ‘노파개비’는 다른 말로 ‘놀딱개비, 노썸’으로, ‘노잎’은 ‘놀잎’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2) 뗏마¹⁶⁾

흔히 전마선이라고 하는 ‘뗏마’는 8~10개의 오동나무를 통째로 잘라 만든 것으로 상부 구조가 없고 돛대가 없거나 한 개가 설치된 소형 선박을 말한다.¹⁷⁾ 이러한 ‘뗏마’는 잠수부, 즉 머구리 또는 해녀들의 작업을 위해 실어주고 그 작업물을 다시 실어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떼배, 뗏목’이라고도 한다. ‘뗏마’는 잠수부들이 주로 타고 다닌다는 의미에서 ‘잠수선, 머구리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간꼬’와 같이 노를 저어 운행한다는 점은 공통되나 풍이 없고 나무를 떼로 엮어 평평한 선채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먼바다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주로 바닷가 연안에서 해조류(미역 등)를 채취하거나 그물을 이용해서 고기잡이를 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에서는 ‘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세부 명칭은 ‘노’와 ‘뗏마’로 간단히 구분하고 있었다.¹⁸⁾ ‘노’는 ‘간꼬’와 같이 ‘치, 치구멍’과 ‘놀손, 노파개비(놀딱개비, 노썸), 노잎(놀잎), 노우데, 놀쭈’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16) 국립해양유물전시관(2002:189)에서는 울릉도 지역에서는 이러한 배를 ‘떼배’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는 주로 해안가에서 미역을 채취하거나 낚시를 이용한 오징어잡이, 손꽂잡이에도 사용한다고 했다. 이러한 뗏목을 제주도에서는 ‘티우’라고 하고 강원 정동진에서는 ‘토막배’로 부른다고 했다. 이러한 점을 보면 각 지역마다 ‘뗏마’를 부르는 명칭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 이를 사용하는 용도와 만드는 방법과 재료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세분화된 명칭의 분화도 각기 지역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지역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초어휘 조사의 필요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17) 이원석(1990:24)에서는 잘 다듬은 통나무나 모가 진 각목을 5개 내지 8개를 옆구리에 구멍을 파내고 길다란 나무창을 좌우에서 서로 어긋 매겨 가면서 꿰뚫어 박아 연결한 배를 ‘뗏목’ 또는 ‘뗏목배’라고 한다고 했다.

18) 그러나 문헌에서는 이에 대한 세분화된 어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만재도(2008:66-67)과 우이도(2009:130)는 뗏마를 측면으로 보면 ‘활대, 아두줄, 돛대, 용두줄, 뺏봉줄, 치손잡이, 치, 노, 외판(삼, 선삼, 옥삼, 옆삼), 뺏코, 뺏명예, 이물(묘시), 부자리삼, 물구시’로 구분된다고 했고, 이를 평면으로는 보면 ‘명예, 타락, 물받이, 노쭈, 도모, 널, 돛대받침’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이 중 명예는 그 위치에 따라 ‘뺏명예, 앞명예, 대명예, 옥계롱(도모칸명예), 작은명예(방장명예)’로 구분된다고 했다. 또 선미는 ‘치구멍, 선삼, 눈삼, 하반, 배밑, 하계(풍계)’로 구분된다고 했다.

- ⇒ 인제~ {떼배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아마 그거로 했겠쥬. 어~ 떼배로 아마 했을 거 같고.
⇒ {땃마도} 하고. {간꼬도} 하고 그렇다.

3) 동력선

일반적으로 ‘목선’ 즉, 무동력선에 반대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기계 장치에 의하여 움직이는 배, 돛배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 지역에서 기계, 엔진을 단 배 즉, 기계배를 ‘기켓배’로, 그 엔진의 소리에 따라 ‘택택이, 똑딱선, 통통배’로, 그 재질에 따라 ‘철선, 에프알피선’으로 표현하였다. 이 외에도 ‘기관선, 발동선’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 ⇒ 예. 도동에 어제 배 대는 데. {연락}. 예. / {연락선} 대는.
⇒ 그래서 옛날 엔진도 탕기자까. 차택이 뭐 뭐 이런 식으로. 뭐 {택택이} 하던가. 기계 소리가 택택택 난다 해서 그런 건지.
⇒ 그 {모다라} 하는 기 {똑딱선이라}. / 맞아 모다.
⇒ 여기 인자 오징어를 판장에서 전부다 활복하면 이기 다 떼내려와 물 씻으면 배수로 따라 자루에 다 담겨요. 그러면 {통통배가} 꼬집고 저기 한 일 마일 정도 꼬집고 나갑니다. 거서 터뜨려 버려요.

문화재관리국(1999:432-433)에서도 동해안 중부지역인 영덕 지역의 목수가 이야기하는 배의 부분 명칭을 기술한 바 있는데 이를 2010년에 조사한 경주 지역과 2011년에 조사한 강릉 지역, 2012년에 조사한 울릉도 지역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21>, <표 22>, <표 23>, <표 24>와 같다.

<표 21> 영덕 지역의 풍선 부분 명칭¹⁹⁾

구분	뜻풀이	비고
통	배의 맨 밑바닥	용골이라고도 함
삼	선복을 삼이라고 함	밑삼과 옆삼이 있음
스마또	밑삼을 고정시킴	
간막이	이물 앞칸(앞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물건을 넣는 곳, 배서낭님을 모시는 곳)	2톤급의 범선에는 9개의 간막이가 있음 / 배의 앞을 ‘이물’로, 뒤를 ‘도모’라고 함
	두칸 앞담불(잡은 고기가 많은 경우 남는 고기를 넣는 곳)	
	큰칸(큰명에 앞에 있는 칸, 넓이가 제일 넓음)	
	물칸(물을 퍼 내는 칸)	
	-(어구를 넣는 칸으로 닻이 달려있음)	
	도모칸(두 칸, 앞담불과 큰 칸에만 고기를 실으면 배가 기울어지므로 이곳에도 싣음)	

19) 우이도(2009:130)는 풍선의 배 구조는 ‘배밑, 눈삼, 선삼, 도모, 명에, 골대, 마장, 돛대’로 이루어진다고 한 바 있다.

구분	뜻풀이	비고
	정지간(옷, 식량, 땔나무 등을 넣어 두며 사람이 자기도 하는 곳)	
개롱	칸막이 위에 붙여서 배가 벌어지는 것을 막는 공간	
명에	선복을 가로 지른 각목으로 배의 몸을 단단하게 유지함	큰명에, 작은명에 각 1개씩 있음
하판	키를 꽂아두는 나무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음	
닷주	줄 매는 곳	
구레	돛대 받침	
널	배를 저어가는 널	
키	배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물에 매다는 널	
창손	키의 손잡이	
올목	키의 몸을 이루는 나무	
양옷대	앞의 돛대	
큰돛대	뒤의 돛대	
뒷별	양옷대와 큰돛대를 연결한 줄, 큰돛을 세울 때 이 줄을 이용하면 좋음	
용청줄	돛폭을 올리거나 내리는 줄	

〈표 22〉 경주 지역의 풍선 부분 명칭

구분	뜻풀이	비고
통	배의 맨 밑바닥	
삼(겉)	배의 겉면을 가리키는 말	
늪을상	배 밑을 가로로 고정시킨 나무	
설상	배 밑을 세로로 고정시킨 나무	
한창	=선수, 배 가운데 즉 중간을 가리키는 말	
큰모애	배 가운데 돛대를 고정시키는 곳	
도꾸	배 뒷부분의 도드라지게 튀어나온 부분	
도모	=후미 =배끝, 배의 뒷부분을 가리키는 말	
헛도모	뒷부분에 나무를 하나 덧댄 것을 가리키는 말	흙을 덧대기도 했다고 해서 ‘흙도모’라는 말도 있었음
이물	=이물, 선미, 배앞. 배의 앞부분을 가리키는 말	
정지지리	배 뒷부분에 ‘ㄴ’자로 된 양쪽 부분	
가라	배의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의 세로로 된 바닥을 가리키는 말	
활아지	배 옆에 모양을 내기 위해 또 물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볼록하게 나무를 댄 것을 말함	
왼쪽활아지	=도로까치 =도로가지, 왼쪽에 있는 활아지	

구분	뜻풀이	비고
오른쪽활아지	=오목까치, 오른쪽에 있는 활아지	
침목	=치,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	
노 ²⁰⁾	배를 저어 나아가게 하는 것	
창손	=창술 =치손잡이 키를 잡는 손잡이를 가리키는 말	
돛풍	돛에 광목을 씌운 부분으로 돛 전체를 가리키는 말	
베	=광목, 돛에 씌우는 천을 가리키는 말로 광목으로 만들다는 의미에서 광목이라고도 함	
용두	돛대 끝부분을 이르는 말	이를 ‘도루레’ 또는 ‘용두도루레’라고도 함
화살대	돛을 세우는 대를 돛대라고 하고 이를 가로로 댄 것을 화살대라고 함	
돛대	=침대, 돛을 세우는 대를 말함	
배안	=데끼, 배 안을 가리키는 말	
물통	=이깨스통, 배 안에서 산 고기를 담는 통	
어창	죽은 고기 넣는 통	

〈표 23〉 강릉 지역의 풍선 부분 명칭

구분	뜻풀이	비고
바닥	배의 맨 밑바닥	
삼	배의 겉면을 가리키는 말	
한창	=선수, 배 가운데 즉 중간을 가리키는 말	
큰모에	배 가운데 돛대를 고정시키는 가로로 된 나무 기둥	
가라	배의 한 가운데를 가르는 세로로 된 긴 나무 기둥	
도모, 배뒤	=후미 =배끝, 배의 뒷부분을 가리키는 말	
도모다수	도모 쪽에 있는 위로 튀어나온 나무로 배의 좌, 우에 위치하는 부분	
도모마쭈라	뒤쪽에 위치한 배의 갈비 부분을 가리키는 말	
뒷도모	뒷부분에 나무를 하나 덧댄 것을 가리키는 말	
헛도모	뒷부분에 나무를 허위로 덧댄 것을 가리키는 말	
묘시	=이물 =배앞, 배의 앞부분을 가리키는 말	

20) 만재도(2008:65)는 노의 명칭을 세분화해 구분하기도 했는데 고물비우(선미)에 설치된 노를 ‘하노’, 옥계루에 설치된 노는 ‘전노’, 대명에 설치된 노는 ‘전노’라고 한다. 이 중 좌우에 있는 전노는 삼과 타락 사이 명에 설치한다. 타락은 거친 파도가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험과 또 배를 물으로 올릴 때 사람 어깨 및 다리를 사용하여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도록 구조된 것이다.

구분	뜻풀이	비고
고닥	묘시 다음에 배 앞 부분을 가리키는 말, 이러한 형태의 방을 ‘고닥칸’이라고 함	
통도리	배의 바닥과 옆 부분을 둘러가면서 막은 나무를 가리키는 말, 걸면을 덮어 통을 만든다는 말임	
아돏줄	활대에 달려있는 줄	
용천대	풍을 세우는 나무 기둥을 가리키는 말	이 기둥에 풍을 다는데 이때 이러한 줄을 ‘용천줄’이라고 함
도로까지	왼쪽에 있는 활아지	
오목까지	오른쪽에 있는 활아지	
치, 딸, 키	=치,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	딸을 쫓는 곳은 ‘딸구멍’이라고 함
놀 (왜놀, 조선놀) ²¹⁾	배를 저어 나아가게 하는 것	어느 나라의 형태를 취하냐에 따라 달람짐
놀구멍	노를 짓기 위해 쫓는 구멍	
놀망치	노를 잡는 부분	
놀쫓	노를 조정하기 위해 쫓는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창술	키를 잡는 손잡이를 가리키는 말	
풍 (큰풍, 작은풍)	돛에 광목을 씌운 부분으로 돛 전체를 가리키는 말	크기에 따라 명칭이 달라짐, 이러한 풍을 쫓는 곳을 ‘작은풍다는곳, 큰풍다는곳’이라고 함
양호돛	=작은돛 =작은도쿠, 작은 돛을 가리키는 말	
용총	돛대 끝부분을 이르는 말	
활대	돛을 세우는 대를 돛대라고 하고 이를 가로로 댄 것을 화살대라고 함	
돛대	돛을 세우는 대를 말함	
방짱, 배안, 칸	배 안을 가리키는 말	이 중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방짱’이라고 함

21) 만재도(2008:65)는 노의 명칭을 세분화해 구분하기도 했는데 고물비우(선미)에 설치된 노를 ‘하노’, 옥 계룡에 설치된 노는 ‘전노’, 대명에 설치된 노는 ‘전노’라고 한다. 이 중 좌우에 있는 전노는 삼과 타락 사이 명에 설치한다. 타락은 거친 파도가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과 또 배를 물으로 올릴 때 사람 어깨 및 다리를 사용하여 이동하기에도 편리하도록 구조된 것이다.

〈표 24〉 울릉도 지역의 풍선 부분 명칭

구분	뜻풀이	비고
뱃발, 밑삼	배의 맨 밑바닥	
내루, 삼	배의 걸면을 가리키는 것	
한창, 배 안, 데끼	배 가운데, 즉 중간을 가리키는 것	
가라, 용골	배의 한 가운데를 가르는 세로로 된 긴 나무 기둥	
도모, 후미, 선미	배 끝, 배의 뒷부분을 가리키는 것	
부자리상	밑으로 부치는 나무로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	
설상	세로로 세워진 배의 갈비 부분을 가리키는 것	
묘시, 이물, 선수	배 앞, 배의 앞부분을 가리키는 것	
보깡다이, 보건다이	배에 물이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 오목하게 된 부분을 가리키는 것	
통	배의 바닥과 옆 부분을 둘러가면서 막은 나무를 가리키는 말, 걸면을 덮어 통을 만든다는 것	
아딧줄	활대에 달려있는 줄	
닷, 땃	배나 그물을 고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땃줄, 땃줄	땃을 다는 줄	
땃줄말때기	땃줄을 매는 나무 기둥	
도로까지	왼쪽에 있는 활아지	
오모까지	오른쪽에 있는 활아지	
치, 키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	
노, 놀 (일본놀, 조선놀)	배를 저어 나아가게 하는 것	
노직이	노를 짓기 위해 꽂아놓는 구멍	노 3개를 꽂아두는 곳
놀손	노를 잡는 부분	
놀쫓	노를 조정하기 위해 꽂는 오목하게 나온 부분	
놀십, 놀십	놀쫓을 맞추도록 노의 중간에 낸 구멍, 노를 박는 구멍	3군데가 있다고 함
창손, 창송	키를 잡는 손잡이를 가리키는 것	
치창손	키를 밀고 당기는 창손을 꽂는 구멍	
도풍, 풍 (작은도풍, 큰도풍)	돛에 광목을 씌운 부분으로 돛 전체를 가리키는 것	
양호돛	2개의 돛을 가리키는 것 ²²⁾	
도르레	돛대 끝부분에 있는 것으로 돛을 움직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	
심살, 힘살	돛을 세우는 대를 돛대라고 하고 이를 가로로 댄 것	
돛대	돛을 세우는 대를 것	
선채, 본채	배 전체를 가리키는 것	

22) 강릉에서는 ‘작은돛’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 배의 부분 명칭

구분		어휘 항목
배	부분 명칭	선채, 본채, 풍기미, 한장, 땃칸, 모야, 설상, 땃줄말때기, 묘시, 도모, 치구멍, 고무찌, 가라(=용골), 부자리상, 도모까치, 도모, 오목까치, 땃축칸(=요끼와), 이물, 땃칸, 가라(=용골), 모야(=모애), 도모통, 줄때(=수레)
	키 명칭	치장술, 치, 키
	노 명칭	놀손, 노파깨비, 놀(=키), 놀쫓, 노직이, 노썩, 노잎, 노우데, 노파깨비
	풍 명칭	양호돛, 큰돛, 작은돛, 돛대, 아돛줄(아돛줄), 도드레 반풍, 큰풍, 작은풍, 용천, 용천줄

2.4.4. 어로 도구

1) 짝살(작살), 통발, 계통발, 문애통발, 망태기, 호미, 낫, 미역낫, 물웃, 해녀복, 고무옷, 오리발, 이깨수칸, 수주칸, 머구리머리, 투구, 가네끼, 수경, 비늘, 쪽대, 가래, 글개, 미까, 이깃대, 훑꾸대, 창

한 곳에 물고기가 들어갈 발을 쳐 놓고 고기 떼가 지나가면서 걸리도록 한 것을 이 지역에서는 ‘통발’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발에는 잡는 어종에 따라 ‘계통발’과 ‘문애통발’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잡은 어류나 해조류는 ‘망태기’에 담아 보관했는데 이 중 산고기를 보관하는 배 위의 공간을 ‘이깨수칸, 수주칸’이라고 하였다. 한편 해녀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 입는 옷은 ‘물웃, 해녀복, 고무옷’으로, 착용하는 도구는 ‘오리발, 가네끼’로, 작업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망태기, 호미, 낫’으로 나타났다. 남자 잠수부를 ‘머구리’라고 했는데 ‘머구리’가 착용하는 투구를 ‘머구리머리, 투구’로, 이들이 사용하는 작업 도구는 ‘훑꾸대, 창’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어로도구로 ‘짝살, 비늘, 쪽대, 가래, 글개, 미까, 이깃대, 패철, 콤파스’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 ⇒ {통발이구만}. / {통발이네}
- ⇒ {문애통발}. / 드가고. / {문애통발은} 안 커. 요거만 해. 요 쪼매.
- ⇒ 이거 {망태기} 뭐 촌사람들 알지 우린 모른다 이거.
- ⇒ 낫. {미역낫}. / {미역낫}. 미역낫은 요거보다 좀 짤이게.
- ⇒ 그래 옛날에 다 그거 했다. 이거 {고무옷이}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이거.
- ⇒ 물에다 입으니까네 {물웃} 그래가 안 되겠나.
- ⇒ {가네끼}. 가네끼. / {가네끼} 하는 거. / {수경}. 수경. / {수경}. 수경이다.
- ⇒ 그때는 {패철도} 없었어. 그 밖에 거게서 바람 기다렸다가. 인자 강원도로 건너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뭐 작업 패철도 없고 발. 별 보고. 별 보고 다녔어요.

2.4.5. 어로 행위

울릉도 어부들의 일상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어로도구 손질, 오징어 잡이, 오징어 건조’로 볼 수 있다. 고기잡이를 하기 전에는 낚시 도구를 챙기고 정리해야 하는데 이는 주로 부녀자와 어부들이 담당한다. 오후가 되면 부녀자들과 집안 식구들이 함께 정리해 놓은 낚시 도구를 통에 담아 놓고 이를 어부들은 어선에 싣는다. 이후 오징어 잡이를 위해 어부들은 배의 닻을 내리고 해가 지면 낚시를 바다에 던진다. 야광성의 성질을 지닌 오징어가 불을 보고 달려들면 낚싯대를 당겨 배에 실어 육지로 옮긴다. 이렇게 잡은 대부분의 오징어는 건조를 하는 덕장으로 가져가기 위해 먼저 할복을 한 후 이쑤대에 끼운다. 이를 손수레에 실은 후 덕대에 걸어 말리는데 사람의 손이 적어도 20~30번은 가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울릉도의 어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 파다, 캐다, 떼다

어획물을 채취할 때 사용되는 말에는 ‘파다, 캐다, 떼다’가 있었다. 바위에 붙은 조개류를 펠 때는 ‘떼다’를, 돌 사이에 있는 어획물을 채취할 때는 ‘캐다’, ‘파다’로 나타났다.

- ⇒ 호매같은 걸로 {파지} 뭐.
- ⇒ 호미 같은 걸로 {캐지}. / {캐지}. 호미가 캐지.
- ⇒ 어 가개. 가개가. 가개가 {떼지}.

2) 말리다, 널다

‘말리다, 널다’는 어획물을 차례차례 정리한 후 덕대에 걸어두는 것을 말한다. 오징어를 말리는 곳을 ‘덕장’이라고 하고, 건조하는 곳을 ‘덕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오징어를 말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 ⇒ 스무 마리씩 끼워가지고 {널어 말리고}.

3) 후리기, 찰다(집다), 뜨다, 감다, 끄다, 던지다(떨지다)

낚싯바늘에 미끼를 꿰어서 잡아 당겨 올리는 것을 ‘후리기, 찰다(집다), 뜨다, 감다, 끄다, 던지다’라고 한다. 이 중 오징어를 어떠한 방법으로 잡냐에 따라 ‘후리기, 떨지다’로 나타났다. 휘몰아가는 것을 ‘후리기’로, 산자꾸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잡는 것을 ‘떨지다, 던지다’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바늘을 다는 것은 ‘찰다, 집다’로, 낚시에 걸린 어획물을 당겨 감는 것은 ‘감다, 끄다’로 나타났다.

- ⇒ 풀어 여가 인제 고기 무면 {감아} 올리지 뭐.
- ⇒ 쪽대가 {뜨지} 뭐. / {뜨지} 뭐.

- ⇒ 그거는 여 {후리기} 하는데 여는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거.
- ⇒ 바늘 같은 거 {찝잖아}. 아까 대나무 바늘 있는 거 그거가 찝는 거지. / {집잖아}.
- ⇒ {떨지는} 거. / 공 잡아.
- ⇒ 풀어 여가 인제 고기 무면 {감아} 올리지 뭐.

4) 잡는다, 낚는다, 꼬집어올린다, 물었다, 낚아올린다

어획물을 잡아올리는 행위를 ‘잡는다, 낚는다, 꼬집어올린다, 물었다, 낚아올린다’라고 하는데 이는 ‘오징어바리, 명태바리’와도 관련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 중 하나가 낚시에 걸린 어획물을 잡아올리는 것이다.

- ⇒ 낚시대가 {잡는다} 그러지. 낚싯대가 {낚는다} 카지. / {낚는다}.
- ⇒ 잡혔으면 {꼬집어 올리지} 뭐.
- ⇒ 아구 고기가 {물었다} 그러지 뭐. / {물었다}
- ⇒ {낚아올리지} 뭐.

5) 오른다, 내려가다, 내린다, 뜨다, 내려앉다, 실어주다, 찌르다

어부들이 배에 승선하거나 하선할 때 ‘오른다, 내려가다, 내린다’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어획물을 뜨거나 실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뜨다, 내려앉다, 실어주다’로, 가시에 찔린 것은 ‘찌르다’로 나타났다.

- ⇒ 그양 {내려가지}. / {하선}. 하선 배 대면 {하선하면} 되지.
- ⇒ 배에 {올라와} 있지 뭐.
- ⇒ {감는다고}.
- ⇒ 나무가 있기 때문에 {뜬다고}. 아 안에 짐 마이 없으면 뜬다고. 짐 마이 있으면 모르지만 가라 앉지만 모르지만 안 그러면 뜬다. / {뜨지}.
- ⇒ 어 어에 하나면 포항서 항구를 {실어주거든}. / {실어주면}.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26>과 같다.

<표 26> 어로 행위 명칭

구분		어획 항목
어로 행위	파거나 떼는 행위	파다, 캐다, 떼다
	말리는 행위	말리다, 널다
	잡는 행위	후리기, 찝다(집다), 뜨다, 감다, 꼬다, 떨지다(던지다)
	낚는 행위	잡는다, 낚는다, 꼬집어올린다, 물었다, 낚아올린다
	승선, 하선	오른다/내려가다, 내린다
	기타 행위	감는다, 뜨다/내려앉다, 실어주다, 찌르다

2.5. 음식

2.5.1. 젓갈류

1) 머르지젓갈, 창란젓갈, 창대기, 명란, 아감지젓, 꼴뚜기젓(갈), 새우젓갈, 오징어젓갈, 누른창대기젓

음식은 ‘젓갈’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울릉도 지역에서 많이 나는 어종을 중심으로 명칭이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이 지역의 경우 젓갈은 ‘멸치젓’과 명태를 이용한 ‘명란젓, 창란젓’, 그리고 ‘오징어젓’을 주로 담고 있었다. 한편 동해안에서 많이 먹는 젓의 일종인 ‘밥식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밥식해’의 주재인인 벼농사를 이 지역에서 짓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중 멸치젓은 ‘머리지젓갈’으로, 창자로 담근 젓은 ‘창란젓갈, 창대기’로, 명태 알 즉 명란으로 담근 젓은 ‘명란’으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 외에 명태 아가미로 담근 젓을 ‘아감지젓’로, 꼴뚜기를 담아 만든 젓을 ‘꼴뚜기젓(갈)’, 새우로 담근 젓을 ‘새우젓갈’로, 오징어로 담근 젓을 ‘오징어젓갈, 누른창대기젓’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중 ‘누른창대기젓’은 오징어의 누런창을 가주고 만든 창자로 만든 젓을 말한다. 오징어의 경우 흰창자는 국의 재료로, 누런창은 국의 재료뿐만 아니라 젓갈의 재료로도 사용하였다.

- ⇒ {젓갈이라}. 젓갈. 어. 새우젓갈. / {새우젓갈}.
- ⇒ 어 {멸리지젓가치네}. 젓갈이네. 여기 젓갈이 맞네. / 어 맞아. {멸치젓갈}.
- ⇒ 이거 젓갈. 젓갈이라 그래. {창란젓갈} 맛있다. / 비싸다. 이거 비싸다.
- ⇒ {꼴뚜기젓이라} 하면 되지. / {꼴뚜기젓}. 젓갈. / {꼴뚜기젓갈} 하면 되지.
- ⇒ 젓. 젓갈이네. 이거 젓갈 맛있다. 명태 아가미. 그래 {아감지젓갈이라} 그래. / {아감지젓갈} 맞다.
- ⇒ 그 {꽁치젓갈로} 버무리 가지고 반찬으로 사용하고. 그 담에 인제 도박. 도박이라는 거 그것도 종류가 많겠지만 인제 도박을 가지고 범벅 그 가루같은 거로 이래 식사 대용으로 먹었던 기억들. / 꽁치젓갈이죠. 그러이 김. 울릉도에는 김장젓갈 전부 다 꽁치젓갈입니다. {멸치젓과} 젓갈은 아주 연하다더랄까 이런데. 깊은 맛이 없는데 {꽁치젓}은 굉장히 깊은 맛이 있습니다.



[사진 32] 명란



[사진 33] 명란젓갈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27>과 같다.

<표 27> 젓갈 명칭

구분		어휘 항목
음식	멸치	머르치젓갈
	명태 창자	창란젓갈, 창대기
	명태 알	명란
	명태 아가미	아감지젓
	꼴뚜기	꼴뚜기젓(갈)
	새우	새우젓갈
	오징어	오징어젓갈, 누른창대기젓

2.6. 민속

2.6.1. 제의

1) 뱃고사, 동제, 초매식, 해신제, 당제, 어판장제

배의 안녕을 빌기 위해 지내는 제사를 ‘뱃고사’라 한다. 이러한 고사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동제, 해신제’가 있다. 이 외에도 1월 1일에 수협에서 지내는 제로 새해 처음 위판을 하는 것을 기념하고 만사형통, 풍어를 기원하는 제를 ‘초매식’이라고 한다. 이 날은 올 한해의 순조로운 위판뿐만 아니라 풍어를 기념하는 제를 지내기도 한다. 한편, ‘동제’는 정월보름에 동네에서 지내는 제를, ‘해신제’, ‘어판장제’는 3월 3일날 어판장에서 지내는 제를 말했다. 이 중 바다의 안녕을 빌기 위해 해신에게 지내는 제는 ‘해신제’로, 해신제를 지내는 해신을 모셔놓은 당으로 바다의 안녕을 빌기 위해 만든 공간은 ‘해신당’이라고 한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28>과 같다.

<표 28> 민속, 제의 명칭

구분		어휘
민속, 제의	고사	뱃고사, 동제(정월보름), 초매식(새해 처음 위판하는 날), 해신제(삼월삼짇날, 당제/어판장제)
	노래	뱃노래(아서라/어서라)

2.6.1. 금기, 속설²³⁾

이러한 비방 또는 금기 표현은 출항하기 전과 출항 후 배 위에서의 행위로 구분지을 수 있다. 먼저, 출항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후 출항 후의 일에 대해 살펴보자.

1) 배를 처음 지았을 때 여자는 안 태운다, 배에다가 여자 한 사람 실지 마라, 새복에 여자가 지나가면 작업 안 나간다

먼저, ‘배를 처음 지았을 때 여자는 안 태운다’가 나타났다. 뱃사람이 금기시 하는 일 중의 하나로 바다를 갈 때 여자를 배에 실으면 그 날 하루 재수가 없다는 말이다. 즉 여자를 태우면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해 헛탕을 친다는 의미이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23) 어촌 생활과 관련된 관용표현에 대한 설명은 ‘오징어 잡이에서 덕장까지(김지숙)’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배에다가 여자 한 사람 신지 마라, 새벽에 여자가 지나가면 작업 안 나간다’도 나타났다.

- ⇒ 갈리는 사람들은 혹시 그런 기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거는 뭐 기계. {배를 처음 지었을 때 여자는 안 태운다던지} 이런 건 있데예. 처음 지아 가지고 배 진수식 안 합니까. 그 때 뭐 돼지 잡고 잔치 하고 그랬는데 그래 했을 때 처음에 할 때는 여자를 안 태웁니다. 좀 가.
- ⇒ 그래 뭐 그런 부정시키는 부분은 보먼 {배에다가 인자 여자 한 사람은 신지 마라}. 그런데 이런 방송국은 와서 때를 쓰고 그 뭐 한번씩 태워달라고. 그래서 뭐 안 태워줄 수도 없고 뭐 그래서 고기가 안 잡히는지 나도 안 잡히더라고. 이 어촌계장하고부터는.
- ⇒ 그 낚시를 들고 갈 때 {새벽에 앞에 여자가 지나가버리니까 작업을 안 가버리더라고}.

2) 바다 쪽에서 흰하게 일 때 왁새가 터진다, 섯날 불면 작업 되겠나, 섯바람 불 때는 오징어가 적게 난다, 섯바람 불면 고기가 나다가도 안 잡힌다, 섯바람 불면 고기가 안 잡힌다

배는 바다라는 공간이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날씨와 관련된 표현도 많이 나타났다. ‘바다 쪽에서 흰하게 일 때 왁새가 터진다’는 바다가 환해지면 왁새바람이 온다는 말이다. 갑자기 어두운 바다가 환하면 큰 바람이 오니 조심하라는 말이다. 섯바람은 북풍을 가리키는 말인데 바닷일을 나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조심스러움은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촌 지역에서도 동일했는데 그 결과 ‘섯날 불면 작업 되겠나’, ‘섯바람 불 때는 오징어가 적게 난다’, ‘섯바람 불면 고기가 나다가도 안 잡힌다’, ‘섯바람 불면 고기가 안 잡힌다’와 같은 속설이 전해져 오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섯바람이 불면 날씨가 추워 오징어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섯바람이 불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말이다. 배가 바다로 가기 전에 어부들은 매일 새벽 하루 천기를 보는데 이때 북쪽에서 오는 바람인 섯바람이 불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람이 섯바람인데 그래서 이 지역 외에도 경주, 영덕, 주문진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섯바람이 불면 비가 와 배가 전복될 수 있고 기후가 좋지 않아 고기도 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 ⇒ 주로 인자 보먼은 섯바람은 고기. {섯바람은 고기가 나다가도 섯바람은 고기가 안 잡힙니다}.
- ⇒ 주로예.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섯바람이라 이라는데 {섯바람 불 때는 오징어가 적게 난다} 이랍니다. 거 인제 갈바람. 섯바람은 좀 참고. 북쪽에서 부는 거 좀 참잖아요.
- ⇒ 다른 건 쓰는 거 없어요. 아 {야 이거 섯날 분다. 오늘 뭐 이 작업 되겠나} 이런 말은 쓰죠. 그런데 섯바람이 섯바람이라는 거는 북동이나 북서나 북쪽에서 오는 바람을 인제 섯바람이라고 거의 많이 하는데 {섯날 불면은 이게 작업이 되겠나} 아이 오늘 쉬자 하고 그런 용어는 많이 썼었. 썼었지. 다른 특별한 그거는 없어.
- ⇒ 미신같은 거는 뭐 다른 거는 없고 예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바다 조업을 나가든가 바다 밑이 흰~혔고 갑작스럽게 시커먼 구름이 위에도. {바다 쪽에서도 약 한 뼘 정도로 흰하게 일 때는 바람이 왁새가 터진다}. / 바다 밑이. 이. 예를 들어 껌꿌했다가 바다 밑이

갑작시리 팍 들리면서 확 터지면서 여는 굉장히 밝단 말이에요. {이 환하게 터졌을 때 써꺼먼 구름이 위로 많이 뿔 때는 왁새가 터진다}. 그때는 빨리 챙길 채비를 해가 들어오는 거죠.

3) 헛불이 있으면 이삼일 내로 큰바람이 분다. 헛깨비불이 산에 보이면 날씨가 마이 나빠진다, 손사공 죽었는 날은 바람이 세게 분다

먼저, 출항한 후에 주의해야 할 일과 관련된 표현에는 ‘헛불이 있으면 이삼일 내로 큰 바람이 분다’. ‘헛깨비불이 산에 보이면 날씨가 마이 나빠진다’가 나타났다. 바다에서 울릉도를 바라봤을 때 산에 헛불이 보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날씨가 나빠진다는 말이다. 보통 ‘헛불, 헛깨비불’은 2~3일 뒤에 큰바람이나 큰비가 온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는 바다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울릉도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손사공 죽었는 날은 바람이 세게 분다’라는 표현도 전해오고 있었는데 이 말은 손사공이라는 사람이 죽은 날이 되면 바람이 세게 분다는 말이다. 울릉도에서 예전부터 전해오는 말이지만 ‘손사공’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 ⇒ 예. {헛불이죠.그렇죠. 그러면은 이삼일 내로 큰바람이 불겠단}.
- ⇒ {헛불. 헛깨비 불이 산에 막 보인단 말이에요. 산에 막 구부는 거요. 그럴 때는 이 날씨가 마이 나빠진다}. 똑 그러고 나쁜은 마 상당히 날씨가 이삼일씩 나빠지고. 그럴 때는 빨리 들어와야 돼.
- ⇒ 그 답에 울릉도 지형적으로 여 {손사공 죽었는 날이다. 이런 날이. 그때는 꼭 바람이 세 게 불더라}. 이래가.

4) 깃 꽃았다, 만선 했다, 통배 탔다, 오징어가 텃다

어부들이 하는 어로 행위 중에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인 ‘깃 꽃았다’는 오늘 운이 좋다는 말이다. 보통 어부들은 바다에서 오징어를 많이 잡아 배 위에 깃을 꽃았다는 의미이다. 오징어를 한 배 가득 잡았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즉, 배에 깃발을 꽃는다는 의미로 운수가 좋은 날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만선 했다’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이와 반대의 의미로 ‘통배 탔다’가 나타났는데 이는 오징어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빈 배로 돌아왔다는 의미를 말한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오징어 텃다’가 나타났는데 이는 섯바람 불면 오징어가 적게 나니 작업을 하러 가도 많이 잡지 못한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한 것이다. ‘섯바람 부는데 널 아침에 적다’도 ‘오징어 텃다’와 같은 의미이다.

- ⇒ 잡은 아니. 날 날 평소에 날이라도 좀 적게 난다 이라지. 근데 야 올 저녁 많이 나더라도 예유 {오징어가 텃다}. {이 섯바람 부는데 널 아침에 적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 ⇒ 그거는 인제 뭐 통배 탔다 하고. 못 잡았을 때는 통배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 그대로 뭐 만선을 했었을 때는 오늘 뭐 {만선 했다} 이렇게 뭐.
- ⇒ {깃 꽃았다}. 옛날에 만선. {만선기를 단다} 이 뜻을 인제 깃 꽃았다. 많이 잡았다.
- ⇒ 그거는 인제 뭐 {통배 탔다} 하고. 못 잡았을 때는 통배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 그대로

뭐 만선을 했었을 때는 오늘 뭐 {만선 했다} 이렇게 뭐.

위에서 소개한 금기 표현 외에도 날씨와 관계된 표현과 속설이 전해져 오고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29>와 같다.

〈표 29〉 어촌 생활 관련 관용표현

구분		관용표현
날씨	천둥, 번개	천둥부터 먼저 오고 번개 온다(오는 순서를 말하는 표현)
	비	달무리 있으면 비가 온다
	바람	바다 쪽에서도 약 한 뼘 정도로 흰하케 일 때는 바람이 왁새가 터진다 셋바람은 고기가 나다가도 (셋바람은) 고기가 안 잡힌다
	시기	찬절 날 때 고기는 제일 맛있다(여름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추워질 때 9월 10, 11월에 나는 고기가 맛있다는 말)
	기타	헛불, 헛개비불이 산에 막 보이면 그럴 때는 이 날씨가 마이 나빠진다
비방, 금기, 생활		강릉 최부자가 새치 껌데기 3년 씹 먹으니 집구석 말아 먹었다(고기 껌질이 그만큼 맛있다) 제사에는 ‘치’자 달린 고기 못 올린다 ²⁴⁾ 불가사리가 깔고 있으면 판 고기가 못 온다 물에(물애) 저녁 묵나 ²⁵⁾ 고기도 잘 생긴 것이 맛이 더 있다. 콩 먹으러 왔다((수치) 심장 먹으러 왔다) 조금을 보러 간다(고기를 많이 잡는 시기)
어류	방어	여름방어도 맛이 없다(10~11월에 맛이 좋다) 방어는 가을방어여야 한다 ²⁶⁾
	오징어	오징어는 버릴 게 없다 오징어는 새복에 잡으면 맛이 좋다 오징어는 초저녁에 잡으면 맛이 없다(상했다) 오징어 잡을 때 곱새기 만나면 허탕이다 (오징어 철에 돌고래를 만나면 오징어가 없다)
	신평	신평은 설 아래 먹어야 한다. 구정 아래 먹어야 한다, 2월에 먹어야 좋다
	전어	전어를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 온다(구운 전어가 맛있다)
	문어	여름 문어는 먹도 안 먹었다 문애 여름에 잡으면 개도 안 먹는다 여름 문어는 개가 쥐도 안 먹었다 (산란기 지난 후 기름이 빠져서 맛이 없다)
어업 행위	기타	비 오는 날 뱃놈은 있는 집 개보다 못하다

구분	관용표현
	(비를 맞고 있을 수밖에 없는 뱃사람의 처량한 신세를 표현한 말) 그 갑, 갑바 입고 또 장화 신고 설치니까 부잣집 개보다 모하다

〈표 30〉 기초 어휘 조사 내용 정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분	울릉도 어촌 생활어
행위자		어부	울릉읍, 복면	선장, 선주, 선원(배선원, 뱃놈) (큰배: 기관장, 보신, 간판장, 화장, 영자, 막내이(막내) / 작은배: 기관장, 보신)
			서면	뱃사람 배선장, 보신(간판장), 기관장, 윈도모, 오른도모, 영자어른(영자), 심부름꾼
			울릉읍, 복면, 서면	오징어바리, 이까빠리(가실바리, 가을바리, 동삼바리, 초등바리, 여름바리/중상바리, 낮바리, 해치기), 명태바리(춘태바리, 동태바리), 콩치바리
		해녀	울릉읍	해녀, 보지기, 히바리/하다까, 다이버, 머구리
			복면	해녀, 보지기, 제주사람
			서면	해녀(제주산, 제주해녀, 오야지)/하다까, 재래식머구리
	시간	물때	울릉읍, 복면	조금, 초조금
			서면	대조금(23, 7일), 조금
		미세기	울릉읍, 복면	-27)
			서면	물빨, 물이 많이 간다
		하루	울릉읍, 복면	식전, 새벽 → 아침 → 점심 → 참때 → 저녁 → 어둠사리 낀다 → 밤 → 밤중
			서면	해치기 → 새벽 → 아침나절 → 한낮, 한낮에, 한나절 → 초저녁 → 저녁, 저녁나절 → 밤중 → 별치기, 셋별치기
환경	날씨	바람	방향	<div>동(동쪽, 동새)풍</div> <div>서(새쪽)풍</div> <div>남(맞쪽)풍</div> <div>북(새쪽)풍</div>
				<div>동새바람, 동새, 이스바람</div> <div>청풍, 땃갈바람, 땃갈청풍(갈바람 중 서쪽으로 치우친 바람), 하늘바람, 땃갈, 땃갈</div> <div>쳐진갈, 사이스바람, 갈바람, 남갈, 남풍</div> <div>새바람, 셋바람, 북새</div>

- 24) 멸치, 칼치, 새치, 고래치 등의 고기는 못 쓴다는 말. 그러나 지역에 따라 새치를 임연수로 부르는 경우는 제사에 사용하기도 한다
- 25) 보통 뭐 저 인자 오후 뭐~ 세시 네시 다섯시 되는데 멀리 나가면 일찍 묵고 안 그러면 네시 다섯시, 거기 인자 물에, 물에 저녁이라 하죠. 예, 물에 저녁 묵나 카거든. 물에 저녁 묵나 카면은 인자 물에 인자 갈 때 밥을 묵나 이 말이라.
- 26) ‘가을 방어는 문 닫아놓고 먹는다(영덕 정순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방어에 대한 이야기는 동해안 전반에서 찾을 수 있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분	울릉도 어촌 생활어			
				동북풍	북서풍	동남풍	서남풍
				북새(북쪽으로 치우친 바람), 인 간풍(북새 다음 으로 북쪽으로 치 우친 바람), 북동 풍, 동새(동쪽으 로 치우친 바람), 셋바람 ²⁸⁾	된새바람(북쪽 으로 치우친 바 람), 북청바람 (서쪽으로 치우 친 바람), 북청, 청풍	을진바람(동 남간 중 동쪽 과 가까움), 을진, 남동풍 (동남풍, 순 풍), 동갈	갈바람(남쪽으로 치우친 바람), 덴갈 바람(서쪽으로 치 우친 바람), 덴갈, 쳐진갈(남쪽으로 치우친 바람), 남서 풍
			기타	갈바람(봄) 남서풍, 북동풍, 갈바람(여름) 북청, 북서풍, 청풍바람(가 을) 셋바람, 북청, 북동풍, 북풍(겨울) 급새, 왁새, 급풍, 빗바람, 광풍, 순풍, 악풍(=급풍), 오방풍, 돌풍(=돌개바 람), 들이분다, 내분다, 하늬바람, 온다, 내린다, 세다(=시다), 시원하게 분다, 마침맞게 분다, 북청 터졌다, 왁새 터졌다, 빼다, 땀기다			
		비	울릉읍, 북면, 서면	소낙비, 각재 비가 오다 > 이슬비 > 갈방비, 가랑비, 보슬비, 안개비 > 해비, 밀건 날에 비 온다 > 장마비, 긴장마 (비) 좀 오네 > 슬슬 들어붓는다 > 들어붓다 > 퍼부어뿌다, 역수로 온다 장마 /오다, 해갈, 오다, 그친다, 각재 날이 좋아졌다, 개인다, 날씨가 거짓말 같다, 번덕스럽다, 날씨가 니 닮았다, 언제 바람 불었는 거같이 됐네			
		눈	울릉읍, 북면, 서면	넙떡눈 > 함박눈, 솜눈 > 우박눈 > 싸락눈, 싸래기, 쌀눈, 찌그레기 > 진갈비, 고드름(고드름), 얼다, 녹다			
		해·달· 별	울릉읍, 북면, 서면	동 뜬다 > 먼동 뜬다, 해가 뜬다, 해돋이 > 해 떴다, 날 섰다, 동 뜬다/해가 진다, 해 빠졌다, 해 졌다/해물, 달무리, 물 미왔다, 해살 비쳤다, 해물 미왔다, 달무리 생겼다, 해돋이, 해맞이, 석양, 해 진다, 해 빠진다			
		기타	울릉읍, 북면, 서면	북두칠성, 은하수, 번개, 마른번개, 벼락 때린다, 벼락 맞다, 뇌성, 천둥, 번개질(한다), 마른번개, 흰구름, 검은구름, 흑구름, 맑은구름, 먹구름, 구름 빨이 시다, 안개, 물안개, 물보라, 우내, 우무, 우무 깎다, 서리, 무지개, 맑다, 청명하다, 맹랐다, 뽀혔다, 우중충하다, 우중중하다, 끼다, 번덕스럽 다, 한방중이다, 꺾꺾하다, 환혔다, 밝다, 날쌌다, 따뜻하다			
	공간	방위	울릉읍, 북면, 서면	동향	서향	남향	북향
				동새, 동쪽, 이스 쪽, 동, 동바다	서쪽, 웨스쪽, 서바다	남쪽, 사이스 쪽, 남바다	새쪽, 북쪽, 노스, 북, 북바다
				동서향	동남향	동북향	서남향
				동서간	동남, 동남간	동북간, 동북	서남, 남 서간
		바다밭	울릉읍, 북면, 서면	근해바다, 앞바다, 이쪽바다, 가새, 갯, 연안(죽간 안쪽), 이바다/면바다, 저쪽바다, 저바다			
		바다	울릉읍, 북면, 서면	바닷물, 갯물, 잔물, 맹물, 파도, 시부끼(시부께), 물보라, 너울성파도, 너울 파도, 큰파도, 적은파도, 거품, 허연 거, 너울(놀), ²⁹⁾ 구무니, (파도가) 올라가 다, 높다, 친다, 때린다, 덮어씌운다			
		지형	울릉읍, 북면, 서면	바다 걸다, 너린 바다 걸다, 너리다, 평평하다/소다, 좁다, 적다, 짚다, 깊우다(깊우다)/얕우다, 높다/알다, 아주 낮다, 최하다, 짹다/싱겁다, 파랗 다, 청색/히다, 하얗다, 빠지다, 죽을다, 가라앉다, 물개, 백사장, 모래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분	울릉도 어촌 생활어
				모래사장, 뽕, 갯뽕, 돌, 몽돌, 잔자갈, 돌너덜, 자갈밭, 돌뽕밭, 측강, 포구, 물항장, 선착장, 항구, 항, 측강 입구, 추뽕, 이루꾸찌, 항목, 항구목, 측강목, 강포구, 꽃, 개안, 뗏섬, 방구, 돌방구, 바우, 바위, 촛대바위, 반석, 병치, 뽕치, 낭낭끝이, 절뽕(절벽)
어획물	어류	명칭	울릉읍, 복면, 서면	고기, 물고기, 과기
		부분 명칭	울릉읍	눈피, 눈까리, 아가리, 조디, 등때기, 꼬랑대기, 지느러미(날개끝), 이늘, 비늘, 꺾데기, 배찌느러미, 배때기, 창대기, 부레, 살따구, 알, 뽕다구
			복면	대갈빠리, 이빨, 입, (고기)주디, 조디, 눈까리, 눈, 과기눈까리, 등싸등배, 등더리, 아감지=고기빚, 날개미, 날감지, 비늘, 꺾데기, 배때기, 배, 창치, 살, 알, 뒤날기, 쾡지, 고기뽕다구
			서면	대갈빠리, 조디(주디), 눈까리, 등사등뽕(등에 난 뽕), 아구태가리(아가미), 지느러미(등사등뽕), 비늘, 꺾데기, 몸티, (고기)창대기, 내장, 부레, 살, 알, 꼬랑대기(쾡대기), 뽕다구, 뽕따구
		종류	울릉읍	머르치, 유아시, 칼치(=칼치), 사바(=고등어, 사바고), 간자미(=가부리, 가오리(참가오리, 물가오리, 참가부리)), 까재미(도다리, 넙치, 참까재미, 돌까재미, 이시가리, 광어, 물까재미, 그저까자미), 명태(춘태, 대태, 중태, 소태, 노가리/ 동태, 생태, 꼬다리, 황태, 노가리, 북어, 생태), 조기(=조구), 쾡치(중달치, 과메기, 손쾡치, 사요리(=학쾡치)), 뽕지(=보구), 음뽕=비단복, 참복, 자주복, 까치복, 황복, 밀복), 고래(밍크, 흑등고래, 범고래, 돌고래), 상어(새아리, 귀상어, 꼬빠리, 범상어, 청상어, 곰새기, 백상어), 까재미(=넙치(광어, 이시가리, 참까재미, 도다리, 물까재미, 흑물까재미)), 장어(바다장어, 곱치, 아나고), 돔(참돔=아까다이=붉은돔, 사배기, 독도돔=코쟁이, 능성돔, 흑돔=구로다이, 시마다이=뽕치, 자리돔), 도루매기(=말쥔도루매기, 도루묵), 임명수(=새치), 가리재이, 삼치, 방어(젓방어=떡사배기, 납작새기=노란사배기, 떡방어, 히라수, 뽕방어=살쥔방어, 사배기, 가을방어, 여름방어, 봄방어), 옥돔(=제주옥돔), 아지고(=아지, 전갱이), 전어(=저내), 눈피, 청어, 뽕락(조피뽕락, 꺾떠구, 망상어(=망치), 열기(=매바리), 밤열기, 귀매바리(=점매바리)), 쥐치(=쥐고기)말쥐치, 월남쥐치, 코쟁이(=코돔, 독도돔), 대구
			복면	이루꾸, 지어리(징어리), 칼치(잔칼치, 굵은칼치), 고등어(작은고등어), 간재미, 홍어, 까자미, 까재미(도다리, 광어), 명태(대태, 중태, 노가리(=짤기), 황태, 춘태, 동태(=얼은명태), 말른명태(=북어, 쨌는거), 생태), 조구, 굴비, 쾡치(학쾡치), 뽕지(까칠복, 참뽕(=참복), 밀복), 고래(=날감지), 상어(귀상어, 백상어, 개상어), 넙떡치, 질뽕이, 돔(흑돔, 노란돔, 참돔), 이면수(=새치, 가리재이), 삼치, 방어(사배기, 가을방어, 여름방어), 돔(흑돔, 코돔), 다래이, 전어, 망치, 청어, 왕눈이, 쥐치(=주치, 쥐고기), 대구
			서면	이루꾸(메레치), 눈티, 칼치(먹칼치, 은칼치, 쌍칼치), 고등어(사바, 사바새끼), 가오리(가부리, 물가오리, 참가오리, 오동가오리), 홍어, 까재미(도다리, 참까재미, 풀까재미, 물까재미, 뽕디까재미, 안경까재미), 명태(대태, 중태, 소태, 노가리, 춘태, 동태, 황태, 작은 명태, 명태새끼, 생태), 조기(참조기), 쾡치(학쾡치, 사요리), 뽕찌(참복, 밀복, 까칠복, 은복, 비단복), 고래(곰새기), 상어(식인상어, 철갑상어), 광어(넙치: 새끼), 장어, 돔(참돔, 흑돔, 뽕돔(=돌돔), 흑돔, 뽕어돔), 노가리, 도루묵, 새치(새치새끼), 삼치, 방어(사배기, 부실이, 뽕방어(=뽕뽕~), 젓방어, 사배기새끼), 돔(흑돔, 옥돔), 준치, 눈티, 쥐치(강남쥐치, 뽕쥐치, 말쥐치, 얼룩쥐치), 대구
		행위		가시뽕지 찢리다, 까시 찢렸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분	울릉도 어촌 생활어
		상태	울릉읍	살졌다/예비다, 넙떡하다/좁질하다, 지다/짜리다, 크다/적다, 납딱하다/질다, 싱싱하다, 생생하다, 아즉 살아있다/씩었다, 구쌌다, 상했다
			서면	통통하다/뽀뽀하다, 굵다/가늘다, 질이 질다/작다, 크다/작다, 넙떡하다, 넓적하다/좁다, 지다랴다, 좁질하다, 선도 좋다, 생생하다/다 쉬었다
	패류	부분명칭	울릉읍	껍데기, 주디, 뽀, 아기미, 빗, 위, 창대기, 심, 발, 침
			북면	껍데기, 조개껍데기
			서면	껍데기, 껍질, 입, 내장
		종류	울릉읍	조개, 고디(=고동, 소라고동), 참소라(=뽀소라, 참고디), 해방고디, 맨들고디, 전복(양식전복, 독도전복, 수퍼전복, 참전복, 말전복, 둥근전복, 까막전복), 굴(=바다굴), 꼬막, 홍합, 열합(=처갓집물건)
			북면	소라, 고동(=고디(둥그란고디, 사말고디)), 전복, 굴, 열합
			서면	소라(뽀고디, 뽀고동), 고동(=고디, 참고동, 해방고디, 뽀고디, 게고디), 전복(참전복, 종패(=치패, 종자용전복)), 굴, 바지락, 조개(키조개, 말조개)
		행위		-
		상태	울릉읍, 북면	둥그랴다(=뽀방하다, 돌방하다), 지다, 기다(=질쪽하다, 뽀쪽하다)
			서면	둥그랴다, 둥그리하다, 길다
	갑각류	부분명칭	울릉읍	기이빨, 게오동발(=집게발), 게껍데기, 배대기, 창대기, 달구지, 꼬랑대기, 대갈뽀기, 심장(=염통(*콩, 콩 먹으러 왔다)), 살게이(=살따구), 눈까리, 침, 촉수
			북면	기조디, 기이빨, 기등어리(=게딱지), 기장, 심장, 살, 눈, 입
			서면	달구지, 게조디, 등떠리, 배매지, 게창대기(=게알), (게)살따구, 눈티, 가시
		종류	울릉읍	게소라, 기고디, 뽀쌀고디(=뽀쌀고동), 비단고동, 뽀돌고디, 기(털기, 철갑게, 참게, 홍게, 대게, 꽃게, 뽀게(=여식애))
			북면	기(큰기, 참기, 돌새기, 먹느기, 못먹느기, 자갈기), 뽀싸고디, 기고디, 털게, 꽃게, 홍게, 영덕기)
			서면	기(참게, 꽃게, 털게, 기고디), 홍게, 뽀게(=방게), 참게
		상태		-
	해조류	부분명칭	울릉읍	귀다리=귀, 미역줄거리, 잎, 발, 줄기
			북면	뽀거리, 줄거리, 꼬타리=귀다리, 이파리, 구다리
			서면	줄기
		종류	울릉읍	미역(참미역, 돌미역), 청각, 대항(=골피), 도박, 김(돌김), 파래, 마자반, 톳, 우뽀가사리, 천초, 도박(참도박, 개도박)
			북면	미역(돌미역, 참미역), 김(방구뜯었느기, 돌김), 파래, 대왕(=대방), 마자반, 천초, 우뽀가사리(=우뽀까사리), 청각, 배풀, 도박
			서면	미역(지네발미역, 지네발참미역, 돌미역), 김(돌김), 파래, 천초, 감태
		행위		-
		상태	울릉읍	염분 뽀다
			북면	색태가 바뀐다(=안개가 찌다, 색깔이가 변하다), 분 뽀다, 간 뽀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분	울릉도 어촌 생활어
	기타	종류	울릉읍	거북이, 이까(초등오징어=사꾸라지), 해피(=해파리), 오무라해파리), 낙지, 문어(=문대), 참문어, 돌문어, 물문어), 쭈꾸미, 호루끼, 해삼(청해삼(=청삼), 흑해삼(=흑삼), 흰해삼, 홍삼), 멍게(홍멍게(=붉은멍게), 돌멍게, 개멍게), 성게(보라성게, 북쪽말뚝성게, 아까성게(알: 은단)), 말미잘(=물보지), 불가사리(=별가사리, 별, 문애비게), 거북손(=보찰)
			북면	거북(대=대자, 중=중치, 소), 이까(=오징어, 수매, 갑오징어, 조기(=한치), 큰기, 적은기, 대, 중, 소), 해피(큰게=큰기=큰해피, 작은해피=적은기), 낙지, 문애(수커, 암커, 돌문애, 참문애, 큰문애, 물문애), 꼴뚜기(=꼴뚜기), 삼(홍삼, 흑삼), 멍게, 성게(왕장구, 까만성게, 노란성게), 바닷풀, 문애비게(=불가사리), 독한거, 작은거, 큰게(=큰불가사리)), 보찰
			서면	거북이, 오징어(=이까, 수루매, 피둥어꼴뚜기) ³⁰⁾ , 해피, 낙지, 문애(돌문애, 참문애, 물문애), 갑오징어, 꼴뚜기, 해삼(흑삼, 청삼, 백삼, 홍삼), 멍게(참멍게, 개멍게), 성게(왕장구, 보라성게, 말뚝성게), 문애비게(=별, 불가사리), 부채손(=보찰) cf. 손톱할마이
		행위		가래/세꼬쟁이 붙다/떼다, 쑈시다
		상태	울릉읍, 북면	썩었다(=쿰쿰하다), 시큼하다, 붙다, 노랗다, 뻘컘하다, 날 섰다(=갈날 섰다), 딱딱하다/물렁물렁하다
			서면	드리친다(=비릉내 난다), 붙어있다, 붙다, 노랗다, 자짤하다, 뻘컘뻘컘하다(=날 섰다, 날 되게 섰다, 비끼겠다, 손 비긴다), 딱딱하다(=땡땡하다)/물렁물렁하다
		행위		가래/세꼬쟁이 붙다/떼다, 쑈시다
어획 도구와 어로방 법	그물류	부분 명칭	울릉읍, 북면, 서면	그물살, 원줄
		종류	울릉읍, 북면, 서면	그물, 후리치(=후리치기, 후리치기 하는 그물), 두름박, 꼬드박, 쪽대, 망태기, 고기망태기, 쫄래기
		행위	울릉읍, 북면, 서면	-
	낚시류	부분 명칭	울릉읍, 북면, 서면	낚싯대, 줄, 자새, 이늘
		종류	울릉읍, 북면, 서면	낚시, 자채, 주낙
		행위	울릉읍, 북면, 서면	-
	배	부분 명칭	울릉읍, 북면, 서면	돛풍(큰도풍, 작은풍), 이물, 도모, 돛대, 왕대, 시라(=상앗대, 상활대), 고로, 닛줄, 오라이밧대기(=이모기둥) (❖뒤에 배 그림 참고)
		종류	울릉읍, 북면, 서면	목선, 어선그물배, 에프알피, 모다, 기계배, 간꼬, 덴마
		행위	울릉읍,	파다, 캐다, 떼다, 말리다, 널다, 후리기, 찻다(=집다), 뜨다, 감다, 끄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구분	울릉도 어촌 생활어
			북면, 서면	던지다, 잡는다, 낚는다, 꼬집어올린다, 물었다, 낚아올린다, 잡는다, 오른다 /내려가다, 내린다, 감는다, 뜨다/내려앉다, 신어주다, 찌르다
	기타		울릉읍, 북면, 서면	짚살(=작살), 통발(계통발, 문애통발), 망태기, 호미, 낫(미역낫), 물웃(=해 녀복), 고무웃, 오리발, 이깨수칸(=수주칸), 머구리머리(=투구), 가네끼(= 수경), 비늘, 쪽대, 가래, 글개, 미까, 이깃대, 홏꾸대(=창)
민속	제의		울릉읍, 북면, 서면	뱃고사, 동제(정월보름), 초매식(새해 처음 위판하는 날, 1월 1일), 해신제(삼 월삼짇날, 당제/어판장제) 뱃노래(아서라/어서라)
	금기, 속설, 은어, 노래		울릉읍, 북면, 서면	비 오는 날 뱃놈은 있는 집 개보다 못하다(비를 맞고 있을 수밖에 없는 뱃사람의 처량한 신세를 표현한 말) 그 갑, 갑바 입고 또 장화 신고 실치니까 부잣집 개보다 모하다 천둥부터 먼저 오고 번개 온다(오는 순서를 말하는 표현) 달무리 있으면 비가 온다 바다 쪽에서도 약 한 뼘 정도로 흰하께 일 때는 바람이 왁새가 터진다 햇불, 햇깨비불이 산에 막 보이면 그럴 때는 이 날씨가 마이 나빠진다 셋바람은 고기가 나다가도 (셋바람은) 고기가 안 잡힌다
				여름 문어는 먹도 안 먹었다 문애 여름에 잡으면 개도 안 먹는다 여름 문어는 개가 쥐도 안 먹었다(산란기 지난 후 기름이 빠져서 맛이 없다)
				여름방어도 맛이 없다(10-11월에 맛이 좋다) 방어는 가을방어여야 한다 ³¹⁾
	음식		울릉읍, 북면, 서면	신티는 실 아래 먹어야 한다. 구정 아래 먹어야 한다, 2월에 먹어야 좋다 전어를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 온다(구운 전어가 맛있었다) 찬절 날 때 고기는 제일 맛있었다(여름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추위질 때 9월 10, 11월에 나는 고기가 맛있다는 말) 오징어는 버릴 게 없다 오징어는 새복에 잡으면 맛이 좋다 오징어는 초저녁에 잡으면 맛이 없다(상했다) 오징어 잡을 때 곱새기 만나면 허탕이다 (오징어 철에 돌고래를 만나면 오징어가 없다) 강릉 최부자가 새치 껍데기 3년 씹 먹으니 집구석 말아 먹었다(고기 껍질이 그만큼 맛있었다) 제사에는 ‘치’자 달린 고기 못 올린다 ³²⁾ 불가사리가 깔고 있으면 탄 고기가 못 온다 물애(물예) 저녁 묵나 ³³⁾ 고기도 잘 생긴 것이 맛이 더 있다. 콩 먹으러 왔다(심장 먹으러 왔다. (수치 고기)) 조금을 보러 간다(고기를 많이 잡는 시기)
				고디죽, 새꼬시, 누른창대기젓, 대항밥, 따개비밥, 한천(=묵), 우무(=우묵), 새우젓갈, 머르치젓갈, 창란젓갈(=창대기), 명란, 꼴뚜기젓(갈), 아감지젓, 오징어젓갈

27) ‘-’는 조사 과정에서 추출된 어휘가 없음을 의미한다.

28) 서면에서는 북풍은 ‘북새’로, 북동풍은 ‘셋바람’이었지만 울릉읍에서는 북풍을 ‘셋바람’이라고 하였다.

□ 기초 어휘

〈표 31〉 기초 어휘 조사의 실례

구분	명칭	제보자의 말
 참까재미	까재미, 넙치, 광어, 도다리, 참까재미, 물까재미	까재미. 여기선 까재미 그란. 사투리로 까재미. 그 담에 뭐 넙치 . 같은 말이야. 넙치 까재미. 뭐 그 담 까재미 종류에서도 광어 ~ 이시가리~ 그 담에 참까재미 ~ 참까재미를 우리 저 육지 가면 저 저 저. 도다리 . 도다리. 그래 도다리라. 가재미 를 도다리라. 도다리란데 참까재미 와 세꼬시 잘 해먹는 게 세꼬시 회 저 이게 우리 그 참까재미 노란 이 줄 있는 거. 그거 그 담 일반 식당에서 많이 나오는 그거 헛밥에 많이 주는 거. 저저 헛고 마이 주는 거. 뱃무리에서 끌고 오는 거 그거 물까재미 . 물까재미. 그 물까재미지. 물까재미는 쉽게 말해서 아께 말했는 거. 속살이 보일 정도로 아련아련한 거.
 까재미		
 도다리		
 물까재미		
 광어		
 방어	방어, 가을방어, 봄방어, 여름방어, 히라수, 똥방어, 살찐방어, 사백이	방어 는 가을방어라 해. 가을방어. 가을방어 는 기름지고 맛이 있고 사실 여름방어나 봄방어 이런 거는 맛이 없다고. 잘 안 묵는다고. 예. 여기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 방어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히라수 뭐 사백이 뭐. 똥방어 . 똥방어는 부리 안 카나. 똥방어는 안 카고 살찐방어 라 카지. 방어는 이래 있는데. 있는데 그 중에 인제 히라수. 히라수 라는 그 방어를

29) 제보자는 ‘너울’은 잔잔한 것이고, ‘파도’는 크게 넘실대는 것을 가르킨다고 했다.

30) 서면에서는 생 오징어는 ‘이까’로, 말린 오징어는 ‘수루매’로 표현하고 있었다.

31) ‘가을 방어는 문 닫아놓고 먹는다(영덕 정순예)’에서 볼 수 있듯이 방어에 대한 이야기는 동해안 전반에서 찾을 수 있었다.

32) 멸치, 칼치, 새치, 고래치 등의 고기는 못 쓴다는 말. 그러나 지역에 따라 새치를 임연수로 부르는 경우는 제사에 사용하기도 한다

33) 보통 뭐 저 인자 오후 뭐~ 세시 네시 다섯시 되는데 멀리 나가면 일찍 묵고 안 그러면 네시 다섯시. 거기 인자 물에. **물에 저녁**이라 하죠. 예. **물에 저녁** 묵나 카거든. 물에 저녁 묵나 카면은 인자 물에 인자 갈 때 밥을 묵나 이 말이라.

구분	명칭	제보자의 말
		<p>최고로 쳐주지. 사시미로서는, 날씬하면서 노란. 노란 피를 갖고 있어. 고것도 요것처럼 이 육질이 씹어보든 좀 찰지지. 몸이 날씬하게. 그래 생기는 기지.</p>
 <p>꽁치</p>  <p>학꽁치</p>	<p>꽁치, 사요리, 종달치, 학꽁치, 꽁치는 홀당가지 없는 개장사라</p>	<p>인자 겨울에 좀 나는 쏘~금씩 잡히는 학꽁치 사요리라는 거. 그게 인자 꽁치니까. 학꽁치. 옛날 종달치고 지금 학꽁치지. 학꽁치 학꽁치. 아이다. 학꽁치하고 틀리지. 학꽁치다. 학꽁치. 와 기단한 거 와 안 있는교. 종달치는 아. 그것도 꽁치 종류데 그거는 커요. 그거는 길어. 사요리 종류데. 그거는 일 메다 정도. 그래 이 사람들이 밤 새도록 잡어와 가지고 와서 판로가 없잖아. 이 사람들 그냥 쥐요. 그 여 앓아가 파는 사람. 홀당가지 없는 개장사라. 지금까지 형태는 그래 왔다고. 개를~ 줄도 없이 그냥 불러가 판다 카는 게. 아면 뭐 그런 어떤 밀천도 안 들이고 개가 길거리에 있는 걸 판다. 이런 뜻이겠쥬. 홀당가지 없는. 그래 인자 이 사람들은 그 그 인자 고기를 인자 잡아온 걸 파는데 내가 봤을 땐 판로 없이 이 아주매들한테 파는 거요. 아주매들 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 서너 사람 앓았는데 그럼 잡아온 고기를 이 아주매가 다 받는 거요. 받으면 돈도 안 주고 팔아가 그양 홀당아지 개 아이요. 그냥 파는 한 가지라. 그래서 인자 파는데 이 개를, 꽁치를 잡아가 파는데 이 양반들이 예를 들어가. 이천 원 이천 원에 여기 쫓다 봐주면 여기 앓아가지고 사라오는 사람한테 가마 앓아가 오천 원씩 파는 거요.</p>
 <p>쥐치</p>  <p>월남쥐치</p>  <p>말쥐치</p>	<p>쥐치, 쥐고기, 쥐치고기, 월남쥐치, 월남고기, 말쥐치, 도치</p>	<p>쥐치네. 월남쥐치. 울릉도 말은 월남쥐치. 월남고기. 쥐. 쥐고기 쥐치고기. 그 담에 월남쥐치. 그래 여기서. 퐁그리하면서 키가 썩잖아요. 예. 여기서 그렇게 부르더라고. 월남쥐치 이렇게. 울릉도에선 월남쥐치. 또 이거는 다른 데는 가면 쥐치라 안 하고 또 이거 보고. 도치라 그런다. 침 났다고. 안 그런교. 다른 데 가든 도치라 그러지. 아이다. 울릉도에만 이래 있는 주 아냐. 월남쥐치. 방금 조금 전에 기억났었는데. 말하다가 잊어버린. 우리 일반 고 회색 띄는 거 정상적인 쥐치를 우리 말쥐치라 그래. 말쥐치 큰 거. 요렇게 썩까맣게 나오는 거. 배 쪽에 약간.</p>

〈표 32〉 패류 및 기타류 명칭에 대한 조사의 실례

구분	명칭	제보자의 말
 꽃게  대게	참게, 홍게, 대게, 뿔게, 꽃게, 기이빨, 게이빨, 오동발, 집게발, 찹게발	<p>게는 이런 꽃게도 간혹 가다가 뭐 몇 마리씩 걸려요. 걸리는데. 내나 꽃게라 그러는데 이것도 있고 또 이거하고 모양이 좀 다른 거도 가끔씩 잡혀요. 잡히는데 대량으로 그렇게 뭐 판매할 정도 양은 없습니다. 요런 꽃게도 있고.</p> <p>참게. 꽃게 그 담 홍게, 대게. 양이 적다 뿐입니다. 뭐 참게. 그 담에 이름 모르는 게들 한. 한 두 종류. 요게 뿔게네 뿔게네. 이거. 뿔게네 이거.</p> <p>기이빨이네. 게이빨. 게 오동발이네. 오동발. 가지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네. 울릉도 말로 기. 기지 뭐. 기이빨이지. 뭐. 그래서 같기로 넣은 게 집게발인데 저걸 가지고 오동발이라 그래. 오동발. 내가 아는 건 오동발. 왜냐면 내 형제 중에 이걸 후포서 가공을 하던 형제가 있어가 하도 오동발 오동발 해서. 이빨이 아이지. 그냥 이걸 집게발이지. 왜냐면 게 몸체에 그 입이 있다고 거. 있다고. 그러니 이게 집게발이라고 하면 되겠지. 오동발이라 그래. 그래 집게발이지. 쉽게 말하면. 입은. 입은 게 자체에 있어. 울릉도는 기이빨이라 그러니도.</p>
 굴비  참굴비  밀고동	고디, 고동, 게소라, 기고디, 뿔싸고디, 뿔싸고동, 멧돌고디, 멧돌고동, 비단고동, 비단고디	<p>게소라네. 이게 울릉도 인자 진짜배기나 참고디. 뿔싸고디라 하는 기라. 울릉도 뿔싸고디. 아니고 이~ 기고디네. 기고딘데 뿔싸고디라니. 껍데기 와. 이게 게잖아. 이게.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지는. 게단 말이다. 게. 이 서로 빈 껍질에 드가가 사는 저걸 보고. 뿔싸고디라 안 하나. 망치로 때려도 껍데기 안 깨지는. 하이튼 기고디라 그래. 기고디. 지 집을 한참 들고 땀긴다. 기가 들었는 게. 기는 작으면은 큰집을 자꾸 찾으니까네 이게 뿔싸고디라 안 그러냐.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지는 거 있잖아. 상태는 게가 들어가서 인제 집을 인제 맞아. 이 이 사람 말마따나 이 게가 몸집이 부풀어지면 자꾸 큰 쪽으로 이동하는데 인제 그렇게 거 사는 게 맞는데 이걸 기고디라고. 뿔싸고동이라는 거는 내가 고동 종류네. 작으면서 울퉁불퉁하고 조금 쨌쨌하게 생겼는데 그걸 이렇게 삶아서 먹어보면 좀 매콤해요. 맛이. 그래서 뿔싸고동. 그 담에 울릉도 또 고동 종류 중에 멧돌고디라고 있는데 그런 거는 옛날에 인제 거~ 참 먹거리 없고 할 때는 심심풀이로 참 이 담방구질. 수영하는 거는 여서 담방구질 하러 간다 인제 그걸 잡아가지고 삶아서 심심풀이로 까먹는 그 멧돌처럼 생겼다 해서 멧돌고동이라고.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비단고동도 있죠. 비단고동. 그 담 뭐 비단고디. 비단고동은 아주 잘면서 새까맣게 생긴 거를. 손톱보다 더 짧아요.</p>
 문어	문애, 참문어, 돌문어, 물문어	<p>문애. 예. 문애. 뭐 또 딴 지역에서는 제주도 말로는 물꾸럭. 물꾸럭. 여기서 문애. 문어. 문어는 인자 참문어 돌문어. 여기서. 그 다음 참문어 돌문어. 물문어. 아주 흐늘흐늘한 거. 그 주로 세 가지가 있죠. 예. 그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낙지나 쭈꾸미 같은 건 없고.</p>

구분	명칭	제보자의 말
 <p>성게</p>	<p>보라성게, 성게, 아까, 아까성게, 솜, 아까단, 성게알, 은단</p>	<p>이 보라성게데. 성게도 종류가 몇 가지 있죠. 보라 우리 지역에서는 아까에서 침이 아주 강한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아까성게라 그런가? 아까가 아니고 가. 침이 굉장히 강한 성게가 있고 그 담에 인제 솜이라 그러는 제주도 쪽이나 구룡포 쪽에 많이 나는 침이 아주 잘고 이런. 그걸 보고 우리는 아까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솜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 한 세 가지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이. 알이 유달리 붉은 색이 나는 게 많고 노란색이면서도 붉은색이 있다 해서 아까. 붉은 알이다. 이 성게알은 검거나 상품은 노랑고 비상품은 색이 좀 검게 나는 거. 그래서 성게는 등급을 일본 가도 직접 팔러가도 등급에 따라서 각 도시로 팔려나가는 게 달라요. 아까 말하면은 솜 속에 들은 알을 아까단. 근데 은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게 알에 들은 거 자체를. 은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알을 은단.</p>
 <p>백해삼</p>  <p>홍해삼, 흑해삼</p>	<p>해삼(백해삼, 홍해삼, 흑해삼, 나무해삼), 홍삼, 흑삼, 청삼</p>	<p>해삼은 홍삼 흑삼 청삼. 홍삼인데. 흑삼 청삼은 같이 들어갑니다. 푸른 푸른 색깔이 나는 거는 청삼이고 흑삼은 꺼면 근데 그거는 같이 들어가. 이거의 삼분지 이값 정도하면 되지요. 홍삼은 삼십만 원 흑삼은 이십만 원 그건 이십 키로당.</p> <p>흑해삼 나무해삼. 고 약간 덜 붉으면서 굉장히 몸이 딱딱하면서러 심이 좀 더 나온 걸 나무해삼. 크기도 크고 흑해삼도 인자 이 홍해삼 맨추로 그러면서 인제 색깔이 인제 흑해삼이라. 흑해삼이 인제 홍해삼 보다 연하다. 좀 연하죠. 홍해삼은 좀 야물. 야물고.</p>
 <p>멍게</p>	<p>멍게, 붉은멍게, 돌멍게, 개멍게, 홍멍게,</p>	<p>아니 이걸 멍게라 합니다. 과거에 인자 이 붉은멍게 말고 인자 그 그거 뭐 돌멍게. 개멍게라 그러나. 그거는 울릉도에 조금 서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멍게는. 붉은 멍게가 없었는데 한때 이걸 양식을 할라고 갖다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걸 낱알이 떨어져서 암반에 붙어서 인제 그 자연산으로 변한 게 가끔 몇 마리씩 잡아요. 아주 큼니다. 통상적으로 이걸 멍게라 그러합니다.</p>
 <p>전복</p>	<p>우찌로도노 나무에 전복이 열린다, 해바리</p>	<p>그 때 당시에는 울릉도를 일본말로 우찌로도라니까. 우찌로도라 이러는데. 여기서 우찌로도노 나무에 전복이 열린다 이랬어. 그~ 인자 그 나무에서 전복이 열린다 말은 이 바닷가에 그때는 이 이 북면 쪽에는 파도가 거의 없었어. 잔잔했던 말이에요. 겨울에도. 그래 이 나무가 전부다 느티나무 기목나무야. 그래서 나무가 꼭 떨어지니까 바닷가에 축 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복이 저녁 되면 다 올라와요. 슬슬 다 올라와요. 그래 우리가 어릴 때 박일주 안 있어요. 가~ 들고 가면은. 쥔볼 쥔 해가 햇볼 해가지고 해바리. 해바리라 하죠. 사이 인자 다리 이만큼 벌리고 팬터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구가 있으면 이래가 손으로 여가지고 하면은 전복이 마 올라와요. 그러이 그때는 한 바개수씩 따가지고. 막 좇어오는 거지.</p>

구분	명칭	제보자의 말
 오징어  요이찌  아사히찌	<p>살오징어, 먹통, 한치, 조기, 솥쪽, 알쪽, 대포알, 도직기, 한직기=한물, 아사히찌(붉은오징어), 요이찌(흰오징어), 초등오징어=초물=초등</p> <p>초등바리, 동삼지기, 동삼바리</p>	<p>오징어는 이거는, 우리가 오징어를 이기 인자 이 원래는 이걸 피둥어 꾸기라. 피둥어꾸기라 그러지 싶은데, 한치. 그래 한치를 여기서는 조기라 그래. 조기. 그것도 일종의 오징어지. 오징어고 가끔씩 갑오징어 큰~ 거. 그런 거는 가끔씩 잡히고. 잡히고. 뭐 그 외에는 인자 쓰는 용어로는 우리가 겨울에는 동삼지기. 동삼이니까 뭐. 초등에나 초등바리. 초등바리. 그 담에 가을에 나는 거는 추석 쇠고 나는 거는 가을바리. 그렇게 분류. 그래 그렇게 분류하고. 가장 맛이 있을 철에는 이제 지금 잡는 오징어가 가장 맛이 있다. 오징어 잡는 전부 빨간 거 전부 새복에 잡았는 기라. 그래 아사히찌라. 새복에 잡았다고. 요이찌는 첨에는 빨강는데 이미 다 상해가 빨가이 됐는 기라. 이진 요이찌라 이러는데 인제 그때는 그래가 가오면 초저녁에 잡는 기 많으면은 허연 기 많았고 빨간 기 많으면은 새복날에 많이 잡혔는데. 한치는 겨울에 나는 게 한치거든. 한치보다 더 적은 거. 한치는 질이가 큰 거는 이렇습니다. 오징어가 다 돼가 여기 좀 있으면 한치가 아이 안 나네요. 한치가 한테. 오징어 요런 거 납니다. 요런 거. 자잘한 오징어. 요런 게 나는 초등. 첨 나는 오징어. 초물. 초등. 첨 나는 거거든. 초등오징어가 주로 오월 말에서 육월 초에 잡니다. 고런 게 나는데 고런 거기 초등이고 그래서 다시 나면 늘 그래도 적게 나다가 인제 시월한 시월 달쯤 돼가 나쁜 붉은 오징어 나는 거라. 붉은 오징어 나쁜 그기 인자 십일월 중순 안 가고 그기 떨어져버려요. 떨어져뿌고 다시 십일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는 인자 십일월 중순 지내가 십일월 말까이 돼가 지금까지 나는 오징어는 자꾸 잘아지는 기라. 어제 예를 들어 일 키로가 나갔으면 한 사흘 있다가 잡으면 구백 그람. 또 고보다 적게. 전에 인제 이게 그때 십일월 중순쯤 돼가지고 보통 키로 오백 정도 나갔는데 지금 키로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에. 그마이 자꾸 줄어지는 거죠. 이거 이기. 그거 인자 겨울에 도직기 카는 긴데 도직기. 동삼바리. 이기 인자 도직기 카데요. 주로 동삼오징어인데 도직기 카데. 보통 도직기 인자 뭐 다 됐다 이래 샀고. 지금도 도직기 다 됐다 이래 샀습니다. 그래 동삼바리. 겨울로 친다. 여름에는 뭐 무슨 바리 카는 거는 없데요. 겨울에 나쁜 동삼바리고 그 담에 초등바리. 첨 나는 거 초등바리. 붉은 오징어 뭐 그냥 그때는 통상 날 때니까 뭐 그 보통 보면 이러거든. 많이 날 때 보면 한직기다 이래. 한물이다 이러거든. 시월달에 오징어 뭐 울릉도는 한직기가 시월달 아이가 이래 샀는데 한직기. 늘 첨 한참 날 때를 이래서 아마 해서 하는 얘기겠죠.</p>
 미역	<p>미역귀, 귀다리, 미역쫄거지, 줄기, 쫄거지, 잎, 이파리, 발, 참미역, 돌미역, 지네발미역</p>	<p>이 도돌도돌한 부분은 미역귀. 귀다리라 그래요. 귀다리. 그 담 요까지 미역쫄거지. 줄기. 줄기 쫄거지. 그 담에 잎. 발부분을. 발부분을. 발부분에 요렇게 올라와서 오글오글한 거를 귀다리. 미역 귀다리. 그 담에 쫄기. 그 담에 미역 이파리. 잎을 이파리라 그러지. 여기서는. 예. 그거 알아주잖아요. 오독오독오독 씹고 이런 거. 그래 그래 귀다리. 울릉도는 이 참미역. 돌. 참미역인데 여기는 양식이 없고 전부 돌미역입니다.</p>
 도박	<p>도박, 참도박, 개도박, 도박풀, (도박)범벅</p>	<p>도박류 같고. 이거는 파래 종류고 이거는 톳 종류 같기도 하고. 이거는 톳 맞네.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저가 아는 건 참도박 개도박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예. 근데 요즘은 인자 거의 저게 어렵던 시절에 인제 식용으로 쓰다가 참도박을 먹었죠. 인제. 참도박을 먹다가 저게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도박을 가지고 풀을 써요. 풀을. 풀을 만들어가지고 토담집을 지을 때. 옛날에는 인제 토담집을 지었잖아요. 흙으로. 했을 때 마지막 횃가루를 바를 때 그 도박풀에다가 회를 이겨서 바르면 이 끈적임이 이 접착력이 있어서 잘 붙어가지고 한때 그런 쪽으로 또 도박이 많이 쓰였죠. 그런데 요즘은 원재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인제 사용을 안 하죠. 범벅. 지금 한번씩 먹으면 맛있어요.</p>

3. 조사 결과

지금까지 동해안 지역의 민족생활어 조사의 일환으로 기초 생활과 관련한 어휘를 살펴 보았다. 본 조사에서는 울릉도 지역에 나타난 기초 어휘를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획 도구와 어로 방법, 음식, 민속’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제보자는 울릉도의 어로 생활 전반에 대해 잘 아는 이들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몇 세대를 거주한 또는 40년 이상 거주한 어부를 중심으로 고기잡이와 어로 행위, 낚시, 음식, 민속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어촌 생활어의 개념을 살펴보고, 행위자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기초 생활 어휘를 각 항목별로 고찰하였다. 조사는 그 지역의 거주하는 어부와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어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초어휘를 토대로 확장어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직접 어로 활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각 단계별 각 항목별 어휘와 함께 그에 해당하는 확장어휘를 조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어휘를 다수 살펴볼 수 있었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어촌 지역의 어로 활동을 하는 직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직업은 어부이다. 이러한 어부는 배 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선장, 화장, 영자, 보신’과 같이 구분되기도 했고, 고기를 잡을 때 있는 위치에 따라 ‘원도모, 오른도모’와 같이 구분되기도 했다. 또 행위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아니지만 잡는 고기에 따라 그 행위도 ‘꽁치바리, 명태바리, 오징어바리’로, 계절에 따라 ‘동삼바리, 가실바리, 춘태바리’로, 잡는 시간대에 따라 ‘낮바리, 해치기, 밤치기, 샛별치기’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어휘는 ‘우야다가 여 뭐 그 저 명태바리 할 때 뭐 몇 마리 잡았지. 그 전 요새 잡는 배가 없으니까’와 ‘예. 낮오징어. 예. 저~ 낮바리라 안 하고 순 낮빠리. 낮치기 오징어 주로 많이 이래 얘기한다. 낮에 잡는다고’로 표현되기도 해 행위자를 나타내는 명칭과도 관련이 깊었다. 즉 어부를 나타내는 명칭은 자신의 역할, 잡는 시기 또는 계절, 잡는 어종에 따라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녀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그 출생으로 인해 ‘제주사람’으로 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해녀라는 직업을 천대해서 부르는 명칭과 일본어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었는데 ‘보지기, 히바리, 오야지’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2) 물때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 ‘한물, 두물’과 같은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해안 남부에서부터 사용되고 있는 ‘만들’, ‘들물’ 등의 표현과 ‘조금’에 대한 표현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 역시도 조류의 차가 크지 않은 동해안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는 미세기와 관련되는 ‘들물, 날물, 새발물, 새안들물, 마안들물, 마발물’과 같은 표현이 물때와 관련되는 ‘조금’, ‘초조금’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여. 여기는 조수 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런 건.’과 ‘조금이란 말 옛날에 조금 조금 소리 해다 여는 사용 하도 안 하고 그거는 잘 안 써’라는 제보자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조류의 차를 볼 수 없다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물은 흐르는 방향에 따라 ‘들물, 날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음을 말하면서 이를 ‘들물’과 ‘썰물’로 표현하고 있었다. 한편 ‘썰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북쪽과 동쪽 사이로 흐르는 물을, ‘이숫물’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만물’은 남쪽과 동쪽 사이에서 흐르는 물을, ‘들물’은 서쪽으로 흐르는 물을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명칭을 보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명칭과도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 3) 이 지역에서는 해가 떠 오르기 전은 ‘해치기’로, 해가 떠 오를 무렵은 ‘새복’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중 ‘해치기’는 작업 행위와 하루 표현이 관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보통 식사 시간 전을 가리키는 의미인 ‘식전’이 하루의 일정한 시간, 즉 새벽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점심을 가리키는 말에도 ‘아침, 점심, 참때’가 사용되고 있었다. 아침을 가리키는 말에는 이 외에도 ‘동이 튼다’와 같이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점심’과 동일한 의미로는 ‘한낮’과 ‘한나절’이, 저녁과 동일한 의미로는 ‘어둡사리 낀다, 저녁나절’을 사용하고 있었다. 저녁 시간은 그 시간에 따라 ‘초저녁’과 ‘저녁’으로 구분되고 있었고, 밤을 의미하는 말로는 ‘밤중’과 ‘셋별치기, 별치기’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하루 표현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해치기 ➡ 식전, 새복 ➡ 동이 튼다, 아침, 아침나절 ➡ 점심, 한낮, 한나절 ➡ 참때 ➡ 초저녁 ➡ 저녁, 어둡사리 낀다, 저녁나절 ➡ 밤 ➡ 밤중 ➡ 별치기, 셋별치기’로 볼 수 있다.
- 4) 울릉도는 지형적인 특성,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해 바람과 비, 눈에 대한 명칭이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먼저 방위를 기준으로 동, 서, 남, 북을 나누면 이에 해당하는 바람도 동풍, 서풍, 남풍, 북풍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동은 ‘동새, 동’으로 ‘서’는 ‘새’로, 남은 ‘맏’으로, 북은 ‘새’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바람의 명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동풍은 ‘동새바람, 동새’으로, 서풍은 ‘청풍, 댕갈바람, 댕갈청풍, 댕갈, 하늘바람’으로, 남풍은 ‘처진갈, 남갈, 갈바람’으로, 북풍은 ‘셋바람, 북새, 새바람’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방위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동새, 동바다, 서바다, 서쪽, 남바다, 남쪽, 새쪽, 북바다’가 나타나고 있었다. 동향은 ‘동새, 동쪽, 동바다’로, 서향은 ‘서쪽, 서바다’로, 남향은 ‘남쪽, 남바다’로, 북향은 ‘새쪽, 북쪽, 북바다’로 표현하고 있었고, 동서향은 ‘동서간’으로, 동남향은 ‘동남, 동남간’으로, 동북향은 ‘동북간, 동북’으로, 서남향은 ‘서남, 남서간’으로, 서북향은 ‘서북간’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서풍은 ‘내분다’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은 ‘들이분다’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바람이 분다를 ‘북청 터졌다, 왁새 터졌다’, ‘을진으로 빼가 동새로 땡

긴다’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터지다, 둘러켜지다, 딱아분다’를 통해서는 바람의 세기를, ‘빠다, 땡기다’를 통해서는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바람은 동북풍, 북서풍과 같이 사이로 부는 바람이 있는데 이러한 어휘도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하게 나타났다. 동북풍은 ‘북새, 동새, 셋바람, 인간풍’이, 북서풍은 ‘된새바람, 북청바람, 청풍, 북청’가, 동남풍은 ‘을진바람, 을진, 동갈’이, 서남풍은 ‘갈바람, 댄갈바람, 댄갈, 처진갈’이 나타났다. 이처럼 바람의 명칭은 ‘북새, 동새, 된새, 처진갈’과 같이 방위와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서쪽으로 치우친 바람, 북새 다음으로 북쪽으로 치우친 바람, 남쪽으로 치우친 바람’과 같이 나타나기도 했고, ‘남동풍, 남서풍’과 같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바람은 계절에 따라서 주로 부는 바람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 봄에는 ‘갈바람’이, 여름에는 ‘남서풍, 북동풍, 갈바람’이, 가을에는 ‘북청, 북서풍, 청풍바람’이, 겨울은 ‘셋바람, 북청, 북동풍’이 많이 붙었다. 또 회오리바람을 ‘돌풍’, ‘돌개바람’, ‘호도로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한편 비는 양의 정도와 그 비의 성격에 따라 그 명칭이 분화되어 나타났다. 이 비의 종류 중 가장 적게 오는 비, 즉 안개 같이 오는 비라는 의미로는 ‘안개비’로, 그 굵기가 이슬과 같다고 ‘이슬비’로, 빗줄기가 가늘다는 의미로는 ‘가랑비, 갈방비’가, 또 그 내리는 형태가 보슬보슬 내리는 비라는 의미로는 ‘보슬비’가, 가장 굵고 많이 오는 비로는 ‘소낙비’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그 비의 성격에 따라 ‘해비, 멀건 날에 비 온다, 각재 비가 오다, 소낙비, 장마비, 건장마’라는 표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들은 모두 비가 동반하고 있는 날씨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러한 비를 그 세기의 정도에 따라 나타내면 ‘소낙비, 각재 비가 오다 > 이슬비 > 갈방비, 가랑비, 보슬비, 안개비 > 해비, 멀건 날에 비 온다’로 볼 수 있다. 이 중 ‘해비’, ‘멀건 날에 비 온다’와 같은 표현을 ‘날씨가 거짓말걸다, 변덕스럽다, 날씨가 니 닮았다, 언제 바람 불었는 거걸이 댔네’로 표현하기도 했다.

비와 같이 눈도 그 크기와 성격에 따라 ‘넙떡눈, 함박눈, 솜눈, 우박눈, 싸락눈, 싸래기, 쌀눈, 찌그레기, 진갈비’로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이 중 ‘넙떡눈’은 그 모양새가 크고 넙떡넙떡하다는 의미를 지녀 가장 크고 굵은 눈을 의미하는 말로, ‘함박눈, 솜눈’은 크고 그 송이가 탐스러운 눈을, ‘우박눈’은 크고 굵은 눈으로 강하게 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 싸라기 같이 내리는 싸라기눈을 ‘싸락눈, 싸래기, 쌀눈, 찌그레기’로, 진눈깨비와 같이 내리는 눈은 ‘진갈비’라고 했다.

해 주변에 붉은 띠가 둘러진 것을 ‘해물, 해무리, 해꽃, 해물 미왔다’로, 달 주변에 흰 띠가 둘러진 것을 ‘달무리, 달무리 생겼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중 ‘해무리, 해가 물 먹었다’는 경우 3일 또는 4일 이후에 비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해물’ 또는 ‘해물 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한편 구름, 비, 눈, 해, 달, 별로 인해 날씨가 좋은 상황은 ‘청명하다, 맑다, 땄다, 뽕혔다’로,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은 ‘우중충하다, 우중충

하다, 까다, 번덕스럽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 5) 해안과 바다와의 거리가 가까운 바다를 '앞바다', '근해바다', '가새', '잘', '연안', '이바다'라고 했다. 바로 앞에 있는 바다, 이쪽에 있는 바다라는 의미에서 '앞바다', '이바다', '이쪽바다'로, 해안가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가새, 잘'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육지와 거리가 먼 곳을 '먼바다', '저쪽바다', '저바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을 '너울 있다, 시부끼 들터나'로 표현했는데 이는 그 명칭에서도 그대로 '너울', '시부끼'가 나타나고 있었다. '너울'은 파도가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러한 상황을 '너울성파도, 너울파도'로 표현하기도 했다.

- 6) 물고기는 '머리, 배, 꼬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을 부녀자들보다는 남자들, 즉 어부들이 더 세분화해서 표현하고 있었다. 물고기는 '고기, 괴기'로 부르는데 이는 그 부위에 따라 '머리, 배, 꼬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어부라는 직업으로 인해 더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머리는 '대갈빠리'로, 입은 '주디, 조디'로, 눈은 '눈까리, 눈띠'로, 등은 '등때기, 등사등빼, 등더리'로, 아가미는 '아감지, 고기빚, 아구태가리'로, '배'는 '배때기'로, 꼬리는 '꽁지, 꽁랭대기, 꽁대기'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적인 지느러미의 위치보다 낮게 또 따로 달린 것은 날개와 같다는 의미에서 '날개미, 날개끝'으로, 뒤쪽에 있는 지느러미도 '뒤날기'로 표현하고 있었다. 한편 지느러미를 '등사등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제보자에 따라 등에 난 뼈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외에 비늘을 '껍데기, 비늘'로, 부레를 '부레'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중 '주디, 대가리, 눈까리, 눈띠, 빼다구, 뱃대기, 꼬랑대기'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사람과 달리 어류를 표현하는 말에 속된 표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칼치는 이 지역에서는 '칼치, 깔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칼치는 그 상태와 크기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고 있었다. 우선 그 크기에 따라 '굵은칼치 > 잔칼치'로 그 특성에 따라 '먹칼치, 은칼치, 쌍칼치'로 구분되었다. 고등어는 다른 말로 '사바' 또는 '고등어'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등어는 다 자란 고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고, '작은고등어, 사바새끼'는 덜 자란 고등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다. 가오리는 이 지역에서 잡히지 않는다는 특성상 그 명칭은 세분화되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특징에 따라 하위 범주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가오리는 '간자미, 가부리, 가오리'로 나타났고 이 중 먹을 수 있는 가오리는 '참가오리, 참가부리'로, 물이 많은 가오리는 '물가오리'로, 꼬리에 침이 없지만 오동나무와 같이 단단한 가오리는 '오동가오리'로 나타났다. 한편 가자미는 '까재미' 또는 '까재미'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가자미는 그 색과 형태적 특징에 따라 '돌까재미, 이시가리, 납떡치, 안경까재미, 흑물까재미'로, 그 성질에 따라 '풀까재미, 뭉디까재미, 물까재미, 참까재미'로 구분할 수 있다. 명태는

이 지역에서는 ‘명태’로 말해지고 있었다. 먼저, 명태에 대한 어휘 분화는 그 크기에 따라 나타나고 있었다. 그 결과 가장 큰 명태는 ‘대태’로, 중간 크기의 명태는 ‘중태’로, 중태보다 조금 적은 크기는 ‘소태’로, 명태 새끼는 ‘노가리, 째거, 작은명태’로 말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명태의 상태에 따라 어휘 분화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생태, 북어, 황태, 동태, 얼은명태, 말른명태, 꼬다리’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었다. 북어는 이 지역에서 ‘뽕지’ 또는 ‘보구’로 표현되고 있었고, 이러한 북어에는 ‘참북, 밀북, 까치북, 음뽕, 비단북, 자주북, 까치북, 까칠북, 황북’이 나타났다. 먼저, 나뭇잎에 대한 반대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진짜 제대로의 의미를 지닌 ‘참-’이 결합되어 ‘참북, 참뽕’이 나타나고 있었다. 방어는 표준어와 동일한 형태와 ‘사배기’라는 명칭이 함께 나타났다. 또 그 하위어는 계절에 따라 또 그 특징에 따라 분화되어 나타났다. 시기에 따른 명칭으로 ‘봄방어’, ‘여름방어’, ‘가을방어’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여름방어’는 먹지 못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었다. 또 그 특징에 따른 명칭으로 ‘떡사배기, 떡방어, 잣방어, 납딱새기, 노란사배기, 똥방어, 살찐방어’가 나타났다. 한편, 방어 새끼에 대한 명칭은 ‘가리재이, 새치, 사배기새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쥐치’ 외에도 ‘쥐고기, 주치’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쥐치’라는 말은 육지의 쥐와 모양이 비슷하다 점에서 나온 말이다. 이러한 쥐고기는 그 모양, 특징과 서식지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어 ‘강남쥐치, 월남쥐치, 뽕쥐치, 말쥐치, 얼룩쥐치’로 나타났다.

- 7) 조개류는 각각의 부분에 따라 ‘껍데기, 껍질, 입, 주디, 뽕, 아기미, 빗, 위, 창대기, 내장, 심, 발, 침’으로 말해지고 있었다. 조개류 중 전복은 일반적으로 서식지, 그 생김새, 색에 따라 ‘양식전복, 독도전복, 수피전복, 참전복, 말전복, 둥근전복, 까막전복, 참전복, 종패, 치패, 종자용전복’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소라는 ‘고디, 고동, 소라고동, 소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중 뽕처럼 길게 생긴 소라는 ‘참소라, 참고디, 뽕소라, 뽕고디, 뽕고동’라고 한다. 또 소라 중에 가장 맛있고 것으로 그 모양이 작고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먹을 수 있는 소라는 ‘동그란고디’라고, 작고 매끈매끈한 것은 ‘맨들고디’로, 게가 속에 사는 소라는 ‘게고디, 기고디’로, 해방된 시기에 있었던 소라는 ‘해방고디’로, 길고 가는 소라는 ‘사말고디’로 말해지고 있었다. 홍합은 ‘열합, 처갓집물건’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미역의 세부 명칭이 ‘귀다리, 귀, 미역쫄거지, 줄기, 쫄거리, 꼬타리, 귀다리, 이파리, 잎, 구다리, 뽕거지, 발’으로 구성되었고, 오징어는 ‘이까’, ‘오징어’, ‘수루매, 수매, 피둥어꼴뚜기’라는 말로 나타났다. 이 중 ‘이까’는 주로 생오징어를, ‘수루매’는 말린 오징어로 구분해 말하고 있었다. 이는 그 특징과 크기에 따라 ‘피둥어꼴뚜기, 초등오징어, 사꾸라지기, 갑오징어, 조기, 한치, 큰기, 적은기, 꼴뚜기, 대, 중, 소’로 나타났다.

- 8) 이 지역에서는 ‘오징어’와 ‘꽁치’를 주로 잡는데 ‘오징어’는 낚시로, ‘꽁치’는 그물로 잡는다. 그러나 울릉도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익성과 판로가 좋지 않아 ‘꽁치바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물류에 대한 어휘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물을 쳐 놓고 고기 떼가 지나가면서 걸리도록 한 후 고기를 잡는 행위를 ‘그물바리’로, 낚시를 던져서 잡는 행위를 ‘던지바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낚시와 같은 말을 이 지역에서는 ‘낚시, 낚수’라고 한다. 이러한 낚시류에는 예전에 명태가 많이 날 때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달아 사용한 것은 ‘주낙’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낚수’라는 말을 제보자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어부가 타는 어선은 잡는 어종에 따라 ‘오징어배, 명태배’로, 어떠한 일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어선, 잠수선, 머구리배, 낚시배, 연락선’로, 배의 재질, 즉 소재에 따라 ‘목선, 기궤배, 철선, 에프알피, 뗏목, 뗏마, 뗏배’로, 그 특성에 따라 ‘냉동선, 발동기, 동력선, 그물배, 모다, 간꼬, 무동력선, 풍선, 통통배, 작은배, 택택이, 기관선, 도풍배’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배에 장착하는 엔진인 ‘야끼다마’와 ‘택택이(=착택이, 땡기작가)’에 따라 배를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엔진의 이름, 엔진의 속성이 배의 명칭을 대신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 9) 울릉도 어부들의 일상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어로도구 손질, 오징어 잡이, 오징어 건조’로 볼 수 있다. 고기잡이를 하기 전에는 낚시 도구를 챙기고 정리해야 하는데 이는 주로 부녀자와 어부들이 담당한다. 오후가 되면 부녀자들과 집안 식구들이 함께 정리해 놓은 낚시 도구를 통에 담아 놓고 이를 어부들은 어선에 싣는다. 이후 오징어 잡이를 위해 어부들은 양까와 닻을 내리고 해가 지면 바다에 낚시를 던진다. 야광성의 성질을 지닌 오징어가 불을 보고 달려들면 낚싯대를 당겨 배에 실어 육지로 옮긴다. 이렇게 잡은 대부분의 오징어는 건조를 하는 덕장으로 가져가기 위해 먼저 할복을 한 후 이쑤대에 끼운다. 이를 손수레에 실은 후 덕대에 걸어 말리는데 사람의 손이 적어도 20~30번은 가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어촌의 어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10) 배는 바다라는 공간이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날씨와 관련된 관용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바다 쪽에서 흰하게 일 때 왁새가 터진다’ 바다가 환해지면 왁새바람이 온다는 말이다. 갑자기 어두운 바다가 환하면 큰 바람이 오니 조심하라는 말이다. 셋바람은 북풍을 가리키는 말인데 바닷일을 나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조심스러움은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촌 지역에서도 동일했는데 그 결과 ‘셋날 불면 작업 되겠다’, ‘셋바람 불 때는 오징어가 적게 난다’, ‘셋바람 불면 고기가 나다가도 안 잡힌다’, ‘셋바람 불면 고기가 안 잡힌다’와 같은 속설이 전해져 오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셋바람이 불면 날씨가 추워 오징어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셋바람이 불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말

이다. 먼저, 출항한 후에 주의해야 할 일과 관련된 표현에는 ‘햇불이 있으면 이삼 일 내로 큰바람이 분다’. ‘햇깨비불이 산에 보이면 날씨가 마이 나빠진다’가 나타났다. 바다에서 울릉도를 바라봤을 때 산에 햇불이 보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날씨가 나빠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햇불, 허깨비불’이 있으면 2~3일 뒤에 큰바람이나 큰비가 오니 이때는 바다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울릉도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손사공 죽었는 날은 바람이 세게 분다’라는 말도 전해오고 있었는데 이는 손사공이라는 사람이 죽은 날이 되면 바람이 세게 분다는 말이다.

- 11) 민속 관련 표현으로는 배의 안녕을 빌기 위해 지내는 제사를 ‘뱃고사’라 한다. 이러한 고사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동제, 해신제’가 있다. 이 외에도 1월 1일에 수협에서 지내는 제로 새해 처음 위판을 하는 것은 ‘초매식’이라고 하는데 위판을 기념하고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날이다. 이 날은 올 한 해의 순조로운 위판뿐만 아니라 풍어를 기념하는 제를 지내기도 한다. 한편, ‘동제’는 정월보름에 동네에서 지내는 제를, ‘해신제’는 3월 3일날 어판장에서 지내는 제로 바다의 안녕을 빌기 위해 해신에게 지내는 제이다.

이렇게 각 단계 속에서 살펴 본 기초어휘는 기초어휘 외에도 다양한 확장어휘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어촌 기층생활어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초어휘 조사를 통해, 본 조사는 다음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1) 이제까지 어촌 생활어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수산업쪽에서 연구된 배의 명칭과 어류의 명칭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만이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했고 이러한 조사로 인해 어촌 생활어와 관련한 다양한 기초어휘와 확장어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본 조사 대상인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를 통해 울릉도 지역의 기층생활어를 채록할 수 있었다.
- 2) 모든 조사가 제보자의 구술발화로 진행되어 그 지역의 미세하고 다양한 방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해안의 조사 지역인 울릉도 지역을 세분화하여 ‘울릉읍, 서면, 북면’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통해 울릉도 지역의 방언형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방언이 반영된 전문용어를 다수 고찰함으로 인해 앞으로의 방언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3) 그 동안의 연구가 민속학적으로만 치우쳐 있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어촌 생활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어업과 어부의 개념과 어촌의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환경, 어획물, 어획 도구, 행위에 관한 어휘를 조사함으로써 어촌 생활어 어휘망을 구축하

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실질적인 어휘 조사는 우리 민족과 역사를 같이 한 어촌에 대한 생활어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 4) 조사된 어휘의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뜻풀이를 보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조사 결과물을 조사 어휘,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여, 전자사전 형식의 『민족생활어사전』 편찬의 자료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어촌생활어에 대한 조사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에 대한 반성은 다음과 같다.

- 1) 방언에서 유래한 전문 용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어휘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방언이 반영된 전문 용어의 어원과 변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2) 어촌 관련 생활어 역시 다른 다양한 직업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어휘 분류와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울릉도 지역의 거주하는 다수의 제보자를 선정했지만 이주민으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특성과 지역적 한계로 인해 이 어휘들이 특정 개인어가 아닌 생활어라는 점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남는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사가 아닌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제보자를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울릉도 조사에서는 조사 주제로 인해 여성 제보자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도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한 개인의 생활어, 한 직업의 생활어, 한 지역의 생활어의 한계를 뛰어 넘어 민족생활어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서해 근해(외연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1. 연구 추진 과정

1.1. 조사 계획

한 지역의 물질적·정신적인 소산인 전통 문화는 그 지역의 언어·문화·역사 등에 잘 나타나지만, 특히 일상적인 정서·인식·행동으로 이루어진 생활은 대부분 언어를 매개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한 지역 사회의 정체성, 사고체계, 문화 등은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의 다양한 역사적 변화와 급격한 사회의 변동으로 일상의 생생한 전통적인 문화자원은 사라져 버리게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자들의 구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고령의 제보자마저 그 수가 적어지고 있어 무엇보다 조사의 시급성이 요구된다.

언어에는 각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의 문화와 생활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와 생활은 나날이 발전하고 변모한다. 언어 역시 그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말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원래 있던 말이 잊히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계화에 따른 생활의 변화로 인해 고유한 언어가 소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래 어촌은 기계화로 인해 어로기술의 단순화, 어구의 개선, 어선의 대형화 등으로 인해 농촌 못지않게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무분별한 여가 문화의 피해로 어촌 생태계 보호가 절실하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어촌 생태계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함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010년부터 국립국어원은 민족생활어의 조사 대상을 어촌생활로 나아가 소멸위기의 어촌 생활어 조사를 시작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사라져가는 어촌생활을 대상으로 조사지역 고유의 문화를 수반한 생활어를 조사하여 체계적인 자료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2012년도의 본 조사는 충청남도 서해안 외연도에서 이루어진다. 충청남도 서해안 외연도 지역의 기층생활을 보여주는 기초어휘를 크게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획 도구와 어로 방법', '음식', '민속'의 6가지 범주로 나누어 조사하고, 다양한 어종에 따른 각각의 어로 활동을 중심으로 고기잡이, 식생활, 민속 등에 걸쳐 외연도의 어촌 생활어를 조사하려고 한다.

외연도에는 최근 30년 사이에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올해에는 까나리잡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는 심각한 해양생태계를 암시하는 부분이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외연도의 어촌 생활은 분명히 변화할 것이다. 외연도민들의 생업과 연관된 부분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들의 어촌생활어 역시 변화하고 소멸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외연도의 어촌 생활이 더 변화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1.2. 조사 보고

1.2.1. 조사지역

조사 지역 외연도는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70여개 섬 가운데 가장 멀리 떨어진 섬이다.



[그림 1]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지도

외연도는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서해에 있는 섬으로서 보령시 소재 70여개 섬 가운데 가장 멀리 떨어진 섬이다. 2011년 주민등록 기준으로 470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변에 오도, 횡건도, 수도, 중청도, 대청도, 외형건도 등 16개의 무인도와 함께 외연열도를 이루고 있다. 남쪽과 북쪽에 각각 깊은 만과 큰 돌출부가 이어져 있으며, 북쪽 해안 곳곳에 형성된 암석해안은 바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낭떠러지가 발달되어 있다.

주민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며, 15명 정도의 해녀가 물질을 하고 있다. 가까운 바다에서 멸치, 까나리, 우럭, 광어, 도미, 전복, 해삼, 새우 류, 꽃게 등 다양한 어종이 잡힌다. 이 가운데 멸치와 까나리는 조사기간과 어획시기가 맞물려 외연도의 어촌 생활을 파악하

기 위한 중심축으로 한다. 멸치잡이와 까나리잡이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잡은 멸치와 까나리로 외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 한다.

외연도는 우리나라의 여러 섬들 가운데 풍어제를 갖추어 지내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외연도의 풍어제는 산제(산신제)와 안당고사 그리고 용왕제를 지낸다. 그 중 산제는 중국 제나라가 망할 때 500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정착했다는 전횡 장군을 모시며, 그를 기리는 사당에서 지금도 매년 추모하는 풍어제를 지낸다.



[사진 1] 외연도 전경



[사진 2] 전횡장군 사당



[사진 3] 외연도 선착장






[사진 4] 그물 손질

1.2.2. 제보자

기초어획 조사를 위해서 외연도에서 오랜 기간 지내온 제보자로 선정하였다. 사전 조사 때 이용했던 숙소 주인의 추천으로 최돈영 씨를 만나 외연도의 어촌생활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1차적으로 기초 어획을 조사하였고, 조사 기간 내내 끼니를 챙겼던 식당의 주인인 박차돈 씨에게 면접을 진행한 이후의 제보가 가장 많은 어획 결과를 얻었다. 우연한 만남에서 어획물 사진을 보여주며 남궁춘자 씨와의 조사를 하였다. 서순애 씨과 이공래

씨는 해녀만이 알 수 있는 어휘를 기대했지만, 서순애 씨는 면접에 인상적이었지만 경상도에서 거주하다가 외연도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공래 씨의 면접에 보조해주는 역할로 두었다. 이장님은 전반적인 이야기를, 안상철 씨와 민속관련 풍어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로 생활(까나리잡이와 멸치잡이)에 대하여 박차연 씨와 성태순 씨의 제보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제보자	비고
 <p>박차돈(64)</p>	<p>용진식당 운영, 용진호 소유 - 기초 어휘 주제보자</p>
 <p>최돈영(77)</p>	<p>이전에 배 사업, 해녀 사업 - 기초 어휘 주제보자</p>
 <p>안상철(61)</p>	<p>추억식당 운영 - 기초 어휘 및 풍어제 주제보자</p>

제보자	비고
 <p>박차연(71)</p>	<p>안강망 배 사업, 현재는 아들에게 전수 - 어로 생활 주제보자</p>
 <p>성태순(66)</p>	<p>박차연의 아내, 오랫동안 짓갈을 담금. 현재는 건어물만 함. - 어로 생활 주제보자</p>
 <p>남궁경욱(51)</p>	<p>이장 - 보조제보자</p>
<p>서순애(62)</p>	<p>해녀 - 보조제보자</p>
<p>이공심(53)</p>	<p>해녀 - 보조제보자</p>
<p>고재우(51)</p>	<p>어촌계 간사 - 보조제보자</p>

1.2.3. 조사 장소

- 조사 지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어장과 서해 부근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는 육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만의 어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소멸되지 않았을 것을 기대하여 조사지로 선택하였다. 단, 주소지와는 다르게 전북지역과 접근해 있는 점을 감안하고 조사에 임하였다.

- 조사 장소: 외연도리 소재 용진 식당, 제보자 자택, 외연도리 사각정자. 추억식당, 보령 소재 건조공장

조사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박차돈 제보자의 집인 용진 식당에서 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는 주제보자의 소개와 이장의 소개로 접촉한 제보자의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마을 정자에서 쉬면서 조사에 관심을 보이는 제보자들에게 어휘를 확인하는 조사도 하였다.



[사진 5] 주제보 장소 - 용진식당

1.2.4. 조사 기간 및 방법

2012년 민족생활어 서해안 지역 조사를 위해 2월에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현지 사전조사, 제보자 선정이 이루어졌다. 제보자 선정은 예정보다 지체되었는데, 섬의 특성상 대부분의 주민들이 겨울에는 육지로 옮겨서 생활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온이 오른 3월에서야 제보자들과의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3월 이후에는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 조사에서는 2012년 이전 서해안 지역에서 조사된 어휘를 참고로 어휘 조사에 임하였다. 현장 조사는 보충 조사를 포함하여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자세한 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조사 기간 : 2012년 2월 ~ 9월

	조사 세부 일정	비고
1	문헌조사 (2월 말 ~ 3월)	
2	사전조사, 제보자 선정 (2월 중순 ~ 3월)	
3	1차 조사: 3월 16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기초어휘조사
4	2차 조사: 3월 17일	
5	3차 조사: 3월 18일	
6	4차 조사: 5월 6일	
7	5차 조사: 5월 7일	
8	조사결과 정리1 (5월 중순)	음성 전사 및 기초 어휘 항목 정리
9	6차 조사: 6월 23일~25일	기초어휘 보충 조사
10	7차 조사: 7월 16일	어로생활
11	조사결과 정리2 (8월 중순)	
12	최종보고 : 8월 22일	
13	8차 조사 : 9월 2일	어로생활 보충조사
14	보고서 작성 및 자료 정리(8. 23.~9. 10.)	음성, 사진, 동영상 정리
15	보고서 제출 : 9월 28일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의 어촌 생활어 조사는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족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을 기반으로 해당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였다. 상대적으로 현장성이 강한 민족지적 방법으로 실제 어촌에서 사용하는 소멸위기의 어촌 생활어 확보를 우선한다. 질문자와 제보자는 자연스러운 발화를 통해 조사에 임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어려운 부분에는 격식과 약식이 절충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진 자료로만 어휘 조사가 가능한 부분에는 사진을 최대한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전자 장비를 사용하였다. 또한 어촌 생활어를 조사하기 위해 어업 현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어업 활동 동영상을 준비하여, 제보자와 같이 시청하며 관련 어휘를 발화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어휘들은 다른 제보자들에게 재질문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수집하였다. 어휘 조사를 위해 녹음기와 비디오 카메라, 랩탑(laptop), 스마트패드(smart pad)를 이용하였다.

1.2.5. 조사 내용

충남 보령시 외연도리의 어촌 생활 기초어휘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해당 어휘를 조사한다. 질문지는 어촌 생활에 관련된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획도구와 어로방법, 음식, 민속에 관련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별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기초 어휘 항목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행위자		해녀, 어부
환경	시간	물때
		미세기
		하루
	날씨	바람
		비
		눈
		해·달·별
		기타
	공간	방위
		바다밭
		바다
		지형
어획물	어류	명칭
		부분 명칭
		종류
		행위
		상태
	패류	부분 명칭
		종류
		행위
		상태
	갑각류	부분명칭
		종류
		상태
	해초류	부분 명칭
		종류
		행위
		상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타	종류
		행위
		상태
어휘 도구와 어로방법	그물류	부분 명칭
		종류
		행위
	낚시류	부분 명칭
		종류
		행위
	배	부분 명칭
		종류
		행위
	기타	
음식		젓갈류
민속	제의	
	금기, 속설, 은어, 노래	
	음식	

1.2.6. 조사 결과물

충남 보령시 외연도의 기초 어휘 조사 결과는 어휘를 정리한 엑셀 자료,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나누어 모든 자료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조사 어휘는 행위자, 환경, 어휘물, 어로 도구와 어로 방법, 음식, 민속 등의 범주를 나누고, 해당 어휘의 올림말·해당 표준어·발음·품사·뜻풀이·실제 용례, 관련 설명을 기록하였다.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저장하고, 이를 transcrib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사하고, 저장하였다. 제보자와의 면접을 동영상에 담아 녹음기의 문제로 음성 자료를 잃었을 때를 대비하였다.

조사대상 \ 조사내역 구분	조사어휘		음성자료		영상자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서해안 외연도 어촌 생활 기초어휘	464	201	6/6	464	31	4

2. 연구 내용

어촌생활 기초 어휘는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로 도구와 어로 방법, 민속, 음식 등의 하위범주를 나누어 기초 어휘 항목을 뽑고, 조사 과정에서 확장 어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충남 서해안 외연도의 기초 어휘항목 전부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특이 어형이나 확장 어형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2.1. 행위자

행위자는 어부와 해녀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나 이 지역에는 토박이 해녀가 없어 관련 확장 어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세 명의 남자 제보자에게 질문하였으나 어부에 관련한 어휘 역시 많은 수의 어휘를 수집할 수 없었다.

2.1.1. 어부

어촌 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어부에 관한 어휘는 인상적인 결과가 없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수집된 어형을 조금 다른 어형으로 나타난 정도였다. 배에서는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선장’과 기관방을 책임지는 ‘기관장’,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하장’을 중역으로 여기고 이들에게만 ‘장(長)’을 붙인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배에 탄 역군(役軍)들은 ‘선원’으로 통칭하고 있었다.

- ⇒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가 배를 갖고 다녀요. 사람을 덜 쓰려고. 그리고 최고 나이 어린 사람이 {하장}, 집으로 말하면 밥해 먹이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이 {기관장}. {선장}, 기관장, 하장. 장자는 이 셋밖에 안 들어가요.
- ⇒ 나머지는 {선원}.

2.1.2. 전노, 화노

예전 풍선을 타고 다닐 때 노를 젓는 사람이 ‘전노’, 키를 잡는 사람을 ‘화노’라고 불렀다 한다.

- ⇒ {전노}는 빨리 가게 저어주는 사람이 전노.
- ⇒ 방향을 똑같이 저어가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이 사람 {화노}라는 거.

이상으로 행위자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행위자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행위자	어부	일반 명칭	어부, 선원
		하는 일에 따라	선주, 사공, 하장, 기관장, 선장, 전노, 화노
	해녀	일반 명칭	해녀

2.2. 시간

2.2.1. 물때

1) 한마, 두마, 세마, 객기

물때는 일반적으로 ‘한마, 두마, 세마, …, 일곱마, 여덟마, 아홉마, 열마’와 같이 ‘양수사+마’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었다. 간혹 몇몇 사람들은 ‘한물, 두물’과 같이 ‘양수사+물’의 형태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열물 이후부터는 객기라고 해서 ‘열한물’을 ‘한객기’, ‘열두물’을 ‘대객기’라고 한다.

- ⇒ 이게 처음 시작이 {한물}, {두물}부터 시작혀.
- ⇒ 옛날에 {한마}, {두마}, {세마}, {열한마}, {열두마}
- ⇒ {열한물}을 {한객기}, {열두물}은 {대객기}. 객기, 대객기.

2) 조금, 한조금, 아침조금, 산짐, 무수, 사리

‘조금’은 음력 8일, 음력 23일로 물이 제일 안 나가고 덜 들어오는, 다시 말해 ‘조수간만의 차가 지일 적을 때’를 이르는 말이다. ‘한조금’과 ‘조금’은 같은 때를 가리키는 어휘이다. ‘사리’는 반대로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큰 날’이다. 한 달에 조금이 두 번 돌아오고, 사리 역시 두 번이 돌아온다. 그리고 조금 때와 무수 때는 물이 제일 잔잔한 때이다.

- ⇒ 요기선 {조금}, {무수}, 한마, 두마, 서마, 너마, 다섯마 까지가 여기 이제 조금으로 들어가요.
- ⇒ 이제 8일이 {한조금}이거든? 음력으로 따져서 8일이 한조금이여.
- ⇒ 한 달에 8일 한조금, 23일 한조금. 그렇게 한 달에 조금이 두 번 들어있어요.
- ⇒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요게 {사리}.
- ⇒ 한 달에 조금이 두 번. 음력으로 따져가지고 사리도 두 번, 조금도 두 번.
- ⇒ {한조금}, {조금}, {무수} 양 이들은 아무데도 안가요. 이 조금, 무수는.
- ⇒ 인자 한마서부터 {산짐}이라고 하는거예요. 물이 살아진다고.

3) 조금 때 잡히는 고기 있고, 사리 때 잡히는 고기 있고.

제보자의 말을 따르면 외연도에서의 어장은 사리 때 나가는 어장이 있고, 조금 때 나가

는 어장이 있다고 한다. 이 두 어장에서는 덜 잡히는 문제이지 아예 어획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한다. 사리 때와 조금 때에 따라 잡히는 어종에도 차이가 있다. 사리 때에는 물의 조류에 따라 상대적으로 깊지 않은 곳에서 잡히는 어종을 어획하고, 조금 때에는 비교적 깊은 곳에서, 바위 속과 같은 곳에서 잡히는 어종도 잡아들인다.

- ⇒ 어장에 따라서 {조금} 때 하는 어장이 있고, {사리} 때 하는 어장이 있고, 고기도 조금 때 잡히는 고기가 있고, 저기 사리 때 더 잡히는 어장이 있고 아주 안 잡히지는 않는 거여.
- ⇒ 사리 때에는 말하자면 물 위로 떠다니든가 그물로 잡는 그 어종이 좀 다량으로 잡히고, 조금 때는 어 그 바위 속에 이렇게 서식하는 고기들을 잡고.

이상의 물때에 관련한 어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물때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물때 명칭	한마, 두마, 세마일곱마, 여덟마, 아홉마, 열마 한물, 두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객기, 대객기
조금	조금/한조금
사리	사리
기타 물때	아침조곰, 산짐, 무수

2.2.2. 미세기

1) 들물 / 든물 / 고조 , 썰물 / 썸물 / 저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미세기’는 ‘밀물과 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충남 외연도에서 미세기에 대한 어휘는 ‘밀물’에 대응하여 ‘들물, 든물, 고조’의 어형으로 나타났고, ‘썰물’에 대하여 ‘썰물, 썸물, 저조’의 어형으로 나타났다. 썰물은 표준어형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밀물에 대해서는 표준어형을 사용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물이 밀려올 때 물이 들어온다고 하여, ‘들다’를 활용한 ‘들물, 든물’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고조’와 ‘저조’는 밀물과 썰물에 의한 해수의 상태이다.

- ⇒ 여기 사람들이 작업하는 것은 인저 {썰물}, {들물} 그렇게 따지지.
- ⇒ 들어올 때는 {든물}이라고 그러고, 나갈 때는 {썸물}이라고 하는 거여.
- ⇒ 내려가는 건 {저조}, 들어오는 건 {고조}라고 하지.

2) 물 들다, 물 살다, 물 뜨다, 물 쓰다, 물 나가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상태에 대해서 조사한 어휘로는 밀물에 의해 ‘물 들다, 물 살다, 물 뜨다’라는 상태 표현을 사용하였고, 썰물에 의해 ‘물 쓰다, 물 나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 ⇒ {물 들어오는} 것도, 그건 보편적으로 특별한 용어가 없고 들물이면
- ⇒ 무슨날은 {물이 안 뜨고}, 열마날은 {물이 얼마큼 쓰고}
- ⇒ 들어올때는 든물이라고 그러고 {나갈} 때는 썬물이라고 하는 거여.
- ⇒ 인자 한마서부터 {산짐}이라고 하는거예요. 물이 살아진다고.

이상의 미세기에 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미세기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밀물	들물, 든물, 고조
썰물	썰물, 썬물, 저조
물밀다	물 들다, 물 살다, 물 뜨다
물써다	물 쓰다, 물 나가다

2.2.3. 하루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하여 끼니를 중심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하고, 낮과 밤, 하룻밤과 같은 표현을 하였으며 크게 달리 표현하는 어휘를 찾아볼 수 없었다.

- ⇒ 아침에 뭐 {새벽} 세시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 ⇒ {아침}부터 영업하는 사람도 있고
- ⇒ 햇머리는 {낮}에 나와서
- ⇒ 오늘 {저녁}에는 달머리를 저렇게 크게했네
- ⇒ 인제 해가 넘어갈 때 이제 푸는거죠. {밤}사이에 물으라고

이상 하루를 구분하는 외연도의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하루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새벽	새벽
아침	아침
점심	점심
저녁	저녁
밤	밤, 하룻밤

지금까지의 시간 범주에 해당하는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시간 범주 어휘

범주	어휘 항목	
시간	물때	한마, 두마, 세마 일곱마, 여덟마, 아홉마, 열마 한물, 두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객기, 대객기
		조금/한조금
		사리
		아침조금, 산짐, 무수
	미세기	들물, 든물, 고조, 썰물, 써물, 저조, 물 들다, 물 살다, 물 뜨다, 물 쓰다, 물 나가다
	하루	새벽→아침→점심→저녁→밤중→하룻밤

2.3. 날씨

2.3.1 바람

바람에 관해서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동남풍을 ‘안마셋바람’이라고 하고, 서남풍을 늦마파람이라고 하였다. 마파람인 남풍을 기준으로 할 때 동쪽을 안(內) 쪽이라고 생각하고 사이의 바람이라고 해서 안마셋바람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또한 가을날에 부는 바람인데, 갑자기 들이치는 바람을 두지 바람이라고 한다. 외연도의 사람들은 마파람은 좋지 않은 바람이라고 여겨, 고기 말리는 데도 좋지 않고, 어업을 하는 데도 좋지 않다고 여긴다. 반대로 하늬바람이 부는 때가 고기를 말려도 맛이 있다고 한다.

1) 셋바람, 두지바람, 두지 현다, 마파람, 안마셋바람, 늦마파람

외연도에서는 동풍을 ‘셋바람’, 서풍 가운데 돌풍과 같이 부는 것을 ‘두지바람’, 남풍을 ‘마파람’, 동남풍을 ‘안마셋바람’, ‘안마’, 서남풍 ‘늦마파람’, ‘늦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서풍과 북풍은 그대로 부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동풍이라고도 하고 {셋바람}이라고도 하고.
- ⇒ 이게 그러고서 동풍 {서풍} 나머지는 동풍 서풍
- ⇒ 그것보고 {두지}라고 해요. 느닷없이 막 때리는 거.
- ⇒ {두지현다}고 가을에 구시월에 불면은 두지한다고 하는거여. 두지바람
- ⇒ 남쪽에서 부는 건 {마파람}.
- ⇒ 북쪽에선 그냥 {북풍}.
- ⇒ 남동풍은 안마 여기서 부르는 {안마}라고 그랬어. 안마 {안마셋바람}.
- ⇒ 남서는 {늦마}, 늦마 {늦마파람}.

2) 속수리바람, 돌풍

회오리바람을 ‘속수리바람’이라 한다.

- ⇒ 회오리바람이 그런 것은 이런데 여서는 회오리바람이 {속수리바람}이고
- ⇒ 응. {돌풍}이라고.

3) 바람 나다, 대풍 불다, 땀 씻다

바람이 부는 것으로 ‘바람 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었고, 바람이 세게 부는 상태를 보고 ‘대풍 분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또한 시원하다는 어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람이 불어 땀 씻는 때’라는 표현을 수집하였다.

- ⇒ 동풍 그놈이 그치야 진짜 하늬바람이 제대로 {나는} 거여.
- ⇒ 바람 세게 불면은 아구 {대풍 불었다}하고
- ⇒ 바람와서 {땀 씻고} 그런 때는 시원하다.

4) 섯바람 불면 고기가 머리 아파한다.

바람과 관련하여 수집된 관용 표현은 ‘섯바람 불면 고기가 머리 아파한다’는 것이다. 섯바람이 불 때는 어업 활동도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

- ⇒ 그러니까 섯바람 불면 고기가 머리 아프다는 거지. 옛날 사람들은 {고기가 머리 아퍼서} 미끼도 안 먹구, 안 무는 게라고 그러지.

이상 바람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바람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방향에 따른 이름	동풍	섯바람
	서풍	서풍, 두지바람, 두지 한다.
	남풍	마파람
	북풍	북풍
	동북풍	높새바람
	북서풍	하늬바람
	동남풍	안마섯바람, 안마, 안마 분다
	서남풍	늦마파람, 늦마, 늦마 분다
바람의 상태	속수리바람, 돌풍	
	바람(이) 나다, 대풍 불다, 땀 씻다	
관용 표현	섯바람 불면 고기가 머리 아파한다.	

2.3.2. 비, 눈

비와 눈에 관련해서는 괄목할만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어형은 표준어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특이하게 여길만한 어휘 역시 수집되지 않았다.

1) 소나기, 가랑비, 날이 창명하다, 안개 떴다

비에 관한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조사할 때 다른 지역의 어형을 제시하여 발화를 유도하였으나 달리 수집될만한 것이 없었다.

- ⇒ {소나기} 그건 소나기
- ⇒ {가랑비}. 그냥 가랑비여. 그렇게 내리는 비는 뭐.
- ⇒ {안개 띄고} 아이고 {날 창명해서} 좋다.

2) 싸락눈, 진눈깨비

눈에 관한 조사 어휘 역시 수집된 어휘의 수가 적다. ‘싸락눈’과 ‘진눈깨비’에서 약간의 방언형을 보이는 정도이다.

- ⇒ 싸라기처럼 가늘은 눈 있잖어. 그런 것은 인저 {싸락눈}.
- ⇒ 비랑 섞여서 오는 눈은 {진눈깨비}. {진눈까비}.

이상 비와 눈에 관련하여 조사된 어휘는 다음과 같다.

〈표 8〉 비와 눈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소나기	소나기
이슬비	이슬비, 가랑비
장맛비	장마
기타	날이 창명하다, 안개 떴다
싸라기눈	싸락눈
진눈깨비	진눈깨비, 진눈까비

2.3.3. 해 · 달 · 별

해돋이와 해넘이에서는 ‘해+돋(다)+이’와 같은 형태와는 달리 ‘돋 튼다’, ‘해 진다’와 같이 구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햇무리와 달무리와 같은 경우에도 ‘무리’의 형태가 아닌 ‘머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흐름’이라는 어휘도 확장되어 나타났는데, 해가 넘어갈 즈음에 어장을 두는 것을 일컫는다. 해가 흘러가는 때, 그 시간에 맞추어 부르고 있어 해흐름이라는 어휘를 처음 듣는 사람은 ‘해넘이’와 비슷한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하

지만 이는 그 시간 즈음에 두는 어장을 말한다.

- ⇒ {동 튼다} 해오른 걸 보고서 그냥 동 터온다고.
- ⇒ {해 진다}고 그러는 거여. 해 진다. 해 졌어.
- ⇒ 낮에 나와서 한낮에 예를 들어서 빛이 있을 때 둘레로서 빨간하게 둘러있는 을 오늘 {햇머리} 했네.
- ⇒ {해흐름}은 고기를 잡는 그 시기가 해가 넘어갈 때 어장을 놓는다는 얘기
- ⇒ 오늘 저녁에는 {달머리}를 저렇게 크게 했네.

이상으로 해·달·별과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해·달·별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해돋이	동 튼다
해넘이	해 진다
햇무리, 달무리	햇머리, 햇머리 했네, 달머리, 달머리 했네

이상으로 날씨에 범주에 해당하는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날씨 관련 어휘

범주	조사 어휘		
날씨	바람	동풍	셋바람
		서풍	서풍, 두지바람, 두지 한다.
		남풍	마파람
		북풍	북풍
		동북풍	높새바람
		북서풍	하늬바람
		동남풍	안마셋바람, 안마, 안마 분다
		서남풍	늦마파람, 늦마, 늦마 분다
		속수리바람, 돌풍	
		바람(이) 나다, 대풍 불다, 땀 씻다	
		셋바람 불면 고기가 머리 아파한다.	
	비와 눈	소나기	
		이슬비, 가랑비	
		장마	
		날이 창명하다, 안개 떴다	
		싸락눈	
		진눈깨비, 진눈까비	
	해, 달, 별	동튼다	
		해진다	
		햇머리, 햇머리 했네, 달머리, 달머리 했네	

2.4. 공간

2.4.1 방위

방위에 관련된 부분은 ‘-쪽’이나 ‘간’을 붙여 사용한다.

- ⇒ {동쪽} 서쪽 북쪽 남쪽 그냥 쪽 들어가는 걸로
- ⇒ 동북간 서북간 {서남간} 간 자만 붙이는 거면 사이 사이에

2.4.2 바다

외연도 주변 섬들을 공식지명이 아닌 그들 사이에서 부르는 말이 따로 있다. 녹도의 위에 있는 섬을 ‘질미’, 오도는 ‘머검’, 횡건도는 ‘빋갱이’, 황도는 ‘늘애’로 말하고 있다. 그 섬을 이용하여 방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거품을 일컫는 방언형으로 ‘버کم’, ‘물버کم’이 나타나고, 너울을 ‘농울’로 사용하고 있다. 너울이나 파도가 크게 치는 모습을 ‘농울이 굶다’, ‘파도가 굶다’라고 사용한다. 민물을 ‘잔물’이라고 사용한다.

- ⇒ 응, {질미}. 옛날 분들이 이름을 붙인 걸 질미라 하는 거지.
- ⇒ 우들 어려서 외연도서 이 살면서 부른 것은 {늘애}, {머검}, {빋갱이},로 부른 것은 황도, 오도, 횡건도로 이렇게 부른 거여.
- ⇒ 널러 다니는 거? {버کم}, {물버کم}
- ⇒ 너울이 높다 이런 것은 외연도에서는 {농울 굶지}.
- ⇒ 외연도 말로써도 파도 높으면은 그냥 {바다 굶다}
- ⇒ 내륙에서 민물 말하자면 {잔물} 민물에서 사는 고기

이상 바다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바다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연안, 먼바다	질미, 머검, 빋갱이, 늘애, 연근해, 먼바다
민물	잔물
너울, 파도	너울, 농울, 파도, 농울이 굶다, 파도가 굶다
거품	버کم, 널러다니다.
물 색깔	청물 들었다(파랗다)

2.4.3 해안가

현재는 외연도에는 백사장이 없지만 개발 이전에는 마을 앞이 백사장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물이 빠진 때에 갯벌을 쉽게 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면적이 좁다. 외연도에서는 갯벌을 ‘빨발’, ‘빨땅’, ‘갯발’이라 하였고, 바다 밑 지형이자 빨이 드러나면 보이는 불규칙한 퇴적지형을 ‘된둥’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모래와 관련하여 ‘왕모래’, ‘왕모래발’, ‘가는 모래’, ‘참모래’, 돌과 관련하여, ‘괴생이’와 같은 어휘가 조사되었다.

- ⇒ 모래도 {왕모래}가 있고 {왕모래발}.
- ⇒ 모래 종류만 왕모래 {가는 모래} 이렇게 두 가지 있지.
- ⇒ 오래된 돌이 썩어서 흙이 {참모래}가 된 돌은 있긴 있어.
- ⇒ 색깔에 따라서 {백사장}을 분류하는 건 여기서는 없지.
- ⇒ 그건 {빨땅} 말하자면 빨땅 {모래땅} 그런 것이 {빨발}이다
- ⇒ 물 쓰면은 {갯발}에 나가서 고동도 잡고 홍합도 따고 미역도 뜯고
- ⇒ {된둥}은 평지에 이렇게 물체가 나와 있는 부분은 {된둥}이라고 그러고
- ⇒ 그런 거 뽕뽕뽕뽕한 건 이런 거 뽕 {괴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상으로 해안가와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해안가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모래, 자갈, 돌	모래, 왕모래, 왕모래발, 가는 모래, 참모래, 괴생이
모래사장, 자갈밭	백사장
갯벌	빨발, 빨땅, 갯발, 모래땅, 된둥

2.4.4 지형

기초 어휘 항목표에서 제시한 어휘를 외연도에서 조사한 결과 지형에 관련하여 수집된 그 수는 매우 적다. 따라서 포구, 개, 꽃, 만의 어휘는 발화되지 않았으며, 질문지를 통한 조사에도 수집하지 못했다.

- ⇒ 이안에는 {항} 안이고, 이 말하자면 {방파제}에서 들어오는 이 안 들어와서 이 안은 {항내}고.
- ⇒ 묻는다는 건 {돌바우} 밑에다 다 느서.
- ⇒ 산에다 어디 딱 떨어지는 데는 보편적으로 {절벽}이라 하지.

이상의 지형 관련 어휘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공간 범주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공간 범주 어휘

범주	어휘 항목		
공간	방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간, 동남간, 동북간, 서남간, 서북간,	
	해안가	모래, 자갈, 돌	모래, 왕모래, 왕모래밭, 가는 모래, 참모래, 괴생이
		모래사장, 자갈밭	백사장
		갯벌	빨밭, 빨땅, 모래땅, 된둥
	바다	연안, 먼바다	질미, 머검, 빗갱이, 늘애, 연근해, 먼바다
		민물	잔물
		너울, 파도	너울, 농울, 파도, 농울이 굽다, 파도가 굽다
		거품	버큼, 날리다니다.
		물 색깔	청물 들었다(파랗다)
	지형	항, 항내, 방파제, 선착장, 어구, 돌바우, 절벽	

2.5. 어획물

충남 외연도의 기초 어휘 조사에서 어획물은 물고기, 조개류, 계류, 해조류, 기타군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5.1. 물고기

1) 부분 명칭

외연도에서 조사된 물고기의 부분 명칭은 여느 어촌과 이질감이 느껴지는 어휘는 찾아볼 수 없었다.

- ⇒ 이거 고기, 저기 뭐 농어 같다? {대가리} 보니까.
- ⇒ 망당이는 {대갈빼기}만 크고, 쪽 빠져갖고, {배꼽}이 하나 있어
- ⇒ 등어리가시 있잖여. {등어리}
- ⇒ 저기 명태 {아가미}로 하던가.
- ⇒ 고기는 {비늘}이 없으면 못 살어
- ⇒ 가오리는 {살}이 있기 때문에 {공지}에가 살이 돌잖아, {침}이, {독침}이.
- ⇒ {등어리가시} 있잖여. 등어리. 여긴 {날개가시}도 붙어있고.
- ⇒ {고기는 비늘심으로 사는 거요}고기는 비늘이 없으면 못 살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안 살어 죽어.
- ⇒ 전어 전어, {날개}보니 전어네

2) 종류

외연도에서 잡히는 물고기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지만, 외연도에서 보이지 않는다거나 다른 지역에서 잡히는 어종에 대해서는 제보자들이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어류 도감의 사진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였는데, 물고기를 술하게 보고 사는 섬사람들도 실물이 아닌 사진 단면만으로는 소수의 어종은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1) 멸치, 머르치, 땀, 양멸치, 양멸

외연도에서는 멸치를 표준어형과 함께 ‘머르치’, ‘메르치’, ‘땀’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미리에 대해서는 ‘양멸치’, ‘양멸’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멸치에 대해서, ‘멸’과 ‘땀’, ‘머르치’와 ‘메르치’의 형태가 혼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멸치잡이를 ‘땀잡이’라고 하기도 한다.

- ⇒ 인저 고기가 {멸치} 같은게 많이 있나 없나 그거 보는 거여.
- ⇒ 이건 {머르치} 같은데?
- ⇒ 까나리, 건쟁이, 멸치, {양멸치} 이렇게 잡거든요?
- ⇒ 우리 배들은 지금도 {땀잡이}를 허지만 죽은 배들은 타지방에 가서 못한단 말이어.
- ⇒ {양멸}이라고 또 미꾸라지처럼 생긴 찌그런거 있어요.

(2) 가오리, 간개미, 갯개미

가오릿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외연도에서는 ‘가오리’, ‘간개미’, ‘갯개미’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 ⇒ {가오리}는 살이 있기 때문에 콩지에가 살이 돋잖아, 침이, 독침이.
- ⇒ 가오리도 그렇지. 가오리, {간개미}.
- ⇒ 우럭, {갯개미}, 광어 바다에 나가서는 여기 아니고 육지나 똑같어. 농어나

(3) 조기, 민어, 부서, 보굴치, 백조기, 굴비

조기는 민어과의 보구치, 수조기, 참조기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외연도에서는 ‘조기’, ‘부서’, ‘보굴치’, ‘백조기’, ‘굴비’와 같이 비슷한 어류를 각각 가리키고 있었다.

- ⇒ 꼭 {조기}처럼 생겼어요. 조기처럼 생겼는데
- ⇒ 그런 것을 보고서 이건 {부서}다. 이건 {민어}다. 이건 조기다. 이건 {보굴치}다. 이런 것을 구별하는 거야.
- ⇒ 여기 사람들은 {백조기}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원 이름은 보굴치여.
- ⇒ 이제 {굴비}하는 조기였잖아요.

(4) 쾡치, 학쾡치

쾡치는 쾡치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30cm 정도이고 옆으로 약간 납작한 원통형이며, 등은 검은 청색, 배는 은빛 백색이다. 서해안에서 주로 음력 5, 6월에 잡힌다. ‘쾡치’보다 ‘학쾡치’의 주둥이가 더 길다.

- ⇒ 이건 {쾡치}.
- ⇒ {학쾡치}라고 해야겠는디.

(5) 고래, 상괭이, 밍크

외연도에서 말하는 ‘상괭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상괭이’ 혹은 ‘쇠돌고래’이다. 물돼짓과의 포유류로 몸의 길이는 1.5미터 정도이며 검은색이다. 머리 가운데가 움푹하고 주둥이는 둥글고 등지느러미는 없다. ‘밍크’는 ‘밍크고래’와 같다.

- ⇒ {고래}보다 작은 거, 그 {밍크} 그런 거.
- ⇒ 이거는 상어, 상어가 아니라 {상괭이}
- ⇒ 원래 여기 사람들은 {상괭이}라고 그래요.

(6) 붕장어, 아나구

‘붕장어’는 바다장어를 말한다. 외연도 등지에서도 ‘붕장어’, ‘아나고’의 형태로 많이 사용한다.

- ⇒ 육지는 {붕장어}, 여기는 {아나구}라 그래

(7) 그 외 어류

- ⇒ {정어리}, 미끼는 정어리 넣어요.
- ⇒ {광어}는 눈이 오른쪽에 배겼다 보고 {도다리}는 눈이 왼쪽에 배겼다고.
- ⇒ 응, 복어. 여기서는 {복쟁이}라 그러지.
- ⇒ 이거는 부서야, {돔}은 가시가 세어.
- ⇒ 이건 아까 그 빨간 {아까돔} 아니야.
- ⇒ 이건 {도로묵}이 아니야 도로묵은 고기가 더 작지.
- ⇒ {이면수}는 아닌데 아 그물자국인가, 그럼 맞아
- ⇒ {방어}는 {부시리}하고 또 틀려.
- ⇒ 응 전갱이보고 {아지}라 그래
- ⇒ 이게 썩어도...뭐라고...하는데... 아 썩어도 {준치}.

3) 상태

자잘하다는 뜻을 가진 다른 어형으로 ‘베다’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어획한 지 오래되어 싱싱하지 않은 고기의 상태를 ‘배가 나다’ 라고 하고 있었다. 살이 갈라져서 배가 터지는 모양에서 이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다.

- ⇒ 자잘한 거 보고 {벤} 거라 그래.
- ⇒ {싱싱한} 것이 지났다 이 말이야. {배 나고} 그런 것은.

4) 맬잡이, 삼치바리, 이까바리, 조기바리, 조기잡이, 명태바리

고기를 잡는 행위를 ‘고기이름+잡이/잡이/바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오징어의 일본어형인 ‘이까(いか)’와 결합된 어휘 ‘이까바리’를 사용하고 있다.

- ⇒ 우리 배들은 지금도 {맬잡이}를 허지만 작은 배들은 타지방에 가서 못한단 말이여.
- ⇒ {조기바리}라는 것은 이제 {조기잡이} 한다는 그 소리지.
- ⇒ {이까바리}를 {명태바리}를 겨울에 허고.

이상의 물고기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물고기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물고기	전체 명칭	고기/ 물고기
	부분 명칭	입
		입
		등
		등어리
		아가미
		아가미
	종류	지느러미
		지느러미, 날개
		비늘
		비늘
		가시
		가시, 등어리가시, 날개가시, 살, 침, 독침
	상태	멸치, 머르치, 맬, 양멸치, 양멸
		가오리, 간개미, 갯개미
		조기, 민어, 부서, 보굴치, 백조기, 굴비
		꽁치, 학꽁치
		고래, 상괭이, 밍크
		붕장어, 아나고
	관용 표현	정어리, 광어, 도다리, 복쟁이, 돔, 아까돔, 도루묵, 이면수, 방어, 부시리, 아지, 준치
		자잘하다, 베다, 굵다, 크다, 넓적하다, 싱싱하다, 배 나다.
	기타	고기는 비늘심으로 산다.
	기타	맬잡이, 삼치바리, 이까바리, 조기바리, 조기잡이, 명태잡이

2.5.2. 조개류

외연도는 갯벌이 넓지 않고, 따라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기초 어휘 항목에서 조개류는 조사된 어휘가 매우 한정적이다. 부분 명칭에서는 ‘아가미’만 수집되었다. 홍합의 ‘수설’은 홍합이 돌에 붙어 있도록 흡착기능을 하는 ‘족사’로, 머리카락 굵기의 실 같은 섬유조직으로 매우 강한 접착력을 지니고 있다.

- ⇒ {조개}는 먹을 거 조금씩 하고, 여기 육지가 가까운 데가 많이 허지.
- ⇒ 여기도 뭐 {울조개} 같은 거 잡을걸?
- ⇒ 여기서는 {반지락}이라고 그럴걸?
- ⇒ {백합} 그런 건 저 전라도서 나고.
- ⇒ {수설}이라고 있어. 홍합에다 머리카락처럼 달렸잖아.
- ⇒ {새조개}는 아닌 것 같은데. 새조개는 아니고.
- ⇒ 그 {소라} 껍데기 속에 그 게가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
- ⇒ 여기 말로는 {뼈톨이}.
- ⇒ {고동}도 잡으러 가고.
- ⇒ {전복}은 껍데기가 딱딱하니까 해삼이 상해요.
- ⇒ 전복, 이건 전복이고, {굴}. {꼬막}.



[사진 6] 배말과 고동

이상의 조개류 관련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조개류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조개류	부분 명칭	껍데기, 아가미, 빨아들이는 거
	종류	조개, 울조개, 반지락, 백합, 수설, 새조개, 새조개, 소라, 뼈톨이, 고동, 전복, 굴, 꼬막.
	행위	따다, 줍다. 잡다

2.5.3. 계

외연도에서 계의 부분명칭에는 집게발은 표준어 그대로의 ‘집게발’과 ‘계엄지’로 사용하고, 집게발을 제외한 나머지 발들을 ‘부채발’이라고 사용한다. 그리고 등딱지를 ‘껍다기’, ‘따꿍’이라는 어휘로 사용한다. 소라계를 ‘게고동’이라고 부르며, 털계를 ‘월낭계’, 참계를 ‘뽕계’라고 부르고 있었다. ‘뽕계’가 방계의 경음화라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대계의 암컷’이라는 뜻과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이다. 계의 배와 등딱지를 분리하면 안에 있는 아가미를 ‘구섬’, ‘구섬탕이’라고 한다.

- ⇒ {집게발}이라는 건 제일 앞의 그 그것보고 집게발이라고 하고.
- ⇒ 왜냐면 이 큰 걸보고 {계엄지}라 하고.
- ⇒ 그것 떼고 이렇게 {따꿍}을 뜯으면 양쪽에 날개처럼 {구섬탕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달렸잖아?
- ⇒ {구섬}이라 그럼 되지.
- ⇒ 저 꽃계는 제일 쉽게 죽는 것이 {배꼽} 띠면 그냥 죽어버려.
- ⇒ 요거 {게고동}
- ⇒ {월낭계}. {털계}. 털계
- ⇒ 요렇게 생긴 {뽕계}.

이러한 계에 관련하여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조개류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계	부분 명칭	집게발, 계엄지, 부채발, 껍다기, 따꿍, 배, 배꼽, 구섬, 구섬탕이
	종류	게고동, 털계, 월낭계, 꽃계, 대계, 뽕계

2.5.4. 해조류

해조류에는 미역, 김, 감태, 파래, 모자반, 툇, 우뚝가시리, 풀가시리, 도박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외연도에서는 그 구분이 모호하다. 특히 가시리 종류가 그러하다. 김과 감태, 파래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 ⇒ {김}인데 김발 말리는 걸 {김발}.
- ⇒ {해태}, 해태, 김.
- ⇒ {돌김}을 {뜯어} 가지구 그 놈을 집집마다 돈이 없으니까 상인들이 김을 사러 왔어요.
- ⇒ 다 먹는 해초야. 이걸 {파래}.
- ⇒ 여기 외연도는 {말}이야. 해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위에만 이렇게 따가지고 부드러운 데만 위에만 따서 먹거든요.
- ⇒ 여기 사람들이 부르는 건 세모라고도 하고, {가시리}라고도 하고



[사진 7] 미역



[사진 8] 우뭇가사리

이상 해조류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해조류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해조류	종류	미역	미역
		김	김, 파래, 해태, 돌김
		모자반, 톳, 가시리	말, 톳, 우뭇가사리, 가시리, 세모
	행위	뜯다, 널다.	

2.5.5. 기타

외연도에서는 거북손을 ‘부찰’이라고 하였고, 생긴 모양이 돼지의 발톱 같다고 하여 ‘돼지발톱’이라고 한다. 부찰이 돼지발톱보다 더 오래된 어형이다.

- ⇒ 외연도 사람들은 보통 노인네들이 불렀던 얘기는 이제 {부찰}이라고 불렀어. 부찰. 부찰.
- ⇒ 부찰이라는 말이 어떻게 좀 이상했던지 지금은 {돼지발톱}이라고 외연도에서 불러.
- ⇒ {돌김}을 {뜯어} 가지구 그 놈을 집집마다 돈이 없으니까 상인들이 김을 사러 왔어요.
- ⇒ 이것이 {쭈꾸미}.

이상으로 어획물의 기타 분류에 해당하는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어획물 기타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기타	종류	거북
		거북이
		오징어
		오징어, 이까
		해파리
		해파리
		낙지
		낙지, 쭈꾸미
		문어
		문어
		꼴뚜기
		꼴뚜기
		해삼, 멧게, 성게
		해삼, 멧게, 성게, 말뚝성게
		말미잘
		말미잘
		불가사리
		불가사리
		거북손
		부찰, 돼지발톱

2.6. 어로 도구와 어로 방법

2.6.1 그물류

1) 부분 명칭

외연도에서 어획에 사용하는 그물에 대한 부분 명칭으로는 ‘그물코’, ‘코’, ‘그물줄’로 수집되었다. ‘그물줄’은 그물을 잡아올리는 그물 위쪽 코를 꿰어 놓은 줄, 잡아당겨 그물을 오므렸다 폈다 한다. 이것은 표준어로 버리를 말한다.

- ⇒ 그러면 안에 {코}는 틈이 많으니까 죽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그물코}에 실지도 않고
- ⇒ 그러니까 수지자망이라는 것은 낚시하는 수지, 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생겼어 그물이, {그물줄}이.

2) 종류

(1) 그물, 어망

어촌에서 어로 생활에 있어 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물이다. 그물은 예전부터 여러 종류로 줄 따위로 엮어 만들어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이다. 이를 외연도에서는 ‘그물’, ‘어망’이라고 부른다.

- ⇒ {그물}이 또 양쪽에 있어요
- ⇒ 이거 뭐야, {어망}, 어망이구만?

(2) 삼중망, 삼마이, 자망, 목그물, 목자망, 수지자망, 수지, 경심, 유자망, 나일론 그물, 잔그물
그물의 종류가 여럿이라고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필요한 그물은 각 배마다 하는 어업에 따라 그물이 다르다. 그물을 세 겹으로 된 그물을 ‘삼중망’, ‘삼마이’라고 한다. ‘유자망’도 ‘삼중망’과 같은 그물 짜는 방법에 따른 이름이다. ‘잔그물’은 그물코의 넓이가 좁은 ‘목자망’, ‘목그물’은 예전에 무명을 이용해 만든 그물이다. ‘수지자망’, ‘나일론 그물’은 재질에 따른 그물 이름이다.

- ⇒ 그물이 세 개 붙어있다고 {삼마이}라고 해.
- ⇒ 옛날에는 {자망}. 옛날에는 {목그물}이 있었어요. 목으로 짠 그물.
- ⇒ 목그물 {목자망} 자망 그 지금 쓰는 자망 명칭은 똑같구
- ⇒ 인저 지금은 {수지자망}. 지금은 {수지}.
- ⇒ {경심}보고 수지라고 얘기하는겨.
- ⇒ 지금은 또 {나일론 그물} 쓰는 사람이 있어. 저기, 저 지금 tv에 나오는 건 민어 잡잖아, 민어. 민어그물배 이렇게 한건, 그것은 전부 나일론 그물이야.
- ⇒ {유자망}이라는 것은 코가 안에는 뭐 십센치라든지 이센치라든지 있고 겉에는 삼십센치자는 되는 그물을 이 {잔그물}을 가운데다 넣어놓고 그물이 또 양쪽에 있어요.

(3) 흘치기, 뜰채, 받이

‘흘치기’는 큰 그물을 바다에 넓게 던져 놓고 끌어당겨 물고기를 잡는 것을 말한다. 후릿그물로 어획하는 행위를 말한다. ‘뜰채’와 ‘받이’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데 고기를 건져 올릴 때 쓰는 도구를 거의 ‘받이’로 쓰고 있었다. 뜰채는 뜨는 행위로 명명된 어휘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 {받이}. 고기 뜨는 받이라고 하지. 여기 사람들은. {뜰채}라고도 하고 받이라 고도하고 여기 사람들은 받이라고 그래.

(4) 망탱이, 두름바, 댐박

망사리와 테왁은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에 사용하는 도구로, 테왁은 물위에 뜨기 위해 박의 속을 비워 부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망사리는 해녀들이 잡은 해삼, 전복 등을 담아두는 자루이다. 망사리는 ‘망탱이’, 테왁은 ‘두름바’, ‘댐박’으로 사용하고 있다.

- ⇒ {망탱이} 맞아
- ⇒ 이게{두름바}인데 여기하고 또 틀리네.
- ⇒ {댐박}이 맞아 맞아.

이상 그물에 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그물류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그물류	부분 명칭	코, 그물코, 코다리, 그물줄	
	종류	전체 명칭	그물, 어망
		그물	삼중망, 삼마이, 자망, 목그물, 목자망, 수지자망, 경심, 수지, 유자망, 나일론 그물, 잔그물
		후릿그물	홀치기
		사들	뜰채, 받이
		망사리	망탱이
		테왁	두름바, 댐바

2.6.2. 낚시류

외연도에는 어장 형성이 잘 되어 있어, 다양한 어종이 잡히고 고급 어종을 건지기 쉬워 낚시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연유로 외연도 섬사람들은 낚시류에 관하여 외부 어휘와, 외연도 내 어휘를 함께 알고 있었다. ‘줄자사’와 ‘줄모태’는 낚싯줄을 감는 열레를 말한다.

1) 부분명칭

- ⇒ {낚싯대}에다 바늘 꿰가지고
- ⇒ 루어낚시하시는 분들 그런 가는 {줄}을 대요.
- ⇒ 육지 이렇게 낚시 오는 사람들이 {줄자사} 달라 해췄고 그러데. 그 감는 거 얘기를 하는 거지.
- ⇒ 섬에는 {줄모태}라고 하는거지.
- ⇒ 요것 보고 {낚시끝}, 낚시 {이늘}.

2) 종류

외연도에서는 ‘낚시’를 물고기를 잡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주낙은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로,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것이다. 외연도에서 ‘주낙’이라고 사용한다. 간혹 ‘주낙’과 ‘주낙’의 경계에서 애매하게 발음하는 제보자도 있었지만, ‘주낙’ 쪽으로 더 많은 이들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다. ‘주낙바쿠’란 낚싯줄을 다는 원형의 틀을 말한다.

- ⇒ 전부 이렇게 원줄에다가 {낚시}를 매요.
- ⇒ 내려놓고서 인자 바다가 돌 빠치고 무조건 저, 살살 가면 지가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있어요.

이게 {주낏}이에요. 여기서사람들은 주낏이라 부르죠.
 ⇒ 요것은 {주낏바쿠}, 요것은 주낏.

이상으로 낚시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 낚시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그물류	부분 명칭	낚싯대, 낚싯줄, 줄, 줄자사, 줄모태, 이늘, 낚시끝
	종류	낚시, 찰낚, 주낏, 주낏바쿠

2.6.3. 배

1) 부분명칭

(1) 이물

‘이물’은 배의 앞부분을 말한다. 외연도에서는 ‘이물’, ‘선미’라 사용하고 있었다.

⇒ 여기는 알기 쉽게 말해 {선미} 아녀. 그런데 우리들은 {이물}이라고 그러거든?

(2) 고물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말한다. 외연도에서는 이물과 대응하여 ‘고물’, ‘후미’, ‘도모’라고 사용하고 있었다.

⇒ 여기더러 {고물}이라 한다고, 그런디 지금은 선미, {후미} 이런다고.

⇒ 최고 {도모}라는 뒤 후미 쪽으로 큰 게 올라가서 꼬고

(3) 돛

배의 돛에는 제일 앞에 두는 돛으로 ‘양엇돛’, ‘양엣돛’이라 하고, 가운데에 다는 돛을 ‘허릿돛’이라고 한다.

⇒ 이제 우리들이 배에서 부르는 것은 {양엇돛}이라고 하지.

⇒ 앞이 세우는 것을 {양엣돛}, 가운데 서는 것을 {허릿돛}.

(4) 돛대

예전의 돛대를 지금의 배에선 ‘용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꼭대기를 ‘용두’라고 한

다. 고물 쪽에는 ‘큰돛대’를 단다.

- ⇒ 지금 돛대보고서 {용천대}라고 하는 거 아녀.
- ⇒ 용천대라고 여다 {용두}를 달잖아. 꼭대기다. 그래갖고 태극기 달아올리는 식으로 잡아 들어서 돛을 올렸다 하는겨.

(5) 활대

‘화릿대’와 ‘돛살’은 돛 위에 가로 댄 나무를 말한다.

- ⇒ 이것은 인저 옛날에는 뭐라 했는데. 돛 {화릿대}. 화릿대.
- ⇒ {돛살}이라고 하지. 돛살.

(6) 닻, 닻줄

외연도 안에서는 닻을 올리는 행위를 ‘닻 캐다’라고 쓰고, 닻줄을 ‘닻줄’, ‘앞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출항하기 위해 닻줄을 푸는 것을 ‘앞줄 끌러라’, 정박하기 위해 닻줄을 매는 것을 ‘앞줄 매라’라고 말한다.

- ⇒ 그러니까 이제 {닻 캐라} 하면 뱃사람들은 인자 다 알지.
- ⇒ 나갈적에는 {앞줄 끌러라}. 들어와서 정박할 적에는 {앞줄 매라} 이러쥬.

(7) 노, 상앗대, 키

노가 저을 수 있을 만큼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한 상앗대를 ‘사앗대’라 하고,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키를 ‘치’라고 발음하고 있었다.

- ⇒ {사앗대}로 저어서 깊은 디로 들어가야 노를 저었지.
- ⇒ {치} 잡는 사람을 사공이라 해.

(8) 뱃밑, 구량, 삼, 냉끼, 새지, 가이상고

배를 만들 때, 배의 가장 밑인 ‘뱃밑’부터 ‘구량’, ‘삼’, ‘새지’의 순으로 올린다. 새지는 ‘가이상고’라고도 한다. 구량은 뱃밑 바로 위에 대는 널이고, 그 위로 해서 배의 옆면을 채우는 부분이 ‘삼’, 그리고 갑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냉끼’, 배의 둘레를 둘러, 파손을 방지하는 ‘새지(가이상고)’이다.

- ⇒ {뱃밑}, {구량}, {삼} 위에 까는 걸 보고 {냉끼}라고 하는 거야.
- ⇒ 발동기로 말하면 {가이상고}보고 {새지} 고 하는 거야.

2) 종류

배에는 기계를 처음 놓은 똑딱선을 통통 튀어간다고 해서 ‘통통배’, 기계를 두지 않은 배는 돛이 없는 작은 배 ‘뎨마’가 있고, 그 당시에 큰 배였던 ‘풍선’이 있다.

주낙을 갖춘 배는 ‘주낙배’라 하였고, 지금의 안강망 배는 ‘중선’, 섬사람들의 상거래를 위한 ‘장배’와 ‘상고선’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돛대가 하나가 세워졌으면 ‘예대배기’, 둘이 세워졌으면 ‘두대배기’, 셋이 세워졌으면 ‘세대배기’가 된다. ‘한도배기’, ‘두도배기’, ‘세도배기’와 같이 ‘돛’의 말음이 탈락된 형태도 혼용된다.

- ⇒ 첨에 생겨났고 기계 논 배. 첨 들어와가지고 통통통통하고 똑딱선.
- ⇒ 이것은 여기 사람들이 {뎨마}라 그래. 뎨마. 옛날 말이 뎨마.
- ⇒ 이런 큰배들은 {풍선}이라 하고.
- ⇒ 지금은 고급 고기라고 하면 이 {주낙배}.
- ⇒ 지금 우리 배들은 허가가 근해 안강망 허가를 가지고 있거든? 옛날 {중선}.
- ⇒ 지금 객선처럼 {장배}가 외연도 땡겼어. {상고선}에 사람 태워가지고.
- ⇒ {예대배기} 하나 달았다는 얘기에요.
- ⇒ 그리고 돛 하나 단거를 {한대배기} 이렇게 옛날에 노인네들이 그렇게 불렀어.
- ⇒ 돛을 이제 두 개 달면 {두대배기}, 세 개 달면 {세대배기}.

이상으로 배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배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배	부분 명칭	갑판	냉끼
		이물	이물, 선미
		고물	고물, 후미, 도모
		돛	돛, 양엇돛, 양엇돛, 허릿돛
		돛대	돛대, 용천대, 큰돛대, 용두
		활대	화릿대, 돛살
		돛	돛, 돛 캐다
		돛줄	돛줄, 앞줄, 앞줄 끄르다, 앞줄 매다
		노	노, 노 젓다
		상앗대	사앗대
		키	치
		배 구조	뱃밑, 구량, 삼, 냉끼, 새지, 가이상고
	종류	고깃배	어선
		똑딱선	통통배, 발동선
		풍선	뎨마, 풍선, 주낙배, 중선, 장배, 상고선, 예대배기, 한대배기, 두대배기, 세대배기

2.6.4. 기타 어로 도구

1) 종류

(1) 작살, 어살

물고기를 잡는 도구인 작살과 어살은 외연도에서 ‘화살’과 ‘덕망’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 ⇒ 옛날 사람들은 여기서 {화살}로 고기잡이 했거든.
- ⇒ 이걸 더러 {덕망}이라 했더니.

(2) 통발

통발은 가는 뗏조각이나 싸리를 엮어서 통같이 만든 고기잡이 기구로 아가리에 작은 발을 달아 날카로운 끝이 가운데로 물리게 하여 한번 들어간 물고기는 거슬러 나오지 못하게 하고 뒤쪽 끝은 마음대로 묶고 풀게 되어 있어 안에 든 물고기를 꺼낼 수 있다. 외연도에서는 표준어와 같이 ‘통발’로 쓰고, ‘스프링 통발’이라는 세부 형태의 통발 이름도 수집할 수 있었다.

- ⇒ 입구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고기가 놀아요. 들어만 가면 못나오니깐. 못나오게 되어있어요. 들어만 가지 나오지를 못해. 이걸 {통발}.
- ⇒ 그건 {스프링 통발}이고.



[사진 9] 통발



[사진 10] 스프링 통발

(3) 바구니, 종다래끼

외연도에서는 바구니를 영어의 ‘카고(cargo)’에서 온 ‘가고’라는 말을 쓴다. 이는 어획물을 담는 곳이 흔히 카고라고 하는 노란색의 플라스틱 바구니이기 때문이다. 종다래끼는 ‘구력’으로 조사되었다.

- ⇒ 아니여. {가고}에다가 담어 갖고.
- ⇒ 이거 여기 사람들은 옛날말로 {구력}이라고 하지. 물고기 담을 데가 없으니까.

(4) 물옷

외연도에 있는 해녀는 토박이가 없어, 해녀에 대한 조사 어휘는 특색이 없다. 최근에는 고무로 된 잠수복을 입고 물질을 한다. 그 옷을 ‘스쿠복’이라고 한다. 스쿠버다이빙할 때 입는 옷과 같아 축약이 되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 ⇒ 옛날 옛날 {해녀옷}. 이게 목으로 된 해녀옷.
- ⇒ 요즘은 우리가 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옷을 {스쿠복}을 입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쓰죠.

(5) 고기 살리는 배

잡은 고기를 살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든 작은 배를 ‘수구레’, ‘가두리’라고 한다.

- ⇒ 이거 {수구레}. 고기 담가놓는 수구레.
- ⇒ 예, {가두리}. 고기 가두는 가두리.

(5) 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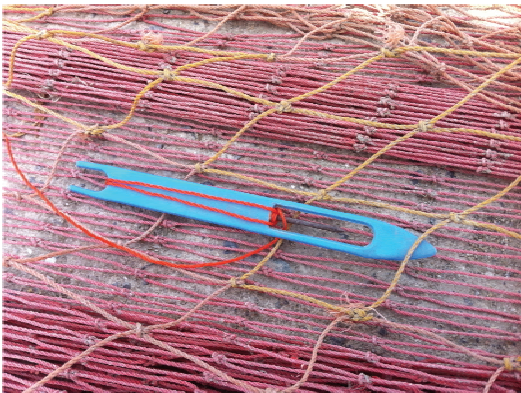
투구는 잠수할 때 머리에 쓰는 잠수 기구를 말한다. 주로 잠수부가 쓰는 도구이다. 이를 ‘머구리 투구’라 하고, 이 투구를 쓰는 잠수부를 ‘머구리’라고 한다. 또한 물 위의 배에서 머구리에게 신호를 주는 사람을 ‘주네끼’라고 한다.

- ⇒ {머구리 투구}. 이걸 옛날에는 이사람들이 다 잡아냈잖아, 해삼, 전복을.
- ⇒ 그것보고 {머구리}라고 하지. 이거 쓰고 들어가는 사람보고.
- ⇒ 이제 위에서 {주네끼}라고 요 머구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신호 받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6) 그물바늘

그물바늘은 그물을 짜거나 손질할 때 쓰는 바늘이다. 외연도에서는 ‘바늘대’라고 사용하고 있다.

- ⇒ 요건, 그물 짓는 {바늘대}



[사진 11] 바늘대



[사진 12] 그물줄

이상 기타 어로 도구에 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기타 어로 도구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기타 어로 도구	종류	작살	화살
		어살	덕망
		통발	통발, 스프링 통발
		바구니	가고
		종다래끼	구럭
		호미	호미, 갈쿠리
		낚	낚
		물옷	해녀옷, 스투복
		얼음끌	(홍합 따는) 비창
		고기살리는배	수구레, 가두리
		투구	머구리 투구, 머구리, 주네끼
		수경	수구레
		그물바늘	바늘대
		뜯채	쪽반이
		미끼	이깎

2.6.5. 어로 행위

외연도의 어로 행위에 관한 용언류는 특이 어형은 수집되지 않았다.

⇒ 전복은 {뜯다}

- ⇒ {치 잡는}사람을 사공이라 해.
- ⇒ 나갈 적에는 앞줄 끌러라. 들어와서 정박할 적에는 앞줄 {매라}.
- ⇒ 띠배를 만드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인제 나무를 사다가 만들어서 {띄우는} 거. 여기다 떡 같은 거 다 실어서.
- ⇒ 뽀라뽀라(프로펠러) 돌아가는 데. 거기가 빠져가지고서 배가 {가라앉은} 거야.

이상의 어로 행위와 관련한 조사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어로 행위 관련 어휘

항목	어휘 항목
조개류 관련 어로행위	따다
해조류 관련 어로행위	말리다, 널다
그물류 관련 어로행위	짜다, 뜨다, 감다, 감다, 끌다, 던지다, 치다
낚시류 관련 어로행위	낚다, 채다, 걸리다, 올리다, 올리빼다
배 관련 어로행위	(키, 노) 잡다, 타다, 매다, 풀다, 뜨다, 뜨다, 가라앉다, 신다

2.7. 음식

2.7.1. 젓갈류

젓갈에 관련한 어휘는 외연도 지역에서만 나는 어류로 담근 부분에서만 조금의 방언형이 나타났고, 다른 어휘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 ⇒ {새우젓}은 이 굴에 안 들어가면 저 껍데기만 남어.
- ⇒ 이건 {머르치젓} 같은데?
- ⇒ {창란젓}은 칼치 창자고.
- ⇒ 지금 내가 그러잖아 {꽁치젓}, {밴댕이젓}, {칼치젓}, {꼴뚜기젓}. 많지 젓갈이.
- ⇒ 옛날에는 황세기라 했어. 황세기. {황세기젓}이라 했어.
- ⇒ {아가미젓}은 여 서해 요쪽은 담는 거 못 봤네.
- ⇒ {오징어젓}인가?
- ⇒ 젓갈로 먹는 거는 밴댕이, {반지}, 조기새끼, 꼴뚜

이상으로 젓갈류 관련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 젓갈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음식	젓갈	새우젓, 머르치젓, 창란젓, 칼치젓, 꽁치젓, 황세기젓, 꼴뚜기젓, 아가미젓, 오징어젓, 밴댕이젓, 반지젓,

2.8. 민속

외연도는 우리나라의 여러 섬들 가운데 풍어제를 갖추어 지내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외연도의 풍어제는 산제(산신제)와 안당고사 그리고 용왕제를 지낸다. 그 중 산제는 중국 제나라가 망할 때 500여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정착했다는 전횡 장군을 모시며, 그를 기리는 사당에서 지금도 매년 추모하는 풍어제를 지낸다.

2.8.1. 제의

외연도의 풍어제는 ‘당제’, ‘산제’, ‘안당고사’, ‘용왕제’로 나누어 지낸다. 당제의 대상은 ‘전횡장군’이다. 음식은 암소가 아닌 ‘황소’를 잡아서 해체해서 제사에 올린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제주’와 ‘안어장’이 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제사 지낼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화장’이라고 한다. 산에서 ‘당제’와 ‘산제’를 지내고, ‘용왕제’를 바다를 보고 지낸다. 그리고 마을 안당에서 ‘안당고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면서 노래는 부르지 않고, ‘풍장만 친다’. 용왕제까지 끝나면 ‘띠배’에 제사를 지낸 음식을 담아 바다로 보낸다. 이를 ‘퇴송’이라고 한다.

- ⇒ 어르신들하고 모여 갖고 언제 날이 좋다 해가지고 인제 산제를 모시자 일년에 한 번씩 {산제}를 모시는 거니까.
- ⇒ 그리고 내려갖고 여기 인제 {용왕제}라고 용왕제 지내고 {띠배} 띄우고 그러고선 이제 안당이라고 안당 들어가서 안당고사라고 {안당고사} 지내고
- ⇒ 노구제라 해가지고 밥 해놓는 걸 {노구제}라 하는거여.
- ⇒ 그 다음에 인제 떡 해놓고 {고두메}라고 쌀을 이렇게 수쳐갖고 시루에다 찌서 가지고서
- ⇒ 첫 번에 {제주}를 선정해가지고 제주를 선정한 다음에 또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화장}인데 화장이라 해서 화장을 뽑고,
- ⇒ {안어장}이지. 말하자면 이제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총 감독관이라고 할 수 있지.
- ⇒ 그때 {지태}라고 소를 잡는 거예요.
- ⇒ 고기 떡같은 거 술 같은 거 이제 다해서 고시레 하는 거야. 그걸 {퇴송}이라 그러지.

2.8.2. 금기

- ⇒ 달거리 하는 사람들은 부인이 허면 남편이 거길 올라갈 수가 없어.
- ⇒ 소를 한 마리를 다잡아서 {땅에 단 데는 산에 안 쓰고}, 밑에는 안 쓰고 땅에 안 단 쪽만 위에 산에서 다 쓰는 거예요 제사를.
- ⇒ 초상 같은 게 나면은 안되고 이 동네서 애기 같은 거 낳고 허면 그때는 부정이라고 해서 안 지내니까, ... 그 깨끗한 사람이라는 게 {부정 없는 사람}.
- ⇒ 그 사람들을 {정한 사람}들이라고.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부정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때도 부인들이 집에서 달거리 하는 사람들도 안되고.

이상으로 민속 관련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민속 관련 어휘

범주	조사 어휘	
민속	명칭	당제, 산신제, 안당고사, 용왕제, 노구제
	대상	전횡장군, 용왕신
	도구	길지, 띠배, 백옷
	음식	꽃감, 밤, 대추, 팔 수치다, 고두메, 케케하다, 시루, 솔, 반골, 유통(사전적 의미와 조금 다름, 소불알), 족발(소의 발), 앞족, 뒷족, 도랫술, 더덕구이, 횃감(소의 내장), 고사리나물, 숙지 나물, 시금치 나물
	행위자	제주, 안어장, 화장
	행위	퇴송, 칠당 치다, 풍장 치다
	금기	부인이 달거리 하면 남자는 제사 못지낸다. 소가 땅에 단 데는 안 쓴다. 부정 없는 사람.

3. 조사 결과

이상으로 민족생활어 조사의 일환으로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의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를 살펴보았다. 본 조사는 행위자, 환경, 어휘물, 어로 도구와 어로 방법, 음식, 민속의 범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 가운데 특징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위자에 관한 어휘에서는 ‘선장’, ‘기관장’, ‘하장’만이 ‘장(長)’을 붙인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배에 탄 역군(役軍)들은 선원으로 통칭하고 있었다. 풍선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전노’, 키를 잡는 사람을 ‘화노’라고 불렀다.

2) 물때는 일반적으로 ‘한마, 두마, 세마, …, 일곱마, 여덟마, 아홉마, 열마’와 같이 ‘양수사+마’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었다. 간혹 몇몇 사람들은 ‘한물, 두물’과 같이 ‘양수사+물’의 형태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3) 충남 외연도에서 미세기에 대한 어휘는 ‘밀물’에 대응하여 ‘들물, 든물, 고조’의 어형으로 나타났고, ‘썰물’에 대하여 ‘썰물, 썬물, 저조’의 어형으로 나타났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상태에 대해서 조사한 어휘로는 밀물에 의해 ‘물 들다, 물 살다, 물 뜨다’라는 상태

표현을 사용하였고, 썰물에 의해 ‘물 쓰다, 물 나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4)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하여 끼니를 중심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하고, 낮과 밤, 하룻밤과 같은 표현을 하였으며 크게 달리 표현하는 어휘를 찾아 볼 수 없었다.

5) 외연도에서는 동풍을 ‘셋바람’, 서풍 가운데 돌풍과 같이 부는 것을 ‘두지바람’, 남풍을 ‘마파람’, 동남풍을 ‘안마셋바람’, ‘안마’, 서남풍 ‘늦마파람’, ‘늦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부는 상태를 보고 ‘대풍 분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또한 시원하다는 어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람이 불어 땀 씻는 때’라는 표현을 수집하였다. 바람과 관련하여 수집된 관용 표현은 ‘셋바람 불면 고기가 머리 아파한다’는 것이다. 셋바람이 불 때는 어업 활동도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

6) 해돋이와 해넘이에서는 ‘해+돋(다)+이’와 같은 형태와는 달리 ‘동 튼다’, ‘해진다’와 같이 구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햇무리와 달무리와 같은 경우에도 ‘무리’의 형태가 아닌 ‘머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흐름’이라는 어휘도 확장되어 나타났는데, 해가 넘어갈 즈음에 어장을 두는 것을 일컫는다.

7) 방위에 관련된 부분은 ‘-쪽’이나 ‘간(間)’을 붙여 사용한다.

8) 외연도 주변 섬들을 공식지명이 아닌 그들 사이에서 부르는 말이 따로 있다. 녹도의 위에 있는 섬을 ‘질미’, 오도는 ‘머검’, 횡견도는 ‘빋갱이’, 황도는 ‘늘애’로 말하고 있다. 그 섬을 이용하여 방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너울이나 파도가 크게 치는 모습을 ‘농울이 굶다’, ‘파도가 굶다’라고 사용한다. 민물을 ‘잔물’이라고 사용한다.

9) 외연도에서는 갯벌을 ‘뺨밭’, ‘뺨땅’, ‘갯밭’이라 하였고, 바다 밑 지형이자 뺨이 드러나면 보이는 불규칙한 퇴적지형을 ‘뒀둥’이라고 한다.

10) 물고기의 머리와 꼬리에만 ‘대갈빼기’, ‘대가리’, ‘꽁지’와 같이 낮추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고기는 비늘심으로 사는 거요.} 고기는 비늘이 없으면 못 살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안 살어 죽어.’라고 한다.

11) 물고기의 이름 가운데 멸치는 ‘머르치’, ‘메르치’, ‘맬’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미리에 대해서는 ‘양멸치’, ‘양멸’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가오리는 외연도에서는 ‘가오리’, ‘간개미’, ‘갱개미’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물고기의 상태로는 자잘하다는 뜻

을 가진 다른 어형으로 ‘베다’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어획한지 오래되어 싱싱하지 않은 고기의 상태를 ‘배가 나다’ 라고 하고 있었다. 고기를 잡는 행위를 ‘고기이름+잡이/잡이/바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오징어의 일본어형인 ‘이까(いか)’와 결합된 어휘 ‘이까바리’를 사용하고 있다.

12) 조개류에서는 외연도의 지역 특성상 관련되는 어휘 수집이 어려웠다. 단, 홍합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설’이라는 어휘를 획득할 수 있었다.

13) 외연도에서 계의 부분명칭에는 집게발은 표준어 그대로의 ‘집게발’과 ‘계엄지’로 사용하고, 집게발을 제외한 나머지 발들을 ‘부채발’이라고 사용한다. 그리고 등딱지를 ‘껍따기’, ‘따꿍’이라는 어휘로 사용한다. 소라계를 ‘게고둥’이라고 부르며, 털계를 ‘월낭계’, 참계를 ‘뽕계’라고 부르고 있었다. 아가미를 ‘구섬’, ‘구섬탱이’라고 한다.

14) 외연도에서는 거북손을 ‘부찰’이라고 하였고, 생긴 모양이 돼지의 발톱 같다고 하여 ‘돼지발톱’이라고 한다. 부찰이 돼지발톱보다 더 오래된 어형이다.

15) 그물의 종류가 여럿이라고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필요한 그물은 각 배마다 하는 어업에 따라 그물이 다르다. 그물을 세 겹으로 된 그물을 ‘삼중망’, ‘삼마이’라고 한다. ‘유자망’도 ‘삼중망’과 같은 그물 짜는 방법에 따른 이름이다. ‘잔그물’은 그물코의 넓이가 좁은 ‘목자망’, ‘목그물’은 예전에 무명을 이용해 만든 그물이다. ‘수지자망’, ‘나일론 그물’은 재질에 따른 그물 이름이다.

16) 예전의 돛대를 지금의 배에선 ‘용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꼭대기를 ‘용두’라고 한다. 고물 쪽에는 ‘큰돛대’를 단다.

17) 외연도 안에서는 닻을 올리는 행위를 ‘닻 캐다’라고 쓰고, 닻줄을 ‘닻줄’, ‘앞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출항하기 위해 닻줄을 푸는 것을 ‘앞줄 끌러라’, 정박하기 위해 닻줄을 매는 것을 ‘앞줄 매라’라고 말한다.

18) 배를 만들 때, 배의 가장 밑인 ‘뱃밑’부터 ‘구량’, ‘삼’, ‘새지’의 순으로 올린다. 새지는 ‘가이상고’라고도 한다. 구량은 뱃밑 바로 위에 대는 널이고, 그 위로 해서 배의 옆면을 채우는 부분이 ‘삼’, 그리고 갑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냉끼’, 배의 둘레를 둘러, 파손을 방지하는 ‘새지(가이상고)’이다.

19) 배에는 기계를 처음 놓은 똑딱선을 통통 튀어간다고 해서 ‘통통배’, 기계를 두지 않은 배는 돛이 없는 작은 배 ‘펜마’가 있고, 그 당시에 큰 배였던 ‘풍선’이 있다.

주낙을 갖춘 배는 ‘주낙배’라 하였고, 지금의 안강망 배는 ‘중선’, 섬사람들의 상거래를 위한 ‘장배’와 ‘상고선’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돛대가 하나가 세워졌으면 ‘예대배기’, 둘이 세워졌으면 ‘두대배기’, 셋이 세워졌으면 ‘세대배기’가 된다. ‘한도배기’, ‘두도배기’, ‘세도배기’와 같이 ‘돛’의 말음이 탈락된 형태도 혼용된다.

20) 주로 잠수부가 쓰는 도구이다. 이를 ‘머구리 투구’라 하고, 이 투구를 쓰는 잠수부를 ‘머구리’라고 한다. 또한 물 위의 배에서 머구리에게 신호를 주는 사람을 ‘주네키’라고 한다.

21) 외연도에서 젓갈을 가리키는 말은 ‘머르치젓’, ‘깡치젓’, ‘벤텅이젓’, ‘칼치젓’ 정도의 방언형만 보인다.

22) 외연도의 풍어제는 ‘당제’, ‘산제’, ‘안당고사’, ‘용왕제’로 나누어 지낸다. 당제의 대상은 ‘전황장군’이다. 음식은 암소가 아닌 ‘황소’를 잡아서 해체해서 제사에 올린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제주’와 ‘안어장’이 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제사 지낼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화장’이라고 한다. 산에서 ‘당제’와 ‘산제’를 지내고, ‘용왕제’를 바다를 보고 지낸다. 그리고 마을 안당에서 ‘안당고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면서 노래는 부르지 않고, ‘풍장만 친다’. 용왕제까지 끝나면 ‘띠배’에 제사를 지낸 음식을 담아 바다로 보낸다. 이를 ‘퇴송’이라고 한다. 금기로는 제사 때 달거리 하는 아내가 있는 남편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사음식으로 올라가는 황소의 땅에 단 부분은 제사에 쓰질 않는다.

위와 같은 서해안 어촌생활 기초 어휘에 관한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문헌 조사를 통한 방언형을 민속지적 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어형을 수집,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존의 조사 장비 외에도 최신 전자 장비를 활용한 조사를 시도하여, 긍정적인 조사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3) 충남 보령의 외연도는 크지 않은 섬 지역이지만, 제보자들마다 보이는 미세한 어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 목적에 그치지 않고, 생소한 어촌 생활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서해안 외연도의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를 조사하면서 얻은 한계점이다.

1) 소멸 위기의 민족 생활어 수집을 위해서는 고령의 제보자가 요구되지만 섬 지역에 고령의 제보자가 잔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조사 기간의 여유가 부족하여 한정된 어업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조사가 되었다.

3) 외연도의 경우 까나리 액젓이 유명한 지역이지만, 올해에는 까나리가 전혀 잡히질 않아 현장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4) 기초어휘항목에 포함된 용언들의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 남해 근해(육지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1. 연구 추진 과정

1.1. 조사 계획

한국의 연안 해역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의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3개역은 그 경계를 획일적으로 구분하기는 힘들다. 각각은 지리적 환경뿐 아니라 생물의 분포도, 어장 조건, 어업 방식이 다르다. 어촌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지역별 문화 차이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심을 가지려 한다. 여러 분야가 있겠으나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고자 한다. 어촌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어촌 생활어’라 한다. 여기에는 어촌의 자연 환경, 생업, 전통 문화 등이 응축되어 녹아있다. 어촌 생활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쉬운 점은 이들 기층 생활 언어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어촌 생활어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 언어에 대한 관심은 남해안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어촌 생활에 관한 문화 축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해안 어촌 생활어는 생활 전반에 관련된 범주로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로도구와 어로방법, 음식, 민속’으로 분류하여 조사, 정리하였다.

1.2. 조사 보고

1.2.1. 조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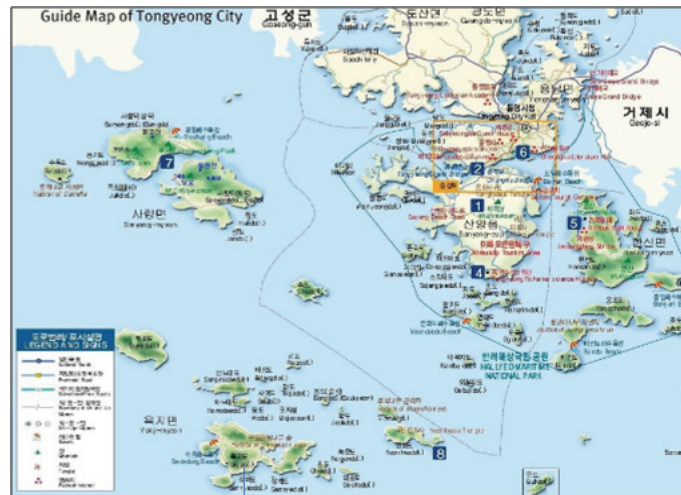
육지면은 통영항에서 뱃길로 약 32km 정남에 위치한 농·어 복합형태의 도서면으로 행정중심인 큰 섬 육지도를 중심으로 유인도인 내초도, 봉도, 국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등 11개의 섬과 무인도 44개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은 산양읍과 연결하고, 동쪽은 거제시와 바다로 연결해 있으며 서쪽은 남해군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남쪽은 태평양으로 이어진 공해와 인접한다.

이중 욕지도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에 속하는 39개 섬 연화열도의 본섬으로 통영에서 남서쪽으로 21.4km 떨어져 있다. 동경 128°18', 북위 34°36'에 위치하며, 면적 14.95km², 해안선길이 31km 정도 된다. 욕지도의 최고봉인 천황봉(天皇峰, 392m)은 급경사를 이루면서 해안에 몰입하여 곳곳에 험준한 벼랑을 이루고 있고 해안은 굴곡이 심하며, 북동해안 중앙에는 깊숙한 만이 발달하고 있어 욕지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욕지해역은 여름철 내만 수온이 28°C에 이르고 겨울이라고 해도 13°C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많은 난류성 어족이 이 해역에 와서 산란을 하며, 겨울철에는 동해나 서해에 살던 것들이 이 해역으로 남하하여 월동하는 일이 많으므로 부포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가 많고 한 어족의 분포밀도가 높은 곳이 많다. 이 해역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식물로는 톳, 우뚝가사리, 파래, 김, 미역 등이 있으며, 무척추동물로는 우렁छ이를 비롯하여 홍합, 피조개, 꼬막, 바지락, 개조개, 새조개 등의 패류, 문어, 오징어 등의 연체동물 등 다양하며, 어류는 멸치, 갈치, 고등어, 전갱이, 조기, 볼락, 송어, 방어, 농어, 게르치 등의 난류성 어족이 많이 난다.¹⁾ 어업은 한때 어업전진기지가 될 정도로 활발하였으나, 지금은 연안어업과 주로 전복·미역, 김 등의 양식업에 한정되고 있으며, 최근 장어양식이 대단히 성하여 높은 소득원이 되고 있다.

또한 욕지도는 온난한 해양성기후로 식생은 팔손이·동백나무·풍란 등이 자라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로는 쌀·보리·콩·마늘·고추와 밀감이 생산되고, 주민은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다. 욕지도 주민 30%는 농업에 종사하는데 주요 농사는 고구마, 굴 농사이다. 물 빠짐 좋은 비탈 황토밭에서 해풍 맞으며 자란 욕지도 고구마는 유난히 단단하고, 달콤해 명품 고구마로 비싼 값에 팔린다. 얇게 썬 고구마를 말리는 모습은 욕지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데 욕지도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고구마를 말려서 보관해왔다고 한다. 고구마는 먹을거리가 궁한 섬사람들에게 훌륭한 양식이 되어왔다. 말린 고구마를 찧어 불리고 여기에 팔, 검은콩 등을 넣어 무려 23일 동안 끓여주면 욕지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뺨때기죽이 완성된다. 또한 사슴이 많이 살았다고 하여 녹도(鹿島)라고 불리며, 이 섬에서 자생하고 있는 모밀잣밤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43호로 지정되었고, 경상남도 기념물 제27호인 조개무지가 있다.

1) 2008년에 발행된 『욕지면지』 참조.



조사지점-육지도



[사진 1] 육지도 1



[사진 2] 육지도 2



[사진 3] 육지도 3



[사진 4] 육지도 4

1.2.2. 제보자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의 어촌 생활 기초어휘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욕지도 동항리에 서 태어나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욕지도 주요 어업 방식인 채낚기 어업을 포함해, 어업을 주요 생계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박이 김임옥, 이수용, 김삼춘 씨를 주제보자로 선정하였다. 김삼춘 씨의 부인인 김순금 씨는 보조 제보자로 하여 여성들이 사용하는 관련 어휘와 음식에 관련된 어휘를 수집하였다. 또한 욕지면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보조 제보자 김홍국 씨를 통해 주제보자 소개, 마을 소개 등 욕지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아래는 욕지도 기초어휘 조사를 위해 도움을 준 제보자들의 정리표이다.

〈표 1〉 제보자

연번	조사 대상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기타
1	기초어휘· 채낚기	김임옥	남	78	욕지도 동항리	어업종사, 선주, 노인회장
2		이수용	남	82	욕지도 동항리	14세부터 채낚기 포함 어업종사
3		김삼춘	남	83	욕지도 동항리	20세부터 채낚기 포함 어업종사
4		김순금	여	78	욕지도 동항리	어업종사, 김삼춘 씨 부인
5		김홍국	남	53	욕지도 동항리	욕지면사무소 근무, 홍보담당, 토박이

욕지도 노인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임옥 씨는 욕지도에서 태어나 물으로 나가 공부를 하고 다시 욕지도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조사 항목에 관련된 지역 어촌 생활어를 가급적 많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놓친 어휘는 따로 전화를 하여 알려주는 등, 조사에 적극적인 제보자였다. 주로 선주로 어업에 종사하였다.

이수용 씨는 어려서부터 집안에 도움을 주기 위해 14세라는 어린 나이부터 물고기 잡이를 시작하였다. 어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였고 욕지도를 떠난 적이 없어 지역 생활어를 생생히 들려준 주제보자이다.

김삼춘 씨는 여전히 채낚기로 어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제보자이다. 낚을 녹여 직접 뽕돌을 만들어 작업을 할 만큼 연세에 비해 정정하였고 가지고 있던 여러 어로 도구를 보여주어 관련 사진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김홍국 씨는 욕지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분으로 조사 뿐 아니라 욕지도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008년에 나온 욕지면지를 만들 때 주요 역할을 하여 누구보다도 욕지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였으며 무엇보다 욕지도에서 쓰는 말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조사에 맞는 어휘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본인이 알고 있는 어휘 제공 뿐 아니라 적당한 제보자 선정, 확보에도 도움을 주었다. 또한 아내와 함께 욕지도에서 아담하고 예쁜 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욕지의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을 계

확하고 있다.



[사진 5] 김임욱-육지도



[사진 6] 이수용-육지도



[사진 7] 김삼춘-육지도



[사진 8] 김순금-육지도



[사진 9] 김흥국-육지도



[사진 10] 조사 모습

1.2.3. 조사 기간 및 방법

2012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민족생활어 조사는 크게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문헌 조사는 3월 초까지 진행하여 참고 문헌을 중심으로 관련 어휘를 조사하고 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였다. 이 자료는 이후 현장 조사를 위한 관련 문항을 정리하는데 참고하였다. 조사 지역과 제보자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는 2월 말까지 하였으며, 현장 조사는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현장 조사를 병행하였으므로 조사 시 부족한 내용은 바로 보충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2〉 조사 세부 일정

	조사 세부 일정	
1	문헌 조사: 2월~3월 초	
2	사전 조사, 조사 준비: 2월 4일~5일, 2월 11일~12일	통영시 육지면 동항리
3	현장 조사: 3월 23일~27일	통영시 육지면 동항리
4	조사결과 정리 1 (2월 중순~5월 말)	trs 전사, 어휘 정리
5	증간 보고: 5월 29일	
6	현장 조사: 7월 7일~8일	통영시 육지면 동항리
7	조사 결과 정리 2 (6월 말~8월 말)	엑셀 정리
8	최종 보고: 8월 22일	
9	보고서 작성 및 멀티미디어 자료 정리(8월 23일~9월 10일)	사진, 동영상 정리

경상남도 통영시 육지도 동항리에 관한 어촌 생활어 조사는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으로 해당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였다.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현장 조사와 다양한 어휘 수집을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사전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이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남지역의 어촌 생활어 조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질문지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풀이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해당 어휘에 관해서는 사진을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어휘 항목을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여 해당 어휘에 대한 하위 항목의 어휘까지 수집하였다. 기초 어휘 조사는 공통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확장 어휘에 관한 조사는 간략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을 위해 녹음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였다.

1.2.4. 조사 장소

- 조사 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동항리 욕지면사무소, 노인회관, 제보자 집

경남 통영시 욕지도의 현장조사는 주로 욕지면사무소와 노인회관에서 주로 하였고, 제보자 김삼춘, 이수용 씨 집에서도 하였다. 김삼춘 씨와 김순금 씨는 부부이므로 함께 집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사진 11] 욕지도



[사진 12] 욕지도 면사무소

1.2.5. 조사 내용

경남 통영시 욕지도 어촌 생활 기초어휘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해당 어휘를 조사하였다. 질문지는 어촌 생활에 관련된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획도구와 어로방법, 음식, 민속에 관련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주별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초적인 어휘조사는 물론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확장어휘를 수집하여 어휘목록을 체계화 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조사 내용

범주	어휘 항목
행위자	어업 관련 행위자
환경	시간, 날씨, 공간
어획물	물고기, 조개류, 게, 해조류
어획도구와 어로방법	그물류, 낚시류, 배, 기타류, 어로행위
음식	명칭, 방법, 기타
민속	제의, 음식, 금기, 기타

1.2.6. 조사 결과물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사 결과는 어휘 엑셀 자료,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구분, 정리하여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였다. 조사 어휘는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획도구와 어로방법, 음식, 민속 등의 범주를 나누고, 해당 어휘의 올림말·해당 표준어·발음·품사·뜻풀이·실제 용례, 관련 설명,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여부 등을 기록하였다.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녹음기를 이용해 저장하고, 이를 transcrib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든 음성자료를 전사하여 해당 어휘를 저장하였다. 보충 자료로 어휘 관련 사진도 함께 수집, 저장하였다.

경상남도 통영시 육지도 어촌생활 기초어휘 조사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표 4〉 조사 결과물 정리표

조사대상	조사내역	조사어휘		음성자료		영상자료	
	구분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남해안 육지도 어촌 생활 기초어휘		725	304	10/10	642	32	0

2. 연구 내용

어촌생활 기초어휘는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획도구와 어로방법, 민속, 음식 등의 하위 범주를 나누어 기초어휘 항목을 뽑고, 조사 과정에서 확장어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는 통영시 육지도에서 조사된 모든 어휘 항목에 대한 제시보다는 특이 어형이나 확장어형을 중심으로 서술하려 한다.

2.1. 행위자

행위자는 어부와 해녀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이 지역의 독특한 어로 방식인 채낚기에 관련 행위자 명칭도 함께 조사하였다. 어부에 관한 명칭은 일반적으로 어부를 지칭하는 명칭과 배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에 따라 부르는 말, 그리고 어떤 어획물을, 어떤 어로방식으로 잡는지에 따라 부르는 말이 분화되어 있었다. 해녀 또한 일반적으로 해녀를 부르는 말과 해녀들의 능력에 따라 부르는 해녀 하위 범주의 말을 조사할 수 있었다.

2.1.1. 어부/뱃사람/뱃놈

행위자에 관한 어휘는 일반적으로 ‘어부, 뱃사람’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고 뱃일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불러 ‘뱃놈’이라고도 부른다.

- ⇒ {뱃사람}. 혹은 또 사공 뭐 그런 말을 쓰지요.
- ⇒ {어부들은} 뭐 적군이니 뭐 또 뱃놈이까. 그런 것은 쓰지요. 주로 적군 같은 거. 또 뱃사람 같은 거. 영 나쁘게 쓰면 이 아주 천하게 어부들을 말해서 {놈자들} 여 씁니다.

2.1.2. 선주, 적군, 사공, 하장, 기관장/기관조, 기관사, 선장/센조

행위자에 관한 어휘 조사에서 제보자들은 배와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많이 제시하였다. ‘선주, 적군, 사공, 하장, 기관장, 기관조, 기관사, 선장, 센조’ 등이 있는데 선주는 배의 주인으로 배와 관련된 경영을 하는 사람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적군’은 배에서 샅을 받고 일하는 일꾼을 부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일꾼이라 부르는데 이 지역에서는 독특하게 ‘적군’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일꾼은 일반적으로 선원이라 하기도 하는데 일꾼은 배에서 하는 일에 따라 ‘기관장, 하장’ 등이 있는데 ‘하장’은 배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하장은 배의 선원 중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담당한다고 한다. 기관실에서 일하는 사람을 ‘기관사’라 하고 기관사 중 기관실을 책임지는 사람을 ‘기관장’이라 하는데 이는 ‘기관조’라 부르기도 한다. 제보자들은 이는 일본어의 영향이라 하였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센조’가 있는데 이는 배에서 총책임자인 ‘선장’과 같은 말이다. 사공은 배를 부리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전에 많이 쓰던 말로 요즘의 선장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말이다.

- ⇒ {적군이고}. 적군은 인자 배 어장을 위해서 종사하는 분들. 일당을 받을 수도 있고,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어장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자 적군이고. 그 다음에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선주고}.
- ⇒ 뭐 그거는 주로 뭐 아까 지가 말한 {뱃사공} 같은 거 인자 옛날에 이 풍선이 이런 거 타고 다닌 사람들 뱃사공이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인자 요즘에 한 거 보니 {선장이다} 그래 생겼고. {하장} 같은 말도 하장은 식사를 딱 날라가지고 그 질도 그 뱃사람이 그 뭐 있나. 그 {기관장을} 우리나라 우리 그 지역 방언으로 {기관조로} 했는데. 기관장을 기관조. 기관은 얼추 발음이 같거든. 일본어나 우리말이나 기관사하면 {기관사}. 기관사, 기관조. 센조. {선장은} {센조}.

2.1.3. 설래끼꾼/슬래끼꾼, 해패/일본조

육지도에서 고기를 잡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채낚기’ 방식이다. 이는 육지도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1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어업방식으로 낚싯대에 외줄을 걸어 낚시하는 방식이나 여러 개의 바늘이 이 외줄에 달려 있고 잡는 어종에 따라 외줄에 거는

낙시 바늘의 수와 크기, 낙시줄의 굵기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일반 낙시와 차이가 있다. 또한 욕지도의 채낙기는 타 지역에서의 오징어 채낙기와 같은 대량 잡이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데 작은 배를 타고 욕지도 주변에 나가 조업을 한다. 예전에는 ‘뗏머’라는 무동력선을 타고 나가 고기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은 예민하거나 얇은 물에 사는 어종을 잡을 때 무동력선을 이용한다고 하고 다랑어와 같은 큰 고기를 잡을 때는 동력선을 이용한다. 욕지도에서는 채낙기를 ‘설낙기, 설래끼, 슬래끼’라 부르는데 채낙기 어업을 하는 사람을 ‘설래끼꾼, 슬래끼꾼’이라 하고 이들은 ‘해패, 일본조’라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 ⇒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설래끼꾼}.꾼 자 쓰거든요. 나무꾼이하는꾼자. {슬래끼꾼}.
- ⇒ {해패라고} 해서 채낙기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해패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지금 지금은 인자 거 어업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이렇게 조금 줄어들다보니까. 그 해패가 이제 해산이 됐는데, 한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조라는} 어업 해패가 있었어요.

2.1.4. 해녀/보재이/보재기/물بار리

해녀는 바닷속에 들어가 해삼, 전복, 미역 따위를 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를 이르는 말로 욕지도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녀, 보재이, 보재기, 물بار리’로 부른다.

- ⇒ 그런데 {해녀를} 옛날에 {보재이라는} 말. 응, 보재이. 보재기는 보재기는 거 제주도부터 흘러나온 말이지. 보재기라기 보다는 보재이. 그냥 보재기.
- ⇒ 해녀는 욕지꺼지 돼도 {보재기라고} 많이 씁니다.
- ⇒ {물바리라} 카고.

2.1.5. 상바리, 중바리, 하바리

해녀 중에는 자물질을 잘하는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는 말이 분화되어 있다. 한자어인 상(上), 중(中), 하(下)를 붙여 ‘상바리, 중바리, 하바리’하여 구분해 부르고 있다. 이는 상위범주인 ‘물바리’와 유사한 어형임을 알 수 있다.

- ⇒ 그 해녀들도 잘 하는 오래된 해녀, 초짜해녀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다르던데 혹시 아시는 거 계세요? 거기 있는데, {상바리}, {중바리}, {하바리}.

이상으로 행위자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행위자 관련 명칭

범주	어휘 항목		
행위자	어부	일반 명칭	어부, 뱃사람, 뱃놈
		하는 일에 따라	선주, 적군, 사공, 하장, 기관장, 기관조, 선장, 선조
		어로방식에 따라	설래끼꾼, 슬래끼꾼, 해패, 일본조
	해녀	일반 명칭	해녀, 보재기, 보재이, 물바리
		능력에 따라	상바리, 중바리, 하바리

2.2. 시간

환경 범주에서 시간에 관련된 어휘는 물때, 미세기, 하루로 하위범주를 나누어 조사하였다.

2.2.1. 물때

표준국어대사전에 물때는 ‘아침 저녁으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라 풀이하고 있다. 육지도의 물때에 관한 어휘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1) 한물/한무새/한물새

‘한물, 두물, 서물.....’과 같이 ‘양수사+물’의 형태, ‘한무새, 두무새, 세무새.....’와 같이 ‘양수사+무새’의 형태, 또한 이 둘의 혼합형인 ‘한물새, 두물새, 세물새.....’ 등과 같이 ‘양수사+물새’의 형태 조사되었는데 이 중 한물, 두물과 같은 ‘-물’의 형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한다.

- ⇒ {한무새}, {두무새}, {세무새} 쓰는 것도 있고, 한물 두물도 하고 그건 다 씁니다. 두 가지 다 같이 표현하게 되고. 오늘 한물 갖고, 오늘 한물새가? 오늘 몇 물새고? 몇물이가 그렇게 보통 다 씁니다.
- ⇒ 그리 우리는 그리 쓰지. {한물새}, {두물새}. 오늘 두물새, {세물새인데}, 그리 그리 합니다.
- ⇒ {한물}, {두물}, {서물}, {너물}.
- ⇒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물}.
- ⇒ {열한물}, {열두물}, {열세물}.

2) 조금/조금때/조금시/한조금, 사리때/양시때/왕시

‘조금’은 음력 8일, 음력 23일로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적을 때’를 이르는 말이다. ‘조금’을 육지도에서는 ‘조금, 조금때, 조금시, 한조금’이라 한다. 서해안 중부인 태안 지역에서

는 ‘한조금’은 음력 초이레와 스무이틀을 이르는 말인데²⁾ 육지도에서의 ‘한조금’은 조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리’는 사전에 등재된 의미로는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큰 날’이지만 지역에서는 ‘물이 가장 낮은 날,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날, 물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조수간만의 큰 차로 인해 물이 가장 많이 빠지지만 지역의 주민들은 ‘물이 많이 빠져 고기 잡으러 가는 날’로 인식하고 있고 갯벌 작업도 사리때 작업을 하러 간다고 한다. 사리라는 어휘보다는 이 지역에서는 ‘사리때, 양시때, 왕시’라 한다. 양시때 물의 수위가 낮아지는데 이때 채낚기 어업 중 감성이(감성어) 잡이를 하러 간다고 한다.

- ⇒ 조금을 그냥 {조금시}.
- ⇒ 그러면 열세물부터 {조금을} 보는 거라. 말하자면 한물 두물까지.
- ⇒ 그 다음에 인제 우리 그 뿔락이나 이런 채낚기. 그 설낚기는 그 {조금때에} 해야 돼. 사리때에 하면은, 그 뭐야 낚시 들어가기 전에 벌써 떠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리때는 물살이 썰고, 조금때는 물살이 느리거든요.
- ⇒ 조금은 {한조금이라} 하고. 스물사흘 한조금.
- ⇒ 조금을 그냥 조금이라 안 하고 {한조금}.
- ⇒ 조금시에는 인자 뿔락이나 덕, 덕에 가서 낚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사리때 양시때라 그러거든. 양시. 여기는 {양시때라}.
- ⇒ 거 요 {사리때를}, 사리를 갖다가 왕시라 하거든, 왕시.
- ⇒ 우리가 사리때를 {왕시라} 하고.
- ⇒ 물빨 많이 실 때에는 물 많이 나고 하는 걸 {양시때}.

3) 아침조금, 열네물, 스무이튿날

‘조금’이 음력 8일, 음력 23일을 이르는 말이라면 아침조금은 음력 22일로 조금 전날을 이르는 말이다. ‘스무이튿날’이라 하기도 하고 ‘아침조금’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는 물때로는 열네물에 해당되는 날이므로 ‘열네물’이라고도 한다. 서해안 중부인 태안 지역에서는 ‘아침조금’은 음력 초엿새와 스무하루를 이르는 말인데 육지도에서는 스무이튿날을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 ⇒ 한물, 두물, 아침조금 뭐 한조금. {열네물을} 갖다가 아침조금이라 해요.
- ⇒ {스무이튿날은} 아까 말한 거 같이 아침조금.
- ⇒ 열네물을 {아침조금이라} 합니다.

이상의 물때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2011년 민족생활어조사 5』 (2011)의 138쪽 참조.

〈표 6〉 물때 관련 명칭

범주	어휘 항목
물때 명칭	한물, 두물, 서물, 너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한무새, 두물새, 세무새 한물새, 두물새, 세물새
조금	조금/조금때/조금시/한조금
사리	사리때/양시때/왕시
기타 물때	아침조금, 열네물, 스무이튿날

2.2.2. 미세기

1) 밀물/들물, 썰물/날물/뜰물

‘미세기’란 밀물과 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 중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는 물을 ‘썰물’이라 하는데 육지도에서는 ‘뜰물, 날물, 썰물’이라 하며, 반대로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물을 ‘밀물, 들물’ 등으로 사용한다. 독특한 것은 ‘썰물’을 ‘날물’ 외에 ‘뜰물’이라 하는 것인데 ‘뜨다’라는 어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추측, 예정을 나타내는 ‘-ㄷ’ 어미를 동반한 ‘뜰물’형도 나타나고 있다. ‘날물’은 ‘나다(出)’의 어간에 ‘물’이 붙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밀물은 ‘들다(入)’ 어간에 ‘물’이 붙여진 합성어 ‘들물’이 함께 쓰인다.

- ⇒ {밀물이} 들어오는 기고. 인자 나가는 기 {썰물이고}.
- ⇒ {날물도} 씨는데 썰물, {들물도} 많이 씁니다.
- ⇒ {뜰물}. 뜰물.

2) 물 들다/물 들어오다/밀물 밀려들어오다, 썰물 쓸어지다/물 나다/물 가다/물 빠져 나가뿌다

밀물 때 육지로 물이 들어오는 ‘물밀다’에 해당하는 어휘는 ‘물이 들다, 물이 들어오다’ 등이 있고, 물이 바다로 나가는 ‘물써다’에 해당하는 의미의 어휘에는 ‘썰물 쓸어지다, 물이 나다, 물 가다, 물이 빠져나가뿌다’ 등의 형태가 있다. 이 중 ‘물들다’는 ‘물+들다’의 형태인데 ‘들다(入)’가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바다를 밖이라 보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육지를 안으로 보고,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이라 보는 것이다. ‘물써다’는 다양한 형태 어휘로 사용되고 있는데 ‘물+나다, 가다, 빠지다, 쓸어지다’라는 연어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 ⇒ {썰물이 쓸어지는} 거. {밀물은 밀려들온} 거.
- ⇒ 오늘은 물이 오늘 조금달이어서 {물이 마이 든다}. 많이 든다. {물이 많이 난다}. 난다. 낮아지니까 난다. {빠져나갔뿌다} 이말이야.
- ⇒ 물때는 뭐 왕시때니,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왕시때. {물이 많이 갈} 때는 조금때. 뭐 그런기죠.

이상의 미세기에 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미세기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밀물	들물, 밀물
썰물	날물, 썰물, 뜰물
물밀다	물 들다, 물 들어오다, 밀물 밀려들어오다
물써다	썰물 쓸어지다, 물 나다, 물 가다, 물 빠져나가뿌다

2.2.3. 하루

하루는 새벽부터 식사 때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크게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 중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침, 점심, 저녁 사이 시간을 ‘나절’에 해당되는 ‘나제’라는 어휘를 사용하며 ‘아침나제, 점심나제, 저녁나제’라 하였다. 그리고 저녁을 ‘정때’라 하기도 한다.

1) 새벽/ 새벽복새/ 새벽녘, 아침/ 아침밥때

하루의 시작은 ‘새벽’이다. 해가 떠오르는 무렵인 새벽을 육지도에서는 ‘새복, 새벽복새, 새벽녘’이라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였고, 아침은 ‘아침, 아침밥때’라 하였는데 하루를 식사때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그대로 나타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 ⇒ {새벽복새} 크면은 인자 저 태양이 떠오르기 위해서 부우하니 전부 이 그 벌게지잖아요. 그걸 새벽복새다 이러던데.
- ⇒ {새복}, 새복 많이 합니다.
- ⇒ 새벽에, {새복녘에} 나간다.
- ⇒ {아침밥때}. 점심때는 점심때.
- ⇒ {아침}, 참 글코도 하고.

2) 중참/점심때, 저녁/정때/해거름때, 초저녁, 밤중, 한밤중

점심은 ‘중참, 점심때’라 하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 참을 ‘새에참’이라 하는데 말 그대로 ‘(점심과 저녁)사이에서 먹는 참’이라는 말의 축약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2~4시 사이에 먹는 참을 뜻하기도 하고, 그 시기를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오후는 저녁, 밤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저녁은 ‘저녁, 정때, 해거름때’라 하고 하위분류어로 ‘초저녁’도 있다. 밤에 해당되는 어휘는 ‘밤중, 한밤중’이 사용되고 있다.

- ⇒ {중참}. 중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에참.
- ⇒ 그 인제 {새에참이지}.
- ⇒ {초저녁}. 그러는데 뭐 있나.
- ⇒ {해거름때}. 해거름때도 아까 앞에 말과 비슷하지. 저녁때니.
- ⇒ {저녁때를}. 한꺼번에 붙여서 정때.
- ⇒ 저녁때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정때}.
- ⇒ 밤도 {밤중}. 밤중 아주 깊었다 이말이지.
- ⇒ 한밤중이지. {한밤중}.

3) 아침나제, 점나제, 저녁나제

육지도에서 사용하는 어형 중 특이 어형은 ‘아침나제, 점나제, 저녁나제’가 있다. ‘나제’는 일반적으로는 ‘낮+에’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나절’에 해당되는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 ‘아침나제’는 아침부터 점심 전 사이를 이르는 말이고, ‘점나제’는 점심나절을 이르는 말이다. 또한 ‘저녁나제’는 저녁나절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 ⇒ {아침나제}. 그러니까, 아침부터 점심까지 아침나제.
- ⇒ 아침나제, {점나제}.
- ⇒ 아까 아까 말씀하신 점심에서 저녁때까지 {저녁나제}.

이상의 육지도에서 사용하는 하루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하루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새벽	새복, 새벽복새, 새벽녁	
아침	아침, 아침밥때	아침나제 점나제, 새에참 저녁나제
점심	점심, 점심때	
저녁	저녁, 정때, 해거름때	
밤	밤중, 한밤중	

지금까지 정리된 시간에 관련된 어휘를 통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시간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시간	물때	한물, 두물, 서물, 너물 한무새, 두무새 한물새, 두물새, 세물새, 네물새 사리때/양시때/왕시, 조금때/조금시/한조금 아침조금/열네물/스무이튿날
	미세기	썰물/날물/뜰물, 밀물/들물 물 들다, 물 들어오다, 밀물 밀려들어오다 썰물 쓸어지다, 물 나다, 물 가다, 물 빠져나가뿌다
	하루	새복/새벽복새/새벽녁→아침/아침밥때→아침나제→점심/점심때→점나제, 새에참→저녁/정때/해거름때→저녁나제→밤중→한밤중

2.3. 날씨

2.3.1. 바람

바람은 어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어촌지역에서 바람에 관한 어휘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남동풍을 ‘균등바람’이라 하는데 이는 남동풍이 불면 ‘균등내(군내의 경남방어형)’와 같이 쿼쿼한 기운이 들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이 바람이 불면 무더위 일하기가 힘들다. 북서풍은 ‘편갈, 된갈’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육지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사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해서 ‘사천내기, 사천내이’라 하기도 한다. 이는 사람의 출신 지역을 뜻하는 접미사가 붙은 어형임을 알 수 있다. 남동풍이 조금 더 아래인 남쪽으로 치우쳐 불면 ‘서마, 시마, 서매’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거나, 날이 안 좋아진다고 한다. 또한 ‘바람(이) 잘 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바람이 세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1) 섯바람, 갈바람, 마파람/맞바람, 된바람

바람은 기본적으로 방위를 기준으로 동, 서, 남, 북으로 나누어 고유어로 바람의 이름을 사용한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섯바람’, 서풍은 ‘갈바람’, 남풍은 ‘마파람, 맞바람’, 북풍은 ‘된바람’이라 한다. 육지도에서 마파람은 5월부터 9월까지 부는 바람이다.

- ⇒ 이기 동쪽에 동쪽에다 부는 거는 {섯바람이거든}.
- ⇒ 우리가 그러면 {섯바람이} 있고. 그래 이걸 다 얼추 같습니다.
- ⇒ 남풍 불어오는 걸 {마파람이라고}.
- ⇒ {맞바람은} 바로 남쪽에서 오는 게 맞바람이지.
- ⇒ 북쪽이 {된바람이고}.

- ⇒ 서풍은 {갈바람}.
- ⇒ {갈바람은} 갈바람이 서풍이거든. 갈바람이.
- ⇒ 그것도 태풍도 주로 부는 게 {셋바람}. 셋바람하고 {맞바람하고} 셋바람 그 중간이 서마거든요.

2) 높새바람/높새갈/셋갈, 갈서마/늦갈, 군등바람, 된갈/편갈/사천내기/사천내이

어촌지역은 어로 활동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동, 서, 남, 북 정방위에서 오는 바람 뿐 아니라 북동, 남서, 남동, 북서풍 등으로 더 세분화되어 있다.

육지도에서 북동풍은 ‘높새바람, 높새갈, 셋갈’이라 하고, 남서풍은 ‘갈서마, 늦갈’, 남동풍은 ‘군등바람’, 북서풍은 ‘된갈, 편갈, 사천내기, 사천내이’라 부른다. 제보자들의 말로는 정방향의 사이에서 부는 바람은 ‘갈’이라는 말이 붙는다고 하고 이는 ‘높새갈, 셋갈, 갈서마, 늦갈, 된갈, 편갈’ 등의 어휘에서 나타나고 있다. ‘늦갈’은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면서 바람의 속도가 느려서 늦갈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중 독특한 어휘는 북서풍인 ‘사천내기, 사천내이’인데 육지도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사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서 ‘사천내기, 사천내이’라 하는데 이는 ‘서울내기’에서와 같이 사람의 출신 지역을 뜻하는 접미사 ‘-내기’가 붙은 어형이다. ‘군등바람’은 6월부터 여름에 많이 부는 바람인데 제보자의 말을 빌리면 ‘바람이 뜨뜨하니, 굼굼하니 그 바람이 불면 덥다’라고 한다. 여름에 습기가 많이 포함된 바람이라고 한다.

- ⇒ {높새갈로} 불었다. 흔히 안덤에서 안 하나. 그럼 높새갈로 불었다 부르는 바람은 뭐냐 하면은 동쪽하고 북쪽하고 새에 그랑게, 요서 오는 바람이 {높새바람이라}.
- ⇒ {높새로} 불었다. 고마.
- ⇒ 북동풍이 북동풍이 {셋갈}, 셋갈이라 분다. 셋갈. 바람이 오늘 새로 불었다 그러면 동풍이고, 셋갈로 불었다 그러면 북동풍이고.
- ⇒ 갈바람하고 맞바람 사이에 오는 거는? {갈서마라고} 있다매, 갈서마.
- ⇒ 그러면 그건 이렇게 그 늦갈이라 안 합니까? {늦갈}.
- ⇒ 그랑게. 늦갈이라. {늦갈}.
- ⇒ 요기 동쪽이 아이가?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요마 요 새는 요기 {군등바람이라}.
- ⇒ {된갈} 어저께 얘기 안 합디까? 그러면 요리 오면은 인자 높. 저 된바람.
- ⇒ {사천내기라} 그러는 기. 우리가 무식한 말로 사천내이라 그러지. 요기 사천갈으면 사천개에서 나오는 바람. 거기 된갈이거든. 그런디 아이고 사천내이라 불었네.
- ⇒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다가 동풍은 셋바람, 된바람은 북쪽에서 오는 겁니다. {편갈은} 편갈이라 하는 건 {사천내이라고}.

3) 서마(바람)/시마(바람)

‘서마, 시마’는 남남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이르는 말이다.

- ⇒ 인자 거기 군등바람이고 군등바람이고, 이자 그 우를 쫘 비키면은 거기 {서마고}, 서마바람. 서마, 서마바람.
- ⇒ 이제 울로 남으로 쳐지면 그래서 {시마바람}.
- ⇒ {시마라} 하기도 하고 서마라 하기도.

4) 좋은 바람, 나쁜 바람

어촌에서는 생활에, 어로활동에 도움이 되는 바람은 좋은 바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나쁜 바람이라 한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군등바람은 6월부터 여름에 많이 부는 바람인데 제보자의 말을 빌자면 ‘바람이 뜨뜨하니, 굼굼하니 그 바람이 불면 덥다’라고 한다. 여름에 습기를 많이 포함한 바람이라고 한다. 군등바람이 불면 일하기가 힘들어 나쁜 바람이라 본다. 이처럼 생활과 어휘에 대한 인지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 ⇒ 그러면 말이지. 우리가 보통 말이지. 군등바람이. 아 이 {군등바람이 참 나쁘다}. 쿼퀴한 바람이 오면서로 덥다. 이라면서 웃통도 벗고 말이지.
- ⇒ {군등바람이} 바람이 오는 계절이 언제니까? 그러면 유월 달쯤 되겠네. 여름.

5) 돌풍

회오리 바람을 ‘돌풍’이라 한다.

- ⇒ 고마 여기서는 뭐 이 보통 {돌풍을} 말하거든요. 근데 돌풍이라고도 돌풍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돌풍이라 하지. 돌풍.

6) 바람 불다, 바람 잘 불다/ 바람이 세다, 썸타

육지도에서는 ‘바람(이) 불다’ 형식의 연어 구조로 사용하고 ‘바람이 잘 불다’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세게 불다’라는 부정적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라 한다. 또한 ‘시원하다’는 줄여서 ‘썸타’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된갈을 이 지역에서는 사천에서 불어온다 해서 사천 쪽에서 {불어} 온다 해서 사천내기.
- ⇒ 바람이 {불면은} 여 차 해가지고 손을 갖고 저 이래 밀어가면서네 바람을 어든 바람이 부는고, 무슨 바람이 부는고.
- ⇒ 또 {바람이 세다는} 말은 잘 불었다.
- ⇒ 갈바람이 세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잘 불었다}.
- ⇒ {썸타}. 썸타. 시원하다가 썸다.

7) 서마 불면 태풍 온다, 서마 하면 나을 세다, 셋바람 불고 서마 하면 날이 안 좋다, 큰 나을 하면 태풍이 크게 온다. 바람 잡다

바람을 살피면 일기를 알 수 있다. 더군다나 과학적 일기예보가 없던 시기에는 더 바람이나 주변의 환경을 살피면서 일기를 예측하였다고 한다. 일기를 예측할 수 있는 바람과 관련된 관용 표현은 많다. 그중 남남동풍인 ‘서마’와 관련된 표현이 많이 수집되었다. 육지도에서는 서마 바람이 불면 너울이 세고 날이 흐려진다고 한다. 그리고 태풍이 오면 서마 바람이 불고, 셋바람 불고 서마바람이 불어도 날이 흐려진다. 또한 ‘된갈’ 바람이 분 뒤에도 태풍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바람을 통해 일기를 예측할 수 있는 어

러 방법이 있다.

관용 표현 중 ‘바람 잡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일기를 예측하는 행위를 말한다. 요즘과 같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정확한 일기예보가 없던 시기에는 배에서 어로행위를 할 때 선장은 바람을 통해 기후를 잘 예측하여야 했는데 신체를 통해 바람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기후를 예측하였는데 이를 ‘바람 잡(는)다’라고 한다.

- ⇒ 자 맞바람은 인자 우로 가가지고 또. 바람이 여러 가지라. 요 {서마바람, 요는 태풍을 가오는 바람이고}.
- ⇒ {서마가 그리 불면 태풍이 오는} 기 거든요.
- ⇒ 그래서 여름철에 들어오는 바람, {태풍은 주로 서마}. {서마로 하는 거 보고 오늘 나올이 새것다}. 파랑이 많이 이는 걸 나올이라고 하거든요. 나올이 시다. 그 다음에.
- ⇒ 그 {서마에서부터 시작한다, 태풍은}.
- ⇒ {된갈로 불고 해도 태풍은 하는 수가 있습니다}.
- ⇒ 큰 나올 했다, 큰 나올 했다 궁께요. 태풍 크게 오면 큰 나올 이라하는데, 그런데 요 그때 분 바람이 한 번 {된갈로 분} 때가 있어요.
- ⇒ 주로 섯바람, {서마 들어오고 하면은 날이 안 좋았다가} 그런다고. {섯바람이 오면은 날이 안 좋았다든가}. 그런 얘기를 인자 들었어요.
- ⇒ {바람 잡는다} 쿠고 든요. 카면 선장이 콤파스도 볼 줄 모르고 또 뭐 해조도 볼 줄 모르고. 바람이 불면은 여 차 해가지고 손을 갖고 저 이래 밀어가면서네 바람을 어든 바람이 부는고, 무슨 바람이 부는고. 보기해서 바람 잡는다고 합니다.

이상의 욕지도에서 사용하는 바람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바람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방향에 따른 이름	동풍	서풍
	섯바람	갈바람
	남풍	북풍
	마파람, 마파람	된바람
	북동풍	남서풍
	높새(바람), 높새갈, 섯갈	갈서마, 늦갈
	남동풍	북서풍
	군등바람	된갈, 편갈, 사천내이, 사천내기
	남남동풍	
	서마(바람), 시마(바람)	
나쁜 바람	군등바람	
회오리 바람	돌풍	
기타	바람(이) 불다, 바람 잘 불다(바람이 세다), 썩타	
관용 표현	서마 불면 태풍 온다, 서마 하면 나올 세다. 섯바람 불고 서마 하면 날이 안 좋다. 큰 나올 하면 태풍이 크게 온다. 바람 잡다.	

2.3.2. 비

비는 내리는 양, 시기, 성격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분화되어 있다. 현장 조사에서는 크게 소나기, 이슬비, 장맛비에 관한 어휘를 조사하였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것을 ‘모린 장마, 건장마’라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卜’ 모음을 ‘ㄱ’ 모음으로 사용한 어휘가 많이 나타났다. 여우비는 ‘오늘 호랭이 장가가는 갑다’라 하며 서술형으로 풀이해서 사용하였다.

육지도에서 사용하는 비에 대한 어휘는 아래와 같다.

1) 소나기/소내기/쏘내기/소낙비

갑자기 세차게 내리는 비인 ‘소나기’는 ‘소나기, 소내기, 쏘내기, 소낙비’라 한다.

- ⇒ {쏘내기} 아닙니까.
- ⇒ {소내기} 뭐, 여러 가지예요.
- ⇒ 막 따라 붓는 거는 인제 그건 {소나기}.
- ⇒ 말하자면 소가 이 서가 있는데, 여 서가 있는데, 요짜가 덩어리는 거는 {소낙비}로 맞고.
- ⇒ 소내기가 오면은 소내기가 젼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데 그런데 옛날 나 많은 사람들이 산에 소를 먹이는데 소 이 등이 안 있어요. 소 등이 있으면 요쪽이랑 오른쪽이랑 다르거든요. 오른쪽에서는 비가 내리는데, 소 등에. 왼쪽에는 비가 안 왔다. 그만큼 사실이 그런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요 이 마을에서는 비가 나리는데, 저쪽 마을은 비가 안 왔다.

2) 가랑비, 이슬비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를 ‘가랑비’라 하고, 가랑비보다 더 가는 비를 ‘이슬비’라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두 비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고 있다.

- ⇒ {이슬비니} 보통 다 씁니다. 이슬비니 가랑비니 이건 어디가나.
- ⇒ 이슬비니 {가랑비니} 가라고 가랑비, 있으라고 이슬비.
- ⇒ {가랑비는} 꾸준하게 오고 가며 비를 맞는가 싶어도 옷은 젖지 않고.

3) 장마/장맛비, 마른 장마/모린 장마/건장마

장마 때 내리는 비는 ‘장맛비’라 하고 장마가 되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장마를 ‘건장마, 마린 장마, 모린 장마’라 하는데 육지도에서는 모음 ‘卜’를 대신해 ‘ㄱ’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 ⇒ 장마 때 오는 비를 뭐 {장맛비} 그러지.
- ⇒ 그건 뭐시기여. {마른 장마}.
- ⇒ {건장마}도 있지.
- ⇒ 마린 장마라고 {모린장마}. 모린장마.

4) 오늘 호랭이 장가가는 갑다

별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인 ‘여우비’는 여우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호랭이 장개 가는 갑다’라는 말로 쓰고 있다. 이는 여우비라는 말 대신에 이를 문장으로 풀어 쓴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그게 오니까 막 {오늘 호랭이 장가가는 갑다} 하거든. 인자 별이 잘 드러나 있는데, 금방 해가 가려지면서 소내기 한 번 오는 걸 그거를 인자.

5) 비 오다, 비 그치다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내리다’라는 표현은 옥지도에서는 ‘비가 내리다, 나리다, 오다’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흐리거나 궂은 날씨가 맑아지는 ‘비가 개다’라는 표현을 ‘비가 그치다’라고 표현한다.

- ⇒ 오른쪽에서는 {비가 내리는데}, 소 등에. 왼쪽에는 비가 안 왔다.
- ⇒ 이 마을에서는 {비가 나리는데}, 저쪽 마을은 비가 안 왔다.
- ⇒ 가랑비는 꾸준히 {오고} 가며 비를 맞는가 싶어도 옷은 젖지 않고.
- ⇒ 이슬비는 곧 {그친다} 이 말이야. 좀 기다려줘도 길게 안 온다 이 말이고.

이상의 비에 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비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소나기	소나기, 소내기, 쏘내기, 소낙비
이슬비	이슬비, 가랑비
여우비	호랭이 장가 가는 갑다
장맛비	장맛비, 건장마, 마린 장마, 모린 장마
기타	비 내리다, 비 나리다, 비 오다, 비 그치다

2.3.3. 눈

옥지도는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다. 그래서 눈에 관련된 어휘는 많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 눈에 대한 일반적인 어휘와 ‘진눈깨비’, ‘우박, 우박비, 기작’ 정도가 조사되었다. 또한 기타 어휘로 물이 얼어 얼음이 생기는 것을 ‘얼음이 지다’로 연어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지다’는 다양한 어휘와 연어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해머리 지다/하다, 달머리 지다/하다’ 등에서도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눈에 관한 어휘는 아래와 같다.

1) 눈, 진눈깨비/ 진눈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대표형인 ‘눈’을 많이 사용하고 눈 중에도 눈과 비가 섞여오는 ‘진눈깨비, 진눈’이라 하는데 이중 ‘진눈깨비’를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 ⇒ 우리가 몇 년만에 {눈} 왔는, 뭐 조금이라도 눈이라도 불라하면 힘든데, 옛날에도 우리 어릴 때도 눈이 조금 날리도 뭐 눈에 대한 뭐 뭐 거 우리가 뭐 사람 눈이니 그런 거 안 있습니까?
- ⇒ {진눈} 크는데, 여는 진눈보다 진눈깨비라 하는데 근데, {진눈깨비는} 사투리 아이거든요. 여도 진눈깨비.

2) 고드름, 얼음, 우박/우박비/기작

‘고드름’, ‘얼음’은 표준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우박은 ‘우박, 우박비, 기작’이라 한다.

- ⇒ 그러면 여는 {우박비라고} 막 수수 구부려 내려오는 거 그거는.
- ⇒ 그것도 뭐 우리 {기작이다} 안 합니까? {우박이} 쏟아진다고.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이만한게
- ⇒ {고드름}. 물이 내려진 거 고드름.
- ⇒ {얼음도} 오는 하나도 안 어는데, 우에 올라가면 얼음이 지고.

3) 눈 오다, 눈 날리다, 우박 쏟아지다, 물 얼다, 얼음이 지다

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눈 오다, 눈 날리다’ 등의 연어 형식으로 사용되고 우박은 ‘쏟아지다, 오다’로 사용한다. 얼음이 어는 것을 ‘물 얼다, 얼음 얼다, 얼음 지다’로 ‘얼다, 지다’와 연어 형식으로 사용한다.

- ⇒ 눈을 오는 방법도 희한해. 요직이서 인자. 저 천안골로 {눈이 오는데} 요 밑에는 또 비가 오는 수가 있거든.
- ⇒ 우리가 몇 년 만에 눈 왔는, 뭐 조금이라도 눈이라도 불라하면 힘든데, 옛날에도 우리 어릴 때도 {눈이 조금 날리도} 뭐 눈에 대한 뭐 뭐 거 우리가 뭐 사람 눈이니 그런 거 안 있습니까?
- ⇒ 그러면 여는 {우박비라고} 막 수수 구부려 {내려오는} 거 그거는
- ⇒ 그것도 뭐 우리 기작이다 안 합니까? {우박이} 쏟아진다고.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이만한게.
- ⇒ 이만한 게, 이만해. 머리에 {쏟아지면} 머리가 아프지. 그기.
- ⇒ 일 년에 물이 여기 얼라 하면은 적어도 영하 한 오도는 내려가가고서 한 이삼일 해줘야 물이 윽게 어는데 일 년에 {물이 어는} 게 몇 번 안 됩니다.
- ⇒ {얼음도} 오는 하나도 안 {어는데}, 우에 올라가면 {얼음이} 지고.

이상의 눈에 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눈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눈	눈, 진눈깨비, 진눈
우박	우박, 우박비, 기작
얼음, 고드름	얼음, 고드름
기타	눈 오다, 눈 날리다, 우박 쏟아지다, 우박 오다 물 얼다, 얼음 얼다, 얼음이 지다

2.3.4. 해 · 달 · 별

‘해돋이, 해넘이’라는 어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풀어서 ‘해(가) 뜨다, 해(가) 돈다, 해(가) 지다, 해 넘어가다’ 등으로 사용한다. 외에도 해·달·별에 관련된 말에 ‘해무리, 해머리, 달무리, 달머리, 무지개, 은하수’라는 어휘가 쓰이며 ‘해무리 지면 날 좋고, 달무리 지면 날 궂다, 달무리 하면 날 궂다, 별이 달무리에 딱 붙어 있으면 날 궂다’고 날씨를 예측하기도 하였다. ‘해무리 하다/지다, 달무리 하다/지다’의 연어 형식으로 사용한다. 날이 궂은 것을 ‘궂날 지다, 궂날 가다’라 표현하기도 한다.

1) 해 뜨다/해(가) 돈다, 해 지다/해 넘어가다

‘해돋이, 해넘이’라는 어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풀어서 ‘해 뜨다, 해(가) 돈다, 해 지다, 해 넘어가다’ 등으로 사용한다.

- ⇒ {해가 뜬다}, 크지 뭐.
- ⇒ 보통 하는 게 {해가 돈다}. 그런 말은 쓰지요.
- ⇒ {해 뜬다}. 해 났다.
- ⇒ 우리는 고마 {달머리 한다}, 이려고 {해머리 한대요}. 해가 뜬대요. {해가 진대요}.
- ⇒ 해 {넘어간다}.

2) 해무리/해머리 하다/지다, 달무리/달머리 하다/지다

육지도에서는 햇빛이 대기 속의 수증기에 비치어 해의 둘레에 둥글게 나타나는 빛깔이 있는 테두리를 ‘해무리, 해머리’라 하고,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테두리를 ‘달무리, 달머리’라 한다. 해머리, 달무리가 생기는 것을 ‘해머리 하다, 해무리 지다, 달머리 하다, 달머리 지다’라고 ‘하다, 지다’와 연어 형식으로 사용한다.

- ⇒ {해무리}. 근데 해무리도 표준어거든요. 그리고 달맞이니 {달무리니}.
- ⇒ 여 따로 쓰는 건 없지요. 보통 다 {해무리고}.
- ⇒ 보통 우리 하는 말이 아이고 {해머리} 했대요.
- ⇒ 우리는 고마 {달머리 한다} 이려고 {해머리 한대요}. 해가 뜬대요. 해가 진대요.

- ⇒ {달무리가 지면은} 그것도 거 달무리가 지는 것도 {해무리가 지면은} 그게 좋고 달무리가 지면은 날이 낫날 간다.

3) 별/벨, 은하수

육지도에서 별은 보통 ‘별, 벨’이라 표준형과 방언형 두 가지로 나타나고, 은하수는 ‘은하수’라는 표준 어형이 그대로 쓰인다.

- ⇒ 우리가 보통 {벨이}, {별이} 달무리에 딱 붙어 있으면 ‘아이구 날 낫겠네’ 그런 말도 하고.
⇒ {은하수는} 은하수도 여기도 다 은하수라 그러합니다.

4) 해무리 지면 날 좋고 달무리 지면 날 낫다, 달무리 하면 날 낫다, 별이 달무리에 딱 붙어 있으면 날 낫다

과학적으로 기후를 예측할 수 없던 시기에는 주변의 환경 변화를 읽으면서 일기를 예측할 수 있었다. 해무리, 달무리를 통한 일기 예측도 많았는데 해무리가 지면 날이 좋고, 달무리가 지면 날이 흐려진다고 한다. 또한 별이 달무리 옆에 딱 붙어 있어도 날이 낫다고 한다.

- ⇒ {별이 달무리에 딱 붙어 있으면 날 낫다}.
⇒ {날 낫다. 달무리 뜨는} 거 보고.
⇒ {해무리 하는 거 보게나, 날이 좋겠다}. {달무리하는 거 보니까 날이 낫겠다}.
⇒ 우리가 보통 벨이, {별이 달무리에 딱 붙어있으면 아이구 날 낫겠네} 그런 말도 하고.

이상의 해·달·별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해·달·별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해돋이	해 뜨다/해(가) 돋는다
해넘이	해 지다/해 넘어가다
햇머리, 달머리	해무리(해머리) 하다, 해무리(해머리) 지다 달무리(달머리) 하다, 달무리(달머리) 지다
관용표현	해무리 지면 날 좋고, 달무리 지면 날 낫다, 달무리 하면 날 낫다, 별이 달무리에 딱 붙어 있으면 날 낫다
기타	별/벨, 은하수

2.3.5. 기타

1) 번개(치다), 마른 번개, 벼락(치다), 노성(치다)

옥지도에서 ‘번개’는 ‘번개, 뽕개’라 하며, ‘천둥’은 ‘노성’이라 한다. ‘벼락’은 ‘베락’이라 하고 ‘번개 치다’, ‘베락 치다’, ‘노성 치다’와 같이 ‘치다’와 연어 형식으로 표현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베락’이 ‘벼락’의 경남 방언형으로 되어 있지만 의미 차이가 있고 ‘베락’은 ‘벼락’의 방언형이다. ‘마른 번개’는 날이 흐리거나 비도 오지 않는데 번개만 번쩍 치는 경우를 말한다.

- ⇒ {번개} 치고 난 다음에 쾡 소리.
- ⇒ {뽕개}. 불 뽕쩍하는 것은 뽕개데, 날이 안 꺾는데, 비도 안 올긴데, 뽕개가 치거든요.
- ⇒ {마른 뽕개}. 마른 날에 뽕개가 쳐서 마른 뽕개.
- ⇒ 날이 안 꺾는데, 비도 안 올긴데, {뽕개가 치거든요}.
- ⇒ {베락이쥌}. 벼락.
- ⇒ {노성}. 뇌성 안 하고 노성.
- ⇒ 우리는 보통 요서 {노성을 친다} 그러합니다.

2) 구름/구림/구램, 톱박구름/동방구름, 안개, 투(끼다/깊다)

옥지도에서 구름은 ‘구름, 구림, 구램’이라 하고 하위 범주에는 모양에 따라 ‘새구름, 뭉개구름, 톱박구름, 동방구름, 두둥구름’ 등이 있고 성질에 따라 ‘비구름’도 있다. 그 중 ‘톱박구름, 동방구름’은 같은 구름을 이르는 말인데 구름 모양이 ‘전체에서 작은 덩어리로 잘린 모양’의 구름을 이르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톱방’은 ‘작고 가름한 물건이 깊은 물에 떨어져 잠기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이라 하고 ‘톱박’은 ‘목침’의 방언형이라 풀이하고 있지만 여기서 쓰이는 것과는 의미 차이가 있다. 하지만 ‘톱방’의 떨어진 모양 덩어리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안개는 ‘안개’라 하지만 안개와 비슷한 ‘투’가 일반적으로 쓰인다. 그만큼 안개보다는 투가 많이 낀다고 한다. ‘투’는 안개는 아닌데 눈앞에 뿌옇게 끼어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투가 끼면 날이 안 좋아진다고 한다.

- ⇒ 그를 뭐 {새구름} 간다 카고 뭐 막구름도 간다는 게 있고. 또 인자 {뭉개구름도} 있고 또 뭐.
- ⇒ 저 {구름에} 비 들었다 카고, 비구름 그거는.
- ⇒ {구림이} 동방톱방하다 보통 고마. 톱박구름.
- ⇒ {구램이} 비 올 구름이 요 생기면서 해가 떠 오르면 오늘 아침에 나와 보고 아이고 오늘 그 곳 날이 진다 이러거든요.
- ⇒ {비구름도} 있고.
- ⇒ 두둥실 떠가면 뭉개구름이, 뭉개가 뭉쳐지요. {뭉개구름이라고} 하고. 두둥실 높이 떠가면 {두둥구름이라고} 하고.
- ⇒ {톱박구름이라} 그러지. 톱방톱방 구름.
- ⇒ 구름이 {동방구름}. 동방구름이 뜨면 날이 좋다거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 ⇒ 거는 뭐 {투라고} 그러지 투. 투라고 우리가 또 뭐라 그러지요. 안개가 아닌 게 투거든. 우리 요서 말하면.
- ⇒ {투가 깎다요}.
- ⇒ 그니까 인자 {안개가} 아닌데, 시야가 흐릴 때, 뿌하거든요. 그걸 투가 깎다하거든요.
- ⇒ 안개 그 자체가 안개고 이 투라고 하는 건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날이 안 좋을라 하면은.

3) 서리(끼다/내리 앓다/오다/많이 나다/나리다), 무지개(뜨다)

육지도에서 서리는 표준 어형이 그대로 사용되고 서리가 생기는 것을 ‘서리 끼다, 서리 앓다, 서리 오다, 서리 나다, 서리 나리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한다. 무지개도 표준어형이 그대로 사용되며 무지개가 생기는 것을 ‘무지개 뜨다’라 한다.

- ⇒ {서리는} 하늘서 {나리는} 거이 서리고. 하얀 게 있었는데. 하얀 거. 하얀 거 나무 위에 나리가지고 서리가 {서리가 깎다}. 나무에 {서리가 내리 앓았다} 그런 말은 쓰지만도 나무에 자연적으로 생긴 거 아니고. {서리가 와} 가지고.
- ⇒ {서리가 많이 났다}. 서리가 많이 왔네. 보통 이런 말을 하거든요.
- ⇒ 그거는 {무지개라} 합니다.
- ⇒ {무지개가 났다}.

4) 날씨 관련 어휘 대립체계

날씨에 관한 어휘의 대립체계를 살펴보면 날씨가 좋은 것은 ‘날(씨) 좋다, 날 맑다, 빛날이 지다’ 등으로 표현한다. 이와 반대로 날씨가 흐린 것은 ‘날 궂다, 궂날 지다, 궂날 가다’ 등으로 표현한다. 이 중 독특한 표현은 ‘빛날 지다, 궂날 지다’인데 맑은 날을 ‘빛날’, 궂은 날을 ‘궂날’이라 표현하고 이들 어휘는 ‘지다’라는 어휘와 연어 형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날씨가 더운 것은 ‘덥다’, 시원한 것은 ‘썩타’로 어두 경음화된 형태로 표현한다.

- ⇒ 해 뜨는 날씨야, 뭐 해 났는 날씨는 그 해가 많이 빛날, {빛날이 졌다든가}.
- ⇒ 구름이 비 올 구름이 요 생기면서 해가 떠 오르면 오늘 아침에 나와 보고 아이고 오늘 그 {궂날이 진다} 이러거든요.
- ⇒ 맑대[막대]라 맑다. {맑다라} 쓰는데, 여가 빨리 도는 말이 날이 맑대[막대] 이립니다.
- ⇒ 아이고 날씨가 오늘 참 맑네[막네]. {날씨가 좋네}.
- ⇒ 지금 궂은 날의 졌습니다. 궂날. 궂은 날이라 안 합니다. {궂날이 졌다}. 궂날.
- ⇒ 궂은, 궂은 그걸로 다 됩니다. 궂날 가네 합니다. 졌다보다도 {궂날 가네}.
- ⇒ {날 궂다}. 달무리 뜨는 거 보고.
- ⇒ 뜨시다라는 말을 쓰기는 한데, 쓰기는 한데, 주되게 쓰지는 않고 그게 뭐야 덥다가 아니고 땀다. {덥다} 이렇게 해요.
- ⇒ {썩타}. 썩타. 시원하다가 썩다.

5) 관용표현

날씨에 관련된 관용 표현에는 주변 환경을 살핀 표현이 많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구름의 모양이 큰 덩어리에서 잘려 나온 형태인 ‘툰방구름, 동방구름이 뜨면 날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태풍이 오거나 해서 날이 흐려지면 배에 살던 쥐가 배 밖으로 도망을 나오거나 바닷가에 사는 강구벌레가 산으로, 물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또한 갈매기가 높이 떠날면 바람이 분다고 한다.

- ⇒ 구름이 동방구름, {동방구름이 뜨면 날이 좋다거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 ⇒ 배안에도 쥐가 살거든요. 날이 나쁠라 커먼은 큰 바람이 불라커드라먼은 배안에 있던 쥐가 이 가우창신 줄 매는 간에 그거를 버릿줄 하거든요. 밧줄이 아니고 버릿줄. {버릿줄을 요 타고 탁 쥐가 가로 내려옵니다}.
- ⇒ 아 태풍이 서마거든. 또 {갈매기가 높이 떠빠리먼은 아 요 바람이 불것네}.
- ⇒ 색깔은 조금 붉은 빛이 나고. 바다에 있는 건 강구가 검은 강구. 아마 사천도 안 있겠다. 강구라고 있어. 많이 있는데 거기 갯가에 놀다가 어떤 식의 날이 뭐 안 좋거나 하면. 우리 바닷가에 가면은 새까만 기 이런 게 막 바위에 붙어있다가 사람이 가면 싹 도망 가빠거든. 그걸 여기서 강구라 해요. 강구. 거기 산중으로 올라오면은. 파도가 올라하면은 아까 쥐가 배 속에서 밧줄타고 도망가는 식으로 {강구가 저 산으로 올라가}.

이상의 기타 날씨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기타 날씨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번개	번개, 번개 치다, 마른 번개
천둥	노성, 노성 치다
벼락	베락, 베락 치다
구름	구름/구림, 톱박구름, 동방구름, 새구름, 뭉게구름
안개	안개, 안개 끼다, 투 끼다
서리	서리, 서리 끼다/내리 앓다/오다/많이 나다/나리다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뜨다
어휘 대립체계	날(씨) 좋다, 날 맑다, 빗날이 지다 날 궂다, 궂날 지다, 궂날 가다
관용 표현	톱박구름/동방구름 뜨면 날 좋다. 버릿줄 타고 쥐가 내려오다. 갈매기 높이 떠빠리먼 바람 분다 강구가 산중으로 간다.

지금까지 정리된 날씨에 관련된 어휘를 통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날씨 관련 어휘

범주	조사 어휘				
날씨	바람	동풍	셋바람	서풍	갈바람
		남풍	마파람/맞바람	북풍	된바람
		북동풍-높새바람/높새갈/셋갈 남서풍-갈서마/늦갈, 남동풍-군등바람 남남동풍-서마/시마 북서풍-된갈/편갈/사천내기/사천내이(육지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사천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나쁜 바람: 군등바람이 참 나쁘다(일하기 힘들)			
		*서마 불면 태풍 온다, 서마하면 나올 세다, 셋바람 불고 서마하면 날이 안 좋다, 큰 나올 하면 태풍이 크게 온다			
		돌풍(회오리 바람), 바람 불다, 바람 잘 불다(바람이 세다)			
		비	소나기/소낙비/소내기/쏘내기 가랑비/이슬비 장마, 장맛비, 마른 장마/모린 장마/건장마 오늘 호랭이 장가가는 갑다		
	눈		눈, 진눈깨비(‘눈’에 관련된 어휘는 많이 분화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고드름, 얼음, 우박/우박비/기작 눈 오다↔개다/ 그치다, 물 얼다/ 얼음이 지다		
		해, 달, 별	해 뜨다/ 해가 돈는다↔해 넘어가다/ 해 지다 해무리/ 해머리(하다/ 지다), 달무리/ 달머리(하다/ 지다) 은하수 *해무리 지면 날 좋고, 달무리 지면 날 궂다, 달무리 하면 날 궂다, 별이 달무리에 딱 붙어 있으면 날 궂다 궂날 되다(날이 궂다)		
	기타		번개(치다), 마른 번개(비는 안 오는데 치는 번개), 벼락(치다), 노성(치다) 구름/구립/구렘, 톱박구름/동방구름, 안개, 투(끼다/ 깎다) 서리(끼다/내리 았다/오다/많이 나다), 무지개(뜨다) 날 좋다/빛날이 지다/맑다[막다]↔날 궂다/궂날이 지다/궂날 가다/날씨 나쁘다 *톱박구름 뜨면 날 좋다 *바람 잡는다(선장이 바람을 통해 날씨를 예측한다.) *버릿줄 타고 쥐가 내려오다, 갈매기 높이 떠빠리면 바람 분다, *강구가 산중으로 가다		

2.4. 공간

육지도는 예전에는 폭이 100m에 이르는 큰 갯벌이 있었지만 개간 사업을 통해 다 메웠다고 한다. 그래서 갯벌과 연결된 어로 활동이 거의 없다고 한다. 갯벌을 보통 ‘뺨, 뺨탕’이라 하며 바닷가를 ‘갱문, 갯문가’라 한다. 그리고 모래와 자갈이 섞인 공간을 ‘작밭’이라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작밭이 많다.

바닷물을 ‘갱물’이라 하며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을 ‘갱물 어금’이라 한다. 큰 너울을 ‘니, 굿니’라 하는데 굿니가 치면 날이 굿어진다고 기후를 예측할 수 있다.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물을 좋은 물이라 인식하며 반대의 경우는 나쁜 물이라 여긴다. 좋은 물로는 물색이 뿌연 ‘조갯물’을 들 수 있으며 나쁜 물로는 물이 아주 맑아서 바닷속까지 흰히 들여다보이는 청수가 있는데 청수가 들면 바위까지 하얗게 탈색되며 한 동안 고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2.4.1. 방위

방위에 관련된 어휘는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방위는 ‘동향’처럼 ‘-향(向)’을 붙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동쪽, 서쪽, 남쪽, 북쪽’과 같이 ‘-쪽’이라는 말을 붙여 사용한다. 또한 방향을 이야기 할 때는 해당 방위에 있는 지형, 지물을 이야기 하여 방위를 나타낸다.

- ⇒ {동쪽}, {동향} 이런 거 다 쓰지.
- ⇒ 동쪽, {남쪽}, {북쪽을} 통.
- ⇒ 그렇지요 동쪽에 가 여 보통 여기도 보면은 지금 그 북쪽에 가까운 데가 매바위라고 그러는 게 있거든 매바위지 그렇거든. {바우쪽으로}가라하지 북쪽으로 가게 그렇게 말 잘 안 씁니다.

2.4.2. 바다

1) 안바다, 먼바다

육지도에서는 가까운 바다를 ‘안바다’라 하고 먼 거리에 있는 바다는 ‘먼바다’라 하는데 어휘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어휘는 어휘 형성 면에서는 대응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안’, ‘밖’, ‘가까운’, ‘먼’과 같은 대립 구조를 갖지 않은 어휘이다. ‘먼바다’가 거리감을 포함한 어휘라면 ‘안바다’는 바다 전체에서 육지와 가까이 있는 곳을 ‘안’이라 칭한 어휘라 할 수 있다.

- ⇒ {먼바다}. 안바다. 요게 가까이 있는 건 {안바다}.

2) 짬물/갱물, 맹물, 어금/섞이는 데

소금기가 포함되어 있는 바닷물은 ‘갱물, 짬물’이라 하고, 소금기가 없는 물은 ‘민물, 맹물’이라 한다. 전남 해남지역에서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것을 ‘할룽한다’라고 표현하고 이 지점을 지칭하는 말은 없었지만 옥지도에서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어금’ 혹은 ‘섞이는 데’라 한다. 이 어금에서는 물고기가 산란을 많이 하는 지역이므로 물고기가 많이 몰려 어로 행위를 하기에 좋은 지점이라 한다.

- ⇒ {짬물}. 갱물.
- ⇒ 바닷물을 {갱물이라} 크고.
- ⇒ 소금기 없는 기는 {맹물} 아닙니까.
- ⇒ {갱물}, 맹물이라는 그런 우리가 마시는 물은 {맹물이라} 하고, 바닷물 갖다가 갱물.
- ⇒ 맹물과 갱물의 어금이라고 많이 쓰지요. 만나는 {어금}. 꼭 표현하라고 하면 어금이라고. 인제.
- ⇒ 예, 뭐 우리 지역에서는 고 그냥 섞이는 곳이다. {섞이는 데다} 그렇습니다.

3) 파도, 너울/니/긱니/미기/미시기

바다에 이는 물결을 ‘파도’라 한다. 이 지역에서 ‘파도’라는 어휘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파도 외에 ‘너울, 니, 긱니, 미기, 미시기’라는 어휘를 더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너울’은 ‘크고 사나운 물결 바다에 이는 물결’로 파도의 하위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너울’이라는 어휘보다는 ‘니, 긱니, 미기, 미시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규모가 큰 파도가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주로 태풍이 오거나 날이 흐려지면 바다의 파도가 험해질 때 사용하는 어휘이다. ‘긱니’는 이 ‘니’가 일면 날이 긱어지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따라서 ‘긱다’의 어간과 ‘니’가 합쳐진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일기에 관한 관용 표현에는 ‘긱니가 오면 긱날이 가다(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너울성 큰 파도가 치면 날이 흐려진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옥지 주민들은 이 ‘긱니’가 치면 바닷가에 나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 하는데 낚시를 하러 온 외지인들은 이 너울의 특성을 잘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니, 긱니’를 ‘미기, 미시기’라 하기도 한다.

- ⇒ {파도}.
- ⇒ 아까 저 {너울}.
- ⇒ 예, 그가지요. 저거는 아까 {긱니}, 한 번 와서 많이 밀리는 거는 그 긱은 니. 긱니. 그 긱니가 오면은 팍 파도가 갈 밀리면은 긱날이 가거든요.
- ⇒ 쭉 올라왔다가 쭉 내려가는 거 {니지}. 우리가 보통. {미기라} 그래.
- ⇒ 쭉 올라왔다가 쭉 내려가는 게 {미기}.
- ⇒ 그게 미기로 치면은 날이 긱어도 태풍 가까운 게 온다고. 신합니다. 밀어 준다 이래서 미기지. 파도가 파도를 밀어준다고 해서.
- ⇒ 미기지, {미시기}.
- ⇒ 그거 모르고 우리 옥지만 해도 남쪽에 여름철에 인자 맞바람이 많이 불고 그 긱니가 많이 오고 미시기라 하거든요. 미시기라 하는데 낚시하다가 큰일 납니다. 평소에는 이 바위가 뚝라가 있는데. 거기 한 번 왔다하면 금방 낚는 데 와서 그 한 번 치면 금방 내려가뿌레.

⇒ 그래 요 사람들은 날 이정도 되면 이 {미시기가 나면} 큰일 나겠다 싶어 피하거든요. 낚시꾼들은 안 피합니다.

4) 버꼼/버꼼

‘거꼼’은 표준 어형과 함께 경남, 전북 방언형인 ‘버꼼, 버꼼’으로 사용한다.

⇒ 보통 우리가 {버꼼이라고요} 버꼼이라고 많이 씁니다.

⇒ 버꼼 안 하고 거꼼 안 하고 {버꼼} 합니다.

⇒ {거꼼이지}.

5) 굴턱

‘굴턱’은 바다의 지형 중 오목하게 들어가서 속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 곳을 말한다. 이 굴턱은 고기들이 숨기 좋은 지역이므로 고기가 많이 서식하므로 바다 속 굴턱의 위치를 알아두면 어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 그렇죠. {굴턱}. 굴턱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 굴턱. 뭐 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들어간 홈통. 뭐 전부 다 굴턱이라고 하죠.

6) 조갯물, 홍조, 독수, 흑수, 청수, 적조든 물

바닷물에는 어로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좋은 물, 나쁜 물로 나눌 수 있다. 어민들은 나쁜 물은 ‘긷은 물’이라 표현하였는데 ‘독수, 흑수, 청수, 적조가 든 물’ 등이 있다. 물색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흑수’는 ‘검은 빛’의 물이고, ‘청수’는 아주 맑아 바닥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물이다. 이것은 깨끗한 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물속에 플랑크톤도 살지 못 해 죽어서 물빛이 깨끗하다고 한다. 실제로 청수가 들면 바다의 돌도 흰 빛으로 색이 바뀔 만큼 생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적조 든 물은 가뭄이나 이상 기후로 플랑크톤의 양이 급속하게 늘어난 물로 물이 붉은 빛을 띤다. 여기에도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이 적어 물고기가 살기 힘든 물이다. 이처럼 ‘흑수, 청수, 적조 든 물’은 모두 바다 생물들이 살기 힘든 물이므로 ‘독수’라 한다.

이와 반대로 좋은 물로는 ‘조갯물, 홍조’가 있다. ‘조갯물’은 물빛이 조개를 삶은 것처럼 뿌옇다고 해서 불리는 이름이고, ‘홍조’는 긷은 물 중 하나인 적조 든 물처럼 붉은 빛이 나긴 하지만 이 물에는 붉은 빛이 나는 플랑크톤이 살아 물빛이 붉은 것으로 물고기가 많이 따라 다닌다고 한다.

이처럼 어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물, 긷은 물은 물색으로 구분되며, 좋은 물, 긷은 물의 분류는 ‘어로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좋은 물은 보통 우리가 {조갯물} 같이. 보통 샘이 우리가 말이지 우리 좋은 물은 꼭 조갯물 같

다 하거든.

- ⇒ 빨건 물도 독수가 다시 빨건 게 있고 진짜 인자 고기가 그를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플랑크톤이 먹을 수 있는 플랑크톤이 거기 잘 있는 그런 물이 인자 그 {홍조거든요}.
- ⇒ 그러니 뭐 {독수가} 들어왔다. 또 말이지 뭐 {적조가} 들어왔다. 적조가 들어오면 고기가 많이 주니고 그랑게, 독수가 들어와도 인제 고기가. 적조도, 적조도 표준말인데, 바닷물을 갯물이라 크고 적조 나가, 적조도 {긋은 물}. 긋은 물 안에는 종류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아주 청수가 들어왔다고.
- ⇒ {청수가} 물이 하얗거든 그게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바다에 해초가.

7) 굿니 오면 굿날이 가다, 맞바람 불면 굿니가 많이 온다.

바다에 관련된 관용 표현에는 ‘굿니 오면 굿날이 가다’, ‘맞바람 불고 굿니 온다’ 등이 있다. ‘굿니가 오면 굿날이 가다’는 너울성 파도인 ‘니, 굿니, 미시기’가 오면 날이 흐려진다는 표현이다. 또한 욕지도에 남풍인 맞바람이 불면 너울성 파도가 많이 생긴다는 표현이다.

- ⇒ {굿니가 오면은} 팍 파도가 갈 밀리면은 {굿날이 가거든요}.
- ⇒ 그게 {미기로 치면은} 날이 굿어도 태풍 가까운 게 온다고. 신합니다. 밀어준다 이래서 미기지.
- ⇒ 미기지, {미시기. 그는 인자} 날이 굿는다} 하는 신호입니다.
- ⇒ 우리 욕지만해도 남쪽에 여름철에 인자 {맞바람이 많이 불고 그 굿니가 많이 오고}.

8) 바다 관련 형용사

공간 바다에 관련된 형용사의 어휘의 대립체계는 수심과 넓이를 기준으로 해 어휘가 분화되어 있다.

수심에 따라 ‘기푸다, 지푸다, 짚다’와 ‘야푸다, 얄다, 낫다’라 표현한다. 또한 넓이에 따라 ‘넓다[넙따, 널따], 너르다, 너리다’와 ‘좁다’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형용사에는 ‘하얗다, 하얏다, 파랗다’가 있는데 ‘하얗다’와 ‘하’이 탈락된 ‘하야다’가 함께 쓰이고 있다.

- ⇒ {짚다}. 지푸다. 짚다.
- ⇒ {기푸다}. {깊다} 다 써요.
- ⇒ 깊다 말도 쓰고 마 {지푸다}. 많이 지푸구나.
- ⇒ {낫다지요}. {야푸다}.
- ⇒ 나이 많은 사람도 {야푸다라} 많이 해요.
- ⇒ {야프다라는} 말도 써요. 야프다라는 말도 쓰는데, {얄다}. 야프다.
- ⇒ {노푸다}.
- ⇒ 예, 나푸다. 나푸다 이런 말은 안 쓰지. 그냥 {낫다}.
- ⇒ {좁다}. 넓다. 좁다. 뭐
- ⇒ 그런 말 했다하면은 넓은 바위인데, {너른} 바위. 너른 바위라 한다.
- ⇒ {넓대넙다}하지, 너르다. 넓대넙따.
- ⇒ 여기 넙딕한 거는 너린 바위. {너리다}.
- ⇒ 눈도 {하얗다}그러지 뭐.
- ⇒ {하야다}. 보통 그래 하는데.
- ⇒ 어, {청색}. {파란} 물. 저리로 보면 파란 물. 청색깔.

이상의 바다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바다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연안, 먼바다	안바다, 먼바다	
바닷물, 민물	짠물/깁물, 민물/맹물, 어금/섞이는 데	
파도	파도, 너울/니/긱니/미기/미시기	
거품	버썸/버끔	
물색깔에 따른 분류	좋은 물	조갯물, 홍조
	긱은 물	흑수, 청수, 적조 든 물, 독수
관용 표현	긱니 오면 긱날이 가다, 맞바람 불면 긱니가 많이 온다.	
관련 형용사	기푸다, 지푸다, 짚다↔야푸다, 얇다, 낮다 넓다[넙따, 널따], 너르다, 너리다↔좁다 하얗다/하야다, 파랗다	

2.4.3. 해안가

육지도는 예전에는 폭이 100m에 이르는 큰 갯벌이 있었지만 개간 사업을 통해 다 메웠다고 한다. 그래서 갯벌과 연결된 어로 활동이 거의 없다고 한다. 갯벌을 보통 ‘뺨, 뺨탕’이라 하며 바닷가를 ‘깁문, 깁문가’라 한다. 그리고 모래와 자갈이 섞인 공간을 ‘작밭’이라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작밭이 많다.

1) 모래, 반모래, 자갈, 몽돌, 돌

해안가에는 ‘모래, 돌, 자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자갈이 바닷물에 마모되어 동그란 형태로 작게 깎인 몽돌도 육지도에 있다.

- ⇒ 자갈이지. {자갈}.
- ⇒ 자갈 예, {모래}, 모래 잔 굽은 모래가 조금 섞이고.
- ⇒ 거 인제 {돌} 같은 거. 우강지떼 이런 거 자갈이 조깁한 돌덩이, {몽돌}.

2) 모래사장/모래밭, 자갈밭, 작밭, 반모래

바닷가에 있는 넓고 큰 모래벌판을 ‘모래사장, 모래밭’이라 하고, 자갈이 많이 깔려 있는 땅을 ‘자갈밭’이라 한다. 그리고 자갈밭 중 자갈이 풍화작용에 의해 많이 닳아 만들어진 자갈한 자갈로 된 곳은 ‘작밭’이라 한다. 따라서 작밭은 자갈밭 중 작은 자갈로 된 땅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모래’는 ‘반은 돌, 반은 모래로 이루어진 땅’을 말한다. 이처럼 바닷가의 땅은 돌 크기에 따라 불릴 수 있다. 그리고 땅 이름에 ‘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생물을 수확할 수 있어서 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 ⇒ {모래사장}은 뭐 자갈밭이지. 자갈밭.
- ⇒ {모래밭}. 그는 바다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것도 한 수심 이십메다 내에 있는 이 내에 있는 모래밭.
- ⇒ 여는 보통 {자갈밭이라고} 합니다.
- ⇒ 밑에 자갈한 자갈. 자갈도 아니고 모래밭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거를 {작밭이라} 그래요.
- ⇒ 이래 보면 물 밑에 인자 고기가 사는데, 돌에 사는 게 있고, 뿔에 사는 게 있고, 또 {반모래에} 사는 게 있고. 그런데 아까 내가 그런 낚시는 돌에 물 밑에 자연산 돌이 많이 있어.

3) 갯벌/뿔/뿔탕/뿔밭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 또는 주변의 넓은 땅은 ‘갯벌’이라 한다. ‘뿔’은 갯바닥이나 늪 바닥에 있는 거무스름하고 미끈미끈한 고운 흙인 ‘개흙’의 경남 방언형이다. 뿔로 이루어진 갯벌을 ‘뿔탕, 뿔밭’이라 한다. 여기서도 앞서 ‘모래밭, 자갈밭, 작밭’과 같이 ‘-밭’의 어휘가 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지도는 갯벌이 있었으나 개간 사업을 통해 매립해 갯벌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았다.

- ⇒ {갯벌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인자 없습니다. 전부 저 한방에 다 매립했기에.
- ⇒ 이래 보면 물 밑에 인자 고기가 사는데, 돌에 사는 게 있고, {뿔에} 사는 게 있고, 또 반모래에 사는 게 있고. 그런데 아까 내가 그런 낚시는 돌에 물밑에 자연산 돌이 많이 있어.
- ⇒ 그 다음에 인자 도달이 같은 이런 거는 그 금방 {뿔탕이나} 그 뭐 모래사장 같은 데 사니까나 여는 도다리 낚는 사람도 오면 끌고 땡기다 보면 도다리도 낚아 올리고.
- ⇒ 덕하고 관계없이. 모래바닥이다, 요 지역이 모래바닥이다. 오랜 경험에 통해갖고 모래바닥이나 아니면은 자갈바닥이, 자갈밭이다 아니면 {뿔밭이다}. 마. 이런 어떤 위치의 아무 곳이나 가서.

4) 바닷가/갱문, 개발, 갯문 가다/개발 가다

바닷물과 땅이 서로 닿은 곳이나 그 근처를 ‘바닷가’라 하는데 육지도에서는 ‘갱문’이라 한다. 육지도에서는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에는 ‘갱-’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바닷물을 ‘갱물’ 바닷가를 ‘갱문’이라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갯문은 포구 등 바닷가 주변을 포함한 어휘라고 한다. 또한 ‘개발’은 바닷가 공간 중 바지락이나 굴 등 생물을 채취할 수 있는 공간을 이르는 말이고 ‘개발 가다, 갯문 가다’는 이러한 생물을 채취하러 가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 ⇒ 바다, 바다 이렇게 우리가 바닷가가 {바닷가지요}. 바닷가를 거의 포구를 포함해서 전부 {갱문이라고} 했어요.

- ⇒ 우리가 거 이렇게 뭐야 {개발},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개발, 이렇게 하러 가는 거 그 바닷가에 이런저런 바지락도 따고 굴도 따고 하는 거를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개발 간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말마저도 갯문에 가자 {갯문 가자} 그런 말로도 쓰이고 있기도 해요. 개발 가자가 아니고 오늘 갯문에 안 갈끼가? 뭐 그런 의미 어떤 형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써요.

이상의 해안가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해안가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모래, 자갈, 돌	모래, 반모래, 자갈, 몽돌, 돌
모래사장, 자갈밭	모래사장/모래밭, 자갈밭, 작밭, 반모래
갯벌	갯벌/뺨/뺨탕/뺨밭
바닷가	바닷가/갯문, 개발, 개발 가다/갯문 가다

2.4.4. 지형

1) 항구/고을개, 포구/개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바닷가에 부두 따위를 설비한 곳을 ‘항구’라고 한다. 육지도에서는 ‘항구’라는 어휘 보다는 예전부터 ‘고을개’라 부른다. 제보자들은 ‘고을개’를 ‘바닷가 지형 중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포구’를 부르는 말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골+개’이 합성어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골로(안쪽으로) 들어 간 포구’로 이해할 수 있다.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개의 어귀’로 육지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라 한다.

- ⇒ 아주 인자 {항구라} 하기 전에 항구라고 하는 건 여가 좀 문화가 발달하면서 항구라고 하는 말 많이 쓰고, 옛날에는 이 아주 고을개 고을개가 거 저이 골이 속이 개가 이게 개거든 이기.
- ⇒ 만도 없고. 여는 단지 있다고 하는 건 {고을개입니다}. 고을개. 항만이 깊으다 해서 그 맨징이 속 안을 배를 타고 들어온다 해서 고을개, 개 포자를 써가 고을개.
- ⇒ 지금 자부마을이라고 인제, 단순화시켜서 인제 고쳐졌는데, 과거에는 {자부랑개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제.
- ⇒ 포자가 이렇게 개 포자잖아요. {개를} 쓰든 포자를 쓰든, 포는 한자고, 개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갯가.
- ⇒ 포 개잡니다. {포구하는} 포개자거든요.

2) 바위/바우, 강정

부피가 큰 돌인 바위는 ‘바우, 방우’라 한다. 그리고 생긴 모양에 관한 하위 분류어 중 ‘강정’이 있는데 이는 너른 바위 중앙 부분이 움푹 파인 형태의 바위를 말한다. 이 위에서 어부들이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강정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기도 한다고 한다.

- ⇒ 물밑에 {바위} 있는 데 가서 낚는데. 그거는 인자 십일월, 십이월 일월 달까지 삼개월로 낚구만.
- ⇒ {매바우쪽으로} 가라하지 북쪽으로 가게 그렇게 말 잘 안 씁니다.
- ⇒ 저 우에 {개방우도} 있어.
- ⇒ 여기도 대시 바위가 바닷가에 바위가 있는 곳인데, 바위가 있어 이 강정은 그 옴폭하이 바위 바위 자체가 옴폭한 거야. 그 바위 옆 환경이 옴폭하니 파인 데를 {강정이라} 그래. 그래서 그 강정에 옛날에 여기는 한 스물일곱 개 강정이 있는데, 합치면 전부 한 서른 두 개 돼요.

3) 절벽/까구마

절벽은 표준 어형과 함께 ‘까구마’라는 방언형이 함께 쓰인다.

- ⇒ {절벽}. 절벽인데, 그거는 모르쥬. 까구마. 이제 저이 뭐꼬 갯사진 길로 올라가는 길은 까구마가 아닙니까. {까구마}.

이상의 지형에 관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지형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항구	항구, 고을개
포구	포구, 개
바위	바위, 바우, 방우
절벽	까구마, 절벽

지금까지 정리된 공간에 관련된 어휘를 통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공간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공간	방위	동쪽, 서쪽, 남쪽, 북쪽/매바우쪽(지형지물 이야기)
	해안가	모래, 반모래, 자갈, 몽돌, 돌, 모래사장/모래밭, 자갈밭, 작밭, 반모래 갯벌/뺨/뺨탕/뺨밭 바닷가/갯문, 개밭, 개밭 가다/갯문 가다
	바다	짚물/갯물↔민물/맹물, 어금 파도, 너울/니/긋니/미기/미시기

범주	어휘 항목	
		영, 여, 덕, 굼턱 안바다↔면바다, 버꿈/버꿈 넓다/너르다/너리다↔좁다 기푸다, 지푸다, 짚다↔야푸다, 얹다, 낮다 넓다[넙따, 널따], 너르다, 너리다↔좁다 하얗다/하야다, 파랗다 *긋니 오면 긋날이 가다, 맞바람 불면 긋니가 많이 온다. *좋은 물(조갯물/ 뿌연물, 홍조)↔긋은 물(독수=흑수, 청수, 적조)
	지형	향구/고을개, 포구/개 바위/바우/방우, 강정, 절벽/까꾸마 향구, 개/포구, 굼턱(지형이 움푹 들어간 곳)
	지명	강정-햇바지강정, 소쿠리강정, 하강정, 메강정, 부석강정 개(포구) 고을개, 손통개, 꿀받기미개, 청새기미개 여(암초)-한박여, 갈매기여, 검둥여, 남대이여 문턱바우, 할매바위, 대풍바위, 노랑비렁, 개방우

2.5. 어획물

어획물은 크게 물고기, 조개류, 게, 해조류 등으로 나누어 조사, 정리하였는데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1. 물고기

물고기를 일반적으로 ‘고기, 꺾기’라 한다. 여기서는 물고기의 부분 명칭, 종류, 상태로 나누어 조사, 정리하였다.

육지도에서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고등어인데 ‘꼬두리, 고도리’라 부른다. 고도리는 ‘새끼 고등어’를 부르는 말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상위 범주인 고등어 자체를 부르는 말로 쓰인다. 고등어 외에도 ‘뿔락’을 많이 잡는데 ‘뿔래기, 뿔래이, 뿔라구’ 등 다양하게 불리며 종류에 따라 ‘떡뿔래이, 열기’로 나누어 부른다. ‘감성돔’ 또한 많이 잡히는데 ‘감숭어, 감식이, 감시이’라 부르며 작은 감성돔을 ‘퐁감시’라 부르는데 ‘퐁감시’는 잡는 시기에 따라 맛이 없어진 감성돔, 봄철에 잡히는 감성돔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어류와 관련된 관용 표현에는 감성돔과 관련된 것이 많이 조사되었는데 ‘감시이 맛

봤나?’라는 말의 주된 의미는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인데 이는 감성돔 고기가 그만큼 맛이 있어서 나온 표현이라 한다. 그리고 감성돔은 아주 약아서 잡기가 어렵다고 하여, 약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비유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고기를 잡는 일련의 행위를 ‘바리’라 하는데 이는 ‘바리 하다, 바리 가다’라는 연어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잡는 어종에 따라 ‘야도(방어)바리, 농어바리, 볼락바리, 삼치바리’ 등이 있다고 한다.

1) 부분 명칭

육지도에서 사용하는 물고기 부분 명칭은 다음과 같다.

아가미는 표준 어형과 함께 ‘알개미’라 하고, 지느러미를 ‘날감지, 날가미, (고기) 날개이’라 하고, 비늘은 ‘비늘, 비늘’이라 한다. 가시는 표준 어형과 함께 ‘고기뼈, 잔뼈, 고기가시’라 하고 물고기 옆줄은 ‘음신뼈니’라 한다. ‘알’은 ‘알, 난’이라 한다. 입에 관련된 어휘에는 ‘입, 주둥이, 입술, 입천장, 혀’가 있고, 이 외에도 ‘눈, 부레, 허파’ 등이 조사되었다.

- ⇒ 이제 {눈이고} 이기 인자 뭐꼬. 뭐라쿠노.
- ⇒ 부분을 뭐이 이기 여 여 선 서린 게 {아가미}.
- ⇒ {알개미} 쿠지요. 알개미.
- ⇒ 여기를 등 부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등지러미}.
- ⇒ {날감지} 쓰지요.
- ⇒ {날개이}, 날개이.
- ⇒ {고기 날개이라} 하거든요.
- ⇒ {지느러미는} 표준어고.
- ⇒ {허파}.
- ⇒ 여서 {부레라} 부릅니다.
- ⇒ 다르지. 왜냐면, 알도 있어 그렇고 그 대신에 암컷이 맛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젖부 {난을} 주고 나면은 알 주다 싸고 나면 맛이 없지요.
- ⇒ 맹태 안에서 그 맹란이거든요. 그 {알}.
- ⇒ {비늘}. 비늘.
- ⇒ 비늘 아닙니까. 인제. 보통 마 비늘 {비늘} 합니다.
- ⇒ 그런 거는 {음신뼈니}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 확실히 지가 뭐 사투리로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
- ⇒ 가시지. {고기뼈라} 부르는데, {고기 가시가} 걸렸다고 그러니까.
- ⇒ {가시라고} 많이 씁니다.
- ⇒ 모양은 꿈치하고 비슷한데 꿈치보다 좀 통통하고 {잔가시가} 많대요.
- ⇒ 아래 위 이렇게 {입천장} 하고 {입} 아래쪽이 {혀가} 없고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 {주둥이를} 가지고.
- ⇒ 요요, 입술에 걸려온다고. 이 {입술이}.

2) 종류

어중에 관련된 어휘는 전문용어, 방언, 일본말 등 다양하게 조사되었는데 이 지역에서는 물고기 이름에는 ‘-어’ 대신 ‘-에’를 붙인 어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 또한 특징이다. 물고기 종류에 관련된 어휘는 크기를 기준으로 하위 범주화되어 있다. 또한 일본과 가까운 남해안 지역이므로 일본어형이 많이 남아있다.

(1) 꺾기/고기/물고기, 텃고기

육지도에서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고기, 꺾기, 물고기’라 부른다. 그리고 물고기의 종류에 여러 곳을 이동하는 물고기가 있고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고기가 있는데 육지도 주변에서 머물러 사는 고기를 ‘텃고기’라 한다.

- ⇒ 여기서 고마 보통 여기서는 육고기는 육자 붙이고, 여기서 생선 종류는 {고기} 그룹니다.
- ⇒ 아따, 이 {꺾기} 맛있다. 이 무슨 꺾기고? 이런. 인자 이런 거.
- ⇒ {물고기가} 들어오면 물이 들어올 때는 들어 와가지고 나갈 때는 못 나니께네 그래 갇히는 걸 뭐라 하더만.
- ⇒ 거기에 늘 항상 이렇게. 그 이렇게 뭐야 사는 거라 해야쥬. 그 {텃고기들의} 집이에요. 삶의 터예요. 그게 덕인데. 송어는 그런 곳에 안 살아요.

(2) 고등어/꼬두리/고도리/사바, 난킨사바, 주우사바, 고사바

‘고등어’는 고등엇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은 기름지고 통통하며 등에 녹색을 띤 검은색 물결무늬가 있고 배는 은백색이다. 육지도에서는 ‘고등어, 꼬두리, 고도리, 사바’라 부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고도리’는 ‘고등의 새끼, 고등어의 옛말’이라 하고 있으나 육지도에서는 고등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바’라는 일본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크기에 따라 ‘난킨사바, 주우사바, 고사바’라는 말을 쓰는데 ‘난킨사바’는 작은 고등어, ‘주우사바’는 중간 정도 크기의 고등어, ‘고사바’는 큰 고등어를 지칭하는 말이다.

- ⇒ {고등어는} 인제 계속 고등어라고 했고. 고등어 낚시는 요기 이렇게 뭐 우리 경제적인 낚시가 아니고 인제 레포츠 낚시였었고.
- ⇒ 고등어네. {꼬두리}.
- ⇒ 그게 아까 고등어네요. {고도리}.
- ⇒ 그런데, 그게 안 글쎄, {고도리라} 말은 고등어라는 말이거든요. 고등어를 우리 순 육지말로 고도리 그러는데, 일본 사람이 요서 많이 어장을 했거든요.
- ⇒ 일본 사람이 고등어를, 고등어를 뭐냐 하면 {사바} 카거든. 사바.
- ⇒ 예, 보통 고등어 큰 거를 {사바} 그러거든요.
- ⇒ 난킨, {난킨사바}. 이 왜놈 말입니다, 순일본사람 말인데, 난킨사바는 쪼깨난 고등어.
- ⇒ 큰 거는 {고사바}. 중간쯤 되는 건 {주우사바}. 난킨, 난킨이라 하는 건 이제 쪼깨만한 건.

(3) 방어/방에/야도, 알야도, 중부리, 대부리, 고부리

‘방어’는 전갱잇과의 하나로 몸의 길이는 1미터 정도로 긴 방추형이고 주둥이는 뾰족하다. 몸은 등이 푸른빛을 띤 회색, 배는 은빛을 띤 흰색이고 옆구리에 누런색 세로띠가 하나 있는 물고기로 욕지도에서는 ‘방어, 방에, 야도’라 부른다. 욕지도에서도 물고기 이름에 ‘-어(漁)’를 ‘-에’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야도’는 일본어로 작은 방언은 일본어로 ‘알야도’라 부른다. 또한 ‘중부리’는 중간 정도 크기의 방어, ‘고부리, 대부리’는 큰 것을 말한다.

- ⇒ {방어지}.
- ⇒ 요서는 {방에라고} 합니다.
- ⇒ 인제 그 방어 방어는 방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야도}, 야도라 그래요.
- ⇒ 야도 뭐. 그 다음에 큰 거를 야도라 했고, 알야도라 알야도. 작은 걸 {알야도}.
- ⇒ 큰 거는 인제 그 {중부리}. {대부리} 뭐 고부리 그렇게 불렀어요.
- ⇒ {고부리는} 더 큰 거고.

(4) 삼치/마구리/가또

‘삼치’는 고등엇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1미터 정도이고 가늘며, 옆으로 납작하다. 청색에 푸른 갈색의 얼룩무늬가 있고 배는 흰색이다. 옆구리에는 회색 얼룩점이 흩어져 있고 비늘로 덮여 있다. 욕지도에서는 ‘마구리, 가또’라 부른다.

- ⇒ {삼치}. 삼치가 나지요. 삼치가 옛날 요기서 많이 나 갖고 수출도 많이 시켰습니다. 이 삼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 ⇒ {마구리라} 카는 말 써거든요.
- ⇒ 그게 인제 삼치 종류입니다. 요 요 자체는 이런 이 삼치는 요기서는 우리가 가또라 카는 말도 써는데 삼치를 {가또라} 해가지고 크게 가치 없다고 말하는데 있고. 삼치는 이것과 하고 비슷하게 닮아서, 닮아서 이 삼치는 헛감으로 참 좋습니다.

(5) 농어, 까지메이/까지메기

‘농어’는 농엇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50~90cm이고, 등은 검푸르고 배는 희며, 어릴 때는 등과 등지느러미에 검은 갈색의 작은 점이 많다. 몸은 옆으로 납작하며 주둥이가 크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며, 온몸에 잔 비늘이 많다. 욕지도에서는 ‘농어’라는 말 이외에 ‘까지메이, 까지메기’라는 말을 함께 쓰는데 이는 크기에 따른 분류이다. 농어는 큰 것을 부르는 말이며 ‘까지메이, 까지메기’는 농어 새끼를 말한다.

- ⇒ {농어는} 요게 더러 잡히지.
- ⇒ 그 다음에 농어는 농어는 새끼를 {까지메기라} 했어요. 까지메기.
- ⇒ {까지메이}. 까지메기.
- ⇒ {까지메이}. 다른 데는 깔따구라 했다는데, 그렇게 안 하고, 까지메이. 그 다음에 뭐 큰 거는 농어라 했고.

(6) 감성돔/감송어/감시이/감식이, 똥감시

‘감성돔’은 도미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40cm 정도이고 타원형이며, 은빛을 띤 청색 바탕에 갈색의 가로무늬가 있다. 주둥이가 뾰족하고 등 쪽이 솟아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 맛이 좋다. 욕지도에서는 ‘감성돔’이라는 표준 어형보다는 ‘감시이, 감식이, 감송어’라 부른다. 또한 ‘똥감시이’는 새끼 감성돔을 말하거나 봄에 잡은 맛이 없는 감송어를 지칭하기도 한다.

- ⇒ {감성돔}. 그거는 인제 감시이라고 했지요. 감시이. 감시이. 그러면 새끼 감시이는 똥감시이. 똥감시이 뭐 이렇게 구정물에 있다고 해서 똥감시라 하고.
- ⇒ {감시이도} 있지. 감시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별사람들이 감시이라고 씁니다.
- ⇒ 큰 놈은 그냥 감시이. 감성돔을 감시이라 했어요. 감시이. 감시이. 뭐 감생이, 감송어 그래 안하고 감시이. {똥감시이}.
- ⇒ 그래서 인제 감성돔이라든가 {감식이라든가} 흑돔 낚을 때는 바닥에다 완전히 가라 앉쳐서, 우리가 인제 여기서 얘기하면은 우리 요즘 낚시 방법으로는 처박기라 합니다.
- ⇒ {감송어}. 감송어.

(7) 돔, 상사리

도미의 준말인 ‘돔’은 도미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몸은 타원형으로 납작하며 대부분 붉은색을 띠고 비늘은 둥글고 크다. 욕지도에서는 ‘돔’이라 쓰는데, 작은 돔은 ‘상사리’라 한다.

- ⇒ 그랬고, 이제 돔 낚시해서 {돔}. 돔 낚시는 여름철에 해서 여름철 가을철 하죠. 여름 가을철 하는데, 돔은 작은 걸 {상사리라} 했어요. 상사리. 돔은 작은 걸 상사리라 하고 큰 건 돔이라고 하고. 돔 했어요. 돔.

(8) 흑돔, 가리이

‘흑돔’은 놀래깃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1미터 정도이고 긴 타원형이며, 어두운 갈색이다. 어릴 때에는 옆구리에 흰색의 세로띠가 있는데 성장하면 수컷은 앞머리 부분이 흑 모양으로 나온다. 욕지도에서는 ‘흑돔’이라 부르며, 작은 흑돔은 ‘가리이’라 부른다.

- ⇒ {흑돔이라고}. 흑이 툇 붙은 거는 흑돔이고. 흑이 안 나온 거는 가리이라고.
- ⇒ {가리이}. 적은 걸 가리이라 하고.

(9) 전갱이/메가리/아지, 오아지, 주아지, 고아지

‘전갱이’는 전갱잇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40cm 정도이고 원뿔형이며, 등은 어두운 녹색, 배는 흰색이다. 몸에 하나의 구부러진 옆줄이 있고 그 위에 방패 비늘이 발달

하여 있다. 육지도에서는 ‘전갱이, 전강이, 메가리’와 ‘아지’라는 일본어가 함께 쓰인다. 또한 크기에 따라 ‘오아지(大), 쥬아지(中), 고아지(小)’로 부른다.

- ⇒ {전갱이가} 아지거든요.
- ⇒ 정강은 있지요. {정강이}.
- ⇒ 전갱이가 일본말로 {아지}.
- ⇒ 여 인제 저기 잡히는데 그것도 고등어식으로 오아지, 쥬아지, 고아지지 여기는. 아까 저기는 아까 난칭이라고 안 하고. {오아지는} 큰 아지.
- ⇒ {쥬아지는} 중간 것, {고아지는} 작은 것.
- ⇒ {메가리}. 그기 말하자면 아진데, 정갱이. 왜놈말로 아지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정갱이고.

(10) 볼락/뿔락/뿔레이/뿔래기/뿔라구, 까만뿔래기/먹뿔래이, 붉은 뿔래기/열기

‘볼락’은 양볼락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20~30cm이고 방추 모양이며, 잿빛을 띤 갈색이 가장 많고, 잿빛을 띤 적색도 있는데 몸의 색깔은 생활 장소나 물의 깊이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몸 옆에 대여섯 줄의 불분명한 검은 띠가 가로로 나 있고, 주둥이는 끝이 뾰족하며 눈이 불거지고 아주 크다. 육지도에서는 ‘뿔락, 뿔레이, 뿔래기, 뿔라구’라고 다양하게 부르는데 대부분 어두경음화된 형태로 쓰인다. 볼락은 색을 기준으로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검은 볼락은 ‘까만 뿔레이/뿔래기, 먹뿔래이/뿔래기’라 부르고, 붉은 볼락은 ‘붉은 뿔래기/뿔레이, 열기’라 부른다.

- ⇒ {볼락이} 많이 잡히고 인제, 오월 육월쯤 되면은 그거예요.
- ⇒ {뿔락어는} 뿔레이 뿔래이.
- ⇒ 겨울철에는 겨울철에는 볼락. 볼락 알지요? 그래서 이 볼락을 여기서는 {뿔래기라} 했어요.
- ⇒ 감식이나 가리니나 낚는 거는 인자 {뿔라구} 바늘보다 조금 낫, 굵지.
- ⇒ {뿔래이}. 그래서 그 뿔래이도 그 종류가 그 {까만 뿔래이가} 있고 {붉은 뿔래이가} 있어요. 그 까만 거는 {먹뿔래이}. 먹뿔래이 이렇게 했고. 좀 붉은 뿔래이는 그냥 열기라고 했죠. 열기.
- ⇒ 빨간 뿔래이가 아니고 인제 빨간 뿔래이라는 말은 안 쓰고 고마 {열기라고} 했고. 열기라 했고.
- ⇒ 인제 붉은, 검은 뿔래이는 {먹뿔래이라} 그랬고. 먹볼. 까만뿔, 검은 뿔래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고.

(11) 멸치/멜치/메르치

‘멸치’는 멸치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13cm 정도이며, 등은 검푸르고 배는 은빛을 띤 백색이다. 몸은 길고 원통 모양이며 비늘은 둥글둥글하다. 육지도에서는 ‘멸치, 멜치, 메르치’라 부른다.

- ⇒ {멸치를} 잡아넣었어. 머르치를. 머르치를 잡는 배들이 찻배라 찻배.
- ⇒ 멸치 맞지요? 멸치. 멸치 맞아. {멜치인데}, 멜치라 그러면 표준어도 되고, 요도 멜치 합니다.
- ⇒ 옛날에 {메르치} 많이 잡아 봤고. 요 메르치 원래가 고향이야. 메르치 소산지라 육지가.

(12) 가오리/나무재이

‘가오리’는 가오릿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몸은 가로로 넓적한 마름모 모양이고 꼬리가 긴 근해어이다. 옥지도에서는 표준 어형과 함께 ‘나무재이’라 부른다.

- ⇒ 그거는 요서는 {가오리}, 나무재이.
- ⇒ 여, 옥지말로 특기한 말이 {나무재이}.

(13) 도다리, 광어

‘도다리’는 가자미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30cm 정도이며, 누런 갈색 바탕에 어두운 갈색 반점이 있고 눈이 없는 쪽은 흰색이다. 광어는 넙치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60cm 정도이고 위아래로 넓적한 긴 타원형이며, 눈이 있는 왼쪽은 어두운 갈색 바탕에 눈 모양의 반점이 있고 눈이 없는 쪽은 흰색이다.

- ⇒ 그거는 {도다리} 가베, 도다리 아니면 광어고. 광어나 도다리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광어인거 같아.
- ⇒ 가자미는 도다리보다 다르지. {광어보다도} 다르고.

(14) 명태/맹태, 북어, 동태

옥지도에서는 ‘명태’를 ‘명태, 맹태’라 부르며 얼린 것은 ‘동태’, 말린 것은 ‘북어’라 한다.

- ⇒ 아, {맹태}. 요 맹태라 그러니까. 여는 북어나 {동태나} 뭐나 전부 뭐 맹태라 부릅니다.
- ⇒ 명태, {명태} 부릅니다.
- ⇒ 여는. 여 명태도 아까 {북어도} 말린 걸 포로 만들거든요.

(15) 조기/조구

‘조기’는 민어과의 보구치, 수조기, 참조기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몸의 길이는 40cm 정도이며, 잿빛을 띤 은색이고 광택이 있다. 옥지도에서는 ‘조기, 조구’라 한다.

- ⇒ 그 뭐꼬? {조기가}?
- ⇒ {조구라} 그래요.

(16) 북어/뽕징이/뽕지

‘북어’는 참복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몸은 뽕뽕하고 비늘이 없으며 등 지느러미가 작고 이가 날카롭다. 적에게 공격을 받으면 물 또는 공기를 들이마셔 배를 불

룩하게 내미는 특색이 있다. 욕지도에서는 ‘복어’보다는 ‘뽕징이, 뽕지’라 부른다.

- ⇒ {복어를} 복징이.
- ⇒ 예, 맞아요. 요거는 {뽕징이}.
- ⇒ 복어, 뽕 {뽕지}.

(17) 고래/굼시이, 돌고래

‘고래’는 욕지도에서는 ‘굼시이’라 부르는데 헤엄치는 모습이 굼실대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 물치라고도 인자 {고래} 고기하고 조금 틀린데.
- ⇒ 저 제주바다 있는 데 가면 검은 기, 그게 진짜 고래 종류지. 올라갔다 내려간다고 그래서 굼실굼실한다고 {굼시이}, 굼시이.
- ⇒ {돌고래도} 있고, 또 뽕 {금식}이라는 놈도 있고.

(18) 쥐치/쥐고기

‘쥐치’는 쥐치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25cm 정도이고 마름모 모양이며, 옆으로 납작하다. 푸른 갈색 또는 분홍색이고 옆구리에 어두운 갈색 무늬가 흩어져 있다. 욕지도에서는 ‘쥐고기’라 한다.

- ⇒ 그건{ 쥐고기지}. 쥐치입니다.
- ⇒ {쥐치}. 쥐고기.

(19) 아귀/아쿠

‘아귀’는 아귀과의 바닷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60cm 정도이고 넓적하며, 등은 회갈색, 배는 흰색이다. 머리 폭이 넓고 입이 크다. 욕지도에서는 ‘아쿠’라 한다.

- ⇒ {아귀가} 입이 크다 큰 거.
- ⇒ 아귀. 아귀를 {아쿠라} 그래요.

(20) 상어/상에, 장어/장에, 송어/송에, 전어/전에, 민어/민에

욕지도에서는 물고기 이름에 ‘-어(漁)’ 대신에 ‘-에’가 붙은 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상어를 ‘상에’, 장어를 ‘장에’, 송어를 ‘송에’, 전어를 ‘전에’, 민어를 ‘민에’라 한다.

- ⇒ {상어}.

- ⇒ {상에} 맞아요.
- ⇒ 네 상어 맛이 있습니다. 상어는 회도, 회도 썰어도 먹고. 말려가지고 또 건어 안주도 하고.
- ⇒ 돔배기라는 말은 안 쓰는데 {상어포라} 하거든요.
- ⇒ 아 장어가. {장어}.
- ⇒ {장에}.
- ⇒ 그 {승어는} 어떤 덕하고 상관없고.
- ⇒ 전에. {승에}.
- ⇒ {전어} 전어, 전에, {전에} 이래 하고.
- ⇒ {민어라}. 민어인가베.
- ⇒ {민에} 카고, 민어 크지.

(21) 노래미, 준치, 청어, 대구, 임연수, 갈치, 꽁치

그 외에도 육지도에서 쓰이는 물고기 이름에는 ‘노래미, 준치, 청어, 대구, 임연수, 갈치, 꽁치’가 있다.

- ⇒ {노래미}.
- ⇒ {준치} 납니다. 하여튼 많이 난다고 옛날에 여 이 그 이 전어를 잡는 배가 있거든요. 이 전어에 같이 섞여서 준치가 잡혔어.
- ⇒ {청어}. 청어도 여기 많은 건 안 납니다. 쪼개 납니다.
- ⇒ 진짜. 그것도 {대구}. 인제 대구라 보기가 대구의 형태는 굉장히 그 고기가.
- ⇒ {임연수도} 알아주지.
- ⇒ {갈치는} 다른 고기보다 길지.
- ⇒ 모양은 {꽁치하고} 비슷한데 꽁치보다 좀 통통하고 잔가시가 많대요.

3) 상태, 행위

물고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는 ‘까망다, 붉다, 통통하다, 길다/질다, 짧다, 넓적하다, 비늘이 시달리다, 싱싱하다, 물이 가다, 물다’라는 말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고기의 상태가 싱싱하지 않은 것을 ‘물이 가다, 물다’라는 표현을 쓴다.

- ⇒ 좀 {까망게} 변한다고.
- ⇒ 까만 빨래이가 있고 {붉은} 빨래이가 있어요.
- ⇒ 모양은 꽁치하고 비슷한데 꽁치보다 좀 {통통하고} 잔가시가 많대요.
- ⇒ 갈치는 다른 고기보다 {길지}.
- ⇒ 질다. 아 질다는 길다의 사투리고, {짧다}.
- ⇒ {넓적하지} 뭐.
- ⇒ 그물에 이렇게 {비늘이라든가 시달려가지고} 신선도가 이렇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 ⇒ 네 {싱싱하다}.
- ⇒ 그거는 인자 안 싱싱타하고 뭐 그렇지. {물이 갔다} 이라고거든요.
- ⇒ 상했다 그렇게 안 하고, {고기가 좀 물었네}. 그러대요.

4) 야도바리, 농어바리, 볼락바리, 참치바리, 조기바리, 꽁치바리

‘고기를 잡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바리’라 한다. 방어를 잡는 것을 ‘야도바리’라 부르는 것처럼 ‘농어바리, 볼락바리, 참치바리’와 같이 ‘물고기 이름 + 바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 ⇒ 그래서 농어 낚시라는 건 농어바리라고 하거든. 농어바리. {볼락바리}.
- ⇒ 농어바리 뭐 그런 행위를 {농어바리라고} 그래요.
- ⇒ 바리라는 말. {참치바리니} {조기바리니} 뭐 {꽁치바리니} 바리라고 어항 그 자체에 부지 쓰는 말이지.
- ⇒ 인제 그 방어 방어는 방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야도 야도라 그래요. {야도바리}.

5) 감시 맛봤나, 봄감시 개도 안 먹는다, 세상에 약은 놈이 감식이다.

어류와 관련된 관용 표현에는 감성돔과 관련된 것이 많이 조사되었는데 ‘감시이 맛 봤나?’라는 말의 주된 의미는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인데 이는 감성돔 고기가 그만큼 맛이 있어서 나온 표현이라 한다. 감성돔은 맛이 좋지만 봄에 잡는 것이 맛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봄에 잡힌 감성돔을 ‘퐁감시’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또한 그리고 감성돔은 아주 약아서 잡기가 어렵다고 하여, 약고 영리한 사람에게도 비유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 ⇒ 봄감시 개도 안 먹는다. 육월 감시가 아이고. ‘{봄감시 개도 안 먹는다}’. 봄 되면은 맛이 없어져.
- ⇒ ‘{감시 맛봤나}’ 는 인제, 좋은 경험을 했나는 말이지.
- ⇒ 제삼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일을 답습하는 거 있거든요. 다시 재차, 반복하는 거 있는데 그럴 때 옆에서 왜 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저 뭐 {감시 맛봤나}? 뭐 그런 얘기를 한대요.
- ⇒ 좋은 경험이 있었나 그런 뜻이거든요. 좋은 경험이 있었나? 저걸 해가지고 저게 좋은 경험이 있었나?
- ⇒ 참 {감시이} 저 놈이 우리 솔직히 말하자면 {참 약다이라거든} 사람이 약은 사람을 아 저놈이 약니라. 감식이기도 그러합니다.
- ⇒ 감식이 저놈도 참 {세상을 약은 놈이 감식이구만}.

이상의 물고기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0〉 물고기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물고기	전체 명칭	괴기/ 고기/ 물고기
	부분 명칭	입, 주둥이, 입천장, 입술, 헤
		아가미
		알개미
		지느러미
		날감지, 날가미, (고기) 날개이
		비늘
		비늘, 비늘
		가시
		고기뼈, 잔뼈, 잔가시
		알
		알, 난
		옆줄
		음신뼈니
		기타
		눈, 부레, 허파
	종류	고등어
		고등어/꼬두리/고도리/사바, 난킨사바, 주우사바, 고사바
		방어
		방어/방에/야도, 알야도, 중부리, 대부리, 고부리
		삼치
		삼치/마구리/가또
		농어
		농어, 까지메이/까지메기
		감성돔
		감성돔/감송어/감시이/감식이, 톱감시
		도미(돔)
		돔, 상사리
		흑돔
		흑돔, 가리이
		전갱이
		전갱이/아지, 오아지, 쥬아지, 고아지
		볼락
		볼락/뿔락/뿔레이/뿔래기/뿔라구, 까만뿔래기/먹뿔래이, 붉은 뿔래기/열기
		멸치
		멸치/멜치/메르치
		가오리
		가오리/나무재이
		명태
		명태/맹태, 북어, 동태
		조기
		조기/조구
		복어
		복어/뽕징이/뽕지
		고래
		고래/굼시이, 돌고래
		쥐치
		쥐치/쥐고기
		아귀
		아귀/아쿠
		상어, 장어, 송어, 전어, 민어
		상어/상에, 장어/장에, 송어/송에, 전어/전에, 민어/민에
		기타 어종
		도다리, 광어, 노래미, 준치, 청어, 대구, 임연수
	상태	까맣다, 붉다, 통통하다, 길다/질다, 짧다, 넓적하다, 비늘이 시달리다, 싱싱하다, 물이 가다, 물다
	관용 표현	감시 맛봤나, 봄감시 개도 안 먹는다 세상에 약은 놈이 감식이다.
	기타	야도바리, 농어바리, 볼락바리, 참치바리, 조기바리, 뽕치바리

2.5.2. 조개류

욕지도에서 많이 잡히는 조개류는 ‘바지락’, ‘홍합’, ‘굴’인데 이를 보통 ‘반지락’, ‘합자’, ‘꿀, 석화’라 부르며 자연산 굴을 ‘벚굴’이라 한다.

1) 부분 명칭

조개류의 부분 명칭은 ‘껍질, 껍데기, 알’만 조사되었다. 조개류의 껍 부분은 ‘껍질, 껍데기’로 안은 ‘알’로 통일해 부르고 있다.

- ⇒ 그거는 뭐 조개 {껍질이라} 안 합니다.
- ⇒ 지금도 요 뒤에 가서 땅을 파보면 {꿀껍데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 ⇒ {알이} 차려면 봄에 알이 차지. 꼬막은 있어. 허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못 파고, 꼬막도 여기 나기는 납니다.

2) 종류

욕지도에서 굴은 ‘굴, 꿀, 석화’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두경음화 어형인 ‘꿀’을 많이 사용한다. 또한 바위에 붙어 자라는 자연산 굴은 ‘벚굴’이라 하는데 다른 굴보다는 크기가 커서 손바닥 정도만하다. 벚꽃이 피는 시기에 채취할 수 있어서 ‘벚굴’이라 하는데 제보자에 따라 꼭 그 시기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 한다.

욕지도에서는 홍합 채취도 많이 되는데 홍합은 표준 어형과 함께 ‘합, 합자’라 한다. 또한 ‘바지락’은 ‘번지락’이라 한다. 이 외에도 채취되는 패류에는 ‘고동, 소라, 전복, 꼬막, 조개’ 등이 있다.

- ⇒ 우리 여기서는 석화라는 말도 잘 안 쓰고 굴, 굴도 급할 때는 {꿀} 꿀하는데.
- ⇒ 굴 자체를 {석화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 있는 그대로 석화조합하거든요. 굴조합 그거 많이 안 씁니다.
- ⇒ 어 자연산 {굴은} 여기 있습니다. 자연산 굴이 있는데 바위에 붙는 거. {벚굴이라고} 하거든요. 벚굴. 조금 조금 툄는 맛이 나는데, 한 마리가 이래 큼니다. 그 한 마리 먹어 놓으면 배가 부르는데.
- ⇒ {고동이네요}. 이거는.
- ⇒ {소라도} 잡히제.
- ⇒ 그거는 {전복이고}.
- ⇒ {꼬막은} 있어. 허가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못 파고, 꼬막도 여기 나기는 납니다.
- ⇒ 이 {고동도} 이름이 있는데, 나 그거 확실히 잘 모르겠고. 요 요는 인자 굴껍질.
- ⇒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게 저 조개 종류면 {홍합인데}, 홍합이 제일 많이 나왔어.
- ⇒ 합, 그냥 {합}. 합. 혹은 {합자}.
- ⇒ 그 바닷가에 이런저런 {바지락도} 따고 굴도 따고 하는 거를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 ⇒ {번지락하고}.

3) 상태

둥근 모양을 나타낼 때 ‘둥그랗다, 둥그렇다’라고 표현하나 ‘둥그랗다’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껌질은 ‘단단하다’라고 말한다.

- ⇒ {둥그렇다고는} 잘 안 하제. {둥그랗다고} 잘 하제.
- ⇒ 껌데기가 굉장히 {단단하다} 해가지고 소가 밟아도 안 깨진다, 먹도 안 한 게.

4) 행위

패류와 관련된 행위 표현에는 ‘따다’, ‘파다’, ‘캐다’ 등을 사용한다.

- ⇒ 홍합도 이런 놈 {따가지고} 전부 저거 나라 보내고, 저 중국을 보내고. 그래서 요서 그 사람들이 그래 장사를 하는데, 그게 제일 많이 났어.
- ⇒ 지금도 요 뒤에 가서 땅을 {파보면} 꿀꺽데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 ⇒ 홍합 {캐} 때, 홍합 캐 때는 그 쉬리.

이상의 조개류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조개류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조개류	부분 명칭	껌질/껌데기 알
	종류	꿀/굴/석화, 벗굴 홍합/합/합자 고동, 소라, 전복, 꼬막, 조개, 번지락
	행위	따다, 파다, 캐다

2.5.3. 게

게는 일반적으로 ‘끼’라 하였다. 옥지도에서는 게가 주된 어획물이 아니므로 관련된 어휘가 많이 없다고 한다. 소라게를 ‘게고동, 집게’라 하고 털게를 ‘응게, 몰게’라고 한다.

1) 부분 명칭

게의 부분 명칭에는 ‘집게/집게발, 배’ 정도만 조사되었다. 이 또한 옥지도에서는 게가 주된 어획물이 아니므로 관련 어휘가 많이 조사되지 않았다.

- ⇒ 아 {집게}합니다. {집게발} 합니다.

⇒ {배} 모양이 다르지.

2) 종류

육지도는 게가 많이 잡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게가 주된 소득원이 아니다. 따라서 게에 관련된 어휘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게의 종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게는 일반적으로 ‘게’라 부른다. ‘암게, 수게’라는 말은 있지만 크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라는 ‘집게, 소라게, 게고동’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게고동’으로 쓴다. 또한 모래에 사는 털이 많은 게를 ‘털게, 응게, 물게’라 한다. 그 외에 ‘꽃게, 참게, 대게, 썩’이 조사되었다. ‘썩’은 몸의 길이는 9cm 정도로 등딱지는 거의 삼각형이고 배 부분은 다섯 마디로 길다. 이마의 등 쪽은 사마귀 모양의 돌기가 있고 털로 덮여 있다.

- ⇒ {게는} 잡히기는 한데, 게를 인제 거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이용하고 그런 거는 없고.
- ⇒ 조개도 있었고 고동도 있고 게, {끼} 종류도 있고, 게. 많이 있었는데 거 매립했버렸어요.
- ⇒ 어업을 한다든가 그걸 대상으로 하는 곳에는 뭐 {암게도} 중요하고 {수게도} 중요하지만은.
- ⇒ 뭐 그런 말 안 쓰고 그냥. 암게 수게 그런 말은 쓰지 않고 그냥 게. {암컷}, {수컷} 다 포함해서 게라고 했어요. 굳이 구분하지 않고.
- ⇒ 그러니까 이게 뭐 {암게인지} {수게인지} 뭐 구분없이 그냥.
- ⇒ 다른 곳에 뭐 {참게라든가} 아니면은 대게라든가 게를 가지고 인제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 ⇒ 그 인제 우리가 인제 모래 사는 {물게}. 털게라고 하지 털게. 털게라고 했고. 그걸.
- ⇒ 그거는 이제 물게, 혹은 {털게}.
- ⇒ 응게, {응게} 합니다.
- ⇒ 요즘 애들은 {꽃게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조건 게예요.
- ⇒ 그게 인제 {참게} 아닙니까
- ⇒ 꽃게도 쓰지요. {꽃게}. 참게.
- ⇒ 동해가면 {대게라고} 안 합니까.
- ⇒ 단지 인제 고동 속에 들은 게를 {게고동}. 그냥 게고동. 고동 껍질에 인자 고동이 빠져버리면 속이 빠져버리면 인제 게가 들어 앉아서 크거든요.
- ⇒ {소라게도} 있고 {집게도} 있고.
- ⇒ 옛날에 여기도 물이 빠지면은 거기서 {썩도} 많이 있었고. 썩도 종류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

이상의 게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게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게	부분 명칭	집게/집게발, 배	
	종류	전체 명칭	기, 끼
		털게	털게, 물게, 응게
		집게	소라게, 집게, 게고동
		성별	암게/암컷, 수게/수컷
		기타	꽃게, 대게, 참게, 썩

2.5.4. 해조류

1) 부분 명칭

일반적으로 미역은 미역의 대가리인 ‘미역기’, 미역기 윗부분을 ‘미역줄기, 미역잎’으로 구성된다.

- ⇒ {미역기} 합니다. 미역기.
- ⇒ 미역기. {미역줄기}. {미역잎} 그립니다.

2) 종류

(1) 미역, 돌미역, 양식미역

‘미역’은 갈조류 미역과의 한해살이 바닷말로 잎은 넓고 편평하며, 날개 모양으로 벌어져 있고, 아랫부분은 기둥 모양의 자루로 되어 바위에 붙어 있다. 육지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역’이라 부르며 생산되는 방법에 따라 자연산인 ‘돌미역’, ‘양식미역’으로 나뉜다.

- ⇒ 여기 해조류는 첫째 {미역}, 그리고 돈나물. 툇나물.
- ⇒ 자연산 미역을 {돌미역} 하거든요.
- ⇒ 또 {양식미역이라고} 또 붙이고. 돌에 붙어서, 이 미역은 돌에 붙거든요. 그러니 돌미역, 돌미역. 그 양식미역은 줄에 줄에다 해가지고 수하식도 안 합니까?

(2) 김/짐, 파래김

‘김’은 홍조류 보라털과의 조류로 몸의 길이는 30cm 정도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하나 주름이 져 있다. 검은 자주색 또는 붉은 자주색을 띠고 바다 속 바위에 이끼처럼 붙어 자라는데 식용한다. 육지도에서는 ‘김, 짐’이라 부르며 하위 어형에 ‘파래김’이 있다.

- ⇒ 그건 {김}, 김 {파래김이지}.
- ⇒ {짐} 쓰지. 보통 우리가 김이지만 짐이 하고. 파래고.

(3) 툇, 툇나물

‘툇’은 갈조류 모자반과의 해조로 몸은 섬유상의 뿌리로 지탱되며, 줄기는 원기둥 모양이다. 육지도에서는 ‘툇나물’이라 부른다.

- ⇒ {툇은} 여기서 툇이라 안 하고 {툇나물}, 툇나물 하거든요.

(4) 파래, 포래, 국파래, 돌파래, 신기이

‘파래’는 식용할 수 있는 참홀파래 따위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육지도에서는 ‘파래, 포래’로 부른다. 이 지역에서는 모음 ‘ㅏ’를 ‘ㅓ’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이다. 파래와 매생이는 다른 종이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파래’를 매생이의 방언형인 ‘신기이’라 부르기도 한다. 파래의 종류에는 ‘국파래, 돌파래’가 조사되었다.

- ⇒ {파래} 납니다. 파래나는데, 뭐 {국파래}, {돌파래} 또 뭐 뭐 아주 파래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집니다.
- ⇒ 그 다음에 파래를 {포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라는 모음을 오라는 형태로 좀 쓰시는 거 같더라고요.
- ⇒ 신기이 쓰지. {신기이} 요는 신기이라는 말이 있지.

(5) 우무, 까사리

‘우뭇가사리’는 홍조류 우뭇가사릿과의 해조로 높이는 10~30cm이고 줄기에 잔가지가 많이 나 나뭇가지 모양이며 몸빛은 주로 검붉다. 긴 쇠갈퀴 따위로 따서 고아 우무를 만드는데 바닷속 모래나 돌에 붙어산다. 이 우뭇가사리를 끓여 만든 것이 ‘우무’인데 육지도에서는 우뭇가사리 자체를 ‘우무’라 하며 ‘까사리’와 함께 쓴다.

- ⇒ 그긴가베. {우무}. 우무라고도 쓰고 {까사리라고도} 합니다. 두 개 다 씁니다.

(6) 모자반, 풀가사리, 감태, 도박

그 이외에도 해초류에 관한 어휘에는 ‘모자반, 풀가사리, 감태, 도박’이 있다.

- ⇒ {풀가사리도} 있지.
- ⇒ {감태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 ⇒ {도박} 뭐시긴 지 모르겠는데.
- ⇒ {모자반이} 있습니다.

3) 행위

행위에 관련된 어휘로는 ‘따다, 캐다, 비다’ 등이 조사되었는데 ‘비다’는 경남방언형이다.

- ⇒ {따는} 거 그냥. 따는 기야 그 뭐 이리 죽 붙었으면 내려가 가지고 낚으로 {캐기도} 하고 뭐 그럼 뭐 다 해녀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물밑에도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막 해녀도 들어가서, 아까 그 낚 있다. 고런 거로 막 {빈다}. 우리는 그런 건 안 했었는데요. 여기 살아도.

이상의 해초류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해조류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해조류	부분 명칭	미역기, 미역줄기, 미역잎	
	종류	미역	미역, 돌미역, 양식미역
		김	김/짐, 파래김
		톳	톳, 톳나물
		파래	파래, 포래, 국파래, 돌파래, 신기이
		우뭇가사리	우무, 까사리
		기타	모자반, 풀가사리, 감태, 도박
	행위	따다, 캐다, 비다	

2.5.5. 기타

1) 오징어/이까

‘오징어’는 연체동물문 두족강 갑오징어목과 살오징어목의 일부 종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머리 부분에 다섯 쌍의 다리가 있고, 그중 한 쌍의 촉완에 있는 빨판으로 먹이를 잡는다. 옥지도에서 ‘오징어’는 ‘이까’라고도 한다.

- ⇒ 그건 {오징어고}
- ⇒ {이까가} 오징어 아닙니까. 요 이까를 오징어라 그러는데, 요 이까라 하는 거는 그것도 다 일본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고.

2) 문어/문에

‘문어’는 문어과의 연체동물로 몸의 길이는 발끝까지 3미터 정도이며, 붉은 갈색이고 연한 빛깔을 띤 그물 모양의 무늬가 있고 몸빛이 환경에 따라 변한다. 몸통은 공 모양이고 몸 표면에는 유두가 많다. 옥지도에서 문어는 다른 어종의 이름에서도 많이 나타나듯이 ‘-에’를 붙여 ‘문에’라 한다.

- ⇒ {문어}, 문어.
- ⇒ {문에}, 문에 나는 자꾸 문어 하는데, 문에. 보통 어로 예자 많이 씁니다.

3) 멧게/우렁싱이/우렁숭이

‘멧게’는 멧갯과의 원삭동물로 몸은 15~20cm이고 겉에 젓꼭지 같은 돌기가 있다. 육지도에서는 표준 어형 외에도 ‘우렁싱이, 우렁숭이’라 한다.

- ⇒ 그 {멧게}, 멧게가 {우렁싱이}.
- ⇒ 이기 인자 {우렁숭이} 아닙니까? 멧게.

4) 성게/밤싱이/밤송어/우니

‘성게’는 극피동물문 성게강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대부분 등근 몸에 석회질의 가시가 뾰뾰하게 박혀 있다. 가시 사이에 실 같은 대롱 모양의 발이 나와 쉽게 움직인다. 대개 배의 중앙에 입이 있고 등 한복판에 항문이 있다. 육지도에서 ‘성게’는 ‘성게, 밤싱이, 밤송어, 우니’라 부르는데 생긴 모양에 밤송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본 어인 ‘우니’도 함께 쓰인다.

- ⇒ 아 {성게} 아까 그 멧게, 멧게가 우렁싱이. {밤송어는} 그 밤싱이.
- ⇒ {밤싱이는} 성게.
- ⇒ 조금 노른 빛이 나오지요. 이기 인제 일본말로 우니 하거든요. {우니}.

5) 미더덕/조꿀래기

‘미더덕’은 원삭동물문 미더덕과의 하나로 몸은 누런 갈색으로 가늘고 길며 자루 끝이 바위에 붙어 있다. 겉껍질은 섬유질과 같은 물질로 되어 있어 매우 딱딱하고 식용한다. 육지도에서는 ‘미더덕, 조꿀래기’라 한다.

- ⇒ {미더덕은} 여기도 미더덕이라 합니다.
- ⇒ {조꿀래기라} 하는 건 내가 좀 들은 거 같은데.
- ⇒ {조꿀래기} 같은 경우에는 딴 데서는 이렇게 부르는 말이 없어서.

6) 꿀뚜기/호리기/호래이

‘꿀뚜기’는 꿀뚜깃과의 귀꿀뚜기, 줌귀꿀뚜기, 잘록귀꿀뚜기, 투구귀꿀뚜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육지도에서는 ‘꿀뚜기, 호리기, 호래기’라 한다.



[사진 13] 꼴뚜기/호리기/호래기



[사진 14] 불가사리/별

- ⇒ 또 {꼴뚜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어 종류가 많이 있어요.
- ⇒ 그는 인자 {호리기}.
- ⇒ 꼭 오징어 같이 {홀래이가} 오징어가 뭐꼬.

7) 불가사리/별

‘불가사리’는 불가사리강의 극피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바닷속에서 완만한 생활을 하는데, 몸은 체반(體盤)과 팔로 되어 있고 편평하며 별 모양 또는 오각형이다. 욕지도에서는 ‘불가사리, 별’이라 한다.

- ⇒ 예 {불가사리}.
- ⇒ {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8) 물거시이/물그시이/그무리/거무리, 거시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많이 쓰는 미끼는 ‘갯지렁이’이다. 욕지도에서는 갯지렁이를 ‘갯지리, 물거시이, 물그시이, 그무리, 거무리’라고 한다. 또한 지렁이는 ‘거시이’라 한다.

- ⇒ 그무리 그무리라요. {그무리}.
- ⇒ {갯지렁이}, 어.
- ⇒ 거머리가 아니고 {거무리}.
- ⇒ 그냥 {그무리} 파러 간다 이래 갖고 그무리.
- ⇒ 우리가 갯가에 나오는 바다에 모래 모래밭이나 돌 뒤져서 파서 이렇게 하는 거 {거무리라} 그러거든요.
- ⇒ 그거는 우리 보통 우리가 숨기 말하면 {물그시이}.
- ⇒ 예 그시를 {물그시이}.
- ⇒ 예, {물거시이}.
- ⇒ 가리이 낚는다 인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갯지리이라고}.

9) 새비/새우, 파래새우

‘새우’는 절지동물문 십각목 장미아목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몸은 딱지로 덮여 있고 머리, 가슴, 배로 나뉘며 머리와 가슴은 유합되어 있다. 육지도에서는 ‘새우, 새비’라 한다. 파래가 있는 곳에 많이 사는 새우를 ‘파래새우’라 한다.

- ⇒ {새우는} 그냥 지금 인제는 돈으로 이렇게 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구차한 짓은 잘 안 할라 그래요.
- ⇒ 어 {새비}.
- ⇒ {파래새우라고} 그런 걸 막 잡아먹고 하는데 수추가 이렇게 길어서 넘실넘실한다든가 이런 데는 근처에도 안 가.

10) 낙지/낙주

‘낙지’는 문어과의 하나로 몸의 길이는 70cm 정도이고 길둥글며 회색인데 주위의 빛에 따라 색이 바뀐다. 여덟 개의 다리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빨판이 있다. 육지도에서는 ‘낙지, 낙주’라 한다.

- ⇒ {낙주}. {낙지}. 낙주.

11) 거북이, 해삼, 말미잘, 해파리, 주꾸미

기타 어획물로는 ‘거북이, 해삼, 말미잘, 해파리, 주꾸미’가 조사되었다.

- ⇒ 그거는 뚝 뭐 {거북이} 같이 보이는데.
- ⇒ 이거는 {해삼}.
- ⇒ 말미, {말미잘}. 그거는 그거 아닙니까.
- ⇒ 이 {해파리}. 낙지. 그 뭐시겠습니까?
- ⇒ 이것도 우리 지역에 안 쓰고 이래 보니까 {주꾸미} 하고 낙지 잡는 데서는 우리가 사용을 하고.

2) 상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는 ‘불다’와 멍게와 성게의 색을 나타내는 ‘붉다, 노르다, 딱딱하다’가 있다.

- ⇒ {붉지}.
- ⇒ 조금 {노르} 빛이 나오지요. 이기 인제 일본말로 우니하거든요. 우니.
- ⇒ 주둥이가 우째 생겼냐 하면은 천장하고 아래가 {딱딱해요}. 바늘이 안 들어가거든요.
- ⇒ 우디라고 바닷물에 가면 투투불기 있구만 돌에 {불은} 기. 자 고거 따서도 하고.

이상의 어획물 기타류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 어획물 기타류에 관한 어휘

범주	어휘 항목		
기타류	종류	거북	거북
		오징어	오징어, 이까
		문어	문어 문에
		낙지	낙지, 낙주
		성게	성게/밤싱이/밤송어/우니
		멍게	멍게/우렁싱이/우렁송이
		미더덕	미더덕/조꿀래기
		꿀뚜기	꿀뚜기/호리기/호래이
		불가사리	불가사리/별
		갯지렁이	물거시이/물그시이/그무리/거무리, 거시이
		새우	새비/새우, 파래새우
		낙지	낙지/낙주
		기타	거북이, 해삼, 말미잘, 해파리, 주꾸미
	상태	끓다, 노르다	

2.6. 어로 도구와 어로 방법

2.6.1. 그물류

1) 부분 명칭

그물류의 부분 명칭으로는 ‘그물코’ 한 개 어휘만 수집되었다. 그물의 한 코에 해당되는 말을 ‘그물코’라 하고 단위는 ‘코’를 사용하였다.

⇒ {그물코라}가 크고 작다 그래요.

2) 종류

(1) 전체 명칭

그물은 ‘노끈이나 실, 쇠줄 따위로 여러 코의 구멍이 나게 엮은 물건’으로 낚짐승이나 물고기 따위를 잡는 데 쓰는 도구이다. 어휘 조사 시에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라는 축소된 의미에 한정해 관련 어휘를 수집하였다. 옥지도에서는 표준 어형이 그대로 사용된다. 또한 그물의 하위 분류로 ‘망’과 ‘방’이 있는데 ‘망’은 고정시키는 그물이고, ‘방’이 끌고 가는 그물의 형태라 한다. 방을 끌고 가는 배를 ‘방배’라 한다.

- ⇒ {그물이라} 하제.
- ⇒ 옛날에 {방으로} 이렇게 잡았다 방. 방으로 잡았어.
- ⇒ 그물이 {방이라} 그러더라.
- ⇒ 지금 그물, 거 우리가 망하고 방이 있는데 망하고 방이 있는데, {망은} 고정시켜 놓는 것을 망

이라 하고 방은 꼬는 걸 방이라 해요.

(2) 들이

손잡이가 길고 모양이 국자처럼 생긴, 물고기를 잡는 그물인 ‘사들’을 육지도에서는 ‘들이’라 한다.

⇒ 이 저저 저런 물에다 담가놓고 우 에다가 그 미끼로 주면 고기가 그 미끼 글로 먹을라고 저 모이거든 그러면 밑에 그걸 들이. {들이}.

(3) 홍어리/망태

‘망사리’는 제주도에서 해녀가 채취한 해물 따위를 담아 두는, 그물로 된 그릇으로 육지도에서는 ‘홍어리, 망태’라 한다.

⇒ 인제 뭐 해녀들이. 물밑에 가가지고 저저 이거 뭐고 {홍어리라} 하지. 홍어리라 하는데, 이제 문에 같은 거 잡아가지고 주 넣어가지고 중치매, 훌카매빠거든 요는 벌리고 딱 하면 그래가지고 자매고 그러는 긴데.

⇒ 어 우에는 두름발이라 하고 밑에는 홍어리라 하지. 홍어리. 홍어리, {망태}. 망태라 보통.

(4) 두름발/두름박

‘테왁’은 박의 씨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으로 육지도에서는 ‘두름발, 두름박’이라 한다.

⇒ {두름박}.

⇒ 어 우에는 {두름발이라} 하고 밑에는 홍어리라 하지.

(5) 쪽지

쪽지그물은 잡은 고기를 거둬들일 때 사용하는 그물로 육지도에서는 ‘쪽지’라 한다.

⇒ 애는 뭐 {쪽지} 같구만.

(6) 투망/토망

‘투망’은 원뿔형 모양의 그물로, 윗부분에 몇 발의 벼리가 있고 아래에는 추가 달려 있어, 물에 던지면 좌 꺾이면서 가라앉아 바닥에 닿은 후 그것을 당겨 올려 고기를 잡는다. 던지는 그물이므로 한자어를 사용하여 만든 어휘인데 다른 말로 ‘던짐 그물’, ‘쟁이’라 한다. 육지도에서는 ‘투망, 토망’이라 한다.

⇒ 이 이게 투망이거든 {투망}. 이렇게 하고 한쪽 해 갖고 착 이레 잡는 투망인데, 이건 저 서해안

이 이렇게 수심이 얇은 곳에서 해. 수심이 얇은 곳에 인제, 송어라든가 이런 거 얇은 데 이렇게 뭐 많이 무는 고기 있어요. 고기떼를 보고 던지는 거예요.
⇒ {토망인데} 이 동네는 잘 안 쓰고 도구가.

(7) 자망

‘자망’은 걸그물로 바다에서 물고기 떼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쳐 놓아 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이다. 물고기가 지나다가 그물에 말리거나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여 잡는다. 욱지도에서도 ‘자망’이라 한다.

⇒ 뽕시기로 요새 나가 많아. 요새 {자망으로} 해가 잡고.

이상의 그물류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그물류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부분 명칭	그물코	
그물류	종류	전체 명칭	그물, 망, 방
		사들	들이
		망사리	홍어리, 망태
		테왁	두름박, 두름발
		쪽지그물	쪽지
		투망	투망, 토망
		자망	자망

2.6.2. 낚시류

1) 부분 명칭

(1) 낚싯대/낚싯대/낚대/경대

‘낚싯대’는 물고기를 잡는 도구의 하나로 낚싯줄을 매어 쓰는 가늘고 긴 대이고, ‘낚싯줄’은 낚싯대에 낚싯바늘을 매어 달기 위하여 쓰는 가늘고 질긴 끈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낚싯대는 ‘낚싯대, 낚싯대, 낚대, 경대’라 한다.

- ⇒ {낚싯대에다가} 낚시에다가 꽃을 달구만은.
- ⇒ 낚싯대. {낚싯대}. 뭐 낚싯대.
- ⇒ {낚대}. 뭐 낚시 뭐 이렇게 낚대. 낚대가 제일 적합한 용어같아요.
- ⇒ 욱지서 나만큼 잡고 이런 {경대} 쓰던 놈도 없어. 전부 그냥 선부점에 가서 사 쓰지.

(2) 줄

‘낙시줄’은 ‘줄’이라 줄여 말한다.

- ⇒ 이 {줄도} 보면 5호해놓고 오는 뭐 6호를 해 놔거든 그러니까 줄 따라서 이기 또 고기 따라서 또 틀린다.
- ⇒ 요거는 인자 이 {낙시 줄} 매는 데를 퍼뜩 생각이 안 난다. 그 축. 낙시 축이라 하거든. 여를 줄 매는 데를.

(3) 줄모태/모태

‘얼레’는 낙시줄 따위를 감는 데 쓰는 기구로 육지도에서는 ‘줄모태, 모태’라 한다.

- ⇒ {모태라고} 하는데, 우리는 {줄모태}. 지금 뭐요 내 처 저방하고 태산 같이 있는데, 모태. 만들어 놓은 게.



[사진 15] 이늘



[사진 16] 줄모태/ 모태

(4) 이늘, 낙시끝

‘미늘’은 낙시 끝의 안쪽에 있는, 거스러미처럼 되어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작은 갈고리를 육지도에서는 ‘이늘, 낙시끝’이라 한다.

- ⇒ 다 이늘이라 하거든. {이늘}.
- ⇒ 고기 인제, 고기고. 요거는 {낙시끝이라} 하거든.

(5) 낙시축

낙시바늘에 줄을 매는 부분을 ‘낙시축’이라 한다.

- ⇒ 요거는 인자 이 낙시 줄 매는 데를 퍼뜩 생각이 안 난다. 그 축. {낙시축}이라 하거든. 여를 줄 매는 데를.

(6) 콩돌/뽕돌/뿔돌/봉돌/돌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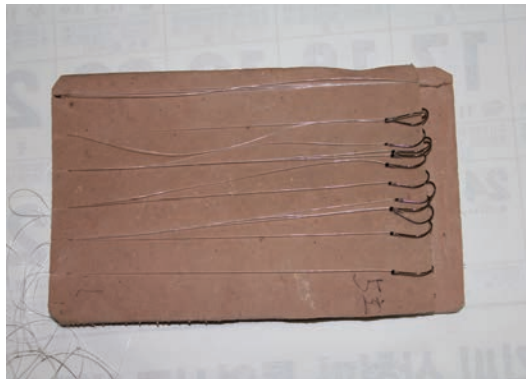
‘콩돌’은 낚싯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을 주기 위해 다는 낚시추로 예전에는 집집마다 납을 녹여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콩돌’은 ‘뽕돌, 뿔돌, 돌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 ⇒ {콩돌}, 콩돌이라 그래.
- ⇒ {뽕돌이라} 안 하나? 뽕돌. 이 밑에 이기 갖고 온 거 안 들어간다 이거야 들어가지 물에.
- ⇒ 보통 뭐 {뿔돌이라} 그러기에.
- ⇒ 이거는 봉돌이라 하는 {봉돌}.
- ⇒ {돌채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납으로 만든 거.

(7) 주지

‘주지’는 낚싯줄에 낚시바늘을 끼워 감아놓은 것으로 육지도의 대표적인 어로 방식인 채낚기에 이용된다.

- ⇒ 이 낚시하고 줄하고 이렇게 다 꾸며 놓은 걸 {주지라} 그래요. 주지. 셋팅한 걸 주지라고 그래요.



[사진 17] 주지

2) 종류

(1) 낙수

이 지역에서는 ‘낙시’를 ‘낙시, 낙수’라 한다.

- ⇒ 고기가 전부 다 이쪽에 한 마리씩 많이 물 때는 한 마리씩 다 달리 올 든다고 {낙시} 열 두 개 매면, 열두 개 다 달리 올라온다고.
- ⇒ 낙숫대. 뭐 {낙숫대}.

(2) 주낙

‘주낙’은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로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다. 이 주낙을 송지면에서는 ‘주낏, 주낙’이라 한다. 어떤 물고기를 잡는지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다.

- ⇒ {주낙} 이깎을 쓰기 위해서 게를 잡았다 한다.
- ⇒ 주낏. {주낏이네}. 어 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어 미끼 달아가지고 고마 열매든지 그냥 막 뺏친다아니가.

(3) 삼봉낚시

‘삼봉낚시’는 세 갈래의 갈고리가 있는 큰 낚시를 말한다. 이 어휘에 대응되는 말을 수집하지 못 하였다. 지역에서는 이런 낚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상의 낚시류의 관련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낚시류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낚시류	부분 명칭	낚싯대	낚싯대, 낚싯대, 낚대, 경대
		낚싯줄	(낚시)줄
		얼레	줄모태, 모태
		미늘	이늘, 낚시끝
		기타	낚시촉 뽕돌, 쫑돌, 주지
	종류	낚시	낚시, 낙수
		주낙	주낏, 주낙

2.6.3. 배

1) 부분 명칭

(1) 갑판

배 위에 나무나 철판으로 깔아 놓은 넓고 평평한 바닥을 ‘갑판’이라 한다.

- ⇒ 위에 딱 있는 걸 {갑판이라고} 갑판.

(2) 이물

‘이물’은 배의 앞부분을 말한다. 육지도에서는 ‘이물’이라 표현하였다. ‘이물’은 사람의 얼굴에도 비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 앞을 {이물}.
- ⇒ 사람 얼굴을 갖다가 이물이라 하거든. 그기라. {이물}.

(3) 꼬올

‘꼬올’은 배의 뒷부분을 말한다.

- ⇒ 뒤에는 뒤에를 {꼬올}.

(4) 돛

‘돛’은 배 바닥에 세운 기둥에 매어 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만든 넓은 천으로 바람을 받아 배를 가게 한다. 지역에서는 ‘돛’이라 한다.

- ⇒ {돛을} 달 수 있는 시설이 있지요.

(5) 돛대/짐대

돛을 달기 위하여 배 바닥에 세운 기둥을 ‘돛대, 짐대’라 한다.

- ⇒ 돛대라기보다도 {돛대} 이거 보면서 짐대라고 그러지. 짐대
- ⇒ 돛대를 짐대라고 하기도 하고. 돛대라고 하기 돛대 그건 원래 표준말이고 지역에서 주로 쓰는 말은 {짐대}.

(6) 활대

돛 위에 가로 댄 나무를 ‘활대’라 한다.

- ⇒ 요거는 {활대}. 요거는 요 지다랑게 대가 서갈 수 있는 게 돛대고 이거는 활대.

(7) 닻/땃

배를 한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땃, 닻’이라 한다. 갈고리가 달린 기구 갈고리가 흙바닥에 박히어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 ⇒ 그건 {땃이라} 써요.
- ⇒ 땃, {땃}.

(8) 닻줄/땃줄/버릿줄

‘땃줄’은 닻을 매다는 줄로 땃줄이나 쇠줄로 되어 있다. 욕지도에서는 ‘땃줄, 땃줄, 버릿줄’이라 한다. ‘땃줄’은 어두경음화된 어휘이고, ‘버릿줄’은 ‘땃줄’의 또 다른 어형인 ‘몰잇줄’에서 파생된 어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땃줄이라 그러지.
- ⇒ {땃줄}.
- ⇒ 그거를 {버릿줄} 하거든요.

(9) 노, 노우데/우데, 노추리/추리, 노상새, 노손, 낫잔지/낫잔디, 노초제

‘노’는 물을 헤쳐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로 나무나 합성수지로 만드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납작하고 손잡이 부분은 가늘다. 노는 크게 노 가운데 배와 고정시키는 부분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나눌 수 있는데 노를 젓는 손잡이가 있는 윗부분을 ‘노우데, 우데’라 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납작한 부분인 아랫부분을 ‘노추리, 추리’라 한다. ‘노우데’는 ‘노+우(上)+-에(처소부사격 조사)’가 합쳐진 어형임을 알 수 있다. ‘노상새’는 노를 배에 걸칠 때 노와 배가 붙여지는, 마주보는 부분을 말한다. ‘노손’은 노 손잡이로 이 부분을 잡고 배를 젓는다. ‘노잔지, 노잔디’는 노를 배에 연결하는 부분에서 노에 덧댄 나무 부분을 말하고 여기에 쇠나 나무를 박아 배에 고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노초제’이다. ‘노쫓’은 노를 배에 고정할 때 배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노를 꽂아(걸어) 고정한다. 그 고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 ⇒ 요거. {노}.
- ⇒ 그러면 요 밑에 거는 노 우에 거는 {노우데라} 하거든 노우데, {우데라} 하고. 밑에는 아이고 이 노추리.
- ⇒ {노추리}. {추리}. 노추리.
- ⇒ 노에 이렇게 이렇게 거 붙어서 밑에 나무하고 그 새하고 이렇게 마주 서는 거. 그 {노상새}, 상새.
- ⇒ 요도 보면 인자 이 우게는 노우데라 하고, 요 보면 또 이 사람이 지금 잡고 있어가지고 안 보이지. 꼭대기가 있어요. 이게 잡고 있는 꼭대기. 그러게 {노손이라} 하거든. 노손.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보면 낫잔지가 있거든.
- ⇒ {낫잔디}. 낫잔지.
- ⇒ {낫잔지라} 하는 게 있고.
- ⇒ 그는 인자 또 낫잔지에서 또 보면 또 쇠나 나무나 박은 게 있어. 그걸 그것보고 {노초제라} 하거든.

2) 종류

(1) 어선

고기 잡는 배를 ‘어선’이라 한다.

⇒ 고기 잡는 배는 {어선}.

(2) 똑딱선/발동기

발동기로 움직이는 작은 배를 ‘똑딱선, 발동기’라 한다.

⇒ 그걸 뭐 {똑딱선이라} 하기는 하는데, 고만 주로 여서는 쪼매난 {발동기라} 하고 뭐 이라지.

(3) 풍선/돛대배, 뗏마/뗏마새끼/뗏마, 전마선

돛이 달린 돛단배를 ‘풍선, 돛대배’라고 한다. 이 지역에서 많이 쓰는 풍선을 ‘뗏마, 뗏마새끼, 뗏마’라 한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전마선’은 큰 배와 육지 또는 배와 배 사이의 연락을 맡아 하는 작은 배라 풀이하고 있는데 제보자들은 ‘뗏마’에 해당되는 배를 전마선이라 하였다. 이는 예전에 육지와 배의 연결을 이 배를 이용해 많이 하여 풍선인 뗏마와 전마선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돛을 달아갖고 갈 수 있는 건 또 {풍선이라고} 했고.

⇒ 이는 뭐 {돛대배네}.

⇒ {뗏마라} 그래. 쪼매난 배.

⇒ 이 저저 요 뭐고 경상도 말 {뗏마새끼} 하거든.

⇒ 옛날에 저희들이 쓰고 있던 무동력선 그거는 이 동네에서는 {뗏마라고} 불렀는데, 뗏마가 일본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은 전마선입니다. 전마선.

⇒ {전마선이고} 그게 전마선이고 인제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그걸 뗏마라고 불렀습니다.

(4) 떼배

‘떼배’는 뗏목처럼 통나무를 엮어 만든 배로 주로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데 쓴다. 육지도의 ‘떼배’는 육지도에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할 때 이용한 배로 다른 지역의 ‘떼배’와는 차이가 있다. 배 중앙에 노썰을 설치해 노를 걸 수 있고, 평상인 ‘상자리’를 설치해 배 생활을 위한 물품을 두었다. 또한 돛대를 세워 바람을 이용해 먼 거리까지 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 돛은 ‘배’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주로 ‘띠’를 촘촘히 엮어 돛으로 사용하였다.

⇒ 우리 {떼배하고} 같은데, 떼배하고 같은데, 인제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떼배. 그게 인제 그대로 인제 통나무를 뭐 이렇게 구멍을 파서 창으로 찔러서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나무 그게 인제 부력에 의해서 간단 말입니다.

(5) 통구멍이/통구미/통굴맹이

육지도에서는 ‘통구멍이, 통구미, 통굴맹이’라는 배가 있는데 이는 남해안에서 어로 활동을 하기 편하게 만든 배로 진해만부터 육지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³⁾ 배의 가장 밑바닥에 세로 방향으로 힘을 지탱하고 배 길이를 정하는 밑판이 있고, 돛은 큰 돛과 작은 돛이 있는데 큰 돛을 달 수 있는 돛대를 배 중간에 세운다.

⇒ 통구멍이네요. {통구멍이}. 이 배 이름이 {통구맹이}.
⇒ 그래서 인제 통구미, {통구미}.

(6) 방배

육지도에서는 그물을 끄는 배는 ‘방배’라 하는데 ‘방’은 끌고 가는 그물을 말한다.

⇒ {방배}, 그물을 끄는 배를 방배라 그래요.

(7) 챗배

‘챗배’는 채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배로 주로 남해, 제주도 근해에서 멸치를 잡을 때 쓴다.

⇒ 머루치를 잡는 배들이 {챗배라} 챗배.

이상의 배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배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배	부분 명칭	갑판	갑판
		이물	이물
		고물	꼬을
		돛	돛
		돛대	돛대/짐대
		활대	활대

3) 『육지면지』 426쪽 참조.

범주	어휘 항목		
		뎛	뎛/뎛
		뎛줄	뎛줄/뎛줄/버릿줄
		노	노, 노우데/우데, 노추리/추리, 노상새, 노손, 낫잔지/낫잔디, 노초제
		상앗대	열레, 열레 작대기
		키	키/치/따리
		배 옆	삼
	종류	고깃배	어선
		뚝딱선	뚝딱선, 발동기
		풍선	풍선/뚫대배, 뎛마/뎛마/뎛마새끼, 전마선
		지역 배	떼배, 통구밍이/통구미/통굴맹이
		그물 끄는 배	방배
		멸치잡이 배	챗배

2.6.4. 기타 어로 도구

1) 종류

(1) 창

‘작살’은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를 말하는데 육지도에서는 ‘창’이라 한다.

⇒ 찌르는 기라고 {창이라}.

(2) 발, 죽방, 대나무발/대발

어살을 제보자들은 ‘발, 죽방’이라 하는데 예전에는 대나무로 엮은 어살을 많이 설치하여 ‘대나무발, 대발’이라 하다. ‘죽방’은 남해안의 ‘죽방렴’에서 온 말이다.

⇒ {발에} 거리가 있고.

⇒ {죽방}, 어 맞아. 죽방.

⇒ {대나무발}. 대나무발.

⇒ 그냥 {대발이라고}. 대나무발이라고. 대발.

(3) 통발

‘통발’은 가는 뗏조각이나 싸리를 엮어서 통같이 만든 고기잡이 기구로 아가리에 작은

발을 달아 날카로운 끝이 가운데로 물리게 하여 한 번 들어간 물고기는 거슬러 나오지 못하게 하고 뒤쪽 끝은 마음대로 묶고 풀게 되어 있어 안에 든 물고기를 꺼낼 수 있게 만든 어로도구이다. 이 지역에서는 ‘통발’이라 한다.

⇒ {통발이네요}. 통발도 뭐 여서 많이 하고. 요거 통발.

(4) 바구리

‘바구니’는 대나 싸리 따위를 쪼개어 둥글게 결어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으로 크기나 용도도 여러 가지이다.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불리는 이름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리 나타난다. 육지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바구니를 ‘바구리’라 한다.

⇒ 그 뭐 {바구리라} 하지. 바구리. 바구리라 하지.

(5) 뚜꾸마리

‘종다래끼’는 작은 바구니로 다래끼보다 작으며 양쪽에 끈을 달아 허리에 차거나 멜빵을 달아 어깨에 메기도 하는 도구이다. 종다래끼라는 어휘는 사용하지 않고 ‘뚜꾸마리’라 하는데 멜 수 있는 바구니라 한다. 그리고 못생긴 여자를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도 ‘뚜꾸마리’에 비유해 ‘여자가 뚜꾸마리라 저리지.’라는 표현을 한다고 한다.

⇒ {뚜꾸마리} 하는데 그래 내가 아가씨한테 이런 소리를 하면 뭐라 할랑가 모르겠는데 아새끼 못 때그러 나 놓으면 {여자가 뚜꾸마리나 저리지} 저런 아 새끼를 낳아 났나 이카거든. 그래 이걸 보고 뚜꾸마리라 그래요.

(6) 호미, 호매이

바지락을 켤 때 쓰는 쇠로 만든 기구로 끝은 뾰족하고 위는 대개 넓적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목을 가늘게 휘어 구부린 뒤 둥근 나무 자루에 박는다. 육지에서 사용하는 호미도 있으나 자루의 길이나 앞에 달린 쇠 모양이 다르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도 ‘호미, 호매이’로 사용하고 있었다.

⇒ {호미네}.

⇒ {호매이}. 경상도 말로 호매이. 호미라 하기도 하고 호매이 하는.

(7) 낫, 애낫/일본낫

‘낫’은 미역 따위를 베는 데 쓰는 어로도구이다. 시우쇠로 ‘ㄱ’ 자 모양으로 만들어 안쪽으로 날을 내고, 뒤 끝 슛베에 나무 자루를 박아 만든다. 농기구보다는 크기가 절반 정도

로 작다. 제보자는 고기 잡을 때는 낚을 쓰지는 않지만 그물 작업을 할 때는 사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육지도에서는 ‘낚’이라 하며 일본낚은 ‘애낚’이라 하는데 이는 ‘왜낚’에서 나온 발음형이다.

- ⇒ {낚이네}.
- ⇒ 낚. 낚도 {애낚이래}. {일본 낚이}.

(8) 물웃

‘물웃’은 물속에서 일을 할 때 입는 잠수복 따위의 옷이다.

- ⇒ {물웃이라} 하거나 해녀들.

(9) 오리발/물갈퀴/오골

사람이 물속에서 활동할 때에 발에 끼는 오리발 모양의 물건을 ‘오리발, 물갈퀴, 오골’이라 한다.

- ⇒ {오리발이라} 그러는데.
- ⇒ {물갈퀴를} 전부 {오골이라} 하는데.

(10) 이끼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육지로 운반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예전 소규모의 목선으로 어로 활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한 어획도구를 ‘고기살리는 배’라 하는데 육지도에서는 ‘이끼수’라 부른다.

- ⇒ {이끼수} 카는 거.

(11) 투구/머구리/목우리

‘투구’는 잠수할 때 머리에 쓰는 잠수 기구로 공기를 받는 변과 공기를 뿜는 변이 달려 있는데, 잠수부가 머리에 쓰고 두 변을 조절하면서 물속에서 활동하는 어로도구이다. 육지도에서는 ‘투구, 머구리, 목우리’라 한다.

- ⇒ 요거는 목우리 그저 저 그 씨는 그기네. {투구}.
- ⇒ 목우리. 머구리. {머구리인데}, 원래는 머구리.
- ⇒ 투구가 아니고 이게 인제 그 뭐 {목우리}.

(12) 창경/창갱/청경/청갱/챙경/수경/물안경

‘수경’은 물속에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눈을 뜨고 물속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안경으로 이 지역에서는 ‘창경, 창갱, 청경, 청갱, 챙경, 수경, 물안경’으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 ⇒ 물을, 아 물을 물을 물 그 물이 막 바다를 그거를 하면 저놈을 딱 내리다 보면 그 안에 내리다 보면 물 안이 물밀이 환하게 보이거든. 물을 {창경이라} 하더라.
- ⇒ 창경, {창경}, {청경}.
- ⇒ 수경이라 하는 거라. {수경}.
- ⇒ 원래 수경인데, 작은 거는 우리가 수경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물안경}. 근데 이걸 이거는 이 지역말로 {창갱이라고} 하기도 하고 {청갱이라} 하기도 하고.

(13) 바늘대

‘그물바늘’은 그물을 짜거나 손질할 때 쓰는 바늘로 이 지역에서는 ‘그물바늘’을 ‘바늘, 바늘때, 그물때’라 표현하였다. 바늘때는 그물코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것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는 ‘바늘’과 ‘대’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 ⇒ {바늘대} 뭐 우리집에 가면 써왔는데. 뭐. 바늘대. 그물 짚는 바늘대지.

(14) 쪽지/뜰채

‘뜰채’는 잡은 물고기를 건져 올릴 때 사용하는 도구로 이 지역에서는 ‘쪽지, 뜰채’라 한다.

- ⇒ {뜰채}.
- ⇒ {쪽지가}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 뭐 이렇게.

(15) 어탕기, 문어단지

‘어탕기’는 물고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계이고, ‘문어단지’는 문어를 잡기 위하여 긴 줄에 매달아 바닷속에 가라앉혀 두는 단지로 구멍에 잘 들어가는 문어의 속성을 이용한 것이다.

- ⇒ {어탕기} 고만 딱 가면 또 요새 어탕기 좋은 거는 근처에 가면 뽀뽀뽀 요 돌이다 이렇게든.
- ⇒ 문어 낚시 할 때 그걸 쓰는데, 낚시는 안 하고 인제 문어는 {문어 단지라고} 해서 그걸 빠뜨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거기.

(16) 이깎/미끼, 인공미끼/공갈미끼

‘미끼’는 낚시 끝에 꿰는 물고기의 먹이로 육지도에서는 ‘미끼, 이깎’이라 한다. 미끼 중에는 실제로 ‘지렁이, 게’ 등이 아니라 닭털, 오리털 같은 가짜 미끼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인공미끼, 공갈미끼’라 한다.

- ⇒ 인제 우리가 인제 바다에 인제 땅에 인제 떨어뜨린 {미끼}, 그러니까 바닷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다에 기어다니는 거라든가.
- ⇒ 볼래이는 {이깎을} 낚시다 끼 매가지고 이 길게 이렇게 이깎을 끼 가지고, 그라 저 덕에 진 데가 가서 인자 이 흘러주기는 기라.
- ⇒ {인공 미끼는} 나는데 또 이렇게 뭐야 닭털이라든가 오리털이라든가 부드러운 털을 기다가 이렇게 묶어서, 이게 새우나 다른 일반 먹이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 ⇒ 낚시에 이렇게 치장을 해서 인제 {공갈미끼를} 달아가지고 낚는 거고.

(17) 후아져빠리다, 빠져빠리다, 켜다

꽃꽂하던 물체가 구부러지는 상태를 ‘후아져빠리다’라고 표현한다. 또한 박힌 물건이 제자리에서 나오는 상태를 ‘빠져빠리다’라 한다. 그리고 개수나 수량이 많은 상태를 ‘켜다’라 표현하는데 이는 경남 방언형이다.

- ⇒ 그것도 성양간에서 만들어 쓰는 저런 건 잡아 젓기면 다 {후아져빠리}, {빠져빠리고}, 아주 그거는 쇠로 갖다가 별도로 맞춰서 크게 딱 걸어가지고 얼마나 크게 채 질긴데.
- ⇒ 바늘때, 바늘대 뭐 우리집에 가면 {켰는데}, 뭐, 바늘대, 그물 집는 바늘대지.

이상의 기타 어로 도구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8〉 기타 어로 도구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기타 어로도구	종류	작살	창
		어살	발, 죽방, 대나무발, 대발
		통발	통발
		바구니	바구리
		종다래끼	뚜꾸마리
		호미	호미, 호매이
		낫	낫, 애낫, 일본낫
		물옷	물옷
		물갈퀴	오리발, 물갈퀴, 오골
		고기살리는배	이끼수

범주	어휘 항목		
		투구	투구, 머구리, 목우리
		수경	창경, 청경, 창갱, 청갱, 창갱, 수경, 물안경
		그물바늘	바늘대
		뜰채	뜰채, 쪽지
		미끼	이깁, 미끼, 인공미끼, 공갈미끼
	상태	후아저빼리다, 빠저빼리다, 켜다	

2.6.5 어로 행위

1) 조개류 관련 어로 행위

조개류와 관련된 어로행위에는 ‘파다, 캐다, 떼다’에 관한 기초어휘 항목이 있었다. ‘파다’에 관련된 어휘로는 ‘파다’가 있었고, ‘캐다’에 관련된 어휘로는 ‘캐다’를 사용하였다. ‘떼다’는 ‘따다’가 조사되었다.

- ⇒ 홍합도 이런 놈 {따가지고} 전부 저거 나라 보내고, 저 중국을 보내고. 그래서 요서 그 사람들이 그래 장사를 하는데, 그게 제일 많이 났어.
- ⇒ 지금도 요 뒤에 가서 땅을 {파보면} 꿀꺽데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 ⇒ 홍합 {칼 때}. 홍합 칼 때는 그 쉬리.

2) 해조류 관련 어로 행위

해조류에 관련된 어로행위에 관련 어휘는 ‘말리다, 비다’가 조사되었는데 ‘비다’는 ‘베다’의 경남방언이다.

- ⇒ 그 저장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인제 잘라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 ⇒ 해녀들이 들어 가가지고 그냥 물밑에도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막 해녀도 들어가서, 아까 그 낫 있대. 고런 거로 막 {빈다}.

3) 그물류 관련 어로 행위

그물 관련 어로 행위에는 ‘(그물) 뺨 돌리다, 묶다, 감다, 끌다, 둘러 싸다, 던지다, 놓다, 집다, 잡다’ 등이 조사되었다. 그 중 ‘집다’는 ‘깎다’의 경남방언으로 구개음화 어형이다.

- ⇒ 어초 같은데 밑에 이빠이가 있으면, {뺨 돌리가지고} 바로 놔 놓으면 고기가 들어와서.
- ⇒ 이렇게 {묶어서}.
- ⇒ 줄 {감는} 거.
- ⇒ 이렇게 망. 고정시키는 거. 방은 {끌고} 가는 거.

- ⇒ 끌고 가는 거, 인자 {둘러싸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거.
- ⇒ 송어라든가 이런 거 얇은 데 이렇게 뭐 많이 무는 고기 있어요 고기떼를 보고 {던지는} 거예요.
- ⇒ 세상을 약은 님이 감식이구만. 그런데 저거는 이 자망을 {놔도} 안 걸리거든.
- ⇒ 바늘대 뭐 우리 집에 가면 썼는데. 뭐. 바늘대. 그물 {집는} 바늘대지.
- ⇒ 배가 가로 하나 딱 그물로 {잡고} 서가 있다고 소굴맹이 이 그물을 이리 맨들어 가지고 그러면 양쪽 요 배가 딱 도착하면.

4) 낚시류 관련 어로 행위

낚시 관련 어로행위에는 ‘낚다, 걸리다, 올리다, 올리빠다, 땡기다, 끼다, 흘려주다, 비름하다, 날바주다’ 등이 조사되었다. ‘비름하다’는 물고기가 모여들게 하기 위해 밑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날바주다’는 낚싯줄을 살살 조금씩 내리는 것을 말한다.

- ⇒ 그 기계가 그래 가지고 이제 고기 {낚고}.
- ⇒ 머루치 끼가지고 놔놓으면 줄이 {걸린다} 아니까. 줄이 걸리면 아 요 밑에 돌이 있구나 하는 기라.
- ⇒ 도다리 낚는 사람도 오면 끌고 땡기다 보면 도다리도 낚아 {올리고}.
- ⇒ 이놈을 딱 이래 담가놓고 돌 위로 들시면 들어가면 {올리빠거든}.
- ⇒ 물고 들어올 때 잡아, 이 {땡기뿌면} 말이지.
- ⇒ 어 밑에 이래 딱 깔아 놔다가 {땡겨올리뵈다} 이말이래 그러면 안에 그 제이리하고 뭐지 그런게 다 들어가빠, 고마.
- ⇒ 볼래이는 이깎을 낚시다 끼 매가지고 이 길게 이렇게 이깎을 {끼 가지고}, 그라 저 덕에 진 데가 가서 인자 이 {흘려주기는 기라}.
- ⇒ {비름}, 비름이라 하면 밑밥을 비름이라 하지 않고 밑밥을 치는 행위를 비름이라 합니다.
- ⇒ {비름을 한다}.
- ⇒ 사알 {날바주면} 우리가 보통 날바준다 그러니까. 요러 사 이래갖고.

5) 배 관련 어로 행위

배에 관련된 어로행위에는 ‘(키, 노) 잡다, 타다, 매다, 뜨다, 띄우다, 가라앉히다, 싣다, 잡다’ 등이 조사되었다.

- ⇒ 또 이 사람이 지금 {잡고} 있어가지고 안 보이지. 꼭대기가 있어요. 이게 잡고 있는 꼭대기. 그렇게 노손이라 하거든.
- ⇒ 배를 {타고} 왔느냐, 걸어왔느냐 그 말이에요.
- ⇒ {매} 달아서 이렇게 해 갖고, 손으로 인제 거 그 인력으로 이렇게 낚는 거예요.
- ⇒ 배에 띄어놓고 배야 어디를 가든지 마든가 그야 자갈밭에만 {떠} 가면 되거든.
- ⇒ 땅발이라고 해서 땅에다 {가라앉쳐줘야} 해요.
- ⇒ 그 먼 곳까지 낚시 인제 거 깨득 {싣고} 가서 이렇게 줄낚시해서 이렇게 뭐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많은 가봐.
- ⇒ 그면 많이 들어오면 배가 {실을} 때도 없이 많이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때는 안 들어오고.
- ⇒ 배가 가로 하나 딱 그물로 {잡고} 서가 있다고 소굴맹이 이 그물을 이리 맨들어 가지고 그러면 양쪽 요 배가 딱 도착하면.

6) 기타 도구 관련 어로 행위

그 외에도 ‘찌르다, 들시다’ 등의 어휘가 조사되었다.

- ⇒ {찌르느} 기라고 창이라.
- ⇒ 이놈을 딱 이래 담가놓고 돌 위로 {들시면} 들어가면 올리빠거든.

이상의 어로 행위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9〉 어로 행위 관련 어휘

항목	어휘 항목
조개류 관련 어로행위	파다, 캐다, 따다
해조류 관련 어로행위	말리다, 비다
그물류 관련 어로행위	(그물) 뺨 돌리다, 묶다, 감다, 끌다, 돌려 싸다, 던지다, 놓다, 집다, 잡다
낙시류 관련 어로행위	낙다, 걸리다, 올리다, 올리빠다, 뺨기다, 끼다, 흘려주다, 비름하다, 날바주다
배 관련 어로행위	(키, 노) 잡다, 타다, 매다, 뜨다, 띄우다, 가라앉히다, 신다, 잡다
기타 도구 관련 어로 행위	찌르다, 들시다

2.7. 음식

2.7.1. 젓갈류

육지도의 젓갈류에 관한 조사에서는 다양한 젓갈이 조사되지 않았다. 멸치젓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는데 ‘멸치’로 만든 젓갈을 ‘멸치젓, 머루치젓갈, 반멸젓’이라 부른다. 이중 ‘반멸젓’은 ‘반멸’이라는 작은 멸치로 만든 젓갈로 아주 담백하고 맛이 있으나 공기를 접하면 검은색으로 흑변한다. 이 외에도 ‘굴젓, 명태젓’이 조사되었다.

- ⇒ {멸치젓은} 개봉을 해서 우리가 인제 이렇게 개봉을 해서 인제 이렇게 먹게 되면은 흑변해요. 젓갈. 요 주로 {머루치젓갈이지}.
- ⇒ 그냥 반멸 이렇게 쓰는데 그거를 인제 그거의 주된 요리의 요그 요리는 젓갈이에요. {반멸젓}.
- ⇒ {명태젓}.
- ⇒ 젓갈을 담아서 이렇게 먹으면은 꼭 {굴젓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2.7.2. 욕지 음식

욕지도를 대표 음식은 ‘고구마 빼떼기’를 이용한 것이다. 다른 곡물에 비해 고구마가 많이 생산되나 이는 저장성이 없어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 ‘빼떼기’이다. 고구마는 욕지도에서는 ‘고매’라 하고, 고구마를 썰어 말린 것을 ‘(고구마)빼떼기, 절간’이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만든 음식이 ‘빼떼기 죽, 떡, 조무래기’가 있다. ‘조무래기’는 빼떼기를 갈아 밀가루에 넣어 만든 빵이다. 또한 ‘고구마 잎 겹절이, 갈치 호박국’ 등이 유명하다.

- ⇒ {고구마가} 원래 저장성이 없어요.
- ⇒ 고매지 {고매}.
- ⇒ 절간고구마를 만드는 {절간을} 만들죠. 잘라서 그 인제 건조를 시키는 거죠.
- ⇒ 말린, 고구마 말린 게 {빼떼기라고}.
- ⇒ {빼떼기 죽을} 쑤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거기 인제 대부분이었었고.
- ⇒ {떡도} 시루떡같이 찌면은 맛이 있어요.
- ⇒ {고구마 빵} 정도로 이렇게 작은 그걸 인제 인제 그 성행을 해서 손으로 그냥 주물러서 인제 이렇게 성행을 해가지고 찌서 먹는 그거를 그걸 {조무래기라} 그래요.
- ⇒ 고구마 줄기가 줄기가 아니고 잎자루지 {잎자루 겹절이} 하듯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었어요



[사진 19] 빼떼기 말리기

이상의 음식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0〉 음식 관련 어휘

범주	어휘 항목		
음식	젓갈	멸치젓, 머루치젓갈, 반멸젓	
	육지 음식	고구마	고구마/고매
		말린 고구마	(고구마)빼때기, 절간
		빼때기 이용 음식	빼때기 죽, 떡, 조무래기
		기타	고구마 잎 곁절이, 갈치 호박국

2.8. 민속

2.8.1. 명칭

육지도는 바다를 끼고 있는 어촌 지역이므로 어획량을 늘리려는 고사를 많이 지냈다. 고사 명칭은 일반적으로 ‘고사’라 하고 ‘풍신제, 진수식, 선신제, 선왕제’ 등으로도 부른다. ‘풍신제’는 풍신인 영등할머니에게 지내는 제사이고, ‘진수식’은 새로 만든 배를 처음으로 물에 띄울 때에 하는 의식이다. ‘선신제, 선왕제’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이롭게 하는 신을 모시는 제의이다. 제의를 지내는 시기는 때에 따라 다르나 음력 2월인 한 해의 어로 활동이 시작인 시기, 혹은 계절풍이 불 때 지낸다. 제의에 올리는 음식은 다른 고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바다에서 잡은 어획물이나 나물류, 떡, 술 등을 올린다.

- ⇒ 그래서 인제 배에서 막 돼지잡고 이래갖고 {고사한다고} 그래가지고.
- ⇒ 우리가 {풍신제를} 음력 이 철에 올려요. 계절풍 막 불어올 때. 막 이렇게 올려요.
- ⇒ 이제 배라는 게, 인제 우리가 여기 {진수식이잖아요}. 진수식인데 서낭, 서낭하는 거 있어요.

2.8.2. 행위

육지도에서 고사는 ‘할맛네’와 ‘서낭신’에게 지낸다. 할맛네는 어류와 나물류를 관장하는 영등할머니로 본격적인 어업이 시작되는 시기에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지내는 것을 ‘고사 모시다, 할맛네 지내다’라고 하는데 고사를 지내지 않아 할맛네가 심술을 부리면 바람이 많이 불어 어로행위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고사를 지내고 바람이 잦아지는 것을 ‘바람 잠 재우다, 할맛네 올라가다’라 표현한다.

1) 고사 하다/고사 지내다/할맛네 지내다/바람 올리다

육지도에서는 고사를 지내는 행위를 ‘고사 하다, 고사 지내다, 할맛네 지내다, 바람 올리다’라고 한다. ‘할맛네 지내다, 바람 올리다’는 ‘풍신제’에 관한 것인데 바람을 관장하는

풍신인 영등할멈에게 고사를 지내는 것을 ‘할맛네 지내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풍신제는 바람을 잠재우는 제사이므로 ‘바람 올리다’라는 표현도 한다.

- ⇒ 이래갓고 {고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인제 그래 인자 의지를 할 데가 없으니까.
- ⇒ 행위가 배에 인제 약간의 {고사 지내는} 수준 정도로 하죠.
- ⇒ {할맛네 이렇게 지낸다} 이래가지고 뭐 일주일을 주기로 해갓고 한 삼주정도 해요.
- ⇒ 그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거, {올린다는} 말 그 자체가 인제 잠재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2.8.3. 기타

1) 할맛네 올라 가다/바람 잠 재우다

풍신제를 지내면 바람은 어로 활동을 하기 좋게 순해진다고 어민들은 믿는다. 이런 믿음에서 제의 후 영등할멈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믿고, 바람을 잠 재웠다고 표현한다.

- ⇒ 이 동네는 {할맛네 올라간다} 그런 말을 해요.
- ⇒ {바람을 잠 재우기} 위한 하나의 농경사회 혹은 우리 특히 바다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그 주술적인 행위지요.

이상의 민속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민속 관련 어휘

범주	조사 어휘	
민속 (제의)	명칭	고사(하다/ 모시다), 풍신제, 진수식
	대상	할맛네(영등할멈: 어류, 나물류 관장), 서낭신
	시기	음력 2월, 계절풍 불 때,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음식	나물류, 떡, 술
	행위자	선주
	행위	고사 하다, 고사 모시다, 할맛네 지내다, 바람 올리다, 나무에 오색띠 두르다, 서낭당 2~3바퀴 돌다, 서낭기 달다, 진수기념하다, (지인이) 깃발 만들어 주다
	기타	바람 잠 재우다, 할맛네 올라가다

3. 조사 결과

이상으로 민족생활어 조사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통영시 육지도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를 살펴보았다. 본 조사는 육지도 동항리 제보자 5명을 선정하여 2월 초부터 7월까지 어

촌 생활어 기초어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식은 질문지법과 민속지적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기초어휘 항목은 물론 관련된 확장 어휘까지 수집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남해안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는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획도구와 어로방법, 음식, 민속 등의 범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 중 특징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어부는 일반적으로 ‘어부, 뱃사람, 뱃놈’으로 부르며 해녀는 ‘보재기, 보재이, 물바리’라 하며 해녀의 등급에 따라 ‘상바리, 중바리, 하바리’라는 말을 써 표현한다. ‘적군’이라는 명칭은 샅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라는 말이며 이는 선주에 대응되는 어휘이다. 지역 대표 어로 방법인 채낚기를 하는 어부들의 모임인 ‘해패’라 한다.
- 2) 육지도의 물때에 관한 어휘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물, 두물, 서물.....’과 같이 ‘양수사+물’의 형태, ‘하무새, 두무새, 세무새.....’와 같이 ‘양수사+무새’의 형태, 또한 이 둘의 혼합형인 ‘한물새, 두물새, 세물새.....’ 등과 같이 ‘양수사+물새’의 형태 조사되었는데 이중 ‘물’의 형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한다. ‘사리’를 ‘양시, 양시때, 사리때’라 하며 조금은 ‘조금시, 조금때, 한조금’이라 한다.
- 3) 미세기는 ‘뜰물, 뜬물, 날물, 썰물’, ‘밀물, 들물’ 등이 사용되었는데 다른 지역의 ‘든물, 난물’에 비해 추측, 예정을 나타내는 ‘-르’ 어미를 동반하는 어휘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물 나다’를 ‘물 쓸어지다’라 표현하기도 한다.
- 4) 하루는 새벽부터 식사 때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크게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 중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침, 점심, 저녁 사이 시간을 ‘나절’에 해당되는 ‘나제’라는 어휘를 사용하며 ‘아침나제, 점심나제, 저녁나제’라 하였다. 그리고 저녁을 ‘정때’라 하기도 한다.
- 5) 남동풍을 ‘군등바람’이라 하는데 이는 남동풍이 불면 ‘군등내(군내의 경남방어형)’와 같이 쿼퀴한 기운이 들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북서풍은 ‘편갈, 된갈’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육지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사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해서 ‘사천내기, 사천내이’라 하기도 한다. 남남동풍은 ‘서마, 시마’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거나, 날이 안 좋아진다고 한다. 또한 ‘바람(이) 잘 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바람이 세다’라는 의미이다.
- 6)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것을 ‘모린 장마, 건장마’라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ㅏ’

모음을 ‘ㄱ’ 모음으로 사용한 어휘가 많이 나타났다. 여우비는 ‘오늘 호랭이 장가가는 갑다’라 하며 서술형으로 풀이해서 사용하였다.

- 7) 이 지역은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므로 ‘눈’에 관련된 어휘는 많이 분화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눈, 진눈깨비/진눈’ 정도로 조사되었고, 우박은 ‘우박비/기작’이라 한다. 또한 기타 어휘로 물이 얼어 얼음이 생기는 것을 ‘얼음이 지다’로 연어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지다’는 다양한 어휘와 연어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해머리 지다/하다, 달머리 지다/하다’ 등에서도 나타난다.
- 8) 해머리와 달머리를 보고 기상을 예측하는데 ‘해무리 지면 날 좋고, 달무리 지면 날 궂다, 달무리 하면 날 궂다, 별이 달무리에 딱 붙어 있으면 날 궂다’ 등의 형태가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관용 표현에 ‘바람 잡는다’는 선장이 바람을 통해 기후를 예측하는 행위를 말하며 바닷가에 사는 갯강구가 산으로 올라가면 큰 태풍이 닥칠 징조라 한다.
- 9) 갯벌을 보통 ‘뺨, 뺨탕’이라 하며 바닷가를 ‘갯문, 갯문가’라 한다. 그리고 모래와 자갈이 섞인 공간을 ‘작밭’이라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작밭이 많다.
- 10) 바닷물을 ‘갯물’이라 하며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을 ‘어금’이라 한다. 큰 너울을 ‘니, 궂니’라 하는데 궂니가 치면 날이 궂어진다고 기후를 예측할 수 있다.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물을 좋은 물이라 인식하며 반대의 경우는 나쁜 물이라 여긴다. 좋은 물로는 물색이 뿌연 ‘조갯물’을 들 수 있으며 나쁜 물로는 물이 아주 맑아서 바닷속까지 흰히 들여다보이는 청수가 있는데 청수가 들면 바위까지 하얗게 탈색되며 한동안 고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 11) 육지도에서는 물고기를 일반적으로 ‘고기, 궂기’라 하고 물고기 부분 명칭은 아가미는 표준 어형과 함께 ‘알개미’라 하고, 지느러미를 ‘날감지, 날가미, (고기) 날개이’라 하고, 비늘은 ‘비늘, 비눌’이라 한다. 가시는 표준 어형과 함께 ‘고기뼈, 잔뼈, 잔가시’라 하고 물고기 옆줄은 ‘음신뼈니’라 한다. ‘알’은 ‘알, 난’이라 한다. 입에 관련된 어휘에는 ‘입, 주둥이, 입술, 입천장, 혀’가 있고, 이 외에도 ‘눈, 부레, 허파’ 등이 조사되었다. 육지도에서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고등어인데 ‘꼬두리, 고도리’라 부른다. 고도리는 ‘새끼 고등어’를 부르는 말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상위 범주인 고등어 자체를 부르는 말로 쓰인다. 고등어 외에도 ‘뿔락’을 많이 잡는데 ‘뿔래기, 뿔래이, 뿔라구’ 등 다양하게 불리며 종류에 따라 ‘먹뿔래이, 열기’로 나누어 부른다. ‘감성돔’ 또한 많이 잡히는데 ‘감송어, 감식이, 감시이’라 부르며 작은 감성돔을 ‘똥감시’라 부르는데 ‘똥감시’는 잡는 시기에

따라 맛이 없어진 감성돔, 봄철에 잡히는 감성돔을 부른 말이기도 하다. 어류와 관련된 관용 표현에는 감성돔과 관련된 것이 많이 조사되었는데 ‘감시이 맛 봤나?’라는 말의 주된 의미는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인데 이는 감성돔 고기가 그만큼 맛이 있어서 나온 표현이라 한다. 그리고 감성돔은 아주 약아서 잡기가 어렵다고 하여, 약고 영리한 사람에게도 비유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고기를 잡는 일련의 행위를 ‘바리’라 하는데 이는 ‘바리 하다, 바리 가다’라는 연어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잡는 어종에 따라 ‘야도(방어)바리, 농어바리, 불락바리, 삼치바리’ 등이 있다고 한다.

- 12) 육지도에서 많이 잡히는 조개류는 ‘바지락’, ‘홍합’, ‘굴’인데 이를 보통 ‘반지락’, ‘합자’, ‘꿀, 석화’라 부르며 자연산 굴을 ‘벗굴’이라 한다.
- 13) 육지도에서는 게가 주된 어획물이 아니므로 관련된 어휘가 많이 없다고 한다. 게는 ‘기, 끼’라 하며, 소라게를 ‘게고둥, 집게’, 털게를 ‘응게, 물게’라고 한다.
- 14) 해조류에 관한 어휘로는 ‘미역기, 미역줄기, 미역잎, 돌미역, 양식미역, 짐, 파래김, 파래/포래, 국파래, 돌파래, 신기이, 우무/까사리, 모자반, 풀가사리’ 등이 조사되었다.
- 15) 오징어는 ‘이까’, 성게는 ‘밤싱이/밤송어/우니’, 멍게는 ‘우렁싱이/우렁송이’, 미더덕을 ‘조꿀래기’, 골뚜기를 ‘호리기/호래기’, 불가사리는 ‘별’이라 한다. 미끼로 많이 쓰는 갯지렁이는 ‘물거시이/물그시/그무리/거무리’라 하고, 지렁이는 ‘거시이’라 한다. 새우는 ‘새비’라 하며, 낙지는 ‘낙주’라 한다.
- 16) 그물의 부분 명칭으로는 ‘그물코’가 조사되었고, 한 곳에 고정시키는 그물은 ‘망’이라 하고 끌고 가는 그물은 ‘방’이라 한다. 사들은 ‘들이’, 망사리는 ‘홍어리/망태’, 태왁은 ‘두름박/두름발’이라 한다.
- 17) 낚싯대는 ‘낚숫대/낚대/경대’라 하고, 얼레는 ‘줄모태/모태’라 하고 육지도의 대표적인 어로방식인 채낚기와 관련한 부분 명칭으로는 ‘꽁돌/뽕돌/뿔돌/봉돌/돌채, 주지’가 있다. 이 지역에서는 낚시를 ‘낚시, 낚수’라 한다.
- 18) 배에 관련된 부분 명칭으로는 ‘갑판, 이물, 꼬을, 돛, 돛대/짐대, 활대, 닻/땃, 닻줄/땃줄/버릿줄, 노, 노우데/우데, 노추리/추리, 노상새, 노손, 돛잔지/돛잔디, 노초제, 열레/열레 작대기, 키/치/따리, 삼’ 등이 조사되었다. 고깃배는 ‘어선’이라 하고 ‘뚝딱선/발동기, 땃마, 땃배, 전마선, 떼배, 통구멍이/통구미/통굴맹이, 방배, 챗배’ 등이 배 종류로 조사

되었다.

- 19) 기타 어로 도구로는 ‘창, 밭/죽방/대나무밭/대밭, 통밭, 바구리, 뚜꾸마리, 호미/호매이, 낫, 애낫/일본낫, 물웃, 오리밭/물갈퀴/오골, 이끼수, 투구/머구리/목우리, 창경/청경/창갱/청갱/창갱/수경/물안경, 바늘대, 뜰채/쪽지, 이깍/미끼, 인공미끼/공갈미끼’ 등이 조사되었다.
- 20) 조개류 관련 어로 행위로는 ‘파다, 캐다, 따다’, 해조류 관련 어로 행위로는 ‘말리다, 비다’, 그물류 관련 어로 행위로는 ‘(그물) 뺨 돌리다, 묶다, 감다, 끌다, 둘러 싸다, 던지다, 놓다, 집다, 잡다’, 낚시류 관련 어로 행위로는 ‘낚다, 걸리다, 올리다, 올리빼다, 땡기다, 끼다, 흘러주다, 비름하다, 날바주다’, 배 관련 어로 행위로는 ‘(키, 노) 잡다, 타다, 매다, 뜨다, 띄우다, 가라앉히다, 신다, 잡다’, 기타 도구 관련 어로 행위로는 ‘찌르다, 들시다’ 등이 있다.
- 21) 음식 관련 어휘로는 ‘멸치젓/머루치젓, 반멸젓, 고구마/고매, 빼떼기/절간, 빼떼기죽, 떡, 조무래기, 고구마잎 곁절이, 갈치 호박국’ 등이 조사되었다.
- 22) 민속 관련 어휘로는 ‘할맛네, 고사 하다, 고사 모시다, 할맛네 지내다, 바람 올리다, 바람 잡 재우다, 할맛네 올라가다’ 등이 있다.

이러한 남해안 어촌생활 기초어휘에 관한 조사를 통해 다음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1)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어촌생활에 관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생활어를 수집하여 분류할 수 있었다.
- 2) 어촌생활에 관해 분류체계를 나누고, 다양한 어휘를 수집하여 어촌생활에 관한 어휘망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3) 제보자의 구술 발화를 통해 경남 어촌지역의 다양한 방언 어휘를 수집할 수 있었다.
- 4) 행정구역상 같은 지역이지만 제보자를 통해 어촌 생활어 중 차이가 나는 어휘를 발견할 수 있었다.
- 5) 수집한 어휘를 표준국어대사전과의 비교 작업을 통해 수집 어휘의 등재여부와 사전과의 의미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 6) 수집한 어휘를 방언검색프로그램과 비교 작업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검증, 수정할 수 있었다.
- 7) 조사 결과물을 조사 어휘, 음성 자료, 음성전사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여, 전자사전 형식의 『민족생활어사전』 편찬의 자료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남해안 육지도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에 대한 조사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에 대한 반성은 다음과 같다.

- 1) 남해안 어촌생활 기초어휘에 관한 많은 어휘를 수집하고 분류하였지만 조사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더 많은 어휘를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2) 조사의 기본 틀인 질문지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확장어휘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항목별로 확장어휘 수집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 많은 확장어휘가 나오는 항목이 있는 반면 기초어휘 항목도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항목별 확장어휘 수준이 차이가 많아 아쉬운 점이 있다. 확장어휘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다음 조사의 과제로 남긴다.

제 3 부

연 구 결 과

제 6 장 마무리

제 6 장 마무리

2012년도에 실시한 어촌 생활어 조사는 1차~2차 년도와는 달리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 근해 섬사람들의 어로생활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섬사람들의 생활은 바다를 생업의 장으로 하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안 어촌과 많은 부분에서 동질성을 지닌다. 그러나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사람들의 어로생활은 섬의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언어, 문화상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자들은 본 조사에 앞서서 언어 전파의 장애 요소인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는 상대적으로 동일 지역 해안 어촌과는 매우 다른 생활어들이 살아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각 지역의 해안 어촌과 섬사람들의 생활권의 친소에 따라서 기초 어휘들의 양과 질에 있어서 다양한 편차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 밑에는 해상 교통이 발달됨에 따라서 섬사람들은 이미 바다로 둘러싸여서 고립된 생활을 더 이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섬사람들은 활발한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해안 어촌으로 이주하거나 반대로 해안 어촌에서 이주해오는 쌍방이동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섬사람들의 생활환경 변화는 해당 섬만의 고유한 생활어들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는 각 지역 근해의 섬사람들의 어로생활에서 사전에 미등재된 다음과 같은 기초 어휘들을 발굴할 수가 있었다. 그 내용을 지역 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조사 결과

1. 제주도 근해(추자도)

- 1) 행위자 - 추자도 어업인인 어부와 해녀 관련 어휘를 조사하였다. 어부 관련 어휘로는 ‘어부, 뱃놈, 뱃사람, 선장, 사공, 간판장, 보신’ 등 7개의 어휘가 조사되었고, 해녀 관련 어휘는 ‘무레꾼, 추자해녀, 제주해녀’ 등이 조사되었다. ‘보신’은 ‘선장을 보조하는 사람’이고, ‘무레꾼’은 추자도에서 ‘해녀’를 뜻하는 명칭으로 두 어휘는 미등재 어휘다.
- 2) 환경 - ‘물때와 미세기, 날씨, 공간, 지형’ 등으로 나뉘어 어휘를 조사하였다. 추자도에서 물때는 ‘한물, 두물, 서물…열두물’, ‘한무새날(한무셋날), 두무새날, 열두무셋날’과 같이

세어 ‘-물’과 ‘-무새날’형이 나타나고, 조금으로 ‘아적조기, 한조기, 무수’를 센다. 한 달을 두 번으로 나눠 물때를 헤아리는데, 추자도에서 ‘한무새날’(한무날)은 음력 초월흘과 스무닷새일을 말하고, 열두무날은 음력 초엿새와 스무하루의 물때를 말한다. ‘아적조기’는 아츠조금, 한조기는 ‘한조금’, ‘무수’는 한무날과 한조금 사이에 있는 조금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무수’를 ‘무쉬’의 잘못, 또는 ‘무쉬’의 북한어로 등재해 놓고 있다. ‘미세기’ 관련 어휘로는 ‘민물, 선물, 물들다, 물쓰다’가 조사되었고,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의 밀물이 가장 높은 때를 ‘사리빨’이라고 하였다.

- 3) 바람 - 추자도에서 동풍은 ‘셋바람’, 서풍은 ‘하누바람, 늦바람’, 남풍은 ‘마파람’, 북풍은 ‘늦바람’, 북동풍은 ‘놉새’, 북서풍은 ‘놉하누’, 남동풍은 ‘동마손’, 남서풍은 ‘늦하누’라고 하였다. ‘놉바람’, ‘놉하누’, ‘동마손’, ‘늦하누’ 등은 사전에 올라있지 않은 어휘다. 소나기가 갑자기 떨어질 때는 ‘마파람 쏘나기 떨어진다’와 같이 관용구로 사용된다.
- 4) 비와 ‘눈’- 추자도에서는 ‘여우비’가 조사되지 않은 대신 ‘호랭이 장계 간다’는 관용구가 조사되었고, ‘함박눈’은 ‘숨눈’, ‘짜라기눈’을 ‘짜락눈’, 안개를 ‘우네’라고 하였다. ‘해·달·별’과 관련해서는 관용구나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추자도에서 해 뜰 무렵에 동쪽이 별개지는 현상을 ‘동쌀 준다, 동쌀 뜬다, 셋바람 불라고 동쌀 뜬다’처럼 표현하고, 해질녘 서쪽 하늘의 붉은 기운은 ‘붉새’라고 해서 ‘해가 질 때 별가면은 이삼일 후에 비 온다’고 했다. ‘감새가 높이 뜨면 바람이 분다’, ‘햇머리 한 것이 날 곳치겠다’, ‘은하수 꼬랑지다’, ‘달도 월식하고 해도 해식하는데 사람이라고 맘이 안 변하겠는가’, ‘비가 올라고 무지개 친다’라는 관용구도 조사되어 어휘 목록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추자도에서는 또 ‘천둥’을 ‘하늘소리’, 은하수를 ‘칠성’, 일식을 ‘해식’, 월식을 ‘달식’이라고 한다.
- 5) ‘바다’- ‘바닥’이라고 한다. 추자도 인근 바다를 ‘안골’고, 추자도에서 먼바다를 ‘과깨바다’라고 하는데, ‘과깨바다’는 추자도에서 관탈섬 근처의 바다를 일컫는 이름이다. ‘바닷물’은 ‘갱물’, 파도는 ‘늪’, 거품을 ‘버꿈’이라고 하였다.
- 6) 지형 - 포구를 ‘큰개안’ 또는 ‘축깡’이라고 하고, 포구에 쌓아진 방파제를 ‘독두말’이라는 특이한 어휘를 사용한다. 바위도 ‘암바위, 평지바위’로 나누고, ‘여’는 ‘연똥’이라고 하는데, ‘나온 연똥, 들어간 연똥’으로 구분하고 있다. 바닷가에서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너럭바위 위에 생긴 웅덩이를 ‘뚝병’이라고 하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웅덩이’의 충청도 방언으로 올라 있다.
- 7) 어획물- 물고기, 조개류, 게, 해조류,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물고기를 추자도에서는 ‘물꺨기’라고 발음하고, 입을 ‘주둥이, 아구지’라고 부르고, 아가미는 ‘알금치’, 비늘은 ‘날개쪽, 날개쪽’, 껍질은 ‘껍떡’, 창자는 ‘배창시, 창지’라고 하였다. 또 물고기 명 가운데는 고유명과 일본어명이 혼효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어명 가운데에는 ‘새끼 이름’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추자도의 대표어종인 ‘멸치’는 ‘멜, 멜치, 꼭사리, 대멜치, 쫄멩이’형이 조사되었다. ‘멜과 멜치’는 멸치, ‘꼭사리’는 자잘한 멸치, ‘쫄멩이와 대멜치’는 크기가 큰 멸치를 가리키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고등어’는 성어를 ‘고등에’라고 하고, 새끼를 ‘난쟁이, 난깡이, 낭쟁이’ 등 이 형태가 분화되어 나타난다. ‘가자미’를 일컫는 이름으로는 ‘땅게, 박대, 까자미, 까잘미’가 조사되었다. ‘조기’도 ‘조구, 백조구, 황조구, 굴비, 부세, 깡다리, 깡치, 봄조기’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난다. ‘깡다리와 깡치’는 조기 새끼를 일컫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붕장어는 ‘병장에, 붕장에, 짱어, 떡짱어’형이 조사되었고, 방어는 ‘방어, 하마치, 야스, 부시리’가 조사되었다. ‘하마치(はまち)’는 일본에서 ‘방어 새끼’를 가리키는 어휘인데 추자도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농어’의 새끼는 ‘꼴떼기’, 민어의 새끼는 ‘통치’라고 한다. 우럭은 ‘꺼먼우럭’과 ‘빨간우럭’이 조사되었다. 추자도에서는 ‘잡어’를 ‘잡패’라고 하였다. 생선의 배를 양쪽으로 가르다는 의미의 ‘배따다’를 추자도에서는 ‘타발쓰다’라고 하였다.

- 8) 조개류- 소라와 전복, 홍합, 굴 등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어휘가 분화되어 나타난다. 소라는 ‘꾸죽’이라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큰꾸죽, 작은꾸죽, 큰소라, 잔소라’로 구분한다. ‘날 소라’는 ‘생꾸죽’, 소라 껍질은 ‘꾸죽팽이’라고 한다. 고동 종류로는 ‘참고동, 도토리고동, 소라벙이’가 조사되었다. 전복은 ‘셈복, 점복’이라고 하는데 큰 것은 ‘큰셈복’, 작은 것은 ‘작은셈복’, 전복 새끼를 ‘마다리, 귀머거리’라고 한다. 전복 내장은 ‘게웃’이라고 하였다. ‘오분자기’는 ‘마드레기’라고 하고, 깊은 바다에서 채취하는 자연산 굴은 ‘자연산 굴’이라고 하였다. ‘홍합’을 담추라고 하는데, 깊은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을 ‘담추’라 하고, 바닷가 바위에 붙어사는 것을 ‘새담추’, 바닷가 인근의 작은 담추를 ‘갯담추’라고 구분하였다. 상태와 관련해서는 ‘똥그라하다, 멘질멘질하다, 길쭉길쭉하다, 쫙긋하다’가 조사되었다. ‘쫙긋하다’는 표준어 ‘뽕죽하다’에 대응하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 9) 게- ‘기’라고 한다. 소라고동은 ‘기고동’이라고 하고, 추자도에서 ‘참게’라고 부르는 ‘게’는 다른 지역의 ‘참게’와는 다른 종류다.
- 10) 해조류 - 미역, 김, 툇, 모자반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미역은 ‘미역’이라고 하고, 미역귀는 ‘꿀통이’라고 한다. 추자도에서 미역을 세는 단위로 ‘뭇’이 사용되는데, 말린 미역 20가닥을 ‘1뭇’이라고 한다. ‘김’과 관련한 어휘도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난다. ‘김’을 추자도에서는 ‘짐, 해우’라고 하는데, 돌에서 채취하는 김이라고 해서 ‘돌짐, 돌멩이짐’이라고 한다. 처음에 채취했다고 해서 ‘첫짐’, 두 번째 채취했다고 해서 ‘두불짐’이라고 한다. 김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인 ‘짐발, 해우발, 짐틀, 해우틀’도 조사되었다. 김을 세는 단위로는 ‘툇’과 ‘매끼’가 조사되었다. 추자도에서는 1툇을 김 15장, 김 20툇을 1매끼라 한다. 파래는 ‘퍼레, 갈퍼레, 국퍼레’가 조사되었고, 모자반은 ‘물, 자반, 참

물, 참자반, 개물, 물뽕이'가 조사되었다. '물뽕이'는 말린 모자반을 쌓아둔 가리를 일컫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이밖에도 어린톳을 가리키는 '봉알톳', 우뭇가사리를 나타내는 '우무'가 조사되었고, 풀가사리 종류도 '가사리, 풀까사리, 창가사리'가 조사되었다. 이밖에 추자도에서는 산호를 '무에나무'라고 하였다.

해조류 관련 행위와 상태 관련 어휘로는 '우무 바르다, 간꼇 올르다, 간꼬짐 피엇다'가 조사되었다. '우무 바르다'는 우무를 하얗게 바랄 때 사용하는 말이고, '간꼇 올르다'는 미역이나 모자반 따위를 말릴 때 생기는 소금기를 말한다. '간꼬짐'은 더울 때 사람의 몸에 생기는 소금기를 일컫는 어휘다.

- 11) 기타 어종- 오징어를 추자도에서는 '오징에, 펜푸'라고 하고, 해파리는 '구레기'라고 한다. 해삼은 '해심'이라고 하는데, '해심, 홍삼, 홍해심, 물 밑에 사는 삼, 흑삼, 흑해심, 백삼, 백해심, 독해심' 등으로 다양한 어형이 조사되었다. 멍게(돌멍게, 참멍게, 개멍게)와 성게(굴밤수, 까만굴밤수, 하얀굴밤수, 빨굴밤수)도 어형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난다. '거북손'은 '보찰', '따개비'는 '꿀통'이라고 한다.

냄새와 상태와 관련한 어휘로는 '비렁내, 비렁내 나다, 끓다, 쫑쫑쫑하다' 등이 조사되었다.

- 12) 어로 도구 - 그물류와 배, 기타 도구로 나눠 조사하였다. 그물류로는 그물의 윗부분을 '웃굽', 아랫부분을 '아랫굽'이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아바'(웃굽)와 '히모'(아랫굽)라는 어휘도 조사되었다. 그물 종류로 '투망, 투망구물, 먼그물, 썰그물, 망사리로 '형서리, 조망태, 전복망태'가 조사되었다. '형서리'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갖고 가는 그물 주머니이고, '조망태'는 전복이나 오분자기 따위를 넣는 작은 망사리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바다에서 타는 도구'를 추자에서는 '두롱박, 둘박'이라고 하였다. 낚시류로는, 낚싯대를 '침대', 낚싯줄을 '술', 얼레를 '술몽테, 술테'라고 하였다. 낚시 종류로는 '삼봉, 펜푸낚시, 주낚, 줄낚시'가 조사되었다.

- 13) 배 부분 명칭으로 '간판, 이물, 선수, 꼬불, 돛, 돛대, 닻, 닻줄, 버릿줄, 버리매다' 등이 조사되었고, 노의 종류로 '밑노, 하노, 걸노'가 조사되었다. '밑노'는 배의 맨 뒤에서 젓는 노이고, '하노'와 '걸노'는 배의 양쪽에서 젓는 노다. '상앗대'는 '살대', '키'는 '치'라고 하였다. 고깃배 종류로 '어선, 고기잡는 대, 어장배'가 조사되었고, '기젯배' 명칭도 '똑딱선, 기계선, 발동기, 딸딸이, 작가, 작가선'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전마선'은 '전마'라는 이름 대신 일본어형인 '텐마, 뽀마'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밖에 '풍선, 떼배, 수협배, 객선' 등의 어휘도 조사되었다.

- 14) 기타 어구 - '창'(작살), 바구니류로 '바굼지, 웅둥바구리, 조락, 산테미', 호미와 낫류로 '호맹이, 까꾸리, 비창, 낫'이 조사되었다. 추자도에서는 해녀들이 입는 물옷을 '속곳' 또는 '잠벙이'라 하였다. '잠벙이'는 표준어 '잠방이'와는 다른 옷이다. 이밖에 해녀들이 물질할 때 눈에 쓰는 '물안경'은 '눈' 또는 '수경'이라고 하고, '인조미끼'는 '공갈낚시', 미

- 끼는 ‘이깎, 니끼’라고 한다. 모자반을 채취하는 긴 막대인 ‘몰대’도 조사되었다.
- 15) 어로 행위- ‘파다, 따다, 잡다, 무레질, 물리다, 땡기다’도 조사되었는데, 여기에서 ‘땡기다’는 ‘당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물 따위를 바다에 던지다’는 의미로 쓰이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다. ‘낙시 가다’의 의미인 ‘수질 가다’, ‘작살을 쏘다’는 의미의 ‘창질하다’도 고갱이 같은 어휘이다.
- 16) 음식 관련 것갈 종류로는 ‘새비젯’(새우젓), ‘뿔젯·뿔치젯’(멸치젓), ‘조구젯’(조기젓), ‘갈치젯’, ‘알금치젯’(아가미젓), ‘오징에젯·펜푸젯’(오징어젓), ‘담추젯’(홍합젓)이 새롭게 발굴된 어휘다.
- 17) 민속- 금기어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이번에 조사된 어촌 생활 관련 금기어로는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예펜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가라’, ‘물질 가기 전에 돈 놈 안 준다’, ‘정월 초하룻날은 돈 안 빌려준다’, ‘제사상에는 치자 든 고기 안 올린다’, ‘제사상에는 비늘 없는 고기는 안 올린다’, ‘정월 초나흘날은 출항 안 한다’ 등이다.

2. 동해 근해(울릉도)

- 1) 어촌 지역의 어로 활동을 하는 직업으로 가장 대표적인 직업은 어부이다. 이러한 어부는 배 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선장, 화장, 영자, 보신’과 같이 구분되기도 했고, 고기를 잡을 때 있는 위치에 따라 ‘원도모, 오른도모’와 같이 구분되기도 했다. 또 행위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아니지만 잡는 고기에 따라 그 행위도 ‘꽂치바리, 명태바리, 오징어바리’로, 계절에 따라 ‘동삼바리, 가실바리, 춘태바리’로, 잡는 시간대에 따라 ‘낮바리, 해치기, 밤치기, 셋별치기’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어휘는 ‘우야다가 여 뭐 그 저 명태바리 할 때 뭐 몇 마리 잡았지. 그 전 요새 잡는 배가 없으니까’와 ‘예. 낮오징어. 예. 저~ 낮바리라 안 하고 순 낮빠리. 낮치기 오징어 주로 많이 이래 얘기한다. 낮에 잡는다고.’로 표현되기도 해 행위자를 나타내는 명칭과도 관련이 깊었다. 즉 어부를 나타내는 명칭은 자신의 역할, 잡는 시기 또는 계절, 잡는 어종에 따라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녀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그 출생으로 인해 ‘제주사람’으로 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해녀라는 직업을 천대해서 부르는 명칭과 일본어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었는데 ‘보지기, 히바리, 오야지’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2) 물때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 ‘한물, 두물’과 같은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해안 남부에서부터 사용되고 있는 ‘만들’, ‘들물’ 등의 표현과 ‘조금’에 대한 표현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 역시도 조류의 차가 크지 않은 동해안의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는 미세기와 관련되는 ‘들물, 날물, 새발물, 새안들물, 마안들물, 마발물’과 같은 표현이 물때와 관련되는 ‘조금’, ‘초조금’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여. 여기는 조수 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런 건.’과 ‘조금이란 말 옛날에 조금 조금 소리 해다 여는 사용 하도 안 하고 그거는 잘 안 써.’라는 제보자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조류의 차를 볼 수 없다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들물, 날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음을 말하면서 이를 ‘들물’과 ‘썰물’로 표현하고 있었다. 한편 ‘썰물’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북쪽과 동쪽 사이로 흐르는 물을, ‘이숫물’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만물’은 남쪽과 동쪽 사이에서 흐르는 물을, ‘들물’은 서쪽으로 흐르는 물을 말하고 있었다. 이러한 명칭을 보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명칭과도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 3) 해가 떠 오르기 전에를 ‘해치기’로, 해가 떠 오를 무렵을 ‘새복’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중 ‘해치기’는 작업 행위와 하루 표현이 관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보통 식사 시간 전을 가리키는 의미인 ‘식전’이 하루의 일정한 시간, 즉 새벽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래서 아침이나 점심을 가리키는 말에도 ‘아침, 점심, 참때’가 사용되고 있었다. 아침을 가리키는 말에는 이 외에도 ‘동이 튼다’와 같이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점심’과 동일한 의미로는 ‘한낮’과 ‘한나절’이, 저녁과 동일한 의미로는 ‘어둡사리 낀다, 저녁나절’을 사용하고 있었다. 저녁 시간은 그 시간에 따라 ‘초저녁’과 ‘저녁’으로 구분되고 있었고, 밤을 의미하는 말로는 ‘밤중’과 ‘샛별치기, 별치기’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하루 표현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해치기 ➡ 식전, 새복 ➡ 동이 튼다, 아침, 아침나절 ➡ 점심, 한낮, 한나절 ➡ 참때 ➡ 초저녁 ➡ 저녁, 어둡사리 낀다, 저녁나절 ➡ 밤 ➡ 밤중 ➡ 별치기, 샛별치기’로 볼 수 있다.
- 4) 울릉도는 지형적인 특성,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해 바람과 비, 눈에 대한 명칭이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먼저 방위를 기준으로 동, 서, 남, 북을 나누면 이에 해당하는 바람도 동풍, 서풍, 남풍, 북풍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동은 ‘동새, 동’으로 ‘서’는 ‘새’로, 남은 ‘맏’으로, 북은 ‘새’로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바람의 명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동풍은 ‘동새바람, 동새’으로, 서풍은 ‘청풍, 댕갈바람, 댕갈청풍, 댕갈, 하늘바람’으로, 남풍은 ‘처진갈, 남갈, 갈바람’으로, 북풍은 ‘샛바람, 북새, 새바람’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방위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동새, 동바다, 서바다, 서쪽, 남바다, 남쪽, 새쪽, 북바다’이 나타나고 있었다. 동향은 ‘동새, 동쪽, 동바다’로, 서향은 ‘서쪽, 서바다’로, 남향은 ‘남쪽, 남바다’로, 북향은 ‘새쪽, 북쪽, 북바다’로 표현하고 있었고, 동서향은 ‘동서간’으로, 동남향은 ‘동남, 동남간’으로, 동북향은 ‘동북간, 동북’으로, 서남향은 ‘서남, 남서간’으로, 서북향은 ‘서북간’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서풍은 ‘내분다’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은 ‘들이분다’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바람이 분다를 ‘북청 터졌다, 왁새 터졌다’, ‘을진으로 빼가 동새로 땡긴다’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터지다, 둘러켜지다, 딱아분다’를 통해서는 바람의 세기를, ‘빼다, 땡기다’를 통해서는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바람은 동북풍, 북서풍

과 같이 사이로 부는 바람이 있는데 이러한 어휘도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하게 나타났다. 동북풍은 ‘북새, 동새, 셋바람, 인간풍’이, 북서풍은 ‘된새바람, 북청바람, 청풍, 북청’가, 동남풍은 ‘을진바람, 을진, 동갈’이, 서남풍은 ‘갈바람, 댕갈바람, 댕갈, 처진갈’이 나타났다. 이처럼 바람의 명칭은 ‘북새, 동새, 된새, 처진갈’과 같이 방위와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서쪽으로 치우친 바람, 북새 다음으로 북쪽으로 치우친 바람, 남쪽으로 치우친 바람’과 같이 나타나기도 했고, ‘남동풍, 남서풍’과 같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바람은 계절에 따라서 주로 부는 바람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 봄에는 ‘갈바람’이, 여름에는 ‘남서풍, 북동풍, 갈바람’이, 가을에는 ‘북청, 북서풍, 청풍바람’이, 겨울은 ‘셋바람, 북청, 북동풍’이 많이 불었다. 또 회오리바람을 ‘돌풍’, ‘돌개바람’, ‘호도로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한편 비는 양의 정도와 그 비의 성격에 따라 그 명칭이 분화되어 나타났다. 이 비의 종류 중 가장 적게 오는 비, 즉 안개 같이 오는 비라는 의미로는 ‘안개비’로, 그 굵기가 이슬과 같다고 ‘이슬비’로, 빗줄기가 가늘다는 의미로는 ‘가랑비, 갈방비’가, 또 그 내리는 형태가 보슬보슬 내리는 비라는 의미로는 ‘보슬비’가, 가장 굵고 많이 오는 비로는 ‘소낙비’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그 비의 성격에 따라 ‘해비, 멀건 날에 비 온다, 각제 비가 오다, 소낙비, 장마비, 긴장마’라는 표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들은 모두 비가 동반하고 있는 날씨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러한 비를 그 세기의 정도에 따라 나타내면 ‘소낙비, 각제 비가 오다 > 이슬비 > 갈방비, 가랑비, 보슬비=안개비 > 해비, 멀건 날에 비 온다’로 볼 수 있다. 이 중 ‘해비’, ‘멀건 날에 비 온다’와 같은 표현을 ‘날씨가 거짓말같다, 변덕스럽다, 날씨가 니 다했다, 언제 바람 불었는 거같이 댔네’로 표현하기도 했다.

비와 같이 눈도 그 크기와 성격에 따라 ‘넙떡눈, 함박눈, 솜눈, 우박눈, 싸락눈, 싸래기, 쌀눈, 찌그레기, 진갈비’로 세분화 되어 나타났다. 이 중 ‘넙떡눈’은 그 모양새가 크고 넙떡넙떡하다는 의미를 지녀 가장 크고 굵은 눈을 의미하는 말로, ‘함박눈, 솜눈’은 크고 그 송이가 탐스러운 눈을, ‘우박눈’은 크고 굵은 눈으로 강하게 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 싸라기 같이 내리는 싸라기눈을 ‘싸락눈, 싸래기, 쌀눈, 찌그레기’로, 진눈깨비와 같이 내리는 눈은 ‘진갈비’라고 했다.

해 주변에 붉은 띠가 둘러진 것을 ‘해물, 해무리, 해꽃, 해물 미왔다’로, 달 주변에 흰 띠가 둘러진 것을 ‘달무리, 달무리 생겼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 중 ‘해무리, 해가 물 먹었다’는 경우 3일 또는 4일 이후에 비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해물’ 또는 ‘해물 미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한편 구름, 비, 눈, 해, 달, 별로 인해 날씨가 좋은 상황은 ‘청명하다, 맑다, 땀랐다, 뽀혔다’로,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은 ‘우중충하다, 우중중하다, 끼다, 변덕스럽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 5) 해안과 바다와의 거리가 가까운 바다를 ‘앞바다’, ‘근해바다’, ‘가새’, ‘잘’, ‘연안’, ‘이바다’

라고 했다. 바로 앞에 있는 바다, 이쪽에 있는 바다라는 의미에서 ‘앞바다’, ‘이바다’, ‘이쪽바다’라고, 해안가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가새, 짚’이라고 했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육지와 거리가 먼 곳을 ‘먼바다’, ‘저쪽바다’, ‘저바다’로 표현하고 있었다.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을 ‘너울 있다, 시부끼 들터나’로 표현했는데 이는 명칭에서도 그대로 ‘너울’, ‘시부끼’가 나타나고 있었다. ‘너울’은 파도가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러한 상황을 ‘너울성파도, 너울파도’로 표현하기도 했다.

- 6) 물고기는 ‘머리, 배, 꼬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을 부녀자들보다는 남자들, 즉 어부들이 더 세분화해서 표현하고 있었다. 물고기는 ‘고기, 괴기’로 부르는데 이는 그 부위에 따라 ‘머리, 배, 꼬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어부라는 직업으로 인해 더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머리는 ‘대갈빠리’로, 입은 ‘주디, 조디’로, 눈은 ‘눈까리, 눈띠’로, 등은 ‘등때기, 등사등뼈, 등터리’로, 아가미는 ‘아감지, 고기빚, 아구태가리’로, ‘배’는 ‘배때기’로, 꼬리는 ‘꽁지, 꽁랭대기, 꽁대기’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적인 지느러미의 위치보다 낮게 또 따로 달린 것은 날개와 같다는 의미에서 ‘날개미, 날개끝’으로, 뒤쪽에 있는 지느러미도 ‘뒤날기’로 표현하고 있었다. 한편 지느러미를 ‘등사등뼈’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제보자에 따라 등에 난 뼈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외에 비늘을 ‘껍데기, 비늘’로, 부레를 ‘부레’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중 ‘주디, 대가리, 눈까리, 눈띠, 뼈다구, 뱃대기’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사람과 달리 어류를 표현하는 말이 속된 어휘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갈치는 이 지역에서는 ‘칼치, 깔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갈치는 그 상태와 크기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고 있었다. 우선 그 크기에 따라 ‘굵은칼치 > 잔칼치’로 그 특성에 따라 ‘먹칼치, 은칼치, 쌍칼치’로 구분되었다. 고등어는 다른 말로 ‘사바’ 또는 ‘고등어’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등어는 다 자란 고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고, ‘작은고등어, 사바새끼’는 덜 자란 고등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었다. 가오리는 이 지역에서 잡히지 않는다는 특성상 그 명칭은 세분화되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특징에 따라 하위 범주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가오리는 ‘간자미, 가부리, 가오리’로 나타났고 이 중 먹을 수 있는 가오리는 ‘참가오리, 참가부리’로, 물이 많은 가오리는 ‘물가오리’로, 꼬리에 침이 없지만 오동나무와 같이 단단한 가오리는 ‘오동가오리’로 나타났다. 가자미는 ‘까재미’ 또는 ‘까재미’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가자미는 그 색과 형태적 특징에 따라 ‘돌까재미, 이시가리, 넙떡치, 안경까재미, 흑물까재미’로, 그 성질에 따라 ‘풀까재미, 뭉디까재미, 물까재미, 참까재미’로 구분할 수 있다. 명태는 이 지역에서는 ‘명태’로 말해지고 있었다. 먼저, 명태에 대한 어휘 분화는 그 크기에 따라 나타나고 있었다. 그 결과 가장 큰 명태는 ‘대태’로, 중간 크기의 명태는 ‘중태’로, 중태보다 조금 적은 크기는 ‘소태’로, 명태 새끼는 ‘노가리, 째겨, 작은명태’로 말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명태의 상태에 따라 어휘 분화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생태, 북어, 황태, 동태,

얼은명태, 말른명태, 꼬다리'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었다. 복어는 이 지역에서 '뽕지' 또는 '보구'로 표현되고 있었고, 이러한 복어에는 '참복, 밀복, 까치복, 음뽕, 비단복, 자주복, 까치복, 까칠복, 황복'이 나타났다. 먼저, 나뽕에 대한 반대 의미로 사용하는 것으로 진짜 제대로의 의미를 지닌 '참-'이 결합되어 '참복, 참뽕'이 나타나고 있었다. 방어는 표준어와 동일한 형태와 '사배기'라는 명칭이 나타났다. 이는 계절에 따라 또 그 특징에 따라 어휘가 분화되어 나타났다. '봄방어', '여름방어', '가을방어'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여름방어'는 먹지 못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었다. 한편, 방어는 그 특징에 따라 '떡사배기, 떡방어, 잣방어, 납딱새기, 노란사배기, 똥방어, 살찐방어'로 나타났다. 방어 새끼에 대한 명칭은 '가리재이, 새치, 사배기새끼'로 표현하고 있었다. 쥐치라는 말은 육지의 쥐와 모양이 비슷하다 점에서 나온 말이다. 이 지역에서는 '쥐치' 외에도 '쥐고기, 주치'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쥐고기는 그 모양, 특징과 서식지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어 '강남쥐치, 월남쥐치, 뽕쥐치, 말쥐치, 얼룩쥐치'로 나타났다.

- 7) 조개류는 각각의 부분에 따라 '껍데기, 껍질, 입, 주디, 뽕, 아기미, 빗, 위, 창대기, 내장, 심, 발, 침'으로 말해지고 있었다. 조개류 중 전복은 일반적으로 서식지, 그 생김새, 색에 따라 '양식전복, 독도전복, 수피전복, 참전복, 말전복, 둥근전복, 까막전복, 참전복, 종패, 치패, 종자용전복'로 분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소라는 '고디, 고동, 소라고동, 소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중 뽕처럼 길게 생긴 소라는 '참소라, 참고디, 뽕소라, 뽕고디, 뽕고동'라고 한다. 또 소라 중에 가장 맛있고 것으로 그 모양이 작고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먹을 수 있는 소라는 '둥그란고비'라고, 작고 매끈매끈한 것은 '맨들고디'로, 계가 속에 사는 소라는 '계고디, 기고디'로, 해방된 시기에 있었던 소라는 '해방고디'로, 길고 가는 소라는 '사말고디'로 말해지고 있었다. 홍합은 '열합, 처갓집물건'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외에도 미역의 세부 명칭이 '귀다리, 귀, 미역줄거지, 줄기, 줄거리, 꼬타리=귀다리, 이파리, 잎, 구다리, 뽕거지, 발'으로 구성되었고, 오징어는 '이까', '오징어', '수루매, 수매, 피둥어꼴뚜기'라는 말로 나타났다. '이까'는 주로 생오징어를, '수루매'는 말린 오징어로 구분해 말하기도 했었다. 이는 그 특징과 크기에 따라 '피둥어꼴뚜기, 초등오징어, 사꾸라지기, 갑오징어, 조기, 한치, 큰기, 적은기, 골뚜기, 대, 중, 소'로 나타났다.
- 8) 이 지역에서는 '오징어'와 '꽁치'를 주로 잡는데 '오징어'는 낚시로, '꽁치'는 그물로 잡는다. 그러나 울릉도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익성과 판로가 좋지 않아 '꽁치바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낚시류에 대한 어휘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물을 쳐 놓고 고기 떼가 지나가면서 걸리도록 한 후 고기를 잡는 행위를 '그물바리'로, 그물을 던져서 잡는 행위를 '던지바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낚시와 같은 말을 이 지역에서는 '낚시, 낚수'라고 한다. 이러한 낚시류에는 예전에 명태가 많이 날 때 잡았던 여러 개의 낚시바늘을 달아서 사용한 '주낙'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낚수'라는 말을 제보자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어부가 타는 어선은 잡는 어종에 따라

‘오징어배, 명태배’로, 어떠한 일에 중심을 두냐에 따라 ‘어선, 잠수선, 머구리배, 낚시배, 연락선’로, 배의 재질, 즉 소재에 따라 ‘목선, 기젯배, 철선, 에프알피, 뗏목, 뗏마, 떼배’로, 그 특성에 따라 ‘냉동선, 발동기(=동력선), 그물배, 모다, 간꼬, 무동력선, 풍선, 통통배, 작은배, 택택이, 기관선, 도풍배’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배에 장착하는 엔진 ‘야깨다마’와 ‘택택이(=착택이, 땡기작가)’에 따라 배를 구분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엔진의 이름, 엔진의 속성이 배의 명칭을 대신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 9) 울릉도 어부들의 일상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어로도구 손질, 오징어 잡이, 오징어 건조’로 볼 수 있다. 고기잡이를 하기 전에는 낚시 도구를 챙기고 정리해야 하는데 이는 주로 부녀자와 어부들이 담당한다. 오후가 되면 부녀자들과 집안 식구들이 함께 정리해 놓은 낚시 도구를 통에 담아 놓고 이를 어부들은 어선에 싣는다. 이후 오징어 잡이를 위해 어부들은 그물에 양까와 닻을 달고 깃발을 단 후 해가 지면 바다에 던진다. 야광성의 성질을 지닌 오징어가 불을 보고 달려들면 낚싯대를 당겨 배에 실어 육지로 옮긴다. 이렇게 잡은 대부분의 오징어는 건조를 하는 덕장으로 가져가기 위해 먼저 할복을 한 후 이깃대에 끼운다. 이를 손수레에 실은 후 덕대에 걸어 말리는데 사람의 손이 적어도 20~30번은 가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어촌의 어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10) 배는 바다라는 공간이 지나는 특성으로 인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날씨와 관련된 표현도 많이 나타났다. ‘바다 쪽에서 흰하게 일 때 왁새가 터진다’ 바다가 환해지면 왁새바람이 온다는 말이다. 갑자기 어두운 바다가 환하면 큰 바람이 오니 조심하라는 말이다. 셋바람은 북풍을 가리키는 말인데 바닷일을 나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조심스러움은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촌 지역에서도 동일했는데 그 결과 ‘셋날 불면 작업 되겠나’ ‘셋바람 불 때는 오징어가 적게 난다’ ‘셋바람 불면 고기가 나다가도 안 잡힌다’ ‘셋바람 불면 고기가 안 잡힌다’와 같은 속설이 전해져 오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셋바람이 불면 날씨가 추워 오징어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셋바람이 불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말이다. 먼저, 출항한 후에 주의해야 할 일과 관련된 표현에는 ‘헛불이 있으면 이삼일 내로 큰바람이 분다’. ‘헛깨비불이 산에 보이면 날씨가 마이 나빠진다’가 나타났다. 바다에서 울릉도를 바라봤을 때 산에 헛불이 보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날씨가 나빠진다는 말이다. 보통 ‘헛불, 허깨비불’은 2~3일 뒤에 큰바람이나 큰비가 온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는 바다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울릉도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손사공 죽었는 날은 바람이 세게 분다’라는 말도 전해오고 있었다. 즉 손사공이라는 사람이 죽은 날이 되면 바람이 세게 분다는 말이다.
- 11) 민속 관련 표현으로는 배의 안녕을 빌기 위해 지내는 제사를 ‘뱃고사’라 한다. 이러한 고사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동제, 해신제’가 있다. 이 외에도 1월 1일에 수협에서 지내는 제로 새해 처음 위판을 하는 것을 기념하고 만사형통, 풍어를 기원하는 제이다.

이 날은 올 한해의 순조로운 위판뿐만 아니라 풍어를 기념하는 제를 지내기도 한다. 한편, ‘동제’는 정월보름에 동네에서 지내는 제를, ‘해신제’는 3월 3일날 어판장에서 지내는 제로 바다의 안녕을 빌기 위해 해신에게 지내는 제이다.

3. 서해 근해(외연도)

- 1) 행위자에 관한 어휘에서는 ‘선장’, ‘기관장’, ‘하장’만이 ‘장(長)’을 붙인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배에 탄 역군(役軍)들은 선원으로 통칭하고 있었다. 풍선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전노’, 키를 잡는 사람을 ‘화노’라고 불렀다.
- 2) 물때는 일반적으로 ‘한마, 두마, 세마, …, 일곱마, 여덟마, 아홉마, 열마’와 같이 ‘양수사+마’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었다. 간혹 몇몇 사람들은 ‘한물, 두물’과 같이 ‘양수사+물’의 형태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 3) 충남 외연도에서 미세기에 대한 어휘는 ‘밀물’에 대응하여 ‘들물, 든물, 고조’의 어형으로 나타났고, ‘썰물’에 대하여 ‘썰물, 썬물, 저조’의 어형으로 나타났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상태에 대해서 조사한 어휘로는 밀물에 의해 ‘물 들다, 물 살다, 물 뜨다’라는 상태 표현을 사용하였고, 썰물에 의해 ‘물 쓰다, 물 나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 4)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하여 끼니를 중심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하고, 낮과 밤, 하룻밤과 같은 표현을 하였으며 크게 달리 표현하는 어휘를 찾아 볼 수 없었다.
- 5) 외연도에서는 동풍을 ‘셋바람’, 서풍 가운데 돌풍과 같이 부는 것을 ‘두지바람’, 남풍을 ‘마파람’, 동남풍을 ‘안마셋바람’, ‘안마’, 서남풍 ‘늦마파람’, ‘늦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부는 상태를 보고 ‘대풍 분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또한 시원하다는 어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람이 불어 땀 씻는 때’라는 표현을 수집하였다. 바람과 관련하여 수집된 관용 표현은 ‘셋바람 불면 고기가 머리 아파한다’는 것이다. 셋바람이 불 때는 어업 활동도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
- 6) 해돋이와 해넘이에서는 ‘해+돋(다)+이’와 같은 형태와는 달리 ‘동 뜬다’, ‘해진다’와 같이 구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햇무리와 달무리와 같은 경우에도 ‘무리’의 형태가 아닌 ‘머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흐름’이라는 어휘도 확장되어 나타났는데, 해가 넘어갈 즈음에 어장을 두는 것을 일컫는다.
- 7) 방위에 관련된 부분은 ‘-쪽’이나 ‘간(間)’을 붙여 사용한다.
- 8) 외연도 주변 섬들을 공식지명이 아닌 그들 사이에서 부르는 말이 따로 있다. 녹도의 위에 있는 섬을 ‘질미’, 오도는 ‘머검’, 횡건도는 ‘빋갱이’, 황도는 ‘늘애’로 말하고 있다. 그 섬을 이용하여 방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너울이나 파도가 크게 치는 모습을 ‘농울

이 굶다’, ‘파도가 굶다’라고 사용한다. 민물을 ‘잔물’이라고 사용한다.

- 9) 외연도에서는 갯벌을 ‘뺨밭’, ‘뺨땅’, ‘갯밭’이라 하였고, 바다 밑 지형이자 뺨이 드러나면 보이는 불규칙한 퇴적지형을 ‘뒸둥’이라고 한다.
- 10) 물고기의 머리와 꼬리에만 ‘대갈빠기’, ‘대가리’, ‘꽁지’와 같이 낮추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고기는 비늘심으로 사는 거요.} 고기는 비늘이 없으면 못 살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안 살어 죽어.’라고 한다.
- 11) 물고기의 이름 가운데 멸치는 ‘머르치’, ‘메르치’, ‘뺨’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양미리에 대해서는 ‘양멸치’, ‘양멸’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가오리는 외연도에서는 ‘가오리’, ‘간개미’, ‘갱개미’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물고기의 상태로는 자잘하다는 뜻을 가진 다른 어형으로 ‘베다’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어획한지 오래 되어 싱싱하지 않은 고기의 상태를 ‘배가 나다’ 라고 하고 있었다. 고기를 잡는 행위를 ‘고기이름+잡이/잡이/바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오징어의 일본어형인 ‘이까(いか)’와 결합된 어휘 ‘이까바리’를 사용하고 있다.
- 12) 조개류에서는 외연도의 지역 특성상 관련되는 어휘 수집이 어려웠다. 단, 홍합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설’이라는 어휘를 획득할 수 있었다.
- 13) 외연도에서 게의 부분명칭에는 집게발은 표준어 그대로의 ‘집게발’과 ‘게엄지’로 사용하고, 집게발을 제외한 나머지 발들을 ‘부채발’이라고 사용한다. 그리고 등딱지를 ‘껍따기’, ‘따꿍’이라는 어휘로 사용한다. 소라게를 ‘게고동’이라고 부르며, 털게를 ‘월낭게’, 참게를 ‘뺨게’라고 부르고 있었다. 아가미를 ‘구섬’, ‘구섬탱이’라고 한다.
- 14) 외연도에서는 거북손을 ‘부찰’이라고 하였고, 생긴 모양이 돼지의 발톱 같다고 하여 ‘돼지발톱’이라고 한다. 부찰이 돼지발톱보다 더 오래된 어형이다.
- 15) 그물의 종류가 여럿이라고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필요한 그물은 각 배마다 하는 어업에 따라 그물이 다르다. 그물을 세 겹으로 된 그물을 ‘삼중망’, ‘삼마이’라고 한다. ‘유자망’도 ‘삼중망’과 같은 그물 짜는 방법에 따른 이름이다. ‘잔그물’은 그물코의 넓이가 좁은 ‘목자망’, ‘목그물’은 예전에 무명을 이용해 만든 그물이다. ‘수지자망’, ‘나일론 그물’은 재질에 따른 그물 이름이다.
- 16) 예전의 돛대를 지금의 배에선 ‘용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꼭대기를 ‘용두’라고 한다. 고물 쪽에는 ‘큰돛대’를 단다.
- 17) 외연도 안에서는 닻을 올리는 행위를 ‘닻 캐다’라고 쓰고, 닻줄을 ‘닻줄’, ‘앞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출항하기 위해 닻줄을 푸는 것을 ‘앞줄 끌러라’, 정박하기 위해 닻줄을 매는 것을 ‘앞줄 매라’라고 말한다.
- 18) 배를 만들 때, 배의 가장 밑인 ‘뱃밑’부터 ‘구량’, ‘삼’, ‘새지’의 순으로 올린다. 새지는 ‘가이상고’라고도 한다. 구량은 뱃밑 바로 위에 대는 널이고, 그 위로 해서 배의 옆면을 채우는 부분이 ‘삼’, 그리고 갑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냉끼’, 배의 둘레를 둘러, 파

손을 방지하는 ‘새지(가이상고)’이다.

- 19) 배에는 기계를 처음 놓은 똑딱선을 통통 튀어간다고 해서 ‘통통배’, 기계를 두지 않은 배는 돛이 없는 작은 배 ‘펜마’가 있고, 그 당시에 큰 배였던 ‘풍선’이 있다.
주낙을 갖춘 배는 ‘주낙배’라 하였고, 지금의 안강망 배는 ‘중선’, 섬사람들의 상거래를 위한 ‘장배’와 ‘상고선’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돛대가 하나가 세워졌으면 ‘예대배기’, 둘이 세워졌으면 ‘두대배기’, 셋이 세워졌으면 ‘세대배기’가 된다. ‘한도배기’, ‘두도배기’, ‘세도배기’와 같이 ‘돛’의 말음이 탈락된 형태도 혼용된다.
- 20) 주로 잠수부가 쓰는 도구이다. 이를 ‘머구리 투구’라 하고, 이 투구를 쓰는 잠수부를 ‘머구리’라고 한다. 또한 물 위의 배에서 머구리에게 신호를 주는 사람을 ‘주네키’라고 한다.
- 21) 외연도에서 젓갈을 가리키는 말은 ‘머르치젓’, ‘꽉치젓’, ‘밴딩이젓’, ‘칼치젓’ 정도의 방언형만 보인다.
- 22) 외연도의 풍어제는 ‘당제’, ‘산제’, ‘안당고사’, ‘용왕제’로 나누어 지낸다. 당제의 대상은 ‘전황장군’이다. 음식은 암소가 아닌 ‘황소’를 잡아서 해체해서 제사에 올린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제주’와 ‘안어장’이 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제사 지낼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화장’이라고 한다. 산에서 ‘당제’와 ‘산제’를 지내고, ‘용왕제’를 바다를 보고 지낸다. 그리고 마을 안당에서 ‘안당고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면서 노래는 부르지 않고, ‘풍장만 친다’. 용왕제까지 끝나면 ‘띠배’에 제사를 지낸 음식을 담아 바다로 보낸다. 이를 ‘퇴송’이라고 한다. 금기로는 제사 때 달거리 하는 아내가 있는 남편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사음식으로 올라가는 황소의 땅에 단 부분은 제사에 쓰질 않는다.

4. 남해 근해(육지도)

- 1) 어부는 일반적으로 ‘어부, 뱃사람, 뱃놈’으로 부르며 해녀는 ‘보재기, 보재이, 물바리’라 하며 해녀의 등급에 따라 ‘상바리, 중바리, 하바리’라는 말을 써 표현한다. ‘적군’이라는 명칭은 샅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라는 말이며 이는 선주에 대응되는 어휘이다. 지역 대표 어로 방법인 채낚기를 하는 어부들의 모임인 ‘해패’라 한다.
- 2) 육지도의 물때에 관한 어휘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물, 두물, 서물.....’과 같이 ‘양수사+물’의 형태, ‘하무새, 두무새, 세무새.....’와 같이 ‘양수사+무새’의 형태, 또한 이 둘의 혼합형인 ‘한물새, 두물새, 세물새.....’ 등과 같이 ‘양수사+물새’의 형태 조사되었는데 이중 ‘물’의 형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한다. ‘사리’를 ‘양시, 양시때, 사리때’라 하며 조금은 ‘조금시, 조금때, 한조금’이라 한다.
- 3) 미세기는 ‘뜰물, 뜬물, 날물, 썰물’, ‘밀물, 들물’ 등이 사용되었는데 다른 지역의 ‘든물, 난물’에 비해 추측, 예정을 나타내는 ‘-리’ 어미를 동반하는 어휘가 많이 나타남을 알

- 수 있다. 또한 ‘물 나다’를 ‘물 쓸어지다’라 표현하기도 한다.
- 4) 하루는 새벽부터 식사 때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크게 새벽, 아침, 점심, 저녁, 밤중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침, 점심, 저녁 사이 시간을 ‘나절’에 해당되는 ‘나제’라는 어휘를 사용하며 ‘아침나제, 점심나제, 저녁나제’라 하였다. 그리고 저녁을 ‘정때’라 하기도 한다.
 - 5) 남동풍을 ‘군등바람’이라 하는데 이는 남동풍이 불면 ‘군등내(군내의 경남방어형)’와 같이 쿼쿼한 기운이 들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북서풍은 ‘편갈, 된갈’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옥지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사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해서 ‘사천내기, 사천내이’라 하기도 한다. 남남동풍은 ‘서마, 시마’라고 하는데 이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거나, 날이 안 좋아진다고 한다. 또한 ‘바람(이) 잘 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바람이 세다’라는 의미이다.
 - 6)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것을 ‘모린 장마, 건장마’라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卜’ 모음을 ‘ㄱ’ 모음으로 사용한 어휘가 많이 나타났다. 여우비는 ‘오늘 호랭이 장가가는 갑다’라 하며 서술형으로 풀이해서 사용하였다.
 - 7) 이 지역은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므로 ‘눈’에 관련된 어휘는 많이 분화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눈, 진눈깨비/진눈’ 정도로 조사되었고, 우박은 ‘우박비/기작’이라 한다. 또한 기타 어휘로 물이 얼어 얼음이 생기는 것을 ‘얼음이 지다’로 연어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지다’는 다양한 어휘와 연어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해머리 지다/하다, 달머리 지다/하다’ 등에서도 나타난다.
 - 8) 해머리와 달머리를 보고 기상을 예측하는데 ‘해머리 지면 날 좋고, 달머리 지면 날 궂다, 달머리 하면 날 궂다, 별이 달머리에 딱 붙어 있으면 날 궂다’ 등의 형태가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관용 표현에 ‘바람 잡는다’는 선장이 바람을 통해 기후를 예측하는 행위를 말하며 바닷가에 사는 갯강구가 산으로 올라가면 큰 태풍이 닥칠 징조라 한다.
 - 9) 갯벌을 보통 ‘빨, 빨탕’이라 하며 바닷가를 ‘갯문, 갯문가’라 한다. 그리고 모래와 자갈이 섞인 공간을 ‘작밭’이라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작밭이 많다.
 - 10) 바닷물을 ‘갯물’이라 하며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점을 ‘어금’이라 한다. 큰 너울을 ‘니, 굿니’라 하는데 굿니가 치면 날이 굿어진다고 기후를 예측할 수 있다.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물을 좋은 물이라 인식하며 반대의 경우는 나쁜 물이라 여긴다. 좋은 물로는 물색이 뿌연 ‘조갯물’을 들 수 있으며 나쁜 물로는 물이 아주 맑아서 바닷속까지 흰히 들여다보이는 청수가 있는데 청수가 들면 바위까지 하얗게 탈색되며 한 동안 고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 11) 옥지도에서는 물고기를 일반적으로 ‘고기, 궂기’라 하고 물고기 부분 명칭은 아가미는 표준 어형과 함께 ‘알개미’라 하고, 지느러미를 ‘날감지, 날가미, (고기) 날개이’라 하고, 비늘은 ‘비늘, 비눌’이라 한다. 가시는 표준 어형과 함께 ‘고기뺨, 잔뺨, 잔가시’라 하고 물고기 옆줄은 ‘음신뺨니’라 한다. ‘알’은 ‘알, 난’이라 한다. 입에 관련된 어휘에는 ‘입,

주둥이, 입술, 입천장, 혀가 있고, 이 외에도 ‘눈, 부레, 허파’ 등이 조사되었다. 욱지도에서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고등어인데 ‘꼬두리, 고도리’라 부른다. 고도리는 ‘새끼 고등어’를 부르는 말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상위 범주인 고등어 자체를 부르는 말로 쓰인다. 고등어 외에도 ‘뿔락’을 많이 잡는데 ‘뿔래기, 뿔래이, 뿔라구’ 등 다양하게 불리며 종류에 따라 ‘먹뿔래이, 열기’로 나누어 부른다. ‘감성돔’ 또한 많이 잡히는데 ‘감송어, 감식이, 감시이’라 부르며 작은 감성돔을 ‘똥감시’라 부르는데 ‘똥감시’는 잡는 시기에 따라 맛이 없어진 감성돔, 봄철에 잡히는 감성돔을 부른 말이기도 하다. 어류와 관련된 관용 표현에는 감성돔과 관련된 것이 많이 조사되었는데 ‘감시이 맛 봤나?’라는 말의 주된 의미는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인데 이는 감성돔 고기가 그만큼 맛이 있어서 나온 표현이라 한다. 그리고 감성돔은 아주 약아서 잡기가 어렵다고 하여, 약고 영리한 사람에게도 비유적으로 쓰인다고 한다. 고기를 잡는 일련의 행위를 ‘바리’라 하는데 이는 ‘바리 하다, 바리 가다’라는 연어 형식을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잡는 어종에 따라 ‘야도(방어)바리, 농어바리, 불락바리, 삼치바리’ 등이 있다고 한다.

- 12) 욱지도에서 많이 잡히는 패류는 ‘바지락’, ‘홍합’, ‘굴’인데 이를 보통 ‘반지락’, ‘합자’, ‘꿀, 석화’라 부르며 자연산 굴을 ‘벗굴’이라 한다.
- 13) 욱지도에서는 게가 주된 어획물이 아니므로 관련된 어휘가 많이 없다고 한다. 게는 ‘기, 끼’라 하며, 소라게를 ‘게고동, 집게’, 털게를 ‘응게, 몰게’라고 한다.
- 14) 해초류에 관한 어휘로는 ‘미역기, 미역줄기, 미역잎, 돌미역, 양식미역, 짐, 파래김, 파래/포래, 국파래, 돌파래, 신기이, 우무/까사리, 모자반, 풀가사리’ 등이 조사되었다.
- 15) 오징어는 ‘이까’, 성게는 ‘밤싱이/밤송어/우니’, 멍게는 ‘우렁싱이/우렁송이’, 미더덕을 ‘조꿀래기’, 골뚜기를 ‘호리기/호래기’, 불가사리는 ‘별’이라 한다. 미끼로 많이 쓰는 갯지렁이는 ‘물거시이/물그시/그무리/거무리’라 하고, 지렁이는 ‘거시이’라 한다. 새우는 ‘새비’라 하며, 낙지는 ‘낙주’라 한다.
- 16) 그물의 부분 명칭으로는 ‘그물코’가 조사되었고, 한 곳에 고정시키는 그물은 ‘망’이라 하고 끌고 가는 그물은 ‘방’이라 한다. 사들은 ‘들이’, 망사리는 ‘홍어리/망태’, 태왁은 ‘두름박/두름발’이라 한다.
- 17) 낚싯대는 ‘낚숫대/낚대/경대’라 하고, 얼레는 ‘줄모태/모태’라 하고 욱지도의 대표적인 어로방식인 채낚기와 관련한 부분 명칭으로는 ‘꽁돌/뽕돌/뿔돌/봉돌/돌채, 주지’가 있다. 이 지역에서는 낚시를 ‘낚시, 낚수’라 한다.
- 18) 배에 관련된 부분 명칭으로는 ‘갑판, 이물, 꼬을, 돛, 돛대/짐대, 활대, 닻/땃, 닻줄/땃줄/버릿줄, 노, 노우데/우데, 노추리/추리, 노상새, 노손, 돛잔지/돛잔디, 노초제, 열레/열레 작대기, 키/치/따리, 삼’ 등이 조사되었다. 고깃배는 ‘어선’이라 하고 ‘뚝딱선/발동기, 땃마, 땃마, 전마선, 떼배, 통구밍이/통구미/통굴맹이, 방배, 챗배’ 등이 배 종류로 조사되었다.

- 19) 기타 어로 도구로는 ‘창, 밭/죽방/대나무밭/대밭, 통밭, 바구리, 뚜꾸마리, 호미/호매이, 낫, 애낫/일본낫, 물웃, 오리밭/물갈퀴/오골, 이끼수, 투구/머구리/목우리, 창경/청경/창갱/청갱/챙갱/수경/물안경, 바늘대, 뜰채/쪽지, 이깍/미끼, 인공미끼/공갈미끼’ 등이 조사되었다.
- 20) 조개류 관련 어로 행위로는 ‘파다, 캐다, 따다’, 해조류 관련 어로 행위로는 ‘말리다, 비다’, 그물류 관련 어로 행위로는 ‘(그물) 뺨 돌리다, 묶다, 감다, 끌다, 둘러 싸다, 던지다, 놓다, 집다, 잡다’, 낚시류 관련 어로 행위로는 ‘낚다, 걸리다, 올리다, 올리빼다, 땡기다, 끼다, 흘려주다, 비름하다, 날바주다’, 배 관련 어로 행위로는 ‘(키, 노) 잡다, 타다, 매다, 뜨다, 띄우다, 가라앉히다, 싣다, 잡다’, 기타 도구 관련 어로 행위로는 ‘찌르다, 들시다’ 등이 있다.
- 21) 음식 관련 어휘로는 ‘멸치젓/머루치젓, 반멸젓, 고구마/고매, 빼떼기/절간, 빼떼기죽, 떡, 조무래기, 고구마잎 곁절이, 갈치 호박국’ 등이 조사되었다.
- 22) 민속 관련 어휘로는 ‘할맛네, 고사 하다, 고사 모시다, 할맛네 지내다, 바람 올리다, 바람 잠 재우다, 할맛네 올라가다’ 등이 있다.

■ 조사의의 및 남은 과제

본 조사의 성과만큼 각 지역 근해 섬사람들의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에서 나타난 의의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제주도 근해(추자도)

- 1) 이번 조사에서는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재 어휘와 특이 어형이 많이 발굴되었다. 이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를 체계적으로 집적해 목록화했다는 자료 축적의 의미 외에도 우리의 언어 유산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언어 구축이라는 점에서 국어학적으로, 문화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조사 어휘들은 표준어형이 있는 부분은 표준어로 대역하였고, 표준어로 대역하지 못하는 부분은 뜻풀이를 하여 이해를 도왔다. 모든 조사 어휘에는 용례를 실어 어휘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조사 어휘를 목록화하고 뜻풀이를 하면서 기존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예를 들어 ‘한무날’과 ‘한조금’ 사이의 물때를 추자도에서 ‘무수’라고 하고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1]무쉬의 잘못, [2]무쉬의 북한어’로 올라 있다거나, 고깃배에서 물을 넣어 두는 ‘물간’을 ‘물간, 물간’ 형이 조사되었는데, 사전에는 ‘물간’의 잘못으로 올라 있는

것은 언어 종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 3) 용례 자료는 조사 어휘를 용례 자료로써의 기능 뿐만 아니라 추자도 방언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추자도 방언은 추자도 주민들의 생활 무대가 제주도와 전라도여서 두 지역과의 언어 접촉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언어 자료다.
- 4) 조사된 어휘 가운데는 표준어 대역어를 찾지 못하거나, 뜻풀이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연구자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연계 조사도 필요하다.
- 5) 매년 반복되는 문제지만 조사 기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현물 조사가 아니라 제보자들의 구술과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조사 내용의 오류도 생길 수 있다. 추자도 어촌생활어 조사는 추자도 현지에서보다 어장, 또는 해녀들의 물질 공간인 다른 섬으로 조사를 가야하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이번 조사 기간에는 추자도의 주요 어장인 멸치 어장, 조기 어장, 삼치 어장이 형성되기 이전이어서 많은 제보자들의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홍합과 굴 관련 어휘는 채취 기간과 맞물려 수확물을 생생하게 사진 자료로 담을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장 조사를 덧붙여 추자도 어촌 생활어 보고서 내용을 보강한다면 추자도의 어촌 생활어의 체계적인 목록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2. 동해 근해(울릉도)

- 1) 이제까지 어촌 생활어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수산업쪽에서 연구된 배의 명칭과 어류의 명칭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만이 아닌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했고 이러한 조사로 인해 어촌 생활어와 관련한 다양한 기초어휘와 확장어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본 조사 대상인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를 통해 기층생활어를 채록할 수 있었다.
- 2) 모든 조사가 제보자의 구술발화로 진행되어 그 지역의 미세하고 다양한 방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해안의 조사 지역인 울릉도 지역을 세분화하여 ‘울릉읍, 서면, 북면’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통해 울릉도 지역의 방언형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방언이 반영된 전문용어를 다수 고찰함으로 인해 앞으로의 방언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3) 그 동안의 연구가 민속학적으로만 치우쳐 있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어촌 생활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어업과 어부의 개념과 어촌의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환경, 어획물, 어획 도구, 행위에 관한 어휘를 조사함으로써 어촌 생활어 어휘망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실질적인 어휘 조사는 우리 민족과 역사를 같이한 어촌에 대한 생활어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소멸 위기의 어촌 생

활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 4) 조사된 어휘의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뜻을풀이를 보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조사 결과물을 조사 어휘,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여, 전자사전 형식의 『민족생활어사전』 편찬의 자료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어촌생활어에 대한 조사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에 대한 반성은 다음과 같다.

- 1) 방언에서 유래한 전문 용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어휘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방언이 반영된 전문 용어의 어원과 변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2) 어촌 관련 생활어 역시 다른 다양한 직업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어휘 분류와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울릉도 지역의 다수의 제보자를 선정했지만 이주민으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특성과 지역적 한계로 인해 이 어휘들이 특정 개인어가 아닌 생활어라는 점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남는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사가 아닌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제보자를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3. 서해 근해(외연도)

- 1) 문헌 조사를 통한 방언형을 민속지적 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어형을 수집, 확인할 수 있었다.
- 2) 기존의 조사 장비 외에도 최신 전자 장비를 활용한 조사를 시도하여, 긍정적인 조사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 3) 충남 보령의 외연도는 크지 않은 섬 지역이지만, 제보자들마다 보이는 미세한 어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 4)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를 보존하기 위한 연구 목적에 그치지 않고, 생소한 어촌 생활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1) 소멸 위기의 민족 생활어 수집을 위해서는 고령의 제보자가 요구되지만 섬지역에 고령

- 의 제보자가 잔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2) 조사 기간의 여유가 부족하여 한정된 어업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조사가 되었다.
 - 3) 외연도의 경우 까나리 액젓이 유명한 지역이지만, 올해에는 까나리가 전혀 잡히질 않아 현장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 4) 기초어휘항목에 포함된 용언들의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남해 근해(욕지도)

- 1)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어촌생활에 관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생활어를 수집하여 분류할 수 있었다.
- 2) 어촌생활에 관해 분류체계를 나누고, 다양한 어휘를 수집하여 어촌생활에 관한 어휘망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3) 제보자의 구술 발화를 통해 경남 어촌지역의 다양한 방언 어휘를 수집할 수 있었다.
- 4) 행정구역상 같은 지역이지만 제보자를 통해 어촌 생활어 중 차이가 나는 어휘를 발견할 수 있었다.
- 5) 수집한 어휘를 표준국어대사전과의 비교 작업을 통해 수집 어휘의 등재여부와 사전과의 의미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 6) 수집한 어휘를 방언검색프로그램과 비교 작업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검증, 수정할 수 있었다.
- 7) 조사 결과물을 조사 어휘, 음성 자료, 음성전사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여, 전자사전 형식의 『민족생활어사전』 편찬의 자료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남해안 욕지도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에 대한 조사 역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 1) 남해안 어촌생활 기초어휘에 관한 많은 어휘를 수집하고 분류하였지만 조사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더 많은 어휘를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2) 조사의 기본 틀인 질문지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확장어휘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항목별로 확장어휘 수집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 많은 확장어휘가 나오는 항목이 있는 반면 기초어휘 항목도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항목별 확장어휘 수준이 차이가 많아 아쉬운 점이 있다. 확장어휘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다음 조사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고광민(2006), 『돌의 민속지』, 도서출판 각.
- (2002), 『어구』, 제주대학교박물관.
- (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 고재환(2002),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 고행미(2005), 『‘추자도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특징’』, 제주대 석사논문.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2010),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 (2011),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 국립민속박물관(1996), 『어촌민속지』, 필기획.
- (1996), 『어촌민속지: 경기도, 충청남도 편』.
- (2002), 『경남 어촌민속지』, 필기획.
-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2004), 『동해 오징어 30년 해황과 자원변동』, 동해수산연구구.
- 국립수산과학원(2006), 『울릉도의 해양과 수산』,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 국립수산기술훈련소(1984), 『정치망어업』.
- 국립해양유물전시관(2002), 『우리배』, 고기잡이 제3집,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김려, 박준원, 율김(2004), 『우해이어보』, 서울: 다운샘.
- 김순자(2009), 《해녀, 어부, 민속주-제주도의 민족생활어》, 글누림.
- 김의숙(2009), 『한국민속제의 전승과 현장』, 새미.
- 김지숙(2009), 『어업 생활어와 장인의 말』, 글누림.
- (2011), 『명태 잡이에서 덕장까지』, 국립국어원.
- 나승만 외 7인(2003), 『다도해 사람들』, 경인문화사.
- 남경란(2003), 『‘울릉군 방언 연구-어휘를 중심으로’』, 울릉도, 동해안 지역의 방언과 구비문학연구, 영남대 출판부.
- (2005), 『‘어촌 경제생활과 관련한 어휘 연구-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울릉도, 동해안 어촌지역의 생활문화연구, 경인문화사.
- 남기탁, 손주일, 한길, 최윤현(2002), 『방언(강원전통문화총서4)』, 국학자료원.

- 니컬러스 에번스, 김기역·호정은 역(2012),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다』, 글항아리.
- 데이비드 크리스털(2005), 권루시안 역, 『언어의 죽음』, 이론과 실천.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9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어업용구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 (1999), 『한국민속종합 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 (1999),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상북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 문화재관리국(197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2008), 『만재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2009), 『우이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민족문화연구소(1998),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박계홍(1983), 『한국민속학개론』, 형설출판사.
- 박기성(1996), 『울릉도』, 대원사.
- 박성중(2008), 『강원도 영동지역의 방언』, 제이앤씨.
- , 전해숙(2009), 『강릉 방언 사전』, 태학사.
- , ——(2009), 『한국 방언 사전』, 태학사.
-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자료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박종갑(1998), 『울릉도 지역 방언에 대한 실태 조사1』, 한민족어문학 33.
- (1999), 『울릉도 지역 방언에 대한 실태 조사2』, 한민족어문학 34.
- 박창원(2006), 『방언 영남6』, 우리마당터.
- 백문하(1994), 『제주도 해산 어류도감』, 신아문화사.
- 북제주군(2005), 『북제주군 지명사전』.
- 서원섭(1982), 『울릉도 민요와 가사』, 형설출판사.
- 성산고등학교(1983), 『수산일반향토교육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1977), 『한국동해의 해양환경과 어업자원』,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 앤드루 달비, 오영나 역(2008), 『언어의 종말』, 작가정신.
- 양동진(1992), 『‘추자도 연근해의 어류상’』, 《조사연구보고서》 7집,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
- 양현성·최광식(2011), 《제주도 조간대 해양생물》, 국토해양부·제주씨그랜트사업단.
- 여영택(1982), 『울릉도의 전설 민요』, 정음사.
-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2005), 『울릉도, 독도의 종합적 연구』.
- 영남대 출판부(2003), 『울릉도, 독도, 동해안 주민의 생활구조와 그 변천 발전』, 영남대 출판부.
- 왕한석(2009), 『한국의 언어민속지』, 교문사.

- 육지면지편찬위원회(2008), 『육지면지』, 참글사.
- 우도지편찬위원회(1996), 『우도지』.
- 울릉군(1989), 『울릉군지』, 학원인쇄사.
- 윤서석(1999),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역사』.
- 이강산(2011), 『가덕도 송어잡이』, 눈빛출판사.
- 이강욱(1993), 『한국의 도서문화: 서남해 도서를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 11집.
- 이경진(2003),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예문사.
- 이근우 외 4명(2010), 『한국 수산지』, 서울: 새미.
- 이병기·박승원·김진건(1989), 『연근해어업개론』, 태화출판사.
- 이원식(1990), 『한국의 배』, 대원사.
- 이익섭(1981), 『영동 영서의 언어분화-강원도의 언어지리학-』, 서울대학교 박사.
- 이태원(2002), 『현산어보를 찾아서』, 서울: 청어람 미디어.
- 장정룡(1997), 『속초시 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 정기태(2004), 『고기잡이 여행』, 바보새
- 정석호(2007), 『경북 동남부 방언사전 -영천, 포항, 경주-』, 글누림.
- 제주도(1996), 『제주의 민속Ⅱ』.
- (2009), 『증보 개정 제주어사전』.
- 제주도교육청(1995), 『제주바다물고기』.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2006), 『추자도 학술조사보고서』.
- 제주도사진기자회(2009), 『황금그물의 섬 추자도』.
- 주강현(2006), 『관해기 1-3』,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2006), 『돌살』, 들녘.
- (2009), 『울릉도 개척사에 관한 연구: 개척사 관련 기초 자료 수집』.
- 최덕원(1994), 『남도의 민속문화』, 밀알.
- 최동주(1999), 『‘울릉도말의 어미-북면 천부리의 말을 중심으로’』, 언어의 역사, 성백인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태학사.
- 최명옥, 김주승(2007), 『경주지역어 텍스트』, 역락.
- 최학근(1990),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 추자도지편찬추진위원회(1999), 『추자도』.
- 클로드 아제주, 김병욱 역, 『언어들의 죽음에 맞서라』, 나남, 2011.
- 한국해양수산부(2002), 『한국의 해양문화 1-5』, 서울: 해양수산부.
- 한영균(1984), 『강원, 경북 울릉, 제주방언의 현지조사과정과 반성』, 방언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정연사.

ALWIN FILL(1999), 『생태언어학』, 한국문화사

Lindsay J.Whaley, 김기혁 역(2008), 『언어 유형론-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 소통.

MURIEL SAVILLE(2009), 『언어와 사회』, 한국문화사어대사전』, 두산동아

부 록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고 1	출전고2	별단 정보 사건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건 등재여부
기초 어획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	어부	어부		명	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어부} 생활 했죠.		고창안				0
기초 어획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	옛날훈	옛날훈	옛날훈	명	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옛날훈} 옛날훈이라고, 옛날에 흔히 {옛날훈} {옛날훈} 해요.		박철을				0
기초 어획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	옛사랑	옛사랑	옛사랑	명	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옛사랑이라고}, 옛날에 흔히 옛날훈, 옛날훈 해요.		박철을				0
기초 어획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	선장	선장	선장	명	=선장.<표준>06.	{선장이다} 옛날을 걸, 사공이라고도 했구나, 옛날에는 사공		박철을				0
기초 어획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	사공	사공		명	배를 부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선장이다. 옛날을 걸, {사공이라고도} 했구나, 옛날에는 {사공}, {목리가} 양기림는, 최 전은 사람은 {사공이라고} 그러고 선장 밑에서 하는 건판장 말고.		박철을				0
기초 어획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	간판장	간판장		명	=간판장.<표준>	우리가 양기림는 최 전은 사람은 사공이고 그러고 선장 밑에서 하는 {간판장} 말고.		박철을				*
기초 어획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	보신	보신		명	선장을 보조하는 선원.	간판장은 이물에서 일하고 선장 보조하는 사람 말고 {보신이라고} 해요.		박철을				*
기초 어획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	무래꾼	무래꾼		명	바다에서 해산을 따위를 전문적으로 따는 사람.	{무래꾼은} {해녀} 소리 잡고 있다 그러고.		김석권				*
기초 어획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	해녀	해녀		명	바다에서 해산을 따위를 전문적으로 따는 사람.	{무래꾼은} {해녀} 소리 잡고 있다 그러고 {무래꾼} 싹고 간다고 그러지요.		김석권, 박철을				0
기초 어획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	추자해녀	추자해녀		명	바다에서 해산을 따위를 전문적으로 따는 사람. 그 기량이 아주 뛰어난 해녀를 일컫는 말이다.	제주해녀들은 이 저 성게라 하면서 그 공반수를 얻을 많이 이렇게 크게 돈을 받는데 우리 {추자 해녀들은} 성게를 굴발수 그거 파서 뒤론 사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잘 먹지도 안 해요.		박은섭				*
기초 어획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	제주해녀	제주해녀		명	바다에서 해산을 따위를 전문적으로 따는 사람. 그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일컫는 말이다.	{제주해녀들은} 이 저 성게라 하면서 그 공반수를 얻을 많이 이렇게 크게 돈을 받는데 우리 추자 해녀들은 성게를 굴발수 그거 파서 뒤론 사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잘 먹지도 안 해요.		박은섭				*
기초 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1	121101	한물	한물		명	=한무날. 추자도에서 무수기를 볼 때 초월을과 스무닷새를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세물 너를 너를 다섯을 일한물 여덟을 아홉을 열을 열한을 열두를 아홉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		박은섭				*
기초 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1	121101	한무날	한무날		명	=한무날. 추자도에서 무수기를 볼 때 초월을과 스무닷새를 이르는 말.	{한무날} {한무날} 아 적조기부터 영기는 한 열을 영겨/영추는 {한무날} 두무날 이자 아 적조기 그렇게 가서 따지, 당초도 물 싹때는 당초가/ {한무날} 나, 기량이 있어지게 영은 깨득이 안 나요. {한무날} 초월을이 한물.		최소녀/김옥경				*

1 제주도 근해(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분류 번호 2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도 정보 사진	별도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2	두무날	1211020	두무날	두물		명	추자도에서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11일과 26일을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서물 날이 좋은 물때에 따라서 가요.		김옥섭				*
기초 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2	두무날	1211021	두무날	두무셋날	두무셋날	명	추자도에서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11일과 26일을 이르는 말.	당추는 한무셋날 {두무셋날} 이자 아직조기 그 형게 가서 따지. 당추도 물 썰 때는 못 가.		최소녀				*
기초 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3	서무날	1211030	서무날	서물		명	추자도에서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12일과 27일을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서물} 날이 좋은 물때에 따라서 가요.		김옥섭				0
기초 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4	너무날	1211040	너무날	너무새날		명	추자도에서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13일과 28일을 이르는 말.	그리고 {너무새날} 넘은 물에서 시개 해녀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외서 하고/애가 잘고 날이 좋은 때는 젊은 사람들은 {너무새날}까지 가요.		김옥섭			*	
기초 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4	너무날	1211041	너무날	너물, 니물		명	추자도에서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13일과 28일을 이르는 말.						*	
기초 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5	다섯무날	1211050	다섯무날	다섯물	다섯물	명	추자도에서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14일과 29일을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서물 너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		박철을			0	
기초 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6	여섯무날	1211060	여섯무날	여섯물	여섯물	명	추자도에서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15일과 30일을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서물 너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		박철을			*	
기초 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7	일곱무날	1211070	일곱무날	일곱물	일곱물	명	추자도에서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1일과 16일을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서물 너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		박철을			0	
기초 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8	여덟무날	1211080	여덟무날	여덟물	여덟물	명	추자도에서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2일과 17일을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서물 너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		박철을			*	
기초 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9	아홉무날	1211090	아홉무날	아홉물	아홉물	명	추자도에서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3일과 18일을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서물 너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		박철을			*	
기초 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10	열무날	1211100	열무날	열물	열물	명	추자도에서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4일과 19일을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서물 너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		박철을			0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분류 번호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도 정보 사진	별도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1	열한무늬	1211110	열한무늬	열한물	열한물	명	추자도에서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5월과 20일을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		박철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2	열두무늬	1211120	열두무늬	열두물	열두물	명	추자도에서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6월과 21일을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		박철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2	열두무섯날	1211121	열두무섯날	열두무섯날	열두무섯날	명	추자도에서 무수기를 볼 때 음력으로 6월과 21일을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		박철을				*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3	조금	1211130	조금	조금	조금	명	조수가 가장 낮을 때를 이르는 말.	{조금} 때가 좋지요.		김옥선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4	아초조금(선조금)	1211140	아초조금	아침조기	아침조기	명	=아초조금. 추자도에서는 음력 7월과 22일의 물때.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		박철을				*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4	아초조금(선조금)	1211141	아초조금	아침조기	아침조기	명	=아초조금. 추자도에서는 음력 7월과 22일의 물때.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		최소녀				*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4	아초조금(선조금)	1211142	한조기	한조기	한조기	명	=한조금. 추자도에서는 초아드레와 스무사이름의 물때를 이른다.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한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		박철을				*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4	아초조금(선조금)	1211143	한조기	한조금	한조금	명	=한조금. 추자도에서는 초아드레와 스무사이름의 물때를 이른다.	이제 한조금이면 인자 한 열흘이나 명겠지.		최소녀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4	아초조금(선조금)	1211144	무수		무수	명	추자도에서 무늬를 셀 때 초아드레와 스무나름의 물때를 말한다.	한물 두물 세물 네물 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아침조기 {무수} 한물 이렇게 나가요./쓰무니, {2}로 되어 있다.	박철을				*	
1기초 어획	12환경	1212시간	12120세기	121201	밀물	1212010	밀물	밀물	밀물	명	조수의 간만으로 해면이 상승하는 현상. 간조에서 만조까지를 이르며 하루에 두 차례씩 밀려 들어온다.			박철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2시간	12120세기	121202	썰물	1212020	썰물	썰물	썰물	명	물의 인력(引力)으로 바닷물이 말려 나가서 해면이 낮아지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			박철을				*
1기초 어획	12환경	1212시간	12120세기	121203	물밀다	1212030	물밀다	물밀다	물밀다	동	바닷물이 욱지로 밀려 들어오다.	아직에는 물쓰면은 물에 갇히기 가고 {물들은} 산에 가서 또 밭일 하고, 또 나무 하고 그러가지고 세상을 다 넘었어요.		최소녀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항목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표준어	음역발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고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전	별단 정보 음정	표준국어 사전 등 제어부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3	남풍	1221030	마파람	마파람		명	추자도에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일컫는 말.	여기서 쏘나기가 올 때는 남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마파람이라} 하는데 {마파람} 쏘나기 떨어졌다.		김석권				0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4	북풍	1221040	북바람	북바람	북바람	명	추자도에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일컫는 말.	북쪽은 {북바람}.		박철을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5	동북풍	1221050	북새바람	북새	북새	명	추자도에서 서쪽과 동쪽 불어오는 바람을 일컫는 말.	북동풍 {북새다} 그래요. 우리말로 {북새}.		박철을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6	북서풍	1221060		북하누	북하누	명	추자도에서 북서풍을 가리키는 말	북서풍은 {북하누}.		박철을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7	동남풍	1221070		동마손	동마손	명	추자도에서 남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일컫는 말.	{동마손} 동남.		박철을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8	서남풍	1221080	북하늬	북하누	북하누	명	추자도에서 서남풍을 가리키는 말.	서남 아니 남서풍을 뭐라하나. 아 {북하누기}. {북하누구나}.		박철을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9	최오리바람	1221090	최오리바람	최오리바람		명	=최오리바람<표준>[1]	그냥 {최오리바람이라} 하고.						0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10	불다	1221100	불다	불다	불다	동	{바람이}어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하누바람 {불어서} 뉘친다 이 얘기는 허조.		김석권				0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11	세다	1221110	세다	세다	세다	동	=세다.<표준>03[3]	물이 {세니까}.			최소녀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12	시원하다	1221120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형	시원하다.<표준>01[1]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1	소나기	1222010	소나기	소나기	소나기	명	=소나기.<표준>01[1]	여기서 쏘나기가 올 때는 남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마파람이라 하는데 마파람 쏘나기 떨어졌다./추자도는 등풍이 올때는 그렇게 {쏘나기} 우뚝하니 떨어지지 않아요.		김석권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1	소나기	1222011		마파람 쏘나기 떨어진다		구	마파람에 쏘나기 떨어지다.	여기서 쏘나기가 올 때는 남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마파람이라 하는데 {마파람 쏘나기} 떨어졌다.		김석권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2	이슬비	1222020	이슬비	이슬비		명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	{이슬비라} 하고 기랑비라 하고.		김석권				0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기랑비	1222021	기랑비	기랑비		명	=기랑비<표준>	이슬비라 하고 {기랑비라} 하고.		김석권				0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표준어	음원발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부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3	장맛비	1222030	장맛비	장맛비	장마		명	어름침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또는 그 비.	우월 {장마} 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지요.		김석권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3	장맛비	1222031	장맛비	장맛비	장마	장마	명	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	{장마} 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지요.		김석권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4	여우비	1222040	여우비	장마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4	여우비	1222041	여우비	장마	장마	장마	명	장마가 내리다	인자 비가 왔다가 해빛이 나 {장마} 장마가 내리다. 할머니네가 하는 소리가 {장마} 장마다.		김석권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5	내리다	1222050	내리다	내리다	오다, 내리다	동	동	내리다.<표준>[1]	비가 {오다가} 갑자기 개고 해나면 장마가 내리다. 할머니네가 하는 소리가 {장마} 장마다.		김석권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6	개다	1222060	개다	개다	개다	동	동	개다. 할머니네가 하는 소리가 {장마} 장마다.	비가 오다가 갑자기 {개고} 해나면 장마가 내리다. 할머니네가 하는 소리가 {장마} 장마다.		김석권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3눈	122301	장박눈	1223010	장박눈	장박눈	장박눈	명	명	장박눈.<표준>	{장박눈} 온다.	<조성말 대사전>에>에 올라 있음. <우리말사전>에는 올 해도 올 땅으로 올 제되어 있음.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3눈	122302	새라기	1223020	새라기	새라기	새라기	명	명	새라기.<표준>	새라기. <표준>		김석권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3눈	122303	진눈깨비	1223030	진눈깨비	진눈깨비	진눈깨비	명	명	진눈깨비.<표준>	{진눈깨비} 온다.		박철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3눈	122304	고드름	1223040	고드름	고드름	고드름	명	명	고드름.<표준>	{고드름} 온다.		김석권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3눈	122305	얼다	1223050	얼다	얼다	얼다	동	동	얼다.<표준>[1]	옛날은 고드름이 {얼었다}.		김석권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1	해돋이	1224010	해돋이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1	해돋이	1224011	해돋이		동쪽	구	구	추자도에서 해가 바닷물 위로 떠오르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	해가 돋아나 {장마} 장마가 내리다.		김석권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1	해돋이	1224012	해돋이		동쪽	구	구	추자도에서 해를 무렵에 동쪽이 펼쳐져 있는 현상을 말한다.	해가 돋아나 {장마} 장마가 내리다.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표준어	음원발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 재여부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1	해돋이		셋바람 불라고 동생 쓴다		구	동풍이 불라고 동생 쓴다. 추자도에서는 아침에 동풍이 불게면 셋바람본다고 인식하고 있다.	동쪽에 번가니 한 때는 {셋바람 불라고 인자 동생 쓴다.} 서쪽에서 해가 질 때 번가면은 이 성을 후에 바올라고 거시기 불게졌다.	김석권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2	해넘이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2	해넘이		해가 질 때 별가면은 이 성일 후에 비 온다		구	추자도에서 저녁 때 하늘이 붉게 물들면 이 성을 후에 비가 온다고 인식하고 있다.	서쪽에서 해가 질 때 번가면은 이 성을 후에 바올라고 거시기 불게졌다.	김석권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2	해넘이		불새	북새	명	저녁 때 하늘이 붉게 물드는 현상.	날 곳칠라고 셋바람 쪽에서 {불새한다.}	김옥섭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2	해넘이		날 곳칠라고 셋바람 쪽에 서 불새한다		구	날 곳으라고 저녁에 서쪽하늘이 붉게 물들 다는 말이다.	{날 곳칠라고 비올라고 저녁 불새한다} 그런 말도 한다.	김석권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2	해넘이		날 곳칠라고 셋바람 쪽에 서 불새한다		구	날 곳으라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다는 말 이다.	{날 곳칠라고 셋바람 쪽에서 불새한다.}	김옥섭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강새가 높이 뜨면 바람 온다		구	갈매기가 높이 뜨면 바람이 온다.	강새가 높이 이렇게 뜨면 {강새가 높이 뜬 것 이 바람 불겠다} 우리 앉아서 그런 말 해오.	김옥섭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3	햇무리		햇머리	헛머리	명	햇빛이 대기 속의 수증기에 비치어 해의 물 위에 동글게 나타난다는 뜻말이 있는 태두리.	{헛머리} 한 것이 날 곳지겠다.	김옥섭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3	햇무리		햇머리 한 것 이 날 곳지 겠다		구	추자도에서는 햇무리를 하면 날 이 곳겠다는 속설이 있다.	{헛머리 한 것이 날 곳지겠다.}	김옥섭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4	달무리		달무리		명	달의 둘레에 생기는 둥근 고리 같은 것.	{달무리}는 } 쓰지요.	김석권					0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5	은하수		은하수		명	=은하수 <표준>	{은하수} 고향졌다.	김석권					0
							칠성	칠성		=은하수 <표준>	은하수 {칠성}	김석권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5	은하수		은하수 고향 진다. 은하수 고향진다		구	은하수가 고향졌다. 은하수가 길게 늘어선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은하수 고향졌다.} / {은하수가 물 흐르는 고향졌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 많이 쓰여오.	김석권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분류 번호	표준어	음령발	발음 정보	표사정 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도 정보 사진	별도 정보 음정 사진	표준국어 사전 등 제어부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6	뜨다	1224060	뜨다	뜨다	동	동	(해, 달, 별 같은것)이 돌아오른다.	해가 {월랑고} 막 할 때 동살 준다.		김석권				0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1	번개	1225010	번개	번개	명	명	=번개.<표준>01.	천둥하면서 {번개} 친다., 비가 많이 올랑가 {번개} 친다.		김석권, 김복엽				0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2	벼락, 벼락	1225020	벼락	벼락	명	명	=벼락.<표준>01.	{벼락} 그것보고 날벼락이야.		김옥섭, 김석권				0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3	천둥	1225030	천둥	천둥	명	명	=천둥.<표준>	천둥하면서 {번개} 친다.		김석권				0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31	천둥소리	1225031	천둥	천둥소리	명	명	=천둥소리.<표준>	하늘소리나 {천둥소리나} 한 가지. 하늘에서 뽕뽕뽕뽕하고 {천둥소리}.		김옥섭				0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32	하늘소리	1225032	천둥	하늘소리	명	명	=하늘소리.<표준>	{하늘소리나} 천둥소리나 한 가지. 하늘에서 뽕뽕뽕뽕하고 천둥소리.		김옥섭				*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0	구름	1225040	구름	구름	명	명	=구름.<표준>01.	달도 월식하고 해도 해식하고 달은 위시기 {구름이} 막 개려불고.		김옥섭				0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월식		월식	월식	명	명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 전부나 일부가 보이지 않는 현상.	달도 {월식하고}, 해도 해식하고 달은 위시기 {구름이} 막 개려불고.		김옥섭				0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월식		월식	월식	명	명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 전부나 일부가 보이지 않는 현상.	월식이 {월식}.		김옥섭				*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해식		월식	해식	명	명	=월식, 달이 태양의 일부나 전부를 가림, 또는 그런 현상.	달도 월식하고 해도 {해식하고} 달은 위시기 {구름이} 막 개려불고.		김옥섭				*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피마따			피마따	동	동	=내뻐다. 일식을 할 때 대아에 물 떠 놓아서 보면 개가 하나 달을 들었따 뵈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표준>에 내뻐다의 진남방진으로 올라 있다		김옥섭				0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달도 월식하고 해도 해식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면 안 변하겠는가.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월식과 해식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말이다.	옛날 말이 욱 {달도 월식을 하고 해도 일식을 하는데 사람이라고 말이 안 변하겠나}고.		김옥섭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표준어	음원발	발음 정보	품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가리다	개리다	동	동	=가리다.<표준>01.	달은 휘시기 구름이 먹 {개려불고.}		김옥섭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시리다	시림다	형	형	=시리다.<표준>	{시림다.}		김옥섭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5	1225050	안개	우네	으남, 안개	명	=안개.<표준>	안개 안 보이게 먹 끼는 것을 {우네} 쾜다.		김석권				0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6	1225060	서리	서리	영	영	=서리.<표준>03	{서리라} 하는데 {서리는} 별로 많이 안 내리니까.		김석권				0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7	1225070	무지개	무지개	명	명	=무지개.<표준>	{무지개} 치면은 비가 올라고 {무지개를} 한다.		김석권				0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7	1225071		비가 올라고 무지개 쾜다	구	구	추자도에서 무지개가 서면 비가 온다는 속설이 있다.	{무지개} 치면은 {비가 올라고 무지개 쾜다}.		김석권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무지개 치다	구	구	추자도에서 무지개가 서는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말.	{무지개 치면은} 비가 올라고 {무지개 쾜다}.		김석권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8	1225080	맑다	맑다, 쯤다	형	형	=맑다.<표준>01[2]	{맑다고} 하조. 날 {쯤다}. 날이 흐리다. 낮 곳 쯤라 한다.		김옥섭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9	1225090	밝다	밝다	형	형	=밝다[1]	날이 { 밝다}.		김옥섭				0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10	1225100	썩다	썩다	형	형	=썩다.<표준>	날이 { 썩다} 그러지.		김석권				*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1	1231010	동쪽	동쪽	명	명	=동쪽.<표준>	{동쪽에} 쾜거니 할 때는 쯤바람 불라고 인자 동썩 쯤다.		김석권				0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2	1231020	서쪽	서쪽	명	명	=서쪽.<표준>	{서쪽에서} 해가 쯤 때 쾜가며는 이삼일 후에 비올라고 거시기 쾜개쾜다.		김석권				0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3	1231030	남쪽	남쪽	명	명	=남쪽.<표준>	예를 들어 북쪽에는 많이 있고 인제 {남쪽에는} 없다.		김석권				0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4	1231040	북쪽	북쪽	명	명	=북향.<표준>02.	예를 들어 {북쪽에는} 많이 있고 인제 남쪽에는 없다.		김석권				0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표준어	음역	뜻풀이	품사 정보	출전정보 1	기타정보	용례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 재여부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5	동서향	1231050			**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6	동남향	1231060	동남향		동남향	서북쪽에서 동남쪽을 바라보는 방향.	명	김석권		사이를 {동남}, 서남, 동북, 북동 이렇게.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7	동북향	1231070	동북쪽		동북	=동북향 <표준>	명	김석권		사이를 동남, 서남, {동북}, 북동 이렇게.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8	서남향	1231080	서남쪽		서남	=서남향 <표준>	명	김석권		사이를 동남, {서남}, 동북, 북동 이렇게.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9	서북향	1231090	서북쪽		서북	=서북향 <표준>	명	김석권		{서북}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바다		바다		바다	=바다 <표준>	명	김옥섭		추는 {바닥이라고}.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1	만바다	1232010	*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11	안골		안골	추자도 사람들이 추자도 인근 바다를 일컫는 말.	명	김석권		{안골} 갔다 왔다. 말 고개바다 갔다 왔다./옛날에는 조업을 할 때 동지나를 안 다녔거든요. 과일이 부근에서 잡혔다. 이제 안골서 잡혔다. 이런 식으로./추자 {안골이라는} 말은 근해.			*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12	갯가시	1232012	바닷가		갯가시	=바닷가.	명	최소녀		아직에는 물 쓰면은 물에 {갯가시} 가고 물 들은 신에 가서 또 밭일 하고, 또 나무 하고 그레 가지고 세상을 다 넘었어요.				*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13	과개바다	1232013	과개바다		과개바다	관탈성 부근의 바다. 추자도에서 만바다로 인식하는 곳이다.	명	김석권		안골 갔다 왔다. 말 {과개바다} 갔다 왔다				*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20	연안	1232020	*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30	바닷물	1232030	바닷물		경물	=바닷물. <표준>	명	김석권		{경물이} 짜다.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40	민물	1232040	민물		민물	=민물 <표준> 01.	명	김석권		{민물아락} 하는 데 {민물}.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50	파도	1232050	파도		파도	=파도 <표준>	명	김석권		{누가} 씨다. 파도가 씨다.				*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60	거품	1232060	거품		파도	=파도 <표준>	명	김석권		누가 씨다. {파도가} 씨다.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70	너물	1232070	너물		버금	=거품 <표준>[1]	명	김석권		파도 치은 {버금이} 나쵸.				*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70	너물	1232070	너물		너물	바람이 불지 않아도 파도가 크게 물결치는 것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	명	김석권		{너물아락} 하쵸.				0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표준어	음역발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열린 정보 사진	열린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부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8	파도치디(동사)	파도치디	누치다	누치다	동	=파도치디.<표준>[1]	동풍 셋바람 불어서 {누친다}. 하루바람 불어서 {누친다} 이 예기는 하조.		김석권				*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9	너르다.	날다	날다	날따	형	=너르다[1]	추자도 바다가 제주도 바다와 합쳐져서 같이 조업을 하니까 {날조}.		김석권				0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0	깊다	깊다	깊다. 기쁘다. 깊따	형		=깊다.<표준>[1]	근해 바다는 얇고 저 고향 바다는 {깊고} 그래요./그 물밑에 가름은 무에나무도 있지. 나무가 이 선배로 이자 기쁘고 {아천} 대가 그런데 가시기도 있고.		김석권, 최소녀				0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1	넓다	얕다	얕다	얕따	형	=얕다.<표준>	근해 바다는 {얕고} 저 고향 바다는 깊고 그래요.		김석권				*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2		얕다	아차다	형		=얕다.<표준>	그 물밑에 가름은 무에나무도 있지. 나무가 이 선배로 이자 기쁘고 {아천} 대가 그런데 가시기도 있고.		최소녀				*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1	넓다	넓다	넓다	넓따	형	=넓다.<표준>[1]	전라도 말로 아차면은 논이고 {높으면} 신이고.		김석권				0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2	짜다	짜다	짜다	짜다	형	=짜다.<표준>03[1]	경물이 {짜다}.		김석권				0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3	퍼렇다	퍼렇다	퍼렇다	퍼렇하다	형	=퍼렇다.<표준>[1]			김석권				0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4	하얗다	하얗다	하얗다	하야타	형	=하얗다.<표준>[1]	{하얀} 색깔.		김석권				0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5	빠지다	빠지다	빠지다		동	물이나 구멍이 따위 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가다.			김옥섭				0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1	모래	모래	모래		명	=모래.<표준>01	추자도 바다가 맨 {모래}밭이에요.		김옥섭				0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2	모래사장	모래사장	모래밭	모래받	명	=모래가 많이 깔려 있는 곳.	추자도 바다가 맨 {모래밭}이에요.		김석권				*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3	갯벌	갯벌	물	물	명	=갯벌.<표준>	{갯벌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김석권				0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4	돌	돌	돌	돌	명	=돌.<표준>02.	{돌에} 붙어 있어.						0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1	포구	포구	포구	포구	명	=포구.<표준>03.	옛날 항구다 하기 전에 {포구} 식으로 지금 같은 방파제였는데 그때는 뭐 그 독두말이다. 그 독두말 안에도 배 들어간다 나간다. 그게 지금 같은 방파제 역할을 한 것이니까.		박철을				0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표준어	음역발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진 등재여부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2		항구	1234020	항구	항구	명	명	=항구.<표준>03.	옛날 {항구다} 하기 전에 포구 식으로 지금 같은 방파제였는데 그때는 뭐 그 독두말이다. 그 독두말 안에도 배 들어간다 나간다. 그게 지금 같은 방파제 역할을 한 것이니까.	박철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2		항구	1234021	항구	속강	속강	명	=항구.<표준> 03.	동쪽 {속강이라고} 불렀죠.		김석권				*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2		항구	1234022		독두말	독두말	명	포구에 쌓아진 독, 요철의 방파제와 같다.	옛날 항구다. 하기 전에 포구 식으로 지금 같은 방파제였는데 그때는 뭐 그 독두말이다. 그 독두말 안에도 배 들어간다 나간다. 그게 지금 같은 방파제 역할을 한 것이니까.	박철을					*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2		항구	1234023		큰개안		명	추자도에서 항구를 일컫는 말.	요새는 항구 예전에는 {큰개안이라} 항구다.		김옥섭				*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3		아귀	1234030		*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4		개	1234040		*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5		곶	1234050		*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6		만	1234060		*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7		바위	1234070	바위	바위	명	명	=바위.<표준>01[1]	{바위라고} 하는데 나온 연동 들어간 연동.		김석권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7		바위	1234071	바위	바우	명	명	=바위.<표준>01[2]	{바우}라고.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8		양반	1234080		양바위	명	명	=양반.<표준>02. 추자도에서 바위 바닷물을 일컫는 말.	{양바위} 납작한 바위 평지바위 그렇게 말했어요.		김석권			*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8			1234081		평바위, 평지바위	명	명	=양반.<표준>02. 추자도에서 평평한 바위를 일컫는 말.	양바위 납작한 바위 {평지바위} 그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가다가 바위가 누닥졌다. 그러은 이자 사고가 나온 바위는 배가 많이 상하고 {평바위는} 배가 덜 상하잖아요. {평바위에서} 바위가 고무니까 배가 덜 다쳤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죠.		김석권		*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동방	동방	명.	명	바닷가에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너럭바위 위에 생긴 웅덩이.	이렇게 바다에 물쓰면는 다 물이 빠고 이렇게 군데 군데 모여있는 그 보고 {동방이라고}. /위에가 돌 조금씩 조금씩 있는 거 보고 {동방}.		박은섭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여		연동	연동	명	명	=여.<표준>01.	바위라고 하는데 나온 {연동} 들어간 연동.		김석권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표준어	음역발	발음 정보	품사·성 질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단 정교 사진	별단 정교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부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어			나온 연동	나온 연동 구		바다 위로 돌출해 있는 여.	바위라고 하는데 {나온 연동}{돌아간 연동}. 지 연동은 돌 속에 {돌아간 연동이다} 이 연동은 {나온 연동이다}.		김석권				*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어			돌아간 연동	돌아간 연동 구		바다 속으로 숨어 있는 여.	바위라고 하는데 나온 연동{돌아간 연동}. 지 연동은 돌 속에 {돌아간 연동이다} 이 연동은 나온 연동이다.		김석권				*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9	남떠라지	1234090	남떠라지	절벽		명	=남떠라지.<표준>	{절벽이라고}.		김옥진				0
기초 어휘	13아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01		머리	1311010	머리	머리	명		=머리.<표준>어1.	{머리락} 하조.		박철을, 김석권				0
기초 어휘	13아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대가리	대가리	명		=대가리.<표준>어1.	{대가리}.		박철을				0
기초 어휘	13아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02		입	1311020	입	입	명		=입.<표준>	고기가 먹고 사는 디 {입} 없이 얼로 먹고 삼니 까?		박철을, 김석권				0
기초 어휘	13아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021	아가미	아가미	명		=아가미.<표준>	{아가지}.		박철을, 김석권				0
기초 어휘	13아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022	입	추둥이	명		=입.<표준>	{추둥이}.		박철을, 김석권				0
기초 어휘	13아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03		눈	1311030	눈	눈	명		=눈.<표준>어1.	{눈깔}.		박철을				0
기초 어휘	13아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04		등	1311040	등	등때기	명		=등.	{등때기} 있으니까 배때기도 있겠지		박철을				0
기초 어휘	13아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05		아가미	1311050	아가미	알금치	명		=아가미.<표준>	알치 같은 거 {알금치} 나온 것을 갖고 것갈해 요.		김석권				*
기초 어휘	13아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051	아가미	아가미	명		=아가미.<표준>	고기가 {아가미로} 숨새잖아요.		박철을				
기초 어휘	13아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05		아가미	1311051		숨새다	명		=숨새다.<우리>	고기가 아가미로 {숨새잖아요}.		박철을				*
기초 어휘	13아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06		지느러미	1311060	지느러미	날개쪽, 날개 쪽	명		=지느러미.<표준>	지느러미 {날개쪽} 그래요.		박철을, 김석권				*
기초 어휘	13아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07		비늘	1311070	비늘	비늘	명		=비늘.<표준>어1[1]	{비늘이닥}.		박철을				0
기초 어휘	13아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08		편질	1311080	편질	편질	명		=편대기.<표준>[1]	와따 {편질} 먹을 때에 좋다.		박철을				0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분류 번호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정 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고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 제어부
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081		1311081	경질	경덕	명	명	=명태기.<표준>[1]	{고기 권덕}		김석권				*
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09	배	1311090	배	배매기	명	명	=배.<표준>[1]	고기 {배매기} 맞시다.		박철을, 김석권				0
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10	창자	1311100	창자	배창시, 창시	명	명	=창자.<표준>[1]	{배창시}		박철을				*
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101	창자	1311101	창자	창지	명	명	=창자.<표준>[1]	타발 쓴단 말은요 고기를 배를 갈라가지고 양 쪽으로 양쪽으로 갈른 것을 타발 쓴다고 하지. 고기만 {창지만} 땀 것들 타발 쓴다 말 안 하 요.	김석권					*
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11	부레	1311110	부레	부레	명	명	=부레.<표준>[1]	{부레}.		박철을				0
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12	살	1311120	살	살	명	명	=살.<표준>[1]	{살은} 거 회로 사시미로 먹고 그 배는 국 끓여 먹고 그래요.	박철을					0
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13	알	1311130	알	알	명	명	=알.<표준>[1]			박철을				0
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131	알	1311131		알싸다	동	동		점복은 하 저 {알쌔} 때는 못 잡아. 귀족도 그 래. {알쌔} 때 못 따지.	최소녀					*
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14	꼬리	1311140	꼬리	꼴랑지	명	명	=꼬리.<표준>[1]	이거는 {꼴랑지덕} 하고.		박철을				0
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분명칭	131115	가시	1311150	가시	까시	명	명	=가시.<표준>[1]			박철을				*
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01	물고기	1312010	물고기	물게기	명	명	=물고기.<표준>	옛날 {물게기}.		박철을				*
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02	멸치	1312020	멸치	헬, 멸치	명	명	=멸치.<표준>	옛날부터 {헬}이라고 그래요. {멸치기} 인자. 부르는 이름이 있조. 꼭사리. 졸졸한 것을 꼭사 리. 큰 것은 대멸치.	박철을, 김석권					0
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021	멸치	1312021		꼭사리	명	명	자잘한 멸치를 이르는 말.	멸치가 인자 부르는 이름이 있조. {꼭사리}. 졸 졸한 것을 {꼭사리}. 큰 것은 대멸치.	김석권					*
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02	멸치	1312022		대멸치	명	명	등에 줄이 그어진 멸치.	멸치가 인자 부르는 이름이 있조. 꼭사리. 졸졸 한 것을 꼭사리. 큰 것은 {대멸치}.	김석권					*
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02	멸치	1312023		졸맹이	명	명	크기가 큰 멸치.	헬은 다 똑같다. 큰 거 있구나. {졸맹이}. =대멸치.	박철을					*

1 제주도 근해(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1	기초 어획 분류 번호2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도 사진	별도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03	1312030	정어리	정어리	명	명	정어리.	우리 말로는 {정어리}/{정어리란} 고기가 있어요.		박철을. 김석권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04	1312040	갈치	갈치	명	명	갈치.	{갈치} 조고만 동력선 가지고 가면은 잡아 가지고 헐는데 지금은 일절 나지 않아요.		김석권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05	1312050	고등어	고등어	명	명	=고등어.<표준>			박철을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05	1312051	고도리	남쟁이, 남쟁이, 남쟁이	명	명	=고도리 어[1].<표준>	{남쟁이라고} 하는데 뭐 조고만 한 게, 이런 거 {남쟁이라고} 하리 해요 / 지금도 고등어 새끼를 {남쟁이라고} 불러요 / 고등어 새끼는 {남쟁이}.		박철을. 김석권. 원용순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06	1312060	가오리	가오리	명	명	=가오리.<표준>	{가오리와} 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총애다고 그러요.		박철을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06	1312061	낭가오리	낭가오리	명	명	=낭가오리.<표준>	가오리 같은 것은 많이 나니까, {낭가오리}. 그런 거는 가오리라 그러요.		박철을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07	1312070	총애	총애	명	명	=총애.<표준>	가오리와 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총애라고} 그러요.		박철을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08	1312080	가자미	망개	명	명	=가자미.<표준>	황어하고 뭐 금방 알현 그 가자미 조금 다룬데 그럴 보고 그냥 {망개라고} 해요./가자미 아니 옛날에는 그냥 {망개}라고 막 불렀어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		박은선. 박철을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08	1312081	가자미	박대	명	명	=가자미.<표준>	까자미다 하고 까잘미다 하고. 까잘미다 하고 박대다 그런 거 같은데.		박은선. 박철을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082	가자미	까자미	명	명	=가자미.<표준>	{까자미다} 하고 까잘미다 하고. 까잘미다 하고 박대다 그런 거 같은데.		박은선. 박철을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083	가자미	까잘미	명	명	=가자미.<표준>	까자미다. 하고 {까잘미다} 하고. {까잘미다 하고} 박대다 그런 거 같은데.		박은선. 박철을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09	1312090	영태	영태	명	명	=영태.<표준>	간 {영태라고} 그냥 이름만 거 들었을 뿐이지./영태} 열린 거는 또 동태라고 우리 다 거 먹고 그러요.		박은선. 박철을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0	1312100	동태	동태	명	명	=동태.<표준>03	영태 열린 거는 또 {동태라고} 우리 다 거 먹고 그러요.		박은선. 박철을			0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분류 번호	표준어	올림발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도 정보 사진	별도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 제어부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1	황태	1312110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2	노加里	1312120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3	복어	1312130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4	생태	1312140		*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5	조기	1312150	조기	조구, 조기		명	=부조기.<표준>1	{조기} 비슷한 사촌 {부새린} 고기 있는데 {조구}는 다 {조구다} 그래요.		박철을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51	조기	1312151		백조구	백	명	부구치,민엇고에 딸린 바닷물고기. 몸길이 30 ~ 40cm쯤으로, 황조기와 비슷하게 생겼고, 몸빛은 회다.	조구도 {백조구} 있고 {노랑조구} 그것이 {백조구}는 사 잡수시 마세요. 맛이 없어요.		김옥섭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52	조기	1312152	부새	부새	명	명	=부새.<표준>05	조기 비슷한 사촌 {부새린} 고기 있는데 조구는 다 조구다 그래요.		박철을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5	조기	1312153	황조기	황조구	명	명	=황조기.<표준>	{황조구다} 하고 그냥 조구다고 그래요.		박철을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6	굴비	1312160	굴비	굴비	명	명	=굴비.<표준>	옛날에는 이렇게 {굴비라} 하질 않고 이거 진짜 조공씩 말린 것이라든가 총지 않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개 그릇에 막 말리거나 그릇지름 안 찢어요.		박철을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7	공치	1312170	공치	공치	명	명	=공치.	경상도 지방에서 저 강원도 지방에서 학공치다 하고 우린 그냥 {공치다} 그래요		박철을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71	공치	1312171	학공치	학공치	명	명	=학공치.	경상도 지방에서 저 강원도 지방에서 {학공치다} 하고 우린 그냥 {공치다} 그래요		박철을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8	복어	1312180	복어	복평이	명	명	=복.<표준>01	이 쪼꼬만 거 낙아도 {복평이다} 하고 큰 걸 낙아도 {복평이라고} 그러니까.		박철을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9	고래	1312190		*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91	고래	1312191		*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0	상어	1312200	상어	상에	명	명	=상어.<표준>01	{상에도} 없어요.		박철을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1	납치	1312210	광어	광에	명	명	=납치.<표준>	박대를 쫓 쪼꼬만하 이렇게 먹 쪼꼬만 한 거야. {광어하고는} 완전히 틀린 고기./어 {광에.}		박철을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2	바다장어	1312220		*										0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분류 번호 2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2	바다장어	1312221	봉장어	아나고	아나고	명	=봉장어,<표준>	아나고.		김옥섭				*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2	바다장어	1312222	장어	평에	평	명	=봉장어,<표준>	{평에} 평장에.		김옥섭				*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2	바다장어	1312223	봉장어	평장에	평	명	=봉장어,<표준>	평에 {평장에}.		김옥섭				*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2	바다장어	1312224	뽕장어	평어	평어	명	=뽕장어,<표준>	옛날에 큰 {평어보로} 먹평어덕 하고 그냥 {평어라} 그래요.		박철을			0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2	바다장어	1312225	뽕장어	먹평어	먹평어	명	=뽕장어,<표준>	옛날에 큰 평어보로 {먹평어덕} 하고 그냥 평어라 그래요.		박철을			*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3	도미	1312230	돔	도미, 돔		명	=돔<표준>>01	{도미도} 많이 나./저희를 커가지고는 {돔도} 잡아오고 여러 가지 방어도 잡고 삼지도 잡고 이런 것은 그 후에 다 했습니다.		박철을, 원웅순			0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3	도미	1312231	참돔	참돔		명	=참돔<표준>	{참돔} 아까다이.		고창관			0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4	병어	1312240	병어	병어		명	=병어,<표준>>01	병어.		박철을			*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5	도루묵	1312250		*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6	잉연수어	1312260		*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7	삼치	1312270	삼치	삼치		명	=삼치<표준>>01	포꼬만한 거 고씨다 하고 큰 고기는 큰 고기 {삼치} 그래요.		박철을			0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7	삼치	1312271		고씨, 고씨	고씨	명	삼치 세개.	포꼬만한 거 {고씨다} 하고 큰 고기는 큰 고기 삼치 그래요./릴 키로 일 키로 미안은 {고씨라} 고} 그러는 거요		박철을			*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8	방어	1312280	방어	방어		명	=방어,<표준>>04	{방어} 부시리조.		박철을			0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8	방어	1312281	부시리	부시리		명	=부시리,<표준>.	방어는 그냥 {부시리}, 옛날엔 그냥 {부시리다} 그러구요.		박철을			0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8	방어	1312282		하마치		명	방어 세개를 가리키는 일본어.	포꼬만한 하마치, 아스를 {하마치다}고 그러조.		박철을			*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8	방어	1312283		아스	아스	명	방어 작은 거.	포꼬만한 하마치, {아스를} 하마치다고 그러조./방어하고 {아스는} 훑쳐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밑에서 이빨 돌아줘야 되니까, 웬지일 거 아니예요?		박철을			*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9	옥돔	1312290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항목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표준어	음원발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30	전갱이	1312300	전갱이	가라지	객패기	명	=전갱이.<표준>			박철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31	전어	1312310	전어	전어		명	=전어.<표준>06			박철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32	준치	1312320	준치	준치		명	=준치.<표준>01			박철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33	청어	1312330	청어	청어		명	=청어.<표준>01			박철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34	농어	1312340	농어	농어		명	=농어.<표준>	우럭이나 아른 {농어나} 이런 게 많아요.		박철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341	농어	1312341	절매기	절매기		명	=절매기.<표준> . 농어의 새끼.	큰 거는 농어. 금방 고씨처럼 적은 거는 {절매기}.		박철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350	취치	1312350	객주리	취패기	취패기	명	=객주리.<표준>	지금 취고기 옛날은 {취패기}.	<표준>에는 취 고기가 1. 취치 의 잘못 2. 취포 의 잘못으로 되어 있음.	박철을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36	민어	1312360	민어	민어		명	=민어.<표준>	조금 적은 거 통치다 하고. 통치. 통치. 그리고 큰 거는 {민어}.	고창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361	민어	1312361		통치		명	민어의 새끼.	조금 적은 거 {통치다} 하고. {통치}. {통치}. 표준 설명 참고 그리고 큰 거는 민어.	고창완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37	대구	1312370	대구	대구		명	=대구.<표준>02			박철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39		1312380	우럭불락	우럭		명	=우럭불락.<표준>	{우럭이나} 아른 농어나 이런 게 많아요.		박철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39		1312381		까만우럭		명	우럭의 일종. 색이 겨무스래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놀래미도 나고고 우럭 있잖아요 {까만우럭도} {활간우럭} 우럭도 나고고.		박철을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39		1312382		활간우럭		명	황우럭. 색이 붉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놀래미도 나고고 우럭 있잖아요 까만우럭도 {활간우럭} 우럭도 나고고.		박철을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40		1312390	참어	장패		명	추자도에서 참어를 일컫는 말.	예를 들어서 뭐 삼치는 아니지만은 농어 도미 고 이런 거 다 삼는 거요. 조기나 삼치나 망언 아니지마는 참어 {장패} 이런 거 삼는 거./ 참 어를 {장패다} 해.	박철을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표준어	음역발	발음 정보	통사정 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41	1312400				조물락, 조물 락	조물락	명	물락의 일종. 모양이 자리돔처럼 생긴 물고 기로, 노래미의 일종이다.	우리 어렸을 때는 잔챙 나고곡 {조물락이나} 우럭 같은 거 칭따로/노래미 우리말로 하면 동 생이 {조물락이요}.		박철을				*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42	1312410			노래미	노래미		명	=노래미.<표준>	{노래미도} 나고곡 우럭 있잖아요 개면우럭도 빨간우럭 우럭도 나고곡./{노래미} 우리말로 하면 동생이 {조물락이요}.		박철을				*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태	131301	1313010			알다	알브다		형	=알다.<표준>	모락스럽게 {알브다}. 아주 거 억하다 그 말이 조.		박철을				*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태	131302	1313020			굵다	굵다	국판	형	=굵다.<표준>	물 밑에 굵어 이래 {굵어}.		최소녀				0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태	131303	1313030			길다	길다		형	=길다.<표준>>02	평어가 모락스럽게 {길어}/그 길이로 말하면 금방 말한 막둥어가 쥔 {질꾸요}. 지락수로는.		박철을				*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태	131304	1313040			크다	크다		형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모락스럽게 {크다} 그렇게 말하고.		박철을			0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태		1313041				잘잘하다		형	자디잘다.	물 밑에 굵어 이래 굵어, 여기 추지도는. 이런 섬에 떨어진 {잘잘한다} 이렇게 굵어.		최소녀				0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태	131305	1313050			날작하다	날작하다	날작커다	형	편편하고 얇으면서 좀 넓다.			박철을			*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태	131306	1313060			싱싱하다	싱싱하다	싱싱하다	형	채소나 과일, 생선 따위가 싱싱하다.			박은선			*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태		1313061				타발 쓰다		구	고기의 배를 가르다.	{타발 쓰단} 말은요 고기를 배를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양쪽으로 갈른 것을 {타발 쓰다고} 하지, 고기만 찢지만 찢 것을 {타발 쓰다} 말 한 해요.		김석권			*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태	131307	1313070			(가시) 찌르다	찌르다	찌르다	동	물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것으로 물체의 결면이 뚫어지거나 속 들어가도록 세차게 들어밀다.	까시에 {찌러부르다} 하는 거.		박철을			*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칭	132101	1321010			조가비	*										*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칭	132102	1321020			임	주둥이, 임		명	임.	{주둥이}.		박철을				0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표준어	음림발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 제어부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칭	132103	아귀미	1321030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칭	132104	심장	1321040		심장					명	=심장.<표준>02[1]			박철을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칭	132105	내장	1321050		황자					명	=내장.<표준>06.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칭	132106	조개관자	1321060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칭	132107	(조개)발	1321070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1	조개	1322010		조개					명	=조개.<표준>01.	{조개} 호행이라고 파랗고.		박철을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1	조개	1322011		바지락					명	=바지락.<표준> 01.			박은섭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2	소라	1322020		소라					명	=소라.<표준>02.	{꾸죽} 큰꾸죽 적은꾸죽.		박은섭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2	소라	1322021		잔소라					명	소라 잔 것을 일컫는 명칭.			최소녀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2	소라	1322022		큰소라					명	추자도에서 굵기가 큰 소라를 일컫는 말.			최소녀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2	소라	1322023		엷쪽꾸죽					명	소라의 일종.			최소녀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2	소라	1322024		생꾸죽					명	날 소라를 일컫는 말.	소라도 {생꾸죽으로} 이렇게 깨서 그냥 잡아서 깨서 생으로 먹는 것이 훨씬 맛있어.		최소녀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2	소라	1322025		꾸죽쟁이					명	소라의 껍데기.	소라 껍데기보고 {꾸죽쟁이}.		박은섭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3	고동	1322030		고동					명	=고동.<표준>	{고동이다} 그냥/참고동은 뚱그라이 뽕질엔 질한 것. 그거는 참고동이고 이렇게 쫑긋하니 길쭉한 것은 그냥 {고동이다} 하고.		최소녀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3	고동	1322031		가사리고 등					명	가사리고동, 고동의 일종.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방고동을 일컫는 말 같다.	{참고동은} 뚱그라이 뽕질엔질한 것. 그거는 {참고동이고} 이렇게 쫑긋하니 길쭉한 것은 그 냥 고동이다 하고.		최소녀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3	고동	1322032		매끈이고 동					명	매끈이고동.	소라같이 생긴 것이 {소라쟁이라고} 꺾쪽꺾쪽 하니.		최소녀				*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3	고동	1322033		삿갓조개 배알					명	=삿갓조개.<표준>	조개삿갓이라고 그럼니까, 여기서 {배알이라 고} 그렇습니다.		원용순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분류 번호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3	고동	1322034	두드럭고동	도토리고동		명	=두드럭고동<표준>	고동 중에서도 {도토리고동} 있잖습니까? 그거 먹고 나면 아주 좋아요.		원용순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4	전복	1322040	전복	생복	생복	명	=전복<표준>	{생복} 큰생복 작은생복 이렇게 하고, 껍끄만 한 것은 오본자기라 그냥 마드레기다고.		박은성, 최소녀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4	전복	1322041	전복	전복, 생복		명	=전복<표준>	옛날에는 전복 안 먹고 전복 소라 안 잡고. 오중매가 전복 소라 잡았지. 미역을 썼어.		최소년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4	전복	1322042	생복	생복	생복	명	=생복<표준>	생복.		박은성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4	전복	1322043		큰생복		명	새알이 굵은 전복을 일컫는 추자도 어촌생물어.	생복 {큰생복} 작은생복 이렇게 하고, 껍끄만 한 것은 오본자기라 그냥 마드레기다고.		박은성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4	전복	1322044		작은생복		명	새알이 작은 전복을 일컫는 추자도 어촌생물어.	생복 {작은생복} 이렇게 하고, 껍끄만 한 것은 오본자기라 그냥 마드레기다고.		박은성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4	전복	1322045		생복, 껍질	생복, 껍질	명	전복의 껍질.	생복, 껍질.		박은성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4	전복	1322046		개웃	개웃	명	전복의 내장.	{개웃을} 육으면은 저 사람 살로 간다고.		최소녀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4	전복	1322044	오본자기	오본자기		명	=오본자기.	큰생복 작은생복 이렇게 하고, 껍끄만한 것은 {오본자기라} 그냥 마드레기다고.	<표준>에 딱 조개의 제주방언으로 되어 있는 데, 이는 잘못이다.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4	전복	1322045	오본자기	마드레기		명	=오본자기.	큰생복 작은생복 이렇게 하고, 껍끄만한 것은<표준>에 딱 조 오본자기라 그냥 {마드레기라고}/오본자기면, 개의 제주방언 {마드레기}/(마드레기는) 이제 그 야릇 꼬으로 되어 있는 항 그런 데가 많이 살고, 전복은 깊은 데가 많데, 이는 잘못이다.		박은성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4	전복	1322046		마다리, 귀머거리		명	추자도에서 전복 새끼를 일컫는 이름.	전복새끼라고 있는 것이 귀머거리, 마다리.		최소녀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5	굴	1322050	굴비	굴		명	=굴<표준>01	이런 큰 돌에를 붙여 있는 거 자연산 {굴이다고}/돌 밑에 {굴이} 아래 붙어.		박은성, 최소녀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6	고막	1322060	고막	고막		명	=고막<표준>			박은성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7	군부	1322070	군부	군부	군부	명		{군부도} 돌에 붙은 거.		최소녀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항목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표준어	음역발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3상태	132301	동그물다	1323010	동그물다	동그라하다	동글락커다	형	원이나 공과 모양이 같거나 비슷하다.	참고동은 {동그라이} 변질변형한 것. 그거는 참고동이고 이렇게 풍긋하니 {길쭉한} 것은 그냥 고동이다 하고.	박은섭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3상태	132302	길쭉하다	1323020	길쭉하다	길쭉하다	길쭉커다	형	=조금 길다.	참고동은 동그라이 변질변형한 것. 그거는 참고동이고 이렇게 풍긋하니 {길쭉한} 것은 그냥 고동이다 하고.	박은섭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3상태	132302	길쭉하다	1323021	길쭉하다	길쭉길쭉하다	길쭉길쭉커다	형	길이가 길쭉길쭉하다.	소리같이 생긴 것이 {소리뽕이다고} {길쭉길쭉하다.}	최소녀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1부분명칭	133101	집개발	1331010	*	*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1부분명칭	133102	등막지	1331020	등막지	등때기	등때기	명	등 막지.	{등때기} 있으니까 배때기도 있겠지	박철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1부분명칭	133103	배	1331030	배	배때기	배때기	명	배를 속되게 이르는 말.	등때기 있으니까 {배때기도} 있겠지	박철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1부분명칭	133104	내장	1331040	내장	내장	내장	명	=창자.<표준>01	{내장} 있으니까 거 살아서 뭐.	박철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1부분명칭	133105	심장	1331050	심장	심장	심장	명	=심장. <표준>		박철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1부분명칭	133106	살	1331060	살	살	살	명	=살 <표준>07		박철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1부분명칭	133107	논	1331070	논	논밭	논	명	=논 <표준>01 [1]	기 {논밭}.	박철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1부분명칭	133108	가시	1331080	가시	까시	까시	명	=가시.<표준>01[2]	{까시예} 풀러부렀다 하는 거.	박철을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1	개	1332010	개	개	개	명	=개 <표준>	개는 {기다고}.	최소녀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2	소라개(진개)	1332020	소라개	기고동	소라개	명	소라개.	빈껍질에 들어가 살고 있는 {기고동}.	박은섭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3	털개	1332030	*	*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4	꽃개	1332040	꽃개	꽃개	꽃개	명	=꽃개.<표준>	꽃개.	최소녀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5	대개	1332050	*	*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6	참개	1332060	참개	참개	참개	명	참개.	주로 우리 여기는 반찬용으로 잡는, {참개} 잡으면 노아 <표준>의 참개와는 다르다 반찬 한다. 하고./반찬용으로 이렇게 절절한 {참개} 잡어다 반찬.	지랄하다는 것으로 보아 <표준>의 참개와는 다른 것으로 보임. 확인 필요.	박은섭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미역	1341010	미역	미역	미역	명	=미역.<표준>02	그냥 {미역이덕} 해요. {미역은}.	박은섭					0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표준어	음원발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단 사진	별단 정보 음정	표준국어 사진 등재여부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1341011	미역귀	골통이	명		=미역귀<표준>01.	미역 {골통이}.		박은성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1341012		못	명		미역을 세는 단위. 추자도에서는 미역 20가닥을 한 동아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넘고 길게 해서 스무 가닥이 한 {못으로}. 스무 가닥을 아거이 한 {못이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예쁘게 묶어서 이렇게 저 목포 방향으로 나갔거든요.		박은성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2	1341020	김	김, 정	명		=김<표준>03	{정이라고 이렇게 불려요.}자연산 {돌김}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낚는데 지금은 낚시 손님들이 민반을 쳐가지고 이제 그 돌해가 김이 잘 안 붙어요.		박은성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2	1341021	해우	해우	명		=김<표준>04	우리 할로 밥 싸 먹는 {해우}.		김옥섭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2	1341022		돌김	명		=돌김<표준>01.	자연산 {돌김} 있어요. 예전에는 많이 낚는데 지금은 낚시 손님들이 민반을 쳐가지고 이제 그 돌해가 김이 잘 안 붙어요.		박은성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2	1341023		돌김	명	돌김	=돌김<표준>02.	맛있어요. {돌김이라} 맛도 있고.		김옥섭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2	1341024		돌맹이짐	명		=돌김<표준>03.	{돌맹이짐이라} 맛있어요.		김옥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3	1341030	갈태	개미역	명		=갈태<표준>01	옛날에는 그 {개미역}을 그 전에 우리 어식 양들이 모자랐을 때는 그 {개미역} 가운데 그 이렇게 그 좀 두껍고 입כות 다 떼어버리고 그 줄 가운데 그 맛 좋은 걸 이제 말려서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박은성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3	1341031		종각	명		갈조류의 해초. 입이 넓은 갈조류 해초다.	미역하고 비슷하고 다시마하고 비슷한 데요 이렇게 넓어요. 넓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다시마 비슷하게 먹기도 그러는데 {종각이라고}.		원용순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4	1341040	파래	파래	명		=파래<표준>01			박은성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4	1341041	갈파래	갈파래	명		=갈파래<표준>	입 두껍고 큰 거는 {갈파래}./이렇게 저 파래니 팔팔한 거는 국파래. 인자 이 저 남국으로 어름해들은 먹는 거는 국파래. 큰 거 모고는 {갈파래}.		박은성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4	1341042	파래	국파래	명		파래의 일종. 국을 주로 끓여 먹어 붙여진 이름 같다.	이렇게 저 파래니 팔팔한 거는 {국파래}. 인자 이 저 남국으로 어름해들은 먹는 거는 {국파래}. 큰 거 모고는 갈파래.		박은성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5	1341050	모자반	몰	명		=모자반<표준>	자반. 이 {몰이} 파도에 의해서 떨어져가지고 해변가나 이제 조약돌 있는 데로 밀려오거든요.	=자반.	원용순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도 정교 사진	별도 정교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부
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모자반	자반	'명'	'명'	=모자반.<표준>	{자반}, 이 물이 파도에 의해서 떨어져가고 해변가나 이제 조약돌 있는 데로 떨어져오는 물.		원용순				*
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51	모자반		참물	참물	'명'	모자반의 일종. 먹을 수 있는 모자반이다.	개를 있고 {참물} 있고/그 개들은 예전에는 반에 비료용으로 많이 썼고. 지금은 그걸 이제 안해요. 농사 땅에 안 짓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참물은 아주 이제 가격이 아주 비싸죠. 그거 말해서 상용으로 나가는 거예요./그냥 이를 개 반찬에 먹는 것은 {참물이다} 하고 먹지 못하는 것은 옛날에 비료용으로 쓰는 개를 이다 하고.		박은섭, 원용순				*
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참자반	'명'	'명'	모자반의 일종. 먹을 수 있는 모자반이다.	해초는 아까 말한 우리가 참물이라 그러는데 {참자반요}. 참물이 있고 그냥 물이 있고		박은섭, 원용순				*
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52	모자반		개물	개물	'명'	모자반의 일종. 먹지 않고 말려서 거름으로 사용한다.	그 {개물은} 예전에는 반에 비료용으로 많이 썼고. 지금은 그걸 이제 안해요. 농사 땅에 안 짓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참물은 아주 이제 가격이 아주 비싸죠. 그거 말해서 상용으로 나가는 거예요./그냥 이렇게 반찬에 먹는 것은 참물이다 하고 먹지 못하는 것은 옛날에 비료용으로 쓰는 개를 이다 하고.		박은섭				*
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53	모자반		올병이	'명'	'명'	모자반을 말려서 가리어 놓은 가리.	자반, 이 물이 파도에 의해서 떨어져가고 해변가나 이제 조약돌 있는 데로 떨어져오는 물. 참물이라고 말려서 그걸 주워가지고 말린다. 밭, 밭 옆에다가 우리 추자말로 {올병이라} 그러죠. 올병이를 만들어가지고 가기가 나한테 지나온이라든지 부엌대나랑 해가지고 비가 안 들어가게 잘 우려가지고 보관을 해야.		원용순				*
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60	꽃	꽃	꽃	'명'	'명'	=꽃.<표준>01	큰 거는 {꽃이다} 하고 이제 막 자랄 때 이제 반찬용으로 이렇게 데우쳐서 먹는 것은 봉알꽃이라고 이렇게.		박은섭				0
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61	꽃		봉알꽃	봉알꽃	'명'	어린 꽃.	큰 거는 꽃이다 하고 이제 막 자랄 때 이제 반찬용으로 이렇게 데우쳐서 먹는 것은 {봉알꽃이라고} 이렇게/이제 이만큼씩 쫓린다. 집에서 이제 나물 식으로 무쳐 먹는 거는 {봉알꽃이다} 그래요.		박은섭				*
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70	우뚝가사리	우뚝가사리	우뚝	우뚝	'명'	=우뚝가사리.<표준>	{우뚝만} 해녀들이 그냥 이렇게 거친 {우뚝만} 해오는 거.		박은섭				*
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71	우뚝가사리	우뚝가사리	우뚝가사리	우뚝가사리	'명'	=우뚝가사리.<표준>	시무한 삶에 여기 썬집으가지고 여기서 미역, 우뚝가사리의 불따다가 해 독고 삶고 또 {우뚝가사리가} 또 있잖아, 참이름.		원용순				0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분류 번호 2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도 정보 사진	별도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곤포	명		북은 말에 딸린 바다에 나는 풀이름. 풀이 많이 난다고 한다.	{곤포는} 빨간 이파리가 넘쳐하니 그거는 이제 풀이 없어 나요.	일본어로 곤포 는 다시마를 일 컫는다.	박은섭				0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80	풀가사리		풀가사리	풀까사리	풀까사리	명	=풀가사리.<표준>	{풀까사리} 그것도 파라니 그거는 고실고실 이 렇게 생겼는데도 그것도 예전에는 돈으로 많이 팔아서 썼거든요. 지금은 그거를 재치를 안 해 요.	박은섭					*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81	풀가사리		풀가사리	가사리		명	=풀가사리.<표준>	그 {가사리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올롱볼롱한 거 창가사리, 또 이제 그저 올롱볼롱한 {가사 리} 그걸 전부 사가요.	원용순					0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82	풀가사리			창가사리		명	풀가사리의 일종.	그 가사리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올롱볼롱한 거 {창가사리}, 또 이제 그저 올롱볼롱한 가사리 그걸 전부 사가요.	원용순					*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90	도박			*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100			등부기	등부기		명	=등부기.<표준> 02.	여자들이 하는 거니까, 모르자면은 그건 꼭 재 사에 안 빠져. 그리고 또 그 어이고, 저 바닷가 에서 나는 건데 {등부기}.		원용순				0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110			신호	무에나무		명	=신호.<표준>	그 물밑에 거문은 {무에나무도} 있지. 나무가 이 선배로 이자 기프고 야찬 데가 그런데 거기 기도 있고.	최소녀					*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2상태	1342010	바래다		바래다	바래다	바르다	명	=바래다.<표준> 01.	우무 {바래다}.	시켰다 말렸다 인제 이렇게 하 얇게 만드는 과 박은섭 장을 우무 {바 래다}.					*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2상태	1342020	간피다		간피다	간곳 올르다		구	미역 따위를 말릴 때 소금기가 생기다.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는 이렇게 바운 막, 이렇 게 담으면은 상품이 안 되드 이렇게 막 정제해 한 사오 일 이렇게 놀러 놀면은 그렇게 {간곳} 돌은 듯해야 거 품질이 좋아요.	박은섭					*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2상태	1342021	간피다			간곳	간본	명	미역이나 모자반 따위를 말릴 때 생기는 하 얀 소금기.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는 이렇게 바운 막, 이렇 게 담으면은 상품이 안 되드 이렇게 막 정제해 한 사오 일 이렇게 놀러 놀면은 그렇게 {간곳} 돌은 듯해야 거 품질이 좋아요.	박은섭					*
1기초 어획	13어획물	134해조류	1342상태	1342022	간피다			간꼬짐		명	몸에 핀 소금기.	사랑 몸예 막 바닷물이 이렇게 막 해도 미물 하 지 않고 그대로 올랐을 때 이런 데 바닷물이 좀 싸락싸락 {간꼬짐} 피었다 그래요.	박은섭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표준어	음역발	발음 정보	품사정 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고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정	표준국어 사전 등재부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2상태	134202	간파다		간고집 피엇 다	구		몸에 소금기가 올랐다.	사람 몸에 딱 바닷물이 이렇게 딱 해도 민들 하 지 않고 그대로 올랐을 때 이런 데 바닷물이 올 짜락 짜락 {간고집 피엇다} 그래요.		박은섭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1	거북		거북이	명	=거북,<표준>02				박은섭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오징어	명	=오징어<표준>		{오징어를} 옛날에는 거 편꾸다 했어요.		박철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편꾸	명	=오징어<표준>		오징어를 옛날에는 거 {편꾸다} 했어요.	<표준>에는 마 른 오징어로 편 꾸가 표제어로 올라 있다.	박철을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편꾸	명	=오징어<표준>		오징어 {편꾸}.	<표준>에는 마 른 오징어로 편 꾸가 표제어로 올라 있다.	김옥섭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3	해파리		구라기, 구레 기	명	=해파리<표준>		항 옛 녀 집에 오 섬에서 물장을 하는데 엄청 그찮는 {구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 물방이 볼 때는 물 조류에 피러서 {구라기} 막 떼지 못아. 할복이식 어서 외오./해파리 그 저 {구레기} 열이 독성 이 있단구요.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4	낙지		낙지	명	=낙지,<표준>01		{낙지}		박은섭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5	문어		문어	명	=문어.		{문어}		박은섭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6	굴뚜기		굴뚜기	명	굴뚜기&의 굴뚜기, 종가굴뚜기, 질륙과 를 뚜기, 두구굴뚜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박은섭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7	해삼		해삼	명	=해삼,<표준>		해삼은 {해삼이라고}		박은섭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7	해삼		홍삼	명	바닷가 돌이 깔려 있는 곳에 사는 해삼. 붉 은 색을 띠는 해삼이다.		{홍삼이란} 것이 삼이라고 물밑에 삼이라고 해 서 그것이 많이 안 나오. 요즘에는. 옛날에 우 리 무례할 때는통으로 한나씩 잡아와서 왔어.		박은섭. 최소너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7	해삼		홍해삼	명	붉은 색을 띠는 해삼		빨간 것은 {홍해삼}, 검은 것은 흑삼.		최소너				*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7	해삼		홍해삼	명	붉은 색을 띠는 해삼.		빨간 것은 {홍해삼}.		박은섭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 기타부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7	해상	1351073			해상	해상	명	=흑해상<표준>	빨간 것은 홍해상, 검은 것은 {흑상}.		최소너, 박은섭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7	해상	1351074			독해상	독해상	명	해상의 일종.	{독해상이라고} 모양도 없어요. 질다래가 이렇게 생긴 거는 안 먹어요.		박은섭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7	해상	1351075			백상	백상	명	=백해상<표준>	{백상도} 있어요 백해상.		박은섭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7	해상	1351076			백해상	백해상	명	=백해상<표준>	{백해상도} 이렇게 여기 새랑, 저런 데서는 테레비 한번 보니까 그거 굉장히 좋은 약 된다 그러는데 우리 추자 사람들 인식에는 그 {백해상들} 안 먹어요.		박은섭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8	망게	1351080		망게	망게	망게	명	=망게<표준> 01.	{망게하고} 톱 각고고 종류가, 개망게는 또 까만 이렇게 동그렇게 모양도 안 이쁘고 그러대.		박은섭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8	망게	1351081			돌망게	돌망게	명	추자도에서 등에 붙어 사는 붉은색을 띠는 망게를 일컫는 말.	그냥 등에 붙은 그 저 빨간 거 보고는 그냥 이렇게 {돌망게대라고} 까만 이렇게 동그렇게 모양 없이 생긴 거는 또 개망게다.		박은섭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8	망게	1351082		참망게	참망게	참망게	명	추자도에서 등에 붙어 사는 붉은색을 띠는 망게를 일컫는 말.	그 {참망게라고} 할 때는 그 등에 푸른 것은 빨갭게 이렇게 저 양식하는 그 망게하고 톱 같은 종류가, 개망게는 또 까만 이렇게 동그렇게 모양도 안 이쁘고 그러대.		박은섭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8	망게	1351083		개망게	개망게	개망게	명	돌망이 모양의 돌망게 생긴 거무스레한 망게.	그냥 등에 붙은 그 저 빨간 거 보고는 그냥 이렇게 돌망게대라고 까만 이렇게 동그렇게 모양 없이 생긴 거는 또 {개망게다}/{개망게는} 또 망망이 이렇게 저 까맣고 망망이 안 이쁘더라고 이렇게 민적하니 이렇게 까맣게 등에 붙었는데 그것도 그거는 {개망게대라고}.		박은섭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9	성게	1351090		성게	돌범수	성게	명	=성게<표준>	성게는 {돌범수}/{여기도 {돌범수라고는} 하는데 이 추자 사람들은 별로 이 돌범수를 신장 안 써요.		박은섭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9	성게	1351091			까만돌범수	까만돌범수	명	붉은 색을 띠는 성게.	{까만돌범수} 있다 요거, 또 하얀돌범수 있다 이렇게.		박은섭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9	성게	1351092			하얀돌범수	하얀돌범수	명	=말뚝성게.<표준>	까만돌범수 있다 요거, 또 {하얀돌범수} 있다 이렇게.		박은섭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9	성게	1351093			돌범수	돌범수	명	=보리성게.	돌범수 있고, 보리성게라고 있지 않습니까 {돌범수}.		원용순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분류 번호 2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도 정보 사진	별도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 제어부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10	말미잘	1351100		*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11	불가사리	1351110	불가사리	불가사리	불가사리	명	=불가사리.<표준>02	우리 해녀를 이렇게 일 년에 한두 번 {불가사리} 채취하죠.		박은성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12	거북손	1351120	거북손	보잘		명	=거북손<표준>	거북손 여기는 {보잘}. 그거는 썩어서 국물에 이렇게 싸워하니 먹어요. 까서 그 {보잘} 까서 그 국물 한 가지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박은성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13	총합	1351130	총합	당추		명	=총합<표준>	큰 거 보고 {당추}. 그 중간치에 이렇게 납작하니 이렇게 하는 거는 양지끼. 그 거북손 한 가지 붙어 이렇게 생긴 거는 새담추.	박은성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13	총합	1351131	총합	총합		명	=총합	여름에 {총합} 따./요새 적은 사람들 {총합} 따서 돈을 잘 벌어, {총합도} 하도 따니까 그것도 지른 태가 있지 아픈 데 없습디다.	최소녀, 김옥성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13	총합	1351132	탈각관망치	새담추		명		큰 거 보고 당추. 그 중간치에 이렇게 납작하니 이렇게 하는 거는 양지끼. 그 거북손 한 가지 붙어 이렇게 생긴 거는 {새담추}.	박은성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13	총합	1351133		갯담추	간담추	명	바닷가 인근 바위에 붙어사는 총합. 바다 속에서 캐는 총합보다 작다.	{갯담추는} 물 많이 썩으면 잔 녹. 잔 녹 그런 물에 못한 사람들이. 이 무래질 못한 사람들을 이.	최소녀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13	총합	1351134		양지끼		명	갯담추를 달리 이르는 추자도 어촌 생활어.	큰 거 보고 {당추}. 그 중간치에 이렇게 납작하니 이렇게 하는 거는 {양지끼}. 그 거북손 한 가지 붙어 이렇게 생긴 거는 새담추.	박은성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14	따개비		따개비	골통		명	=따개비.	보잘고 있고 {골통도} 있고.		김옥성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2상태	135201	비리다	1352010		비형네니다		형	비린내가 나다.	냄새나는 고기보고는 골아부렀다. 그 뒤치닥거리 하고 난 뽕 냄새는 {비형네니다}.	박은성					*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2				꼴다	꼴다	꼴타	형	=꼴다.<표준>1.	냄새나는 고기보고는 {꼴아부렀다}. 그 뒤치닥거리 하고 난 뽕 냄새는 비형네니다.	박은성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2상태	135202	꼴다	1352020	꼴다	꼴다	꼴따	동	들이달아서 떨어지지 않다.	마드래기는 아른 지역에 이렇게 꼬랑 꼬랑, 꼬랑 꼬랑에 가 이렇게 {꼴아} 있어요.	박은성					0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표준어	음역발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고 1	출전정보2	별도 정보 사진	별도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 제어부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5기타	1352상태	135203	별갈다	1352030	별갈다	별갈다	별갈타	형	=별갈다.<표준>	{별갈} 것은 흥해상. 경은 것은 {혹상}.		최소녀				*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5기타	1352상태	135204	노랄다	1352040	노랄다	노랄다	노러타	형	=노랄다.<표준>01	{노랄} 거.		고창관				*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5기타	1352상태	135205	경다		경다	경다	경따	형	=경다.<표준>02[1]	펼건 것은 흥해상. {경은} 것은 혹상.		최소녀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5기타	1352상태	135205	펼족하다	1352050	펼족하다	펼곳펼곳하다	펼겅겅겅겅다	형	물체의 끝이 점차 가늘어져서 날카로운 모양.	그냥 {펼곳펼곳하다}.		박은섭				*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5기타	1352상태	135206	날카롭다	1352060		*										
1기초 어휘	13어획물	135기타	1352상태	135207	막막하다	1352070	막막하다	막막하다	막막카다	형	몹시 굳고 단단하다.	고동 껍데기 {막막하조}.		박은섭				0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1부분명칭	141101	그물코	1411010	그물코	그물코	명		=그물코.<표준>	그냥 {그물코라고 그물코}.		박철을				0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1부분명칭					웃굽	명		그물의 외부부분을 말하는 추자도 어촌생활어.	우에는 아바고 밑에는 히모다고 말하는데, =아바, {웃굽} 아랫굽.		박철을				*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1부분명칭					아바	명		그물의 외부부분을 말하는 추자도 어촌생활어, 일본어를 옮겨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우에는 {아바고} 밑에는 히모다고 말하는데, =웃굽		박철을				*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1부분명칭					아랫굽	아랫굽	명	그물의 아랫부분을 말하는 추자도 어촌생활어.	우에는 아바고 밑에는 히모다고 말하는데, /웃=히모		박철을				*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41부분명칭					히모	명		그물의 아랫부분을 말하는 추자도 어촌생활어, 일본어를 옮겨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우에는 아바고 밑에는 {히모다고} 말하는데, /=아랫굽.		박철을				*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1부분명칭	141102	버리	1411020		*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1	그물	1412010	그물코	그물	명		=그물.<표준>01.	투망이라고 해요. {구물} 던지니까.		박철을				*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1	그물	1412011	실그물	실그물	명		=실그물.<표준>	{반그물} 있조. {실그물}.		박철을				*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1	그물	1412012	실그물	반그물	명		=실그물.<표준>	{반그물} 있조. 실그물.		박철을				*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1	그물	1412013	투망그물	투망구물	명		고기잡이를 할 때 배에서 던져서 고기잡이 하는 그물.	조기 {투망구물이다}하고 그레요.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분류 번호 2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도 정보 사진	별도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 제어부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2	후릿그물	1412020	*	*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3	사물	1412030	*	*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4	망사리	1412040	망사리	형서리	명	명	해녀가 채취한 해물 따위를 담아 두는, 그물. (형서리)			박은섭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4	망사리	1412041		조망태	명	명	해녀들이 소리를 채취한 후에 담아두는 망 사리.	우리는 {조망태}, {조망태만} 해, 자기들이 사 용하게 {조망태에다} 소리를 담아서 옮겨.		박은섭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4	망사리	1412042		전복망태	명	명	해녀들이 물질할 때 전복을 따서 보관하는 작은 망사리.	{전복망태라고} 했지.		박은섭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5	태학	1412050	태학	두롱박, 돌박	명	명	박의 새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 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 건.	{두롱박, 돌박}		박은섭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6	죽지그물	1412060	*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7	설망	1412070	*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2낙시류	1421부분명칭	142101	낙시대	1421010	낙시대	침대	출태	명	=낙시대, <표준>	낙시다 하는데 {침대하고} 경심 매고		박철을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2낙시류	1421부분명칭	142102	낙시줄	1421020	줄	줄		명	물고기를 잡기 위한 낙시줄.	{줄} 맨다		박철을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2낙시류	1421부분명칭					채낙기		명	옛날에는 많이 낚조, 갈치가 조고만 통락선 가 지고 가련은 장아 가지고 땀하는데 지금은 일제 나지 않아요. 통지나 조기 잡으려 간 배들이 거 의 장아 갖고 오고 {채낙기로} 낚아서는 잡지 않습니다 지금은.			김석권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2낙시류	1421부분명칭	142103	열레	1421030	열레	술용태	명	명	낙시줄을 강아 놓은 실용치.	낙시줄을 {술용태}.	=술태.	김옥섭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2낙시류	1421부분명칭				열레	술태	명	명	=열레.	술 강은 {술태.}	=술용태.	김옥섭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2낙시류	1421부분명칭	142104	미늘	1421040	미늘	낙시미늘, 미 늘	명	명	낙시 곶의 안쪽에 있는, 거스러미처럼 되어 고기가 물론 빠지지 않게 만든 작은 갈고리. 늘이다.	<표준>에는 낙 {낙시미늘}이다. {낙시미늘}/그냥 {미 늘의 북한어로 물 라 있음.					0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분류 번호 2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도 정교 사진	별도 정교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2낙시류	1422종류	142201	낙시	1422010	낙시	낙씨	명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작은 쇠 갈고리.	{낙시} 옛날에는 경성하고 낙시 뭐. 뽕뽕. 이런 거 많이 썼는데.		박철을				0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2낙시류	1422종류	142201	낙시	1422011		경성	명		낙시줄의 일종. 경성은 원래 재료의 이름인 바닷매 고기잡으러 낙시 가다.	낙시 옛날에는 {경성하고} 낙시 뭐. 뽕뽕. 이런 거 많이 썼는데.		박철을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2낙시류	1422종류	142201	낙시	1422012		수질 기다	명		배닷에 고기잡으러 낙시 가다.	{수질 기다}		박은섭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2낙시류	1422종류	142202	상봉낙시	1422020	상봉낙시	상봉	명		=상봉낙시. 오징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낙 시.	{상봉} 같은 건 안 써요.		박철을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2낙시류	1422종류	142203	주낙	1422030	주낙	주낙	명		한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개의 낙시를 단 고기잡이구.	지금도 {주낙하는} 사람 있어요.		박철을				0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2낙시류	1422종류					줄낙시	명		낙시대 없이 낙시줄 끝에 낙시바늘을 맨 채 로 고기를 낚는 낙시.	낙시는 고기 그게 가가지고 줄 길게 매가지고 뽕을 요렇게 해. 것도 철사 같은 걸로 만들어가 지고 낚 채워가지고 그렇게 잡더라고요. 낙시 대는 안 하고 {줄낙시로}.		원용순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2낙시류	1422종류				뽕뽕	뽕뽕	명		=뽕뽕<표준>	낙시는 고기 그게 가가지고 줄 길게 매가지고 {뽕뽕} 요렇게 해. 것도 철사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낚 채워가지고 그렇게 잡더라고요. 낙 시대는 안 하고 줄낙시로.		원용순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분명칭	143101	갈판	1431010	갈판	갈판	명		=갈판. 배 위에 나무나 철판으로 깔아 놓은 판고 평평한 바닥.			원용순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분명칭	143102	이물	1431020	이물	이물	명		배의 머리.	{이물} 앞에 쪽을 말하는 거죠. 선수 쪽을.		박철을				0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분명칭	143102	이물	1431021	선수	선수	명		배의 머리.	이물 앞에 쪽을 말하는 거죠. {선수} 쪽을.	=이물.	박철을				0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분명칭	143103	고물	1431030	고물	고물	명		배의 뒷부분.	{치} 잡은 때가 꼬불이고.		김옥섭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분명칭	143104	돛	1431040	돛	돛	명		=돛<표준>01	여기서 {돛}.		박철을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분명칭	143105	돛대	1431050	돛대	돛대	명		=돛대.<표준>01	{돛대} 없고 그런 돛마.		김옥섭				0

1 제주도 근해(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표준어	음원발	발음 정보	품사정 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도 정교 사진	별도 정교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 제어부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분명칭	143106	*	1431060	*											0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분명칭	143107	닷	1431070	닷		명	명	배를 한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 갈고리가 흙바닥에 박히어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닷} 놓고 버리 매이지.		박철을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분명칭	143107	닷	1431071	닷	앙까	명	명	닷을 일본어로 표현한 말.	{닷줄은} 닷이다 하고 또 배가 기령 정박할 때 앞에 도 줄을 매야죠. {앙까} 하면은 앙쪽으로 매는 것을 그 버릿줄 맨다 그래요.	고창란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분명칭	143107	닷	1431072		버리, 버릿줄	명	명	배를 포구에 댈 때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앙쪽으로 매는 줄.	닷 놓고 {버리}/ 매이지./ 그 줄로 매는 것 보고 {버리} 맨다./ {닷줄은} 닷이다 하고 또 배가 기령 정박할 때 앞에 도 줄을 매야죠. 앙까 하면은 앙쪽으로 매는 것을 그 버릿줄 맨다 그래요.	박철을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버리 매다, 버릿줄 매다	구			닷 놓고 {버리 매이지}/ 앙까 하면은 앙쪽으로 매는 것을 그 {버릿줄 맨다} 그래요.	박철을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분명칭	143108	닷줄	1431080	닷줄	닷줄	명	명	닷을 매다는 줄. 버릿줄이나 쇠줄로 되어 있다.	{닷줄은} 닷이다 하고 또 배가 기령 정박할 때 앞에 도 줄을 매야죠. 앙까 하면은 앙쪽으로 매는 것을 그 버릿줄 맨다 그래요.	박철을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분명칭	143109	노	1431090	노 노물다	노	명	명	물을 해쳐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	밑노 하노 결노 {노가} 새 개거든.		박철을				0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분명칭	143109	노	1431091		밑노	명	명	배 뒤쪽 곁줄에서 짓는 노.	제일 앞에 노를 짓는 게 {밑노다} 웬나, {밑센} 사람이 그게 노를 막까지 하는 거니까, 결노 모조해 주는 거.	밑노, 쟁 근력 노, 쟁 근력 선 사람이 그게 막철을 하는 거니까, 결노 모조해 주는 거.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분명칭	143109	노	1431092		하노	명	명	배의 곁줄 쪽인 밑노 옆에서 짓는 노.	그 다음은 두 번 꺾 하는 사람은 {하노} 이쪽에 서 하는 건 결노.		박철을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분명칭	143109	노	1431093		결노	명	명	하노 맞은편에서 짓는 노.	그 다음은 두 번 꺾 하는 사람은 하노 이쪽에서 하는 건 {결노}/ 밑노. 쟁 근력 선 사람이 그게 막철을 하는 거니까, {결노} 모조해 주는 거.		박철을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분명칭	143110	상잇대	1431100	상잇대	상대	명	명	배줄을 할 때 쓰는 긴 막대. 배를 댈 때나 띄울 때, 또는 물이 얇은 곳에서 배를 밀어 나 갈 때 쓴다.	상대 엿날말 {상대}.		박철을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항목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표준어	음원발	발음 정보	품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분명칭	143111	키	키	1431110	키			명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	있는 썰, 그런 썰 사람이 그대 {키} 역할까지 하는 거니까, 썰 보조해 주는 거/우리가 알 기로는 {지} 같은 사람은 사공이고 그리고 고장 밑에서 하는 건판장 말고/{지} 같은 대가 꼬돌이고.	박철을, 김옥선				0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1	어선	어선	1432010	어선	어선	명	명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는 배.	{어선이이다}. 고기잡는 배.	=고기잡는 배. 어장배.	박철을				0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1		고기잡는 배	1432011		고기잡는 배	명	명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는 배.	어장배, {고기잡는 배}/{어선이이다}. 고기잡는 배.	어선. 어장배	박철을				*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1	어장배	어장배	1432012		어장배	명	명	고기잡이를 업으로 하는 배.	어장배. 고기잡는 배./옛날 흔히 {어장배}다 그 래요.	고기잡는 배. 어 선.	박철을				*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1		물칸	1432013		물칸	명	명	일정한 규격으로 물러막아 물을 넣어 두는 공간. 낮은 고기가 살아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 안에 설치한다.	<표준>에는 물 간의 작용으로 올라 있다.		박철을				0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1		물칸			물칸	명	명	=물칸. 일정한 규격으로 물러막아 물을 넣어 두는 공간. 낮은 고기가 살아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 안에 설치한다.			김옥선			*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2	복막선	복막선	1432020	복막선	복막선	명	명	=복막선.<표준>	오 통도 못 된 배라고 복막선이이다. 전라도 많 이는데 발동기, 작가다 했어. 지금 같은 발동 기다 하는데 작가선.	=발동기. 작가 선	박철을			0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2	기계선	기계선	1432021		기계선	명	명	=기계선.<표준>	사수도를 가মন은 물 밑에가 소란도 있고 전복 도 있고 그러는 그뻐 {기계선이} 있어.		최소녀			0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2	발동기	발동기	1432022	발동기선	발동기	명	명	=발동기선.<표준>	옛날에 우리 무래질 가মন은 섬으로 가. 섬으로 가고 {발동기} 타고 싹 돌고. 한 뫼에 만 편, 만 오천 원.	=복막선. 작가 선	박철을, 최소녀			*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2	발동기선	작가, 작가선	1432023	발동기선	작가, 작가 선	명	명	발동기선의 다른 이름.	지금 같으면 발동기다 하는데 {작가선}.	=복막선. 발동 기	박철을			*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2종류		동력선	동력선		동력선	동력선	명	명	=동력선.<표준>	갈치가 조그만 {동력선} 가지고 가면은 잡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일철 나지 않아요.		김석권			0	
1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3	전마선	전마선	1432030	전마선	전마선	명	명	물이 없는 작은 배.	그리고 {뽕마}. 지금 말로 {전마선}.		박철을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분류 번호 2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도 정보 사진	별도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4	돛단배(풍선)	1432040	풍선	풍선		명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그냥 {풍선이라고} 해요.		박철을				0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5		1432050	때배	때배		명	햇볕처럼 뽀나무를 익어서 만든 배.	저의 할아버지 때는 추포라 하는 데 {때배가} 있어요. 때배를 가지고 몰대[몰때]라 그러죠. 몰 때는 거를 대 몰대 두 개를 넣어지고 몰에 다 갈아요. 몰에다 갈으면은 물이 다 갈립니다.	원용순				0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6		1432060	뿔마	뿔마		명	전마선의 일본어식 표현.	그리고 {뿔마}, 지름 말로 {전마선}.		박철을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2종류				객선	객선	객번	명	어객을 태워나르는 배.	{객선} 오면은 우리들 흑시 누가 실랑기 {객선으로} 가서 짐 풀고.		김옥섭				0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3배	1432종류				수협배	수협배	수협배	명	수협에서 운영하는 배.	{수협배가} 있고, 캐기 물칸에다 다 싣려요.		김옥섭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01	작살	1441010	작살	창	작살	명	=작살.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	{창이라고}.		박은섭				0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01	작살	1441011		창질		명	작살로 고기를 쓰는 행위.	제주에서 해녀들은 옛 좋은 고기 {창질해서} 쏘아오는 데.		박은섭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01				창질하다		동	작살로 고기를 쏘다.	제주에서 해녀들은 옛 좋은 고기 {창질해서} 쏘아오는 데.		박은섭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02	어살	1441020	*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03	통발	1441030	통발	통발		명	가는 멧조각이나 싸리, 그물 따위로 통같이 만든 고기잡이 기구.	{통발은} 경상도배들이 하지 뭐.		박철을			0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04	바구니	1441040	바구니	바구리		명	대오리 따위로 엮은 바구니.	육십 년 칠십 년 때에는 저 그 {바구리예} 담아서.		박은섭			0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04	바구니	1441041	바구니	바궁지		명	대오리 따위로 엮은 바구니.	그 {바궁지} 외깁게 쓰지.	표준어에는 제주, 함북 방언으로 올라 있다.				0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04	바구니	1441042		웅동바구리		명	대오리 따위로 엮은 작은 바구니. 죽자도에 새겨서 해녀들이 물잡갈 때 웅동바구리를 넣고 다닌던 도구. 머리에 아고 다녔다.	{웅동바구리} 배말 같은 작은 거 넣고.		박은섭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04	바구니	1441043		조락		명	대오리로 크게 결은 바구니.	바구리를 {조락}/{조락} 여자를 싣에 가서 나무 해서 여자들이 아고 다니고 바구리보다 커요.		박철을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항목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부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4어로도구	1441기타	144105	종다래끼	1441050	*	*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4어로도구	1441기타				삼태기	삼태미	명	명	=삼태기.	{삼태미에} 발고.		김옥섭				0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4어로도구	1441기타				대야	다라	명	명	=대야. 대야의 일반어식 표현. 추자도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갈 때 도구 등을 담아서 갈 때 사용하는 도구다.	옛날에는 고무옷을 안 입고 장땀이를 입었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치 않았어요. 그냥 수경이 나 물수건 장땀이가 장땀이다 했어요. 그것만 해서 양것는데 지금은 고무옷을 입으면서 남도 있죠 이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고무옷도 부피가 좀 하나까 {다라에다가} 이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이제 리아까에다.					*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4어로도구	1441기타				리아커	리아까	명	명	=리아커. 추자도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물질 도구를 싣고 갈 때 사용한다.	옛날에는 고무옷을 안 입고 장땀이를 입었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치 않았어요. 그냥 수경이 나 물수건 장땀이가 장땀이다 했어요. 그것만 해서 양것는데 지금은 고무옷을 입으면서 남도 있죠 이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고무옷도 부피가 좀 하나까 {다라에다가} 이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이제 {리아까에다}.						*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4어로도구	1441기타	144106	호미	1441060	호미	호행이	명	명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호미.	조개 호행이 갖고 {파랏고}.		박철을				*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4어로도구	1441기타	144106	호미	1441061		까꾸리	명	명	오븐재기를 캐낼 때 사용하는 호미.	{까꾸리} 마드레기 말 때 그 {까꾸리} 옛날에 는 비창으로 뜻는데 지금은 {까꾸리}가 나와서 {까꾸리고} 그릇도 따지.	박은섭					*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4어로도구	1441기타	144107	넛	1441070	넛	넛	명	넛.	넛.	{넛}.		김옥섭				0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4어로도구	1441기타		비창		비창	비창	명	명	전복 딸 때 사용하는 쇠로 된 도구.	{비창을} 이제 물에 차고 가서 생복이 있을 {비창으로} 사용하고. 소라 있을 때는 맨손으 로.	박은섭					*
								속곳	명	명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입었던 무명으로 만든 물옷.	장땀이 이전엔 {속곳이라고}		김옥섭				0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4어로도구	1441기타	144108	물옷	1441080		장땀이	명	명	추자도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는 무명으로 만든 옷.	옛날에는 고무옷을 안 입고 {장땀이}를 입었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치 않았어요.	<표준>의 장땀 이의 의미와는 다르다.	박은섭				*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4어로도구	1441기타	144108	물옷	1441081	고무옷	고무옷	명	명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는 고무로 만든 옷. 물이 스며들지 않게 고무로 만들어졌다.	옛날에는 {고무옷을} 안 입고 장땀이를 입었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치 않았어요.		박은섭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분류 번호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도 정보 사진	별도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 제어부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08	물돛	1441082		물수건	물수건	명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쓰는 무명천으로 만든 수건.	옛날에는 고무옷을 안 입고 장뱀이를 입었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치 않았어요. 그날 수경이 나 {물수건} 장뱀이가 장뱀이다 했어요. 그것만 헛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치 않아서 바구리 양에서 양졌는데 지금은 고무옷을 입으면서 남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고무옷도 부피가 좀 허니까 다라에다가 이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이제 리아까에다.	박은섭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08	물돛	1441083		남		명	해녀들이 고무옷을 입을 때 물에 가리양지 못하게 허리에 지는 물건. 남으로 만들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박은섭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09	물갈퀴	1441090		오리발	오리발	명	사람이 물속에서 활동할 때에 발에 끼는 오리발 모양의 물건.	는 써고 {오리발} 신고 그러은 들어가요.		박은섭				0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10	고기살리는배	1441100		*						박은섭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11	투구	1441110		투구	투거리		장수할 때 머리에 쓰는 장수 기구. 공기를 받는 배가 공기를 뿜는 배이 달려 있는데, 장수부가 머리에 쓰고 두 번을 조절하면서 물속에서 활동한다.	{투거리}		박은섭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12	수경	1441120		수경	수경	명	=물안경<표준>	그 해파리 이렇게 깨만 떨어지는 발. 이 {수경} 썼는데 입 부분에 오리까 나오니까 쓰야 갖고 입이 이렇게 뚫 불더라고. 엄청 아프더라고. 독이 있더라고./물질 갈 때 내 눈 어디로 갔지.	박은섭					0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12						명	=물안경<표준>	그 해파리 이렇게 깨만 떨어지는 발. 이 수경을 썼는데 입 부분에 오리까 나오니까 쓰야 갖고 입이 이렇게 뚫 불더라고. 엄청 아프더라고. 독이 있더라고./물질 갈 때 내 {눈} 어디로 갔지.	박은섭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12	수경	1441122		큰논	큰논	명	해녀가 물질을 할 때에 쓰는, 큰 알이 하나 인 물안경.	큰 거는 {큰논이라고}.	박은섭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13	그물바늘	1441130		바늘대	바늘때	명	그물을 만들거나 기울 때 쓰는 바늘. 쇠나 대, 배 따위로 만든다.	우리말로 {바늘대} 실 감아가지고 {바늘대} 꿰 맨는 거예요. 바느질하듯이/{바늘대도} 그물준다.	박철을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14	재질잠이	1441140		*										
기초 어획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아로도구	1441기타	144115	물채	1441150		꼭바지		명	물채, 추자도에서 멸치잡이를 할 때 그물에 걸린 멸치를 배에 옮겨 놓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배에서 뽕 장으어서 하는 거예요. 그물 떠갖고 있을 때 {꼭바지로} 배로 올려야.	박철을, 박은섭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표준어	음성발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고 1	출전정보2	열린 정보 사진	열린 정보 음성 파일	표준국어 사전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어로도구	1441기타	144116	1441160	낙지가래	*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어로도구	1441기타	144117	1441170	얼음골	*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어로도구	1441기타	144118	1441180	결쇠	*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어로도구	1441기타	144119	1441190	미개	미개		명	=미개.<표준>	조기 같은 거는 {미개} 필요없지.		박철을				0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어로도구	1441기타	144119	1441191	미개	인조이깁		명	버닐 따위로 열치 모양으로 만든 미개.	상치 나고는 거는 {인조이깁} 써야고.		박철을				*
							공갈낙시		명	인조미개를 추자도에서 멀리 이르는 말.	인조이깁 {공갈낙시}.		고창환				*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어로도구	1441기타	144120	1441200		물대	물대	명	모자반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긴 막대기.	물 켜는 거를 대 {물대} 두 개를 넣어가지고 물 에다 잠가요. 물에다 잠드면은 물이 다 잠길니 다.		원용순				*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어로도구	1441기타				해우발		명	김을 말릴 때 사용하는 발.	징발 {해우발은} 요 정도 돼요.		김옥섭				*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어로도구	1441기타				징발	징발	명	김을 말릴 때 사용하는 발.	{징발} 해우발은 요 정도 돼요.		김옥섭				*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어로도구	1441기타				해우들		명	김을 만들 때 사용하는 내모난들.	징 만든 거 징들도 있고. {해우들}.		김옥섭				*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4어로도구	1441기타				징들		명	김을 만들 때 사용하는 내모난들.	징 만든 거 {징들} 있고. 해우들.		김옥섭				*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어로행위	1451조개류	145101	1451010	파다	파다		동	=파다.<표준>아[1]	조개 호행이 갖고 {파갓고}.		박은섭				0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어로행위	1451조개류	145102	1451020	캐다	파다, 잠다	잠파	동	해녀들이 바다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파다.	총합 큰 것들은 속으로 {따지마는}/물이 깨끗 이 벗어지고 나면, 물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나면 바다가 오분재긴 이런 텅텅에서 {따나까}.		박은섭, 최소녀				0
기초 어휘	14어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어로행위	1451조개류	145103	1451030	(진북) 때다	생북 때다		동	물에 불어 있는 진북이나 오분자기 따위를 때다.	{생북 때다.}		박은섭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표준어	음의발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1조개류		1451031		꾸죽 잡다		구	추자도에서 소리를 말할 때 쓰는 관용구.	{꾸죽은 잡는다}.		박은섭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1조개류		1451032		오분자기 따다.오분제기 따다		구	추자도에서 오분자기를 말 때 사용하는 관 용구.	{오분자기도 그냥 따다}.		박철을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1조개류		1451033		홍합 따다		구	추자도에서 홍합을 말 때 사용하는 관용구.	홍합 른 것들은 손으로 따지마는.		박은섭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1조개류				무래질, 물질		명	해녀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따는 일.	{무래질하고} 돈 벌고 /옛날에 우리 {무래질} 가면은 성으로 가.		최소녀				0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2해조류		1452010	알리다	물리다		동	=물리다.<표준>03[1]	뽕고기 {물리} 것이라고 /소금 간절해서 {물리 고}.		박철을, 박은섭				0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2해조류		1452011		꾸득꾸득하 다	꾸득꾸득커 다	형	헛발에 말려서 물기가 빠져서 조금 같은 뜻 하다.	홍삼 살짝 썰로 껴어서 넣어놔다. 얼른 {꾸 득꾸득해가지고} 하면은 특산물로 해서 지 일 본 가면은 돈 많이 번다.		최소녀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2해조류		1452012	알리다	소끄다		동	짚통에 넣어서 익히다.	꾸죽은 깨가지고 {소깨가지고} 저 회도 해서 먹고 {소깨가지고} 그냥도 먹고.		최소녀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2해조류	145202	1452020	널다	널다		동	=널다.<표준>01.	홍삼 살짝 썰로 껴어서 {넣어놔다} 얼른 꾸 득꾸득해가지고 하면은 특산물로 해서 지 일본 가면은 돈 많이 번다.		최소녀				0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3그물류	145301	1453010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3그물류	145302	1453020	짜다	짜다, 만들다		동	실이나 끈 따위와 씨를 날로 결어서 그물 주 머니 따위를 만들다.	그물 {짜다}./ 그물 {만들다} 해요.		박철을, 박은섭				0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3그물류	145303	1453030		*										0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3그물류	145304	1453040	강다	강다	강따	동	끈이나 줄 같은것으로 다른 물체에 빙 두르 다.	줄 (감으는) 테려 그래요.		고창환				0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3그물류	145305	1453050	꼴다	꼴다		동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힘을 가하다.	{꼬으면은} 주로 삼처를 많이 잡지.		고창환				0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3그물류	145306	1453060	던지다	헝기다		동	=그물 따위를 버디로 던지다.	그물 {헝거분다}.		박철을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4낚시류	145401	1454010	낚다	나끄다	나끄고다	동	=낚다.<표준>	고기 {낚으려} 가자 /우리 어원을 때는 조패 {나끄고}. 포물락이나 우럭 같은 거 참마로.		박철을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표준어	음의 발음	표사정 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고 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 재여부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4부시류	145402	채다	1454020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4부시류				올치다		동	누싯바늘을 이리 저리 옮기다.	방어하고 아스는 {올치}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밑에서 이빨 높아줘야 되니까. 움직일 거 아니예요?	박철을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4부시류	145403	걸리다	1454030	걸리다		동	고기 따위가 그물에 막히거나 잡히다.	캐기가 그물에 {걸려서} 올라와요.	박철을					0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4부시류	145404	올리다	1454040	올리다		동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높은 곳으로 옮기다. 바다에 쳐 놓았던 그물을 배 위로 올릴 때, 사용하는 어휘다.	배에서 뭇 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물 떠 갖고 있을 때 쪽바지로 배로 {올려야}.	박은섭					0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5배	145501	(카를)잡다	1455010	잡다		동	=잡다.<표준>이[1]	우리가 알기로는 치 {잡은} 사람은 사공이고 그러고 선장 밑에서 하는 간판장 말고.	박철을					0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5배	145502	타다	1455020	타다		동	물결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	배 {타고} 나간다.	박철을					0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5배	145503	매다	1455030	매다		동	말이나지 못하도록 고정된 것에 끈이나 줄 따위로 잇대어 묶다.	침대 {매는} 줄 / 닻 놓고 버리 {매이지}.	박철을					0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5배			1455031	물다		동	=물다. 맺은 것이나 맨 것을 풀다.	버릿줄 매라. 버릿줄 {물러라}.	박철을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5배	145504	뜨다	1455040	뜨다		동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르다.	{뜨다}. 배 까랑져부렀다.	박철을					0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5배			1455041	까랑자다		동	=가라앉다.<표준>[1]	배 뜬다. 배 {까랑져부렀다}.	박철을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5배	145505	실다	1455050	실다		동	=실다.<표준>이[1]	무래곤 {실고} 간다고 그러지요.	박철을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6기타	145601	(작살) 쏘다	1456010	쏘다		동	활이나 총, 대포 따위를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발사하다.	제주 해녀들은 맛좋은 고기 찡질해서 {쏘아} 오는데.	박은섭					0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6기타	145601	(작살) 쏘다	1456011			동	작살을 고기를 향해 쏘다.	제주 해녀들은 맛좋은 고기 {찡질해서} 쏘아 오는데.	박은섭					*
기초 어휘	14아로도구 와 어로방법	145아로행위	1456기타	145602	찡질하다	1456020	찡질하다		동	생선을 소금에 절이다.	고기 잡아오면 소금 {찡질해서} 말리고.	박은섭					*
기초 어휘	15음식	151	1511절류	151101	새우젓	1511010	새비젓, 새비젓갈		명	새우로 담근 젓.	{새비젓} 좋아하는 사람은 사다 먹고/끓이 {새비젓갈} 쓰거나 그런 것 없어요.	박은섭					*

1 제주도 근해 (추자도) 기초 어휘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표준어	음성발	발음 정보	품사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별단 정보 사진	별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 재여부
기초 어휘	15음식	151	1511조갈류	151102	1511020	멸치젓	멸치, 멸치 젓, 멸치젓갈	멸진, 멸치 젓, 멸치젓갈	명	멸치로 담은 젓.	{멸치젓을} {멸치}.		박은섭				*
기초 어휘	15음식	151	1511조갈류	151103	1511030		*										*
기초 어휘	15음식	151	1511조갈류	151104	1511040		*										0
기초 어휘	15음식	151	1511조갈류	151105	1511050	조기젓	조구젓	조구젓	명	조기로 담은 젓.	{조구젓} 소금에 멸치젓 담듯이.		박은섭				*
기초 어휘	15음식	151	1511조갈류	151106	1511060		*										
기초 어휘	15음식	151	1511조갈류	151107	1511070	아가미젓	알금치젓	알금치젓	명	알치의 내장과 아가미 따위로 담은 젓.	갈치 같은 거 알금치 나온 것을 갖고 것갈해요. 갈치 {알금치젓}.		박철을				*
기초 어휘	15음식	151	1511조갈류	151108	1511080		*										
기초 어휘	15음식	151	1511조갈류	151109	1511090	오징어젓	오징어젓	오지매젓	명	오징어로 담은 젓.	오징어로 담은 것갈 {오징어젓}.		김옥섭				*
기초 어휘	15음식	151	1511조갈류			오징어젓	편무젓	편무젓	명	오징어로 담은 젓.	오징어젓이 {편무젓}.		김옥섭				*
기초 어휘	15음식	151	1511조갈류	151110	1511100	통합젓	통합젓	통합젓	명	통합으로 담은 젓.	{통합젓은} 맛있어.		최소녀				0
기초 어휘	15음식	151	1511조갈류	1511101	1511101	통합젓	담추젓	담추젓	명	통합으로 담은 젓.	{담추젓이다} 하고 통합젓이라고 그랬지.		최소녀				*
							갈치젓	갈치젓	명	갈치 꼬리와 머리 등을 이용해서 담은 것갈. 젓갈 중에서도 {갈치젓이} 최고지.			김옥섭				*
기초 어휘	15음식	151	1512기타	151201	1512010		우물국	우물국	명	우물로 만든 냉국.	{우물국}.		박은섭				*
기초 어휘	15음식	151	1512기타	151202	1512020	전복죽	생복죽	생복죽	명	전복으로 쓴 죽.	생복 죽 우은 연마나 맛있다고. 구할래면 {생 복죽} 쓴다.		최소녀				*
기초 어휘	15음식	151	1512기타	1512030	1512030	미역국	미역국	미역국	명	미역을 넣어서 끓인 국.	아들 생일이나 손지 생일이나 {미역국} 끓여서 먹잖아요.		최소녀, 김옥섭				0
기초 어휘	15음식	151	1512기타	151204	1512040		까리다		동	끓이다	여기 사람은 저 담추내 난다고 미역국 안 {까 리}. 그런데 제주도는 잘 {까리더라고}.		최소녀				*
기초 어휘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1	1611010	갯고사	갯고사	갯고사	명	=갯고사.	{갯고사다} 하조 / 갯밭에 {치송한다고} 하고 {치송}.		박은섭, 박철을				0
기초 어휘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1	1611011	갯고사	치송 치송하 다	명, 동	명, 동	=갯고사.	갯밭에 {치송한다고} 하고 {치송}.		박철을				*

1 제주도 근해(추자도) 기초 어획자료(김순자)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1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분류 번호2	표준국어 사전 등 제어부	올림말	발음 정보	품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1	출전정보2	별도 정교 사진	별도 정교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 제어부
기초 어획	16민속	162금기, 속설, 은어, 노래	1621노래	162101		1621010		*										
기초 어획	16민속	162금기, 속설, 은어, 노래	1621노래	162101		1621011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예뻐내하고는 하지 말고 가거라.	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갈 때 여자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가거라. 예전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은 여자를 부정의 존재로 보고 고기잡이 갈 때 여자를 보면 어느체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인 금기어다.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예뻐내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가거라.} 그 옛날 아주 속담이 어. {바다에 고기잡으러 나갈 때는 예뻐내하고 그 예기도 하지 말고 가거라.}	박철을				*	
기초 어획	16민속	162금기, 속설, 은어, 노래	1621노래	162101		1621012		물질 기기 전에 돈 놓 안 준다.	구		물질 기기 전에 돈 놓 안 준다.	우리들이 마을 속으로 미신이라는 게 {물질 갈 때 아침부터 돈 놓 안 주는 거}.	박은정					*
기초 어획	16민속	162금기, 속설, 은어, 노래	1621노래	162101		1621013		정월 초하룻날은 돈 안 빌려준다. 정월 초하룻날부터 돈이 나가면 일년 내내 재물이 밖으로 나가니 돈 빌려주는 일은 상가라는 경구의 금기어.	구		{정월 초하룻날은 누가 돈 빌리레도 가지도 가지도 안치만은 돈 안 빌려줍니다.}	박철을					*	
기초 어획	16민속	162금기, 속설, 은어, 노래	1621노래	162101		1621014		제사상에는 지자 돈 고기 안 올린다.	구		제사상에는 지자 돈 고기 안 올린다.	제사상에 비늘 있는 고기는 다 올립니다. 물어라든지 이런 종류도 안 올리고, 그래서 {각자 상치 무슨 지자 들어있는 음식은 안 올립니다.}	원용순					*
기초 어획	16민속	162금기, 속설, 은어, 노래	1621노래	162101		1621015		제사상에는 비늘 없는 고기 안 올린다.	구		제사상에는 비늘 없는 고기 안 올린다.	여기는 {제사상에 그 비늘이 없는 고기는 안 올립니다.}	원용순					*
기초 어획	16민속	162금기, 속설, 은어, 노래	1621노래	162101		1621016		정월 초나흘날은 출항 안 한다.	구		정월 초나흘날은 출항 안 한다.	정월 초하룻날은 누가 돈 빌리레도 가지도 가지도 안치만은 돈 안 빌려줍니다. 그러고 초나흘날 있잖아요. 음력 정월 초 초하룻날 초이를 초사를 초나흘 있었어요. {정월 초나흘날 출항 안 해요.}	박철을				*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도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영성 영사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
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0	선원		명	배를 타고, 물고기, 잠는 일을 함으로 하는 사람.	선원 {선원들은} 뭐 거 다 진 걸예요. 어른 생활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어부'로, 하위어 로 '하장, 선장, 보성, 기관장, 긴 남방, 남방'가 나타났다.	강원도(울릉도)	0	0	0
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1	벙놈		명	늑 어부.	옛날 우리 보통 {벙놈} 그랬는데 보통 배선원 이라지.	임기학(울릉도)		0	0
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2	화장		명	배에서 밥 짓는 일을 맡은 사람.	{화장} 지 큰배라야 있지. / 그런 큰배라야지 어 쪼그란 배는 없거든. / 화자 {화자}. 밥 하고 이런 심부름하고 이단.	강학웅, 강원도, 임기학 (울릉도)		0	0
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3	선장		명	늑 선장.	{선장}.	강원도(울릉도)		0	0
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4	선주		명	배의 주인을 가리키는 말.	배 {선주}.	임기학(울릉도)		0	0
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5	막내		명	배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가리키는 말. '막내'의 경우 밥을 짓는 일을 하는 '화장'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젊 나이 어린애를 야 {막내야} 막내야 이렇게 부른 / 막 동선 그렇게 큰 배들이 많히는 거지. 막. '막내'의 경우 밥을 짓는 일을 하는 간지에는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 그런데, 막내란 타는 사람 위. {막내라고}만 부른. 뭐 표현이 맞 맞을 거고.	강원수, 김성호(울릉도)		0	0
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6	기관장		명	기관실을 책임지는 사람.	{기관장}. 예. 기관장 뭐 이렇지. / {기관장}.	강원도, 임기학(울릉도)		0	0
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7	기관포		명	기관장을 달리 부르는 말.	자기 그 당시에 남으 배에 인제 내 배를 갖고 한 게 아니고 남의 배에 인자 기관장이라 그랬어 {기관포}. 일본말로 기관포. 그때는 선장을 선 포. 기관장을 기관포. 그 다음에 인제 기관장을 어떻게. 기관. 보성. 보성이라 그랬거든. 인자.	강영길(울릉도)		0	
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8	간판장		명	배 위에서 일하는 사람 중 총책임자를 가리 키는 말.	부신이라는 거는 인자 거 {기관장을} 맡히는 거지. / 아~ 아가, 선장 밑에는 {간판지린} 거 있었고 그 당에 그 본선원 그러는 게 있었어요.	김성호, 김형수(울릉도)		0	0
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19	남박		명	기관장을 보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부인을 더 주는 거지. 주고, 그 당에 기관장. 기 관장 밑에 {남박이라고} 있었어.	강원수(울릉도)		0	
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20	남방		명	기관장을 보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다들 사람은 인제, 그때는 선원들이 남아돌고 한 때니까, 그 당에 인자 기관장을 인자 보조하는 인자 남방이라 그랬죠. 남방.	강영길(울릉도)		0	
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21	미나라이		명	덕장에서 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그래 남방은 기관포에 속해. 기관포. 그 당에 인 자 선원을 갖다가 {미나라이}. 미나라이. 미나 라이라 그랬던가. 미나라이라고 했었.	강영길(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모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
1	기초어휘	111	1111	111101	1111022	배사람	배	명	배를 부리거나 배에서 일을 하는 사람.	이 {뱃사람은} 배 오고 하든 그 버전에 올랐고 이래 있는 모습어.		강영길(울릉도)	0	0	0
1	기초어휘	111	1111	111101	1111023	보성	보성	명	간판장을 달라 가리키는 말. 이물에 제일 밑에 타는 사람이다.	저가 그 당시에 남으 배에 인제 내 배를 갖고 한 게 아니고 남의 배에 인자 기관장이라 그랬어 기관조. 일본말로 기관조. 그때는 선장을 선택 기관장을 기관조. 그 다음에 인제 기관장을 아 땡개. 가판. {보성}. 보성이라 그랬거든. 인자 / {보성이라는} 거는 인자 거 가판장을 말하는 거지.		강영길, 김성호(울릉도)	0		
1	기초어휘	111	1111	111101	1111024	영자	영자	명	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를 가리키는 말. 배에서도 나이가 많은 이를 따로 대장장이를 해준다.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영장이 나노아지기도 해는데 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영자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막내"로 불려지고 있었다.	배. 그 당시에 고 당에 배 전제에서 선원들 중에 일반선원들까지 전~부터 해가지고 나이 켈 많으시는 분을 {영자라} 그래요. 영자.		김형수(울릉도)	0		
1	기초어휘	111	1111	111101	1111025	선포	선포	명	선장을 달라 부르는 말.	저가 그 당시에 남으 배에 인제 내 배를 갖고 한 게 아니고 남의 배에 인자 기관장이라 그랬어 기관조. 일본말로 기관조. 그때는 선장을 {선포}. 기관장을 기관조. 그 다음에 인제 기관장을 어땡개. 가판. 보성. 보성이라 그랬거든. 인자.		강영길(울릉도)	0		
1	기초어휘	111	1111	111101	1111026	아부라사시	아부라사시	명	기관장을 보조하는 남버. 남방 밑에 일을 하는 막내를 가리키는 말.	남박이라 하고 있었는데 남박 밑에 이제 또 기관장에 상원이 넣동하고 기계가 연대가 되기 때문에 남박 밑에 그걸 장 일본말인데 {아부라사시라} 그랬는데.		김형수(울릉도)	0		
1	기초어휘	111	1111	111101	1111027	영양사	영양사	명	배에서 밥을 하는 사람. 화장을 장난삼아 부르는 말이다.	아~ 취사부에 취사부에 화장이라고 있어요. 화장이라고 이름을 썼다가 그게 듣기가 안 좋다는 거라고 하고 우. 우리들은 장난 상아 부를 때 {영양사라} 그랬어요. 예. 영양사.		김형수(울릉도)	0	0	0
1	기초어휘	111	1111	111101	1111028	오끼아	오끼아	명	배에서 가장 막내를 가리키는 말. 보통 처음 배를 타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 오징어 많이 난다 고기 많이 난다 니 절으라 가자 이러면 그기 인자 그 옆쪽에 한 수는 거 그러는 인자 견습생 비슷하지. 그런 사람을 그 줄 뛰라고 안 하고 그 이거는 아마 일본말이지 씌어. {오끼아라} 이러더라고. 오끼아.		박봉식(울릉도)	0		
1	기초어휘	111	1111	111101	1111029	오른도모	오른도모	명	오른쪽 도모에 타는 선원을 가리키는 말.	그런면 이기 이래 되는 거야. 인자 원도모 {오른도모}.		박봉식(울릉도)	0		
1	기초어휘	111	1111	111101	1111030	오른도모 꼬티	오른도모 꼬티	명	원도모를 달라 부르는 말.	그러니까 저 앞쪽에서 선수 쪽으로 보다 선이 쪽으로 뒤쪽으로 하니까 인제 뒤쪽에도 오른도모에 타는 사람은 그 원도모 {오른도모고디}. 원쪽에 타는 사람은 원도모고디 선장은 옆에 타는 사람은 원도모 이런 말함.		박봉식(울릉도)	0		
1	기초어휘	111	1111	111101	1111031	원도모	원도모	명	왼쪽 도모에 타는 선원을 가리키는 말.	그런면 이기 이래 되는 거야. 인자 {원도모} 오른쪽도.		박봉식(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1	기초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음	음사정 번호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자	영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어사자 음성
1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32	어부	영도모고 담	명	오른도모를 달리 부르는 말.	그러니까 저 일쪽에서 선수 쪽으로 보다 선마 쪽으로 뒤쪽으로 하니까 인제 뒤쪽에도 오른쪽 에 타는 사람은 그 원도모 오른쪽도모고다. 원래 에 타는 사람은 {원도모고다} 선장은 옆에 타 는 사람은 원도모 이런 방법을.	박봉식(울릉도)				0	
1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33	어부	조기장	명	남바를 달리 부르는 말. 기관장을 보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 그 용어는 남바이란 말은 인자 그 지금으 로 치면 {조기장어라} 많을 아바 조기장을 칭 하는 걸 걸려니다. 우리 우리 손수한 일로 하지 은 조개. 인자 조기장. 인자 그 기관장을 보조 하는 사람. 제가 알기론 그 전에는 그렇게.	강영길(울릉도)				0	
1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34	어부	백선원	명	어부를 달리 부르는 말.	백선원 {백선원} 아렇지. 뭐 그래.	임기학(울릉도)			0	0	
1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35	어부	본선원	명	기관장. 기관장. 선장들을 제외한 어부를 부르는 말. 배를 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 는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 이기 선장 밑에는 기관장이란 게 있었고 그 밑에 그 {본선원} 그라는 게 있었어요.	강형수(울릉도)				0	
1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36	어부	보신	명	배에서 풍을 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 지 음의 기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 당 {보신} / {보신}.	임기학, 강원도(울릉도)				0	
1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37	어부	풍조절하 는 사람	명	배에서 풍을 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	저자, {풍조절하는사람} 보신이고.	강원도(울릉도)				0	
1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38	어부	(백능) 가 남한 진 개 바다도 다 모한다	관	비가 오는 날 바다 한기운데 있는 선원의 치량한 신세를 나타낸 표현이다. 비가 오면 개도 개진에 들어가지만 배 위의 선원은 배 를 피할 곳조차 없다는 의미이다.		강양길(울릉도)				0	
1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39	어부	가을바리	명	가을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한지. 그래 한지를 여기서 는 조기라 그래. 조기 그것도 일종의 오징어지. 오징어고 가문식 같으 잖아 르~ 거. 그런 거는 가문씩 잡히고, 잡하 고. 뭐 그 외에는 인자 쓰는 용어로는 우리기 거 . 용어는 동상지, 동상이니까 뭐. 초독에나 초 등바리, 초등바리. 그 당에 가을에 나는 거는 초 석고 나는 거는 {가을바리}. 그렇게 불렀. 그 래 그렇게 불렀고. 가장 많이 있을 때에는 아 래 지금 잡는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있다.	강영길(울릉도)				0	
1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40	어부	갯바리	명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오징어를 잡는 행 위. 오징어 외에 고기를 잡는 행위를 포괄 해 가리키기도 한다.	오요 한시간 요렇게 나가는 거는 {갯바리} 나 간다 이라지.	강형수(울릉도)				0	
1기초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1111041	어부	넙바리	명	넙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넙치'라고도 한다.	예. 넙오징어. 예. 저~ {넙바리라} 안 하고 '넙바리'. 넙치기 오징어 주로 많이 아래 배지하 다. / 넙에 잡는다고.	박봉식, 김세운(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항목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한	발음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역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	기초어휘	11행위자	1111	111101	어부	1111042	낚치기	낚치기	명	낚치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낚바리'라고도 한다.	예. 낚오징어. 예. 자~ 낚바리라 안 하고 손 낚 바리. {낚치기} 오징어 주로 잡아 이래 매기라 다. / 낚에 잡는다고.		박봉식, 김계호(울릉도)		0	
1	기초어휘	11행위자	1111	111101	어부	1111043	넙치기	넙치기	명	넙치에 또는 11시나 12시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인자 넙도 예들 들어가 뭐 올력으로 이십일 넙 은 초지녁 아홉시 돼가 뜨른 이십칠 팔일은 열 한시나 열두시 돼가 뜨지 영습니까. 이래 뜨은 {넙치기'라고} 고래 돌 때 한 사십분 잡힐 때가 있고 이래 돌 때가 있어.		박봉식(울릉도)		0	
1	기초어휘	11행위자	1111	111101	어부	1111044	당알바리	당알바리	명	당알 나가지 않고 하루 안에 작업을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당알바리'라 라고도 한다.	원양 그러는 거는 한 번 나가면은 언제 쪼하 는 도를 낚탈. 이렇게 오는 언제 갔다 오는 걸 원양이라 하고. 오기에서 이제 작업을 다섯시간 을 나가든 여섯시간을 나가든 고 하는 건 {당알 바리'로} 나가요. {당알바리라고}.		김형수(울릉도)		0	
1	기초어휘	11행위자	1111	111101	어부	1111045	동상바리	동상바리	명	겨울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즉 동상에 오징어를 잡는 것을 말한다.	그러 인자 겨울에 도작기 카는 긴데 도작기, 동 상바리. 이기 인자 도작기 커대요. 주로 동상오 징인데 도작기 커대. 보통 도작기 인자 뭐 다 왔 다 이래 쓰고. 지금도 도작기 다 왔다 이래 씁습 니다. 그게 {동상바리}. 겨울로 친다.		박봉식(울릉도)		0	
1	기초어휘	11행위자	1111	111101	어부	1111046	동상자기	동상자기	명	겨울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즉 동상에 오징어를 잡는 것을 말한다.	항치. 그레 항치를 여기서는 자기라. 그레. 자기. 그것도 일종의 오징어지. 오징어고 가림식 갑오 징이 큰 ~가. 그런 거는 가림씩 잡히고. 잡하 고. 뭐 그 외에는 인자 씹는 용어로는 우리가가 불에는 {동상자기}. 동상이니까 뭐. 조등에다 조등바리. 조등바리. 그 당에 가릴에 나는 거는 주석 쇠고 나는 거는 가를바리. 그렇게 분류. 그 그렇게 분류하고. 가장 뜻이 있을 때에는 이 제 지금 잡는 오징어가 가장 뜻이 있다.		강영길(울릉도)		0	
1	기초어휘	11행위자	1111	111101	어부	1111047	동치기 영어 한글 이다	동치기 오 징어 한글 이다	관	불부터 잡기 시작하는 오징어가 겨울이 닳 면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동치바리' 지나면 오징어는 더 이상 나지 않아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동치기 오징어는 동지 지나면, {동치가 오징어 한글이다. 동치바리} 그레. 한라. 동지 지나면, 거의 오징어가 볼 지나면 오징어는 더 이상 나지 않아 볼 수 없다는 말이다.		강영길(울릉도)		0	
1	기초어휘	11행위자	1111	111101	어부	1111048	오징어바 리	오징어바 리	명	오징어를 주로 잡는 일을 가리키는 말.	그레 여는 {오징어바리} 말지. 오징어바리.		강영길(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1행위자	1111	111101	어부	1111049	이개바리	이개바리	명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뭐 {이개바리}. 하이에른 있어. / 예. 오늘 오징어 열매 잡았노 그라든 백숙 잡았노 이래 매기라든 게 아이고. {이개바리'나} 잡았더라. 한 바리 잡 았더라 이 말이거든.		강영길, 박봉식(울릉도)		0	
1	기초어휘	11행위자	1111	111101	어부	1111050	번치바리	번치바리	명	산지구를 먼저 오징어를 잡는 행위. 먼저서 잡는 행위를 가리킨다.	네. 그걸로 가지고 오징어를 잡았었고. 또 산지 구를 가지고 거 {번치바리라고} 하는 게 있어.		김형수(울릉도)		0	
1	기초어휘	11행위자	1111	111101	어부	1111051	중상바리	중상바리	명	나에 큰 손목이 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	그 인 거인 {중상바리'라}.		박봉식(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획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1	기초 어획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한 표준어	멸종 정확 도	뜻풀이	종래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정보 2	영단 정확 성	영단 정확 성	표준어 어휘 등록
1기초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	121100	물때	물	영	들어오는 물을 가리키는 말.	물은 물은 자기때? {물물} 넷물 이이기.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물때'로, 하위어 로 '한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 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아 홉물, 열물, 열한물, 열두물, 열 셋물, 열네물, *열다섯(x), 열여 섯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한 물을 다른 말로 '작은물'이라 표 현했다. (2011)에서는 '물때'와 관련된 말이 나타나지 않았다.	영기학(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	121100	물때	넷물	영	나가는 물을 가리키는 말.	물은 물은 자기때? 들물 {넷물} 이이기.	이 지역에서는 물때가 없다고 했 는데 이를 재보자는 '어는 그런 게 없어, 잘못 가이지, 서해 바다 에 가야 있어'라고 했다.	영기학(울릉도)				
1기초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1	1211010	한우날	x									
1기초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2	1211020	두우날	x									
1기초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3	1211030	서우날	x									
1기초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4	1211040	너우날	x									
1기초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5	1211050	다섯우날	x									
1기초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6	1211060	여섯우날	x									
1기초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7	1211070	일곱우날	x									
1기초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8	1211080	여덟우날	x									
1기초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09	1211090	아홉우날	x									
1기초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10	1211100	열우날	x									
1기초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11	1211110	열한우날	x									
1기초어획	12환경	12시간	1211물때	121112	1211120	열두우날	x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분류 번호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답 시지	영단 정답 음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기초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물때	121202	1212020		명	는 썰물.	썰물	들물 {썰물아} 없으니깐내 안 하지.	강원도(울릉도)		0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물때	121202	1212021		명	는 썰물.	썰물	들물 {썰물아} 없어요.	임기학(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물때	121202	1212022		명	북쪽과 동쪽 사이에서 흐르는 물을 가리키는 말.	썰물	아. 그거는 저희들이 통상으론 썰물 그란 건 북쪽으로 가는 거를 {썰물아라} 하고 남쪽으로 가는 물을 남쪽으로 가는 물을 {만물아라} 하고 그 당에서 동쪽으로 가는 물을 그걸 동쪽으로 가는 물을 우리들이 부르기는 거의 아 이스물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마이 했었는데.	강원수(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물때	121202	1212023		관	동쪽으로 가는 물을 가리킨다.	이스물 간다	남쪽으로 가는 물을 만물아라 하고 그 당에서 동쪽으로 가는 물을 우리들이 부르기는 거의 아 {이스물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마이 했었는데.	강원수(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물때	121202	1212024		명	남쪽과 동쪽 사이에서 흐르는 물을 가리키는 말.	만물	아. 그거는 저희들이 통상으론 썰물 그란 건 북쪽으로 가는 거를 썰물아라 하고 남쪽으로 가는 물을 남쪽으로 가는 물을 {만물아라} 하고 그 당에서 동쪽으로 가는 물을 그걸 동쪽으로 가는 물을 우리들이 부르기는 거의 아 이스물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마이 했었는데.	강원수(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물때	121202	1212025		관	북지 방향과 반대로 나가는 물을 가리킨다. {바발물 간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바발물 간다	이스물이라고 하기 전에 그 뭐 아 물이 뭐릭 {바발물 간다} 뭐 바깥으로 빠진다 이런 말도 마이 쓰지만 아 이스물 많이 간다 이렇게도 쓰고 있었어.	강원수(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물때	121202	1212026		명	북쪽으로 가는 물을 가리키는 말.	세발물	{세발물은} 세발물은 바로 그걸 북쪽으로 가는 거를 세발물, 세발물이라고. 대내. {썰물아나} 세발. 세발물이다.	강원수(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물때	121203	1212027		관	물이 양자로 돌아와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물이 불다	물이 양자로 돌아와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물 불 혹은 그래 불, 뿌는} 수는 있지. 그것도 불면다는 사용되지 않음.	건학용(울릉도)		0	0	0
1기초어휘	13환경	122시간	1212물때	121205	1212028		관	바다로 빠지는 물을 가리키는 말.	{바도가} 빠다	바다 나가면 파도가 {고우른} 나가고 파도가 썰면 또 안 나가고 그런 기지. 그거밖에 더 있나.	건학용(울릉도)		0	0	0
1기초어휘	13환경	122시간	1212물때	121205	1212029		형	바다에서 육지로 치는 파도가 썰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바도가} 썰다	바다 나가면 파도가 고우른 나가고 파도가 {썰면} 또 안 나가고 그런 기지. 그거밖에 더 있나.	건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환경	122시간	1212물때	121205	1212030		형	바다에서 육지로 치는 파도가 약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잔잔하다	{바도가} 약한 건 뭐 약, 약하다 그러지. {잔잔하다}의 의미를 확장 보아할 필요 있음.	건학용. 임기학(울릉도)		0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획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1	기초 어획 항목 2	기초 어획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항	발음 정확 도	뜻풀이	종래	기타정보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역	표준어 어사전 등재여
1기초어획	12환경	121시간	1213하루	121304	지녀	1213041		초지녀	명	느 지녀. 오후와 같은 의미로 '초지녀'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안 하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예. 영어 링가 하여이 해가 {초지녀예} 많이 잡힐 때가 있고 밤 세도록 전부 온 집다가 새벽에 날 다 쉰 때	박봉식(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1시간	1213하루	121304	지녀	1213042		올매지녀	명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먹는 지녀를 가리키는 말. 주로 어부들이 바다에 기기 전에 먹는 식사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다.		부들럭 저 인자 오후 먹~ 세시 내시 다섯시 되 는데 올매 나가면 일찍 먹고 안 그러면 내시 다 것시. 그기 인자 올매. 올매지녀이런 하죠. 예. {올매지녀} 복나 카가든. {올매지녀} 복나 카 먹은 인자 올매 인자 갈 때 밥을 복나 이 말이 란.	박봉식(울릉도)		0	
1기초어획	12환경	121시간	1213하루	121305	밤	1213050		아동사리	명	느 밤.		아두워질 때 어둠 {아동사리지}. / {아두사리}. (2010)에서는 '밤'만 나타났다.	영기학, 강원도(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1시간	1213하루	121305	밤	1213051		밤	명	느 밤.		밤. {밤이지} 뭐.	건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1시간	1213하루	121305	밤	1213052		밤창	명	지녀이 지나고 밤 시간을 가리키는 말. '새 창, 중창, 밤창'으로 시간을 나타내기도 했 다.		지녀이고. 그 당 저녁 밤에 무면 {밤창이고} 그 창조.	박봉식(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1시간	1213하루	121305	밤	1213053		밤중	명	느 밤.		{밤중이라} 하나?	장상권(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비랑	122101	동풍	1221010		서쪽	명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		서쪽에서는 {창풍이라고} 하나.	김성호(울릉도)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비랑	122101	동풍	1221011		동새(창)	명	느 동풍.		동새풍이 쇄파람이 불면 {동새}. 동새바람이 분다. 동쪽은 동새.	건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비랑	122101	동풍	1221012		동새바람	명	느 동풍.		동새풍이 쇄파람이 불면 동새. {동새바람이} 분다.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비랑	122102	서풍	1221020		서풍	명	느 서풍.		서쪽은 {서풍}. {아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 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학용(울릉도)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기초어휘 항목	기초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한	발음 정보 도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사자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 등록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2	서풍	1221021	연갈바람	동		남서풍. 남쪽보다는 서쪽으로 차우전 바람을 말한다.	서쪽은 여 저저 뭐 이 바람을 거의 {연갈바람} 뿐다 이래. 울릉도 용어로. / 그레 배에서 요즘은 남서풍 이리지만은 아까 예기하지만 주로 남서쪽에서 불고 오는 게 남서풍 아님니까. 이게 갈바람이다 이래. 그것도 서쪽으로 많이 땡기면 {연갈}. 남쪽에서 땡기면 차진갈. 그 당에 동 쪽으로 더 땡기면 동새. 북쪽으로 올 때는 북새. 더 인제 약간 동쪽에서 북쪽으로 약간 땡기면 뭐 저 인간풍.		김형수, 박봉식(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3	남풍	1221030	남풍	명		남풍. 남풍중을 가리키는 말. 여름에 주로 또 간혹 가을에도 부는 바람이다.	{남풍이지}. / 갈바람. / 남서풍.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하느바람, 하느바람'으로 나타냈다. 사전에는 '갈바람'은 '뱃사람들의 말로, '서풍'은 '갈바람'을 이르는 말. '남풍'은 '남풍'으로 갈바람이 나타난다. '남풍'은 '뱃사람들의 용어로, '남풍'은 '남풍'을 이르는 말'으로 나타난다.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3	남풍	1221031	갈바람	명		남서풍을 가리키는 말. 4월에 가장 많이 부는 바람이다.	남풍이지. / {갈바람}. / 남서풍. / 남쪽에서 부는 것은 그냥 저 뭐지 뭐야. 그냥 이 서오 수 바람 뿐다 이렇게 예기하고 그 당에 여 기 남서풍에서 오는 바람이 있어야. 고래 보고 여 울릉도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갈바람이지}. 그레 '뱃사람들의 용어로, '남풍'은 '남풍'이(해)요. 아~ 이 칠에 없는 이 갈바람 뿐다 이래요.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3	남풍	1221032	남갈	명		남쪽에서 부는 바람.	{남갈은} 남쪽에서 부는 기지.		김성호(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4	북풍	1221040	북청	명		북풍. 북서풍을 의미한다.	{북청}. / 청풍. 청풍 그라지 뭐. / 북서쪽에서 부는 갈 북청 타겠다 이래. 북청. {북청}.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하느바람'에 해당하는 어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전에는 '청바람'은 '뱃사람들의 용어로, '청풍'은 '청바람'을 이르는 말. '남풍'은 '남풍'을 이르는 말'으로 나타난다.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4	북풍	1221041	청풍	명		북풍. 재보지에 따라 서풍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북풍은 {서풍을가} 청풍이라 하고.	북풍은 사전에 등재됨.	김학용, 김형수(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4	북풍	1221042	뱃바람	명		북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 겨울에 많이 부는 바람이다.	여기 울릉도 여기에 용어를 쓰면은 전부 동쪽에서{사전에는 '뱃사람들의 용어로, '뱃바람'은 '뱃바람'을 이르는 말'으로 나타난다.		김형수(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4	북풍	1221043	뱃바람	관		뱃바람이 불면 고기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뱃바람이 불면 잡어를 하지 않'이라는 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말이다.	뱃바람은 고기, 주로 인자 보면은 뱃바람은 고기. {뱃바람은 고기}가 나타나고 '뱃바람은 고기'가 안 잡힙니다.		김성호(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한 표제어	한글 표제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정보 사진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4	122104	1221044	셋바람 불 때는 오징어 작게 나타 난다	셋바람 불 때는 오징어 작게 나타 난다	관	셋바람이 불면 날씨가 추워 오징어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셋바람이 불면 아기 작게 나타난다'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말이다.	주로해,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셋바람이라 하는데 {셋바람 불 때는 오징어가 작게 난다} 이 작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말이다.		백봉식(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5	122105	1221050	동새	동새	명	북 동풍풍.	동새, 동북방향에, 북동, 북동 북동풍을 {동새라} 그러지.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북동풍만 나타났 다. 사진에는 동풍을 의미하고 있었다.		강정길(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5	122105	1221051	동갈	동갈	명	남동쪽에서 오는 바람.	동간: 남동 간에 부는 거는 {동갈이라}.		강정호(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5	122105	1221052	북새	북새	명	북 동풍풍. 북쪽으로 더 가까운 바람이다. 북 새 북풍풍. 북쪽으로 오는 바람이다.	새는 이강풍 이기, 동쪽하고 북쪽하고, 동쪽에 서서 북쪽 약간 땡기키는 거 {인간풍이지}. 그러 고 북쪽을 고서 조금 더 땡기키는 거 북새, 인간 단남.	사진에는 '북풍을 의미하고 있 었다.	백봉식(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5	122105	1221053	셋바람 불면 오징어 작게 나타난다	셋바람 불면 오징어 작게 나타난다	관	셋바람이 불면 날씨가 추워 오징어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셋바람이 불면 아기 작게 나타난다'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말이다.	셋바람이 불면 날씨가 추워 오징어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셋바람이 불면 아기 작게 나타난다'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말이다.		강정호(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5	122105	1221054	북동풍	북동풍	명	북 동풍풍.	{북동풍} 새, 북동풍.		강학웅(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5	122105	1221055	셋바람	셋바람	명	북 새바람, 북쪽 위에서 오는 바람은 겨울 철에 많이 부는 바람이다.	{셋바람}, 북동, 저자, 북동풍이란 건 산간에 오 는 거 북동풍이라거든.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북서풍은 '셋바람' 으로 나타냈다. 사진에는 '셋바 람'은 '백서풍들의 은어로, '동풍' '02 「2」을 이르는 말, '백서풍' '로 나타냄.	강원도(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5	122105	1221056	인간풍	인간풍	명	북 동풍풍. 동쪽보다는 북쪽으로 더 가까운 바람이다.	새는 이강풍 이기, 동쪽하고 북쪽하고, 동쪽에 서서 북쪽 약간 땡기키는 거 {인간풍이지}. 그러 고 북쪽을 고서 조금 더 땡기키는 거 북새, 인간 단남.		백봉식(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6	122106	1221060	북서풍	북서풍	명	북 새바람, 북쪽 위에서 오는 바람은 '북고 새'도, 또 어디에서 오는가에 따라 그 지명 에 따라 '북서남기, 북서남기'로 표현한 다. 겨울철에 많이 부는 바람은 뒤갈기바람 이다.	{새북풍이라고} 뭐, 북서풍은 나타냄.	북서풍은 나타냄.	강학웅(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6	122106	1221061	북서풍	북서풍	명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	가을엔 뭐 가을 되면 계절풍이죠. 아까 말한 북 풍이나 청풍 같은 {북서풍이냐}. 주로 북서풍 이 많이 불죠. 지금도 여 보면 전부다 지금 현재 북서풍입니다. 아가.		강성호(울릉도)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린항	발음 정확 도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역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6	1221062	복서풍	연갈청풍	명	낙 섯바람.	이런 뭐라 불라. 복서풍이라 안 하고 우리 올릉 도에서만 쓰는 거. 서, 서쪽에서 부는 거 하고 {연갈청풍이라} 이라고.		김형수(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6	1221063	복서풍	청풍바람	명	낙 섯바람. 북쪽 위에서 오는 바람은 '단갈 청풍. 청풍바람'으로 표현한다. 주로 기를 에 많이 부는 바람이다.	그렇게도 쓰고 {청풍바람} 보다 이렇게도 쓰 고. / 여 서쪽에서 {청풍바람} 보다 이라고.		김형수(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7	1221070	동남풍	동남풍	명	동남쪽에서 부는 바람.	바람이라 하는 거는 뭐 이래 복잡하게 할라 카 는 나첫발을 보물고는 지~쪽 안~요. 단갈 서~오~미~신~물~해~그 열두단지 음을 누가 다 아노. 다 아는 게. 보통 그 인지 나첫 판을 보물고 인지 예를 들어 아까 내가 말한데 로 {동남풍이다} 이라고 이라는데 그거 인지 우리가 상간에 오는 건 인간풍 위 어찌고 다 있 거는 없는 게 아니라 있어. 있어도 그거는 사용 안 하는 기라. 그거 누가 쓴사람들이 누가 나첫 판 나두고 누가 열두나를 다 외우노 그기라.		김학영(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7	1221071	동남풍	남동풍	명	남동쪽에서 오는 바람.	남쪽에서? {남동풍인데}. 남동풍이라 하기도 하고 여 동남풍이라 하기도 하고.		김성호(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7	1221072	동남풍	올진바람	명	동남간에 부는 바람 중 동쪽에 더 가까운 바람.	이 사이에 아 올릉도에서 그 쓰는 거 {올진바 람} 보다 그랬어. / {올진}. 올진은 남동풍 아닌 고. 남동.		김형수, 박봉식(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7	1221073	동남풍	인간풍	명	동남쪽에서 부는 바람. 박봉식은 '동쪽보다 그 북쪽으로 가까운 것을 가리킨다고 했다.	보통 그 인지 나첫판을 보물고 인지 예를 들어 아까 내가 말한대로 동남풍이다 이라고 이라는 데 그거 인지 우리가 상간에 오는 건 {인간풍}. '말 어찌고 다 있거는 없는 게 아니라 있어. 있 아도 그거는 사용 안 하는 기라. 그거 누가 쓴사 람들이 누가 나첫판 나두고 누가 열두나를 다 외우노 그기라. / 그래 그쪽에서 조금 북쪽으로 맹기면 {인간풍}이고.		김형수, 박봉식(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8	1221080	서남풍	남서풍	명	낙 남서풍. 불에 주로 부는 바람이다. 갈바 람을 말한다.	배오. {남서풍} 쓰고. {남서바람}으로 나타냈다. 사전에 '남서풍'만 나타냄.		김학영(울릉도)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기초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한	발음 정보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 집
1	기초어휘	122날씨	1221비량	122108	서남풍	1221081	갈바람	명	남서풍. 봄, 여름에 주로 부는 바람이다.	서쪽하고 남쪽 사이에서 부는 걸 {갈바람}이라 하고.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서남풍은 '남서풍, '남서풍'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남서풍'만 나타난다. 갈바람은 '서 풍'을 가리킨다.			0	0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1비량	122108	서남풍	1221082	단갈	명	남서풍. 봄에 주로 부는 바람으로 서쪽 으로 치우친 바람이다.	{단갈}은 인자 갈바람에서도 좀 이렇게 땡기부 는 걸 단갈, / 인자 서쪽으로 많이 땡기면, 남에 서 서쪽으로 많이 땡기면 단갈, {단갈}중용이 고}. 들어오이소.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1비량	122108	서남풍	1221083	채진갈	명	남서풍. 서쪽보다는 남쪽으로 더 치진 것을 가리킨다.	남쪽을 빼면은 {채진갈}이고.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서남풍은 '남서풍, '남서풍'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남서풍'만 나타난다.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1비량	122108	서남풍	1221084	남서풍	명	남서풍. 봄에 주로 부는 바람이다.	어른, 여름에는 여름에는 {남서풍}이거. 뭐 이 서풍이 여름에는 아~ 북풍풍도. 자주 불고. 남 서풍도 자주 불고 그랄조.			0	0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1비량	122108	서남풍	1221085	갯바람	명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	육지걸으면 거의 {갯바람} 갯바람 들바람 뭐. 디름.	사전예 '동풍'으로 나타난다. 의미 다름.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1비량	122108	서남풍	1221086	새	명	사이를 가리키는 말. 그래서 '동새, 북새'라 는 말이 나왔다.	어 되라, '갯바람'도 동, 그날 {새다}. 동새다. 이 런 것도. 동쪽을 얻기면 동새도.			0	0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1비량	122109	회오리바람	1221090	회바람	명	회오리바람. 회돌아서 치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회~, 회' 소리가 나 는 바람을 말한다.	그. 그거는 {회바람}이야. 고기 인자 바람이 회 ~돌아치. 회바람이잖아. 소리가 회~ 나가든. 역새로 나타났다.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회오리바람, 동풍 '이. 북에서 서로 부는 바람은 역새'로 나타났다.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1비량	122109	회오리바람	1221091	홍도로바 람	명	남동풍. 회돌아바람과 같은 말이다.	{홍도로바람}이나, 뽀뽀뽀뽀뽀 이래 막 돌아치 는 거 안 있어. / {홍도로바람}이라 카는 건 바 람이 이래 회 소리가 나고.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1비량	122109	회오리바람	1221092	역새	명	북에서 서로 부는 바람. 광풍뽀뽀뽀 이래 막 돌아치 는 거 안 있어. / {홍도로바람}이라 카는 건 바 람이 이래 회 소리가 나고.	바람이~ 간짜기 나오는 걸 {역새라}. 그래. 역 새. 여. 여기서 우리. 아 역새 타졌다 이래 이야 기하고.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항목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한	발음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역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9	최오리비량	1221093		바다 쪽에서 환하게 올 때 악새 가 타진다	관	바다가 환해지면 악새바람이 온다는 말이 있다. 곧자기가 아득은 바다가 환하면 큰 바람 이 오니 조심하라는 말이다.	미신같은 것은 뭐 다른 것은 없고 애 바다에서 올아나는 것은 애를 들어가고 애 바다 조항을 다 기르는 바다. 일이 환~왔고 갑작스럽게 시커먼 구름이 위에도. {바다 쪽에서도 악 한뼘 정도 환하게 올 때는 바람이 악새가 타진다}. / 바다 옆이. 아. 애를 들어 강강했다가 바다 밑이 깊적 시러 폭 들리면서 확 타지면서 여는 광장하얏 단 말이다. {이 환하게 타졌을 때 씨꺼린 구 름이 우로 많이 엮을 때는 악새가 타진다}. 그 때는 빨리 창칼 채비를 해가 들어오는 거죠.	간성호(울릉도)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9	최오리비량	1221094		옛바람	명	비와 바람이 함께 오는 것을 가리키는 말. 보통 태풍이 올 때 많이 온다.	인자, 인자 비가 오고 이런 걸 {옛바람이라고}, 옛바람이 들어진다. 옛바람 언제 비하고 많이 바람하고 오는 거.	견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9	최오리비량	1221095		급풍	명	급하게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	바람 풍자 아니까. {급풍}.	견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9	최오리비량	1221096		급새	명	급하게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 급새와 악새를 동일한 말로 보았다.	{급새가} 악새라. / 악새. 악새를 가지고 {급새 라}.	강양길, 광항수(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9	최오리비량	1221097		광풍	명	광창하 센 바람을 가리키는 말. 마치 미친 듯이 온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광풍} / 그거는 강풍을 미칠 광전대. 미칠 광 자라 {광풍이라} 그래.	임기학, 견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9	최오리비량	1221098		순풍	명	천천히 급게 오는 바람. 바람의 기질에 따 라 '순풍'과 '악풍'으로 나누어진다.	{순풍} / {순풍}. 고런 순풍이라. / {순풍은} 순. 순풍 부는 거. 급. 급게 부는 거 순풍.	임기학, 정상권, 견학용 (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9	최오리비량	1221099		악풍	명	급하고 강하게 오는 바람. 바람의 기질에 따라 '순풍'과 '악풍'으로 나누어진다.	바람이 썰썰하게 불고 급게 불면 순풍. 그래. 악 각 부는 거 {악풍}.	견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9	최오리비량	1221100		오랑풍	명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없이 돌아치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 오두방랑이라는 말에서 딴 유한 것이다.	바람이 인자 확 돌아치는 거. {오랑풍}. 이런 불 었다 저리 불었다 하는 거 오랑풍이라.	견학용(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9	최오리비량	1221101		맞바람	명	마주오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	{맞바람은} 인자. 맞바람은 마. 마주치는 거 맞 바람이라 하지.	견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비량	122109	최오리비량	1221102		뒷새	명	아주 센 바람을 가리키는 말. 주로 북풍 측 옛바람을 말한다.	{뒷새} 옛바람이라고요. 뒷새 여기는 또 옛바 람.	박봉식(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기초어휘 항목	기초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음사정 도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자	영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	기초어휘	12날씨	1221바람	122109	회오리바람	1221103		돌풍	명		갑자기 부는 바람.	{돌풍}. / {돌풍도} 있어. 있는데 어도 불면 돌 개바람 툇다 이라지.		김학용, 김형수(울릉도)			0	0	0
1	기초어휘	12날씨	1221바람	122109	회오리바람	1221104		돌개바람	명		갑자기 부는 바람. '돌풍'을 달리 가리키는 말.	돌풍도 있어. 있는데 어도 불면 {돌개바람} 툇 다 이라지.		김형수(울릉도)			0	0	0
1	기초어휘	12날씨	1221바람	122109	회오리바람	1221105		내바람	명	'내바람'	가을에 많이 부는 바람으로 서풍을 가리키는 말.	{내. 내. 내바람. {내바람}.		김성호(울릉도)			0		
1	기초어휘	12날씨	1221바람	122109	회오리바람	1221106		차진바람	명		돌진, 만칼바람처럼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	동새란 그레. 거의 동새라고 많이 그라고 거서 조금 {차진바람은} 올진바람 툇다 이라고.		김형수(울릉도)			0		
1	기초어휘	12날씨	1221바람	122109	회오리바람	1221107		잔결	명		주로 9월부터 11월까지 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 자가온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	가을개 돼서 맞었지. 가을 때. / 언제든지 {잔 결} 날 잔결 날 때 먹은 고기라 툇 있어 좋은 기라.		정상관, 건학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2날씨	1221바람	122109	회오리바람	1221108		잔결 날 때 먹은 고기 가 툇 있어 툇다	관		가을철 가을철에 먹은 고기가 재힐 만있다. 찬결은 주로 9월부터 11월까지 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가을개 돼서 맞었지. 가을 때. / 언제든지 {잔 결} 날 잔결 날 때 먹은 고기라 툇 있어 좋은 기라.		정상관, 건학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2날씨	1221바람	122110	불다	1221100	불다	불다	동		는 불다.	여름에, 여름에는 여기는 인자 여름편면 여. 여 우리 북쪽에는 날, 날이 좋거든. 바람이 인자 술(2010)에서는 표준어체과 동일 한 '툇다'가 나타났다.		건학용(울릉도)			0	0	0
1	기초어휘	12날씨	1221바람	122110	불다	1221101	불아치다	불아치다	동		세게 불다	뽕바람이 {불아치다}.		건학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2날씨	1221바람	122110	불다	1221102	타치다	타치다	동		평온한 상태에서 바람이 갑자기 부는 것을 말한다.	바람이~ 갑자기 나오는 걸 용새라 그레. 용새 여. 여기서 우리, 야 용새 {타치다} 이래 이여 하고.		김형수(울릉도)			0		
1	기초어휘	12날씨	1221바람	122110	불다	1221103	돌라까지 다	돌라까지 다	동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을 가리킨다.	뽕 {돌라까지다}. 뽕아부네. 뽕 강당하 겠다.		김형길(울릉도)			0		
1	기초어휘	12날씨	1221바람	122110	불다	1221104	뽕아불다	뽕아불다	동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을 가리킨다.	뽕 돌라까지다. {뽕아부네}. 뽕 강당하 겠다.		김형길(울릉도)			0		
1	기초어휘	12날씨	1221바람	122110	불다	1221105	망기다	망기다	동		사이에서 부는 바람 중 방향이 어느 쪽과 다. 기꺾다.	단갈창풍은 북쪽에서 {망기면} 북향이고. 그 양에 서쪽으로 더 뽕기면 갈바람. 그양 갈바람 이고.		박봉식(울릉도)			0		
1	기초어휘	12날씨	1221바람	122110	불다	1221106	뽕다	뽕다	동		바람의 방향이 치우치다.	남쪽을 {뽕만은} 차진꺾이고		박봉식(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운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역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	기초어휘	122날씨	1221비량	122110	1221107		동	바람이 바다쪽, 즉 바깥쪽으로 불다.	갈바람이 이쪽에서는 들이붓고 여, 여는 또 바다를 {내치는} 거쥌.	사실상의 의미와 제보자가 아는 의미 간에 차이 있음. 의미 보완이 필요함.			0	0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1비량	122110	1221108		동	바람이 육지쪽으로 불다.	갈바람이 이쪽에서는 {들이붓고} 여, 여는 또 바다를 내치는 거쥌.		강성호(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1비량	122111	1221110		동	느 세다.	바람이 {짜지}.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세다'가 나타났다.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1비량	122112	1221120		형	느 시원하다.	국물 드가면 속 {시원하다} 하지.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시원하다'가 나타났다.			0	0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2비	122201	1222010		명	느 소나기.	{소나기}, 비가 갑자기, / 소나기, 참 소나기 카,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는 거는 각재 비가 외르르 따루는 소나기라 한 다, {소낙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소나기'가 나타났다.			0	0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2비	122202	1222020		명	느 이슬비, 제보자는 '가리고 갈방비 있으 라고 이슬비'라는 말을 썼다. '안개비<이슬 비>가랑비<부슬비>소낙비'로 그 양을 표 현할 수 있다.	{가리고 갈방비, 있이라고 {이슬비}, 이슬비나 {가랑비나} 한 가지라.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이슬비'가 나타났다.			0	0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2비	122202	1222021		명	느 가랑비.			간학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2비	122202	1222022		명	느 안개비.	예, 아주 작게 오는 걸 아 {안개비} 온다. 풀 작 게 오는 걸 안개비 온다.		강형수(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2비	122202	1222023		명	안개비, 부슬비와 같이 비가 조금 내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 제보자는 '비가 짜지않 하게 오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갈방비} 비가 짜지않하게, / {갈방비}		임기학, 간학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2비	122202	1222024		명	안개비, 부슬비와 같이 비가 조금 내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 제보자는 '비가 짜지않 하게 오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비는 뭐 여 {갈강비} 온다. / 안개비 온다. 그 당에 뭐 지 {관강비} 온다.		강형수(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2날씨	1222비	122202	1222025		명	느 안개비.	보슬비를, {보슬비를} 안개비라고.		강영길(울릉도)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린항	발음 정보 모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 집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3	장맛비	1222030	영 낙 장맛비.	장마비	영	낙 장맛비.	{장마비}.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장마비'가 나타났다. 반면 으로 '장마비'가 나타났다(기도 다. 하위어로 '아린장마', '비오는 장마'가 나타났다. '장마비'는 앞어도 등재.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6	여우비	1222060	관	여긴 날씨에 비가 온다	관	비가 왔다가 다시 해가 뜨는 상황을 가리킨다. '소낙비'라 하고, 예, 소낙비는 그 옹고, 해가 니면서도, / 일간, {말간 날씨 비가 온다}.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61	여우비	1222061	관	각재 비 오 다가 팔 는 거	관	비가 왔다가 다시 해가 뜨는 상황을 가리킨다. '각재 비' 오다가 팔 는 거.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62	여우비	1222062	관	각재 날이 좋아졌다	관	비가 왔다가 다시 해가 뜨는 상황을 가리킨다. '각재 날이 좋아졌다' 그러지.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70	내리다	1222070	동	오다	동	낙 오다.	그거, 그거 비가 오도 {온다}.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오다'가 나타났다. 사전에 '어 우비'의 북한어'로 나타남.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71	내리다	1222071	동	내리다	동	낙 내리다.	눈이, 눈이 {내린다}. 비 반 눈 반, 눈 반 비 반.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72	내리다	1222072	동	들어보다	동	낙 내리다. 많이 내리는 형상을 말한다.	역수로 온다는 그거는 갖다, 갖다 {들어 보는} 거고.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73	내리다	1222073	관	좀 오다	관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것을 가리킨다. '오 다'>좀 오다>들어보다>파부어보다> 역수로 온다'로 볼 수 있다.	{좀 오네} 이라지. 좀 오네. 좀 오네.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74	내리다	1222074	관	들어 볼다	관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것을 가리킨다. '오 다'>좀 오다>들어보다>파부어보다> 역수로 온다'로 볼 수 있다.	조금 오네. 아 조금 들어, 거, 거기 좀 오네 아래 도. 아 {들어 들어 보는} 이라든,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75	내리다	1222075	동	파부어 보다	동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것을 가리킨다. '오 다'>좀 오다>들어보다>파부어보다> 역수로 온다'로 볼 수 있다.	그 담 강도 높은 게 더 싸 개 {파부어보다}.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76	내리다	1222076	관	역수로 온다	관	비가 어느 정도 오는 것을 가리킨다. '오 다'>좀 오다>들어보다>파부어보다> 역수로 온다'로 볼 수 있다.	파부어 보다. {역수로 온다} 이러은 많이 오는 거고.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80	개다	1222080	동	개다	개이다	낙 개다.	아, 날이 잦다. {개다}. 개인다. 날이 {개인다}. / {개인다} 그러지.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항목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음사정 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자	영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어문법 등재여
1	기초어휘	122년경	1223년	122301	본	1223000	남박노	명	명	남	남박노는 함박노와 비슷한 것으로 눈의 크기와 넓이가 큰 것을 말한다. '남박하다'에서 연유된 말이다.	{남박노도} 있고. / {남박노}.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우박노'이 나타났다.	경원도, 임기학(울릉도)			0	
1	기초어휘	122년경	1223년	122301	함박노	1223010	남디기노	명	명	명	남박노는 함박노와 비슷한 것으로 눈의 크기와 넓이가 큰 것을 말한다. '남박하다'에서 연유된 말이다.	{남디기노}.		임기학(울릉도)			0	
1	기초어휘	122년경	1223년	122301	함박노	1223011	함박노	명	명	명	남박노는 조금만 내리어도 많이 쌓이는 것이다.	{함박노은} 있지. 꼭꼭 쏟아지면. / {함박노은} 조매 외도 마이 먹히는 기라.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함박노'이 나타났다.	경원도, 임기학, 이경우 (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2년경	1223년	122302	새라기노	1223020	새라노	명	명	명	남박노는 작고 동방돌방한 눈을 가리킨다.	{새라노이라노} 새라기 매로 이런 기 새다다 떨어지는 그런 거. / {새라노은} 동방돌방한 게.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새라노'이 나타났다.	건학옹, 경원도(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2년경	1223년	122302	새라기노	1223021	새라기노	명	명	명	남박노는 작고 동방돌방한 눈을 가리킨다.	새라노는 이런 기. 다다막 하며 떨어지는 기 새라노이라. {새라기노}.		건학옹(울릉도)			0	
1	기초어휘	122년경	1223년	122302	새라기노	1223022	새라기	명	명	명	남박노는 작고 동방돌방한 눈을 가리킨다. {새라기노} 띄울. 이런 이런 기 주먹대기 이런 기 붙인다.		건학옹(울릉도)			0		
1	기초어휘	122년경	1223년	122303	진노개비	1223030	진갈비	명	명	명	남박노는 작고 동방돌방한 눈을 가리킨다. 그거 {진갈비}. / {진갈비}. 눈하고 버리고 섞이는 게 진갈비.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진갈피'가 나타났다. 이 외에도 '버리고' 눈하고 섞이가 내려오다'로 표현하기도 한다. 사전에는 '진노개비'의 발언 {진노}으로 되어 있을 확정이 필요하다. 사전에 '진갈피'는 나타나지 않는다.	경학옹, 경상권(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2년경	1223년	122303	진노개비	1223031	우박	명	명	명	남박노는 작고 동방돌방한 눈을 가리킨다. {우박이라} 그러니.		정상권(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2년경	1223년	122303	진노개비	1223032	우박노	명	명	명	남박노는 이미 눈의 일종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다시 '노'를 붙여 사용하기도 했다.	그래 우박. {우박노인가?} / 와 아이라. 우리는 우박이랑 한 가지지. 우박이 떨어졌다. 그거 연애 굶다 굶다.	이경우, 건학옹(울릉도)			0		
1	기초어휘	122년경	1223년	122304	고드름	1223040	고드름	명	명	명	남박노는 작고 동방돌방한 눈을 가리킨다. {고드름} 아니까? 이거?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고드름'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막혔음, 빙수대'와 같은 일종의 가리키는 표현이 있었다.	경원도(울릉도)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라한	발음 정보 2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
1	기초어휘	1223	1223노	122305	1223050		없다	동	느 없다.	없음이 {없었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없다'가 나타났다.			0	0
1	기초어휘	1223	1224해·달·별	122401	1224010		해가 뜨다	관	느 해돋이.	{해가 떴다} 이라지 뭐.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해돋이'가 나타났다.			0	
1	기초어휘	1223	1224해·달·별	122401	1224011		해돋이	명	느 해돋이.	{해돋이}. 여도 해돋이. 해돋이 칸다.				0	0
1	기초어휘	1223	1224해·달·별	122401	1224012		동 트다	관	느 해돋이.	해오. {동 트다}.				0	
1	기초어휘	1223	1224해·달·별	122401	1224013		영동이 트 다	관	느 해돋이.	창에 동이 틀 적에는 {영동이 뜬다} 이라고 그 당에 조금 늦게 뜰면 동 뜬다 이라고.				0	
1	기초어휘	1223	1224해·달·별	122401	1224014		날 새다	관	느 해돋이.	해 났. 해 떴다. {날 섰다} 이라고.				0	
1	기초어휘	1223	1224해·달·별	122402	1224020		해 지다	관	해가 지는 무렵을 가리키는 말이다.	{해가 졌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해남어가 '해질무 렵'으로 나타났다.			0	
1	기초어휘	1223	1224해·달·별	122402	1224021		해 빠지다	관	해가 지는 무렵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 어둡어지면 {해 빠진다}. 해 빠졌다. 속 드가 면. 해가 속 드가면 해 빠진다. / 해 진다. {해 빠진다}.				0	
1	기초어휘	1223	1224해·달·별	122403	1224030		물이 깨다	관	해 주변에 붉게 띠가 둘러진 것을 가리키는 말.	{아 {물이 깬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햇무리가 '햇나' 물. (2011)에서는 '햇무리. 햇무 리. 햇물 미다. 물 미다'로 나타 났다.			0	
1	기초어휘	1223	1224해·달·별	122403	1224031		해꽃	명	느 햇무리. 해 주변에 붉은 띠가 마치 꽃이 핀 모습과 유사하다고 해서 나타난 말이다.	그거는 {해꽃이라} 그러나.	사전에 '햇무리'의 방언(강원 영남)로 나타난다. 지역 확장이 필 요함.			0	0
1	기초어휘	1223	1224해·달·별	122403	1224032		해물 미다	관	해 주변에 붉게 띠가 둘러진 것을 가리키는 말.	{해물 미었다}.				0	
1	기초어휘	1223	1224해·달·별	122403	1224033		물 미다	관	해 주변에 붉게 띠가 둘러진 것을 가리키는 말.	{물 미었다} / 아 {물 미었다}.	건학용. 임기학. 이경우 (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획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1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한 기타	발음 정보 모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진정보1	출진 정보 2	영단 정보 사건	영단 정보 영성	표준어 어사진 등매어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4	달무리	1224040		달무리 생 기다	관	달 주위에 흰 띠가 둘러진 것을 가리키는 말. 해무리나 달무리가 든 경우 3-4일 후에 비나 눈이 온다고 한다.	{달무리 생겼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달무리가 '달메' 로, 이와 비슷한 의미로 '달우리' 이다. '달메 미다'가, (2011)에서 는 달우리 미다, 또다, 달우리로 나타났다.	건학용(울릉도)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5	은하수	1224050		북두칠성	명	은하수. 이를 '북두칠성'으로 말하고 있 었다.	{북두칠성인데} / {그게 북두. 어이. 그게 보자. {은하수}가, (2011)에서는 '칠' 성별, 칠성이 나타났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은하수'가, (2011)에서는 '칠' 성별, 칠성이 나타났다.	이경우(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5	은하수	1224051		은하수	명	은하수.	은. {은하수는} 별이 총총 보이는 게 은하수라.		이경우(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6	또다	1224060		보다	동	는 또다.	은. 은하수는 별이 총총 {보이는} 게 은하수라. 타났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 2011)에서는 '또다'가 나 타났다.	이경우(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6	지다	1224060		해 저문다	관	는 넘어가다.	와요 싸요 {해 저문다}. 해 저다 이런 거.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지다'가 나타났다. 이 외에 ' 넘어가다'라는 표현이, (2011)에 서는 '넘어가다'가 쓰이기도 했 다.	임기학(울릉도)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6	지다	1224061		해 지다	관	는 넘어가다.	와요 싸요. 해 저문다. {해 저다} 이런 거.		임기학(울릉도)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1	번개	1225010		번개	명	는 번개. 천둥이 칠 때 그 사이 번쩍거리는 불을 번개라고 한다.	반. {번개}. 하늘이 암을 때 번개가 안 치고, 구 한 '번개'가 나타났다. 이 외에 ' 번개불'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했다. (2011)에서는 '번개. 번개 칠'이 나타났다. 번개불은 등재 되지 않았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번개'가 나타났다. 이 외에 ' 번개불'이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했다. (2011)에서는 '번개. 번개 칠'이 나타났다. 번개불은 등재 되지 않았다.	임기학(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1	번개	1225011		번개 친다	관	는 번개가 친다.	{번개 친다} / {번개 친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번개칠 하다'를, (2011)에서 는 '번개칠 하다'가 나타났다.	건학용, 강원도(울릉도)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1	번개	1225012		아른번개	명	아른하늘에 치는 번개를 가리키는 말.	{아른번개} 친다. 아른번개 친다.		건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1	번개	1225013		바락	명	는 바락.	뒤 {바락들} 때린다 보면 그런 기.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바락'이, (2011)에서는 '번개 불. 바락'이 나타났다.	건학용(울릉도)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획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한 표준어	발음 정보	뜻풀이	종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지	영단 정보 영색 등매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1	번개	1225014		때리다	동	는 치다.	뒤 버락을 {때리다} 보면 그런 기.		건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1	번개	1225015		맞다	동	는 치다.	그래 버락 {맞으면} 그렇지.		이경우(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3	천둥	1225030		천둥	명	는 천둥.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 2011}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한 '천둥'이 나타났다. 또 강 들의 재보자는 '우레'란 말은 어 기 별로 안 써. 옛사람들이 '를 통해 '우레'가 사용되지 않음을 밝혔다.		이경우, 건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3	천둥	1225031		들리다	동	는 치다.	천둥부터 먼저. 먼저 {들렸고}. / 기암 기암은 전중할 때도 있고.		이경우, 건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구름	1225040		구름	명	는 구름.	거 {구름} 아니가?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구름'이 나타났다. 하위어로는 '먹구름'이 나타났다.	강원도(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구름	1225041		검은구름	명	는 먹구름.	왜 흰구름, {검은구름} 구름은 구름도 여러 질 이지.		임기학(울릉도)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구름	1225042		속구름	명	는 먹구름.	그래 {속구름}. 속구름이다.		건학용(울릉도)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구름	1225043		먹구름	명	는 먹구름.	{먹구름이} 잦다 뭐 그래요.		강원도(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구름	1225044		흰구름	명	흰색 빛의 구름.	뭐 {흰구름}. 검은구름 구름은 구름도 여러 질 이지.		임기학(울릉도)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구름	1225045		구름할	명	구름의 기운, 형태를 가리키는 말. 이를 보 고 출항을 결정한다.	{구름할} 써는 바람이 불고 구름이 빨리 간다. 인제 구름할이 써다는.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1}에서와 동일하게 나타났 다.	임기학(울릉도)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구름	1225046		개다	동	는 뜨다.	맑은 구름이 {개다} 뭐 그런 소리 뿐이지. / 먹 구름이 {개다} 뭐 그래요.		건학용, 강원도(울릉도)		0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구름	1225047		천기를 보 다	관	구름의 기운을 살펴보고 바다에 나갈지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바람과 구름이 엇사함 에게 중요함을 말해주는 표현이다.	바람날 {천기를 본다는} 등 그래 말하는. / 아 니 먼저 바람에 따라 가주고 구름이 움직거리거 든.		건학용, 이경우(울릉도)		0		
1기초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5	안개	1225050		은해	명	아침에 안개와 같이 부엌개 끼는 것을 가리 키는 말.	어 {은해} 잦다 그래지.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안개'를 '우나, 우 무'로 나타냈다. '우무'는 비와 안 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등재되 었다.	이경우, 건학용(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번호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자	영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	기초어휘	1225	1225기타	122505	1225051	안개	명	우나를 달리 가리키는 말.	{안개}. 안개.		건축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25	1225기타	122505	1225052	우무	명	우나를 달리 가리키는 말.	에 켜다 그래요 {우무} 켜다.		이경우(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25	1225기타	122506	1225060	서리	명	기울에 아침에 하얗게 내린 것을 가리키는 말.	{서리}. 서리.	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서리(서래), 이슬 로. (2011)에서는 '서리, 서래, 이슬'로 나타났다. 이때 평해 오 는 것으로, 기울에 오는 것 은 서리로. (2011)에서는 '아침 에 이슬이 많이 내리면 앞바람이 분다'로 표현했다.				0	0
1	기초어휘	1225	1225기타	122507	1225070	무지개	명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 2011)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한 '무지개'가 나타났다.	건축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25	1225기타	122508	1225080	맑다	형	맑다.	{맑다}.	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맑다'가. (2011)에서는 '정당 하다, 날'보다도 나타났다.	건축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25	1225기타	122508	1225081	청량하다	형	맑다.	하늘이 {청량하다}. / 구름이 한 점 없는 기 하늘이 {청량하다}.	'맑다'와 함께 '청량하다, 맑다' 가 나타났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2010)에서는 표준어 형과 동일한 '맑다'가 나타났다.	이경우, 임기학(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25	1225기타	122508	1225082	별갈다	형	비와 바람이 오지 않는 맑은 날씨이다.	별. 하늘이 {별갈다}. 옛날 나~ 많은 노인들 보 면 하늘이 별~갈다.		건축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225	1225기타	122509	1225090	눈알다	형	눈다.	{눈알다} 그래. / {눈알나}. 하나도 없는 기 안.	울릉도의 제보자 중 한 명은 구 름이나 안개가 생긴 상태를 가리 켜기도 했다.	건축용, 임기학(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25	1225기타	122509	1225091	환하다	형	눈다.	{환하다}. 환하다.		건축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25	1225기타	122509	1225092	우중중중 하다	형	눈다.	{우중중중하다}. / {우중중중하다}. 그래 우중 중. 그래 그래.		강원도, 임기학(울릉도)			0	
1	기초어휘	1225	1225기타	122509	1225093	한바중이 다	형	눈다.	아 {한바중이다} 받중이다.		이경우(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음성 표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 정보 2	영단 정답 사자	영단 정답 음성	표준국어 어사자 등매어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9	1225094	바다	음란함	형	는 어둡다.	음란함		간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10	1225100	춥다	음란함	형	는 춥다.	음란함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춥다'의 표현으로 '춥다, 춥다, 쌀쌀하다, 시원다' 가, (2011)에서는 '쌀쌀하다'가 나타났다.	임기학(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10	1225101	춥다	음란함	형	는 따뜻하다.	음란함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형과 동일 한 '따뜻하다'가 나타났다.	간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1	1231010	동향	음란함	명	는 동쪽.	음란함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동향, 서향, 남향, '북향'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으로 나타냈다.	이경우(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1	1231011	동향	음란함	명	는 동쪽.	음란함	사전상의 의미와 차이가 있음.	임기학(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2	1231020	서향	음란함	명	는 서쪽.	음란함	(2011)에서는 '서쪽, 산쪽'이 나 타났다. 사전에 '서쪽'만 나타남.	간학용, 임기학(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2	1231021	서바다	음란함	명	는 서쪽, 서쪽을 말라 부르는 말이다.	음란함	필수 남았는데 똑같은 바다에 잡 았는데 그것도 인자 {서바다} 똑같이 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바다에서 잡아서 한 선단이 같은 바다에 가거든.	박봉식(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3	1231030	남향	음란함	명	는 남쪽.	음란함	(2011)에서는 '남쪽, 앞쪽'이 모 두 나타났다. 사전에 '남쪽'만 나 타남.	간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4	1231040	북향	음란함	명	는 북쪽.	음란함	(2011)에서는 '새쪽, 북쪽, 새기' 나타났다. 사전에 '새쪽'은 '동쪽' 의 의미로만 사용.	간학용, 임기학(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4	1231041	북바다	음란함	명	는 북쪽, 북쪽을 말라 부르는 말이다.	음란함	필수 남았는데 똑같은 바다에 잡 았는데 그것도 인자 {북바다} 똑같이 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바다에서 잡아서 한 선단이 같은 바다에 가거든.	박봉식(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4	1231042	새쪽	음란함	명	새쪽을 말라 가리키는 말.	음란함	새, 새, {새쪽에서} 부는 것을, 새쪽이라 하지 요. 새쪽, 새쪽, 북, 새쪽이 새쪽이지. (사전에는 '백사관'등의 말은, '동 쪽'을 이르는 말로 등재됨, 의미상 강조하지 않음.)	간학용(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도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역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	기초어휘	123경	1231방위	123105	1231050	동서향	명	동서향.	동서. {동서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 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2011)에 서는 동서, 동남, 동북, 서남 + 간으로 나타났다.				0	
1	기초어휘	123경	1231방위	123106	1231060	동남향	명	동남향.	{동남}.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 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0	0
1	기초어휘	123경	1231방위	123107	1231070	동북향	명	동북향.	{동북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 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0	0
1	기초어휘	123경	1231방위	123108	1231080	서남향	명	서남향.	{서남}.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 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전에 ' 서남간'도 등재됨.				0	0
1	기초어휘	123경	1231방위	123108	1231081	북남간	명	북서남향.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2)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 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북남'은 사전에 등재됨.				0	0
1	기초어휘	123경	1231방위	123109	1231090	서북향	명	서북향.	예. {서북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 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0	0
1	기초어휘	123경	1232바다	123201	1232010	먼바다	명	먼바다.	그간 {먼바다} 그래, 먼바다 / 이 밖 보통 한 년터시간 이렇게 년다시간씩 나가면은 아 오는 조금 멀리 가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위 줄이 뒤 {먼바다나} 뒤 아올디 그런 표현을 쓰고 그런 거는 우리 양시에는 오 했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 2011)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먼바다'가 나타났다. (2011)에서는 이 외에도 '먼바 다, 되게 나갔다'가 사용되기도 했다.				0	0
1	기초어휘	123경	1232바다	123201	1232011	저쪽바다	명	먼바다.	그런, 그런 말은 쓰지. {저쪽바다} 아쪽바다. 그 런 말.					0	
1	기초어휘	123경	1232바다	123201	1232012	중바다	명	쪽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를 가리키 는 말.	그냥 가예 가예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나간 가고 좀 어느 정도 떨어진 가는 저 {중바다}함 되겠다.					0	
1	기초어휘	123경	1232바다	123202	1232020	연안	명	연안.	예. 육간 안에 {연안} / 근해는 즉 앞해서 근해 하기를 취하게 되면 진국을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연안은 예~ 경복은 경복 {연 안밖에} 못 갑니다. 규정상, 강원도 강원도 워 이런 식으로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연안'을 '가, 앞바 다, 갯바다, 부락'으로 나타났다. (2011)에서도 '연안, 갯바다, 가, 앞바다'가 사용되었다.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모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사지	영단 정보 음성	표준국 어사지 음성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2	123201	연안	근해바다	명	늑 갯바다.	연안	근해바다라 하지. {근해바다}. / {근해바다} 그냥 앞애.	경영길은 근해는 멀리리면서 연바다를 가리킨다고 할하기도 정상권, 이경우(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2	123202	연안	연바다	명	늑 갯바다. 갯바다를 달리 부르는 말로 이 지역에서 꼭꼭게 사용되고 있었다.	연안	어. {연바다}.	이경우(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2	123203	연안	축항	명	축과 항을 결합시킨 의미로 항구를 가리키는 말.	축항	시중에 팔린 그 몇 천원이라. 나가는데. 경매에 나가는데. 내가 거 가가 구름포에는 임철 보는데가 시 군데다. 제일 저쪽 {축항} 쪽에 고터에 가면 어 허남아이라고 대통령표창 받았다는 그 쪽으로 해가 활어 임찰 보는 데라.	박봉식(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2	123204	연안	이쪽바다	명	이쪽 연안.	이쪽바다	그런 그런 앞은 쓰지. 저쪽바다 {이쪽바다}. 그런 앞.	견학용(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2	123205	연안	기새	명	늑 연안.	기새	어. {기새}. 절애. / {기새}.	견학용. 정상권(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2	123206	연안	가	명	늑 연안.	가	바다 {가죽애}. 어쨌든 간에 멀리 안 가고 가죽으로 연안쪽으로 목아가 들어. 돌아와가 마이 잡혀요.	박봉식(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2	123207	연안	땡땡가	명	연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위치를 가리키는 말.	땡땡가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은 여기서 바다 쪽에 모던 땅애 이렇게 오징어 잡는 배 보이죠. 아 저 배는 거애 있다. 땡 {땡땡가애} 있네. 그 거는 아주 가깝게 있다. 땡 땡땡가애 있다.	강영길(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3	123208	바닷물	바닷물	명	늑 짬물.	바닷물	어쨌든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땡물'이 나타난고, {2011}에서는 '간물, 짬물'이 함께 나타났다.	견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3	123203	바닷물	짬물	명	늑 짬물.	짬물	{짬물} 땡 이게 바닷물이지. 다 짬인데. / 바닷물 짬다. 짜다. 바다.	견학용, 이경우(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3	123202	바닷물	깁물	명	늑 짬물.	깁물	사자의 '깁'이나 '내'에서 '츨리드'는 '바닷물'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 등.	견학용(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4	123204	민물	깁물	명	늑 민물.	깁물	어쨌든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깁물'이 나타났다. 이 외에 '깁물'이 사용되기도 있다. '깁물'은 '물' 사전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물로 등재되었다. 의미 보완 필요. '깁물'의 반대 의미로 '짬물'.	이경우, 견학용(울릉도)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합	발음 정보 모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사지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
1	기초어휘	123공간	1232바다	123205	1232050	파도	파도	명	낙 파도.	{파도가} 썼다. 파도가 썼다.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파도, 파문으로, (2011)에서는 '파도'가 나타났다.			0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2바다	123205	1232051	너울성파도	너울성파도	명	파도가 치는 것을 가리키는 말. 크게 넘실거리는 파도를 일컫는다. 그러나 대부분 파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었다.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1)에서는 '영기, 영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래에는 '영기'와 '영개'가 나타났다.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2바다	123205	1232052	큰파도	큰파도	명	크고 둥글게 오는 파도를 부르는 말. 보통 첫바람이 불 때 많이 오는 말이다.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2바다	123205	1232053	작은파도	작은파도	명	갑작스럽게 작게 기를 게 오는 파도를 가리키는 말.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2바다	123205	1232054	영기	영기	명	깨물까뭇하게 오는 영기를 이르는 말.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을 때 주로 쓰인다.					0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2바다	123206	1232060	거품	거품	명	낙 파도.	마 {거품} कै아 된다. 예. 파도 치고 허영개 일어난다. 거품, 거품.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 2011)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거품'이, 또는 '파도가'가 나타났다. 사전상의 의미와는 차이가 클.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2바다	123207	1232070	너울	너울	명	낙 너울.	{너울}.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 2011)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너울'이 나타났다.			0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2바다	123207	1232071	너울파도	너울파도	명	낙 너울.	요개 {너울파도}.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2바다	123207	1232072	구무니	구무니	명	낙 너울.	{공남이가}. 공남이가. / {구무니}.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2바다	123208	1232080	배리다	배리다	동	낙 치다.	어 파도가 {배리다}.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배리다'가 나타났다. (2011)에서는 '너울너'가 나타났다.			0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2바다	123208	1232081	엎어쓰다	엎어쓰다	동	낙 치다.	파도가 {엎어쓰온다}.	엎지, 기루, 이불 외의 의미 확장. 이 필요함.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항목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암	발음 정보 표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 정보 사건	출전 정보 영역	표준어 등재여부
1	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09	넓다	1232090	관	바다	관	넓다. 넓은 바다와 같다는 의미이다.	{바다}	{바다}	건축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09	넓다	1232091	형	바다	형	바다.	{바다}	{바다}	건축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09	넓다	1232092	형	바다	형	바다.	{바다}	{바다}	건축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10	깊다	1232100	형	바다	형	바다.	{바다}	{바다}	건축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10	깊다	1232101	형	바다	형	바다.	{바다}	{바다}	건축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11	높다	1232110	형	바다	형	바다.	{바다}	{바다}	건축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11	높다	1232111	형	바다	형	바다.	{바다}	{바다}	건축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12	파다	1232120	형	바다	형	바다.	{바다}	{바다}	건축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13	파를	1232130	형	바다	형	바다.	{바다}	{바다}	건축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13	파를	1232131	형	바다	형	바다.	{바다}	{바다}	건축용(울릉도)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1	기초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라한	발음 표	음사정 표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지	영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어사지 등재여
1	기초어휘	123공간	1232배다	123214	하얏다	1232140	하얏다	형	하얏다.	하얏다. 흰눈과 같이 하얏다는 말이다.	{하얏}. 눈 색깔 희기 때문에 희지.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하얏다'가 '백설' 이다. 하얏단'로. (2011)에서는 하얏다'로 나타났다.	간학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2배다	123215	빠지다	1232150	빠지다	동	빠지다.	빠지다.	수심이 깊은 데 갔다. / 사람이 {빠졌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빠지다'는 '헐기' 다'로 나타났다.	간학용, 야경우(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3배안가	123301	모래	1233010	모래	명	모래.	모래.	{모래} 물개.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 2011)에서는 표준어와 동등한 '모래'가 나타났다.	간학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3배안가	123302	모래사장	1233020	모래밭	명	모래밭.	모래사장. 모래사장 말고 싸요. / {백사장}.	{백사장}. 모래사장 말고 싸요. / {백사장}.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모래사장'은 '모 래밭, 백사장, 자갈밭, 부락'으 로. (2011)에서는 '백사장'으로 나타났다.	간학용, 임기학(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3배안가	123302	모래사장	1233021	모래밭	명	모래밭.	백사장. {모래사장} 말고 싸요. / 백사장.	백사장. {모래사장} 말고 싸요. / 백사장.		간학용, 임기학(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3배안가	123303	갯벌	1233030	갯벌	명	갯벌.	갯벌.	{갯벌에} 뭐 잡으려 간다. 여 갯벌 없으니.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갯벌'은 '빨밭, 빨 배'로 나타났다. 사전에 '빨'은 ' '개흙 [「』'의 방언(경남, 전남) '으로 나타남.	간학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3배안가	123304	돌	1233040	돌너덜	명	작은 돌과 큰 돌이 남아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	작은 돌과 큰 돌이 남아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 돌이거든. 그 돌너덜이야. 너덜너덜하 이 이렇게 돌너덜.	이거 저거는 {돌너덜}. 돌이 자지 않은 돌이 굵 은 돌이거든. 그 돌너덜이야. 너덜너덜하 이 이렇게 돌너덜.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돌'은 '돌맹이' '로 나타났다.	간학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3배안가	123304	돌	1233041	잔자갈	명	작은 돌이 남아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	잔자갈.	발. {잔자갈'이라} 그러냐.		정상권(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4지형	123401	포구	1234010	축강	명	포구. '축'항'의 의미로 사용한다.	축강.	{축강}이 있잖아.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포구'가 나타났다.	임기학, 간학용(울릉도)	0	0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4지형	123402	항구	1234020	항구	명	항구.	항구.	{항구기} 있잖아. 천부항구. 울릉군 북면 천부 항 / {항구} 있잖아. 포매는 거 있어.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항구'가 나타났다.	간학용, 임기학(울릉도)	0	0	0	0
1	기초어휘	123공간	1234지형	123402	항구	1234021	백지리	명	백가 내리고 가는 곳을 가리키는 말.	백지리.	그 옛날에는 이 섬 전체가 전체가 다 그 포구 마다 동네마다. 그~속 말하자면 {백지리}. 백지 리라 가는 말하면은 요즘은 인자 항구를 말하 는 백이거든. 그러나 이 항. 백지리라 하는 거는 배 를 몰리는 자리란 말이야.		김성호(울릉도)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모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지	영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3	아귀	1234030	×	명	아귀.	그거는 죽강. {죽강아귀}.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아귀'는 '몬아귀', '죽강'으로 나타났다. '몬아귀'는 '몬'으로 나타났다. '죽강'은 '죽강'이라고 말했다.	죽강(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4	개	1234040	×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 제보자 질문 잘못 이 해한 답변으로 '할류'가 나타났 다.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5	곶	1234050	×	명	곶. 육지에서 튀어나온 곳을 '죽발'이라 고 했다.	곶 {죽발이라} 그러. 죽발, 죽발은 그 모가 막 튀어나왔다 이 말이라. / 육지에서 튀나왔다.		죽발(울릉도)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6	만	1234060	×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곶'을 '곶'으로 해워어른는 '곶대관, 가마골, 대 곶'으로 나타났다. (2010)에서는 '곶'으로 나타났다. 사전과 달리 정미사로 사용되지 않고 명사로 사용됨.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7	바위	1234070	×	명	바. 돌.	{바석} 바석.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바위'는 '바 돌'로 표현되고 있었고, 어휘어 로 (2010)에서는 '고그양돌, 칠 배기돌, 무덤, 갯양돌'이, (2011) 에서는 '죽대바위'가 나타났다.	죽대바위(울릉도)		0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7	바위	1234071		명	뽕죽하게 나온 바위.	아 {죽대바위라} 그러나.		죽대바위(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8	양반	1234080	×	명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 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9	남따리지	1234090		명	죽. 절벽.	{절벽}. 절벽이라고. 절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죽'은 '죽'이라고. '죽'은 '죽'이라고. '죽'은 '죽'이라고.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남따리지'는 '절 벽, 남따리지, 바위'가, (2011)에 서는 '절벽, 남따리지'가 나타났 다. '절벽'은 미등재이지만 '절벽' 은 등재됨.	남따리지(울릉도)		0	0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9	남따리지	1234091		명	죽. 남따리지.	{병치}. 병치.		남따리지(울릉도)		0		
1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9	남따리지	1234092		명	절벽을 달리 부르는 말.	절벽을 갖다 {병치라} 이라지.		남따리지(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도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성 등급	
1	기초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09	1234093	남따리지		명	절벽의 꼭대기 끝부분을 가리키는 말.	따라 가기는 가야 되는 너무 절벽 고티 자기 나 무가 이런 걸. 아이 그때는 너무 올라가. 꼭대기 나주로 말하면 아주 꼭대기에 서랑이 가면 가지 가 부러질 정도 되는 이런 자리를 {남낭고티}. 불뚝이 인어가 있는데 가지 부러질까봐 싶어 못 가겠다. 이런 옛날에는 통성으로 댜.	박봉석(울릉도)			0	
1	기초어휘	12환경	1234지형	123409	1234094	남낭고티	기	명	절벽의 꼭대기 끝부분을 가리키는 말. 남낭고티와 같은 말이다.	북은 인제 사월달 오월달 댜 불뚝라 카는 오 댜 간기 오른기 올지도 있는데 그걸 워라 하더라. '남' 부러순라 하먼가. 좌옹단과 댜 이래 그하고 댜 수한다 이러던가. 그래 활강개 워야 저 있어도 아 저 {남낭고티에} 마 불뚝가 활강이 개라 으로 워야가 있는데 같이 나가 온 가겠다.	박봉석(울릉도)		0		
1	기초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	1311010	대배리		명	늑 머리.	이래 {대배리라} 카는데, {고기대배리}. 영태 (2010)에서는 '머리'는 '대기라' 만 {대기라}가 따가. / {대갈배리}. 대갈배리. 댜.	건강용, 임기학(울릉도)		0		
1	기초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	1311020	고기야발		명	늑 입.	{고기야발이지}. 댜. 입이야.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입'이. (2011)에서는 '주디'가 나 타났다.	건강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	1311021	고기주디	입	명	늑 입.	예. 여 주. 중잉애. 보통 {고기주디}. / {입}. 입 이야.	건강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	1311022	양배리		명	입부분을 가리키는 말.	이것도 {양배리}가 큰 거 보니까네.	건강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	1311030	개기논개	논개리, 고기논개, 리	명	늑 눈.	보통 {고기논개}라 한다. {논개리}. 보통 {고기 논개리(머리)} 댜. 꼬. 꼬기. 꼬기논개라 하 지 댜. 꼬기는 카는 게 있나.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논'이. (2011)에서는 '논개리'가 나타났다.	건강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	1311040	등사등배		명	늑 등. 계보자에 따라 '등'을 나타내기도 하 고 '등의' 있는 배를 나타내기도 했다.	{등사등배} 카든 말지 댜.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등'은 '등다리'로, (2011)에서는 '등어'로 나타났 다. '등어'의 발음(경성). 사전에 는 '등어리'는 "등어"의 발음(강 원, 경남, 충청)로 나타남.	건강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	1311050	아갈지	아가미	명	늑 아가미. 다른 말로 '아갈지'로 표현하 고 한다.	{아갈지}.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 2011)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아가미'와 '아갈지'가 나 타났다. 사전에 '아가미'는 등재 됨.	건강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3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	1311051	고기뱃		명	늑 아가미.	고기 인지 {고기뱃이라} 하기도 하고. 뱃. 꼬기 뱃애로 그래 있거든. 꼬기뱃이라 카는 거 우리 옛날에 뱃을 아래 뱃매로 생가가 머리 아래 뱃 뱃혀있다고. 양. 양쪽에.	건강용(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번호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자	영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어사자 등재어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칭	131106	1311060	지느러미	영	늘개 늘개	예. {늘개}. {늘개미}. 고래도 늘개미지. 고래도 이래 머리 뿔. 뿔 때는 다.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지느러미'로, (2011)에서는 '제느러미, 지느러 미, 지느러미'로 나타났다. 어휘 자료 '등지느러미'가 나타났다. 사전에 '지느러미'만 나타난, '늘 개미'의 지역 확장 필요함.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칭	131106	1311061	지느러미	영	늘개	그 {늘개지} 어이가.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비늘'이, (2011)에서는 '나래'가 나타났다.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칭	131107	1311070	비늘	영	고기비늘	{비늘}. / {고기비늘}.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 2011)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비늘'이 나타났다.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칭	131108	1311080	갈집	영	갈집, 고 기갈집	{갈집}. / {갈집기}. / {고기갈집기라고}.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갈집'은 '갈집기' 로, (2011)에서는 '갈집기'가 나 타났다. '갈집기'의 방언(강원, 영남, 충북).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칭	131109	1311090	배	영	배	고기 {배따기라는} 말 써요.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배'로, (2011)에 서는 '뱃대기, 뱃따지'로 나타났 다.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칭	131110	1311100	창자	영	창자	고기 {창자}. 창지.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 2011)에서는 '창자'는 내 장, 창지'로 나타났다.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칭	131110	1311101	창대기	영	창자	{창대기도} 묵고 뭐 똥도 묵고.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칭	131111	1311110	x		x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뱃래'는 '뱃학, 뱃 래'로 나타났다.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칭	131112	1311120	살	영	살	배 말고 {살}, 살이지 뭐.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 2011)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살'이 나타났다.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칭	131113	1311130	알	영	알	아 고기 {알이지}.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 2011)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알'이 나타났다. '우렁의 알'은 '근'으로, '우렁의 알'은 '근' 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알'의 의 미하는 '난'은 등재되었다.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칭	131114	1311140	꼬리	영	꼬리	예. {꼬리}. / {꼬랑지}. {공지} 공지.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꼬리'는 '꼬대기' 로, (2011)에서는 '공지'로 나타 났다.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번호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자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1기본영 131물고기 물	131114	1311141	고리	명	느 꼬리, 또는 꼬리 부분에 있는 지느러미 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다.	{뒤날기}, 뒤 그네가 움직거리가 해엄쳐 나오는 기.		이경우(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1기본영 131물고기 물	131115	1311150	가시	명	느 가시.	{뺨} 밑고 살, 살이치 뒤, {뺨} 장'로 나타났다.		견학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1기본영 131물고기 물	131115	1311151	고기뺨다구	명	느 진뺨.	그 보통 {고기뺨다구라} 그러지.		견학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2종류 1312물고기	131201	1312010	물고기	명	느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		견학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2종류 1312물고기	131201	1312011	물고기	명	느 물고기.	예, {고기}, 고기도 쓰고.		이경우(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2종류 1312물고기	131202	1312020	물라치	명	느 물라치. 다른 말로 '매래치'로 표현하기도 했다.	예, {물라치}, 젓가치네, 젓갈이네. 여기 젓갈이 있네. / 어 맞아. {물라치} 것들..		견학용(울릉도) 정익선, 임기학(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2종류 1312물고기	131203	1312030	정어리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2종류 1312물고기	131204	1312040	갈치	명	느 갈치.	어는 {갈치} 안 나는데.		강원도(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2종류 1312물고기	131205	1312050	고등어	명	느 고등어.	{고등어} / {고등어} 아이가.		견학용, 정익선(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명	발음 정보 도	뜻풀이	종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영성 사전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			
1171	기초어휘	131	물고기	131206	1312060	가오리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가오리'로, 하위어 어로 '물가오리, 참가오리, 막가 오리, 간재비(간제미), 뽕따가오 리, 오동배기'가 나타났다. 이 중 '막가오리'는 사전에 '물가오리' 로 등재되었다. '오동배기'는 '나 베가오리'의 방언(표안)로 등재 되었다. (2011)에서는 '가오리' 로, 하위어로는 '간첩이, 오동배 기, 뽕이'가 나타났다.							
1172	기초어휘	131	물고기	131208	1312080	가자미	가자미, 가 제미, 가 자미	가자미, 이 지역에서는 '가삼'의 형태 외 에도 '가삼, 까자미, 가제미, 까제미'로 나 타나고 있었다.	{까제미}, {까제미네} / {까자미}, {까자미, 몇 기 지역 그자 까자미, 캐는 그 뽕이고 여러 가지와 미, 까제미'로, 하위어로 '이시가 리, 도다리'가 나타났다. (2011) 에서는 '가제미, 까제미, 가자미, 까자미'가 하위어로는 '물가제 미, 노란까제미, 미주구리, 뽕가 제미, 쟁배기, 도다리' 등이 나타 났다. '까제미'에 대한 지역 확장 이 필요함.		정약선, 건학용, 박봉식 (울릉도)	0	0	0	0			
1173	기초어휘	131	물고기	131208	1312081	납박치	납박치	가자미를 달리 가리키는 말, '납박하'는 모 양에서 연유한 말이다.	가자 보통 인자 {납박치리} 이라는데.		견학용(울릉도)			0				
1174	기초어휘	131	물고기	131208	1312082	납치	납치	가자미를 달리 가리키는 말, '납박하'는 모 양에서 연유한 말이다.	{납치}, '납박치, 납박치는 인제, 납치는 이거는 까제미'라고 그래 생겼지, 그거는 까제미 때문 그렇다고, 납치, 까제미를 납치로 카기도 하거 든.		견학용(울릉도)	0	0	0	0			
1175	기초어휘	131	물고기	131208	1312083	도다리	도다리	가자미를 달리 가리키는 말이다. 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광어 {도다리} 아주 뽕 /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가면은 그뽕 하는테도 우리고 고기도 가자미, 이 런 거고 {도다리} 카고 이래 안 나옴니까, 이 런 쪽으로 사투리를 써가면서 영어지는 게 있 는데 우리들 짚에는 그런 기 뽕도 없어요.		임기학, 박봉식(울릉도)	0	0	0	0			
1176	기초어휘	131	물고기	131209	1312090	명태	명태	명태.	명태, {명태굴이} 생겼는대.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명태'로, 하위어 로 '동태, 황태, 복어, 생태(생명 태)로, '노가리'는 '노가리(노가 래), 노가리새끼'로 나타났다. (2011)에서는 '명태, 뽕태'로 하 위어로는 '동태, 황태, 노가리, 복어, 쫄노가리, 쫄태, 뽕노가리' 등이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명태'항에서 다룬다. (2011) 을 살펴보면, '노가리'는 등재되었 고, '노가래'는 등재되지 않았다.				0	0	0	0
1177	기초어휘	131	물고기	131210	1312100	동태	동태	동태.	명, 얼은 명태지, 얼은 명태지, 아는 것도 동. 동, 동상 되어 아~니까 여름에 안 올거든, / 뽕 동, {동태}, / {동태지}.		견학용, 임기학, 이경우 (울릉도)			0	0	0		
1178	기초어휘	131	물고기	131211	1312110	황태	황태	황태.	종태, {황태}, / {황}, 대태.		강원도, 임기학(울릉도)			0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음린항	발음 정보 모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2	노가리	노가리	명	늑 노가리. 영태 새끼를 말한다.	{노가리}. / {노가리}. / 작은 건 {노가리}.		간행도, 정익선, 임기학(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3	복어	복어	명	늑 복어.	{복어}는 복는 거 빠가 하는 거 크기 복어지.	제보자는 '마른영태'와 '복어'가 다른 것임을 밝혔다. '복어'는 쫓아진 것을, '마른영태'는 원 상태의 것을 가리킨다.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3	마른영태	마른영태	명	영태가 마른 상태를 가리키는 말.	위 영태. 마른. {마른영태} 그러다.		건축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4	생태	생태	명	늑 생태.	그거는 {생태} 이야기. 예. 생태. 살았으니까 생태.		임기학(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4	춘태	춘태	명	봄에 잠하는 영태를 가리키는 말.	{춘태} 봄에 나는 춘태. 봄. 봄 춘치. / 봄에 나는 기지.	사전에 어형은 있으나 의미 차이가 있음.	건축용, 정성권(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4	동태	동태	명	겨울에 나는 영태를 가리키는 말.	동. {동태}. / 동상에 나이 {동태}.	동태의 의미는 두 가지로 '겨울에 나는 영태. 물린 영태'를 가리키는 말로 나타났다. 사전에는 '물린 영태'만을 나타냄.	건축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4	중태	중태	명	중간 크기의 영태.	{중태}. 중태. 중. 중. 가운데 중자 중. / {중태} 그렇지.		건축용, 임기학(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4	대태	대태	명	가장 크기까 큰 영태.	큰 거는 {대태}.		임기학(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5	조구	조구	명	늑 조구.	{조구리} 그러니. / {조구} 조구 워네.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조기'는 '조기(조구)'로, 하위어로 '수조구, 고이 배로'가, (2011)에서는 '조구, 조구기'가, 하위어로는 '영정조기'가 나타났다.	건축원도, 건축용(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5	×	×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6	×	×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굴비'가 나타났다. (2011)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6	굴비	굴비	명	늑 굴치.	{굴치} 종류 없어요. / {학공치} 있기에 있지.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굴치, 신미(신마이)'로, (2011)에서는 '굴치, 하곤치, 시어리'가 나타났다.	건축용, 정익선(울릉도)		0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7	굴치	학공치	명	늑 학공치.	{학공치}는 조리가 빠른 거. / 그래 빠랏.	사전에 '학공치'는 등재됨.	정성권, 임기학(울릉도)		0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음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영성 사지	영단 정보 영성 사지	표준국어 어휘 등재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7	1312172	공치	사어리	명	ㅅ	학공치.				0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7	1312173	공치	홍당가지 없는 개장 사리	관		관치는 장은 것은 횡인데 파는 것은 횡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종인 없는 개를 파는 것과 유사하다는 말이다.	그래 이 사람들이 밤 새도록 장어와 기지고 외 서 판다가 없잖아. 이 사함을 그냥 착오. 그 여 의미이다. 그래서 종인 없는 개를 파는 것. 개를~ 졸고 있 이 그날 불강가. 판다 카는 게. 아면 왜 그리 아 면 말전도 안 들어고 개가 갈거리에 있는 걸 판 다. 이만 찾아졌쥬.	김성호(울릉도)		0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8	1312180	복어	복치	명 복어, 복 두, 복찌, 명 복		복치는 장은 것은 횡인데 파는 것은 횡다 는 의미이다. 그래서 종인 없는 개를 파는 것과 유사하다는 말이다.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복, 복어'로, 하여 이로는 '론복, 정복, 장복(장복 어), 말복, 비단복, 갯복, 줄복' 으로 나타났다. (2011)에서는 ' 복, 복어'로, 하여어로는 '정복, 말복, 노란복, 홍복, 까치복'이 나타났다. '장복'은 '지주복'의 변형(개조)으로 통재되었지만 다 른 의미임. '복어'는 등재됨.	정상권, 정익선(울릉도)		0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8	1312181	복어	장복찌	명		장복어를 달리 이르는 말. 장복 또는 홍복 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장복은 등이 거친 개골복을 말한다.	개장까칠한 개장복찌 있고 {장복찌} 있고 그걸 지 / {장복} 있고, / 장, {장복} 있어요. 장복도 장복은 등재됨.	정상권, 건학용, 원기학 (울릉도)		0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8	1312182	복어	말복	명		색이 누른빛을 내는 복.	{말복은} 없다. / {말복은} 있소.			0	0	0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8	1312183	복어	개칠복찌	명		복어의 표면이 개칠까칠한 복을 가리키는 말.	개칠까칠한 {개칠복찌} 있고 장복찌 있고 그걸 지.	정상권(울릉도)		0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8	1312185	복어	가시복지	명		장은 청색을 띤 밑술에 표면에 가시가 돋아 난 복어를 가리키는 말.	가시복은 등재됨. 가시복은 등재됨.	정익선(울릉도)		0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9	1312190	고래	고래	명	ㅅ	고래.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고래'로, 돈마 (2011)에서는 '고래, 곰새기, 큰 북리고래'가 나타났다.	정상권, 건학용(울릉도)		0	0	0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9	1312191	고래	곰새기	명	ㅅ	돌고래.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종류	131219	1312192	고래	귀상어	명		상어의 종류 중 귀가 큰 상어를 가리키는 말.	{귀상어글네}. / 아이 마 {상어네}. 상어.	건학용, 정상권(울릉도)		0	0	0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0	1312200	상어	상어	명	ㅅ	상어.	그거가. 저자. 그거 글네 {상어글네. }	정익선(울릉도)		0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0	상어	1312201	백상어	명	상어 중에 그 빛깔이 흰 것을 가리키는 말. {백상어}.					0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0	상어	1312202	개상어	명	먹을 수는 있으나 그 크기가 작은 상어. 많이 먹지는 않는다고 한다.	{개상어라고} 포매한 건대 먹는 상연대.				0	0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1	넙치	1312210	광어	명 넙치	넙치. 넙적하다는 말에서 나온 가자미로 {광어} 도다리 인구 뭐 광어를 가리킨다.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넙치'는 '광어, 넙' 일기화(울릉도)로. (2011)에서는 '광어'가 나타났다.		0		0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2	바다장어	1312220	장어	명	넙. 장어.	{장어처럼} 고기 꼬불꼬불하다고 / 썩. 저 고 배가 비슷한 것으로 '뽕드랑치'가 나타났다. (2011)에서는 아니라고. 바닷뱀장어, 바닷장어가 나타났다.				0	0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2	바다장어	1312221	장뱀이	명	넙. 뱀장어. 주로 제주도 지역에서 나는 것으로 뱀 미꾸라지와 비슷하다. 주로 동해에서 사는 뱀과 닮은 것을 가리킨다. 길이가 긴 뱀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것도 {장뱀이}가? 아인데? 울릉도에 이런 게 없네. / {장뱀이} 이이다.	장어를 뽕라 돌 뽕에 주로 사는 해지동물인 '장뱀'으로 대답한 것임.			0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3	도미	1312230	돔	명 넙. 도미.		그것도 {돔갈노}.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도미'는 '돔'으로, '아귀어'로 '장돔, 뽕돔, 갈장돔, 흑돔, 칠돔'이 나타났다.			0	0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3	도미	1312231	장돔	명 넙. 장돔.	{장돔} 장돔 / {장돔} 있고 뭐.		이경우, 권학영(울릉도)			0	0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3	도미	1312232	흑돔	명	흑색의 돔을 가리키는 말.	뭐 {흑돔} 있고.	권학영(울릉도)			0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3	도미	1312233	돔돔	명	돔처럼 어둡고 단단한 생김을 지닌 돔.	그거를 {돔돔} 어린 걸 여기선 뽕치.	강영길(울릉도)			0	0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3	도미	1312234	뽕치	명	돔돔 중에 어린 것을 가리키는 말. 그 생긴 모습이 연장과 닮았다는 의미이다.	예. 어린 걸, 어린 걸 인제 거기 뽕치라 그래. 뽕치. 커도 그걸 {뽕치라} 그러는데 이게 학영으로 뽕돔이라 하니까 인제 그걸 뽕돔으로 불러지게 된 거요.	강영길(울릉도)		0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3	도미	1312235	칠돔	명	몸에 일곱 개의 줄이 있는 돔.	줄이 개 일곱 개가 있다. 해서. 올. 내가 앙기를 과거에 가 뭐 {칠돔}. 뭐 그날개-부르고 뽕치라고 부르고 근대 인제 최근에 외서는 인제.	강영길(울릉도)		0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3	도미	1312236	노란돔	명	노란색의 돔을 가리키는 말.	또 뭐 {노란돔} 있고.	권학영(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음사정 도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사자	영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어사자 등재어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4	1312240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요 올릉도 나지도 안~ 한 병어는 뭐 해 보아.		정익선(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5	1312250	도루묵	도루묵	도루묵	영어	도루묵, '돌매기, 도루매기, 돌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도루매기네}, 도루매기, / {도루묵}, 도루매기(2010)에서는 '도루묵'은 '돌매기, 도루매기, 돌묵'으로, (2011)에서는 '도루묵, 도루매기'가 나타났다. 사전에 '도루묵'만 나타났다.		정익선, 장원도(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6	1312260	임연수어	새치	영어	영어	영어	{새치} 그래 거 이면수라, 같은 어 그런 밑은 {새치} 이면에서 잡, 그래 저가 나가가 이들을 이면 수라고 지었고 보통 우리 딴 데는 새치 새치 이라거든.		견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6	1312261	영어	새치	영어	영어	새치 이면수의 새끼를 가리키는 말, 새치의 상반의 율의 크기의 고기이다. 즉, 큰 것은 새치로, 작은 것은 가리새이로 지칭한다.	{새치} 새치라, 카는 인자 {이면수라} 카는 거는 지 이면에서 잡, 그래 저가 나가가 이들을 이면 수라고 지었고 보통 우리 딴 데는 새치 새치 이라거든.		견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6	1312262	영어	이면수	영어	영어	영어	고등어 큰 기 있고 작은 기 있고 그거 삼치는 다 중었지, 이거는, 고등어도 큰 기 많지, 아래 큰 거도 있고 {새치} 이만한 거도 있고 삼치는 뭐래.		정익선(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8	1312280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영어'는 '영어, 아 주로, 하위어로 오유월명어, 오 어름방어'가 나타났다. 오유월 명어 게도 안 먹는 거 누가 먹노 라는 표현이 있다. 새끼를 '아주'로 지칭하고 있었다. (2011)에 서는 '영어'로, 하위어로는 '마래 미, 볼방어, 어름방어'가 나타났다.		견학용(울릉도)	0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8	1312281	사백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견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8	1312282	가을방어	가을방어	영어	영어	가을철에 나는 영어.	인자 가을 {가을방어}.		견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8	1312283	어름방어	어름방어	영어	영어	어름철에 나는 영어를 가리키는 말, 이때 나오는 영어는 속에 물레가 생겨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어름방어도}, 어름방어도 맛이 없어.		견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8	1312284	어름방어	어름방어	영어	영어	어름철에 나는 영어는 속에 물레가 생겨 먹지 못하고 한다.	{어름방어도}, 어름방어도 맛이 없어. / 맛은 없어도 독어오.		견학용, 이경우(울릉도)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라한	발음 정확 도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 정보 2	영단 정확 성 비고	영단 정확 성 비고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90	옥돌	옥돌	명	돌의 종류 중 하나. 깎지 않은 돌을 가리키는 말.	옥, 옥돌이다. {옥돌} / {옥} 있다고. / 예. 옥이 어디 있는 거지.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옥'이 나타나고, (2011)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91	옥돌	옥돌	명	돌의 종류 중 하나. 깎지 않은 돌을 가리키는 말.	아니야 이거 {코돌이지} 쏘다지. 코돌 아니까?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옥'이 나타나고, (2011)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300	전갱이	x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전갱이'가 나타나고, (2011)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310	전어	망치	명	전어. 전어 사전을 보고 '망치'라고 했다는 전설이 있다.	오 있어야. 오 돌돌도는 더 많이 나오. {망치}. 볼 수 있잖아. 오.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음사정 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영성 사건	영단 정보 영성 등미언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5	1312351	취치	남막치	명		취치를 가리키는 말. 남막한 모양의 취치를 나타낸 말이다.	고개는 이름은 우리가 {남막치라고} 짓지.		간학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6	1312360	민어	x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제보자가 '민어'를 '대구'로, '대구'는 '큰대구'로 알았다. 이는 사진 자료의 문제로도 보여진다.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7	1312370	대구	대구	명		남 대구.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제보자가 '민어'를 '대구'로, '대구'는 '큰대구'로 알았다. 이는 사진 자료의 문제로도 보여진다. (2011)에서는 대구로, 하위어로는 '마래이, 양배이'대구'로 나타났다.		간학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7	1312371	대구	늘래기	명		늘 늘래기.	울릉도 선장, 짝자기, 적도구라고 하기도 하고 그 밑 위 쪽에서 부르는 노래미라는 거 있다 여기서서 {늘래기라} 그러고. 뭐 그 밑 거의 다 같은.		경영갈(울릉도)			0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3상태	131301	1313010	없다	해비다	형		늘 없다.	보통 그 고기 다 할 때 크면 {해빈} 것보다 싫다 이런 소리도 주창 많이 하지 뭐. / 싫 싫다.		정약선, 경원도(울릉도)			0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3상태	131302	1313020	쫄다	쫄쫄다	동		늘 쫄쫄하다. 다른 말로 '살 쫄다, 동동하다, 통통하다'라고도 한다.	보통 그 고기 다 할 때 크면 해빈 것보다 {살 쫄다} 이런 소리도 주창 많이 하지 뭐. / {살 쫄다}.		정약선, 경원도(울릉도)			0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중류	131302	1313021	쫄다	동동하다	형		늘 쫄다. 다른 말로 '쫄다, 작다, 전전하다'라고도 한다.	{동동하니}.		간학용(울릉도)			0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중류	131302	1313022	쫄다	오도동하다	형		통통하다. 살이 찐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쫄. 그래서 양식전복은 살이 {오도동하}이 그렇지만 여기는 살이 굉장히 얇으면서 여기는 조금 인자. 이 보, 부식물으론 여기 인자. 살 게릴 쪽에 오게. 파우며은 진맛이 나고 있지. 그 참조. 이 양식전복같은 거는 이왕 물려져두고 그통지만.		경성호(울릉도)			0
1	기초어휘	131물고기	1312중류	131302	1313023	쫄다	쫄다	형		크기가 작다. 크기가 작은 오징어는 저장오징어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오징은 고기가 많이 {잡아잡기} 있는 상태고 그래서 만오징새만 팔릴정도. 그 지어 쫄매기 되는데. 지금 오징어 많이 잡아졌어. 안 좋은 건 아닌데 오징어가 {잡기} 때문에, 팔아서 저장 못한다.		경성호(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3상태	131306	1313065		상해부리 다	형	능 상하다.		쿠셨다. 그거 저 까무터부쓰. {상해부렀다} 하 단지 그러아서. 쿠사. 일본말을 웃다 씨.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3상태	131307	1313070	짜르다	짜르다	동	능 짜르다.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짜르다'는 '젤르' 다?가 나타났다.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3상태	131307	1313071	불고리하 다	불고리하 다	형	불은 빛이 나다.	{불고리한}.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 청	132101	1321010	쟁대기	쟁대기	영	조개의 껍 표면을 가리키는 말.	{쟁대기} 뭐냐고. / 이를 {쟁대기} 뭐. 쟁대 기 저 이름 또 있냐.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쟁대기'는 '쟁대기'. {쟁대기}는 '쟁대기'로 나타났고, 쟁대 기 쟁대기'의 방언(강원, 경남, 충북).으로 사전에 나타나 지역 확장 필요하다.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 청	132102	1321020	x	x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임'은 '아가리'로 로 나타났다.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 청	132103	1321030	x	x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아가미'는 '아가 미. 아갈지'로 나타났다. 사전에 '아가미'만 등재됨.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 청	132104	1321040	x	x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 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 청	132105	1321050	x	x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내장'은 '장자, 내 장'으로 나타났다.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 청	132106	1321060	x	x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조개관자'는 '임, 임방구'로 나타났다.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 청	132107	1321070	x	x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조개}'말은 '하 새'로 나타났다. '임'은 사전에 등 재되었으나 '새'는 없음.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2종류	1322종류	132201	1322010	조개	조개	명	능 조개.	{조개} 쟁대기 카지.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조개'로만 나타났 다.?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2	1322020	소라	소라	명	길고 뾰족한 모양의 껍뎡이를 가리키는 말.	고동네. 고동. 고디 카는 어. {소라} 카는 거 '새'말이고. / 어, 고디. {소라}. 소라는 아니고. '뾰이' 나타났다.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소라'가. {2011}에서는 '소리진 뾰이' 나타났다.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2	1322021	등그란고 디	등그란고 디	명	작고 매끈한 껍뎡이를 가리키는 말.	{등그란고디터} 이름은 뭐가 잘 생각 안 난다.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도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3	고동	1322030 1고동	고동	고디	낚는 굴패이.	{고동이네}. 고동. {고디} 카는 여, 소라 카는 거 왜말이고. / 어 {고디}. 소라, 소라는 아니 고.	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고동을 '고동(고 디)로, 아귀어로 '바치고동', '벌 고디(벌고동)'가 나타났다. '고동' 은 사전에 등재되었으나 '고디' 는 없음.	건학옹, 임기학(울릉도)	0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3	고동	1322031	기고디	명	고동 안에 게가 들어있는 고동을 가리키는 말.	인애 기 들었는 건 {기고디를} 얘기하나.	이경우(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3	고동	1322032	사말고디	명	갈고 가는 고동을 가리키는 말.	{사말고디}. 외 본토 외 자 마에 안 나나. 고디 여도 마. / {사말고디}.	임기학, 정성권(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3	고동	1322033	벌싸고디	명	살았을 때 매운 맛이 나는 고동을 가리키는 말.	오거 가치고 우리 {벌싸고디라고} 했어요. / {벌싸고디단타} 안에 드가서 사는 기는 뭐냐 이 기라. 이름이 뭐냐 이기라. / 무슨 {벌싸고디 라}.	건학옹, 임기학(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3	고동	1322034	열합	명	낚는 총합.	{열합}. 열합 매로 그런 거.	사전에는 "총합"의 발인(경남) '으로 등재됨. 지역 확장이 필요 함.	이경우(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3	고동	1322035	독도총합	명	독도에서만 나는 총합을 가리키는 말.	한때는 많았는데 그게 막 비싸고 귀해지니까 그 저 막깨비가 고갈돼 뿔렸어. 그때는 우리 우리 어기 하나 건반이 있는가. 우리 {독도총합은} 영정 쳐요.	강영길(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3	고동	1322036	막깨비	명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것 중 하나로 바위 에 막 붙어 있것 모양을 지닌 조개류의 하나 나. 원래 전래판만 소개하였는데 지금은 오징 장과와 함께 이 지역 토속 음식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거는 늦게. 그거는 늦게 이제 총합만이 이제 이렇게 인기가 있고 하니까 자꾸 그런 게 생키 는 거죠. 그래서 {막깨비는} 원래 밥을 해먹은 게 아니고 자거는 죽을 끓여먹었어.	강영길(울릉도)		0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4	전복	1322040	전복	명	낚는 전복.	거 {전복은} 어예 아니. 묵아라.	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전복'이 나타났다. 아귀어로는 ' 오판자기'가 있다.	정익선(울릉도)	0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4	전복	1322041	참전복	명	전복 중 먹을 수 있는 전복. 좋다는 의미를 지닌다.	전복은 뭐 참미역 {참전복} 있고 이런 건 우리 못 들어왔어. 그냥 전복 그러면은 단말종으로 그렇게 불렀었고.	김형수(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4	전복	1322042	양식전복	명	전복 중 양식으로 재배한 것을 가리키는 말.	복. 그래. 그래서 양식전복은 실이 오동통하이 그렇지만 어기는 실이 굉장히 얇으면서 어기는 주로 인자 이 보. 보신용으로 어기 인자 상계탕 쪽에. 오래 고우면은 진맛이 나고 인자. 그렇죠 이 {양식전복같은} 거는 아참 물려져부고 그들 지만.	김성호(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1	기초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영성	영단 정보 영성 등기어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4	전복	1322043	울릉도전복	명	울릉도에서 나는 전복. 자연산으로 다른 지역보다 맛이 아릅답고 크기가 크다. 주로 끓은 곳에 산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뭐 그거 하이튼 울릉도전복이다. 이라는데 {울릉도전복이} 굉장히 이름이요, 인지 막막하지. 좀 다른 거 양식 잡는 거 무르지만 굉장히 아릅답니다. 아물고 그래서 인지 그런 물결이 세기 때문에 이 전복이 자체적으로 자기 그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하디 뽀니까 살이 좀 굉장히 얇아요. 양동 많이 하면 살아지.		김성호(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4	전복	1322044	우찌로도 는 나무에 전복이 열 린다	관	울릉도에서 이전에 전복이 많았던 시기를 나타낸 표현이다. 이 시기에는 바다나무에 전복이 달려 아이들도 쉽게 전복을 주를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때 당시에는 울릉도를 일본말로 우찌로도라 나니까 우찌로도라 이라는데, 여기서 {우찌로도 는 나무에 전복이 열린다}이었어.	김성호(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4	전복	1322045	굴	명	느 굴. '굴'로도 많이 사용된다.	{굴} 아이가 굴 말제. 여 전복 있잖아. 울릉도.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굴'로 발음하기도 했다.	이경우(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6	고막	1322060	x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고막'이 나타났다.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3상태	132301	동그렇다	1323010	불방하다	동그렇다, 형	느 동그렇다.	{불방하지}. / {동그렇지}. 뭐.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동그렇다'는 동그리하다'로 나타났다.	이경우, 장익선(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3상태	132302	길쭉하다	1323020	지다	형	느 길쭉하다. 다른 말로 '쭉쭉하다, 뻘쭉하다'라고도 한다.	{쭉 {지지}. 쭉 {지지}.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길쭉하다'는 '쭉쭉하다, 기랄다, 기다름하다'로 나타났다.	이경우(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3상태	132302	길쭉하다	1323021	쭉쭉하다	형	느 쭉쭉하다.	예, {쭉쭉하지}. {쭉쭉하다} 그러지.		건학용(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3상태	132302	길쭉하다	1323022	기다	형	느 길다.	쭉 {기다}.		이경우(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3상태	132302	길쭉하다	1323023	뻘쭉하다	형	기늘고 뻘쭉하다.	쭉쭉하다 쓰기도 하고 {뻘쭉하다} 쓰기도 하고.		건학용, 이경우(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3개	1331부분명 형	133101	집게발	1331010	달구지	명	느 집게발. 다른 말로 '기발, 찜개다리, 잉발이, 웅발'로도 사용된다.	영덕대편대 그거 인지 포항이나 구룡포나 같은데 (2010)에서는 '집게발'은 '잉발, 기발, 찜개다리, 잉발이, 웅발'로 나타났다. 이때 아디 부분들 '아내 스구 꼬몬'에 전에 갈 때 구룡포가 게 잉찰로 나타났다. 이때 아디 부분들 '아오는데 한 {달구지} 뚝어진 거 이런 거 안 있나'은 사전에 등재되었다.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집게발'은 '잉발, 기발, 찜개다리, 잉발이, 웅발'로 나타났다. 이때 아디 부분들 '아내 스구 꼬몬'에 전에 갈 때 구룡포가 게 잉찰로 나타났다. 이때 아디 부분들 '아오는데 한 {달구지} 뚝어진 거 이런 거 안 있나'은 사전에 등재되었다.	박봉식(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3개	1331부분명 중	133101	집게발	1331011	기이합	명	느 마디.	{기이합이네}. 이합. / {발}이 뚝이 왔나. 조디. / {다리} 다리 아래 굽으며.	건학용, 장익선, 영기학 (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건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
1기초어휘	13어휘물	133개	1331부분명칭	133102	등락지	1331020		등어리, 등더리	능 등락지. 다른 말로 '등어리, 등더리'로도 사용된다.	{기둥어리라}, 하면 되지. 하하하. / 게. {게막지} 아이가. 막지. {등더리고}.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등락지'는 '따가리, 깔질, 등관질, 꺾타기'로 나타났다. 사전에 '막지'는 방언(경남)으로 등재되었다. 이때의 의미는 성적의 관질을 의미해 다른 의미(아무로 의미 보완 필요하다. '깔질', '등관질'은 등재되었다.					0
1기초어휘	13어휘물	133개	1331부분명칭	133103	배	1331030	x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배'는 표준어와 동일한 배가 나타났다.					
1기초어휘	13어휘물	133개	1331부분명칭	133104	내장	1331040	기장	명	능 내장.	{기장}.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내장'은 '개장'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어종과는 다른 의미임.	정상권(울릉도)				0
1기초어휘	13어휘물	133개	1331부분명칭	133105	심장	1331050	x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심장'은 '개알'로 나타났다. 철두를 잘못 이해한 방법으로 보인다.					
1기초어휘	13어휘물	133개	1331부분명칭	133106	살	1331060	살	명	능 살.	{살고기}. 살코기 튀니오지. {살이} 튀니오지. / 다리 다리 아래 곁으며.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살'은 '속살, 살기'로 나타났다.	정악선, 임기학(울릉도)				0
1기초어휘	13어휘물	133개	1331부분명칭	133107	눈	1331070	눈	명	능 눈.	{눈하고} 입하고 말리가 있네. 한테 옆에 붙어 가 있네.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눈'이 나타났다.	정악선(울릉도)				0
1기초어휘	13어휘물	133개	1331부분명칭	133108	입	1331081	기조디	명	능 입.	기. {기조디클네}. 기. 기. 기. 기. 아빨이네. 이 빨. / {기조디가} 아이고.		견학용, 정상권(울릉도)				0
1기초어휘	13어휘물	133개	1332종류	133201	게	1332010	게	명	능 게.	{기} 기. 아빨이네. 아빨. / 밥을 띠가 원나. 조 디. {게}. 게 막지 아이가. 막지. 등더리고.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게'는 '기'로 하 위어로 '기름배이(기고동), 밀게, 꽃게, 황게, 대게, 민물기, 용디 게, 참게'가 나타났다. 이 중 '민 물게'는 참게'의 북한어로 사전 에 등재되었다.	견학용, 정악선(울릉도)		0	0	0
1기초어휘	13어휘물	133개	1332종류	133201	게	1332011	돌새기	명	바위 위에서 살고 기어 다니는 게.	없 기지 없어. / 몇 기지 여 두 한 두~ 두가지 뿐이지 심은데. 저 바다에 나는 돌새기 있고 또 자갈. 자갈 밑에서 나는 기 있고. 자갈 들새만은 자갈기. 자갈 고개 나는 그거.		견학용, 임기학(울릉도)				0
1기초어휘	13어휘물	133개	1332종류	133201	게	1332012	자갈기	명	바위 위에서 살고 기어 다니는 게.	없 기지 없어. / 몇 기지 여 두 한 두~ 두가지 뿐이지 심은데. 저 바다에 나는 돌새기 있고 또 자갈. 자갈 밑에서 나는 기 있고. 자갈 들새만은 자갈기. 자갈 고개 나는 그거.		견학용, 임기학(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보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역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3		털개	털개	명	늑, 털개.		{털개라} 하지 뭐.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4		×	×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5		영덕기	영덕기	명	늑, 대개.		이거 {영덕기네} 이거.	정성권<lt영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51			큰기	명	늑, 대개. 둘새 {큰기고}, / 아니 기 여러 짝이거든. 기 인자 먹는 기가 있고 못 먹는 기가 있는데 그거 저 바. 버다가 있긴 있어. 외 고 돌 들썬만 기 안 나. 장기 안 나오느고 돌 들썬만 돌 건물에 돌 들썬만 빨간 거 그냥 많이 나오잖는 교.		정익선, 임기학<영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52			총기	명	늑, 뱀개.		뽕고리 뽕거리, {총기} 총기라.	건학웅<영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53			꽃개	명	늑개를 달리 가리키는 말.		본토서도 가오는 게, {꽃개라고} 이러. 반찬 해 먹는.	임기학<영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60			참기	명	늑, 참개		아니 기 여러 짝이거든. 기 인자 먹는 기가 있고 못 먹는 기가 있는데 그거 저 바. 버다가 있긴 있어. 외 고 돌 들썬만 기 안 나. {참기} 안 나 오느고. 돌 들썬만 돌 건물에 돌 들썬만 빨간 거 그냥 많이 나오잖는 교.	임기학<영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1341010		미역	명	늑, 미역.		{미역} 아이가.	정익선<영릉도>	0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1341011		이파리	명	미역의 잎부분을 가리키는 말.		꼬타리 마고 위에 {이파리} 보고 알려잖아. / 이파리, 잎이라.	정익선, 임기학<영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1341012		잎	명	미역의 잎부분을 가리키는 말.		이파리, {잎이라}.	임기학<영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1341013		꼬타리	명	미역을 양식할 때, 미역이 붙어 자라도록 만든 밧. 생긴 모양이 꼬불꼬불하다고 해서 뽕구타리라고 한다. 다른 밧으로 '밭, 미역밭' 이라고도 한다.		{꼬타리}, {미역꼬타리} 아이가? 꼬타리도 하 <구타리도> 하고, / 그거를 {미역꼬타리} 하 고 '뽕기'도 했다. '꼬타리'는 구의 구, < 밧> 과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꼬 타리는 꼬들꼬들하다는 점에서 연유했다.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1341014		불거지	명	늑, 불거.		미역 미역 {불거리}, / 미역 {불기}.	건학웅, 임기학<영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1341015		불거지	명	늑, 뿌리.		돌, {불거지거} 돌에 박혔으니 돌미역.	건학웅<영릉도>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항목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라한	발음 정보	음사정 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영사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	
기초어휘	13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미역	1341016		귀다리	명		미역을 양식할 때, 미역이 붙어 자라도록 만든 밧, 생긴 모양이 꼬불꼬불하다고 해서, {귀다리}라고도 한다. 귀 부분에 위치하는 미역의 부분이다.	{귀다리} 귀는 거라, 귀다리, 기다리는 아이라, / {귀다리}가 {나나 꼬다리라, / {다리}가 붙어서 붙었는 거.	간학용, 정익선(울릉도)			0			
기초어휘	13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미역	1341018		참미역	명		능 참미역.	전복은 뭐 {참미역}, 참전복 있고 이런 건 올라 못 들어왔어, 그냥 전복 그러던은 단물종으로 그렇게 붙었었고.	김형수(울릉도)			0	0	0	
기초어휘	13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미역	1341020		지네발미역	명		절벽 위 바위에서 자라는 미역으로 미역발, 미역은 거의 한 가지죠. 한 가지데, 인자 거, 의 모양이 지네의 발과 유사한 미역, 붙어{지네발미역이} 있고 그냥 미역이 있는데 지네 발 아니가지 못해 거가 좋지 못한 미역이, 발미역은 줄기만 이렇게 크고 밑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김성호(울릉도)				0			
기초어휘	13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미역	1341021		돌미역	명		능 돌미역.	여기 다 {돌미역이지} 뭐워.		정익선(울릉도)			0		
기초어휘	13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미역	1341022		미역초	명		돌릉도 지역의 밧에서 재배되는 나뭇잎의 잎 중.	옛날에 과거에는 산재가 뭐 일손도 많고 하지만 지금 현재 농촌에 전부 정은 사라져서 농가에 나야 많은 줄여머니 인자 노인들만 사시는 데, 농사는 {미역초같은} 거, 부지깥이 같은 거 마이 짓는단 말이라.	김성호(울릉도)			0			
기초어휘	13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미역	1341023		분꽃줄물하다	형		그 모양이 가늘고 길어 폭이 좁다.	줄기가 북쪽에 하나 있고 가새 잎이 쪼매나야 {분꽃줄물하야} 지네모양으로, 이렇게 잎이 적고 줄기만, 거의 대부분으로 되어있는 거라.	박봉식(울릉도)			0			
기초어휘	13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미역	1341024		분꽃하다	형		미역잎의 색이 노란빛이 쪼다.	예에, 그냥 있는 미역은 요런 식으로 줄기가 있으면 잎이 재밌 {분꽃하야}.	박봉식(울릉도)			0	0	0	
기초어휘	13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미역	1341025		개무리하다	형		연하게 쪼다.	{개무리하할} 때.		임기학(울릉도)			0		
기초어휘	13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미역	1341026		남떡남떡하다	형		그 모양새가 크고 넓다.	도박은 그거는 {남떡남떡하야} 전부 남떡한테.		간학용(울릉도)			0		
기초어휘	13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미역	1341027		노르르하다	형		은은하게 노랗다.	늘, 늘, {노르르라한} 거, 노른 색, / 마저반이 나, 돌이나 색깔은 비슷해. 똑같애.		간학용, 정익선(울릉도)			0		0
기초어휘	13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미역	1341028		분꽃하다	형		쪼게 쪼다.	예, 대왕이라고 있어, {분꽃한} 거 있어.		임기학(울릉도)			0	0	0
기초어휘	13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미역	1341029		분꽃하다	형		은은하게 쪼다.	{분꽃하하}.		정성권(울릉도)			0		
기초어휘	13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미역	1341030		분꽃하다	형		은은하게 쪼다.	그게 인제 색깔이거, 색이 인자 보통 거서 마 감은 거 {분꽃라한} 거 색깔이 하마 나가, 꼬다 거, 뒤에 이제 서기가 하는 서기가 넘어가면 전부 녹아쪼고 색, 색이 변해쪼고.		간학용(울릉도)			0		
기초어휘	13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2	김	1341020		김	명		능 김.	여, {김} 나요.		임기학(울릉도)			0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기초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번호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건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2	1341021	강	명	기에서 주르 나는 강의 일종. 돌바위에서 쏟은 강을 말한다.	{돌라}. 파도 세면은 강이 돌아가.		임가학(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3	1431030	강태	명	는 강피. 강태말	다른 지역에서는 저 대항과 비슷한 게 제주도나 가면 그레 {강태라} 그레 강태 강태라고 그러 는데 단 강태와 대항이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저 는 이 대항은 식용으로~ 사육을 할 수 있고 제 수도 강태는 거의 이 거를 '보마로' 많이 쓰요. 육지에서 나는 거는 인제 대항이 아니고 강피 카는 게 나지 않습니까. 육지 {강피} 카는 거를 었어요?	강영길, 박봉석(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4	1341040	파래	명	는 파래. 파래	{파래네} 파래. / 그거 {파래는} 여기 잘 안 나 와.	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파래'도, 어휘어로 '장파래, 장 대, 실파래, 왕파래'가 나타났다.	간학용, 임가학(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5	1341050	모자반	명	는 모자반. '모자반'으로도 나타나고 있었 다. 겨울철에 나는 것으로 반찬으로 무쳐 먹거나 밥 위에 써서 먹기도 한다.	모래처럼 생기는 그거 작진한. 여기는 그 {모자 반같은} 거 많이 없어. 육지는 있어도. / 들매로 생겼다 거. 마. {모자반} 카는데 마자반.	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모자반'은 '모자 반'으로도 나타났다.	정익선, 견학용(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6	1341060	뚝	명	는 뚝. 뚝	{뚝도} 모르겔고.	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뚝'은 '토시, 뚝, '뚝나물'로 나타났다. 이 중 '토 시, 뚝나물'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견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7	1341070	우뚝가사리	명	는 우뚝가사리. 다른 말로 '우뚝가사리, 천 초'로도 표현했다.	이거는 {천초네}. / {우뚝가사리}. 우뚝가사리 라 카기도 하고. {우뚝}. 요게 우뚝가사리랑, '우뚝가사리'는 사전에 등재되었 다.	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우뚝가사리'는 ' '우뚝가사리', '우뚝가사리, 천초', 견학용(울릉도) '우뚝'로 나타났다. 이 중 '우뚝' '우뚝가사리'는 사전에 등재되었 다.	견학용(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7	1341071	우뚝가사 리	명	는 우뚝가사리. 우뚝가사 리	그게 인제 천초를 말하면 {우뚝가사리라는} 게 는 뚝새 기새 나고 천초라 카는 건 바닷물 속에 나고. {우뚝}. 요게 우뚝가사리랑.	견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7	1341072	돌피	명	천초를 말리 부르는 말. 다른 제모자는 천 초라 이래. 그 땅에 대항을 어빈 때 돌음도 서민 들이 옛날에 부를 때 돌, 강피라 이러더라고. 강 피. {강피} 그라는 말을 쓰데. 옛날에 어를들 은?	천초를 가지고. 그 바다에 있을 때 부르는 건 천 초라 이래. 그 땅에 대항을 어빈 때 돌음도 서민 들이 옛날에 부를 때 돌, 강피라 이러더라고. 강 피. {강피} 그라는 말을 쓰데. 옛날에 어를들 은?	견학용(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7	1341073	우뚝가사리	명	우뚝는 명칭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외에도 이 지역에서 꼬아먹는 육을 의미하 기도 했다.	가. 인자 {우뚝} 카는 거 해가 뚝는데 우뚝가사 리도 우뚝해가 뚝고 천초도 우뚝해가 뚝고.	견학용(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8	1341080	뽕가사리	명	는 해초. 뽕가사리	{뽕가사리} 그 뜯어가. / {뽕가사리} 뜯가사리. 그거 로 나타났다. 뽕만 사전에 등재 되었다.	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뽕가사리'는 '뽕' 로 나타났다. 뽕만 사전에 등재 되었다.	임가학, 견학용(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분류	종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운 형태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지	영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어사지 음성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41종류	134109	도박	1341090	도박	무른 빛을 내는 해초. 예전에는 삶아서 먹 기도 했지만 지금은 도해물의 재료로 사용 한다. 식용의 유무에 따라 '참도박, 개도박' 으로 구분되었다.	{도박은} 그거는 남쪽면역하이 전부 남쪽면대 (2010)에서는 '도박'은 '도박'은 '도박'으 로, 하위어로 '참도박, 개도박'이 나타났다. 하지.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도박'은 '도박'은 '도박'으 로, 하위어로 '참도박, 개도박'이 나타났다. 하지.			0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41종류	134109	도박	1341091	참도박	먹을 수 있는 도박.	도박이 거 {참도박} 개도박 뭐 이래서 하이튼 저가 알기론 도, 도박이 한 너머 가지 될 거 같 애요.				0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41종류	134109	도박	1341092	개도박	먹을 수 없는 도박.	도박이 거 참도박 {개도박} 뭐 이래서 하이튼 저가 알기론 도, 도박이 한 너머 가지 될 거 같 애요.				0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42상태	134201	바래다	1342010	바래부다	햇빛에 말려 색이 변한 것을 가리킨다.	그게 인해 색깔이, 색이 인자 보를 가서 마 랑 어 색깔이 하마 나가, 넘다, (2010)에서는 '바래' 뒤에 이제 시기가 하는 시기가 넘어가면 전부 넘어두고 색, 색이 {바래부고}.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바래다'는 '바래다'는 '바래' 다, 바래다'로 나타났다. 사전에 '바래다'는 등재됨.			0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42상태	134202	간피다	1342020	색태가 바 뀌다	미역을 햇빛에 말린다.	{색태가 바뀐다}. 그거는 바가 오고 뭐 이러은 남색이 총으려은 건조가 잘 되고 바가 안개, 피고 바가 오면은 잘 안 돼. 잘 안 말리고, 색태 바는 등재됨.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바뀌다'는 '바뀌다'는 '바' 뀌다, 바뀐다'로 나타났다. 사전에 '색 바는' 등재됨.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42상태	134202	간피다	1342021	색태 까다	누 간피다.	그거는 바가 오고 뭐 이러은 남색이 총으려은 건조가 잘 되고 바가 안개, 피고 바가 오면은 잘 안 돼. 잘 안 말리고, {색태 까다}.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42상태	134202	간피다	1342022	색이 변해 부다	누 간피다.	그게 인해 색깔이, 색이 인자 보를 가서 마 랑 어 색깔이 하마 나가, 넘다, 뒤 에 이제 시기가 하는 시기가 넘어가면 전부 넘어두고 색, {색이 바래부고}.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42상태	134202	간피다	1342023	본 피다	누 간피다.	그거 {본 피다} 그래, / 밋어, {본 피다} 밋어.		정익선, 임기학(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42상태	134202	간피다	1342024	감피다	누 간피다.	본 피다 해도 되고 {감피다} 해도 되고. 사전에 '간피다'는 등재됨.	사전에 '간피다'는 등재됨.	임기학(울릉도)		0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1	가복	1351010	가복(이)	누 가복.	{가복} 흡사하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원하' '가복'이 나타났다. 다른 표현으 로 '거복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임기학(울릉도)		0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20	오징어	누 오징어.	조기, 조기, / {오징어(굴네)}, 원래 울릉도가 오 징어, 이까'로, 하위어로 '미까, 아 기까, 사탕이까, 장이까'가 나타 났다. 사전에 '오징어'는 등재됨.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오징어'는 '오징' 어, 이까'로, 하위어로 '미까, 아 기까, 사탕이까, 장이까'가 나타 났다. 사전에 '오징어'는 등재됨.	임기학, 간학용(울릉도)	0	0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21	이까	누 오징어.	조기, 조기, 이까, {이까}, / 오징어(굴네).		임기학, 간학용(울릉도)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말	발음 정보	음사정 보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22	조기	명	능	오징어, 오징어 중 한자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조기, {조기}, 이까 이까, / 오징어 끝네.			0	0	
1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23	수루매	명	능	수루매.	{수루매는} 일본말이고 {수매고}, 수, 수매고.			0	0	
1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24	한치	명	능	오징어와 비슷한 어종으로 오징어 중에서 작은 것을 가리키는 말.	에, 같은 종류라도 생긴 거 다 같으리다. 조기하고 오징어, / 조기가 육지서 {한치라} 한다.					0
1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25	갈오징어	명	능	갈오징어.	{갈오징어는} 고기 자체가 틀리잖아. 종류가 틀리잖아. / 종지가 종류가.				0	0
1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26	굵은오징어	명	능	오징어와 비슷한 어종으로 오징어 중에서 크고 굵은 것을 가리키는 말.	큰 거는 큰 거라. 작은 거는 작은 거라. 잔, 잔기라 그리고 굵은 {굵은 기라} 그리고, 잔오징어 {굵은오징어}.				0	
1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27	잔오징어	명	능	오징어와 비슷한 어종으로 오징어 중에서 작은 것을 가리키는 말.	큰 거는 큰 거라. 작은 거는 작은 거라. 잔, 잔기라 그리고 굵은 {굵은 기라} 그리고, {잔오징어} {굵은오징어}.				0	
1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28	간오징어	명	능	마른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오징어의 마른 상태에 따라 '상물, 미간조오징어(피대기), 잔오징어'로 나누었다.	뭐 키로 쓴 거. 그래서 그걸 저장오징어하고, '오줌 찰는 거는 오징어 찰는 거 도작기가 찰는 거는 전부다 아~ 저걸 {건오징}, 저 저 저 미간조 해가지고 피대기로.				0	0
1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29	겨울오징어	명	능	겨울에 잡히는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도작기'라고도 한다.	에, {겨울오징어는} 항상 그렇습니다. '겨울오징어'라고 저 북해도 무거트예 그러니까, 인자 그래, '도작기'라 하면 마 그냥 겨울오징어로 그러합니다.				0	
1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30	넙오징어	명	능	넙에 잡히는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그렇지요. 그래 저 대벌에 쪽으로 내려가면은 {넙오징어}, '넙오징어'를 잡는데 거는 뭐 시오 삼메다까지 뜯는 것도 있어요. 따가지고 팔~가이. 그때는 조상기 내렸다 하면은 양창시리 외오, 노아이 마.				0	
1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31	노작기	명	능	오징어 종류 중 하나로 도작기를 달리 부르는 말. 겨울오징어를 말한다.	오징어, 그래 저 대벌에 쪽으로 내려가면은 {넙오징어}, '넙오징어'를 잡는데 거는 뭐 시오 삼메다까지 뜯는 것도 있어요. 따가지고 팔~가이. 그때는 조상기 내렸다 하면은 양창시리 외오, 노아이 마.				0	
1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32	대표알	명	능	대표알과 비슷하게 생긴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한치, 한치, 대, 대표 {대표알} 카는 거도 있고, 대표알 카는 기 그기 또 인자 초기라 그러는데, {대표알} 카는 거 이가는 별거아~ 이만해오, '대표알'이 생겼어, 그것도 인자, 귀기 크고, 그기가, 편정히 카오, 이라도 이만올한 게, 그것도 인자, 한치 비슷하게 붉은색으로 마이 띠면서, 굵, 굵조?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도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 정보 2	음성 정보 도 사자	음성 정보 영역 등재어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33	오징어	명	가을에 잡히는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겨울오징어'라고도 한다. '박봉식'은 '오징어'는 성 수면에서 잡는 오징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34	오징어	명	가을에 잡히는 '오징어'를 말라 부르는 말. 이 시기에 오징어를 잡는 행위를 통칭하던 '오징어'라고 한다.	그거 인지 겨울에 오징기 카는 긴데 오징기 등 정바리. 아기 인지 오징기 카마요. 주로 {동성 오징어인데} 오징기 카데. 보통 오징기 인지 뭐 다 졌다 이래 쓰고. 지금도 오징기 다 졌다 이래 씁습니다. 그게 동성바리. 겨울로 친다.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35	오징어	명	살이 두껍고 먹물을 많이 지닌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먹물이 많다는 의미에서 '먹물'이라고 불려진다.	올릉도에서 잡히는 거 살오징어인데. 그 밑에 {먹물} 카는 기. 그것도 영 오징어때니까. 먹물은 좀 살이 두껍고. 막~ 먹물 그물을 많이 잡죠. 그래서 먹물.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36	오징어	명	살이 얇고 물이 많아 뒷발 또는 뒷가리자로 사용되는 오징어. 말리지 않은 생오징어를 일컫는 말. '박봉식'은 금방 잡아온 물이 있는 '살'과 '살'의 오징어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릉도에서 잡히는 거 살오징어인데. 그 밑에 {먹물} 카는 기. 그것도 영 오징어때니까. 먹물은 좀 살이 두껍고. 막~ 먹물 그물을 많이 잡죠. 그래서 먹물.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37	오징어	명	살이 연하고 얇고 먹물 부분이 많은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박봉식'은 금방 잡아온 물이 있는 '살'과 '살'의 오징어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릉도에서 잡히는 거 살오징어인데. 그 밑에 {먹물} 카는 기. 그것도 영 오징어때니까. 먹물은 좀 살이 두껍고. 막~ 먹물 그물을 많이 잡죠. 그래서 먹물.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38	오징어	명	살이 있는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생고기와, {생오징어} 박스바리하고 팔아려고 팔을 보는 데 그쪽으로. 종간에게 개하고 그들 바리 해가 고기같은 잡어 같은 거 종간에게고. 포리 거 조선 쪽 있는데 그쪽에는 아기 인지 선 망오징어지.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39	오징어	명	선망 즉 그물로 잡은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그래 {선망오징어는} 입찰 보는데 올릉도메로 인 그리고 이 패찰이 하인 거로까 다 있는데 착 상 이런 거 놔두고 입찰 가는 한두 상지가 아니 고 수 백 거구.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40	오징어	명	오징어를 조기라고도 하는데 이때 수컷을 가리키는 말.	{수조기}가 인자 크고 알조기는 썩니다. 수조기는 커요. 이만큼 커요. 사오십센치.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41	오징어	명	아침에 잡은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잠은 깊고 있다. {아사이찌} 중 포대 잠아가 물러지 얼마 되지 않아 물러 상태 그대로 죽는 것을 뜻한다.	오를 늦기는 저 배가 이야기 하는데. 요이찌 뜻이고 있다. {아사이찌} 중 포대 잠아가 물러지고. 해가 중전에 있는데 물러고 양카 빠니까네. 모아가 빠리니까네. 모아가 물어 붙었는데 썩어 가 담을 시간도 없이 잠신없거든요.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42	오징어	명	오징어를 조기라고도 하는데 이때 암컷을 가리키는 말. 암을 가지고 있는 오징어라는 의미이다.	{수조기}가 인자 크고 {알조기}는 썩니다. 수조기는 커요. 이만큼 커요. 사오십센치.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1	기초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	음의 정확도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2	음의 정확도 사전	음의 정확도 영단어 영어 음성 듣기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43	오징어	영치	명	오징어 중 작은 것을 가리키는 말.	아주 작아 작은 게 요란 가는 아 지 {영치} 올라와 다 아래. 영치.		김형수(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44	오징어	여름오징 어	명	여름에 잡는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여름오징어는} 대부분 멀리 가면 갈 때는 지 독도에서 그 성까지 카는 데가 있습니다. 저 두 에까지 가고 막 이렇게.		박봉식(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45	오징어	요이찌	명	잔뜩에 잡는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주란 할 새를 떠다. 요이찌는 아사이찌의 정반대고. 가적으로 매인다고 한다. 이는 오징어 색 갈도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늦거든 저 배가 이기기 하는데. {요이찌} 못 잡고 있다가 아사이찌 송 포때 경기가 올라 고. 해가 중점에 없는데 올라고 양카 빼니까네 모이가 뿔리니까네 모이가 들어 붙었는데 짜 가 담을 시간도 없이 정신없거든요.		박봉식(울릉도)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46	오징어	저장오징 어	명	당일 잡았지만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오징어. 주로 생이 두꺼운 오징어가 나는 음~ {저장오징어는} 보통 한 음력 시월달, 구월 달 10월에 잡는 오징어가 저장오징어로 용될 수 있다.	고기는 인자 그 시기가 시월달. 양력 시월달 해 서 십이월까지 고기가 썤 없이 날 때 인자 그 지 장오징어가 있고 그중에 바로 잡아서 바로 해 달~ {저장오징어는} 보통 한 음력 시월달, 구월 달에서 시월달에 저장해서 매년 간 인자 몇 달 간 어장을 해가지고 예~ 이 숙성을 오징어 말 하면 숙성을 시켜서 이제 위판을 하고 판매를 하죠.		김성호(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47	오징어	중치	명	중간 크기의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오징어 큰 기 있고 대가 있고 중. {중치} 있고 소가 있지.		임기학(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48	오징어	초등	명	초등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자정한 오징어, 요런 게 나는 초등. 청 나는 오 징어. 초등. {초등}. 청 나는 기가든 초등 오징 어가 주로 오월 말에서 육월 초에 잡니다.		박봉식(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49	오징어	초등오징 어	명	사월 또는 오월에 가장 먼저 나는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초물, 초등'이라고 도 한다. 처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 거 없고 볼에는 안 나니까네. 없고. 여름오 징어가 여름오징어가 아니고 {초등오징어}. 초 등 초등. 청 청 나는 기가든 여름 때. 청 나 중에 인제 이걸 참고로 해가요. 내년 한 오월 중에 해가 바다에 가가 아래 노면에. 활어배라 든지 대구나 서늘이나 어머튼지 가가 아래 노면 확장 있는 데 가보면 오징어 자란한 거 오 칼 활어만한 거에. 저 보세요. 저렇게 많습니 다. 그래가 인자.		박봉식(울릉도)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2	1351050	오징어	초물	명	초등오징어'를 가리키는 말.	예. 청 나는 걸 초등이입니까. 초등이 {초물} 뭐 초등. 청 나는 거 이기 여름에 나다가 볼등 오징 어는 적어도 시월중. 시월 초부터. 가가 그것도 인자 심일월 초까지. 시월 말까지. 인자 구월 시 월 말쯤 되면 시월심일월쯤 중물 되겠다.		박봉식(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1	기초어휘 항목	기초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음시정 도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건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51	피동어꼴 누기		명		오징어를 멀리 부르는 말.	오징어는 이거는, 우리가 오징어를 이기 인자 이 원래는 이걸 {피동어꼴누기라}, 피동어꼴누 기라 그러지 썬데.		강영권(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52	잔오징어		명		오징어와 비슷한 어종으로 오징어 중에서 작은 것을 가리키는 말.	큰 거는 큰 거라, 작은 거는 작은 거라, 잔, 잔 기라 그러고 굵은 굵은 기라 그러고, {잔오징 어} 굵은오징어.		권학용(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53	한작기		명		한작기를 멀리 부르는 말. 이와 유사한 말 로 '조물'이 있다.	죽은오징어 뭐 그냥 그때는 통상 날 때니까 뭐 그 보통 보면 이러거든. 많이 날 때 보면 한작기 이다. 이래. {한올이다}, 이러거든. 시월달에 오징 어 뭐 올올도는 한작기가 시월달 아이가 어렸 는데 한작기.		박봉식(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54	한작기		명		오징어가 한창 많이 나는월에 잡히는 오징 어를 가리키는 말.	거울에, 인제 성 안에, 성도자, 예를 들어서요. 도작기, 성 안에 바짝 붙었다는 걸 도작기라, 뒤 를 {한작기라} 카는 거는 오징어 인제 한참 마 이 날 때 한작기.		김성호(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55	오징어가 없다		관		셋바람 불면 오징어가 작게 나니 작업을 하 라. 기도 많이 잘지 못한다는 말을 비유적으 로 한 것이다. '셋바람 부는데 별 아침에 작 다'도 같은 의미이다.	작은 아니, 날, 밤, 평소엔 날아라도 좀 작게 난다 이러지, 근데 야 올 저녁 많이 나더라도 예 {오징어}가 텅다. 이 셋바람 부는데 날 아침에 작다, 뭐 텅트지 안 맞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박봉식(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3	해파리	1351030	해피		명		는 해파리.	어른 생활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해파리'는 '해피' 로 나타났다. 사전에 '해피'는 ' '해파리'의 방언(경남, 함남)로 등재됨, 지역 확정이 필요함.		임기학, 권학용(울릉도)	0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3	해파리	1351031	해파리		명		는 해파리.	해피도 보면 이래 인자 큰 기 있거든. 이래 큰 게 있고, / 그게 {해파리} 저거 해파리 저게, 독 이 있는 기 있고 또 없는 기 있다고, 독이 있는 거는 어데 문데는 데 거기 얹아가 예를 들어가 지고 다~보거나 그러거나 하면 큰알 난다고.		임기학, 정익선(울릉도)	0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3	해파리	1351032	작은해피		명		크기가 작고 아직 덜 자란 해파리를 가리키는 는 말, 흰 색을 띠고 있다.	큰 거 있고 {작은해피}, / 그래 하은 되지, 큰 거는 큰해피라 하고 작은 거는 {작은해피라} 하고		임기학(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3	해파리	1351033	큰해피		명		해파리의 머리 부분이 크고 몸이 큰 것을 가리키는 말.	그래 하은 되지, 큰 거는 {큰해피라} 하고 작은 거는 작은해피라 하고		정익선(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기초어휘 분류 번호	기초어휘 항목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 표기	음의 표기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 2	출전정보1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역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4	1351040	낱지	명	낱지.	낱지.	{낱지}. / 여거는 없어.	{낱지}. / 여거는 없어.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낱지'가 나타났다.		영기학, 청약선(울릉도)	0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5	1351050	문어	명	문어.	문어.	아이다. 그거 {문어고}. / {문어}. {문어}. 문 어. / {문어} 보다. 그래 하지. 문어만.	아이다. 그거 {문어고}. / {문어}. {문어}. 문 어. / {문어} 보다. 그래 하지. 문어만.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문어가 나타났다. 사전에 '문어' 는 '문어이(文魚)'의 방언(강원, 경남)'로 등재됨. 지역 확장이 필 요함.		영기학, 청약선(울릉도)	0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5	1351051	어름에 (문 어) 장으면 개도 안 먹 는다	관	문어는 어름에 먹으면 맛이 없다는 말을 배 유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동네 개도 먹 지 않으니 먹지 마라는 의미이다.	문어는 어름에 먹으면 맛이 없다는 말을 배 유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동네 개도 먹 지 않으니 먹지 마라는 의미이다.	{어름에 장으면 개도 안 먹는다. 이 말이시 다. / 맛없다 말이지.	{어름에 장으면 개도 안 먹는다. 이 말이시 다. / 맛없다 말이지.			강원도, 청약선(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5	1351052	문어	명	문어는 어름에 먹으면 맛이 없다는 말을 배 유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동네 개도 먹 지 않으니 먹지 마라는 의미이다.	문어는 어름에 먹으면 맛이 없다는 말을 배 유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동네 개도 먹 지 않으니 먹지 마라는 의미이다.	{문어} 여름 장으면 개도 안 먹는다. 유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동네 개도 먹 지 않으니 먹지 마라는 의미이다.	{문어} 여름 장으면 개도 안 먹는다. 유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동네 개도 먹 지 않으니 먹지 마라는 의미이다.			영기학, 청약선(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5	1351053	물문어	명	물이 많아 상을 때 흐물흐물해지는 문어를 가리키는 말.	물이 많아 상을 때 흐물흐물해지는 문어를 가리키는 말.	참문어 아니냐. {물문어}고. 이고.	참문어 아니냐. {물문어}고. 이고.			강원도(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5	1351054	참문어	명	무르지 않고 참진 문어를 가리키는 말.	무르지 않고 참진 문어를 가리키는 말.	와 저 그거 큰 거는 뭐고. 물문어 {참문어}. 아 이다. 물문어하고.	와 저 그거 큰 거는 뭐고. 물문어 {참문어}. 아 이다. 물문어하고.			영기학(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5	1351055	물문어	명	단단한 문어를 가리키는 말.	단단한 문어를 가리키는 말.	그 문어는 똑같은 종류가 애 {물문어}고 물 문어.	그 문어는 똑같은 종류가 애 {물문어}고 물 문어.			영기학(울릉도)	0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5	1351056	큰문어	명	크기가 큰 문어를 가리키는 말.	크기가 큰 문어를 가리키는 말.	{큰문어}라 하지 뭐. 큰 거라 하지.	{큰문어}라 하지 뭐. 큰 거라 하지.			청약선(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5	1351057	숫거	명	문어의 수컷을 가리키는 말.	문어의 수컷을 가리키는 말.	문어가 저저 {숫거는} 골티가 아주 뽕뽕하고 뽕뽕하다고. 하기사 개종 보는 건데.	문어가 저저 {숫거는} 골티가 아주 뽕뽕하고 뽕뽕하다고. 하기사 개종 보는 건데.			청약선(울릉도)	0			
1기초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5	1351058	왕거	명	문어의 암컷을 가리키는 말.	문어의 암컷을 가리키는 말.	그어 숫거는? {왕거는}? 난 그런 거 모른게다 라. / {왕거는} 아-를 가지기 때문에 대번 포 나지. 암거하고 불리지. 불래고 숫거는 하마. 저 저 다라 고대거.	그어 숫거는? {왕거는}? 난 그런 거 모른게다 라. / {왕거는} 아-를 가지기 때문에 대번 포 나지. 암거하고 불리지. 불래고 숫거는 하마. 저 저 다라 고대거.			영기학, 청약선(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기초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도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역	표준국어 어휘 등록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5	1351059	문어	뱃대기	명	문어의 배 부분을 가리키는 말.	{뱃대기} 거기 아-를 가지고 있는 거 보면 허 반 포가 난다고.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5	1351060	문어	달구지	명	문어의 다리를 가리키는 말.	달. {달구지애} 붙었다. / {다리에}.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5	1351061	문어	몸띠	명	문어의 몸 부분을 가리키는 말.	예. 다. 지 {몸띠} 다 물어먹는다고.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5	1351062	문어	대빠리	명	문어의 머리 부분을 가리키는 말.	문에 저러면 우야노 하반 굽은 농 잔 기 아래 있 는데 잔 남이 굽은 농 {대빠리애} 먼저 올라가 는 기라.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5	1351063	문어	두갈	명	문어의 머리 부분을 가리키는 말.	머리 머리를 {두갈이라} 하는데. 문어 머리만.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6	1351060	괘뚜기	꼭디기 괘뚜기	명	늘 괘뚜기.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괘뚜기'가 '괘뚜 기, 호래기, 호루래기'로 나타났 다. 이 중 '괘뚜기'는 사전에 등 재되었다.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7	1351070	해상	해상	명	늘 해상.	{해상}. 나지 않아 나지. {백상은} 없어.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해상'은 '해상'의 로, 하위어로 '물해상'이 나타났 다.			0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7	1351071	해상	백상	명	흰색 빛을 띠는 해상을 가리키는 말.	{백상은} 없어.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7	1351072	해상	홍상	명	붉은 빛을 띠는 해상을 가리키는 말.	{홍상이} 있고. / {홍상}.	이 지역에서는 해상을 잘 잔지 있음을 'ㅁ1 우리들은 해상 잘 인 장기 때문에 이 해상에 대해선 위 별로 그래 관심을 잘 모르면 '내 제보자의 말로 알 수 있다.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7	1351073	해상	형상	명	청색 빛을 띠는 해상을 가리키는 말.	홍상인데, 흑상 청상은 같이 들어갑니다. 푸른 푸른 색깔이 나는 거는 {형상이고} 흑상은 깨 만 긴데 그거는 같이 들어가.				0	0	
1	기초어휘	130어휘물	1351종류	135107	1351074	해상	흑상	명	검은 해상을 가리키는 말.	{흑상이} 있고. / 이게 백라 그 {흑상이라}.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기초어휘 항목	기초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음운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건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사건 등재여
1171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7	해상	1351075	명		나무처럼 물이 막막한 해상을 가리키는 말. 주로 붉은 색을 띠며 조화요리에 사용된다.	고 악간 뿔 뿔으면서 광장히 물이 막막하면서라 성이 좀 더 나은 걸 {나무해상}. 크기도 크고 해상도 인자 이 흥해상 맨주로 그러면서 인제 색깔이 인제 흥해상이라. 흥해상이 인제 흥해상 보다 연하다. 좀 연하죠. 흥해상은 좀 아물. 아 물고.	김성호(울릉도)			0		
1172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7	해상	1351076	명		붉은 색을 띠는 해상.	흥해상이. 오가는 화산지역밖에 안 나요. 제주 도 구도 안들지. 울릉도, 울릉도 거의 흥해상이 지.	김성호(울릉도)	0	0			
1173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7	해상	1351077	명		갈은 색을 띠는 해상.	고 악간 뿔 뿔으면서 광장히 물이 막막하면서라 성이 좀 더 나은 걸 나무해상. 크기도 크고 {흥 해상도} 인자 이 흥해상 맨주로 그러면서 인제 색깔이 인제 흥해상이라. 흥해상이 인제 흥해상 보다 연하다. 좀 연하죠. 흥해상은 좀 아물. 아 물고.	김성호(울릉도)			0	0	
1174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8	망게	1351080	명		늑 망게. 다른 말로 '물망치'. 망게물멍치라. 고도 한다.	{망게} 울릉도, 울릉도 여기 어디다 있는데 안 편다 없다. 여기. 안 편다.	정익선(울릉도)			0	0	
1175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9	성게	1351090	명		늑 성게.	{성게} / {왕장구}. 성게를 말하고 옛날에는 왕장구. 왕장구.	정익선, 임기학(울릉도)			0	0	
1176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9	성게	1351091	명		성게의 종류중 하나로 갖바디에서 나는 노 란 것을 가리키는 말.	이름 붙이 개만성게가 요새 나는 게 개만성게가 있고 {노란성게}가 있거든. 작은 게 노란 성게 인데. 그거 포매난 건데 많이 많이 차. 저가 일별 수출 많이 하거든. 요새 좀 육지 가면 규룡포 그 런 데 가면 요새 수출을 많이 한다. 포매난 거.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하거든. 지금.	정익선(울릉도)			0		
1177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09	성게	1351092	명		갈은 빛이 나는 성게.	이름 붙이 {개만성게}가 요새 나는 게 개만성 게가 있고 노란성게가 있거든. 작은 게 노란 성 게인데. 그거 포매난 건데 많이 많이 차. 저가 일 별 수출 많이 하거든. 요새 좀 육지 가면 규룡포 그런 데 가면 요새 수출을 많이 한다. 포매난 거.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하거든. 지금.	정익선(울릉도)			0		
1178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10	말미잘	1351100		x		이름 선행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말미잘이 나타났다.						
1179	기초어휘	135기타	1351종류	135111	불가사리	1351110	명		늑 불가사리.	{불가사리} 아니다. 늑 불가사리로 나타났다. 어류어로 용상불아가 있다.	정익선(울릉도)	0	0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라함	발음 정보 모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영성	영단 정보 영성 등미어
1	기초어휘	130어휘	1351종류	135111	1351111	불가사리	불가사리	명	불가사리.	조개바게네. {불가사리}. / {문애바게} 저거.			0	0
2	기초어휘	130어휘	1351종류	135111	1351112	불가사리	불가사리.	명	불가사리.	{조개바게네}. 불가사리. / {문애바게} 저거.			0	0
3	기초어휘	130어휘	1351종류	135111	1351113	불가사리	불가사리	명	불가사리를 가리키는 말.	{하얀 게} 있고 맞다.			0	0
4	기초어휘	130어휘	1351종류	135111	1351114	불가사리	불가사리	명	불가사리를 가리키는 말.	그거 이름 짓기 달렸지. {항불가사리라도}.			0	0
5	기초어휘	130어휘	1351종류	135111	1351115	불가사리	불가사리	명	불가사리를 가리키는 말.	{큰거} 있고 작은 거 있는데, 그 이름이 확실한 이름이 없지. 그것도 {큰불가사리고} 그렇지 않.			0	0
6	기초어휘	130어휘	1351종류	135111	1351116	불가사리	불가사리	명	불가사리의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 그래서 불가사리가 있으면 다른 고기가 오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0	0
7	기초어휘	130어휘	1351종류	135112	1351120	거북손	거북손	명	거북손.	아~ {보칠}. 보칠. 보칠. 보칠. 보칠. 보칠.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거북손은' '보칠' 은, '거북이'은, '해가', '물'만에 들어있는거'도 나타났다.		0	0
8	기초어휘	130어휘	1352상태	135201	1352010	비리다	비리다	형	신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색었다}. / 고기가 {색었다}. 색은 거지.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비리다'는 '물범' '새, '물래, '비린내'나'도 나타났 다. 이 중 '비린내'는 사전에 등 재되었다.		0	0
9	기초어휘	130어휘	1352상태	135202	1352020	불다	불다	동	불러들다.	먹 {불여가}. / 다 {불여가} 마, 근데 거래 인자 어었다'로 나타났다. '들어불' '거래가 지, 쑤시아' 떨어지조.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불다'는 '들어불' 어었다'로 나타났다. '들어불' '는 사전에 등재되었다.		0	0
10	기초어휘	130어휘	1352상태	135203	1352030	빨갈다	빨갈다	형	빨갈다.	몸때이지 약간 {빨은} 색깔.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빨갈다'가 나타났다.		0	0
11	기초어휘	130어휘	1352상태	135204	1352040	노랄다	노랄다	형	노랄다.	{노라} 색깔 있고 두가지 뿐이라, 까만 거 노라 '노랄다'가 나타났다. 이 외에도 '노라하다'가 나타났다.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노랄다'가 나타났다. 이 외에도 '노라하다'가 나타났다.		0	0
12	기초어휘	130어휘	1352상태	135205	1352050	뽕죽하다	뽕죽하다	형	뽕죽하다.	그양 끝에 {뽕죽하다}. / {뽕죽하다}.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뽕죽하다'는 '길' 게속속나와있다, '칼날길다'로 나 타났다. 이 중 '뽕죽하다'는 사전 에 등재되었다.		0	0
13	기초어휘	130어휘	1352상태	135206	1352060	날카롭다	날카롭다	관	날카롭다.	{날 섰다}. / 날, {날이, 칼날 섰다}. 이런 거. {날 섰다}. / 날, {날이, 칼날 섰다}. 이런 거.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날카롭다'는 '뽕' 게속속나와있다, '칼날길다'로 나 타났다. 이 중 '뽕죽하다'는 사전 에 등재되었다.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보 도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
1기초어휘	13어휘	135기타	1352상태	135207	1352070	막막하다	막막하다	형	느 막막하다.	{막막하지}.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막막하다'가 나타났다. 이 외에 도 '까성까성하다', '까성까성하다' '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반대 되는 말로는 '흐름흐름하다'가 있었다.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그물코'는 '그물 코' 코로 나타났다.			0	0
1기초어휘	13어휘	135기타	1352상태	135207	1352071	물장물령 하다	물장물령 하다	형	느 흐름흐름하다.	{물장물령하지}. 뭐.		이경우(울릉도)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1부분 영	141101	1411010	코	코	명	느 코.	{코} 여네 살 이기 코가 아니가.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그물코'는 '그물 코' 코로 나타났다.	정익선(울릉도)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1부분 영	141102	1411020	그물살	그물살	명	그물을 얹은 줄.	{그물살} / 그거는 {살이고}.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버리'는 '아버릴', 노꾸줄'로 나타났다.	정익선(울릉도)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1부분 영	141102	1411021	아바	아바	명	그물 위쪽 부분에 매는 것. 작고 둥근 모양 을 지닌 것이다.	우에 돌반듯방한 거 그거는 {아바고} 거 남도 있고.		강원도(울릉도)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1부분 영	141102	1411022	바대	바대	명	그물 이랫쪽 부분에 매는 줄을 가리키는 말.	바대. 이거 아바 아바 하든지 밑에는 {바대고}. 바대 요기 바대지. 줄을 갖다가 바대라 하 지.		정익선(울릉도)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1부분 영	141102	1411023	원줄	원줄	명	줄을 다는 부분으로 그물 밑 부분을 가리키 는 말.	{원줄로} 땀긴다.		이경우(울릉도)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1부분 영	141102	1411024	남	남	명	그물의 밑줄 밑에 다는 도구. 그물을 고정 시키기 위해 쓴다.	우에 돌반듯방한 거 그거는 아바고 거 {남도} 있고. 아바. 우에 아바고 줄인데. 여 아바. 이거 고무. 동그란 거 불어가 있거든. 그래가 아바라 하지.		강원도(울릉도)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1	1412010	그물	그물	명	느 그물.	후라치가 하는 {그물}. 그래 맞다. 후라치가 하 는 그물.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그물'이 나타났다.	강원도(울릉도)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1	1412011	후라치가 하는그물	후라치가 하는그물	명	명태를 잡는데 사용하는 그물. 두치오부애 서 세지기를 사용한다.	{후라치가} 하는 {그물}. 그래 맞다. 후라치가 하 는 그물.		강원도(울릉도)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1	1412012	그물망	그물망	명	그물로 된 망으로 주로 고기를 잡을 때 사 용하는 도구.	그 {그물망} 치는 거 아인교? 이래?		강원도(울릉도)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1	1412013	투망	투망	명	그물의 종류 중 하나로 먼저서 잡는 그물 중 하나.	투망. 저거 투. {투망인데} 그자. 투망 치는 거.		강원도(울릉도)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2	1412020	후릿그물	후릿그물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후릿그물'. 이와 다른 표현으로 '초망'이 나타났다. 이 중 '초망'은 '세그물'의 북한어로 등재되었다. 의미 확실 불모하다.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도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사자	영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3	사물	1412030	영	영	영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사물'은 '태'로 나 타났다.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4	망사리	1412040	영	해녀들이 작업할 때 접어온 어항들을 영어 서 붙여두는 도구. 이것은 부표의 기능도 한다.	{고들박}, 저가 원래는 고들박 가지고 하는 거 아니가? {고들박} 파가지고 말라가지고.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망사리'는 '두롱 박'로 나타났다. 사전에 '고들박' 은 등재됨. 그러나 "조롱박" 「」의 방언(경남)로 나타나 지역 확장과 의미 확장이 필요 함.			0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5	태락	1412050	영	태를 가리키는 말. 이 외에도 '두롱박'을 사 용하기도 했다.	{두롱박}, 해녀 미역, 두롱박.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태락'은 '태'로 나 타났다.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6	꼭지그물	1412060	영	고기를 떠내는 도구. 다른 말로 '꼭대'라고 도 한다. 긴 대 밑에 채가 달려있다.	이거 {꼭대네} 그거.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꼭지그물'은, '꼭 대, 꼭자, 디마'로 나타났다.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6	꼭지그물	1412061	영	고기를 떠내는 도구. 다른 말로 '꼭대'라고 도 한다. 긴 대 밑에 채가 달려있다.	{꼭대기} 비슷한 그물. 그물 꼭대네.	사전상의 의미와 재보자가 아는 의미 간에 차이 있음.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7	설망	1412070	영	능 조리. 다른 말로 '영태'라고도 한다.	{영태기} 저 무슨 영태기라 하는 모르겠다. / {고개영태기}.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설망'은 '조래기', '영태'로 나타났다. 사전상에 남미 활용 필요. '영태기'는 등재 됨.			0	0
2	15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2그물류	1413종류	141208	설망	1412071	영	능 조리. 다른 말로 '영태'라고도 한다.	그래 {오개영태기라} 했잖아. / {오개영태기}.	이경우, 영기학(울릉도)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류	1412종류	141207	설망	1412072	영	능 조리. 다른 말로 '영태'라고도 한다.	{조래기} 조래기 한대.	이경우(울릉도)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2낙시류	1421부분영 형	142101	낙시대	1421010	영	능 낙시대.	{낙시대네}, 한발 뿐이네, 한발, 낙시대네.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낙시대'가 나타났다.			0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2낙시류	1421부분영 형	142102	낙시줄	1421020	영	낙시에 사용되는 줄을 가리키는 말. 주로 원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경심}, 낙시 뒤 도구들. / 오기예다가, 오기에 다가 이제 어 경심 그러는 상을 고 여기다 매는 거예요. {경심줄} 매는 거예요.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낙시대'가, 이와 다른 형태인 ' 줄, 경심, 상'이 나타났다. 이 중 '낙시줄'은 사전에 등재되었다.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2낙시류	1421부분영 형	142103	열래	1421030	영	능 열래. 실 따위를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 도록 만든 작은 열래이다.	영, 연 {자세} 아이가?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열래'는 '자세'로 나타났다.			0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2낙시류	1421부분영 형	142103	열래	1421031	영	능 열래.	열라, 용지서 {열래}, 열래라 하는가 여기서는 고기들을 잡으니까 이거 이름을 모르지.	정익선(울릉도)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어 표준어	음란한	발음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성 등매어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2남시류 남시류	1421부분 형	142103	1421032		남	남	명	남시란 그물에 들어 버딤월에 가라앉도록 하는 도구.	그러면 요기배다가 이렇게 줄을 연결시켜요. 그 러면 저쪽쪽으로 가는데 요 {남이니까}. 막, 요 기가 아니고 다시 그러야 되겠다. 위치가 틀려.	강영길(울릉도)		0	0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2남시류 남시류	1421부분 형	142103	1421033		서울		명	서도에 다는 사기단자와 남시바늘을 연결하기 하는 줄을 가리키는 말. 서울을 사용한 단어에 있는 것은 거의 경침이다. 원줄을 가리키는데, 이 말은 사용한다. 투명한 나일론줄로 되지 않 는 것으로, 로라라는 남시도구가 나온 후부터 타는 '경침'을 사용했다.	서도에 다는 사기단자다. 사도. 이기 하인 사기로서가 하는 줄을 가리키는 말. 서울을 사용한 단어에 있는 것은 거의 경침이다. 원줄을 가리키는데, 이 말은 사용한다. 투명한 나일론줄로 되지 않 는 것으로, 로라라는 남시도구가 나온 후부터 타는 '경침'을 사용했다.	강성호(울릉도)		0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2남시류 남시류	1421부분 형	142103	1421034		원줄	원줄	명	남시줄 남시줄을 퍼보았을 때 원줄을 말기라 고 한다. 남시대 끝에서 남시를 직접 다는 곳까지의 남시줄을 말한다.	이제 원. {원줄이그}. 요 부분이 사기래요. 요게 사기. 사기 어찌요? 사기라고 알랑가. 사기.	강영길(울릉도)		0	0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2남시류 남시류	1421부분 형	142103	1421035		속물	속물	명	남시 끝에 다는 작은 주 모양의 돌. 이 돌로 인해 물살에서도 남시가 고정될 수 있다.	남시를 먼저 아까 얘기했던 로라부시 신작구 {속물}. 장삼 그러는 배에 담배까지 다 싣고 가 요. 선주 측에서. 싣고 외가지고 배에 사무장이 있어요.	김형수(울릉도)		0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2남시류 남시류	1421부분 형	142104	1421040		이물	이물	명	아 남시~ {남시바늘}. / {이물}. 이물.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물'은 '이'로 나타났다.	아 남시~ {남시바늘}. / {이물}. 이물.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물'은 '이'로 나타났다.	임기학, 강원도(울릉도)		0	0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2남시류 남시류	1422종류	142201	1422010		남수	남수	명	{남시} 중에도 그거 뭐 / 즉 맞으면은 {남수 } 이래 중중 배가 남수를 쳐 채가지고 버다 가가지고 해가 빠지면은 남수를 여가 이래 돌라 남시가 나타났다. 하위어로 '삼 가'라는 남수에서 사기라가. 사가리 불 붙어 나타 남수가 '남시'의 변형(강원, 정 익선, 강원도)으로 등재되어 지역 학 계에 필요함.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남수'는 '남', '남 수'로 나타났다.	임기학(울릉도)		0	0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2남시류 남시류	1422종류	142201	1422011		개입남시	개입남시	명	배전에 오징어를 잡을 때 사용했던 남시의 종류.	그때는 남시가~ 이거 할 땐 남시가 그~ 이후에 났는가. 옛날에 오징어 남시도 {개입남시라 고}.	강영길(울릉도)		0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2남시류 남시류	1422종류	142202	1422020		x	x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2남시류 남시류	1422종류	142203	1422030		주낙	주낙	명	강, 바다에서 갈고리 모양의 남시바늘을 끝 에서 잡는 도구.	{주낙}, 주낙. / {주바}, / 그래, 고기도 저거 {주낙} 한다.	임기학, 정익선, 강원도 (울릉도)		0	0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배	1431부분 형	143101	1431010		하리배	하리배	명	는 강, 배, 사람의 하리와 유사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강판'은 '우책, 우 책, 우책마, 배책'으로 나타났다. '강판'의 영은 '하리'라고 표 현되었는데 '하리'의 형태로는 사 전에 등재되었다.	강원도, 정익선(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분류 번호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 2	영단 정분 상지	영단 정분 음성 등매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1	간판	1431011	명	배 바닥에 들어가는 통나무를 가리키는 말. 다른 말로 '허저배'라고도 한다. 가리의 기 능이 사람의 하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기 {가리다}.			강원도, 정약선(울릉도)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1	간판	1431012	명	배의 한 가운데를 가리키는 말.	{한장}.	사전에 '한장'은 "낚시"의 방언 {강판, 강남, 평안}으로 등재되 어 지역 확정이 필요함.	이경우(울릉도)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1	간판	1431013	명	배의 한 가운데를 가리키는 말. 늑 상.	{내루}, 내루. / {내루} 해도 되고, 내루 그래 맞아, 내루.	'상'이라고 하지 않고 '내루'라고 했다. 사전의 '내루'는 의미 확정 이 필요함.	정약선, 임기학(울릉도)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1	간판	1431014	명	배 맨 밑면을 가리키는 말. 뱃바닥의 아래 쪽으로 먼 옆면의 나무이다.	뱃발은 아이고, 그랑 미, {밑상이가}, 뭐 이름 위야, {상}. / 이런데 {상이지}.		임기학, 정약선(울릉도)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1	간판	1431015	명	배 맨 밑면을 가리키는 말.	{뱃발} 뱃발도 되고, / {뱃발은} 아이고, 그랑 미, 밑상이가, 뭐 이름 위야, 상. / 이런데 {상 이지}.		강원도, 임기학, 정약선 (울릉도)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1	간판	1431016	명	배에 물도 못 올라가게 하고 오목하게 된 부분을 가리키는 말.	{보겐다이}. / {보건다이}.		정약선, 임기학(울릉도)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1	간판	1431017	명	오른쪽에 위치한 보겐다이를 가리키는 말.	뽕같은 그거나, 보건다이라, 그거는 오른쪽 원 쪽쪽, / 오, {오른보겐다이}, 왼쪽보겐다이.		임기학, 이경우(울릉도)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1	간판	1431018	명	왼쪽에 위치한 보겐다이를 가리키는 말.	뽕같은 그거나, 보건다이라, 그거는 오른쪽 원 쪽쪽, / 오, {오른보겐다이}, {왼쪽보겐다이}.		임기학, 이경우(울릉도)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1	간판	1431019	명	배의 오른쪽에 위치한 나무.	{도모까지} 도모까지라 하는 건 그거는 왼쪽에 갓다가 오모까지, 오른쪽에 갓다가 내 말하는데 그래 갓다 이기라, 그래 반대도 가잖아.		정약선(울릉도)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1	간판	1431020	명	배의 왼쪽에 위치한 나무.	도모까지 {오모까지라} 하는 건 그거는 왼쪽에 갓다가 오모까지, 오른쪽에 갓다가 내 말하는데 그래 갓다 이기라, 그래 반대도 가잖아.		정약선(울릉도)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1	간판	1431021	명	배의 한 가운데를 가리키는 말.	배 안, {배안이라} 하지 뭐, 뭐라 그래노, 이름 따로 있다, / 배 한장.		강원도, 이경우(울릉도)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1	간판	1431022	명	배의 한 가운데를 가리키는 말.	와 대개가 바른 한장이라, 어 대개도 싸고, 대개 와 있잖아, 대개.		임기학(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기초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의 정보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사지	영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41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1배	1431'부분 명칭	143101	간판	1431023		명	배 위에서 살아있는 고기를 보관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	{이끼스칸}. / {수족관} 수족관. 고. 이끼스 {이끼스칸} 캐도 된다. / 그래 {이끼스}.	정익선, 강현도, 임기학(울릉도)				0	
141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01	간판	1431024		명	배 위에서 음식을 하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	{정지지리} 뭍.	임기학(울릉도)				0	
141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01	간판	1431025		명	배 위에서 살아있는 고기를 보관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	그거 이끼스칸이구만 그거. {고기키우는데} 아 니가. 물을 여가.	정익선(울릉도)				0	
141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02	이름	1431020		명	배. 이물.	이. {이물}.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물'은 '이물. 배. 이경우(울릉도) 어'로 나타났다.				0	0
141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03	고물	1431030		명	배. 고물	어 {도모}, 이물 도모.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고물'은 '도모'로 나타났다.				0	
141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04	물	1432040	물품	명	배. 물품.	{물품} 놓았다 올랐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물'은 '도품'으로 나타났다.				0	0
141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04	물	1432041		명	물의 전체를 가리키는 말.	{도품이네} 도품. / {도품}.		정익선, 임기학(울릉도)	0	0		
141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05	물대	1431050		명	배. 짐대. 물을 지탱하는 기로로 된 나무.	{물대}. 하하하.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물대'는 '짐대'로 나타났다. 물대의 뒷부분은 '물' 원으로 나타났다.				0	0
141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05	물대	1431051		명	작은 물을 다는 물대.	어. 큰도품 {작은도품이지}. 뭍.		정익선(울릉도)		0		
141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05	물대	1431052		명	큰 물을 다는 물대.	어. {큰도품} 작은도품이지. 뭍.		정익선(울릉도)		0		
141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05	물대	1431053		명	도르래를 달리 가리키는 말.	그래 도르래 달린 거. 어 {물렁이} 달린 거. 그 거 저저.		정익선(울릉도)		0		
141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06	물대	1431060	심살	명	물을 달기 위해 넣는 나무대를 가리키는 말.	예 {심살} 대는 거. / 도품 {심살이라} 하지.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물대'는 '화살대'로 나타났다.				0	
141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07	물	1431070	물	명	배나 그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그래 요거 빼뿔고 그래서 하고 그 밑에 {물} 뽕고.		김성호(울릉도)	0	0	0	
141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08	물	1431080	물	명	배. 물.	어 {물}. / 세 명 티도 그 밑에 포공고 중에 서 큰 건 앞에 {물줄림} 요새 위 물에 기른 물 줄기라고 낙하산 같은 거 이런 거 아기 저 배행 기에도 참에는 뽕어자가 낙하산 물을 이런 거 해가 바다에 조류물에.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1	기초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린한	발음 정보	음시정 표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자	영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어휘 등재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부분 명칭	143109	1431090	노	노	영	영	늑, 노.	{노} 짓는 다고.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노가 나타났다.	정익선(울릉도)	2		0	0	0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부분 명칭	143109	1431091	불꽃	불꽃	영	영	노에 박힌 도드란 질 부분으로 노를 쫓아오거는 인자 노 오게 들어간다. 오게, 이게 우고정시키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 남청의 장리가 칠 때는 사람은 욱 걸습니데이. 장고만 하기에 연유한 표현이다. 이 부분을 '노막개' 세요. 오게 우리가 불상 뽕서람을 예기하는 게 바에 끼운 후 노를 쫓는다.	오게 {불꽃이다} 이야기합니다. 불꽃이고.	박봉석(울릉도)		0	0	0	0	0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부분 명칭	143109	1431092	불꽃	불꽃	영	영	노를 쫓을 땀을 노의 중간에 낸 구멍. 노/ 오거를 노막개바. 나쁘게 예기하면 {불꽃이다}는 게 오기 영어지는 거거든. 아거는 들고만 장고만 하세요. 그렇더라 카는 거만 아세요. 오게 저게 관하여 아게 짓거든. 간고에도 램 똑 같습니다.	줄게 예기하면 노막개바고 번뇌히 예기하면 그 자 {불꽃}. 그 원래 통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노/ 오거를 노막개바. 나쁘게 예기하면 {불꽃이다}는 게 오기 영어지는 거거든. 아거는 들고만 장고만 하세요. 그렇더라 카는 거만 아세요. 오게 저게 관하여 아게 짓거든. 간고에도 램 똑 같습니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상앗대'는 '핵아' 때문 나타났다.			0	0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부분 명칭	143110	1431100	×	×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키'는 '치'로 나타났었다. 키의 순음이는 장순으로 나타났다.				0	0	0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부분 명칭	143111	1431110	치	치	영	영	늑, 키.	{치}, 치.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키'는 '치'로 나타났었다. 키의 순음이는 장순으로 나타났다.	임기학(울릉도)			0	0	0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부분 명칭	143111	1431111	창순	창순	영	영	배의 키 부분중 손잡이를 가리키는 말.	치, 치. {창순}.		정익선(울릉도)			0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부분 명칭	143111	1431112	치창순	치창순	영	영	키를 밑고 당길 때 사용하는 창순을 뜻는 구멍.	치 창. {치창순}.		임기학(울릉도)				0		
140어휘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부분 명칭	143111	1431113	치구멍	치구멍	영	영	키를 뜻는 구멍을 가리키는 말.	모아 치는 거는 줄 걸어가 모아 걸이라 카는 기고 오기 인자 모애라 카는 긴데 오거 부분적인데로 뾰는 거는 모애고 오거는 이름이 도모통인데 오거만 돼가 있는 기 하고 넓이가 요런 거 보다 배 넓습니다. 요렇게 넓는데 오기에 치 아까 키 안 있는고. 노 자를 때는 이게 키문가 하지만은 뾰를 땀 때는 이 지라고 이거 키를 박아가 하는 기라. 글 기만 영어가 키를 모애기 키 속장이 가 오래 영어가 요런 형상을 넣었다가 오통형으로 넣었다. 하며 배 방형에 열리자거든 오거는 다른 거보다 조금 넓. 배 넓어야 돼. 이거 자구 영어 이 따로 발도 있었든. 도모통.. {치구멍인 데} 도모통이시도. 아거 전채가. / 도모통에 얹하고 그간 도모통, 모애라 카는 거는 주로 대충 정사각형 나무 비슷한 데다가 양쪽 빠져놓고 오래 하는 기고 도모통은 정사각형이 아니고 두께는 모애 두께보다 썩 비슷한 데다가 넓이는 배는 모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획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획 분류번호	기초어획 항목	기초어획 분류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음시정 보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지	영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		
1기초어획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1	고깃배	1432010	어선	명	고기를 잡는 배를 모두 가리키는 말. {어선}.		어촌 생활어 기초 어획 조사 (2010)에서는 '고깃배'는 '어선', '고깃잡는배'로 하여기로 중선, 중선배, 오징어배, 공치배, 명치 배로 어종에 따라 명칭이 분화 되어 나타났다. 이중 중선은 어선에 등재되었지만 '중선배'는 등재되지 않았다.	이경우(울릉도)		0	0	0		
1기초어획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1	고깃배	1432011	장수기	명	장수부 족 마구리들이 타고 다니는 배를 가리키는 말.	{장수기}. / {장수기} 하접어. 여기 일월명부 기타 하접어.	영기학, 정익선(울릉도)			0	0	0		
1기초어획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1	고깃배	1432012	낚시배	명	낚시를 주로 하는 배를 가리키는 말.	{낚시배} 가는 낚시 몇 시 되까 간다. 이래 한 서너시간 어쩔 배 타고 가면 이 배 타고 간다 이 새뎌.	박봉식(울릉도)			0	0	0		
1기초어획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1	고깃배	1432013	목선	명	나무로 만든 배. 누나무배·목조선.	지금은 거의가 예. 예프알피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옛날에는 칠선 아니면 {목선}이었어. 칠선 아니면 목선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동 이 항구에 낚시배가 배 착수가 약 한 큰 배들이 사 신 몇 척 왔었어. 그랬었는데 전부 큰 배가 다 없어지고 이 작은배들만 생존을 하게 됐는 거에 요.	김형수(울릉도)					0	0	0
1기초어획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2	복막선	1432020	동력선	명	무동력선의 반대 의미로 기계로 운행되는 배.	간고는 무동력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무동력 선 이고 그래서 지금 이미 {동력선}을 만들게 됐 잖조. 그래서 옛날 엔진도 영기자까. 차력이 유 선'으로 나타났다.	강영길(울릉도)			0	0	0		
1기초어획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2	복막선	1432021	기렛배	명	누동력선.	와 없어요. 있어. {기렛배도} 있잖아. 사진에 '기렛배'는 등재됨.	영기학(울릉도)			0				
1기초어획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2	복막선	1432022	기관선	명	발동기를 장착한 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쓰다 가고 남은 배. 거기 인 제 요즈 발동기 {기관선이라}. 이런 거 몇 척 있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간조지요.	박봉식(울릉도)			0	0	0		
1기초어획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2	복막선	1432023	복동선	명	기렛배를 달리 부르는 말.	이 선배님이 계장님이 하시던 그~ 배는 큰 배. 근해 채낚기로서. 이 어선 규모는 대략 이십 구한 보통 상선분 정도 어 이런 그 근해조양을 하시는 배기 때문에 그런 목선도 있고 매나 {발 동선'이 조}. 발동선인데 목선도 있고 또 예프알 피선도 있고.	강영길(울릉도)			0	0	0		
1기초어획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2	복막선	1432024	복막선	명	기렛배를 모다에서 복막복막 소리가 나는 배를 가리키는 말.	그 모다라 하는 기 {복막선이라}. / 맞어 모다.	정익선, 영기학(울릉도)			0	0	0		
1기초어획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2	복막선	1432025	예프알피 선	명	나무가 아닌 예프알피라는 재질로 만든 배. 모름 사용되는 배를 가리킨다.	자연적으로 어선들도 인자 거 우리가 일본쪽에 서 그렇게 생각했던 저 우리도 저런 배 한 번 더 볼 수 있잖까 왔는 {예프알피선들}. 요즘 우리 나라 지금 전부다 예프알피잖아요.	강영길(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도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영성 사건	영단 정보 영성 등매언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2	독막선	1432026	명	독막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철폐로 만든 배를 가리키는 말.	철폐선	지금은 거의가 예. 예프왕피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옛날에는 철폐선 아니면 독선이었어. {철폐선} 아니면 독선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들이 항구에 넣을선이 배 착수가 약 한 큰 배들이 사실 몇 척 있었어, 그렸었는데 전부 큰 배가 다 없어지고 여 작은배들만 생존을 하게 됐는 거예요.	강형수(울릉도)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2	독막선	1432027	명	독선에 예전을 담 배. 그 소리가 '택택'난다는 말에서 연유한 것이다.	택택이	그래서 옛날 편지도 영기자개, 차막이 뭐 이런 식으로 뭐 {택택이} 하던가. 기계 소리가 택택 난다 해서 그런 건지.	강영길(울릉도)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3	거룻배	1432030	명	는 쪽배. 다른말로 '헨마, 나룻배'라고도 한다.	헨마	{헨마도} 하고, 간꼬도 하고 그렇다.	정익선(울릉도)	0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3	거룻배	1432031	명	헨목을 가리키는 다른 말.	헨배	인제~ {헨배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아마 그거로 헨것조 아~ 헨배로 아야 했을 거 같고.	강영길(울릉도)	0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3	거룻배	1432032	명	복선을 달라 이르는 말로 물 위에서 통통돌 돌락이는 배.	통통배	여기 인자 오징어를 판점에서 전부다 찰복잡언 이기 다 떠나려와 물 씌으면 배수로 따라 지루에 다 망가요. 그러면 {통통배}가 파지고 저기 한 일 마일 정도 파지고 나갑니다. 가서 탄도려 버려요.	김성호(울릉도)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4	돌단배(풍선)	1432040	명	는 돌배. 다른 말로 '돌배, 풍배, 외선, 돌단배'라고도 한다.	독선	어선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돌단배(풍선)'은 '풍선, 돌배, 풍배, 외선, 돌단배'로 나타났다. 이 중 '풍선, 외선'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고 '돌단배'는 등재되었다.	정익선(울릉도)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4	돌단배(풍선)	1432041	명	돌을 담아 운행되는 배. '간꼬'가 여기에 해당된다.	돌단배	{돌단배} 카는 아주 옛날, 아주 옛날에 풍선 카는 거 인자 그거 타고 그런 거 아주 옛날 하마 오래 돼요 몇 십 년 전에, 한 육칠십 년 전에.	강화웅(울릉도)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4	돌단배(풍선)	1432042	명	오징어를 주로 잡는 배를 가리키는 말.	오징어배	{오징어배는} 열대가. 하이튼 모를것다 이거.	임기학(울릉도)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4	돌단배(풍선)	1432043	명	육지와 섬을 오가며 수송을 주로 담당하는 배.	연락선	예, 도돌에 아찌 배 대는 데, {연락}, 예, / {연락선} 마는.	임기학(울릉도)		0	0
1기초어휘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4	돌단배(풍선)	1432044	명	장수부 즉 머구리들이 타고 다니는 배를 가리키는 말. 머구리들을 태워주는 일을 주로 하는 배이다.	머구리배	근대 뭐 이 짓, 짓거리나 이런 건 하는 걸 장수선도 {머구리배도} 마친가지고 그거는 이제 선주하고 장하는 그 부할에 따라서 주는 거고 옛날에는 요즘은 뭐 프로수로 계산을 하니까 쉬운 데 옛날에는 그 짓거리란 말이와 나렸노 하던, 옛날에 약 열척, 열정, 열자, 스무정, 열자 이리서 거기서 몇 개서 갖, 갖고 가는더 거 계산 방법은 나는 음반 생각해도 거 이해가 안 가. 흠.	강영길(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1	기초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도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전	영단 정보 영역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4	1432045	동단배(종 선)	명	명	목선의 다른 말. 그러나 거의 사용하지는 않는다.	{종선} 그래 그래 타고 잡았고 그 덩에 기켓배 배가 잡고. 아주 옛날에 그때 뭐 기켓배 기켓배 있나.		견학장(울릉도)		0	0	0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4	1432046	동단배(종 선)	명	명	배전에 울릉도에서 오징어를 잡았던 목선 을 가리키는 말.	노 젓고 이런 거 전부 {간고래}. / 이것도 다 노 를 젓고 망키는 건데.		강원도, 정악선(울릉도)		0	0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4	1432047	동단배(종 선)	명	명	뚝을 달고 다니는 목선을 가리키는 말.	{도장}. / {도장배}. / 예. 앉고 나중애 인치 뒤 배 하니까 배도 인제 도장같은 만날 이기 없은 배 이통까 나도록 바람 하고 까우래 치고 이래 하니까 {도장배라고} 총 두개운 배가 하고.		정악선, 임기학, 박봉식 (울릉도)		0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4	1432048	동단배(종 선)	명	명	그물바리를 하는 배를 가리키는 말.	{그물배}.		강원도(울릉도)		0	0	0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4어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1기타	144101	1441010	작살	명	명	누 장.	이거 짝. {작살이네} 이거. 고기 찌르는 찌살이 네. / 고기 찌른 짝. {작살}.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작살'은 '장'으로 나타났다.	정악선, 임기학(울릉도)		0	0	0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4어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1기타	144102	1441020	아장	명	명	신 고기를 보관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 전라도 지역에서 '아살'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그거 {아장} 아장 이름 있더라고. / {아장} 이 름인데 이름 몰라.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 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강원도, 임기학(울릉도)		0	0	0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4어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1기타	144103	1441030	통발	명	명	누 통발.	{통발이구만}. / {통발이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통발'이 나타났다.	정악선, 임기학(울릉도)		0	0	0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4어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1기타	144103	1441031	문애통발	명	명	누 통발. 문애를 찌는 데 사용하는 정고모 앙의 통발을 가리킨다.	{문애통발}. / 드가고. / {문애통발은} 안 커. 요거만 해. 요 조매.		임기학, 정악선, 강원도 (울릉도)		0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4어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1기타	144104	1441040	바구니	명	명	누 바구니.	이거 {양태기} 뭐 손사람을 얹지 우린 모른다 이거.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바구니'는 '소구 리'로 나타났다.	정악선(울릉도)		0	0	0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4어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1기타	144105	1441050	종다래끼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종다래끼'는 '물 양태'로 나타났다. 사전에는 '종 다래'에서 사용하는 도구로만으로 의미가 한정되어 있다.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4어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1기타	144106	1441060	호미	명	명	누 호미. 육지에서 사용하는 호미에 비해 짧고 작다.	{호미다} 호미. / {호미}. / 밭 매는 거, 밭 매는 {호미}.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호미'가 나타났다. 이 외에도 '꼭 개'로 호미를 나타내기도 한 다. '호미'는 의미 확장이 필요 함.	정악선, 정악선, 정선관 (울릉도)		0	0	0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4어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1기타	144107	1441070	낚	명	명	누 낚. 미역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짧은 낚. 은 '미역낚' 또는 '미역바는낚'이라고 한다.	{낚이고}.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낚'은 '미역낚'. '낚' 으로 나타났다. '낚'는 의미 확 장이 필요함.	정악선(울릉도)		0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도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 2	영단 정규 문자	영단 정규 영역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	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1기타	144107	1441071	미역낚	명	는 낚. 미역 잡았을 한 때 사용하는 낚은 낚. / 낚. {미역낚}. 미역낚은 요거보다 은 '미역낚' 또는 '미역버는낚'이라고 한다. {중 낚이게}.					0	
1	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1기타	144108	1441080	고구뽕	명	해녀들이 이는 뽕웃을 가리키는 말. 고구뽕. {고래 옛날에 다 그거 했다. 이거 {고구뽕이} 나 만든 재질을 말한다.					0	
1	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1기타	144108	1441081	해녀복	명	는 뽕웃. 이 위에 '적상' 또는 '뽕적상'을 입 고 가부리를 쓰고 작업을 했다.					0	
1	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1기타	144108	1441082	뽕웃	명	는 뽕웃.					0	0
1	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1기타	144108	1441083	장수복	명	는 뽕웃.					0	0
1	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1기타	144109	1441090	오리발	명	는 오리발. 다른 말로 뽕갈래라고도 한다. {오리발} 안 카나.					0	0
1	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1기타	144110	1441100	{고가}카우 는배	명	배 안에서 잠은 신고기를 담는 뽕. 배 안에서 잠은 신고기를 담는 뽕. {카우는 배}. 수주관이다. 수주관.					0	
1	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1기타	144110	1441101	아깨스칸	명	배 안에서 잠은 신고기를 담는 뽕. 배이가 {아깨스칸이거}. 배이가 배 안이.					0	
1	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1기타	144111	1441110	투구	명	마구리들이 잠수할 때 쓰는 투구. {투구}. 투근강 뽕.					0	0
1	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1기타	144112	1441120	수경	명	는 뽕안경. {가내개}. 가내개. / {가내개} 하는 거. / {수 경}. 수경. / {수경}. 수경이다.					0	0
1	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1기타	144112	1441121	가내개	명	는 뽕안경. {가내개}. 가내개. / {가내개} 하는 거.					0	
1	기초어휘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1기타	144113	1441130	바늘 바늘	명	그물치는 바늘 바늘. {그물 찌는 거}. {바늘}.					0	

2009년 2월 20일 (수요일) 14:00 ~ 15:00 (1시간)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자료 관료번호	기초자료 관리번호	기초 어휘 항목	원시자료 관료번호	원시자료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통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	출처 정보 2	영어 표준 발음	한국 표준 발음
1	140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41기타	144114	1441140	재활집이		x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 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2	140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41기타	144115	1441150	홀채			쪽대	그기뜨는 형 그기		그기를 떠내는 도구 다른 말은 '쪽대'라고 도 한다. 간대 밑에 채가 달려있다. /{쪽대}.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쪽자'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에서 사용 되는 도구가 아니라서 동일한 어 휘가 나타나기도 했다.	0				
3	140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41기타	144116	1441160	낙자기래			가래	명		장꺾식으로 된 것으로 재첩을 켤 때 사용하 는 도구.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 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0				
4	140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41기타	144117	1441170	엘름꿀		x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 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0				
5	140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41기타	144118	1441180	갈쇠		x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 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6	140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41기타	144119	1441190	미개			미개	명		그기의 미개를 가리키는 말.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미개'는 '미개'로 나타났다. 사전에 '미개'는 등재 될.	0				
7	140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41기타	144119	1441191	미개			패찰	명		그때는 {패찰도} 없었어. 그 뒤에 가게서 버럼 기다렸다가, 인자 강원도로 건너가고 그랬습니 다. 그런데 그 뒤 석업 패찰도 없고 뽕, 뽕 보고 뽕 보고 다녔어요.	김성호(물풍도)	0				
8	140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4아로도 구	14441기타	144119	1441192	미개			콜파스	명		'아새 {콜파수가}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	사전에 '콜파스'는 '컬퍼스'로 등 재됨.	정익선(물풍도)	0	0		
9	140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아로행 위	1451조개류	145101	1451010	파다			파다	동		노 나침반. '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함'. '파다'와 이 외에 '돌려파디기니' 등 나타났다.	정익선(물풍도)	0	0		
10	140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아로행 위	1451조개류	145102	1451020	캐다			캐다	동		노 나침반. '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캐다'는 '파다, 고 정익선, 양기학(물풍도) 등어내다'로 나타났다.	정익선, 양기학(물풍도)	0	0		
11	140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아로행 위	1451조개류	145103	1451030	(전북) 빠다			빠다	동		노 나침반. '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빠다'는 '파다'로 나타났다.	양기학(물풍도)	0	0		
12	140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아로행 위	1452해조류	145201	1452010	말린다			말린다	명		스무 마리씩 끼워 가지고 벌여 {말리고}, '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말린다'는 '말들 다'로 나타났다.	정익선(물풍도)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획자료(김지숙)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번호 1	기초 어획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한 표준어	필요 정보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진 정보1	출진 정보 2	영단 정보 사건	영단 정보 영성	표준어 어시진 등기여
1기초어획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2예조류	145202	1452020		넙다	넙	넙다.	스무 마리씩 끼워가지고 {넙어} 말리고.	어른 생활어 기초 어획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넙다'가 나타났다.	정익선(울릉도)			0	0
1기초어획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3그물류	145301	1453010		훅리다	훅	훅물다.	그거는 어 {훅리기} 하는데 여는 이런 거 안 한 다. 이런 거.	어른 생활어 기초 어획 조사 (2010)에서는 '훅리다'는 '훅물 다'로 나타났다.	정익선(울릉도)			0	0
1기초어획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3그물류	145302	1453020		넙다	넙	넙 보양.	바늘 같은 거 {넙겅어}. 아까 대나무 바늘 있는 거 그거가 뽕는 거지. / {넙겅어}.	어른 생활어 기초 어획 조사 (2010)에서는 '넙다'는 '넙겅기, '넙다'로 나타났다. 이 중 '넙겅기'는 북한어에서 '그물을 '넙매'에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넙'에 등장되었다. 사전에 '넙다' 는 등 재발.	정익선, 이경우(울릉도)			0	
1기초어획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3그물류	145303	1453030		뜨다	뜨	뜨다.	꼭대기 {뜨지} 뭐. / {뜨지} 뭐.	어른 생활어 기초 어획 조사 (2010)에서는 '뜨다'는 '뜨다, 갸 '뜨다'로 나타났다. 이 중 '갸'는 '뜨다'로 나타났다.	정익선, 임기혁(울릉도)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번호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 정보 2	영단 정보 영성 사지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3그물류	145304	1453040		동	늑 강다.	물어 여가 인제 고기 무면 {갈아} 올리지 뭐. 경다'가 나타났다.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정익선(울릉도) 경다'가 나타났다.		0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3그물류	145305	1453050		동	늑 켈다.	{그는} 거.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켈다'는 '지다'로 나타났다.		0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3그물류	145306	1453060		동	늑 던지다.	{번지는} 거, / 곧 잡아.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정익선, 임기학(울릉도) 번지다'가 나타났다. 사전에 '던 지다'는 등재됨.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4낙시류	145401	1454010		동	당겨서 잡아 올리다.	낙시대가 잡는다 그러지. 낙시대가 {낙는다} 카지 / {낙는다}.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낙는다'는 '잡아올 린다, 묶어올린다'로 나타났.		0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4낙시류	145402	1454020	두르다	동	당겨서 잡아 올리다. 이를 '들르다, 잡아맹 긴다'로 표현하기도 한다.	잡혔으면 {고집어 올리지} 뭐.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제다'는 '두르다, 맹거들르다, 들르다, 잡아맹긴다. '로 나타났. 이 중 '들르다'는 사전에 등재되었다.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4낙시류	145403	1454030		동	늑 잡다. 다른 말로 '고기'를 다'로 표현하기도 한다.	아구 고기가 {물었다} 그러지 뭐. / {물었다}.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결리다'는 '잡다, 고기'를잡았다, 고기'로'로 나타 났다.		0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4낙시류	145404	1454040		동	늑 잡아올리 다	{낙아올리지} 뭐.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올리다'는 '잡아 들리다, 맹거올리다'로 나타났 다.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5배	145501	1455010		동	늑 켈다.	치 {잡는다}, / 여 개 {잡는다}.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잡다'는 '들 올리다'로 나타났.		0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5배	145502	1455020		동	늑 올리기다.	배에 {올리외} 있지 뭐.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배'라는 '배'로 올리'가'로 나타났.		0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5배	145502	1455021		동	배에서 내리다.	그양 {내려가지}, / {하선}. 하선 배 대면 {하선 하면} 되지.			0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5배	145503	1455030		동	늑 묶다.	{잡는다고}.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매다'는 '묶다'로 나타났다.		0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5배	145503	1455031		동	늑 묶어뿌리 다	그기 배에 앞에 이물쪽에 보면 고기다 지동이 하나 있어. 거기다 이제 줄을 갖다가 묶는다 대 고 막 {묶어뿌리거든}. 그걸가 오라이얏대기 라.			0	
1	14어획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5배	145504	1455040		동	늑 뜨다.	나루가 있기 때문에 {뜨다고}. 아 안에 짐 마이 없으면 뜬다고. 짐 마이 있으면 모르지만 가라 없지만 모르지만 안 그러면 뜬다. / {뜨지}.	어른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정익선, 임기학(울릉도) 뜨다'가 나타났.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1	기초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라한	발음 정확 도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확 성	영단 사건	표준국어 어문법 등재여
기초어휘	140확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5배	145505	1455050	실다	×	동	× 실다.	어 어에 하나면 포항서 항구를 {실어주거든}, {실어주면}, 가 나타났다.	어은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실다'가, 이 외의 형태로 '용기다', '영기다'가 나타났다.	정익선, 임기혁(울릉도)		0		
기초어휘	140확도 구와 어로 방법	145어로행 어	1456기타	145601	1456010	(작살) 쓰다	×			어은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작살' 쓰다'가, '영추다'로 나타났다. '영추다'를 '영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 의미 확정이 필요하다.						
기초어휘	15음식	151	1511절갈류	153101	1531010	새우젓	×	명	× 새우젓.	{작갈이래}, 젓갈. 어. 새우젓갈. / {새우젓갈}, {새우젓}이 나타났다.	어은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새우젓'이 나타났다.	강원도, 정익선(울릉도)		0		
기초어휘	15음식	151	1511절갈류	153102	1531020	멸치젓	×	명	× 멸치젓. 다른 말로 '머러지젓갈'로 사용 하기도 한다.	어 {멸치지젓가치네}, 젓갈이네. 여기 젓갈이 있네. / 어 맞아. {멸치젓갈}.	어은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멸치젓'으로, 다 를 표적으로 '머러지젓갈'이 나 타났다.	정익선, 임기혁(울릉도)		0		
기초어휘	15음식	151	1511절갈류	153103	1531030	명란젓	×	명	× 명란젓. 이를 '명젓, 청란젓'이라고도 한 다.	{명란이네}, 청란. / {명태청란}.	어은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명란젓'은 '청난 젓, 명젓, 청란젓'으로 나타났 다. 이 중 '청란명젓'은 사전에 미등재되었다. 사전에 '청란은 등재됨.	강원도, 정익선(울릉도)		0		
기초어휘	15음식	151	1511절갈류	1531031	1531031	청란젓갈	×	명	× 청란젓.	어가 젓갈. 청갈이라 그래. {청란젓갈} 맞았다. / 비싸다. 이가 비싸다.		강원도, 정익선(울릉도)		0		
기초어휘	15음식	151	1511절갈류	1531032	1531032	청란	×	명	× 청란젓.	{청란}, 청란이라 하는 게 명태 청대기 불어가 만든 거.		정익선(울릉도)		0	0	
기초어휘	15음식	151	1511절갈류	153104	1531050	조기젓	×				어은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조기젓'이 나타났다.					
기초어휘	15음식	151	1511절갈류	153105	1531050	골두기젓	×	명	× 골두기젓을 담아 만든 젓.	{골두기젓이래}, 하면 되지. / {골두기젓}, 젓 갈. / {골두기젓갈} 하면 되지.	어은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골두기젓'은 '호 두레기젓갈'로 나타났다.	강원도, 정익선, 임기혁 (울릉도)		0	0	
기초어휘	15음식	151	1511절갈류	153106	1531060	아강지젓	×	명	× 명태 아가미로 담근 젓.	어은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아가미젓'은 '순 미기젓갈'로 나타났다.		정익선, 임기혁(울릉도)		0		
기초어휘	15음식	151	1511절갈류	153107	1531070	군쟁어젓	×				어은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 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초어휘	15음식	151	1511절갈류	153108	1531080	오징어젓	×	명	× 오징어로 담근 젓.	{오징어젓갈} 커운 때. / {오징어젓갈} 못네. {오징어젓갈}이 나타났다.	어은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표준어와 동일한 '오징어젓갈'이 나타났다.	강원도, 임기혁(울릉도)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1	기초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함	발음 정확 도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 2	영단 정보 사자	영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어휘 등록번호		
1기초어휘 15음식	15	161제의	1611 1611결갈류	153108	1531081	오징어젓	음치젓갈	명	공치로 담근 젓.	그 {공치젓갈로} 버무리거나 거지고 반찬으로 사용하고, 그 담에 인제 도박, 도박이라는 거 그것도 종류가 많겠지만 인제 도박을 가지고 보면, 그 기록은 거로 이래 식사대용으로 먹었던 기록들 / 공치젓갈이죠. 그러이 간, 울릉도에는 간, 정갈 전부 다 공치젓갈입니다. 별치젓과 정갈은 아주 먹히다더랄까 이런데, 같은 맛이 없는 데 {공치젓은} 굉장히 같은 맛이 있습니다.	간양갈, 감장호(울릉도)			0		0		
1기초어휘 16민속	16	161제의	1611	161101	1611010	벃고사	고사	명	배의 인병을 빌기 위해 지내는 제사; 이를 배손이라고도 한다.	{배고사요}? / 거 우아다 보면 방향이 달리가 가지고 온 잡는데 다 같이 여기서 잡아도 다 없어요. 이 잡는데 내리만 못 잡을 때도 안 있는 거라. {2010}에서는 "뱃고사"는 "고사"로 나타났습니다.	감황수, 박봉식(울릉도)		2		0	0		
1기초어휘 16민속	16	161제의	1611	161101	1611011	벃고사	해신제	명	바다의 인병을 빌기 위해, 해신에게 지내는 제이다. 3월 3일날 지낸다.	고사는 지역에서 지내는 아가 얘기했죠. 상월(상월날, 그거는 인자 그 동네서 상월상월(해신제) 모시거든.	박봉식(울릉도)				0			
1기초어휘 16민속	16	161제의	1611	161101	1611012	벃고사	해신당	명	해신을 모셔놓은 당. 바다의 인병을 빌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아유 뭐 저는 저는 뭐 배를 몇 척을 부려 보도 아직 {해신당에도}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하면은 울릉도 초창기에 아~ 개척 당시에 뭐 태화동에서 선화신당이라, 그 거 가보세요. 가시면은 어 신당 모셔는 거 있었어요. 거 원년에 한 번씩 매년 사월 일일, 일 날이 있지 싶으니까, 선화신당에서 제를 올리요. 올리는 데 가게 개척 당시에 아~ 선복을 해 가지고 두 사람을 아 버리고 가라고 했대요. 그러이 그 인자, 저년 총각을 돌아를 버리고 이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오라고 상부들을 시키니까, 그걸 가지고 간 세 배가 출항을 했대요. 그래 그 이듬해 외보니까 돌아 이래 부둥켜 안고 죽은 배만 있었대요.	감황수(울릉도)			0		0	0	
1기초어휘 16민속	16	161제의	1611	161101	1611013	벃고사	선화신당	명	해신을 모셔놓은 당. 바다의 인병을 빌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아유 뭐 저는 저는 뭐 배를 몇 척을 부려 보도 아직 해신당에도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하면은 울릉도 초창기에 아~ 개척 당시에 뭐 태화동에서 {선화신당이라, 그 거 가보세요. 가시면은 어 신당 모셔는 거 있었어요. 거 원년에 한 번씩 매년 사월 일일, 일 날이 있지 싶으니까, 선화신당에서 제를 올리요. 올리는 데 가게 개척 당시에 아~ 선복을 해 가지고 두 사람을 아 버리고 가라고 했대요. 그러이 그 인자, 저년 총각을 돌아를 버리고 이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오라고 상부들을 시키니까, 그걸 가지고 간 세 배가 출항을 했대요. 그래 그 이듬해 외보니까 돌아 이래 부둥켜 안고 죽은 배만 있었대요.	감황수(울릉도)			0				0
1기초어휘 16민속	16	161제의	1611	161101	1611014	벃고사	진수식	명	배를 처음 짓고 하는 의식, 진수식을 할 때 배에 여자는 태우지 않는데 이는 부양을 더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같은 사람들은 혹시 그런기 옛날에는 그랬는 지 몰라도 지금은 그거는 뭐 기계 배를 처음 지을 때 여자는 안 태운다던지 이런 건 있는데, 처음 지어 가지고 배 {진수식} 안 행니까, 그때 뭐 되지 장고 잔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때 했을 때 처음에 할 때는 여자를 안 태웁니다. 좋거.	박봉식(울릉도)				0	0		

2 동해 근해(울릉도) 기초 어휘자료(김지숙)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 분류 번호 1	기초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란한	발음 정규화 표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 정보 2	영단 정규화 사건	영단 정규화 영역	표준국어 어휘집 등재여부
1기초어휘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1	1611015		당제	요왕제	명	3월 3일에 하는 풍어제로 해신당에서 지내는 제.		김형수(울릉도)			0	0
1기초어휘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1	1611016		어판장제		명	3월 4일에 하는 풍어제로 어판장에서 지내는 제.		김형수(울릉도)			0	
1기초어휘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1	1611017		초매식		명	1월 1일에 수행에서 지내는 제. 처음으로 악판을 하는 것을 기념하고 민사행통, 풍어를 기원하는 제이다.		김형수(울릉도)			0	
1기초어휘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1	1611018		동제		명	정월보름에 동네에서 지내는 제.		김형수(울릉도)			0	0
1기초어휘	16민속	162경기, 승설, 은어, 노래	1621노래	162101	1621010		X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2010)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어휘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획자료 (박원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회 분류 번호	기초 어획 영역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본문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정규 표기	영단 정규 의성 문자	영단 정규 의성 문자	표준국어 사정 등어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07	121107	1211070		알꿈마	명	무수기에 음력 열셋새와 초하루를 이르는 말.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08	121108	1211080		어덜마	명	무수기에 음력 열이레와 초이튿를 이르는 말.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09	121109	1211090		아를마	명	무수기에 음력 열이드레와 초사흘을 이르는 말.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0	121110	1211100		얼마	명	무수기에 음력 열이드레와 초사흘을 이르는 말.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1	121111	1211110		한객기	명	무수기에 음력 스무새와 초닷새를 이르는 말.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2	121112	1211120		대객기	명	무수기에 음력 스무하루와 초닷새를 이르는 말.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3	121113	1211130		한조금	명	무수기에 음력 스무새들과 초이드레를 이르는 말.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3	121113	1211131		조금	명	= 조금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3	121113	1211132		무수/무숙	명	무수기에 음력 스무나흘과 초이흐레를 이르는 말.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3	121113	1211133		또는날	구	조수(潮水)가 가장 낮은 때를 이르는 말. 대개 매월 음력 7, 8월과 22, 23일에 있다.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3	121113	1211134		사리	명	무수기를 기준으로 한무늬에서 무수까지 약 15일을 이르는 말.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때	121114	121114	1211140		아침조금	명	무수기에 음력 스무이틀과 초이레를 이르는 말.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20세기	121201	121201	1212010		들물	명	조수의 간만으로 해면이 상승하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20세기	121201	121201	1212011		고조	명	들물이 들어와 해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상태 에, 내려가는건 저조. 들어오는건 {고조}라 고 하지.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박원호)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획 분류 번호	기초 어휘 영역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음성 정보	문자 정보	뜻풀이	종류	발음 정보	문자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정규 표기	영단 정규 의성 등 기타 표기	표준국어 사정 등 기타 표기
1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01	물물	1212012			명 = 물물.	들어올때는 {든물}이라고 그리고 나갈때는 {썰물}이라고 하는 거여.	든물		명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정규 표기		
1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02	썰물	1212020			명 그 바닷물.	여기 사람들이 작업하는 것은 인저 {썰물}이 들을 그렇게 따지지.	썰물		명				박차돈(충남 외연도)		영단 정규 표기		0
1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02	저조	1212021			명 바다에서 조수가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아 고 어지.	해, 내려가는건 {저조}, 들어오는건 고조라 고 어지.	저조		명				박차돈(충남 외연도)		영단 정규 표기		0
1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02	썰물	1212022			명 = 썰물.	들어올때는 썰물이라고 그리고 나갈때는 {썰물}이라고 하는 거여.	썰물		명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정규 표기		0
1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03	물물	1212030			구 배안물이 육지로 밀려 들어오다.	나간다 하고 {들어온다} 그러지 여기 사람 들은	물물		구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정규 표기		0
1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03	물물	1212031			구 = 물물.	물이 살아진다고 인제 {산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물		구				박차돈(충남 외연도)		영단 정규 표기		0
1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03	물물	1212032			구 = 물물.	무슨날은 {물이 안 뜨고} 열마닐은 물이 얼마를 뜨고	물물		구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정규 표기		0
1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04	물물	1212040			구 썰물 때, 바닷물이 바다로 나간다.	이런데 사람들은 한조금날은 {물이 얼마 쓰 고}	물물		구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정규 표기		0
1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04	물물	1212041			구 = 물물.	{나간다} 하고 들어온다 그러지 여기 사람 들은	물물		구				박차돈(충남 외연도)		영단 정규 표기		0
1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301	새벽	1213010			명 먼물이 드러 할 무렵 누운단 · 휴신.	아침에 위 {새벽} 세시에 나가는 사람도 있 고	새벽		명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정규 표기		0
1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302	아침	1213020			명 날이 새면서 오전 반나절쯤까지의 동안. 누신 단04(晨杪).	{아침}부터 영엄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		명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정규 표기		0
1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303	낮	1213030			명 해가 들 때부터 질 때까지의 동안.	햇대리는 {낮}에 나와서	낮		명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정규 표기		0
1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304	저녁	1213040			명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사이.	오늘 {저녁}에는 달마리를 지랄게 크게했네	저녁		명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정규 표기		0
1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305	밤	1213050			명 해가 저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뜨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	인제 해가 넘어갈 때 이제 푸는거조. {밤}사 이에 졸으라	밤		명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정규 표기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박원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영역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유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정규 표준 문법 표준	영단 정규 표준 문법 표준	표준국어 표준 문법 표준
1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3하루	121305	밤	1213051		하룻밤	명	명	해가 지고 그 다음날 해가 올 때까지의 동안. #1 하룻밤.	@ 아 지랄개 오랫동안 한 번 나기면 지랄 개 배에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박차연(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1	동풍	1221010		셋바람	명	명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쪽에서 오는걸 셋바람이라고 해요. 동풍 이라고도 하고 {셋바람}이라고도 하고.		박차연(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1	동풍	1221011		셋바람 불면 고기가 머리 아프다	명	명	셋바람이 부는 때에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데 관, 서 바닷사람들이 하는 말	옛날 사람들은 {고기가 머리 아프서} 미끼 도 안 먹구, 안 무는 게라고 그러지.		박차연(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2	서풍	1221020		서풍	명	명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녹여람풍	이게 그러고서 동풍 {서풍} 나머지는 동풍 서풍		최은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2	서풍	1221021		두지바람	명	명	가을에 부는 동풍	우리는 바다에서 작업하다가 느닷없이 막 연막때라서 구름 막 날려 들어오고 몰 하고 막 그냥 막 앞도 안보여요. 그렇게 날려들어 오는 것이 그것보고 {두지}라고 해요. 느닷 없이 막 때리는 거.		박차연(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2	서풍	1221022		두지 한다	명	명	구 두지가 부는 상태.	두지바람 여기서 부르는 용어만 내가 예기 하는 거여 {두지한다}고 가을에 구시월애 불면은 두지한다고 하는거여 두지바람		최은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3	남풍	1221030		마파람	명	명	햇사람들의 은어로, '남풍이(南風)'을 이르는 말.	남쪽에서 부는 건 {마파람}.		박차연(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4	북풍	1221040		북풍	명	명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쪽에선 그냥 {북풍}.		박차연(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5	동북풍	1221050		눈새바람	명	명	'동북풍'을 달리 이르는 말.	예, {눈새바람}이라고도 하고 눈새바람이라 부르지.		최은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6	북서풍	1221060		하늬바람	명	명	서북쪽이나 북쪽에서 부는 바람.	북서풍은 하늬바람		최은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7	동남풍	1221070		안마셋바람	명	명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부는 바람.	남풍은 안마 여기서 부르는 안마라고 그 했어 안마 {안마셋바람}.		최은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7	동남풍	1221071		안마	명	명	= 안마셋바람.	남풍은 {안마} 여기서 부르는 안마라고 그었어 안마 {안마셋바람}.		최은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7	동남풍	1221072		안마 불다	명	명	동남풍이 부는 상태.	남풍이부를 때는 {안마 불었네}.		최은영(충남 외연도)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 (박원호)

병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해 분류 : 의분류 : 의분류 : 의분류 :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자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휘 정보 의분류 의분류 : 의분류 :	영단 어휘 정보 의분류 의분류 : 의분류 :	표준국어 어휘 정보 의분류 의분류 : 의분류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발씨	1221바랑	122108	서남풍		북마파랑	명	서남쪽에서 부는 바람.	남서는 북마 {북마파랑}.			최동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의분류 의분류 : 의분류 :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발씨	1221바랑	122108	서남풍		북마	명	= 서남풍.	남서는 {북마} 북마 북마파랑			최동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의분류 의분류 : 의분류 :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발씨	1221바랑	122108	서남풍		북마 푼다	구	서남풍이 부는 상태.	남서풍은 어이 {북마 푼다} 이렇게 불렀 는 거지.			최동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의분류 의분류 : 의분류 :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발씨	1221바랑	122109	최오리바 랑		속수리바랑	명	갑자기 생긴 저기만 주변으로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공기가 나선 모양으로 일으키는 선회(旋回) 운동.	갑자기 생긴 저기만 주변으로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공기가 나선 모양으로 일으키는 선회(旋回) 고			최동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의분류 의분류 : 의분류 :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발씨	1221바랑	122109	최오리바 랑		돌풍	명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 누급풍(急風).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 누급풍(急風).			최동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의분류 의분류 : 의분류 :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발씨	1221바랑	122110	불다		불다	동	바람이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	시원하다 시원한 바람 {불었다}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최동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의분류 의분류 : 의분류 :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발씨	1221바랑	122110	불다		나다	동	= 불다.	돌풍 그놈이 그지야 진짜 하늬바람이 제대 로 {나는} 거여.			박자현(충남 보령시)		영단 어휘 정보 의분류 의분류 : 의분류 :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발씨	1221바랑	122111	세다		세다	형	바람 따위의 기세가 크거나 빠르다.	여기서는 바람이 {세민} 대풍 불었다고 하 고			최동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의분류 의분류 : 의분류 :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발씨	1221바랑	122111	세다		대풍 푼다	구	바람 따위의 기세가 크거나 빠르다.	바람 세게 푼면은 아구 {대풍 푼었다}하고			최동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의분류 의분류 : 의분류 :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발씨	1221바랑	122112	시원하다		시원하다	형	덥거나 습지 아니하고 알맞게 서늘하다.	바람워서 땀 쏘고 그런 때는 {시원하다}.			최동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의분류 의분류 : 의분류 :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발씨	1221바랑	122112	시원하다		땀 쏘다	구	시원한 바람을 맞아 땀을 식히다.	바람워서 {땀 쏘고} 그런 때는 시원하다.			최동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의분류 의분류 : 의분류 :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발씨	1222비	122201	소나기		소나기	명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멈추는 비.	@ 여름철에 갑자기 내리는 비는? #(소나기) 그런 소나기			최동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의분류 의분류 : 의분류 :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발씨	1222비	122202	이슬비		가랑비	명	가늘게 내리는 비.	{가랑비}. 그냥 가랑비여. 그렇게 내리는 비 는 뭐.			최동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의분류 의분류 : 의분류 :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발씨	1222비	122203	장맛비		장마	명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 상이나 날씨.	{장마}. 그냥 장마. 뭐 시기적으로 이런 데 서 오는 거.			최동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의분류 의분류 : 의분류 :	0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 (박원호)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해 분류 :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영역 분류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표제어 영성 등어번호	영단 표제어 사정 등어번호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5	내리다	1222050		내리다		동	눈, 비, 서리, 이를 따위가 오다.	시절에 눈이 {내리면은}.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5		1222051		온다		동	눈, 비, 서리, 이를 따위가 오다.	함박눈 {온다}. 싸락눈 오면 싸락눈 {온다}.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6	개다	1222060		날이 창명하다		구	흐리거나 낚은 날씨가 맑아지다.	안개 띠고 아이고 {날 창명해서} 좋다.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2비	122206	개다	1222061		안개 때다		구	= 개다.	{안개 띠고} 아이고 날 창명해서 좋다.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3눈	122301	함박눈	1223010		함박눈		명	굵고 함스럽게 내리는 눈.	{함박눈} 이렇게 많이 오는 눈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3눈	122302	싸라기눈	1223020		싸락눈		명	번방돌이 같자기 찬 바람을 만나 얼어 떨어지 는 쌀알 같은 눈.	{싸라기처럼} 하늘은 눈 있잖아, 그런 것은 인 자 {싸락눈}.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3눈	122303	잔눈깨비	1223030		잔눈깨비/잔눈 깨비		명	비가 섞여 내리는 눈.	비랑 섞여서 오는 눈은 {잔눈깨비}. {잔눈 깨비}.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3눈	122304	고드름	1223040		고드름		명	낙수를 따위가 빙으로 흐르다가 길게 얼어붙 은 얼음. 녹빙주02(氷柱)	처마 끝에 나가면 온기가 없으니까 거기서 어서서 {고드름}이 되는거야.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3눈	122305	얼다	1223050		얼다		동	{얼거나} 물기가 있는 물체가 찬 기온 때문에 고 체 상태로 굳어지다.	처마 끝에 와서 온기가 없으니까 {얼은거 야}.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3눈	122305	얼다	1223051		녹다		동	{얼음이나} 얼음같이 매우 차가운 것이 얼을 받 아 녹체가 되다.	지붕에서 {녹는} 물이 흘러내려가서 처마 끝에 나가면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3눈	122305	얼다	1223051		처마	처마	명	시냇물이 도리 밖으로 내민 부분.	그리면은 {처마} 끝에 와서 온기가 없으니 까 얼은거야. 그래서 처마 끝에 고드름이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 별	122401	해돋이	1224010		동 뜬다		구	{해가} 막 솟아오르는 때, 또는 그런 현상.	{동 뜬다} 해오른 걸 보고서 그냥 동 떠 다고.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 별	122402	해넘이	1224020		해 진다		구	{해가} 막 넘어가는데, 또는 그런 현상.	{해진다}고 그러는 거야. 해 져어.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 별	122403	햇무리	1224030		햇마리		명	햇빛이 대기 속의 수증기에 비쳐서 해의 둘레 에 둥글게 나타나는 빛깔이 있는 테두리. {햇머리} 였네.	낮에 나와서 한낮에 예를 들어서 비이 있을 때 둘러로서 둥글하게 둘러있는 것을 오투들 {햇머리} 였네.		최동영(충남 외연도)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획자료(박원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회 분류 : 영역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자 정보	뜻풀이	종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1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3	해무리	1224031	햇머리 했다	구	구 = 햇무리가 나타난 상태.	‘낮에 나옴’에 햇을 들어서 낮이 있을 때 돌래로서 짧간하게 돌래있는 것을 오름 {햇머리 했네}.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1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3	해조름	1224032		명	해가 넘어갈 즈음 놓는 어장.	{해조름}은 인자 고기를 잡는 그 시기가 해가 넘어갈 때 어장을 놓는다는 얘기			박찬동(충남 외연도)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1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4	달머리	1224040		명	달 언저리에 동그랗게 생기는 구름 같은 하면 네.	오늘 저녁에는 {달머리}를 저렇게 크게 했네.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1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5	은하수	1224050		명	‘은하’를 강(江)에 비유하여 일상적으로 이르 는 말.	그 은하수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이렇게 남 북으로서 이렇게 막 형성된 거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1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6	뜨다	1224060		동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오 른다.	해 뜨다 그하고 해 {뜨다} 그하고.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1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6	지다	1224061		동	해나 달이 서쪽으로 넘어가다.	해 {진다} 그하고 해 뜬다 그하고.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1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1	번개	1225010		명	번개는 낮에, 하늘에서 번쩍 가리는 불꽃.	{번개} 천둥번개 친다고 그러지.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1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2	벼락	1225020		명	공중의 전기와 땅 위의 물체에 흐르는 전기 사이에 방전 작용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 상	{벼락} 맞았네 그러는거지.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1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2	벼락 맞았네	1225021		구	번개가 땅에 내려치는 현상.	{벼락 맞았네} 그러는거지.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1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2	벼락 때렸네	1225022		구	번개가 땅에 내려치는 현상.	벼락 맞았네 그러는거지. {벼락 때렸네}.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1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2	벼락	122503		명	뇌성과 번개를 동반하는 대기 중의 방전 현상	번개 {천둥} 번개 친다고 그러지.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1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구름	1225040		명	공기 중의 수분이 응기어서 미세한 물방울이 나 얼음 결정의 덩어리가 모여 공중에 떠 있는 것.	흐린 날에는 {구름}개서 흐리다고 그러고 하는것이 보편이지.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1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막구름	1225041		명	옅시 검은 구름.	검은 구름을 그 뭐라고 표현하기가 {막구 름}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1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흰구름	1225042		명	청한 구름.	{흰색구름}은 얇게 또는 구름을			최돈영(충남 외연도)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영단 어 표 기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 (박원호)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해분류 : 기초 어휘 비중분류 : 기초 어휘 비중분류 : 기초 어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휘 정보 영단 어휘 정보	영단 어휘 정보 영단 어휘 정보	표준국어 어휘 정보 표준국어 어휘 정보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9 서북향	1231090		서북간		명	서북과 북쪽의 사이가 되는 방위.		동북간 {서북간} 서남간 간 짜만 붙이는거 면 사이 사이에	최돈영(충남 외연도)		0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1 연바다	1232010		연바다		명	가리로 따졌을 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 다.		그렇지 {연 바다}는 어떤 기준을 말할 수가 없어	최돈영(충남 외연도)		0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1 연바다	1232011		절미		명	북도 췌 성의 외연도 말		용, {절미}, 옛날 본들이 이름을 붙인걸 잘 아마 하는거지.	최돈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1 연바다	1232012		머결		명	오도의 외연도 말		우들 어려서 외연도서 이 살아면서 부른 것 은 놀애 {머결} 빙결이로 부른 것은 황도 오도. 황건도로 이렇게 부른거여.	최돈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1 연바다	1232013		빙결이		명	황건도의 외연도 말		우들 어려서 외연도서 이 살아면서 부른 것 은 놀애 {머결} 빙결이로 부른 것은 황도 오도. 황건도로 이렇게 부른거여.	최돈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1 연바다	1232014		놀애 / 놀애		명	황도의 외연도 말		우들 어려서 외연도서 이 살아면서 부른 것 은 {놀애} 머결 빙결이로 부른 것은 황도 오도. 황건도로 이렇게 부른거여.	최돈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2 연안	1232020		연근해		명	육지와 연한 바다. 강 · 호수 따위의 물가.		이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바다에는 {연근 해}	최돈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3 바닷물	1232030		바닷물		명	바다에 괴여 있는 찰물. <해수		그건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온다. 이 해수 면을 넘어서 육지로 들어온다.	최돈영(충남 외연도)		0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4 민물	1232040		잔물		명	강이나 호수 따위와 같이 염분이 없는 물.		내륙에서 민물 말하자면 {잔물} 민물에서 사는 고기	최돈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5 파도	1232050		파도		명	바다에 이는 물결.		외연도 말로써도 {파도} 붙으면 그냥 바 다 붙다	최돈영(충남 외연도)		0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6 거품	1232060		버름		명	파도가 바닷가에 부딪혀 깨지면서 생긴, 속이 빈 양물.		날려다니는 거? {버름} 물버름	최돈영(충남 외연도)		0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6 거품	1232061		물버름		명	= 거품.		날려다니는 거? 버름 {물버름}	최돈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6 거품	1232062		날려다니다		동	바닷물 위에 띄서 흩날려 다니다.		{날려다니}는 거? 버름 {물버름}	최돈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7 너울	1232070		능울		명	바다의 크고 사나운 물결.		너울이 놓다 이런것은 외연도에서는 {능울} 국지	최돈영(충남 외연도)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 (박원호)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해 분류 : 영역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종류	기타 정보	출전 정보 1	출전 정보 2	영단 어휘 정보 영단 정보 영단 정보	표준국어 사전 영단어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7	1232071	너울	능울 굼다		구	너울이 몹시 높게 치는 모습.	너울이 높다 이런것은 외연도에서는 {능울 국지 }.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8	1232080	파도치다 (동사)	바다 굼다		동	바다에 물결이 일어난다.	외연도 말로써도 파도 높으면은 그냥 {바다 굼다}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9	1232090	넙다	넙다		형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크다.	바다나 방 같은거 면적이 큰거 그걸 복합적 으로 뭐라고 불러 무라고 {넙다.}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9	1232091	넙다	굼다		형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작다.	{굼다}지.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0	1232100	깊다	깊다		형	바다 표면에서 바닥까지의 거리가 멀다.	@ 수심이 어떨다고 얘기하세요? 부{깊다} 말다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0	1232101	얕다	얕다		형	바다 표면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짧 다.	@ 수심이 어떨다고 얘기하세요? 부{얕다} {얕다}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1	1232110	높다	높다		형	바다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길다.	파도가 막 {높이}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2	1232120	짜다	짜다		형	수금과 같은 맛이 있다.	{짬} 것 아니며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2	1232121	짜다	상꺾다		형	간이 보통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약하다.	@ 찌거의 반대는 부상꺾다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3	1232130	파랗다	청물 들었다		구	많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새색과 같이 밝고 선명하게 푸르다.	물이 들어오면 바다에 {청물 들어왔다}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3	1232131	파랗다	하늘색		명	많은 하늘의 빛깔과 같은 연한 파랑.	얕은 대 물은 그냥 {하늘색}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4	1232140	하얗다	하얗다		형	깨끗한 눈이나 얼기투어 같이 밝고 선명하게 될다.	그냥 {하얀하면} 흰색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5	1232150	빠지다	빠지다		동	물 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간다.	{빠진다}. 그냥 빠진다.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1	1233010	모래	모래		명	자연히 함께 부스러진 돌 부스러기.	{모래}도 왕모래가 있고 왕모래밭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획자료 (박원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회 분류 번호	기초 어획 영역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본사 정보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표기 영단 영단 영단	영단 표기 영단 영단 영단	표준국어 사정 등어
1기초 어획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1	모래	1233011		왕모래	명	류은 모래.	모래도 {왕모래}가 있고 왕모래밭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1	모래	1233012		왕모래밭	명	류은 모래가 깔린 바닷.	모래도 왕모래가 있고 {왕모래밭}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1	모래	1233013		가는모래	명	기늘고 고운 흰색 모래.	모래 종류만 왕모래 {가는모래} 이렇게 두 가지 있지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1	모래	1233014		참모래	명	= 가는 모래.	모래된 돌이 섞여서 흙이 {참모래}가 된 돌 은 있긴 있어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2	모래사장	1233020		백사장	명	경가나 바닷가의 흰모래가 깔려 있는 곳.	색깔에 따라서 {백사장}을 분류하는 건 어 기서는 없지.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3	갯벌	1233030		빨밭	명	개흙이 가늘어서 갯벌이 진 곳.	그런 빨망 말하자면 빨망 모래망 그런 것이 {빨밭}이다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3	갯벌	1233031		빨망	명	= 갯벌.	그런 {빨망} 말하자면 빨망 모래망 그런 것 이 빨밭이다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3	갯벌	1233032		갯벌	명	= 갯벌.	돌 쓰면은 {갯벌}에 나가서 고동도 잡고 흙 항도 잡고 마역도 들고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3	갯벌	1233032		모래망	명	모래틀음으로 이루어진 망.	그런 빨망 말하자면 빨망 {모래망} 그런 것 이 빨밭이다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3	갯벌	1233033		빈둥	명	빈다 밭 지형에 불규칙적으로 퇴적되어 솟아 오른 지형.	{빈둥}은 평지에 이렇게 올채가 나와있는 부분은 빈둥이라고 그러고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4	돌	1233040		돌	명	흙 따위가 굳어서 된 단단한 덩어리.	위 하얀 색깔 된 {돌}은 차돌이라고만해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4	돌	1233041		차돌	명	{이산화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 즉 석영 (石英)}	위 하얀 색깔 된 돌은 {차돌}이라고만해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4	돌	1233041		괴생이	명	불규칙하게 침식되어 고이하게 뻗은 돌.	그런 거 뾰족뾰족한 건 이런 거 뾰 {괴생이} 라고 불리기도 하고			최동영(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1	포구	1234010		X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획자료 (박원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회분류 : 영구 영역 : 영구	기초 어획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본문 정보	뜻풀이	종류	기타 정보	출전 정보 1	출전 정보 2	별도 영성 사건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1기초 어획	12활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2	항구	1234020	항	영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바닷가에 부두 따 위를 설명한 곳.	이안에는 {항} 안이고 이 말하지는 방파제 에서 들어오는 이안 들어와서 이안은 항내 고 항내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0
1기초 어획	12활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2	항구	1234021	항내	영	항구의 안	이안에는 항 안이고 이 말하지는 방파제 에서 들어오는 이안 들어와서 이안은 {항내} 고 항내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0
1기초 어획	12활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2	항구	1234021	방파제	영	파도를 막기 위하여 항만에 쌓은 돌.	이안에는 항 안이고 이 말하지는 {방파제} 에서 들어오는 이안 들어와서 이안은 항내 고 항내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0
1기초 어획	12활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2	항구	1234022	선착장	영	배가 와서 닿는 곳.	선착장. 그냥 선착장.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0
1기초 어획	12활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3	어귀	1234030	어귀		드나드는 물의 첫머리.	처음 처음 들어오는 동네 {어귀}.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0
1기초 어획	12활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4	개	1234040	X									
1기초 어획	12활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5	곶	1234050	X									
1기초 어획	12활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6	만	1234060	X									
1기초 어획	12활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7	바위	1234070	돌바위	영	바위가 매우 큰 돌. 누석암(右巖).	돌나드는 건 {돌바위} 밑에다 다 느셔 니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돌바위'는 바위의 북한어로만 등재되어 있 다.	안성철(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2활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8	암반	1234080	X	영								
1기초 어획	12활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9	능떠러지	1234090	절벽	영	바위가 깎아 세운 것처럼 아주 높이 솟아 있는 험한 능떠러지.	산에다 어디 막 떨어지는 데는 모편적으로 {절벽}이라 하지 니께.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0
1기초 어획	130확률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영 칭	131101	머리	1311010	대가리	영	물고기의 아가미를 포함한 윗부분. = 머리.	이거 고기. 저기 뭐 놓아랴? {대가리} 보 니께.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0
1기초 어획	130확률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영 칭	131101	머리	1311011	대갈뺨기	영		양뺨이는 대갈뺨기만 크고, 쪽 빠저갖고, 배 꼽이 하나 있어			박차연(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획	130확률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영 칭	131102	입	1311020	입	영	물고기가 먹이를 먹는 부분.	{입}이 열다든가 눈이 열다든가 몸통이 열 다든가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박원호)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획 분류 번호	기초 어휘 영역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휘 사전	영단 정규 문장 구성	표준국어 사정 등어번호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02	임	1311021		주두이	명 = 임.	명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03	논	1311030		논	명	명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	임이 달다든가 {논}이 달다든가 몸통이 달 다든가		최동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04	등	1311040		등어리	명	명	물고기의 몸통에서 가슴과 배의 반대쪽 부분.	등어리까지 있잖여 {등어리}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05	아가미	1311050		아가미	명	명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 기관.	자기 명태 {아가미}로 하던가.		성태근(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06	지느러미	1311060		지느러미	명	명	물고기 또는 물에 사는 포유류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헤엄치는 데 쓰는 기관.	{지느러미} 상태는 이런 것은 다 달본디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06	지느러미	131106		날개	명	명	아가미 옆에 붙어있는 지느러미.	전여 전여, {날개}보니 전여네		남궁춘자(충 남외연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07	비늘	1311070		비늘	명	명	물고기의 표피를 덮고 있는 얇고 단단하게 생 긴 작은 조각.	고기는 {비늘}이 없으면 못 살여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07	비늘	1311071		고기는 비늘상 으로 산다	구	구	고기가 비늘이 없으면 버티지 못하고 금방 죽 는다.	{고기는 비늘상으로 사는 거요.}고기는 비 늘이 없으면 못 살여. 아무라 물은 끓 없이 먹어도 안살여 죽여.		박차돈(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08	갈대기	1311080		갈대기	명	명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하지 않은 물질.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09	배	1311090		배	명	명	물고기의 몸통에서 등의 반대쪽 부분.	등어리가사가 있고 {배} 지느러미 요기 요 기도 가사가 있고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09	배	1311091		배꼽	명	명	영덩이는 대갈배기만 크고, 꼭 빠져갖고, {배꼽}이 하나 있어			박차연(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10	창자	1311100		창자	명	명	큰창자와 작은창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배변을 보야하잖여 그거 다 굶어내고 그 {창자} 요런 것도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11	부레	1311110		X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12	살	1311120		살	명	명	물고기의 뼈를 싸서 몸을 이루는 부드러운 부 분	생으면 막 푹푹 {살}이 이렇게 갈라져.		성태근(충남 외연도)			0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획자료(박원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회 분류 번호	기초 어획 영역	기초 어획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표기	영단 의상	영단 의상 등대어
1기초 어획	130어획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13	알	1311130		X									
1기초 어획	130어획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14	꼬리	1311140		꼬리	명	물고기의 뒤 끝에 붙어서 조금 나와 있는 부 분.	{꼬리}는 인저 비행기로 말하면 왔다갔다 점어주는 거		박차트(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14	꼬리	1311141		공지	명	= 꼬리	가오리는 살이 있기 때문에 {공지}에가 살 이 붙잖아. 잠이, 독침이.		박차트(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16	가시	1311150		가시	명	물고기의 뼈, 큰뼈와 잔뼈를 통틀어 이른다.	등어리{가시} 있잖아 등어리 여러 날개가시 도 붙어있고		박차트(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16	가시	1311151		등어리가시	명	등치느리에에 있는 가시.	{등어리가시} 있잖아 등어리 여러 날개가시 도 붙어있고		박차트(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16	가시	1311152		날개가시	명	아가미쪽 날개에 있는 가시.	등어리가시 있잖아 등어리 여러 날개가시 도 붙어있고		박차트(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16	가시	1311153		살	명	가오리 꼬리에 화살의 끝과 같은 모양으로 생 긴 부분	가오리는 살이 있기 때문에 공지에게 {살}이 붙잖아. 잠이, 독침이.		박차트(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16	가시	1311154		침	명	가오리 꼬리에 화살의 끝과 같은 모양으로 생 긴 부분	가오리는 살이 있기 때문에 공지에게 살이 붙잖아. {침}이, 독침이.		박차트(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기	131물고 기	1311부분 명 칭	131116	가시	131115		독침	명	가오리 꼬리에 화살의 끝과 같은 모양으로 생 긴 독이 있는 부분.	가오리는 살이 있기 때문에 공지에게 살이 붙잖아. 잠이, {독침}이.		박차트(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01	물고기	1312010		물고기	명	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육지 {물고기}인데 바다 물고기가 아니고		최든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01	물고기	1312011		고기	명	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고기}로 말하면 앞이 아가미로 바로 뒤에 가 지느러미 두 개 있잖아		박차트(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02	멸치	1312020		멸치/머르치	명	멸치과의 바닷물고기.	인저 고기가 {멸치} 같은게 많이 있나 없나 그러 보는 거여. / 이런 {머트치정} 같은데?		박차트(충남 보령시)/박 차트(충남외 연도)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02	멸치	1312021		멸	명	= 멸치.	우리 배들은 지금도 {멸}집이를 하지만 죽 은 배들은 타지방에 가서 못한단 말이여.		박차트(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02	멸치	1312022		멸꺾이	명	= 멸치집이.	우리 배들은 지금도 {멸꺾이}를 하지만 죽 은 배들은 타지방에 가서 못한단 말이여.		박차트(충남 보령시)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획자료(박원호)

항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항목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본문 정보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 표기	영단 어 의 성 등 이 유	표준국어 사 전 등 이 유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1312종류	131202	1312022	말치	양말치	명 = 양미리.	명	말치, 건쟁이, 말치, {양말치} 이렇게 잡 거트요?			박창돈(충남 외연도)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1312종류	131202	1312022	말치	양말	명 = 양미리.	명	{양말}이라고 또 미국리지처럼 생김 피그리 가 있어요.			박창돈(충남 외연도)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1312종류	131203	1312030	쟁어리	쟁어리	명 쟁어과의 바닷물고기.	명	{쟁어리}, 미끼는 쟁어리 넣어요			박창돈(충남 외연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1312종류	131204	1312040	갈치	갈치	명 '갈치'의 발인	명	{갈치}전, 반지젓 그러네.			생태돈(충남 보령시)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1312종류	131205	1312050	고등어	고등어	명 고등어과의 바닷물고기.	명	아 이견 {고등어}야. 얼룩무늬.			남궁춘자(충 남외연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1312종류	131206	1312060	가오리	가오리	명 가오리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 통쟁이, 쟁이, 뚝쟁이.	명	{가오리}는 살이 있기 때문에 쟁이에게 살 이 통쟁이, 쟁이, 뚝쟁이.			박창돈(충남 보령시)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1312종류	131206	1312061	간개미	간개미	명 = 가오리.	명	가오리도 그렇지. 가오리. {간개미}.			생태돈(충남 보령시)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1312종류	131206	1312062	광개미	광개미	명 = 가오리.	명	우럭, {광개미}, 광어 바다에 나가서는 여기 아니고 육지나 육갈며. 농어나			남궁춘자(충 남외연도)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1312종류	131207	1312070	홍어	홍어	명 = 홍어. 서해에서는 사 칠 내내 잡히나 겨울에 잡히지 않힌다. 특히 겨울 눈 왔을 때에 잡은 홍 어가 많았다.	명	이견 {홍어}			남궁춘자(충 남외연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1312종류	131208	1312080	가자미	도다리	명 가자미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30cm 경 도이며, 누런 갈색 바탕에 어두운 갈색 반점이 있고 눈이 없는 쪽은 흰색이다.	명	쟁어는 눈이 오른 쪽에 배겼다. 붓고 {도다 리}는 눈이 왼 쪽에 배겼다고 보아돼요			박창돈(충남 외연도)	0	0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1312종류	131209	1312090	명태	명태	명 대구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40~60cm 이다. 등은 푸른 갈색, 배는 은빛을 띤 백색이 다.	명	{명태}가 아니고 이게 명태가 아니다.			최돈영(충남 외연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1312종류	131209	1312090	명태	명태바리	명 명태잡이	명	{바리}를 {명태바리}를 겨울에 하고,			박창돈(충남 보령시)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1312종류	131210	1312100	동태	동태	명 얼린 명태.	명	이건 자기, 생태네. {동태}가?			남궁춘자(충 남외연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1312종류	131211	1312110	황태	X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 (박원호)

병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획 분류 번호	기초 어휘 영역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휘 사전	영단 정규 문법 사전	표준국어 어휘 사전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12	노가리	1312120		X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13	복어	1312130		복어	명	말린 명태.		또 복 {복어}고 그러지 말린 거.		남궁준자(충 남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14	생태	1312140		생태	명	얼리거나 말리지 아니한, 짙은 그대로의 명태. 즉 생양태.		이건 저기, {생태}내, 동란가?		남궁준자(충 남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15	조기	1312150		조기	명	민어과의 보구치, 수조기, 황조기 따위를 통틀 어 이르는 말.		꼭 {조기}처럼 생겼어요. 조기처럼 생겼는 데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15	조기	1312151		부서	명	= 보굴치.		그런 것을 보고서 이런 {부서}다. 이런 민어 다. 이런 조기다. 이런 보굴치다. 이런 것을 구별하는 거야.		최돈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15	조기	1312152		보굴치	명	몸의 길이가 두 뼘 미만인 민어를 이르는 말.		{보굴치}. 그것은 꼭 조기처럼 생겼어요.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15	조기	1312153		백조기	명	= 보굴치		어기사람들은 {백조기}라고도 부르고 하는 데 원 이름은 보굴치여		박차돈(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15	조기	1312154		조기바리	명	조기잡이.		그게 민어잡는 그물 {조기바리} 그런 것을 전부 그런 그물을 썼는데.		박차현(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15	조기	1312155		조기잡이	명	조기잡이.		서해여서 {조기잡이}를 썼어		박차현(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16	굴비	1312160		굴비	명	수름에 약간 젖어서 톰으로 말린 조기.		이제 {굴비}하는 조기였잖아요		박차현(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17	공치	1312170		공치	명	= 공치. 서해안에서 주로 음력 5, 6월에 잡힌 다.		이건 {공치}.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17	공치	1312171		학공치	명	= 학공치. 공치에 비해 주둥이가 길다.		{학공치}라고 해야겠는디		최돈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18	복어	1312180		복쟁이	명	= 복어. 서해안에서 일 년내내 잡히나 겨울에 특히 많았다.		응, 복어. 여기서 {복쟁이}라 그러지.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19	고래	1312190		고래	명	= 고래.		{고래}보다 작은거, 그 잉크 그런거		남궁준자(충 남외연도)			0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박원호)

병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획 분류 번호	기초 어휘 영역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 사전	영단 어 사전 영성 등 기타 어휘	표준국어 사정 등 기타 어휘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19	고래	1312191	상괘이	상괘이		명	= 쇠물고래.	원래 여기 사람들은 {상괘이}라고 고래요		박차돈(총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19	고래	1312192	잉크고래	잉크		명	= 잉크고래.	고래보다 작은거, 그 {잉크} 그런거		남궁중자(총 남외연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20	상어	1312200		상어		명	= 상어, 서해안에서 일년내내 잡히나 아획항 이 적다.	{상어}과가 아니고 지금 돌고래 있잖아 그 단어이로 설정어.		박차돈(총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21	넙치	1312210		넙어		명	= 넙치, 서해안에서 주로 볼에 잡힌다.	음, 도다리는 아니고 {넙어}.		박차돈(총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22	바다장어	1312220		봉장어		명	봉장어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90cm 이 상이고 몸이 납작하다.	육지는 {봉장어}. 여기는 아니구나 그래		남궁중자(총 남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22	바다장어	1312221		아나구		명	= 봉장어.	육지는 봉장어. 여기는 {아나구}라 그래 (<일>anagol[穴子])		남궁중자(총 남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23	도미	1312230		돔		명	'도미'의 준말	{이거}는 부서야. {돔}은 가시가 세어		남궁중자(총 남외연도)		0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23	도미	1312231		아깨돔		명	= 적돔, 아깨돔으로 통칭되고 있음.	이런 아까 그 빨간 {아깨돔} 아니야	일본어 '赤い'에서 온 말로 추정.	남궁중자(총 남외연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24	병어	1312240		병어		명	= 병어, 서해안에서 음력 7월에 잡힌다.	이거는 {병어}		남궁중자(총 남외연도)		0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25	도루묵	1312250		도루묵		명	= 도루묵.	이건 {도루묵}이 아니야 도루묵은 고기가 더 작지.		남궁중자(총 남외연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26	임연수어	1312260		이연수		명	= 임연수어, 차노래잇과의 바닷물고기.	{이연수}는 아닌데 아 그물자국민가. 그림 찾아		남궁중자(총 남외연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26	임연수어	1312261		노래미/놀래미		명	= 노래미.	{이것은 이제 아니고나 {놀래미} 같은거, 우 락 같은 거, 다 몰조 이계.	노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 되어있지 않음	박차돈(총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26	임연수어	1312262		우럭		명	우럭과의 연체동물. 원터기는 두꺼운 말갈 모 양으로 단단하고 겉만은 연한 밤색이다.	{이것은 이제 아니고나 놀래미 같은거, {우 락} 같은 거, 다 몰조 이계.		박차돈(총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27	삼치	1312270		삼치		명	고등어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10미터 정 도로이고 가늘며, 옆으로 납작하다.	아 {삼치} 잡는다고.		박차돈(총남 외연도)			0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 (박원호)

병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획 분류 : 획순 : 번호	기초 어휘 영역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휘 사전 영성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정 등재여부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27	상치	1312271		상치바리		명	상치잠이.	이게 그거네 {상치바리}하는 거		박차현(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28	방어	1312280		방어		명	정갱이과의 하나. 몸의 길이는 1미터 정도로 인 방추형이고 주둥이는 뾰족하다.	{방어}. 방어는 무시리하고 또 틀려.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27	방어	1312281		부시리		명	정갱이과의 바닷물고기. 방어와 비슷하나 몸 이 가늘고 가슴지느러미가 배지느러미보다 짧 으며 옆구리에 진한 황색 세로띠가 있다.	{방어}. 방어는 {부시리}하고 또 틀려.		남궁준자(충 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29	독돌	1312290		X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30	전갱이	1312300		아지		명	= 전갱이.	을 전갱이보고 {아지}라 그래	일본어 鰺(あじ)에서 온 말.	남궁준자(충 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31	전어	1312310		전어		명	청어과의 바닷물고기.	{전어} 전어, 날개보니 전어네		남궁준자(충 남 외연도)	0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32	준치	1312320		준치		명	= 준치. 서해안에서 일년내내 잡힌다.	이게 썩어도...뭐라고...하는데... 아 썩어도 {준치}.		박차현(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33	청어	1312330		청어		명	= 청어. 서해안에서는 잡히지 않고, 동해안에 서 겨울에 잡는다.	{청어} 청어, 그제 청어야		남궁준자(충 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34	농어	1312340		농어		명	농어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50~90cm 이고, 등은 갈푸르고 배는 희다.	이건 낚깍이 {농어}결은데.		박차현(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35	쥐고기	1312350		쥐고기		명	= 쥐치.	{쥐고기}하고 이거하고 또 틀려.		이공래(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35	쥐치	1312351		쥐포		명	말린 쥐치를 기계로 납작하게 눌러 만든 어포 (魚脯).	{쥐포}돼요.		이공래(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36	민어	1312360		민어		명	민어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60~90cm 이고 길고 납작하다.	이거 {민어}결은데. 비늘보면 알어.		박차현(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2종류	131237	대구	1312370		대구		명	= 대구	이건 {대구}.		최본영(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기	131물고 기	1313상대	131301	알다	1313010		x		형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획자료 (박원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핵심분류 변종분류	기초 어획 분류 영역	기초 어획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자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표기	영단 정확 성	영단 시정 등이유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기	1313상태	131301	알다	1313011		자잘하다		형	어획이 다 가물거나 적다.	물은 건 안 살아. {자잘한} 것만 살아.		박차연(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기	1313상태	131301	알다	1313012		배다		형	= 자잘하다.	자잘한거 보고 {배} 거라 그래.		박차연(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기	1313상태	131302	굵다	1313020		굵다		형	건 물체의 둘레나 너비가 길거나 넓다.	초통에는 살고, 북통에는 {굵으면} 것 담고 그었지		박차연(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기	1313상태	131303	길다	1313030		X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기	1313상태	131303	길다	1313031		길쭉하다		형	조금 길다.	취고는 모양이 또 이거하고 달라도 또 배 달르게 또 있어요 이게 또 {길쭉해} 취 고기는 요로케		이공래(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기	1313상태	131304	크다	1313040		크다		형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 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이거보고 양미라라고 하는 거여, 깨나라 {큰}놈 보고서		박차연(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기	1313상태	131305	넙적하다	1313050		넙적하다		형	편편하고 얇으면서 꽤 넓다.	좀 광어랑 비슷하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그 뎡이라고 하더라 {넙적하다고} 그러냐		박차연(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기	1313상태	131306	상상하다	1313060		상상하다		형	시들거나 상하지 아니하고 생기가 있다.	{상상한} 것이 지났다 이 말이야. 배 니고 그런 것은		박차연(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기	1313상태	131306	상상하다	1313061		배 나다		구	상상하지 않거나 상하다.	{상상한} 것이 지났다 이 말이야. 배 니고 그런 것은		박차연(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 기	1313상태	131307	(가사) 꽤 드다	1313070		X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 류	1321부분 명 칭	132101	조개배	1321010		겉대기		명	조개의 겉대기.	전복은 {겉대기}가 딱딱하니까 해삼이 상해 요.		이공래(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 류	1321부분 명 칭	132102	임	1321020		X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 류	1321부분 명 칭	132103	아가미	1321030		아가미		명	조개가 숨을 쉬는 부분.	조개는 {아가미}보단 빨아들이는 거시기가 있더라고.		박차연(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 류	1321부분 명 칭	132103	아가미	1321031		빨아들이는 거		구		조개는 아가미보단 {빨아들이는 거}시기가 있더라고.		박차연(충남 보령시)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획자료(박원호)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 기초 어획 분류 : 항목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자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휘 정보 영단 어휘 정보 영단 어휘 정보	영단 어휘 정보 영단 어휘 정보 영단 어휘 정보	표준국어 어휘 정보 표준국어 어휘 정보 표준국어 어휘 정보
1기초 어획	130어획물 류	132조개 류	1321부분 명 칭	132104 상장	1321040		X										
1기초 어획	130어획물 류	132조개 류	1321부분 명 칭	132105 내장	1321050		X										
1기초 어획	130어획물 류	132조개 류	1321부분 명 칭	132106 조개관자	1321060		X										
1기초 어획	130어획물 류	132조개 류	1321부분 명 칭	132107 (조개)발	1321070		X										
1기초 어획	130어획물 류	132조개 류	1322종류	132201 조개	1322010		조개	명 = 조개.			{조개}는 먹을 거 조금씩 하고. 여기 육지가 가까운 데가 많이 있지.		성태순(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류	132조개 류	1322종류	132201 조개	1322011		올조개	명 = 알조개.			여기도 뭐 {올조개} 같은 거 잡을걸?		박차연(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류	132조개 류	1322종류	132201 조개	1322012		반지락	명 = 반지락.			여기서는 {반지락}이라고 그럴걸?		박차연(충남 외연도)		0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류	132조개 류	1322종류	132201 조개	1322013		백합	명 = 백합.			{백합} 그런 건 저 전라도서 나고.		성태순(충남 보령시)		0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류	132조개 류	1322종류	132201 조개	1322014		홍합	명 = 홍합과의 조개.			{홍합}에다 붙은 수컷.		성태순(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류	132조개 류	1322종류	132201 조개	13220141		수컷	명 = 수컷			{수컷}이라고 있어. 홍합에다 머리카락처럼 달라붙어.		박차연(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류	132조개 류	1322종류	132201 조개	1322018		새조개	명 = 새위에 군생하는 작은 조개. 바위 끝을 깨서. 살만 꺼내서 먹는다.			{새조개}는 아닌 것 같은데. 새조개는 아닌 고 이거 피망에 이거는 저기 양근이고.		성태순(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류	132조개 류	1322종류	132202 소라	1322020		소라	명 = 소라과의 연체동물. 쾨테기의 높이는 10cm. 사람들은 8cm 정도이며 두껍고 견고하다.			그 {소라} 쾨테기 속에 그 게가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		이공래(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류	132조개 류	1322종류	132202 소라	1322021		배불이				여기 말로는 {배불이}.		이공래(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30어획물 류	132조개 류	1322종류	132203 고동	1322030		고동	명 = 고동의 방언			{고동}도 쾨테라 가고.		최문영(충남 외연도)			0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 (박원호)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획 분류 번호	기초 어휘 형태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정규 문법	영단 어휘 사전	표준국어 사정 등재여부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4	전복	1322040	전복과의 하나. 껍데기의 길이는 10~20cm이고 타원형이며 갈색 또는 푸른빛을 띤 갈색이다.	전복		명	전복과의 하나. 껍데기의 길이는 10~20cm이고 타원형이며 갈색 또는 푸른빛을 띤 갈색이다.	{전복}은 껍데기가 딱딱하니까 해삼이 상해요.		이공래(충남외연도)		0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5	굴	1322050	굴과외의 하나. 껍데기에는 부챗살마루가 있다.	굴		명	굴과외의 하나. 껍데기에는 부챗살마루가 있다.	전복, 이런 전복이고, {굴}, 꼬막.		이공래(충남외연도)		0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류	132206	꼬막	1322060	동조개과의 하나. 껍데기에는 부챗살마루가 있다.	꼬막		명	동조개과의 하나. 껍데기에는 부챗살마루가 있다.	전복, 이런 전복이고, 굴, {꼬막}.		이공래(충남외연도)		0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3상태	132301	동그랗다	1323010		X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개	1331부분 명칭	133101	집게발	1331010		집게발		명	개, 가재 따위의 발끝이 집게처럼 생긴 발.	{집게발}이라는 건 재 밑 앞의 그. 그것보고 집게발이라고 하고.		박차면(충남보령시)		0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개	1331부분 명칭	133101	집게발	1331011		개양지		명	= 집게발.	왜냐면 이 큰 갈보고 {개양지}라 하고.		박차면(충남외연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개	1331부분 명칭	133101	집게발	1331011		부채발	부채발	명	집게발을 제외한 나머지 발.	@ 그림 나머지 발들은 뭐 그냥, # 부채발이라고.		박차면(충남보령시)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개	1331부분 명칭	133102	등딱지	1331020		껍따기		명	= 등딱지.	거의 {껍따기}라고 하지.		박차면(충남보령시)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개	1331부분 명칭	133102	등딱지	1331021		따장		명	= 등딱지.	그것 때고 이렇게 {따장}을 뜯으면 양쪽에 날개처럼 구성형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뜯었잖아? 그거 다 떼어내버려야돼.		성태순(충남보령시)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개	1331부분 명칭	133103	배	1331030		배		명	개의 배	땅은 {배}개가 배집이라고 양쪽은 이렇게 둥그랗고 웃음은 이렇게 기다물지.		박차면(충남보령시)		0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개	1331부분 명칭	133103	배	1331031		배갑		명	개의 배에서 암수 모양이 다른 껍데기. 그냥 죽어버려.	지 꽃개는 제일 쉽게 죽는 것이 {배갑}이면 그냥 죽어버려.		박차면(충남보령시)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개	1331부분 명칭	133104	내장	1331040		내장		명	개의 내장	{내장}이라고 해봐야. 똥 먹는 주둥이 안에 기구스름하게 요만한 거 달렸어.		박차면(충남보령시)		0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개	1331부분 명칭	133104	내장	1331041		구성		명	개의 아기미.	{구성}이라 그림 되지.		성태순(충남보령시)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개	1331부분 명칭	133104	내장	1331042		구성형이		명	개의 아기미.	그것 때고 이렇게 따장을 뜯으면 양쪽에 날개처럼 {구성형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뜯었잖아? 그거 다 떼어내버려야돼.		성태순(충남보령시)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박원호)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획득 방법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휘 사전 영성 등여부	표준국어 어휘 사전 등여부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1부분 명칭	133105 : 심장	1331050		심장		= 심장		거 임 있는 대가 주머니 요런거 달린 대가 거기 {심장}이고, 내장이고 장자가 뭐가 있는지, 폐고래기 요만치 달렸으니.		성태순(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1부분 명칭	133106 : 살	1331060		X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1부분 명칭	133107 : 눈	1331070		X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1부분 명칭	133108 : 기시	1331080		기시	까지	명	등막지 옆으로 뻗룩하게 나온 부분.	그렇지 {가시}지 뭐.		성태순(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1 : 개	1332010		개		명	심각목의 갑각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그 소라 껍데기 속에 그 {개}가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		이공래(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2 : 소라개(집게)	1332020		게고동		명	말각강 십각목의 동물 가운데 껍각 따위에 몸을 숨기고 사는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공래(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3 : 탈게	1332030		탈게		명	탈각과의 절지동물. 등막지의 길이는 12cm 정도이다.			이공래(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3 : 탈게	1332031		활낭게		명	= 탈게	{활낭}게. 탈게. 탈게		이공래(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4 : 꽃게	1332040		꽃게		명	꽃게과의 하나. 몸은 검은 자주색에 푸른 무늬가 있으며 등막지는 마름모꼴이다.	자 {꽃}게는 껍질 쉽게 찢는 것이 배꼽 띠면 그냥 죽어버려.		박찬영(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5 : 대게	1332050		대게		명	물말이전과의 하나.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가운데 가장 크며 맛이 좋다.	{대게}는 이렇게 말이 긴데.		이공래(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6 : 참게	1332060		참게		명	배위전과의 게.	오히려 생긴 {참}게.	본래 방게(참게)가 가리키는 대게임과도 달랐다.	이공래(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 미역	1341010		미역		명	말조류 미역과의 한해살이 바닷말.	이건 {미역}같은디.		이공래(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2 : 김	1341020		김		명	홍조류 보라말과의 조류.	{김}인데 김발 말리는 걸 김발.		이공래(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2 : 김	1341021		김발	김발	명	김을 양식할 때, 김의 홍색이 붉어 자라도록 절지하는 물이다. 앞·뒀리 따위로 엮어 만든다.	김인데 {김발}. 말리는 걸 김발.		이공래(충남 외연도)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 (박원호)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획득 방법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휘 정보 영단 어휘 정보	영단 어휘 정보 영단 어휘 정보	표준국어 사정 등재여부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351020	오징어		명	연채동물로 두족강 간오징어목과 살오징어목의 일부 종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오징어		성태준(총남 보형사)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2	이끼바리	1351021	이끼바리		명	오징어잡이.	{이끼바리}를 영태바리를 거울에 하고, {이끼바리} 아니야, 바다에 붙어있어	오징어의 일본어형인 이끼(いか)를 쓴다.	박찬돈(총남 보형사)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3	해파리	1351030	해파리		명	자포동물은 해파리강, 히드라총강의 부류 새 대를 통틀어 이르는 말.	{해파리} 아니야, 바다에 붙어있어		남궁준자(총 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4	낙지	1351040	낙지		명	문어과의 하나. 여덟 개의 다리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빨판이 있다.	이것이 푸꾸미! {낙진}가?		박찬돈(총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4	푸꾸미	1351041	푸꾸미		명	= 푸꾸미.	이것이 {푸꾸미}.		박찬돈(총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5	문어	1351050	문어		명	문어과의 연채동물.	여에서 물에 띄워가 이렇게 본다고 그림 {문어}도 잡고 저 잡고.		이광래(총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6	괘뚜기	1351060	괘뚜기		명	괘뚜기과의 귀뚜라기, 참귀뚜라기, 참뚝귀뚜라기, 투구귀뚜라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그렇지. {괘뚜기}는 괘뚜기대로		박찬돈(총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7	해상	1351070	해상		명	= 해상류	봄에는 {해상}, 전복		이광래(총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8	망게	1351080	망게		명	망게과의 원식동물.		사진제시 절문으로 용래 미기재	남궁준자(총 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9	성게	1351090	성게		명	= 성게.		사진제시 절문으로 용래 미기재	남궁준자(총 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09	말뚝성게	1351091	말뚝성게		명	= 말뚝성게.		사진제시 절문으로 용래 미기재	남궁준자(총 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10	말미잘	1351100	말미잘		명	= 말미잘.		사진제시 절문으로 용래 미기재	남궁준자(총 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11	불가사리	1351110	불가사리		명	= 불가사리.		사진제시 절문으로 용래 미기재	남궁준자(총 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류	135112	거북손	1351120	부활		명	거북손과의 하나. 거북의 다리처럼 생긴 머리 와 자루 부분은 석회판으로 덮여 있다. 외연도 사람들은 보통 노인네들이 불렀던 얘기는 이제 {부활}이라고 불렀어. 부활 두 말.			최은영(총남 외연도)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획자료(박원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회 분류 번호	기초 어획 영역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 표기	영단 정보 영성	영단 정보 사정 등재여부
	'130어획물	'135기타	'1351종류	'135112	거북손	'1351121		돼지발톱	멍 = 거북손.	멍		부청이라는 말이 어릴개 총 이상했던지 지 금은 {돼지발톱}이라고 외연도에서 불러.		최동영(충남 외연도)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2상태	'135201	비리다	'1352010		비리다	냉골이나 물고기, 동물의 피 따위에서 나는 맛 이나 냄새가 있다.	형		한 해 넘거서 배아 맛이 그게 제대로 {비린 }맛이 없지.		성태순(충남 보령시)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2상태	'135202	불다	'1352020		불다	동 맛풀아 떨어지지 아니하다.	동		{아이}이 납작하여 바윗돌에 {불아서}		성태순(충남 보령시)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2상태	'135203	빨강다	'1352030		빨강다	형 빛깔이 꽃빛 또는 익은 고추의 빛과 같다.	형		{이 {빨간해여} 배가.		성태순(충남 보령시)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2상태	'135204	노랑다	'1352040		노랑다	형 색이 밝고 선명하게 노르다.	형		바구니. 그 배 뽀지? {노란} 게.		박차연(충남 보령시)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2상태	'135205	뽀죽하다	'1352050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2상태	'135206	날카롭다	'1352060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	'1352상태	'135207	딱딱하다	'1352070		딱딱하다	형 몹시 굳고 단단하다.	형		전복은 껍데기가 {딱딱하니까} 해삼이 상해 요.		이공래(충남 외연도)		0	0	
'기초 어획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 구와 어로 류	'1411부분 명 칭	'141101	그물코	'1411010		코/그물코	멍 그물에 붙어 있는 구멍.	멍		그러면 안배 {코}는 틀이 많으니까 죽지 않 고 상하지도 않고 {그물코}에 실지도 않고		박차연(충남 외연도)		0	0	
'기초 어획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 구와 어로 류	'1411부분 명 칭	'141101	그물코	'1411011		코다리	멍 = 그물코	멍		인저 뽀코다리 오심{코다리}면 오심코다리 육십코다리면 육십코다리 쥔수 따져서 하는 얘기여		박차연(충남 외연도)		0		
'기초 어획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 구와 어로 류	'1411부분 명 칭	'141102	비리	'1411020		그물줄	멍 그물의 위쪽 코를 깨어 놓은 줄.	멍		그러니까 수지자랑이라는 것은 누시는 수 지, 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생겼어 그물이, {그물줄}이.		박차연(충남 보령시)	0	0	0	
'기초 어획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 구와 어로 류	'1412종류	'141201	그물	'1412010		그물	'노곤이나 실, 쇠줄 따위로 여러 코의 구멍이 나개 얹은 물건.	멍		{그물}이 또 양쪽에 있어요		박차연(충남 외연도)		0	0	
'기초 어획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 구와 어로 류	'1412종류	'141201	그물	'1412011		어망	멍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	멍		이거 뭐야, {어망}, 어망이구만?		박차연(충남 외연도)		0	0	
'기초 어획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물 구와 어로 류	'1412종류	'141201	그물	'1412012		상종망	멍 세 개의 그물이 붙어 이루어진 그물	멍		#1{상종망} @ 상종망이요? #1 상마이, 상마이.		박차연(충남 외연도)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 (박원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영역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휘 사전	영단 정규 영성 어휘사전	표준국어 어휘사전
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도 방법	141그룹	1412종류	141201	그물	1412013		삼마이	명	= 상종망.	그물이 세 개 붙어있다고 {삼마이}라고 해.			박차돈(충남 외연도)			0	
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도 방법	141그룹	1412종류	141201	그물	1412014		자망	명	= 걸그물.	옛날에는 {자망} 옛날에는 목그물이 있었어 요 목으로 편 그물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도 방법	141그룹	1412종류	141201	그물	1412015		목그물	명	무명으로 만든 그물	옛날에는 자망 옛날에는 {목그물}이 있었어 요 목으로 편 그물			박차돈(충남 외연도)			0	
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도 방법	141그룹	1412종류	141201	그물	1412016		목자망	명	목으로 만든 걸그물	목그물 {목자망} 자망 그 지름 쓰는 자망 명 칭은 복결구			박차돈(충남 외연도)			0	
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도 방법	141그룹	1412종류	141201	그물	1412017		수지자망	명	경심으로 만든 걸그물	인저 지름은 {수지자망}. 지름은 수지.			박차돈(충남 외연도)			0	
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도 방법	141그룹	1412종류	141201	그물	1412018		경심	명	낚시 따위에 쓰이는 굵은줄. = 경심줄.	{경심}보고 수지라고 얘기하는거.			박차돈(충남 보령시)			0	
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도 방법	141그룹	1412종류	141201	그물	1412018		수지	명	= 경심.	경심보고 {수지}라고 얘기하는거.			박차돈(충남 보령시)			0	
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도 방법	141그룹	1412종류	141201	그물	14120110		유자망	명	= 올림걸그물.	{유자망}이라는 것은 코가 인에는 목 심선 채라든지 아센지라든지 있고 결에는 상선채 치자는 되는 그물을 이 잔그물을 가운데다 붙여 놓고 그물이 또 양쪽에 있어요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도 방법	141그룹	1412종류	141201	그물	14120111		니얌른 그물	명	니얌른으로 만든 그물.	지름은 또 {니얌른 그물} 쓰는 사람이 있어 자기, 저 지름 N에 나오는 건 민어 잡잖아. 민어, 민어그물배 이렇게 한건. 그것은 전부 니얌른 그물이야.			박차돈(충남 보령시)			0	
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도 방법	141그룹	1412종류	141201	그물	14120112		잔그물	명	그물코가 작은 그물.	이 {잔그물}을 가운데다 붙여 놓고 그물이 또 양쪽에 있어요			박차돈(충남 외연도)			0	
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도 방법	141그룹	1412종류	141202	후릿그물	1412020		홀치기	명	갈이나 바다에 넓게 둘러치고 두 끝을 끌어당 겨 올고기를 잡는 큰 그물.	@ 이거는? #1 이것은 인저 거에서 이렇게 이렇게 걸고 낸다 갈가에 던지잖아요. @ 예 #1 {홀치기}. 홀치기.			박차돈(충남 외연도)			0	
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도 방법	141그룹	1412종류	141203	시돌	1412030		돌채	명	물고기 따위를 건져 올릴 때 쓰는 도구.	받아, 고기뜨는 받아라고 하지. 어기사람들 은. {돌채}라고도 하고 받아라고도 하고 어 기사람들은 받아라고 그래.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도 방법	141그룹	1412종류	141203	시돌	1412031		받아	명	= 돌채.	{받아}. 고기뜨는 받아라고 하지. 어기사람 들은. 돌채라고도 하고 받아라고도 하고 어 기사람들은 받아라고 그래.			박차돈(충남 외연도)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획자료(박원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회계 번호	기초 어획 영역	기초 어획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휘 사전	영단 정규 문법	표준국어 사정 등가어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룹 류	1412종류	141204	망사리	1412040		망행이	명	해녀들이 잠은 해상, 전복 등을 놓아두는 자루 {망행이} 앞아				이곡래(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룹 류	1412종류	141205	태왁	1412050		두름바	명	밖의 씨 톨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		{이곡래}{두름바}인데 여기하고 또 틀리네.		이곡래(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룹 류	1412종류	141205	태왁	1412051		명박	명	= 태왁. {명박}이 맞아 맞아.				이곡래(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룹 류	1412종류	141206	꼭지그물	1412060		X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1그룹 류	1412종류	141207	설망	1412070		X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2부시 류	1421부분 명칭	142101	낙시대	1421010		낙시대	명	물고기를 잡는 도구의 하나. {낙시대}에다 바늘 꿰가지고				박차트(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2부시 류	1421부분 명칭	142102	낙시줄	1421020		낙시줄	명	낙시대에 낙시바늘을 매어 달기 위하여 쓰는 기늘고 질긴 끈.		물바늘배라고 해라 해가지고 {낙시줄}을 꿰 고 다니면서 잡는 배.		안상철(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2부시 류	1421부분 명칭	142102	낙시줄	1421021		줄	명	= 낙시줄		투어낙시하시는 분을 그런 가는 {줄}을 대 요.		박차트(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2부시 류	1421부분 명칭	142103	얼레	1421030		줄자사	명	= 얼레		죽지 이렇게 낙시 오는 사람들이 {줄자사} 달라 해왔고 그러데. 그 같은 거 얘기를 하 는 거지.		박차연(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2부시 류	1421부분 명칭	142103	얼레	1421031		줄모터	명	= 얼레		성애는 {줄모터}라고 하는거지.		박차연(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2부시 류	1421부분 명칭	142104	이늘	1421040		이늘	명	낙시 끝의 안쪽에 있는 거스러미처럼 되어 고 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작은 갈고리.				박차트(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2부시 류	1421부분 명칭	142104	이늘	1421041		낙시끝	명	낙시바늘에서 송곳처럼 뾰족한 끝 부분.		오것 보고 {낙시 끝}, 낙시 이늘.		박차트(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2부시 류	1422종류	142201	낙시	1422010		낙시	명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작은 쇠갈 고리.		전부 이런게 완줄에다가 {낙시}를 매요.		박차트(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2부시 류	1422종류	142202	상용낙시	1422020		행낙	명	낙시대를 쓰지 아니하고 물고기가 물리면 낙 시줄을 채서 끌어내는 도구.				박차트(충남 외연도)			0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 (박원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회분류 번호	기초 어휘 영역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휘 정보 영역	영단 어휘 정보 영역	표준국어 사정 등 기타 정보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2남시 류	1422종류	142203	주낙	1422030		주낙	명	= 주낙.		내려놓고서 인자 바다가 돌 빠지고 우조간 지, 상상 가면 지가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낙}이에요. 여기서함들은 주낙이라 부르지.	'박차든(충남 외연도)			0	0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2남시 류	1422종류	142203	주낙	1422031		주낙바구	명	주낙 바늘을 끼워 놓는 뿔.		요것은 {주낙바구}, 요것은 주낙.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1	간판	1431010		넙개	명	배의 바닥에 까는 판자. 삼보다 약간 낮게 깎 는다.		넙개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배 밑, 구랑, 상 위에 까는 널 보고 {넙개}라고 하는거야.	'박차든(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2	이물	1431020		이물	명	배의 앞부분.		여기는 알기 쉽게 말해 선미 아녀, 그런데 우리들은 {이물}이라고 그러거든?	'박차든(충남 보령시)			0	0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2	이물	1431021		선미	명	= 이물		여기는 알기 쉽게 말해 {선미} 아녀, 그런데 우리들은 이물이라고 그러거든?	'박차든(충남 보령시)			0	0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3	고물	1431030		고물	명	배의 뒷부분.		이물이라 하구, 여기더러 {고물}이라 한다 고, 그러디 지금은 선미, 후미 이한다고.	'박차든(충남 보령시)			0	0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3	고물	1431031		후미	명	= 고물.		이물이라 하구, 여기더러 고물이라 한다고. 그러디 지금은 선미, {후미} 이한다고.	'박차든(충남 보령시)			0	0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3	고물	1431032		도모	명	= 고물.		최고 {도모}라는 뉘 후미 쪽으로 큰게 올라 가서 끌고	'박차든(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4	뿔	1431040		뿔	명	배 바닥에 세운 기둥에 매어 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만든 넓은 진. 바람을 받아 배를 가게 한다.		사공이라는 말은 옛날에 풍랑에 막대기 끌 고 {뿔} 당장아요. 뒤에 기계가 없으니까 키 를 잡는 사람보고 사공이라고 하는거야. 옛 날.	'박차든(충남 외연도)			0	0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4	뿔	1431041		양엇뿔	명	이물 쪽에 다는 뿔.		#1 이제 우리들이 배에서 부르는 것은 {양 엇뿔}이라고 하지. @ 양엇뿔이요? #1 응, 제일 앞에것 모고.	'박차든(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4	뿔	1431041		양엇뿔	명	이물 쪽에 다는 뿔.		양이 새우는 것을 {양엇뿔}, 가운데 서는 것 을 허엇뿔.	양상철(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4	뿔	1431041		허릿뿔	명	배의 가운데에 다는 뿔.		@ 그림 가운데에는 허릿뿔 하시구요? #1 허릿뿔.	'박차든(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5	뿔대	1431050		뿔대	명	뿔을 달기 위하여 배 바닥에 세운 기둥.		그러디 여가 {뿔대}라고 이거 잘못 디고만.	'박차든(충남 보령시)			0	0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5	뿔대	1431051		용천대	명	= 뿔대.		지금 뿔대보고서 {용천대}라고 하는 거 아 녀.	'박차든(충남 보령시)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 (박원호)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획득 번호	기초 어휘 영역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유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정리 번호	영단 사정 번호	표준국어 사정 번호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5	돛대	1431052		큰돛대		명	고목 쪽에 다는 돛대.	그것은 그냥 {큰돛대}라고 그랬지, 큰돛대.		'박차연(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5	돛대	1431053	고물대	용두		명	통의 꼭대기 부분. 용두에 돛을 달고, 돛을 올 렸다고 해서 용두라고 한다.	용두라고 어디 {용두}를 앞접어. 꼭대기. 그러고도 더크게 말아올리는 식 으로 잔아 들어서 돛을 올렸다고 하는거.	<표준>은 '배의 돛대 꼭대기 부 분'으로 풀이.	'박차연(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6	화대	1431060		화대		명	돛 위에 가로 댄 나무.	이것은 먼저 옛날에는 뭐라 했는데, 돛 {화 대대}. 화대대.		'박차연(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6	화대	1431061		돛살		명	= 돛대.	@그리고 돛을 줌 보면, 요것을 실을 뭐라 고 해요? 기로로 대고 있는 살. #1 {돛살}이라고 하지. 돛살.		'박차연(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7	돛	1431070		돛		명	배를 한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 여 돛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	파도 치르면 {돛}을 놓고서 배를 정박할 시 킬 것이니.		'박차연(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7	돛	1431073		돛 개대		구	= 배가 출항하기 위해 돛을 올리는 행위.	그러니까 이제 {돛 개대} 하면 뽕사람들은 인자 다 알지.		'박차연(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8	돛줄	1431080		돛줄		명	돛을 매다는 줄. 밧줄이나 쇠줄로 되어 있다.	이 배를 부린다는 {줄}이 이와야 파도 치면 은 밧줄을 놓고서 배를 정박할 시킬 것 아니 어.	제보자는 질문시에 돛을 밑에 줄 이라고 하자. 반박없이 그냥 줄이 라고 표현했다. 예전에는 참박리 로 돛줄을 했다고 한다.	'박차연(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8	돛줄	1431081		앞줄		명	= 돛줄.	사투리해서 {앞줄} 끌리라 앞줄 매라 나갈 적에는 앞줄 끌리라 들어와서 정박할 적에 는 앞줄 매라 이러죠		'박차연(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8	돛줄	1431082		앞줄 끄르다		구	출항하기 위해 돛줄을 푸는 행위.	사투리해서 {앞줄 끌리라} 앞줄 매라 나갈 적에는 앞줄 끌리라 들어와서 정박할 적에 는 앞줄 매라 이러죠		'박차연(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8	돛줄	1431083		앞줄 매다		구	정박하기 위해 돛줄을 묶는 행위.	사투리해서 앞줄 끌리라 {앞줄 매라} 나갈 적에는 앞줄 끌리라 들어와서 정박할 적에 는 앞줄 매라 이러죠		'박차연(충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09	노	1431090		노		명	배를 해쳐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 나무나 항정수지로 만드는 데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납작하고 손잡이 부분은 가늘다.	지금 양항자는 나뭇배였던거여. 그래서 {노}를 지서 달고 다녔어.		'박차연(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10	{노}꽃다	1431100		꽃다		동	배나 돛줄을 움직이기 위하여 노나 손잡 이를 연결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인다.	전노는 빨리 가게 {지어}주는 사람이 전노.		'박차연(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11	상앗대	1431110		상앗대		명	배를 할 때 쓰는 긴 막대. 배를 땔 때나 띄울 때, 또는 물이 얇은 곳에서 배를 밀어 나갈 때 를 지었지.	{사앗대}로 저어서 깊은 디로 들어가야 노 를 지었지.		'박차연(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휘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 칭	143112	키	1431120		키		명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	{키} 짚는 사람을 사공이라 해.		'박차연(충남 외연도)			0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획자료 (박원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회분류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원표제어 번호	올림말	발음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13 벋밀	1431130		벋밀	명	벋	배를 짓기 위해 세우는 가장 일부분.	{벋밀}. 구랑, 삼 위에 까는 걸 보고 냉끼라 하고 하는거야.		박차연(충남 보령시)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14 구랑	1431140		구랑	명	벋	벋밀 위에 처음 올리는 부분.	{구랑}은 배 밑을 이제 배로 말하면 이렇게 밑을 놓고서 올리는 배 제일 밑이 처음 올리는 그것보고 구랑이라 그러는거야.		박차연(충남 보령시)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15 삼	1431150		삼	명	배	배의 밑 위로 대고 옆으로 채워 올라오는 판고 어교.	구랑하고 이제 이렇게 세는 것을 {삼}이라 하고 어교.		박차연(충남 보령시)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16 새지	1431160		새지	명	배	배의 파손을 막기 위해 방어 역할을 하는 배의 둘레.	냉게 대 갖고 나무로 둘러싼 것을 {새지}라 하는 거야.		박차연(충남 보령시)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1부분 명칭	143116 새지	1431161		가이상고	명	명	= 새지	발종기로 말하면 {가이상고}보고 새지라고 하는거야.		박차연(충남 보령시)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1 고기배	1432010		어선	명	명	고기잡이를 하는 배.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2 꼭막선	1432020		통통배	명	명	발종기를 장치하여 통통 소리가 나는 작은 배.	{#참에 생겨났고 기계 논 배, 참 들어와가지고 통통통통하고 꼭막선. {#통통배}라고 하는 그거 말하느구나. #그걸 보고 꼭막선이라고 하죠.		박차연(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2 꼭막선	1432021		발종선	명	명	= 꼭막선	망이 낚아도 판로가 없어 갖고, {발종선} 같으면 육지에 가서 파는데, 꽃단배라 거기서 내 물러 나오낼 못혀		박차연(충남 보령시)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3 기룻배	1432030		펜마	명	명	돌이 없는 작은 배.	이것은 여기 사람들이 {펜마}라 그래, 펜마 옛날 말이 펜마.		박차연(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4 돛단배(통선)	1432040		풍선	명	명	배방으로 움직이는 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런 큰배들은 {풍선}이라 하고.		박차연(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4 돛단배(통선)	1432041		추넛배	명	명	추넛을 갖춘 고기잡이배.	저기는 고금 고기라고 하면 이 {추넛배}.		박차연(충남 보령시)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4 돛단배(통선)	1432042		중선	명	명	안강망 그물로 고기를 잡는 배. 예전에는 풍선으로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이것에도 잡는다.	지금 우리 배들은 허가가 근해 안강망 허가 없이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이것에도 잡는다. 를 가지고 있거든? 옛날 {중선}.		박차연(충남 보령시)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4 돛단배(통선)	1432043		장배	명	명	이들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러 왕래하는 배	지금 객선처럼 {장배}가 외연도 망겼어, 상고선에 사탕 태워가지고.		성태원(충남 보령시)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4 돛단배(통선)	1432044		상고선	명	명	장사할 물건을 싣고 다니는, 그리 크지 아니한 배.	지금 객선처럼 장배가 외연도 망겼어. {상고선}에 사탕 태워가지고.		성태원(충남 보령시)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획자료(박원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회 분류 번호	기초 어획 영역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자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3종류	143204	독단배(종 선)	1432045		예대배기	명	돌대가 하나 세워진 풍선.	{예대배기} 하나 놓았다는 예기에요	{예대배기}, '한도배기'의 형태도 흔함	박차돈(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4종류	143204	독단배(종 선)	1432046		한대배기	명	돌대가 하나 세워진 풍선.	두 대배기. 그리고 또 하나 단계를 {한대배 기} 이렇게 옛날에 노인네들이 그렇게 불렀 어.	박차돈(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5종류	143204	독단배(종 선)	1432047		두대배기	명	돌대가 두개 세워진 풍선.	ढ을 이제 두 개 달면 {두대배기}, 세 개 달 면 세 대배기.	박차돈(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3배	1436종류	143204	독단배(종 선)	1432048		세대배기	명	돌대가 세개 세워진 풍선.	ढ을 이제 두 개 달면 두대배기, 세 개 달면 {세대배기}.	박차돈(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01	작살	1441010		화살	명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	옛날사람들은 여기서 {화살}로 고기 잡이 했거든.	박차돈(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02	어살	1441020		덕망	명	물고기를 잡는 장치. 새리, 장대, 장나무 따위 를 개울, 강, 바다 따위에 낚개 모양으로 둘러 치거나 꽂아 나무 울타리를 친 다음 그 가운데 에 그물을 담아 두거나 낚방, 낚방, 낚방과 같 은 장치를 하여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서 잡히 도록 한다.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03	통발	1441030		통발	명	갯조끼나 새리를 위하여 통발이 만든 고기잡이 기구.	입구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고기가 돌아 오. 들어만 가면 못나오니까. 못나오게 되어 있어요. 들어만 가지 나오지를 못해. 이걸 {통발}.	이공래(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03	통발	1441031		스프링통발	명	보편이 편하게 스프링으로 된 통발.	그런 {스프링 통발}이고.	박차돈(충남 보령시)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04	바구니	1441040	카고	카고	명	아래물을 담아 두는 상자	아니여. {카고}에다가 담아갖고.	성태순(충남 보령시)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05	종다래개	1441050		구락	명	'새끼'를 드물게 따서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만 든 그릇.	이거 여러분들은 옛날말로 {구락}이라고 하지. 물고기 담을 데가 없으니까.	박차돈(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06	호미	1441060		호미	명	김을 매거나 강이나 고구마 따위를 찧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	이것은 {호미}.	박차돈(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06	호미	1441061		갈퀴리	명	호미의 일종.	이것 모고는 {갈퀴리}. 黽쫌한 갈퀴리.	박차돈(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07	낚	1441070		낚	명	곡식, 나무, 풀 따위를 베는 데 쓰는 농기구. #1 {낚}.	@ 이것은 그냥? #1 {낚}.	박차돈(충남 외연도)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영단 어휘 정보 영성 등급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박원호)

병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해 분류 번호	기초 어휘 영역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휘 번호	영단 어휘 영역 번호	표준국어 사정 등차번호
'1기초 어휘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08	물곳	'1441080		해너웃		명	물속에서 일을 할 때 임는 장수복 따위의 웃. 웃.	'옛날 옛날 {해너웃}. 이게 목으로 된 해너 웃.		'박차든(총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08	물곳	'1441081		스쿠박		명	고무로된 장수복	오촌은 우리가 삶이 나오는게 아니라 웃을 {스쿠박}을 입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쓰죠		'이공래(총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09	물갈퀴	'1441090		X										
'1기초 어휘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10	고기살리 는배	'1441100		수구래		명	잡은 고기를 살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든 작은 배	이거 {수구래}. 고기 담가놓는 수구래.		'박차든(총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10	고기살리 는배	'1441101		가두리		명	잡은 고기를 살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든 작은 배	'예. {가두리}. 고기 가두는 가두리.		'박차든(총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11	투구	'1441110		마구리 투구		명	장수할 때 머리에 쓰는 장수 기구.	{마구리 투구}. 이런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다 잘아냈잖아. 해상, 전복을.		'이공래(총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11	투구	'1441111		마구리		명	= 장수부	'예. 그것보고 {마구리}라고 하지. 이게 쓰고 들어가는 서양보고.		'박차든(총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11	투구	'1441112		주넉까		명	마구리를 배 위에서 조종하는 사항.	이제 위에서 {주넉까}라고 오 마구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신호받고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박차든(총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12	수경	'1441120		수경		명	= 물안경.	해너웃 쓰는 걸 지금 {수경}이란 그러는데, 아이고 이걸 옛날에 뭐라 했었는데. 이걸 잊어버렸네. 원치 오래되어가지고.		'박차든(총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13	그물바늘	'1441130		바늘대		명	그물을 짜는 데에 쓰는 바늘.	오간. 그물 짓는 {바늘대}		'박차든(총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14	재침잡이	'1441140		X										
'1기초 어휘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15	줄채	'1441150		쪽반이		명	물고기 따위를 건져 올릴 때 쓰는 도구. 오구 모양의 그물이 달려 있다.	{쪽반이} 쪽반이 요거는 쪽반이다 '또는 행위로 어획하는 경우에는 '반이'로 통칭되고 있었다.		'이공래(총남 외연도)			0	
'1기초 어휘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16	낙지가래	'1441160		X		구								
'1기초 어휘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17	일음골	'1441170		X		명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획자료(박원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회분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자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휘 사전	영단 정규 문법	표준국어 사정 등미어부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17	알음골	1441170		비창		명	통합 따는 도구.		영음결과 도량이 비수하여 혼동하 상태에서 확장 여부가 나온 경우	성태순(충남 보령시)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18	결쇠	1441180		X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40로 도구	'1441기타	'144119	'미끼	1441190		이끼		명	= 미끼.	또 인파 고기 {이끼}으로 지금은 고기 이끼 으로, 영동에서 나가고.	성태순(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50로 행위	'1451조개류	'145101	피다	1451010		X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50로 행위	'1451조개류	'145102	캐다	1451020		X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50로 행위	'1451조개류	'145103	(전복) 빼 다	1451030		따다		동	붙어 있는 것을 잡아떼다.	전복은 {편다.}	이공래(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50로 행위	'1452해조류	'145201	말리다	1452010		말리다		동	'미역 따위를 햇빛에 건조시키다.	고기예다 {말리}는 것은 불안하니 있어.	성태순(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50로 행위	'1452해조류	'145202	널다	1452020		널다		동	별을 띄거나 바닷물을 띄기 위하여 펼쳐 놓다.	모기장 깔고, {널}어서 말려서 봉지로 상고	성태순(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50로 행위	'1453그물류	'145301	추리다	1453010		X		동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50로 행위	'1453그물류	'145302	짜다	1453020		짜다		동	싱이나 끈 따위를 씨와 날로 갈아서 천 따위를 만들다.	전부 목으로다가 쫓도 {짜서} 입었잖아요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50로 행위	'1453그물류	'145303	뜨다	1453030		뜨다		동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오 른다.	{뜨는} 거 아니에요?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50로 행위	'1453그물류	'145304	강다	1453040		강다		동	'어떤 물체를 다른 물체에 맡거나 빙 두른다.	고트머리만 가서 건져서 {강아}가지고 고기 만 가져오고.	안상철(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50로 행위	'1453그물류	'145305	끌다	1453050		끌다		동	'바닥에 먼 채로 잡아당기다.	물바늘배라고 해라 해가지고 낚시줄을 {물 고} 다니면서 잡는 배	안상철(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방법	'140로도 구와 어로 방법	'1450로 행위	'1453그물류	'145306	던지다	1453060		던지다		동	손에 든 물건을 다른 곳에 떨어지게 팔과 손목 을 움직여 공중으로 내보내다.	{던지}잖아요.	박차돈(충남 외연도)			0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휘자료(박원호)

병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획 분류 번호	기초 어휘 영역 번호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어휘 정보 영역 번호	영단 어휘 정보 사정 영역 번호	표준국어 사정 영역 번호
1기초 어휘	140이로도 구와 어로 행위 방법	145이로	1453그물류	145307	치다	1453070		치다		동	'박'이나 '그물' 발 따위를 퍼서 벌이거나 놓아뜨린다.	그물을 {쳐} 놓으면 바다에다 띄어놓고 쳐 놓으면		인상철(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40이로도 구와 어로 행위 방법	145이로	1454바시류	145401	눅다	1454010		눅다		동	'고기가 결린 낚시대'를 잡아 당기다.	무슨 고기 {눅는}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준 디냐		박차면의 최 (충남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40이로도 구와 어로 행위 방법	145이로	1454바시류	145402	채다	1454020		채다		동	알차기 세계 잡아당기다.	돛을 올릴 때는 올리라. 그리고 돛 밑 잡아 당기면 올리기잡아요. 오기서 {챌으니께}.		박차면(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40이로도 구와 어로 행위 방법	145이로	1454바시류	145403	걸리다	1454030		걸리다		동	'낚시나 그물에 무엇이 걸려다.	이끼를 썬가꾸 인저 배가 가면은 지가 이끼 개 안 {걸릴}란구		박차면(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40이로도 구와 어로 행위 방법	145이로	1454바시류	145404	올리다	1454040		올리다		구	그물을 바다에서 잡아 당겨 끌어 올리다.	호스 바뀌서 배에서 빨아 우이로 {올리거 든}?		박차면(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휘	140이로도 구와 어로 행위 방법	145이로	1455배	145501	(키를)잡 다	1455010		치 잡다		구	키를 잡고 배의 방향을 조정하다.	{치} 잡는}사람을 사공이라 해.		박차면(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40이로도 구와 어로 행위 방법	145이로	1455배	145502	타다	1455020		타다		동	배에 몸을 엮다.	그렇게 배 {타면서}. 1년이면 집에 한 번 두 번 오렇게 왔지.		박차면(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휘	140이로도 구와 어로 행위 방법	145이로	1455배	145503	내리다	1455030		내리다		동	배에서 몸을 육지로 옮기다.	오렇게 대나무 기둥 해놓만 줄 이렇게 {내 리}거든?		박차면(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휘	140이로도 구와 어로 행위 방법	145이로	1455배	145504	매다	1455040		매다		동	'고이나 총 따위의 두 끝을 엮고 잡아당기어 돌이지지 아니하게 머리를 만든다.	나갈 직에는 앞줄 끌러라. 들어와서 정박할 직에는 앞줄 {매라}.		박차면(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40이로도 구와 어로 행위 방법	145이로	1455배	145505	들다	1455050	고르다	끌르다		동	= 고르다.	나갈 직에는 앞줄 {끌러라}. 들어와서 정박 할 직에는 앞줄 매라.		박차면(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40이로도 구와 어로 행위 방법	145이로	1455배	145506	뜨다	1455060		뜨다		동	'돛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하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오 른다.	돛배를 만드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인제 나뭇을 사다가 만들어서 {뜨우는} 거. 여기 다 똑 같은 거 다 싫어서.		인상철(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40이로도 구와 어로 행위 방법	145이로	1455배	145507	가라앉다	1455070		가라앉다		동	물 따위에 떠 있거나 섞여 있는 것이 밑바닥으 로 내려앉다.	'바라베라(프로펠러) 돌아가는 데, 거기가 배 저가지고서 배가 {가라앉은} 거야.		박차면(충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휘	140이로도 구와 어로 행위 방법	145이로	1455배	145508	싹다	1455080		싹다		동	물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 배, 수레, 비행기, 정승의 등 따위에 올리다.	'나뭇을 만드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인제 나뭇을 사다가 만들어서 띄우는 거. 여기서 똑 같은 거 다 {싫어서}.		인상철(충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휘	140이로도 구와 어로 행위 방법	145이로	1456기타	145601	(작살) 쏘 다	1456010		X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획자료(박원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핵심 분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문자 정보	뜻풀이	종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표기 방법	영단 표기 방법 영단어 표기	영단 표기 방법 영단어 표기
1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조각류	151101	새우젓	1511010		새우젓	명	새우로 담은 젓갈.	{새우젓}은 이 굴에 안들어가면 저 겹대기 만 남아.			성태순(총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조각류	151102	멸치젓	1511020		머리치젓	명	멸치로 담은 젓. 멸치는 본디 젓갈을 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이런 {머리치젓} 같은데?			박창득(총남 외연도)			0	0
1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조각류	151103	명란젓	1511030		X										
1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조각류	151104	청난젓	1511040		청란젓	명	갈치 내장으로 담은 젓갈.	{청란젓}은 칼지 창지고.			성태순(총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조각류	151109	청난젓	1511041		칼지젓	명	칼지로 담은 젓	지금 내가 그러잖아. 칼지젓, 밴댕이젓, {칼 지젓}, 꼴뚜기젓. 많지 않잖아.			성태순(총남 보령시			0	
1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조각류	151105	조기젓	1511050		광치젓	명	조기 새끼로 담은 젓갈.	{광치젓}이 조기 새끼야.			성태순(총남 보령시			0	
1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조각류	151105	조기젓	1511051		황새기젓	명	황새기로 담은 젓. 누황석어해.	옛날에는 황새기란 현어. 황새기. {황새기 젓}이라 했어.			성태순(총남 보령시			0	
1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조각류	151106	꼴뚜기젓	1511060		꼴뚜기젓	명	꼴뚜기로 담은 젓갈.	지금 내가 그러잖아. 칼지젓, 밴댕이젓, 칼지 젓, 꼴뚜기젓. 많지 않잖아.			성태순(총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조각류	151107	아가미젓	1511070		아가미젓	명	물고기 아가미로 담은 젓갈. 젓갈을 담그는 어 종이 아가미기 따로 있다고 한다.	{아가미젓}은 여 서해 오희은 담는 거 못 봤 네.			성태순(총남 보령시			0	
1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조각류	151108	관쟁이젓	1511080		X										
1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조각류	151109	오징어젓	1511090		오징어젓	명	오징어로 담은 젓갈.	{오징어젓}인가?			박창득(총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조각류	151109	기타	1511091		밴댕이젓	명	밴댕이로 담은 젓갈.	지금 내가 그러잖아. 칼지젓, {밴댕이젓}, 칼 지젓, 꼴뚜기젓. 많지 않잖아.			성태순(총남 보령시			0	0
1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조각류	151109	기타	1511092		반지젓	명	반지로 담은 젓갈.	젓갈로 먹는 거는 밴댕이. {반지}, 조기새 끼, 꼴뚜.			성태순(총남 보령시			0	
1기초 어획	16민속	161	1611	161101	벵고사	1611011		당재	명	= 동산재.	{당재} 지내는 거.			안상철(총남 외연도)			0	0

3 서해 근해(외연도) 기초 어획자료(박원호)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회 분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번호	기초 어획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정보	본사 정보	뜻풀이	종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 표기	영단 정식 명칭	표준국어 사정 등재번호
1기초 어획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1	벵고사	1611025		철당 치다	구	구	옹항제를 지낼 때 일꾼들을 모신다	이것이 이제 철당이라 해서 옹항제, 회관 안에서 옹항제라 해서, {철당 쳤다}		인상철(총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1	벵고사	1611026		뒤송	명	명	고사를 모두 마치고 띠배에 음식을 실어 바다로 보내는 행동. = 고무래.	고기 먹같은 거 속 같은 거 이제 다해서 고시래 하는 거야. 그걸 {되송}이라 그러지.		인상철(총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1	벵고사	1611027		도렛술	명	명	고사에 쓰는 술. 누룩주.	도렛술을 제사 지내는 술을 도렛술이라 했다고.		인상철(총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6민속	162클기, 속설은 어 노래	1621노래	162101	금기	1611019		부인이 달거리 하면 남편은 제사 못 지낸다.	관	관	고사를 지낼 때 집안에 달거리를 하는 여자가 있으면 부정하다 여겨 그 집 남자는 고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달거리 하는 사람들은 부인이 하면 남편이 거를 몰라할 수가 없어.		인상철(총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6민속	162클기, 속설은 어 노래	1621노래	162101	금기	1611020		소가 땅에 던지는 안 쓴다.	관	관	제물로 바치는 소의 몸 가운데 땅과 맞닿는 부위는 제사 음식으로 올리지 않는다.	소를 한 마리를 다집아서 {땅에 던 데는 산에 안 쓰고}, 땀에는 안 쓰고 땅에 안 던 죽만 위에 산에서 다 쓰는 거예요 제사를.		인상철(총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6민속	162클기, 속설은 어 노래	1621노래	162101	금기	1611021		부정 없는 상황	구	구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전안이나 자신에게 벌이나 악재가 없는 낱자, 출산, 초상, 달거리, 병할 모두 해당한다.	초상 같은 게 나면은 안되고 이 동네서 애기 같은 거 놓고 하면 그때는 부정이라고 해서 안 지내니까, ... 그 깨끗한 사람이라는 게 {부정 없는 사람}.		인상철(총남 외연도)			0	
1기초 어획	16민속	162클기, 속설은 어 노래	1621노래	162101	금기	1611022		정한 사람	구	구	= 부정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정한 사람}들이라고.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부정 있으면 안된다. 이따이치. 그리고 그 때도 부인들이 집에서 달거리 하는 사람들도 안되고.		인상철(총남 외연도)			0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부류 번호	기초 어휘 부류 명목	기초 어휘 부류 번호 2	원표제어	올림말	발음	조사·동명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어휘 정보	해당 어휘 정보	비고
기초 어휘	11 행위자	111	1111	111101	어부	1E+06		어부		명	배를 타고, 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어부들은} 왜 적군이니 뭐 또 뭐니까, 그런 게 쓰는 쓰지요.	김일육 (육지도)		0	0	
기초 어휘	11 행위자	111	1111	111101	어부	1E+06		뱃사람		명	배를 타고, 물고기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 어부.	행위자에 관한 어휘는 일반적으로 '어부, 뱃사람'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고 뱃을 하는 사람을 뱃잡아 '뱃잡'이라고도 부른다.	김일육 (육지도)		0	0	
기초 어휘	11 행위자	111	1111	111101	어부	1E+06		뱃놈		명	'뱃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또 뱃사람 같은 거. 영 나쁘게 쓰면 이 아주 천하게 어부들을 말해서 {놈자들} 여 씁니다.	김일육 (육지도)		0	0	
기초 어휘	11 행위자	111	1111	111101	어부	1E+06		적군		명	배에서 샷을 받고 일하는 일꾼.	{적군이고}, 적군은 인자 배 어장을 위해서 총사하는 놈들, 입단을 받을 수도 있고, 뱃을 받을 수도 있고.	김일육 (육지도)		0	0	
기초 어휘	11 행위자	111	1111	111101	어부	1E+06		선주		명	배의 주인.	그러가지고 모여서 어장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자 적군이고, 그 다음에 정영을 하는 사람들이 {선주고}.	김일육 (육지도)		0	0	
기초 어휘	11 행위자	111	1111	111101	어부	1E+06		선장		명	배의 항해와 배 안의 모든 사무를 책임지고 선원들을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	뭐, 그거는 주로 뭐 아까 지가 말한 뱃사람 같은 거 인자 옛날에 이 동선이 이런 거 타고 다닌 사람들 뱃사람이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인자 요즘에 한 거 보니 {선장이다} 그런 생겼고.	김일육 (육지도)		0	0	
기초 어휘	11 행위자	111	1111	111101	어부	1E+06		선조		명	배의 항해와 배 안의 모든 사무를 책임지고 선원들을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	{기관장들} 우리나라 우리 그 지역 방언으로 {기관조로} 했는데, 기관장을 기관조, 기관은 영 추박을 같거든, 일본어나 우리 말이나 기관사하면 {기관사}, 기관사, 기관조, 선조, {선장은} 선조.	김일육 (육지도)		0	x	
기초 어휘	11 행위자	111	1111	111101	어부	1E+06		하장		명	배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인자 요즘에 한 거 보니 {선장이} 그래 생겼고, {하장} 같은 말도 하장은 배의 선원 중 식사를 먹 날라가지고 그 질도 그 뱃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이 담당한다고 한다, 그 뭐 있나.	김일육 (육지도)		0	0	
기초 어휘	11 행위자	111	1111	111101	어부	1E+06		뱃사공		명	배를 부리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뭐, 그거는 주로 뭐 아까 지가 말한 {뱃사공} 같은 거 인자 옛날에 이 동선이 이런 거 타고 다닌 사람들 뱃사공이라 했거든요.	김일육 (육지도)		0	0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옥)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해당 번호	기초 어휘 해당 번호	원표제어 해당 번호	음리말	발음	조사·도움말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규 상징	해당 정규 음성	보충국어 사전 등재여부
1기초 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어부	1E+06	기관장		명 배에서 배와 관련된 사무를 보는 사람.	그 {기관장}을 우리나라 우리 그 지역 방언으로 기관조로 했는데, 기관장을 기관조. 기관은 연속 발음이 같거든. 일본어나 우리말이나 기관사하면 기관사. 기관사. 기관조. 섹조. 섹장은 섹조.		김영옥 (육지도)		0	0	0
1기초 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어부	111101a	기관조		명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열차나 지하철, 선박, 항공기 따위의 기관을 다루거나 조정하는 사람.	그 기관장을 우리나라 우리 그 지역 방언으로 기관조로 했는데, 기관장을 기관조. 기관은 연속 발음이 같거든. 일본어나 우리말이나 기관사하면 기관사. 기관사. 기관조. 섹조. 섹장은 섹조.		김영옥 (육지도)		0	x	0
1기초 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어부	111101b	기관사		명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열차나 지하철, 선박, 항공기 따위의 기관을 다루거나 조정하는 사람.	그 기관장을 우리나라 우리 그 지역 방언으로 기관조로 했는데, 기관장을 기관조. 기관은 연속 발음이 같거든. 일본어나 우리말이나 기관사하면 {기관사}. 기관사. 기관조. 섹조. 섹장은 섹조.		김영옥 (육지도)		0	0	0
1기초 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어부	111101c	섹래까꾼		명 재냥기 어업을 하는 어민을 이르는 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섹래까꾼}. 낀 자 쓰거든요. 나무꾼 이하는 낀자. {올래까꾼}.		김홍국 (육지도)		0	x	x
1기초 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어부	111101d	슬래까꾼		명 재냥기 어업을 하는 어민을 이르는 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슬래까꾼}. 낀 자 쓰거든요. 나무꾼 이하는 낀자. {올래까꾼}.		김홍국 (육지도)		0	x	x
1기초 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어부	111101e	해패		명 재냥기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모임.	{해패라고} 해서 재냥기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해패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김홍국 (육지도)		0	x	x
1기초 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1	어부	111101f	일본조		명 재냥기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모임.	한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조라는} 어업 해패가 있었어요.		김홍국 (육지도)		0	x	x
1기초 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2	해녀	1E+06	해녀		명 바닷속에 들어가 해삼, 전복, 미역 따위를 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	그런데 {해녀들} 옛날에 보재이라는 말. 응.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보재이. 보재기는 보재기는 거 제주도부터 불러나온 말이지.		김영옥 (육지도)		0	0	0
1기초 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2	해녀	1E+06	보재이	해녀	명 바닷속에 들어가 해삼, 전복, 미역 따위를 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	그런데 해녀를 옛날에 {보재이라는} 말. 응. 보재이. 보재기는 보재기는 거 제주도부터 불러나온 말이지.		김영옥 (육지도)		0	x	x
1기초 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2	해녀	1E+06	보재기		명 바닷속에 들어가 해삼, 전복, 미역 따위를 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	해녀는 옥지까지 돼도 {보재기라고} 많이 씁니다.		김영옥 (육지도)		0	0	0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부류 번호	기초 어휘 항목 번호	기초 어휘 부류 및 항목 번호	원표제어	음리말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국가 어휘 사전	해당 국가 어휘 사전	보충국어 사전 등 판여부
기초 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2	해녀	1E+06		물바리		명	바닷속에 들어가 해삼, 전복, 미역 따위를 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2	해녀	1E+06		상바리		명	그 해녀들도 잘 하는 오래된 해녀, 초짜해녀,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다르던데 혹시 아는 거 개세요? 거기 있는데, {상바리}, {중바리}, 하바리.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2	해녀	1E+06		중바리		명	해녀 중 자물질을 잘 하는 장도인 사람을 이르는 말.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휘	11행위자	111	1111	111102	해녀	1E+06		하바리		명	그 해녀들도 잘 하는 오래된 해녀, 초짜해녀,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다르던데 혹시 아는 거 개세요? 거기 있는데, 상바리, {중바리}, 하바리.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1물	121101	한무날	1E+06		한물		명	무수기에 음력 영월과 스무닷새를 이르는 말.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1물	121101	한무날	1E+06		하무새		명	무수기에 음력 영월과 스무닷새를 이르는 말.		경민욱 (육지도)			○	×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1물	121101	한무날	1E+06		한물새		명	그리 우리는 그리 쓰지, {한물새}, 두물새, {오를 두물새, 새물새인데, 그리 그리 합니다.		경민욱 (육지도)			○	×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기초 어획분류	기초 어획분류	기초 어획분류	기초 어획분류	원표제어	올림말	발음	통사·통용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기초 어획	12월경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두물		무수기에 음력 열하루와 스무엿새를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서울, 너물.		이수용 (육지도)				0
기초 어획	12월경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두무새		무수기에 음력 열하루와 스무엿새를 이르는 말.	한무새, {두무새}, 새무새 쓰는 것도 있고, 한물 두물도 하고 그런 다 씁니다. 두 가지 다 같이 표현하게 되고, 오늘 한물 갔고, 오늘 한물새가? 오늘 몇물새고? 몇물이가 그렇게 보통 다 씁니다.		김임옥 (육지도)				0
기초 어획	12월경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두물새		무수기에 음력 열하루와 스무엿새를 이르는 말.	그리 우리는 그리 쓰지, 한물새, {두물새}, 오늘 두물새, 새물새인데, 그리 그리 합니다.		김임옥 (육지도)				0
기초 어획	12월경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서울		무수기에 음력 열이틀과 스무이레를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서울}, 네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물.		김임옥 (육지도)				0
기초 어획	12월경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새무새		무수기에 음력 열이틀과 스무이레를 이르는 말.	한무새, 두무새, {새무새} 쓰는 것도 있고, 한물 두물도 하고 그런 다 씁니다. 두 가지 다 같이 표현하게 되고, 오늘 한물 갔고, 오늘 한물새가? 오늘 몇물새고? 몇물이가 그렇게 보통 다 씁니다.		김임옥 (육지도)				0
기초 어획	12월경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서울새		무수기에 음력 열이틀과 스무이레를 이르는 말.	그리 우리는 그리 쓰지, 한물새, 두물새, 오늘 두물새, {서울새인데}, 그리 그리 합니다.		김임옥 (육지도)				0
기초 어획	12월경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서울		무수기에 음력 열이틀과 스무이레를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서울}, 너물.		이수용 (육지도)				0
기초 어획	12월경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너물		무수기에 음력 열사흘과 스무여드레를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서울, 서울, {너물}.		이수용 (육지도)				0
기초 어획	12월경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네물		무수기에 음력 열사흘과 스무여드레를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서울, {네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물.		김임옥 (육지도)				0
기초 어획	12월경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121월	다섯		무수기에 음력 열나흘과 스무아홉새를 이르는 말.	한물, 두물, 서울, 네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물.		이수용 (육지도)				0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분류 번호	기초 어획 단위	기초 어획 방법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조사·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국가 선정	해당 국가 선정	보존국가 선정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	121106	어섯무날	1E+06		어섯		평무수기에 음력 보름과 그믐을 이르는 말.	한울, 두물, 세물, 네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물.		이수용 (육지도)		0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	121107	일곱무날	1E+06		일곱		평무수기에 음력 열셋새와 초하루를 이르는 말.	한울, 두물, 세물, 네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물.		이수용 (육지도)		0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	121108	아홉무날	1E+06		여덟		평무수기에 음력 열이레와 초이틀을 이르는 말.	한울, 두물, 세물, 네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물.		이수용 (육지도)		0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	121109	아홉무날	1E+06		아홉		평무수기에 음력 열이레와 초사흘을 이르는 말.	한울, 두물, 세물, 네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물.		이수용 (육지도)		0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	121110	열무날	1E+06		열물		평무수기에 음력 열이레와 초나흘을 이르는 말.	한울, 두물, 세물, 네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물}.		이수용 (육지도)		0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	121111	열한무날	1E+06	열한무날	열한물		평무수기에 음력 스무날과 초닷새를 이르는 말.	{열한물}, 열두물, 열새물.		이수용 (육지도)		0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	121112	열두무날	1E+06	열두무날	열두물		평무수기에 음력 스무하루와 초엿새를 이르는 말.	열한물, {열두물}, 열새물.		이수용 (육지도)		0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	121113	조금	1E+06		조금		평무수기에 음력 스무사흘과 초여드레를 이르는 말.	조금은 음력 8일, 음력 23일로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적을 때 '물'이 머는 말이다. '조금'을 해남군 송지면에서 낚는다. '조금, 조금살, 조금사리'라 하고 그 중 음력 23일을 '스무시엇날'이라 하는데, 이날은 고사와 관원이 갖는 놀이기도 하다.	이수용 (육지도)		0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	121113	조금	1E+06	조금	조금시		평무수기에 음력 스무사흘과 초여드레를 이르는 말.	조금을 그날 {조금시}.	아흔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는 조 금이라는 어휘만 나타난다.	이수용 (육지도)		0	0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분류번호	기초 어획영역	기초 어획분류번호	원표제어	올림말	발음	종시·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어획량	해당 어획량	해당 어획량																																																																																																																																																																																																																																																																																																																																																																																																																																																																																																																																																																																																																																																																																																																																																																																																																																																																																																																																																																																																																																																																																																																																																																																																															
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	121113	조금	1E+06	조금	한조금		명 무수기에 음력 스무사흘과 초여드레를 이르는 말.	‘조금’은 음력 8일, 음력 23일로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작을 때’를 이르는 말이다. ‘조금’을 육지도에서는 ‘조금, 조금때, 조금시, 한조금’이라 한다. 서해안 중부인 태안 지역에서는 ‘한조금’은 음력 초이레와 스무이레를 이르는 말인데 육지도에서의 ‘한조금’은 조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육지도에서 ‘조금’은 음력 8일, 음력 23일로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작을 때’를 이르는 말이다. ‘조금’을 육지도에서는 ‘조금, 조금때, 조금시, 한조금’이라 한다. 서해안 중부인 태안 지역에서는 ‘한조금’은 음력 초이레와 스무이레를 이르는 말인데 육지도에서의 ‘한조금’은 조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수용 (육지도)		0	0	0																																																																																																																																																																																																																																																																																																																																																																																																																																																																																																																																																																																																																																																																																																																																																																																																																																																																																																																																																																																																																																																																																																																																																																																																															
																												x																																																																																																																																																																																																																																																																																																																																																																																																																																																																																																																																																																																																																																																																																																																																																																																																																																																																																																																																																																																																																																																																																																																																																																																																				
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1물	121113	조금	1E+06	음력 23일	조금때		명 조금 중 음력 스무사흘날을 이르는 말.	그 생누기는 그 {조금때에} 해야 돼, 사리때에 하면은, 그 묵야 낚시 들어가기 전에 벌써 떠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리때는 물살이 빠고, 조금때는 물살이 느리거든요.		이수용 (육지도)		0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기초 어휘 분류	원표제어	음리말	발음	조사·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규 상징	해당 정규 상징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휘	12환경	12시간	121물	12113	조금	1E+06	스무이른날		명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큰 날.	{스무이른날은} 아까 말한 거 같이 아침조금.	이수용 (육지도)		0	0	x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대 세기	121201	밀물	1E+06	밀물		명	조수의 간만으로 해면이 상승하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	{밀물}이 들어오는 기고. 인자 나가는 기 떨어지고. '날물, 난물' 또한 '나다' 의 여간에 '물'이 붙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밀물을 '들물, 든물'이라 표현 하는 것은 시제를 반영한 어휘라 볼 수 있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2011)	이수용 (육지도)		0	0	0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대 세기	121201	밀물	1E+06	들물		명	조수의 간만으로 해면이 상승하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2010)에서는 밀 물, 들물, 썰물, 날물이 제시되었고 2011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에는 '들물' 썰물, 날물, 난물'이 조사되었다.	김임옥 (육지도)		0	0	0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대 세기	121202	썰물	1E+06	썰물		명	조수의 간만으로 해면이 하강하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는 물은 '썰물'이 간 하는데 육지도에서는 '들물, 날물, 썰물'이라 하며, 만대로 바다에서 '육지' 로 들어오는 물을 '밀물, 들물' 등으로 사용한다. 독특한 것은 '썰물'을 '날물' 외에 '들물'이라 하는 것인데 '또다'라 는 어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추측 예정을 나타내는 '-ㄹ' 어미를 동반한 들물'형도 나타나고 있다. '날물'은 '나다(出)'의 여간에 '물'이 붙어 만들어 어진 합성어이다.	김임옥 (육지도)		0	0	0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대 세기	121202	썰물	1E+06	날물		명	조수의 간만으로 해면이 하강하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	{날물도} 썰는데 썰물, 들물도 많이 씁니다.	김임옥 (육지도)		0	0	0
기초 어휘	12환경	121시간	1212대 세기	121202	썰물	1E+06	들물		명	조수의 간만으로 해면이 하강하는 현상. 또는 그 바닷물.	{들물}, 들물.	김임옥 (육지도)		0	0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분류	기초 어획 양도	기초 어획 양도	원표제어	올림말	발음	종사·독점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면 적인 상치	해면 적인 양식	보존국어 시전 등필여부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3하루	121303	낮	1E+06		점심때		명 점심을 먹을 때.	점심때는 {점심때}.		김양육 (육지도)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3하루	121303	낮	1E+06		새애참		명 낮 2시부터 3시 정도를 이르는 말. 점심 후 먹는 음식이나 시간을 말한다.	그 인제 {새애참이지}.		김양육 (육지도)			0	x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3하루	121303	낮	1E+06		점나제		명 낮 2시부터 3시 정도를 이르는 말. 점심 후 먹는 음식이나 시간을 말한다.	아침나제. {점나제}.	점나제는 '점심나제'를 의미하는 말로 점심때부터 오후 시간대를 이르는 말이다.	김양육 (육지도)			0	x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3하루	121304	저녁	1E+06		저녁		명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사이.	{저녁때들} 한꺼번에 붙여서 정때.	'저녁'이라는 어휘보다는 '저녁나달', '저녁나달', '저녁나제'이라는 생활어를 많이 쓴다. '나달'이라는 '나제'이라는 용어에서 나온 것임을 할 수 있다. 외에도 시간에 관련된 용어로 '점심 밤'을 이형인 '해진다'도 함께 쓰고 있다. 어는 생활어 기초 어휘(2011)	김양육 (육지도)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3하루	121304	저녁	1E+06		정때		명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사이.	{저녁때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정때}.		김양육 (육지도)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3하루	121304	저녁	1E+06		해거름때		명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사이.	{해거름때}. 해거름때도 아까 앞에 알과 비슷하지. 저녁때나.	오후는 저녁, 밤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저녁'은 '저녁', '정때', '해거름때'만 하고 '하루'만 쓰여 '조저녁'도 있다. 밤에 해당되는 어휘는 '밤중', '한밤중'이 사용되고 있다.	김양육 (육지도)			0	x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3하루	121304	저녁	1E+06		조저녁		명 날이 어두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조저녁} 그러는데 뭐 있나.		김양육 (육지도)			0	0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3하루	121304	저녁	1E+06		저녁나제		명 = 저녁 나제. 저녁 때를 전후한 어느 무렵이나 동안.	아까 아까 앞을하신 점심에서 저녁때까지 {저녁나제}.		김양육 (육지도)			0	x
1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3하루	121305	밤	1E+06		밤중		명 해가 저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의 동안.	밤도 {밤중}. 밤중 아주 깊었다 이말이지.		김양육 (육지도)			0	0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부류 번호 1	기초 어획 부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기초 어획	12환경	121시간	1213하루	121305	밤	E+06	한밤중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121시간	1213하루	121305	밤	E+06	한밤중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1	동풍	E+06	셋바람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122날씨	1221바람	122101	동풍	E+06	셋바람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2	서풍	E+06	갈바람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122날씨	1221바람	122102	서풍	E+06	갈바람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3	남풍	E+06	맞바람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122날씨	1221바람	122103	남풍	E+06	맞바람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3	남풍	E+06	마파람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122날씨	1221바람	122103	남풍	E+06	마파람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4	북풍	E+06	된바람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122날씨	1221바람	122104	북풍	E+06	된바람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5	동북풍	E+06	보새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122날씨	1221바람	122105	동북풍	E+06	보새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5	동북풍	E+06	보새갈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122날씨	1221바람	122105	동북풍	E+06	보새갈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5	동북풍	E+06	셋갈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122날씨	1221바람	122105	동북풍	E+06	셋갈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어선	해당 전국 어선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번호	기초 어획 영역	기초 어획 날짜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중사 정규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면 정규 상징	해면 정규 상징	보존국어 사전 등록여부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6	복서풍	1E+06		된갈	멍	복서쪽에서 부는 바람.	{된갈} 어지개 얘기 안 함디까? 그러면 요 리 오면은 인자 뵈. 저 된바람.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6	복서풍	1E+06		편갈	멍	복서쪽에서 부는 바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다가 뽕 뽕은 서바람, 뽕바람은 북쪽에서 오는 걸디 다. {편갈은} 편갈이란 하는 건 사친내이라 고.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2	복서풍	1E+06	복서풍	사친내이	멍	복서쪽에서 부는 바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다가 뽕 뽕은 서바람, 뽕바람은 북쪽에서 오는 걸디 뽕바람은 편갈이라 하는 건 {사친내이라 사친내이}라 하는데 이는 '서술내기'에 서요 같이 사람의 출신 지역을 뜻하는 접미사 '-내기'가 붙은 어형이다.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2	복서풍	1E+06		사친내기	멍	복서쪽에서 부는 바람.	{사친내기라} 그러는 기. 우리가 무식한 말 로 사친내이라 그러지. 요기 사친갈은면서 친개에서 나오는 바람.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7	동남풍	1E+06		군등바람	멍	동남쪽에서 부는 바람.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요마 요 새는 요 기 {군등바람이라}.	군등바람'은 6월부터 여름에 많이 부는 바람인데 재보지의 말을 빌리면 '바람이 드드하니, 군중하니 그 바람이 뽕 뽕 뽕다'라고 한다. 여름에 습기가 많으면서 부는 후덥한 바람이라고 한다.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8	서남풍	1E+06		늦갈	멍	서남쪽에서 부는 바람.	그렇게. 늦갈이라. {늦갈}.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8	서남풍	1E+06		갈서마	멍	서남쪽에서 부는 바람.	갈바람하고 뽕바람 사이에 오는 거는? {갈 서마라고} 있디매, 갈서마.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8	남남동풍	1E+06		서마	멍	남남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자 그 우를 쫄 비키면은 그기 {서마고}. 서마바람. 서마, 서마바람.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8	남남동풍	1E+06		시마	멍	남남동쪽에서 부는 바람.	{시마라} 하기도 하고 서마라 하기도.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획	12환경	122날씨	1221바람	122109	화오리바람	1E+06		돌풍	멍	한꺼번에 모여든 공기가 나선 모양으로 일으키는 바람.	고마 어거서는 뭐 이 보풍 {돌풍을} 알거 든요. 근데 돌풍이라고도 돌풍이라고도 없 이 합니다.		김원욱 (육지도)			○	○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옥)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해부류 번호	기초 어휘 항목	기초 어휘 부류 번호	원표제어	음의말	발음	음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국가 어휘 선정	해당 국가 어휘 선정	비고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 람	122110	불다	1E+06		불다		동 바람이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 기.	뒤날을 이 지역에서 불어온다 해서 사전 쪽에서 {불어} 온다 해서 사전내 기.		김원옥 (육지도)		○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 람	122111	세다	1E+06		세다		형 바람 따위의 기세가 크거나 빠르다.	또 바람이 {세다}는 말은 잘 붙었다.		김원옥 (육지도)		○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 람	122111	세다	1E+06		바람 잘 불다		형 바람이 세게 불다.	육지도에서는 '바람(이) 불다' 형식의 언어 구조로 사용하고 '바람이 잘 불 다'는 일반적으론 긍정적인 의미로 이 해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세게 불 다'라는 부정적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많다.		김원옥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 람	122112	시원하다	1E+06		편타		형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서늘하다. {편타}, 편타. 시원하다가 편다.			김원옥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 람	122112	관용표현	1E+06		서마 불면 태 풍 온다		정 남남동풍인 '서마'가 불면 태풍이 오거나 날이 흐려진다.	{서마가 그리 불면 태풍이 오는} 기 거든요. {서마로 하는 거 보고 오늘 나을이 세겠다} 파랑이 많이 이는 걸 나을이라고 하거든요. 나을이 시다.		김원옥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 람	122112	관용표현	1E+06		서마 하면 나 을 세다		정 남남동풍인 '서마'가 불면 파도가 높이, 세 게 진다.			김원옥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 람	122112	관용표현	1E+06		셋바람 불고 서마 하면 나을 안 좋다		정 동풍이 불고, 남남동풍이 불면 날이 흐려 진다.	주로 셋바람, 서마 들어오고 하면은 날이 안 좋아 세고 날이 흐려진다고 한다. 그리고 한 줄다가 그런다고, {셋바람이 오면은 날이 태풍이 오면 서마 바람이 불고, 셋바람 안 좋았다든가}, 그런 얘기를 먼저 들었어야 불고 서마바람이 불어도 날이 흐려진다. 또한 '된갈' 바람이 불 뒤에도 태풍 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수용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 람	122112	관용표현	1E+06		큰 나을 하면 태풍이 크게 온다		정 파도가 높이, 세계 치면 태풍이 크게 온다. {태풍 크게 오면 큰나을 어려하느데}.	큰 나을 했다. 큰나을 했다. 금개요. {태풍 크게 오면 큰나을 어려하느데}.		이수용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1바 람	122112	관용표현	1E+06		바람 잡다		정 구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일기를 예측하다. {바람 잡는다} 두고 든요. 어떤 선장이 뽕파 에서 이로행위를 할 때 선장은 바람을 시도 불 줄 모르고 또 뭐 해조도 불 줄 모르고 바람이 불면은 여 자 해가지고 손을 갖 게를 통해 바람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고 저 이래 일어가면서네 바람을 어든 바람 기후를 예측하였는데 이를 '바람 잡 (는다)'라고 한다.		이수용 (육지도)		○		×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량 단위: 100kg	기초 어획량 단위: 100kg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조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면 표지	해면 표지	표준국어 대역
1	기초 어획	122날씨	1222비	122201	소나기	1E+06	소나기	명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멈추는 비.	약 따라 붓는 가는 인제 그런 {소나기}.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소나기'라는 말보다는 '소나기, 소나기, 배락비, 폭설비'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데 폭설비는 소나기가 장기간 짧게 내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경임육 (육지도)			0	0
2	기초 어획	122날씨	1222비	122201	소나기	1E+06	소나기	명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멈추는 비.	{소나기} 아님니까.	비에 대한 조사 항목은 세분화 되어 있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남해안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2010)에서 삼동면 지역 2리에서 사용하는 비에 대한 어휘는 '소나비, 배락비'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배락'은 '벼락'의 경남 방언형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절벽'의 경남 방언형으로 수록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경임육 (육지도)			0	x
3	기초 어획	122날씨	1222비	122201	소나기	1E+06	소나기	명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멈추는 비.	{소나기} 뭐, 여러 가지예요.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는 소나비, 배락비, 호우 제시.	경임육 (육지도)			0	0
4	기초 어획	122날씨	1222비	122201	소나기	1E+06	소나비	명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멈추는 비.	여 서가 있는데, 요파가 덩어리는 거는 {소나기, 소나기, 소나비}란 한다.	갑자기 세차게 내리는 비인 '소나기'는 {소나기, 소나기, 소나비}란 한다.	경임육 (육지도)			0	0
5	기초 어획	122날씨	1222비	122202	이슬비	1E+06	이슬비	명	가늘게 내리는 비.	{이슬비니} 가랑비니 가라고 가랑비, 있으라고 이슬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가랑비'와 '비슬비'는 다른 어휘로 수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역민들은 같은 비로 생각하고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2010)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늘게 내리는 비를 '이슬비'와 '비슬비'라는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	경임육 (육지도)			0	0
6	기초 어획	122날씨	1222비	122202	가랑비	1E+06	가랑비	명	가늘게 내리는 비.	이슬비니 {가랑비니} 가라고 가랑비, 있으라고 이슬비.		경임육 (육지도)			0	0
7	기초 어획	122날씨	1222비	122203	장맛비	1E+06	장맛비	명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장마 때 오는 비를 뭐 {장맛비라} 그러지.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는 장마비 제시.	경임육 (육지도)			0	0
8	기초 어획	122날씨	1222비	122203	장마	1E+06	장마	명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장마} 때 오는 비를 뭐 장맛비라 그러지.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장마, 장맛비, 장마지다, 마른장마, 마린 밤마 제시.	경임육 (육지도)			0	0
9	기초 어획	122날씨	1222비	122203	건장마	1E+06	건장마	명	장마철이기는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장마.	{건장마도} 있지.		경임육 (육지도)			0	0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번호 1	기초 어휘 번호 2	원표제어	음리말	발음	조사·동사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보 상진	해당 정보 음성	표준국어 문법에서 등재여부
1기초 어휘	12화경	122날씨	1222비	122203	정맞비	1E+06	마른장마		명	장마철이기는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장마.	장마 때 내리는 비는 '장마비'라 하고 장마가 되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장마를 '건장마, 마린 장마, 모린 장마'라 하는데 육지도에서는 동음 '나'를 대신해 '고'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김영옥 (육지도)			0	0
1기초 어휘	12화경	122날씨	1222비	122203	정맞비	1E+06	모린장마		명	장마철이기는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장마.	마린 장마라고 {모린장마}, 모린장마.	김영옥 (육지도)			0	X
1기초 어휘	12화경	122날씨	1222비	122204	여우비	1E+06	오늘 호령이 장가는 같다		절	별이 나 있는 날 장간 오다가 그치는 비.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별이 나 있는 날 장간 오다가 그치는 비'인 '여우비'는 여우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호령이 장가간다, 호령이 장개가는 비, 휴지가 라는 말로 쓰고 있다. 여우비라는 말 대신에 이를 문장으로 풀어 쓴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김영옥 (육지도)			0	X
1기초 어휘	12화경	122날씨	1222비	122205	내리다	1E+06	비 내리다		동	서리나 이슬 따위가 하늘에서 오다.	'비가 내리다'라는 표현보다는 '비가 오다'를, '비가 개다'라는 표현보다는 '비가 그치다, 멈추다, 끝나다'라고 말하였다. 남해안 어촌 생활어휘 기초조사(2010, 2011)와 일치함.	김영옥 (육지도)			0	X
1기초 어휘	12화경	122날씨	1222비	122205	내리다	1E+06	오다		동	가랑비는 꾸준히 {오고} 가며 비를 맞는 가. 심지어 웃은 찻지 않고.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는 오다, 개다, 비 그지다 제시.	김영옥 (육지도)			0	0
1기초 어휘	12화경	122날씨	1222비	122205	내리다	1E+06	비 내리다		동	서리나 이슬 따위가 하늘에서 오다.	이 마을에서는 {비가 나리는데}, 저쪽 마을은 비가 안 왔다.	김영옥 (육지도)			0	X
1기초 어휘	12화경	122날씨	1222비	122206	개다	1E+06	그지다		형	흐리거나 맑은 날씨가 맑아지다.	이슬비는 곧 {그진다} 이 맑아야.	김영옥 (육지도)			0	0
1기초 어휘	12화경	122날씨	1223눈	122301	참박눈	1E+06	X		명	크고 랑스럽게 내리는 눈.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참박눈을 '랑 포래눈, 가포래눈, 싸박눈'이라 표현하였는데 '랑 포래눈, 가포래눈'은 참박눈이 오는 모습인 바다에서 자라는 '포래(파래)'를 뜻아서 불인 이틀이고, '싸박눈'은 눈이 많이 와서 밭을 밟으면 '싸박싸박' 소리가 나서 불어진 이름이라 한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는 참박눈 제시.	김영옥 (육지도)			0	0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부류 번호 1	기초 어휘 부류 번호 2	기초 어휘 부류 번호 3	원표제어	음리말	발음	조사·조사미	종류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원표제어	음리말	발음	조사·조사미	종류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1	기초 어휘	122날씨	1223	122302	122302	1E+06	새라기논	x				명	새알 같은 논.				0	0
1	기초 어휘	122날씨	1223	122303	122303	1E+06	진논깨비	진논깨비				명	비가 섞여 내리는 논.				0	0
1	기초 어휘	122날씨	1223	122303	122303	1E+06	진논	진논				명	비가 섞여 내리는 논.				0	0
1	기초 어휘	122날씨	1223	122304	122304	1E+06	고드름	고드름				명	낙수를 따위가 맑으로 흐르다가 얼어붙어 공중에 길게 매달려 있는 얼음.				0	0
1	기초 어휘	122날씨	1223	122304	122304	1E+06	얼음	얼음				명	물이 얼어서 굳어진 물질.				0	0
1	기초 어휘	122날씨	1223	122304	122304	1E+06	우박	우박				명	큰 물방울들이 공중에서 갑자기 찬 기운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얼음덩어리.				0	0
1	기초 어휘	122날씨	1223	122304	122304	1E+06	우박비	우박비				명	큰 물방울들이 공중에서 갑자기 찬 기운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얼음덩어리.				0	x
1	기초 어휘	122날씨	1223	122304	122304	1E+06	기작	기작				명	큰 물방울들이 공중에서 갑자기 찬 기운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얼음덩어리.				0	x
1	기초 어휘	122날씨	1223	122305	122305	1E+06	물 얼다	물 얼다				동	액체가 찬 기운 때문에 고체 상태로 굳어 지다.				0	x
1	기초 어휘	122날씨	1223	122305	122305	1E+06	얼음 얼다	얼음 얼다				구	{얼음도 오는 하나도 안 어는데}, 우에 올라 가면 얼음이 지고.				0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올림말	발음	조사·조사격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상지	해당 전국 상지	보충국어 사전 등재여부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3눈	122305	얼다	1E+06	얼음지다	구	물이 얼어 얼음이 되다.	얼음도 오는 하나도 안 아는데, 우애 올라가면 {얼음이 지고}.		김영옥 (육지도)			○	X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3눈	122305	얼다	1E+06	눈 오다	구	눈이 오다.	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눈 오'로 인식해서 인자. 저 천안굴로 {눈이 오는대}다. 눈 '날리다' 등의 언어 형식으로 사용되고 우박은 '쏟아지다, 오다'로 사용한다.		김영옥 (육지도)			○	X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3눈	122305	얼다	1E+06	눈 날리다	구	눈이 오다.	{눈이 조금 날리다} 뭐 눈에 대한 뭐 거 우리가 뭐 사람 눈이니 그런 거 안 있습니까?		김영옥 (육지도)			○	X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1	해돋이	1E+06	해뜨다	명	해가 바다나 지면 위로 솟아오른다.	{해가 뜨지}.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해돋이'가 '해'라는 어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풀어서 '해'나 '오'로 사용한다. '해'나 '오'로 사용한다. '해'나 '오'로 사용한다. '해'나 '오'로 사용한다.	김영옥 (육지도)			○	X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1	해돋이	1E+06	해돋다	구	해가 바다나 지면 위로 솟아오른다.	부들 하는 게 {해가 돋는다}. 그런 말은 쓰지. '해'가 '돋'다. '해'가 '돋'다. '해'가 '돋'다.	해돋이, 해돋이'라는 어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풀어서 '해(가) 돋다, 해(가) 돋는다, 해(가) 지다, 해(가) 돋는다' 등으로 사용한다.	김영옥 (육지도)			○	X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1	해돋이	1E+06	해돋다	구	해가 바다나 지면 위로 솟아오른다.	{해 돋다}. 해 돋다.		김영옥 (육지도)			○	X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2	해넘이	1E+06	해지다	명	해가 서쪽으로 넘어간다.	해가 뜬다요. {해가 진다요}.		김영옥 (육지도)			○	X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2	해넘이	1E+06	해 넘어가다	구	해가 서쪽으로 넘어간다.	해 {넘어간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해진다고 잘못이니 잘못이니.	김영옥 (육지도)			○	X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3	햇무리	1E+06	해무리	명	햇빛이 대기 속의 수증기에 비치어 해의 물리현상 중 하나인 빛의 굴절로 인해 나타나는 빛의 현상이다.	{해무리}. 근데 해무리도 표준어가거든요. 그건 잘못이니 잘못이니.		김영옥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3	햇무리	1E+06	해머리	명	햇빛이 대기 속의 수증기에 비치어 해의 물리현상 중 하나인 빛의 굴절로 인해 나타나는 빛의 현상이다.	부들 우리 하는 말이 아이고 {해머리} 했다.		김영옥 (육지도)			○	○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올림말	발음	조사·동명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국 상징	해당 정국 상징	보충국어 사전 등재여부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3·셋무리	1E+06		해머리 하다		구 햇빛이 대기 속의 수증기에 비치어 해의 물레에 돌글개 나타나는 빛깔이 있는 태두리가 나타난다.	우리는 고마 달머리 한다. 이라고 {해머리, 해머리}가 지면은 '뜨다, 뜨다'와 연어 형식으로 사용한다.		김원육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3·셋무리	1E+06		해무리 지다		구 햇빛이 대기 속의 수증기에 비치어 해의 물레에 돌글개 나타나는 빛깔이 있는 태두리가 나타난다.	달무리가 지면은 그것도 거 달무리가 지는 것도 {해무리가 지면은} 그게 좋고 달무리가 지면은 날이 훑날 간다.		김원육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4·달무리	1E+06		달머리		명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하얀 테.	우리는 고마 {달머리} 한다 이라고		김원육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4·달무리	1E+06		달무리		명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하얀 테.	해무리, 근대 해무리도 표준어거든요. 그러고 달맞이니 {달무리니}.		김원육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4·달무리	1E+06		달머리 하다		구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하얀 테가 나타난다.	우리는 고마 {달머리 한다} 이라고 해머리 한다고. 해가 뜬다요. 해가 진다요.		김원육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4·달무리	1E+06		달무리 지다		구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하얀 테가 나타난다.	{달무리가 지면은} 그것도 거 달무리가 지는 것도 해무리가 지면은 그게 좋고 달무리가 지면은 날이 훑날 간다.		김원육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5·은하수	1E+06		은하수		명 은하의 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은하수는} 은하수도 여기도 다 은하수라 합니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는 은하수, 도다, 반개, 버럭, 잔둥, 구름과 같이 기본형만 제시.	김원육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5·은하수	1E+06		별		명 빛을 관측할 수 있는 천체 가운데 성운처럼 파지는 모양을 가진 천체를 제외한 모든 천체.	우리가 보통 별이, {별이} 달무리에 막 붙어 있으면 '아이구 날 꾀것네' 그런 말도 하고.		김원육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5·은하수	1E+06		별		명 빛을 관측할 수 있는 천체 가운데 성운처럼 파지는 모양을 가진 천체를 제외한 모든 천체.	우리가 보통 {별이}, 별이 달무리에 막 붙어 있으면 '아이구 날 꾀것네' 그런 말도 하고.		김원육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6·뜨다	1E+06		뜨다		동 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로 솟아오른다.	날 꾀다. 달무리 {뜨는} 거 보고.		김원육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6·관용표현	1E+06		별이 달무리에 막 붙어 있으면 날 꾀다		명 달무리 옆에 별이 붙어 있으면 날씨가 흐려진다.	우리가 보통 별이, {별이 달무리에 막 붙어 있으면 '아이구 날 꾀것네' 그런 말도 하고.		이수용 (육지도)			○	×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해부류 번호	기초 어휘 항목 번호	기초 어휘 배분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	음사·뜻풀이 정보	음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한티 정국 상징	한티 정국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6	관용표현	1E+06		달무리 하면 날 꾀다		절 달무리 현상이 나타나면 날씨가 흐려진다. {달무리하는 거 보니까 날이 꾀겠다}.			이수용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4해·달·별	122406	관용표현	1E+06		해무리 지면 날 좋고, 달무리 지면 날 꾀다		절 해무리 현상이 나타나면 날씨가 좋아지고, {해무리 하는 거 보거나, 날이 좋겠다}. 달무리 현상이 나타나면 날씨가 흐려진다. {달무리하는 거 보니까 날이 꾀겠다}.			이수용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122501	변개	1E+06		번개		명 비오는 날에, 하늘에서 번쩍 거리는 불꽃. {번개} 치고 난 다음에 칼 소리.		{번개}는 '번개, 뽀개'라 하며, '천둥'은 '노성'이라 한다. '벼락'은 '배락'이라 하고 '번개 치다', '배락 치다', '노성 치다'와 같이 '치다'와 연어 형식으로 표현한다.	김임옥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122501	변개	1E+06	변개	뽀개		명 비오는 날에, 하늘에서 번쩍 거리는 불꽃. {뽀개} 푼 뽀짝하는 것은 뽀개데, 뽀이 안 꾀는데, 비도 안 올핀데, 뽀개가 치거든요.			김임옥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122501	변개	1E+06		(번개/ 번해/ 벼락) 치다		명 비오는 날에, 하늘에서 불꽃이 번쩍 거린다. {뽀이 안 꾀는데, 비도 안 올핀데, {뽀개가 치거든요}.			김임옥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122501	변개	1E+06		마른 번개		구 비는 오지 않는 날씨에 치는 번개. {마른 뽀개}. 마른 날에 뽀개가 쳐서 마른 뽀개.			김임옥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122502	벼락	1E+06		배락		명 번개가 땅에 내려지는 현상. {배락이췌}. 배락.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벼락'은 '배락'이라 하고 '번개(번해)' '치다', '노성 하다'라고 표현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배락'이 '벼락'의 옛날 방언형으로 되어 있지만 의미 차이가 있고 '배락'은 '벼락'의 방언형이다.	김임옥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122503	천둥	1E+06		천둥		명 번개 친 다음에 오는 소리.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122503	천둥	1E+06	천둥	노송		명 번개 친 다음에 오는 소리. {노성}. 노성 안 하고 노성.			김임옥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122503	천둥	1E+06	천둥	노성 치다		명 = 천둥치다		우리는 보통 요서 {노성을 친다} 그러니다.	김임옥 (육지도)			○	×
1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122504	구름	1E+06		구름		명 구름의 수분이 엉기어서 미세한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의 덩어리가 되어 공중에 떠 있는 것. {구름에} 비 들었다 카고, 비구름 그려			김임옥 (육지도)			○	○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부록 번호 1	기초 어휘 부록 항목	기초 어휘 부록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국문 표기	해당 국문 표기	해당 국문 표기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구름	1E+06		구름	명	큰 구름 덩이가 바람이 불면 큰 덩이에서 작은 구름 덩이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 작은 구름 덩이를 이르는 말.	{구름이} 동방동방하다 보통 고마. 뽕박구름.		경임육 (육지도)		0	0	0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구름	1E+06		구름	명	큰 구름 덩이가 바람이 불면 큰 덩이에서 작은 구름 덩이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 작은 구름 덩이를 이르는 말.	{구름이} 비 올 구름이 오 생기면서 해가 떠오르면 오늘 아침에 나와 보고 아이고 오늘 그 곳날이 진다 이러거든요.	어 초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구름 중 바람이 많이 불어 구름의 모양이 작은 구름 덩이에서 한 덩이, 두 덩이 쪽으로 떨어져서 떨어진 모양을 한 것을 동풍이라 하였는데 동풍이가 나타나면 바람이 불고 날이 흐려진다고 한다.	경임육 (육지도)		0	x	x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구름	1E+06		비구름	구	구름의 유형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이름의 하나. 비나 눈을 내리게 하는 구름을 이른다.	{비구름도} 있고.		경임육 (육지도)		0	0	0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구름	1E+06		동계구름	명	동계몽개 피어 올라 몽개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구름으로 많은 평평하고 꼭대기는 솟을 솟아 붙은 것처럼 몽실몽실한 모양이며 햇빛을 보으면 하얗게 보인다. 무더운 여름에 상공 기류로 멀리떨어 보통 2km 높이에서 생기는데, 발랄한 구름 꼭대기는 10km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비는 내리지 않는다.	{동계구름이라고} 하고. 두둥실 높이 떠가면 두둥구름이라고 하고.		경임육 (육지도)		0	0	0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구름	1E+06		두둥구름	명	공중으로 가볍게 떠오르거나 떠 있는 모양의 구름.	{동계구름이라고} 하고. 두둥실 높이 떠가면 {두둥구름이라고} 하고.		경임육 (육지도)		0	x	x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구름	1E+06		뽕박구름	명	구름 모양이 전체에서 작은 덩이리로 잘린 모양의 구름.	{뽕박구름이라} 그러지. 동방동방 구름.	뽕박구름, 동방구름은 같은 구름을 이르는 말인데 구름 모양이 전체에서 작은 덩이리로 잘린 모양의 구름을 이르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뽕박은 ‘작고 가벼운 물건이 갖은 물’이라 하고 ‘뽕박’은 ‘목질’의 방언형이라 풀이하고 있지만 여기서 쓰이는 것은 의미 차이가 있다. 하지만 ‘뽕박’의 떨어진 모양 덩이리라는 어느 정도 의미가 일치한다 볼 수 있다.	경임육 (육지도)		0	0	x	x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4	구름	1E+06		동방구름	명	구름 모양이 전체에서 작은 덩이리로 잘린 모양의 구름.	구름이 {동방구름}, 동방구름이 뜨면 날이 좋다가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임육 (육지도)		0	x	x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타	122505	안개	1E+06		안개	명	지표면 가까이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이 부영그니까, 안개가, 시야가 흐릴개부터는 투가 많이 겹디고 한다. ‘투’는 안개는 아늑데 눈앞에 부얏게 끼어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투가 끼면 날이 안 좋아진다고 한다.	안개는 ‘안개’란 하지만 안개와 비슷한 ‘투’가 일반적으로 쓰인다. 그만큼 안개부터는 투가 많이 겹디고 한다. ‘투’는 안개는 아늑데 눈앞에 부얏게 끼어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을 말한다. 투가 끼면 날이 안 좋아진다고 한다.		경임육 (육지도)		0	0	0	0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부류 번호	기초 어획 항목	기초 어획 부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종사·도표기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면 정보상	해면 정보상	표준국어대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휘	122날씨	1225기	122505	안개	1E+06		투		명	지표면 가까이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부유해 있어 바다에 끼는 안개. 우리 요서 말하면.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바다에 끼는 안개를 '안개, 우박'이라 하며, 이 어휘는 '까다, 제다'와 연어 형식을 가진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의미와 차이가 있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는 안개, 온해 제시.	경임육 (육지도)			○	○	×
	기초 어휘	122날씨	1225기	122505	안개	1E+06		투가 까다		명	지표면 가까이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부유해 있어 바다에 끼는 안개. {투가 까다요}.		경임육 (육지도)			○	○	×
	기초 어휘	122날씨	1225기	122506	서리	1E+06		서리		명	대기 중의 수증기가 지상의 물체 표면에 얼어붙은 것.	{서리는} 하늘서 나리는 것이 서리고.	경임육 (육지도)			○	○	○
	기초 어휘	122날씨	1225기	122506	서리	1E+06		서리 나리다		구	대기 중의 수증기가 지상의 물체 표면에 얼어붙다.	{서리는} 하늘서 {나리는} 것이 서리고.	경임육 (육지도)			○	○	×
	기초 어휘	122날씨	1225기	122506	서리	1E+06		서리 까다		구	대기 중의 수증기가 지상의 물체 표면에 얼어붙다.	하얀 거 나무 위에 나리가지고 서리가 {서리}가 까다. 나무에 서리가 내리 앉았다. 그런 앉은 쓰지만도 나무에 자연적으로 생긴 거 아니고. {서리가 와} 가지고.	경임육 (육지도)			○	○	×
	기초 어휘	122날씨	1225기	122506	서리	1E+06		서리 내리 앉다		구	대기 중의 수증기가 지상의 물체 표면에 얼어붙다.	하얀 거 나무 위에 나리가지고 서리가 서리가 까다. 나무에 {서리가} 내리 앉았다} 그런 앉은 쓰지만도 나무에 자연적으로 생긴 거 아니고. 서리가 와} 가지고.	경임육 (육지도)			○	○	×
	기초 어휘	122날씨	1225기	122506	서리	1E+06		서리 오다		구	대기 중의 수증기가 지상의 물체 표면에 얼어붙다.	하얀 거 나무 위에 나리가지고 서리가 서리가 까다. 나무에 서리가 내리 앉았다. 그런 앉은 쓰지만도 나무에 자연적으로 생긴 거 아니고. {서리가 와} 가지고.	경임육 (육지도)			○	○	×
	기초 어휘	122날씨	1225기	122506	서리	1E+06		서리 나다		구	대기 중의 수증기가 지상의 물체 표면에 얼어붙다.	{서리가} 많이 낀다. 서리가 많이 왔네. 보통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경임육 (육지도)			○	○	×
	기초 어휘	122날씨	1225기	122507	무지개	1E+06		무지개		명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나타나는, 반원 모양의 일곱 빛깔의 줄.	그거는 {무지개라} 합니다.	경임육 (육지도)			○	○	○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옥)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음리말	발음	조사·동사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표준 어휘	해당 표준 어휘	표준국어 사전에 등재여부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타	122507	1E+06	무지개	무지개 뜨다	구 무지개가 나타난다.	구 무지개가 왔다.	{무지개가 왔다}.	무지개도 표준어형이 그대로 사용되며 무지개가 생기는 것을 '무지개 뜨다'라 한다.	경임옥 (육지도)			○	X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타	122508	1E+06	맑다	맑다	구름이나 안개가 끼지 않아 날씨가 깨끗하다	구름이나 안개가 끼 날씨가 깨끗하지 않다.	{맑다라} 쓰는데, {맑다라} 쓰는데, 여기, 멀리 도는 맑아 날이 맑다 맑다 이렇습니다, 다, 어둡다, 춥다, 따뜻하다 제시.	경임옥 (육지도)				○	○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타	122508	1E+06	날씨 좋다	날씨가 좋다	구름이나 안개가 끼 날씨가 깨끗하지 않다.	구름이나 안개가 끼 날씨가 깨끗하지 않다.	{날씨가 좋다}.	육지도의 날씨에 관한 어휘의 대립체계를 살펴보면 날씨가 좋은 것은 '날씨(씨) 좋다. 날 맑다, 꽃날이 지다' 등으로 표현한다. 이와 반대로 날씨가 흐린 것은 '날 꾀다, 꽃날 지다, 꽃날 가다' 등으로 표현한다. 이 중 독특한 표현은 '꽃날' 지다, 꽃날 지다'인데 맑은 날을 '꽃날' 국은 날씨 '꽃날'이라 표현하고 이를 어휘는 "지다"라는 어휘와 연어 형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경임옥 (육지도)			○	X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타	122508	1E+06	꽃날이 지다	꽃날이 지다	구름이나 안개가 끼 날씨가 깨끗하지 않다.	구름이나 안개가 끼 날씨가 깨끗하지 않다.	꽃날, 꽃은 날이라 안 합니다. {꽃날이 지다}.	꽃날, 꽃은 날이 지는 것을 '꽃날 지다, 꽃날 가다'라 표현하기도 한다.	경임옥 (육지도)			○	X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타	122508	1E+06	꽃날 가다	꽃날 가다	구름이나 안개가 끼 날씨가 깨끗하지 않다.	구름이나 안개가 끼 날씨가 깨끗하지 않다.	꽃날 가네 합니다. 꾀다보다도 {꽃날 가네}.		경임옥 (육지도)			○	X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타	122508	1E+06	날 꾀다	날 꾀다	구름이나 안개가 끼 날씨가 깨끗하지 않다.	구름이나 안개가 끼 날씨가 깨끗하지 않다.	{날 꾀다}, 말투리 뜨는 거 보고.	어른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날 꾀다, 날 꾀다, 날씨가 나쁘다, 날씨가 나쁘다' 등이 제시.	경임옥 (육지도)			○	X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타	122509	1E+06	날씨가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	X	형 날씨가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							X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타	122510	1E+06	춥다	X	형 기온이 낮거나 기타의 이유로 몸에 느끼는 기온이 차다.			어른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날씨에 관한 어휘의 대립체계를 살펴보면 '춥다'와 '춥다, 나쁘다, 알춥다', '춥다'와 '춥다, 알춥다, 알춥다, 알춥다, 춥다, 추웁다'와 '춥다, 더웁다, 더웁다, 더웁다'가 대립체계로 나타나고 있다.	경임옥 (육지도)			X	
기초 어휘	12.환경	122.날씨	1225기 타	122510	1E+06	따다	따다	형 기온이 높거나 기타의 이유로 몸에 느끼는 기온이 뜨겁다.		{따다}.	'춥다/ 따뜻하다, 따스다'라는 어휘가 대립체계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 '따다'의 반대말로 '따스다'라는 말이 일반적으 쓰이며 이는 '따뜻하다'의 경상 방언형이다.(2010)	경임옥 (육지도)			○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후자료(홍기옥)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어휘번호	기초어휘의 활용	대표어휘	유리말	발음	문사·동물이 된 낱어	유리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정보	영단어정보	표준국어문법
1	1기 초 어휘	1225기	1225기	122510	관용표현	1E+06	동방구름이 뜨면 날씨가 좋다		구름 모양이 전체에서 잘린 모양의 동방구름이 뜨면 날씨가 좋다.	{동방구름이 뜨면 날이 좋다거나} 그런 표현을 보고 예측.	이수용 (목지도)			0		X
1	1기 초 어휘	1225기	1225기	122510	관용표현	1E+06	배를 타고 버릿줄이 뜨면 날씨가 좋다		배 안에 실린 차가 배의 버릿줄을 타고 육지 쪽으로 내려오면 날씨가 흐려지고 큰 태풍을 한다.	버릿줄이 아니고 버릿줄. {버릿줄을 요 타고, 딱 차가 가도 내려옵니다}.	이수용 (목지도)			0		X
1	1기 초 어휘	1225기	1225기	122510	관용표현	1E+06	갈매기 날이 뜨면 바람이 많이 불다		갈매기가 날아 뜨면 바람이 많이 불다.	아 태풍이 서마거든. 또 {갈매기가 날아 뜨면 바람이 많이 불겠네}.	이수용 (목지도)			0		X
1	1기 초 어휘	1225기	1225기	122510	관용표현	1E+06	강구가 산중으로 간다		배달기에 많이 사는 교종인 강강구가 산으로 이동하면 큰 태풍을 하거나 날씨가 안 좋아진다.	그기 산중으로 올라오면은 파도가 올라와서 배를 아까 차가 배 속에서 뱉혔다고 도망가면 식으로 {강구가 저 산으로 몰려가}.	이수용 (목지도)			0		X
1	1기 초 어휘	1231방위	1231방위	123101	동향	1E+06	동쪽		동쪽 방향, 옛날 나침반에서는 방향을 십이간지로 표시하였는데, 동쪽은 오방에 해당한다.	{동쪽}, 동향 이런 거 다 쓰지.	김임옥 (목지도)			0		0
1	1기 초 어휘	1231방위	1231방위	123101	동향	1E+06	동향		동쪽 방향, 옛날 나침반에서는 방향을 십이간지로 표시하였는데, 동쪽은 오방에 해당한다.	{동쪽}, {동향} 이런 거 다 쓰지.	김임옥 (목지도)			0		0
1	1기 초 어휘	1231방위	1231방위	123102	서향	1E+06	X		서쪽 방향, 옛날 나침반에서는 방향을 십이간지로 표시하였는데, 서쪽은 유방에 해당한다.					X		
1	1기 초 어휘	1231방위	1231방위	123103	남향	1E+06	남쪽		남쪽 방향, 옛날 나침반에서는 방향을 십이간지로 표시하였는데, 남쪽은 오방에 해당한다.	{남쪽}, {남향} 이런 거 다 쓰지.	김임옥 (목지도)			0		0
1	1기 초 어휘	1231방위	1231방위	123104	북향	1E+06	북쪽		북쪽 방향, 옛날 나침반에서는 방향을 십이간지로 표시하였는데, 북쪽은 자방에 해당한다.	{북쪽}, {북향} 이런 거 다 쓰지.	김임옥 (목지도)			0		0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번호 1	기초 어휘 번호 2	기초 어휘 번호 3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	조사·조사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정보	영단어 정보	영단어 정보
	기초 어휘	123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4	북향	E+06	매바우쪽		명	육지도 북쪽에 있는 매 모양의 바위 방향.	매바우지 그림기든, {바우쪽으로}가라하시니, 남쪽, 북쪽과 같이 '-쪽'이라는 말을 붙여 사용한다. 또한 방향을 이야기 할 때는 해당 방위에 있는 지형, 지물을 이야기 하여 양위를 나타낸다.	김원욱 (육지도)			○	x
	기초 어휘	123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5	동서향	E+06	x		명	동쪽과 서쪽 사이의 방향.				x		
	기초 어휘	123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6	동남향	E+06	x		명	동쪽과 남쪽 사이의 방향.				x		
	기초 어휘	123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7	동북향	E+06	x		명	동쪽과 북쪽 사이의 방향.				x		
	기초 어휘	123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8	서남향	E+06	x		명	서쪽과 남쪽 사이의 방향.				x		
	기초 어휘	123환경	123공간	1231방위	123109	서북향	E+06	x		명	서쪽과 북쪽 사이의 방향.				x		
	기초 어휘	123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1	안바다	E+06	안바다		명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안바다}. 안바다. 요게 가까이 있는 건 안바다.	김원욱 (육지도)			○	○
	기초 어휘	123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2	연안	E+06	안바다		명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연안을 '아픈 바다, 연안'을, 만바다를 '안바다'로 표기한다. 만바다'라 한다. 성동면 지족 2리에는 가까운 바다인 '연안'을 '근해, 연해'라 표현하였고, 만바다를 '평양'이라 하였다.(2010)	김원욱 (육지도)			○	○
	기초 어휘	123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3	바닷물	E+06	바닷물		명	바다에 고여 있는 편물.	{바닷물}을 {바닷물}이라 크고.	김원욱 (육지도)			○	○
	기초 어휘	123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3	바닷물	E+06	편물		명	바다에 고여 있는 편물.	{바닷물}, 편물.	김원욱 (육지도)			○	○
	기초 어휘	123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3	바닷물	E+06	갯물		명	바다에 고여 있는 편물.	바닷물을 {갯물}이라 크고.	김원욱 (육지도)			○	○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부류 번호	기초 어휘 부류 명목	기초 어휘 부류 번호	원표제어	음리만	발음	조사·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국 상징	해당 정국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4	민물	1E+06		맹물		맹 강이나 호수 따위와 같이 염분이 없는 물.	‘소금기 없는 기는 {맹물} 아넝니까.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민물’은 ‘민물, 염수, 청수’라는 말을 썼는데 ‘염수’는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이라 불른 이름이라 한다.	김원욱 (육지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4	민물	1E+06		어금		민물이 바다로 들어갈 때 만나는 지점으로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물.	맹물과 경물의 어금이라고 많이 쓰지요. 만나는 {어금}. 꼭 표현하다고 하면 어금이랑이 아니고.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바닷물은 ‘경물’이라 하고 반대되는 어휘는 ‘민물’이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는 것을 ‘합쳐진다’라고 표현하는 데 이 지점을 지칭하는 말은 없다.	김원욱 (육지도)			0	x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4	민물	1E+06		섞이는 데		민물이 바다로 들어갈 때 만나는 지점으 로 민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물.	예, 뭐, 우리 지역에서는 그 그냥 섞이는 곳 이다. {섞이는 데다} 그렇습니다.	육지도에서는 소금기가 포함되어 있는 바닷물은 ‘경물, 천물’이라 하고, 소금 기가 없는 물은 ‘민물, 맹물’이라 한다. 전남 해남지역에서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것을 ‘합쳐진다’라고 표현하고 이 지점을 지칭하는 말은 없었지만, 육 지도에서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어금’ 혹은 ‘섞이는 데’라 한 다.	김원욱 (육지도)			0	x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5	파도	1E+06		파도		맹 바다에 이는 물결.	{파도}.	‘파도’는 ‘노을, 노을’이라는 어휘와 구별 없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파도, 노을, 노을’은 ‘파도 치다, 노을 치다, 불 하다’처럼 ‘치다, 하다’라는 용태로 사용된다.	김원욱 (육지도)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6	거품	1E+06		거품		파도가 바닷가에 부딪혀 깨지면서 생긴, 속이 빈 방울.	보통 우리가 {거품이라고고요} 거품이라고 말 이 합니다.		김원욱 (육지도)			0	0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6	거품	1E+06		버금		파도가 바닷가에 부딪혀 깨지면서 생긴, 속이 빈 방울.	버금 안 하고 거품 안 하고 {버금} 합니다.		김원욱 (육지도)			0	x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07	너물	1E+06		너물		맹 바다의 크고 시냇물결.	아까 저 {너물}.	‘너물’은 ‘크고 시냇물결’ 바다에 이 는 물결’로 파도의 하위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너물’이라는 어휘보다는 ‘나, 굶다, 미기, 미시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규모’가 큰 파도가 속 물과 겹차다가 내려가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주로 떠돌이 오거나 날이 흐 러지면 바다의 파도가 얹해질 때 사용 하는 어휘이다.	김원욱 (육지도)			0	0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번호 1	기초 어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림말	발음	음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보 상진	해당 정보 음성	표준국어문법어부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0	123210	갯다	지푸다		형 바다 표면에서 바닥까지의 거리가 얇다.	갯다 말도 쓰고 마 {지푸다}. 많이 지푸구나.		김원육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0	123210	갯다	아푸다		결에서 속, 또는 밑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얇다.	낮다지요. {아푸다}.		김원육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0	123210	갯다	얕다		결에서 속, 또는 밑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얇다.	아프다라는 말도 쓰는데, {얕다}. 아프다.		김원육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0	123210	갯다	낮다		결에서 속, 또는 밑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얇다.	예, 나푸다. 나푸다 이런 말은 안 쓰지. 그냥 {낮다}.		김원육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1	123211	높다	x		형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길다.						x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2	123212	찌다	x		형 소금과 같은 맛이 있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도 찌다, 파똥다, 하똥다 어휘 제시.				x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3	123213	파랗다	파랗다		형 깊은 바다 같이 밝고 선명하게 푸르다.	어, 청색. {파란} 물. 자리로 보면 파란 물 정석말		김원육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4	123214	하얗다	하얗다		형 깨끗한 눈이나 말가투와 같이 밝고 선명하게 희다.	눈도 {하얗다} 그러지 뭐.		김원육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4	123214	하얗다	하야다		형 깨끗한 눈이나 말가투와 같이 밝고 선명하게 희다.	{하야다}. 보통 그래 그래 하는데.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2바다	123215	123215	빠지다	x		물 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가 뚫다.						x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1	123301	모래	모래		명 자연히 잘게 부스러진 돌 부스러기.	자갈 예, {모래}. 모래 잔 굵은 모래가 조금 아래, 모래톱, 모래사장, 갯벌, 뽕 제시.		김원육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2	123302	모래사장	모래사장		명 강가나 바닷가의 흰모래가 깔려 있는 곳.	{모래사장은} 뭐 자갈밭이지, 자갈밭.		김원육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2	123302	모래사장	모래밭		명 강가나 바닷가의 흰모래가 깔려 있는 곳	{모래밭}. 그는 바다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 것도 한 수십 이십메다 내에 있는 이 내에 있는 모래밭.		김원육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302	123302	모래사장	자갈밭		명 자갈이 많이 깔려 있는 땅.	여는 보통 {자갈밭이라고} 합니다.		김원육 (육지도)			o	o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읍)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항목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음리말	발음	중사·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규 상징	해당 정규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휘	12활경	123공간 인간	1233해 인간	123305	기타	1E+06				명 바닷물과 땅이 서로 닿은 곳이나 그 근처.	바닷가를 거의 포구를 포함해서 전부 {경문}이라고} 했어요.		경문국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2활경	123공간 인간	1233해 인간	123305	기타	1E+06				명 바닷물과 땅이 서로 닿은 곳이나 그 근처.	우리가 거 이렇게 뭐야 {개발},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개발, 이렇게 하러 가는 거 그 바닷가에 어떤지란 바지락도 따고 줄도 따고 하는 거를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경문국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2활경	123공간 인간	1233해 인간	123305	기타	1E+06		경문 가다		구 바닷가에 가다.	그 말마저도 경문에 가자 {경문 가자} 그런 말로도 쓰이고 있기도 해요. 개발 가자가 아아니고 오를 경문에 안 걸개가? 뭐 그런 의미야. '개발'은 바닷가 공간 중 바지락이 아닌 곳 등 생물을 채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이고 '개발 가다' 경문 가다는 이러한 생물을 채취하러 가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경문국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2활경	123공간 인간	1233해 인간	123305	기타	1E+06		개발 가다		구 바닷가에 가다.	개발, 이렇게 하러 가는 거 그 바닷가에 어떤지란 바지락도 따고 줄도 따고 하는 거를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개발 가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경문국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2활경	123공간 인간	1233해 인간	123401	포구	1E+06		포구		명 배가 드나드는 개의 어귀.	포 개잡니다. {포구하는} 포개자거든요.		경문국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2활경	123공간 인간	1233해 인간	123401	포구	1E+06		개		명 배가 드나드는 개의 어귀.	포자가 이렇게 개 포자잖아요. {개들} 쓰는 포자를 쓰든, 또는 한자고, 개는 우리나라, 육지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라 한다.		경문국 (육지도)			o	o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읍)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부류 번호	기초 어휘 항목	기초 어휘 부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조사·조사격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어휘의 어원	해당 어휘의 어원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3해안가	123401	포구	1E+06		자부랑개		명	육지도에 있는 포구의 이름.		경흥국 (육지도)		○	○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2	항구	1E+06		항구		명	바위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바닷가에 부두를 쌓아놓은 곳.	아주 먼저 {항구라} 하기 전에 항구라고 하는 건 여가 중 문화가 발달하면서 항구라고 하는 말 많이 쓰고, 옛날에는 이 아주 고를개, 고를개가 거 저이 끝이 속이 개가 이개개거든 이기.	경흥국 (육지도)		○	○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2	항구	1E+06		고을개		명	바닷가 지형 중 왼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포구를 부르는 말.	육지도에서는 '항구'라는 어휘 보다는 예전부터 '고을개'라 부른다. 제모자들은 '고을개'를 '바닷가 지형 중 왼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포구'를 부르는 말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고을개'가 합성어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고'도(안부으로) 들어 간 '포구' 또 이해할 수 있다.	경흥국 (육지도)		○	○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3	아귀	1E+06		X		명	드나드는 목의 처마리.				X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4	개	1E+06		개		명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포 {개잡니다}. 포구하는 포까지 거든요.	경흥국 (육지도)		○	○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5	갯	1E+06		X		명	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				X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6	만	1E+06		X		명	바다가 육지 속으로 파고들어 와 있는 곳.				X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7	바위	1E+06		바위		명	부피가 매우 큰 돌.	물 밑에 {바위} 있는 데가서 낚는데, 그거는 바위'는 표준 어형 그대로 조사되었다. '바위'는 표준 어형 그대로 조사되었다. '바위'는 표준 어형 그대로 조사되었다. '바위'는 표준 어형 그대로 조사되었다.	경흥국 (육지도)		○	○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7	바위	1E+06		바위		명	부피가 매우 큰 돌.	{매바우쪽으로} 가리하지 북쪽으로 가게 그 돌게 말 할 만 습니다.	경양록 (육지도)		○	○
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형	123407	바위	1E+06		방우		명	부피가 매우 큰 돌.	저 우에 {개방우도} 있어.	이수용 (육지도)		○	○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옥)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번호	기초 어휘 항목	기초 어휘 분류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	음사·뜻풀이 정보	음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어휘 사전	보충국어 사전 등 표어부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	123407	바위	1E+06		강정		명 바위	여기도 대시 바위가 바닷가에 바위가 있는 바위가 큰 돌인 바위는 '바위, 방우'라 쓰인다. 바위가 있어 이 강정은 그 돌꼭대기이다. 그리고 강인 모양에 관한 어휘 환경이 돌꼭대기 파인 돌을 {강정이라} 그 바위 중앙 부분이 돌꼭대기인 형태의 바위. 그래서 그 강정에 옛날에 여기는 한 스님을 말한다. 이 위에서 어부들이 유식 돌릴곤 개 강정이 있는데, 함치면 전부 한 기를 잡기도 한다고 한다.	강릉국 (육지도)				o	x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	123408	양반	1E+06		x		명 부피가 매우 큰 돌.						x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	123409	남따리지	1E+06		절벽		명 바위가 깎아 세운 것처럼 아주 높이 솟아 있는 험한 남따리지.	{절벽}. 절벽인데, 그거는 모르죠. 까꾸마. 이 제 저이 뭐고 경사진 길로 올라가는 길은 까꾸마가 아릅니까. {까꾸마}.	경임옥 (육지도)				o	
1기초 어휘	12환경	123공간	1234지	123409	남따리지	1E+06		까꾸마		명 바위가 깎아 세운 것처럼 아주 높이 솟아 있는 험한 남따리지.	절벽. 절벽인데, 그거는 모르죠. 까꾸마. 이 제 저이 뭐고 경사진 길로 올라가는 길은 까꾸마가 아릅니까. {까꾸마}.	경임옥 (육지도)				x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	131101	마리	1E+06		x		명 사람이나 동물의 몸 위의 부분. 눈, 코, 입 따위가 있는 물체를 포함하며 머리털이 있는 부분을 이른다.						x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	131102	입	1E+06		입		명 물고기의 아가미를 포함한 것부분.	아래 위 이렇게 입천장 하고 {입} 아래쪽이 {고기}의 부분 명칭에 관해 상동면 지적해가 없고 굉장히 막막해요. 그니까 이 주둥이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다음과 같다. '입'은 '입, 주둥이'를 같이 쓰고, '눈'은 '눈, 눈물'을 쓴다.	경임옥 (육지도)				o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	131102	입	1E+06		주둥이		명 물고기의 아가미를 포함한 것부분.	아래 위 이렇게 입천장 하고 입 아래쪽이 해가 없고 굉장히 막막해요. 그니까 이 {주둥이} 가지고.	이수용 (육지도)				o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	131102	입	1E+06		입천장		명 입의 천장을 이루는 부분으로 코안과 입안을 나누는 부분.	아래 위 이렇게 {입천장} 하고 입 아래쪽이 해가 없고 굉장히 막막해요. 그니까 이 주둥이를 가지고.	이수용 (육지도)				o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	131102	입	1E+06		입술		명 입 가장자리 위아래에 도도록 붙어 있는 얇은 살.	오. 입술에 걸쳐온다고. 이 {입술이}.	이수용 (육지도)				o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	131102	입	1E+06		해		명 동물의 입 안 아래쪽에 있는 길고 둥근 살 덩어리. 맛을 느끼며 소리를 내는 구실을 한다.	입 아래쪽이 {해}가 없고 굉장히 막막해요. 그니까 이 주둥이를 가지고.	이수용 (육지도)				o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1부	131103	눈	1E+06		눈		명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	이제 {눈이고} 이기 인지 뭐고. 뭐라쿠노...	이수용 (육지도)				o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항목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	음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보 상진	해당 정보 음성	보충국어 사전 등필여부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칭	131104	등	1E+06		x		명	물고기의 몸통에서 가슴과 배의 반대쪽 부분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칭	131105	아가미	1E+06		알개미		명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 기관.	{알개미} 쿠지오. 알개미.	김원욱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칭	131106	지느러미	1E+06		날갈지		명	물고기 또는 물에 사는 포유류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헤엄치는 데 쓰는 기관.	{날갈지} 쓰지오.	김원욱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칭	131106	지느러미	1E+06		날가미		명	물고기 또는 물에 사는 포유류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헤엄치는 데 쓰는 기관.	{날가미도} 쿠고.	김원욱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칭	131106	지느러미	1E+06	왓지느러미	(고기) 날개 이		명	물고기 또는 물에 사는 포유류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헤엄치는 데 쓰는 기관.	{날개이}, 날개이.	김원욱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칭	131107	비늘	1E+06		비늘		명	물고기의 표피를 덮고 있는 얇고 단단하게 생긴 작은 조각.	{비늘}, 비늘.	김원욱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칭	131107	비늘	1E+06		비늘		명	물고기의 표피를 덮고 있는 얇고 단단하게 생기는 아납니까. 인제. 보통 마 비늘 {비늘}입니다.		김원욱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칭	131108	껍질	1E+06		x		명	물고기의 겉을 싸고 있는 질긴 물질의 커.	(2010) 껍질, 껍디기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칭	131109	배	1E+06		x		명	물고기의 몸통에서 등의 반대쪽 부분.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칭	131110	창자	1E+06		x		명	물고기의 내장.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칭	131111	부레	1E+06		부레		명	물고기 뱃속에 있는 공기주머니.	어서 {부레라} 부릅니다.	김원욱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칭	131112	살	1E+06		x		명	물고기의 뼈를 싸서 몸을 이루는 부드러운 부분.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1부본명칭	131113	알	1E+06		알		명	아류 따위의 암컷이 낳는. 둥근 모양의 물 질.	맹태 안에서 그 맹태이거든요. 그 {알}.	김원욱 (육지도)			o	o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번호 1	기초 어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	조사·토피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상징	해당 전국 상징	보충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부 분 명칭	'131113	'1E+06		난		명	어류 따위의 양컷이 나는. 동근 모양의 물에 양컷이 있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전두 {난물} 수고 나면은 물 주다 싸고 나면 웃어 없지요.		어수용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부 분 명칭	'131114	'1E+06		x		명	물고기의 뒤 끝에 붙어서 조금 나와 있는 부분.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부 분 명칭	'131115	'1E+06		고기배		명	물고기의 배. 큰배와 전배를 통틀어 이른 말이다.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부 분 명칭	'131115	'1E+06		고기가지		명	물고기의 배, 큰배와 전배를 통틀어 이른 말이다.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부 분 명칭	'131115	'1E+06		잔가지		명	물고기의 배, 큰배와 전배를 통틀어 이른 말이다.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부 분 명칭	'131116	'1E+06		응신배니		명	어른 양서류의 몸 양옆에 한 줄로 누아서 있는 줄. 물살이나 수업을 느끼는 감각 기관의 구성을 한다.		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부 분 명칭	'131116	'1E+06		허파		명	어류 양서류의 몸 양옆에 한 줄로 누아서 있는 줄. 물살이나 수업을 느끼는 감각 기관의 구성을 한다.		경암육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부 분 명칭	'131201	'1E+06		물고기		명	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부 분 명칭	'131201	'1E+06		괴기		명	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어수용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부 분 명칭	'131201	'1E+06		고기		명	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경암육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부 분 명칭	'131202	'1E+06		멸치		명	{멸치들} 잡아놓았어. 머르치를.	어촌 생활 어 기초 어휘(2010)에서는 멸치, 추바, 큰추바, 씨멸이, 시래기, 배짱이, 큰배짱이, 소사리 등 제시.	경암육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부 분 명칭	'131202	'1E+06		멸치		명	{멸치인데}, 멸치라 그러면 표준어도 되고, 요도 멸치 합니다.		경암육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부 분 명칭	'131202	'1E+06		메르치		명	옛날에 {메르치}, 메르치 많이 잡아 썼고, 요 메르치 완래가 고향이야. 메르치 소신지라, 육지가		경암육 (육지도)			o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번호 1	기초 어휘 번호 2	기초 어휘 번호 3	기초 어휘 번호 4	원표제어	음리말	발음	조사·조사어	종사·조사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표준어 상징	해당 표준어 상징	표준국어 사전에 등재여부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03	정어리	E+06			x	명 = 정어리.		명 = 정어리.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통일 어형 제시.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04	갈치	E+06			갈치	명 = 갈치.		명 = 갈치.	{갈치는} 다른 고기보다 갈치.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는 갈치, 갈치, 갈치, 풀치 제시.	김원욱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05	고등어	E+06			고등어	명 = 고등어.		명 = 고등어.	{고등어는} 인제 계속 고등어라고 했고, 고등어 뽕어 누시는 오기 이렇게 뭐 우리 경제적인 어형 제시.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통일 어형 제시.	김원욱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05	고등어	E+06			고두리	명 = 고등어.		명 = 고등어.	고등어는 {고두리}.	육지도에서는 '고등어, 꼬두리, 고두리, 사바'란 부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고두리'는 '고등'의 새끼. 고등어의 옛말 이라 하고 있으나 육지도에서는 고등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바'라는 일본어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05	고등어	E+06			고도리	명 = 고등어.		명 = 고등어.	그런데, 그새 야 글쎄 {고도리랑} 맞은 고등어라는 말이거든요. 고등어를 우리 근처 지방도 고도리 그러는데, 일본 사람이 오셔서 어장을 썼거든요.		이수용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05	고등어	E+06			사바	명 = 고등어.		명 = 고등어.	일본 사람이 고등어를, 고등어를 뭐냐하면 {사바} 카거든. 사바.	사바는 고등어의 일본식 표현.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05	고등어	E+06			난킨사바			명 작은 크기의 고등어.		크기에 따라 '난킨사바, 주우사바, 고사바'라는 말을 쓰는데 '난킨사바'는 작은 고등어, '주우사바'는 중간 정도 크기의 고등어, '고사바'는 큰 고등어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05	고등어	E+06			주우사바			명 중간 크기의 고등어.	큰 거는 {고사바}, 중간쯤 되는 건 {주우사바}, 난킨, 난킨이라 하는 건 이제 포개만 한 건.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05	고등어	E+06			고사바			명 큰 크기의 고등어.	큰 거는 고사바, 중간쯤 되는 건 {주우사바}, 난킨, 난킨이라 하는 건 이제 포개만 한 건.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06	가오리	E+06			가오리	명 = 가오리.		명 = 가오리.	그거는 요서는 {가오리}, 나무재이.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가오리, 간제마라 항,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관련 어휘 나타나지 않음.	김원욱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06	가오리	E+06			나무재이	명 = 가오리.		명 = 가오리.	어, 육지말로 특기한 말이 {나무재이}.		김원욱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08	가자미	E+06			도다리	명 = 가자미.		명 = 가자미.	그거는 {도다리} 가배, 도다리 아니면 광어고, 광어나 도다리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미, 가제미' 제시.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가자미, 가제미 제시.	김원욱 (육지도)			o	o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부류 번호 1	기초 어휘 부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	음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규 상지	해당 정규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09	명태	1E+06	명태	명 = 명태.		명태. {명태} 부릅니다.	어른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동일어형 제시.	김원욱 (육지도)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09	명태	1E+06	명태	명 = 명태.		아. {명태}. 오 명태라 그러니까. 여는 북어나 {동태나} 뭐나 전부 뭐 명태라 부릅니다.		김원욱 (육지도)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10	동태	1E+06	동태	명 열린 명태.		아. 명태. 오 명태라 그러니까. 여는 북어나 {동태나} 뭐나 전부 뭐 명태라 부릅니다.	어른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동일어형 제시.	김원욱 (육지도)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11	황태	1E+06	X	명 말린 명태.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12	노가리	1E+06	X	명 명태 새끼.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13	북어	1E+06	북어	명 말린 명태.		여는, 여 명태도 아까 {북어도} 말린 걸 또 만들거든요.		김원욱 (육지도)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14	생태	1E+06	X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15	조기	1E+06	조기	명 ① = 조기. ② 참조기.		그 뭐요? {조기가}? 어른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조기. 조구 동일어형 제시.		김원욱 (육지도)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15	조기	1E+06	조구	명 ① = 조기. ② 참조기.		{조구라} 그래요.		김원욱 (육지도)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16	꽃비	1E+06	X	명 소금에 약간 절여서 통으로 말린 조기.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17	꽃치	1E+06	꽃치	명 = 꽃치.		문양은 {꽃치하고} 비슷한데 꽃치보다 좀 어려서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동일어형 제시.		김원욱 (육지도)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18	북어	1E+06	북어	명 = 북어.		{북어들} 북징이.	어른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동일어형 제시. 2011조사에서는 '북어, 북징'이라는 어휘 조사.	김원욱 (육지도)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18	북어	1E+06	북징이	명 = 북어.		예, 맞아요. 요거는 {북징이}.		김원욱 (육지도)			○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18	북어	1E+06	북치	명 = 북어.		북어, 뭐 {북치}.		김원욱 (육지도)			○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번호	기초 어휘 항목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	음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정보 상진	영단어 정보 음성	표준국어 문법 등필여부
1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19	고래	1E+06	고래		명 = 고래.	물치라고도 인자 {고래} 고기하고 조금 틀어흔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동일 어형 제시.		김원욱 (육지도)			o	o
2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19	고래	1E+06	금시이		명 = 고래.	저 제주바다 있는 데 가면 검은 기, 그게 진짜 고래 종류지, 올라갔다 내려간다고 그래서 공식공식한다고 {공시이}, 공시이.		김원욱 (육지도)			o	x
3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19	고래	1E+06	돌고래		명 = 돌고래	{돌고래도} 있고, 또 뭐 공식이라는 놈도 있고.		김원욱 (육지도)			o	o
4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20	상어	1E+06	상어		명 = 상어.	{상어}.	어흔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상어, 상아, 후까 제시.	김원욱 (육지도)			o	o
5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20	상어	1E+06	상예		명 = 상어.	{상예} 맞아요.	어흔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의 어형과 동일.	김원욱 (육지도)			o	x
6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21	납치	1E+06	광어		명 = 납치.	가자미는 도다리보다 다르지. {광어보단도} 어흔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납치, 도다리, 광어 제시.		김원욱 (육지도)			o	o
7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22	바다장어	1E+06	바닷장예		명 = 바다에서 사는 장어. 뱀장어에 비해 뼈가 뽀뽀하고, 단단하다.	이건 {바닷장예}, 장예지.	어흔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바다 장어, 장어 제시.	김원욱 (육지도)			o	x
8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23	도미	1E+06	돔		명 = 도미과의 바닷물고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몸은 타원형으로 납작하며 대부분 붉은색을 띠고 비늘은 은갈고 크다. 연안생의 어류로 바다 밑바닥에 산다.	그렸고, 이제 돔 누시해서 {돔}, 돔 누시는 어머름칠에 해서 머름칠 가들칠 하죠. 머름가들칠 하는데, 돔은 작은 걸 상사리라 했어어형 제시.	김원욱 (육지도)			o	o	
9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23	도미	1E+06	상사리		명 = 작은 돔.	그렸고, 이제 돔 누시해서 돔, 돔 누시는 어머름칠에 해서 머름칠 가들칠 하죠. 머름가들칠 하는데, 돔은 작은 걸 {상사리라} 했어어.	김원욱 (육지도)			o	x	
10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24	뽕어	1E+06	x		명 = 뽕맛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60cm, 높이는 45cm 정도로 납작하고 종그스를 하며, 흰색이고 등은 파란색을 띤 은백색이다. 암이 아주 작고 온몸에 뿔여지가 섞이고, 뽕비늘이 있으며 배지느러미는 없다. 난해성 어종으로 많이 잡고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x		
11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25	도루묵	1E+06	x		명 = 도루묵.	지역에서 나지 않음, 어흔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동일 어형 제시.				x		
12	1기초 어휘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26	임연수어	1E+06	임연수		명 = 임연수.	{임연수도} 알아주지.	지역에서 나지 않음, 어흔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동일 어형 제시.	김원욱 (육지도)			o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옥)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	조사·토피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상징	해당 전국 음성	보충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7	상치	E+06	상치	명 = 상처.		{상치}. 상처가 나지요. 상처가 옛날 요기서 많이 나 갖고 수출도 많이 시켰습니다. 이 상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이수용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7	상치	E+06	마구리	명 = 상처.		{마구리} 카는 말 싸거든요.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7	상치	E+06	가또	명 = 상처.		그게 인제 상처 종류입니다. 오 오 자체는 이런 이 상처는 요기서는 우리라 가또라 카는 말도 싸는데 상처를 {가또라} 해가지고 크게 가치 없다고 말하는데 있고.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8	방어	E+06	방어	명 = 방어.		{방어지}.		이수용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8	방어	E+06	방에	명 = 방어.		요서는 {방에라고} 합니다.	육지도에서는 '방에, 방에, 아도'라 부른다. 육지도에서도 물고기 이름에 '-어(鰐)'를 '-에'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8	방어	E+06	아도	명 = 방어.		인제 그 방어 방어는 방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아도}. 아도라 그래요.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8	방어	E+06	알아도	명 크기가 작은 방어.		아도 뭐, 그 다음에 큰 거를 아도라 했고, 알로 '알아도'라 부른다. 또한 '중부리'는 중간 정도 크기의 방어, '고부리, 대부리'는 큰 것을 말한다.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8	방어	E+06	중부리	명 크기가 중간 정도인 방어.		큰 거는 인제 그 {중부리}, 대부리 뭐 고부리 그렇게 불렀어요.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8	방어	E+06	대부리	명 크기가 큰 방어.		큰 거는 인제 그 중부리, {대부리} 뭐 고부리 그렇게 불렀어요.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8	방어	E+06	고부리	명 크기가 큰 방어.		{고부리는} 더 큰 거고.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29	육동	E+06	x	명 = 육동.		지역에서 나지 않음,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2010)에서 동일 어형 제시.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30	전갱이	E+06	전갱이	명 = 전갱이.		{전갱이가} 아지거든요.	육지도에서는 '전갱이, 전갱이, 매가리'와 '아지'라는 일본어가 함께 쓰인다.	이수용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종류	131230	전갱이	E+06	전갱이	명 = 전갱이.		전갱은 있지요. {전갱이}.		이수용 (육지도)			o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량(톤)	기초 어획량(톤)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종사·도표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면 적인 사실	해면 적인 사실	보존국어 사전 등 표어부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0	전갱이		매가리	명 = 전갱이.	명 = 전갱이.	{매가리}. 크기 많하파면 아진데, 전갱이. 왜놈말로 아지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전갱이고.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0	전갱이		아지	명 = 전갱이.	명 = 전갱이.	전갱이가 일본말로 {아지}.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0	전갱이		오아지	명 크기가 큰 전갱이.	명 크기가 큰 전갱이.	어 인쇄 재기 잡하는데 그것도 고등어식으 {전갱이는 '아지'라고도 부른는데 크기로 오아지, 쥬아지, 고아지지 여기는, 아까에 따라 '오아지'(大), 쥬아지(中), 고아지(小)는 아까 난칭이라고 안 하고, {오아지(大)}로 부른다.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0	전갱이		쥬아지	명 크기가 중간 정도인 전갱이.	명 크기가 중간 정도인 전갱이.	{쥬아지는} 중간 것, 고아지는 작은 것.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0	전갱이		고아지	명 크기가 작은 전갱이.	명 크기가 작은 전갱이.	쥬아지는 중간 것, {고아지는} 작은 것.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1	전어		전어	명 = 전어.	명 = 전어.	{전어} 전어, 전메, 전메 이래 하고.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 어형과 동질.	김임옥 (육지도)			o	o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1	전어	전어	전메	명 = 전어.	명 = 전어.	전어 전어, 전메, {전메} 이래 하고.		김임옥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2	준치		준치	명 = 준치.	명 = 준치.	{준치} 납니다. 하여튼 많이 난다고 옛날에 어 이 그 이 전어를 잡는 배가 있거든요. 이 전어에 같이 섞여서 준치가 잡혔어.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동일 어형 제시.	김임옥 (육지도)			o	o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3	청어		청어	명 = 청어.	명 = 청어.	{청어}, 청어도 여기 많은 건 안 납니다. 쪼개 납니다.		김임옥 (육지도)			o	o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4	농어		농어	명 = 농어.	명 = 농어.	{농어는} 오개 더러 잡히지.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농어 제시.	김임옥 (육지도)			o	o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4	농어	농어 새끼	까치메이	명 = 농어 새끼.	명 = 농어 새끼.	{까치메이}. 까치메기.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갈딱'이라 제시.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상동언에서는 '까제메이'란 부름.	김임옥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4	농어		까치메기	명 = 농어 새끼.	명 = 농어 새끼.	그 다음에 농이는 농이는 새끼를 {까치메기}란} 썼어요. 까치메기		김임옥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5	쥐치		쥐치	명 = 쥐치.	명 = 쥐치.	{쥐치}. 쥐고기.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 2011)에서 쥐치, 쥐고기 제시.	김임옥 (육지도)			o	o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읍)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음리말	발음	음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규 상징	해당 정규 음성	보충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5	취치	E+06	취고기	명 = 취치.	명 = 취치.	취치. {취고기}.		김원욱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6	민어	E+06	민어	명 = 민어.	명 = 민어.	{민어라}. 민어인가베.		김원욱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6	민어	E+06	민어	명 = 민어.	명 = 민어.	{민어} 카고. 민어 크지.		김원욱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7	대구	E+06	대구	명 = 대구.	명 = 대구.	진짜. 그것도 {대구}. 인제 대구라 보기가 대구의 형태는 광장하 그 고기가.		김원욱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E+06	송어	명 = 송어.	명 = 송어.	{송어고}.	지역에서 많이 잡히는 고기	김원욱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E+06	동어	명 = 송어 새끼.	명 = 송어 새끼.	새끼는 {동어}. 동어.	어른 성숙어 기초어휘(2011)에서도 송 어 새끼를 동어, 동에라 함	김원욱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E+06	동어	명 = 송어 새끼.	명 = 송어 새끼.	새끼는 동어. {동어}.		김원욱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E+06	감성돔	명 = 감성돔.	명 = 감성돔.	{감성돔}. 그거는 인제 감시이라고 하지요. 감시어. 감시어. 그러면 새끼감시어는 동감 시어. 동감시어 뭐 이렇게 구경물에 있다고 해서 동감시라 하고.	육지도에서는 '감성돔'이라는 표준 어 휘보다는 '감시어, 감식어, 감송어'라 부른다. 또한 '동감시어'는 새끼 감성 돔을 말하거나 봄에 잡은 맛이 없는 감 송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수용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E+06	감송어	명 = 감성돔.	명 = 감성돔.	{감송어}. 감송어.		김홍국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E+06	감시어	명 = 감성돔.	명 = 감성돔.	{감시어도} 있지. 감시어. 재질 많이 쓰는 게 별사람들이 감시어라고 합니다.		김홍국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E+06	감식어	명 = 감성돔.	명 = 감성돔.	그래서 인제 감성돔이라든가 {감식이라든 가} 혹은 낚을 때는 바닥에다 완전히 가라 앉혀서 송리가 인제 여기서 예기하면은 우 리 요즘 낚시 방법으로는 처박기라 합니다.		김홍국 (육지도)			o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항목	기초 어휘 분류 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	음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표기	영단어 음성	영단어 사전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1E+06		동감시	명	작은 크기의 감성돔을 말하거나 볼에 잡히는 맛이 없는 감성돔을 이르는 말.	큰 농은 그냥 감시어. 감성돔을 감시이란 했어요. 감시어. 감시어. 뭐 감성이, 감종어 그런 안 하고 감시어. {총감시어}.		강릉국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1E+06		흑돔	명	= 흑돔.	{흑돔} 낚을 때는 비덕예다 완전히 가리 얹혀서. 우리가 인제 여기서 얘기하면은 우리 흑돔은 '가리'이라 부른다.		강릉국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1E+06		가리이	명	크기가 작은 흑돔.	{가리이}. 작은 걸 가리이라 하고.		강릉국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1E+06		볼락	볼락	명	= 볼락.	육지도에서는 '볼락', 볼래이, 볼래기, 볼라구라고 다양하게 부르는데 대부분 어두경음화된 형태로 쓰인다. 볼락은 색을 기준으로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검은 볼락은 '까만 볼래이/볼래기', 먹볼래이/볼래기라 부르고, 붉은 볼락은 '붉은 볼래기/볼래이, 열기라 부른다.	강릉국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1E+06		볼락	볼락	명	= 볼락.	{볼락어는} 볼래이 볼래이.	강릉국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1E+06		볼래이		명	= 볼락.	{볼래이}. 그래서 그 볼래이도 그 종류가 그 까만 볼래이가 있고 붉은 볼래이가 있어요. 그 까만 거는.	강릉국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1E+06		볼래기		명	= 볼락.	그래서 이 볼락을 여기서는 {볼래기라} 했어요.	강릉국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1E+06		볼라구		명	= 볼락.	감시어나 가리이나 낚는 거는 인자 {볼라구} 바늘보다 조금 낫. 굵지.	강릉국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1E+06		까만볼래기		명	검은 볼락.	{까만 볼래이가} 있고 붉은 볼래이가 있어요.	강릉국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1E+06		먹볼래이		명	검은 볼락.	{먹볼래이}. 먹볼래이 이렇게 했고.	강릉국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1E+06		붉은 볼래기		명	붉은 볼락.	까만 볼래이가 있고 {붉은 볼래이가} 있어요.	강릉국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1물고기	1312중류	131238	기타	1E+06		열기		명	붉은 볼락.	{열기라고} 했고. 열기라 했고.	강릉국 (육지도)			o	o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 부류 번호 1	기초 어획 부류 명목	기초 어획 부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종사·돛돌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면 적인 사실	해면 적인 분석	비고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중분류	131238	기타	1E+06		아구		명 = 아귀.	{아귀가} 입이 크다 큰 거.		김영국 (육지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2중분류	131238	기타	131239a		아귀		명 = 아귀.	아귀. 아귀를 {아구라} 그래요.		김영국 (육지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분류	131301	얇다	1E+06		얇다		형 물고기의 살이 없어, 몸통이 얇다.		어른 생활어 기초어획(2011)에서는 형 용사에는 '질다, 길다'와 '몸얇하다, 찜다', '성성하다'와 '상하다'가 대립체계를 이루고 있다. 고기들이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는 것을 '척어다니다'란 표현 하기도 한다.			X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분류	131302	굵다	1E+06		통통하다		형 물고기의 살이 찌서, 몸통이 굵다.	모양은 꼭치고 비스한데 공치보다 좀 {통다, 지다}렇다. 찌르다, 쿠다, 넓적하다. 넓히고} 전가서가 많대요.		김영국 (육지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분류	131303	길다	1E+06		길다		형 물고기의 머리와 꼬리의 두 끝이 열다.	갈치는 다른 고기보다 {길지}.		김영국 (육지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분류	131303	질다	1E+06	꼭다	질다		형 물고기의 머리와 꼬리의 두 끝이 열다.	질다. 아 {질다}는 길다의 사투리고.		김영국 (육지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분류	131303	짧다	1E+06		짧다		형 = 찜다.	아 질다는 길다의 사투리고, {찜다}.		김영국 (육지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분류	131304	크다	1E+06		크다		형 물고기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X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분류	131305	넓적하다	1E+06		넓적하다		형 물고기의 몸통이 편편하고 얇으면서 꽤 넓다.	{넓적하지} 뭐		김영국 (육지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분류	131306	상성하다	1E+06		상성하다		형 물고기의 빛깔 따위가 선명하고, 생기가 있다.	네 {상성하다}.		김영국 (육지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분류	131306	상성하다	1E+06		물이 가다		형 물고기의 상태가 상성하지 않고 색이나 질이 변하다. 선도가 떨어지다.	참그거는 입자 안 상성타하고 뭐 그렇지. {물이 갔다} 이라거든요.		김영국 (육지도)		0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분류	131306	상성하다	1E+06		물다		형 물고기의 상태가 상성하지 않고 색이나 질이 변하다. 선도가 떨어지다.	참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고기가 좀{물었네} 그러대요.		김영국 (육지도)		0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량	기초 어획량 변동	기초 어획량 변동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종사 정보	종사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보	해당 정보	비고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대	131306	상상하다	1E+06		비늘이 시달리다		구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로 한개번에 고기를 끌어올려 되면 고기 꺼리 부딪혀 비늘이 떨어지다.	그중에 이렇게 {비늘이라든가 시뭇러가지처럼 비늘이 상하는 일이 없어 신선도가 유지된다.		김원국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대	131307	{가시}찌른다	1E+06		x		동	물고기 가시와 같이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것으로 생이 뾰여지도록 이렇다.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대	131308	날다	1E+06		x		동	사람 또는 사물이 서로 비슷한 생각이나 성질을 지니다.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1물고기	1313상대	131309	헤엄치다	1E+06		x		동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아가기 위하여 팔다리나 지느러미를 움직이다.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칭	132101	조개비	1E+06		껍데기		명	명 조개의 껍데기.	지금도 오 뒤에 가서 명을 파보면 {굴껍데기} 일때나 많이 나오나.		김원국 (육지도)			o	o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칭	132102	입	1E+06		x		명	조개가 먹이를 섭취할 때에 쓰는 기관.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칭	132103	아가미	1E+06		x		명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 기관.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칭	132104	식장	1E+06		x		명	주기적인 수축에 의하여 혈액을 몸 전체로 보내는, 순환 계통의 중심적인 근육 기관. 어류는 1쌍방 1심실.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칭	132105	내장	1E+06		x		명	조개 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칭	132106	조개관자	1E+06		x		명	연체동물 부속류의 조개껍데기를 달기 위한 한 쌍의 근육.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2조개류	1321부분명칭	132107	(조개)발	1E+06		x		명	조개의 발.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옥)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항목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	음사·음표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보 상진	해당 정보 음성	표준국어문법어부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1부 분명칭	132107	(조개)발	1E+06		x		명	조개 껍데기를 제외한 조갯살.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 류	132201	조개	1E+06		조개		명	= 조개.	{조개도} 있었고 고동도 있고 게, 껍 종류도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조 있고, 게, 많이 있었는데 거 매립했버렸어 게, 소라, 뿔소라, 참소라, 고동, 고동, 요.	김영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 류	132202	소라	1E+06		소라		명	= 소라.	{소라도} 잡히제.	김영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 류	132203	고동	1E+06		고동		명	연체동물문 복족강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소라, 총알고동 따위처럼 대개 알라 있는 껍데기를 가지는 종류이다.		김영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 류	132204	진복	1E+06		진복		명	진복고의 하나. 껍데기의 길이는 10~20cm이고 타원형이며 질색 또는 푸른 빛을 띤 갈색이다. 껍데기 안구는 넓고 겉에 구멍이 뚫어져 나 있다.	그거는 {진복이고}.	김영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 류	132205	굴	1E+06		굴	굴	명	= 굴.	어 자연산 {굴은} 여기 있습니다. 자연산 굴 이 있는데 바위에 붙는 거.	김영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 류	132205	굴	1E+06		굴	굴	명	= 굴.	우리 여기서는 석화라는 말도 잘 안 쓰고 는 {굴} 팔았는데, 굴도 금할 때는 {굴} 팔았는데.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 류	132205	굴	1E+06		석화			굴 자체를 {석화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 있 는 그대로 석화조합하거든요. 굴조합 그거 많이 안 씁니다.		김영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 류	132205	굴	1E+06		뱃굴		명	= 굴.	{뱃굴이라고} 하거든요. 뱃굴, 조금 조금 들 는 맛이 나는데, 한 마리가 이래 큼니다.	김영옥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2종 류	132206	꼬막	1E+06		꼬막		명	= 꼬막.	{꼬막은} 있어, 허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꼬 부로 못 파고, 꼬막도 여기 나기는 합니다.	김영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3상 대	132301	둥그렇다	1E+06		둥그렇다		형	또렷하게 둥글다.	{둥그렇다고는} 잘 안 하제.. {둥그렇다고}는 둥근 모양을 나타낼 때 '둥그렇다, 둥그렇다'라고 표현하나 '둥그렇다'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김영옥 (육지도)			o	o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옥)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번호 1	기초 어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조사·토크미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상징	해당 전국 상징	보통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2조개류	1323상 태	132302	기죽하다	E+06	X		형	있음이 있는 물체의 두 끝이 서로 멀다.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게	1331부 분 명칭	133101	집게발	E+06	집게		명	게, 가재 따위의 발끝이 집게처럼 생긴 발.	{집게}합니다. 집게발 합니다.	김영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게	1331부 분 명칭	133101	집게발	E+06	집게발		명	게, 가재 따위의 발끝이 집게처럼 생긴 발.	{집게발} 합니다.	김영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게	1331부 분 명칭	133102	등딱지	E+06	X		명	게나 가재 따위의 등을 이룬 단단한 껍데기.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등딱지, 배, 살, 가시 제시.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게	1331부 분 명칭	133103	배	E+06	배		명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위장, 장자, 종팔 따위의 내장이 들어 있는 곳으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배} 모양이 다르지.	김영옥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게	1331부 분 명칭	133104	내장	E+06	X		명	게의 내장.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게	1331부 분 명칭	133105	심장	E+06	X		명	= 심장.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게	1331부 분 명칭	133106	살	E+06	X		명	게의 살.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게	1331부 분 명칭	133107	눈	E+06	X		명	게의 눈.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게	1331부 분 명칭	133108	가시	E+06	X		명	바늘처럼 뾰족하게 돋친 것.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게	1332종 류	133201	게	E+06	게		명	{게는} 잡히는 한데, 게를 인해 거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이용하고 그런 거는 없고.	게는 일반적으로 '까'라 하였다. 육지에서는 게가 주된 어획물이 아니므로, 고려된 어획가 많이 없다고 한다. 수라게를 '게고둥, 집게'라 하고 탈게를 '응게, 물게'라고 한다.	김영옥 (육지도)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게	1332종 류	133201	게	E+06	까		명	조개도 있었고 고둥도 있고 게 {까} 종류도 있고, 게. 많이 있었는데 거 매립했었어. 그리고, 게. 많이 있었으며, 수게는 갈죽하고 졸다고 한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양게'는 '양기, 양개'로 '수게'는 '수조개'로 부른다. 양개와 수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양게는 배 모양이 둥글고 넓으며, 수게는 갈죽하고 졸다고 한다.	이수용 (육지도)			O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	음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규 상징	해당 정규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1	계	1E+06	양계	명	계의 양컷.	{양계도} 중요하고 수계도 중요하지만은.		김임옥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1	계	1E+06	양컷	명	계의 양컷.	{양컷}, 수컷 다 포함해서 계라고 했어요. 글이 구분하지 않고.		김임옥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1	계	1E+06	수계	명	계의 수컷.	양계도 중요하고 {수계도} 중요하지만은.		김임옥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1	계	1E+06	수컷	명	계의 수컷.	양컷 {수컷} 다 포함해서 계라고 했어요. 글이 구분하지 않고.		김임옥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2	소라계(진계)	1E+06	소라계	명	= 소라계.	{소라계도} 있고 짐계도 있고.	‘소라계’는 ‘기고동, 개고동’이란 부르는데 이는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남해군 삼동면에서의 ‘진계’라는 다른 어형이다. 표준 어형인 ‘소라계’가 서식지를 먼저 발견 어형인 ‘기고동, 개고동’은 잡어 범주인 생물의 이름을 중심으로 한 어형이라 볼 수 있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 2011)	이수용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2	소라계(진계)	1E+06	짐계	명	= 소라계.	소라계도 있고 {짐계도} 있고.		이수용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2	소라계(진계)	1E+06	개고동	명	= 소라계.	단지 인해 고동 속에 들은 계를 {개고동}, 그냥 개고동.		김임옥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3	털계	1E+06	털계	명	털계과의 짐지동물 등먹지의 길이는 12cm 정도이다. 몸 전체에 털이 촘촘히 나 있으며 배 쪽의 털이 더 길며 몸 옆구리에는 여러 개의 가시가 나 있다.	털계는 이제 물계, 혹은 {물계}. 그러는 이제 물계, 혹은 {물계}.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털계, 응게 제시.	김임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3	털계	1E+06	응게	명	= 털계.	응게, {응게} 합니다.		김임옥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3	털계	1E+06	물계	명	= 털계.	그 인해 우리가 이제 모래 사는 {물계}. 털계라고 하지 않네. 털계라고 했고. 그걸		김임옥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4	꽃계	1E+06	꽃계	명	= 꽃계.	요즘 애들은 {꽃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꽃계는데. 무조건 게예요.		김임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3계	1332종류	133205	대계	1E+06	대계	명	= 대계.	동해가면 {대계라고} 안 합니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대계 제시.	김임옥 (육지도)			o	o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부호 1	기초 어휘 부호 2	기초 어휘 부호 3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조사·조사 형태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어휘 정보	해당 어휘 정보	비고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미역	1E+06		미역잎		명	미역의 줄기에 붙어 있는 잎 부분.	미역기, 미역줄기, {미역잎} 그림니다.	김원욱 (육지도)			○	○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1	미역	1E+06		미역기		명	미역의 뿌리 부분.	{미역기}, 미역줄기, 미역잎 그림니다.	김원욱 (육지도)			○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2	김	1E+06		김		명 = 김.	그런 {김}, 김 파래김이지.	어른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김, 물김 제시.	김원욱 (육지도)			○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2	김	1E+06		김		명 = 김.	{김} 쓰지, 보통 우리가 김이지만 짐이 하고, 파래고.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2	김	1E+06		파래김		명 = 파래김.	그런 김, 김 {파래김이지}.		김원욱 (육지도)			○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3	김태	1E+06		김태		명	원기둥 모양의 줄기는 1~2미터이며, 갈색이다. 전복의 먹이로 중요하며 깊은 바다에서 난다.	어른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김태, 장록 제시.	김원욱 (육지도)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4	파래	1E+06		파래		명 = 파래.	{파래} 남니다, 파래나는데.	파래는 '파래, 포래, 파래, 마생이, 매생이, 갈포래'로 부르는데 이 중 갈포래, '가포래는 '항박초'의 지역 방언에서 사용된다. 이 지역에서는 항박초를 갈포래로, 가포래보이라 하는데 노이 내리는 모습에 갈포래와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김원욱 (육지도)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4	파래	1E+06	파래	포래		명 = 파래.	그 다음에 파래를 {포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라는 모음을 오라는 형태로 좀 쓰시래, 신랄이 제시.	어른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파래, 신랄이 제시.	김원욱 (육지도)			○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4	파래	1E+06		국파래		명 = 파래.	파래나는데, 뭐 {국파래}, 돌파래 또 뭐 뭐 아주 파래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집니다.		김원욱 (육지도)			○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4	파래	1E+06		돌파래		명	파래나는데, 뭐 국파래, {돌파래} 또 뭐 뭐 아주 파래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집니다.		김원욱 (육지도)			○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4	파래	1E+06		신기이		명	녹조류 매생이과의 해조(海藻). 대롱 모양이고 가지는 없으며, 길이는 15cm 정도. 줄기는 0.2~0.5cm이다. 장자파래의 어린 개체와 비슷하나 더 부드럽고 단맛이 있다.	파래와 매생이는 다른 개체이나 재분류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두 어휘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신기이'는, 매생이의 정음 편안형, 이런 현상은 어근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도 나타난다.	이수용 (육지도)			○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량 단위: 100kg	기초 어획량 단위: 100kg	기초 어획량 단위: 100kg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종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면 정확 상치	해면 정확 상치	보존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5	모자반	1E+06		모자반			간조를 모자반과의 해조(海藻). 음은 뽕 리. 줄기, 잎의 부분이 두텁하고, 1~3미터 이상 자란는데 줄기 밑동의 엷푸리도 바위 에 붙어 산다. 잎은 타원형으로 넓은 끝 이나 멀리번 퍼래진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획(2010)에서 모자 반, 물 제시.	김암록 (육지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6	꽃	1E+06		꽃	멍 = 꽃.		{꽃은} 여기서 꽃이라 안 하고.	어촌 생활어 기초어획(2010)에서 꽃 제시.	김암록 (육지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6	꽃나물	1E+06		꽃나물	멍 = 꽃.		{꽃나물}, 꽃나물 하거트요.		김암록 (육지도)			0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7	우무	1E+06		우무	멍 = 우물가사리.		그긴가배, {우무}, 우무라고도 쓰고 까사리 라고도 합니다. 두 개 다 씁니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획(2010)에서 우물 가사리, 가사리 제시.	김암록 (육지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7	까사리	1E+06	우물가사리	까사리	멍 = 우물가사리.		그긴가배, 우무, 우무라고도 쓰고 {까사리 라고도 합니다. 두 개 다 씁니다.		김암록 (육지도)			0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8	풀가사리	1E+06	풀가사리	풀가사리	멍 = 풀가사리.		{풀가사리도} 있지.		김암록 (육지도)			0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4해조류	1341종류	134109	도박	1E+06		도박	멍 = 도박.		{도박} 역시긴 지 모르겠는데.		김암록 (육지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4해조류	1342상대	134201	바래다	1E+06		X	동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4해조류	1342상대	134202	간피다	1E+06		X	동	바닷물에서 미역을 갖고 난 뒤 살갗 따위 에 소금기가 남게 되다.						X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류	1351종류	135101	거북이	1E+06		거북이	멍 = 거북.		그거는 뚝 뚝 {거북이} 같이 보이는데.	어촌 생활어 기초어획(2010)에서 거 북, 오징어, 갑오징어 제시.	김암록 (육지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류	1351종류	135102	오징어	1E+06		오징어	멍 = 오징어.		그건 {오징어고}.		김암록 (육지도)			0	0
기초 어획	130어획물	135기타류	1351종류	135102	이까	1E+06	오징어	이까	멍 = 오징어.		{이까가} 오징어 아니니까. 오 이까를 오징 어라 그러는데. 오 이까라 하는 거는 그것도 다 일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고.		김암록 (육지도)			0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옥)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조사·토피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상지	해당 전국 음성	보통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 류	135103	해파리	E+06	해파리	명 = 해파리.		이 {해파리}. 낙지. 그 뭐시입니까?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해파리 제시.	김원옥 (육지도)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 류	135104	낙지	E+06	낙지	명 = 낙지.		낙주. {낙지}. 낙주.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낙지 제시.	김원옥 (육지도)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 류	135104	낙지	E+06	낙주	명 = 낙지.		{낙주}. 낙지. 낙주.		김원옥 (육지도)			○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 류	135105	문어	E+06	문어	명 = 문어.		{문어}. 문어.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문어, 주전어 제시.	김원옥 (육지도)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 류	135105	문어	E+06	문예	명 = 문어.		{문예}. 문예 나는 자꾸 문어 하는데, 문예 보통 어로 예지 많이 씁니다.		김원옥 (육지도)			○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 류	135106	꽃뚜기	E+06	꽃뚜기	명 ① = 꽃뚜기. ② 크기가 큰 꽃뚜기.		또 {꽃뚜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어 종류가 많이 있어요.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꽃뚜기, 참꽃뚜기 제시.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 (2011)에서는 꽃뚜기, 꼬루, 꼬락이 제시.	김원옥 (육지도)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 류	135106	꽃뚜기	E+06	호리기	명 = 참꽃뚜기.		그는 인자 {호리기}.		이수용 (육지도)			○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 류	135106	꽃뚜기	E+06	호래이	명 = 참꽃뚜기.		꼭 오징어 같이 {호래이가} 오징어가 뭐고.		이수용 (육지도)			○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 류	135107	해삼	E+06	해삼	명 = 해삼.		이거는 {해삼}.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해삼, 멍게, 성게 제시.	김원옥 (육지도)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 류	135108	멍게	E+06	멍게	명 = 멍게.		그 {멍게}, 멍게가 우렁성이.	육지도에서는 표준 어형 외에도 '우렁상'이. 우렁둥이만 한다.	김원옥 (육지도)			○	○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 류	135108	멍게	E+06	우렁성이	명 = 멍게.		그 멍게, 멍게가 {우렁성이}.		이수용 (육지도)			○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 류	135108	멍게	E+06	우렁둥이	명 = 멍게.		이거 인자 {우렁둥이} 아닙니까? 멍게.		이수용 (육지도)			○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1351종 류	135109	성게	E+06	성게	명 = 성게.		아 {성게} 아까 그 멍게, 멍게가 우렁성이. 제시. 어촌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 멍게, 발송이, 깔송이 제시.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성게, 발송이, 깔송이 제시.	김원옥 (육지도)			○	○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기초 어휘 항목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	조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정보 상징	영단어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정 등판여부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09	성개	1E+06	방성이		명 = 성개.	{방성이는} 성개.		김원욱 (육지도)			o	x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09	성개	1E+06	방송어		명 = 성개.	아 성개 아까 그 명개, 명개가 우렁성이. {방송어는} 그 방성이.		이수용 (육지도)			o	x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09	성개	1E+06	우니		명 = 성개.	조금 노른 빛이 나오지요, 이기 인제 일본말. 우니 하거든요. {우니}.	일본식 표현이라고 한다.	이수용 (육지도)			o	x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0	말미잘	1E+06	말미잘		명 = 말미잘.	말미, {말미잘}. 그거는 그거 아니니까.	어른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말미 잘, 불가사리, 개불, 푸꾸미 제시.	김원욱 (육지도)			o	o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1	불가사리	1E+06	불가사리		명 = 불가사리.	예 {불가사리}.		김원욱 (육지도)			o	o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1	불가사리	1E+06	벌		명 = 불가사리.	{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김원욱 (육지도)			o	x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2	거북손	1E+06	x		명 = 거북손과의 하나, 거북의 다리처럼 생긴 머리와 자루 부분은 석회판으로 덮여 있 다.					x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3	산호	1E+06	x		명 = 산호동물은 산호초강의 산호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길이 100~300미터의 바다 밑 에 많은 산호충이 모여 높이 50cm 정도 의 나뭇가지 모양의 군체를 이룬다. 개체가 죽으면 골격만 남는다. 골격은 바깥쪽은 무르고 속은 단단한 석회질로 되어 있어 속을 가공하여 장식물을 만드는 데, 예로 북 단 칠보의 하나로 여겨 왔다.				x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4	주꾸미	1E+06	주꾸미		명 = 문어과의 연체동물. 낙지와 비슷한데 몸의 길이는 20~30cm 정도이고 짧으며 등 근다. 한국, 중국, 일본 등지의 연안에 분포 한다.	이것도 우리 지역에 안 쓰고 이래 보니까 {주꾸미} 하고 낙지 같은 데서는 우리가 사 용을 하고.		이수용 (육지도)			o	o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5	홍합	1E+06	홍합		명 = 홍합과의 조개. 껍데기의 길이는 13cm, 높이는 6cm 정도이고 썩기 모양이며, 검 은 갈색, 안쪽은 진주색이고 살은 붉은 빛을 띤다.	{홍합인데}, 홍합이 제일 많이 나왔어.		이수용 (육지도)			o	o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5	홍합	1E+06	합자		명 = 홍합.	합, 그날 합, 혹은 {합자}.		이수용 (육지도)			o	o
1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5	홍합	1E+06	합		명 = 홍합.	합, 그날 {합}, 합, 혹은 합자.		이수용 (육지도)			o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해당 어휘) 의 품사	올림말	발음	조사·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규 상징	해당 정규 상징 응답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1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6 기타	1E+07	미더덕		명 원식동물문 미더덕과의 하나. 몸은 누런 갈색으로 가늘고 길며 지루 끝이 바위에 붙어 있다. 갈색줄은 성유점과 같은 물결 로 되어 있어 매우 딱딱하고 식용한다.	{미더덕은} 여기도 미더덕이라 합니다.		경일록 (육지도)			○	○
2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6 기타	1E+06	조골래기		명 = 미더덕.	{조골래기} 같은 경우에는 땀 대서는 이빨 개 부르는 말이 없어서.		이수용 (육지도)			○	×
3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6 기타	1E+06	새우		명 = 새우.	{새우는} 그냥 지금 인제는 돈으로 이렇게 사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형제는 그 구 쳐한 짓은 잘 안 할라 그래요.		이수용 (육지도)			○	○
4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6 기타	1E+06	새비		명 = 새우.	어 {새비}.		이수용 (육지도)			○	○
5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6 기타	1E+06	파래새우		명 파래가 있는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새우.	{파래새우라고} 그런 걸 막 잡아먹고 하는 대, 수치가 이렇게 길어서 넘실넘실한다든가 이런 데는 근처에도 안 가.		이수용 (육지도)			○	×
6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6 기타	1E+06	물거시이		명 = 갯지렁이.	예, {물거시이}.	육지도에서는 갯지렁이를 '갯지리, 물 '거시이, 물그시, 그무리, 거무리'라고 한다. 또한 지렁이는 '거시이'라 한다.	이수용 (육지도)			○	×
7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6 기타	1E+06	물그시		명 = 갯지렁이.	그거는 우리 보통 우리가 숨기 말하면 {물 그시}.		이수용 (육지도)			○	×
8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6 기타	1E+06	그무리		명 = 갯지렁이.	그냥 {그무리} 파래 간다 이래 갖고 그무리.		이수용 (육지도)			○	○
9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6 기타	1E+06	거무리		명 = 갯지렁이.	거머리가 아니고 {거무리}.		이수용 (육지도)			○	○
10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 류	1351종 류	135116 기타	135116 a	거시이		명 = 지렁이.	말물에 사는 거는 {거시이}.		이수용 (육지도)			○	×
11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2상 대	135201 비리다	비리다	1E+06	x		명 물고기에서 나는 것이나 냄새가 있다.		어른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비리 다 제시.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읍)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부류 번호 1	기초 어휘 부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	흥기읍 토목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어휘 정보	해당 어휘 정보	남해 근해 어휘 부류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어휘	1352상대	135201	비리다	E+06	비리내		명	날물이나 물고기, 동물의 피 따위에서 나는 먹감고 매스꺼운 냄새.				x	0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어휘	1352상대	135202	불다	E+06	불다		동	맛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다.	우디라고 바닷물에 가면 툇툇불기 있구만!어른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불다 불에 {불은}기. 자 고거 따서도 하고.	이수용 (육지도)		0	0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어휘	1352상대	135203	불갈다	E+06	불다		형	빛깔이 깨끗 또는 먹은 고추의 빛과 같다. {불지}.		김원욱 (육지도)		0	0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어휘	1352상대	135204	노랄다	E+06	노르다		형	색이 밝고 선명하게 노르다.	조크 {노름} 빛이 나오지요. 이기 인해 일본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노랄 말로 우니하거든요. 우니.	김원욱 (육지도)		0	0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어휘	1352상대	135205	뽀족하다	E+06	x		형	굴이 뽀족하거나 날이 서 있다.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어휘	1352상대	135206	날카롭다	E+06	x		형	굴이 뽀족하거나 날이 서 있다.				x		
기초 어휘	130어휘물	135기타어휘	1352상대	135207	뽀뽀하다	E+06	뽀뽀하다		형	뽀시 굵고 단단하다.	죽동이가 으깨 생긴나하면은 청장하고 아래가 {뽀뽀해요}. 바늘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수용 (육지도)		0	0	
기초 어휘	140로도구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1부분 명칭	141101	그물코	E+06	그물코		명	그물에 둘러 있는 구멍.	{그물코리}가 크고 작다 그래요.	김춘상 (육지도)		0	0	
기초 어휘	140로도구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1부분 명칭	141102	버리	E+06	x		명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 놓은 줄, 잡아당겨 그물을 오므렸다 폈다 한다.				x		
기초 어휘	140로도구와 어로방법	141그물류	1412줄류	141201	그물	E+06	그물		명	노끈이나 실, 쇠줄 따위로 여러 코의 구멍이 나게 엮은 물건. 낚시줄이나 물고기 따위를 잡는 데 쓴다.	{그물어리} 하제.	김춘상 (육지도)		0	0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옥)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번호 1	기초 어휘 영역	기초 어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조사·토피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상징	해당 전국 영역	보충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휘	14이로도구와 어로광범	141그룹 류	1412중 류	141201	그룹	E+06	그룹	앙		명	그들의 종류를 이르는 말로 고정시켜 잡는 그들.	그들의 하위 분류로 '앙'와 '방'이 있는 데, '앙'은 고정시키는 그룹이고, '방'이 붙고 가는 그룹의 형태라 한다. 방을 붙고 가는 예를 '방배'란 한다.	경남국 (육지도)			○	○
기초 어휘	14이로도구와 어로광범	141그룹 류	1412중 류	141201	그룹	E+06	그룹	방		명	그들의 종류를 이르는 말로 붙고 가면서 잡는 그룹.		경남국 (육지도)			○	○
기초 어휘	14이로도구와 어로광범	141그룹 류	1412중 류	141202	후터그룹	E+06		x		명	강이나 바다에 낚게 돌려치고 두 끝을 끝 머우거나 물고기를 잡는 큰 그룹.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후터 그룹. 후터그룹, 후터 제시.				x	
기초 어휘	14이로도구와 어로광범	141그룹 류	1412중 류	141203	사들	E+06		들이		명	순잡이가 낚고 모양이 국자처럼 생긴, 물 고기를 잡는 그룹.	이 저저 저런 물에다 덩가놓고 우 예다가 그 미끼로 주면 고기가 그 미끼 끝로 먹들라고 저 모이거든 그러면 밑에 그걸 들이, {들제시, 이}.	김양옥 (육지도)			○	x
기초 어휘	14이로도구와 어로광범	141그룹 류	1412중 류	141204	망사리	E+06	망사리	홍어리		명	물밑에 가가지고 저저 이거 뭐고 {홍어리 해물 따위를 담아 두는, 그물로 된 그 릇으로 육지도에서는 홍어리, 망태라 한다.	'망사리'는 제주도에서 해녀가 채취한 해물 따위를 담아 두는 그물로 된 그 릇으로 육지도에서는 홍어리, 망태라 한다.	김양옥 (육지도)			○	x
기초 어휘	14이로도구와 어로광범	141그룹 류	1412중 류	141204	망사리	E+06	망사리	망태		명	제주도에서, 해녀가 채취한 해물 따위를 담아 두는, 그물로 된 그릇.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그 물망사리, 망태 제시.	김양옥 (육지도)			○	○
기초 어휘	14이로도구와 어로광범	141그룹 류	1412중 류	141205	태악	E+06	태악	두름발		명	밖의 새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 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간.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새 시되지 않음.	김양옥 (육지도)			○	x
기초 어휘	14이로도구와 어로광범	141그룹 류	1412중 류	141205	태악	E+06	태악	두름박		명	밖의 새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 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간.	{두름박}.	이수용 (육지도)			○	x
기초 어휘	14이로도구와 어로광범	141그룹 류	1412중 류	141206	꼭지그룹	E+06	꼭지그룹	꼭지		명	물고기 따위를 건져 올릴 때 쓰는 도구. 에는 뭐 {꼭지} 걸 구만.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꼭지 그룹. 꼭지, 꼭지 제시.	김양옥 (육지도)			○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량 단위: 100kg	기초 어획량 단위: 100kg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종식 정보	종식 정보	유형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면 정보	비고
1	기초 어획 어로망법	141그물 류	1412중 류	141207	선풍	선풍	x		명	견지낙시에서, 미끼를 담아 물 밑으로 내 리는 그물주머니.					x	
2	기초 어획 어로망법	141그물 류	1412중 류	141208	투망	1E+06	투망		명	그물의 하나. 원뿔형 모양으로 뒷부분에 뿔발의 버리가 있고 아래에는 추가 달려 있어, 물에 던지면 꼭 퍼지면서 가라앉아 바닥에 닿은 후 그것을 당겨 올라 고기를 잡는다. '단정 그물', '행이'로 순화.	이 기계 투망이거든 {투망}.	송지면에서는 '도망, 주망그물'이라 하 였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 서 투망 제시.	김일육 (육지도)		o	o
3	기초 어획 어로망법	141그물 류	1412중 류	141208	투망	1E+06	투망		명	그물의 하나. 원뿔형 모양으로 뒷부분에 뿔발의 버리가 있고 아래에는 추가 달려 있어, 물에 던지면 꼭 퍼지면서 가라앉아 바닥에 닿은 후 그것을 당겨 올라 고기를 잡는다. '단정 그물', '행이'로 순화.	{투망인데} 이 동네는 잘 안 쓰고 도구가.	김일육 (육지도)		o	x	
4	기초 어획 어로망법	141그물 류	1412중 류	141209	기타	1E+06	자망		명	바다에서 물고기 떼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저 놓아 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 물고기 가 지나다가 그물에 걸리거나 그물코에 걸려 리도록 하여 잡는다.			김일육 (육지도)		o	o
5	기초 어획 어로망법	142낙시 류	1421부 분 명칭	142101	낙시대	1E+06	낙시대		명	물고기를 잡는 도구의 하나. 가늘고 긴 대 에 낙시줄을 매어 쓴다.	{낙시대예다가} 낙시예다가 꽃을 달구만은 제시.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낙시 제시.	김일육 (육지도)		o	o
6	기초 어획 어로망법	142낙시 류	1421부 분 명칭	142101	낙시대	1E+06	낙시대		명	물고기를 잡는 도구의 하나. 가늘고 긴 대 에 낙시줄을 매어 쓴다.	낙시대. {낙시대}. 뱀 낙시대	어촌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낙 시대, 낙시침때, 침때 제시.	김춘상 (육지도)		o	x
7	기초 어획 어로망법	142낙시 류	1421부 분 명칭	142101	낙시대	1E+06	낙대		명	물고기를 잡는 도구의 하나. 가늘고 긴 대 에 낙시줄을 매어 쓴다.	{낙대}. 뱀 낙시 뱀 이렇게 낙대. 낙대가 제 일 적합한 용어 같아요.		이수용 (육지도)		o	o
8	기초 어획 어로망법	142낙시 류	1421부 분 명칭	142101	낙시대	1E+06	경대		명	물고기를 잡는 도구의 하나. 가늘고 긴 대 에 낙시줄을 매어 쓴다.	혹저서 나만을 잡고 이런 {경대} 쓰던 놈도 없어, 전부 그냥 선풍점에 가서 사 쓰지.		이수용 (육지도)		o	x
9	기초 어획 어로망법	142낙시 류	1421부 분 명칭	142102	낙시줄	1E+06	낙시줄		명	낙시대 낙시바늘을 매어 달기 위하여 쓰 는 가늘고 잘린 끈.	혹저는 인자 이 {낙시 줄} 때는 대를 퍼뜨 려 갖기 아난다. 그 속, 낙시 속이라 하거든 제시.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낙시 제시.	김춘상 (육지도)		o	o
10	기초 어획 어로망법	142낙시 류	1421부 분 명칭	142102	낙시줄	1E+06	줄		명	낙시대 낙시바늘을 매어 달기 위하여 쓰 는 가늘고 잘린 끈.	이 {줄도} 보면 5촌해놓고 오는 뱀 6촌을 해 놓거든 그러니까 줄 따라서 이기 또 고기 따라서 또 물린다.	김춘상 (육지도)		o	o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해부번호	기초 어휘 항목	원표제어	음리말	발음	음사·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국 상징	해당 정국 상징	보충국어 사전 등재여부
1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2낙시 분 명칭	1421부 142103	올레	올레	졸모태		연줄 낚시줄 따위를 잡는 데 쓰는 기구. 나무 기둥의 성주를 두 개나 네 개 또는 여섯 개를 짜서 맞추고 가운데에 자루를 박 아 만든다.	{모태라고} 하는데, 우리는 {졸모태}. 지금 뭐 오 내 처 저방하고 태산 같이 있는데, 모태 만들어놓은 게.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손 을, 이쁜수리 제시.	김춘상 (육지도)		○		×
1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2낙시 분 명칭	1421부 142103	올레	올레	모태		연줄 낚시줄 따위를 잡는 데 쓰는 기구. 나무 기둥의 성주를 두 개나 네 개 또는 여섯 개를 짜서 맞추고 가운데에 자루를 박 아 만든다.	{모태라고} 하는데, 우리는 {졸모태}. 지금 뭐 오 내 처 저방하고 태산 같이 있는데, 모태 기구로 육지도에서는 졸모태, 모태란 한다.		김춘상 (육지도)		○		×
1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2낙시 분 명칭	1421부 142104	미늘	미늘	이늘		낙시 끝의 안쪽에 있는, 거스러미처럼 되 어 고기가 뚫려 빠지지 않게 만든 작은 갈 고리. 누구거04(鈎鉤)·낙시미늘.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미 늘, 이늘, 낙시바늘 제시.		김춘상 (육지도)		○		×
1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2낙시 분 명칭	1421부 142104	미늘	미늘	낙시끝		낙시 끝의 안쪽에 있는, 거스러미처럼 되 어 고기가 뚫려 빠지지 않게 만든 작은 갈 고리. 누구거04(鈎鉤)·낙시미늘.	고기 인제, 고기고. 요거는 {낙시끝이라} 하 거든.		김춘상 (육지도)		○		○
1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2낙시 분 명칭	1421부 142105	낙시축	낙시축	낙시축		낙시바늘에 줄을 매는 부분.	그 축, {낙시축}이라 하거든. 여를 줄 매는 터들.		김춘상 (육지도)		○		×
1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2낙시 분 명칭	1421부 142105	뽕돌	뽕돌	뽕돌		낙시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 을 주기 위해 다른 낙시추.	{뽕돌이라} 안 하나? 뽕돌, 이 밑에 이기 갖 고 온 거 안 들어간다 이거야 들어가지 않 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낚을 뚝여 직접 만 들었다고 한다. '뽕돌'은 '뽕돌', '뽕돌' '뽕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 다.	김춘상 (육지도)		○		×
1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2낙시 분 명칭	1421부 142105	뽕돌	뽕돌	뽕돌		낙시바늘이 물 아래로 잘 내려가게 무게감 을 주기 위해 다른 낙시추.	{뽕돌}, 뽕돌이라 그래.		김춘상 (육지도)		○		×
1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2낙시 분 명칭	1421부 142105	주지	주지	주지		원낙기를 위해 준비된 낙시대 전체를 부르는 명칭이기도 하고, 설을 잡아놓은 판자. {주지라} 그래요. 주지, 셋팅한 걸 주지라고 그래요.			김춘상 (육지도)		○		×
1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2낙시 분 명칭	1422부 142201	낙시	낙시	낙시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작은 쇠갈고리.	고기가 전부 다 이쪽에 한 마리씩 많이 물 때는 한 마리씩 다 물리 올 드라고 {낙시}, 열 두 개 매면, 열두 개 다 물리 올라온다고. 그래요.		김춘상 (육지도)		○		○
1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2낙시 분 명칭	1422부 142201	낙시	낙시	낙시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작은 쇠갈고리.	낙시대, 뽕 {낙시대}.		김춘상 (육지도)		○		○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부류번호	기초 어획영역	기초 어획부류번호	원표제어	올림말	발음	종사·포획지점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면경국상징	해면경국상징	보존국어사전용례부
1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2낙시 류	1422종 류	142202	상평낙시	1E+06		X		명	세 갈래의 갈고리가 달린 낚시바늘. 강바닥에 가라앉혀 놓고 물고기가 지나가다 걸리게 한다.					X	
1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2낙시 류	1422종 류	142203	주낙	1E+06		주낙		명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 긴 낚시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다.	{주낙} 이관을 쓰기 위해서 개를 잡았다 한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주낙, 주낙 제시.	김춘상 (육지도)		0	0	0
1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2낙시 류	1422종 류	142203	주낙	1E+06	주낙	주낙		명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 긴 낚시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다.		김춘상 (육지도)		0	0	0
1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 분 명칭	143101	갑판	1E+06		갑판		명	배의 바닥에 까는 판자. 삼보다 약간 낮게 위에 막 있는 걸 {갑판이라고} 갑판.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갑판 제시.	김춘상 (육지도)		0	0	0
1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 분 명칭	143102	이물	1E+06		이물		명	사람 얼굴을 갖다가 이물이라 하거든. 그가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이물, 이물도요, 산수, 배 앞 제시.		김춘상 (육지도)		0	0	0
1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 분 명칭	143103	꼬물	1E+06		꼬물		명	배의 뒷부분. 뒤에는 뒤예를 {꼬물}.		김춘상 (육지도)		0	X	X
1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 분 명칭	143104	돛	1E+06		돛		명	배 바닥에 세운 기둥에 매어 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만든 넓은 천. 바람을 받아 배를 가게 한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돛 제시.	김춘상 (육지도)		0	0	0
1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 분 명칭	143105	돛대	1E+06		돛대		명	돛을 달기 위하여 배 바닥에 세운 기둥. 돛대라기보다도 {돛대} 이거 보면서 짐대라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돛대, 그러지, 짐대.		김춘상 (육지도)		0	0	0
1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 분 명칭	143105	돛대	1E+06	돛대	짐대		명	돛대를 짐대라고 하기도 하고. 돛대라고 하기도 하고. 돛대 그런 원래 표준말이고 지역에서 주로 쓰는 말은 {짐대}.		김춘상 (육지도)		0	0	0
1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 분 명칭	143106	활대	1E+06		활대		명	요거는 {활대}.		김춘상 (육지도)		0	0	0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분류번호	기초 어획분류명	기초 어획분류번호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종사·포획지명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면정확성	해면정확성	보존국어시점
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본 명칭	143109	노	E+06		노손	영	영 배를 짓는 노의 손잡이.	그러게 {노손이라} 하거든. 노손.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보면 낚잔지가 있거든.		김춘상 (육지도)			o	o
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본 명칭	143109	노	E+06		낚잔지	영	노를 배에 연결하는 부분에서 노에 덧붙인 나무 부분.	{낚잔지라} 하는 게 있고.		김춘상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본 명칭	143109	노	E+06		낚잔디	영	노를 배에 연결하는 부분에서 노에 덧붙인 나무 부분.	{낚잔디}. 낚잔지.		김춘상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본 명칭	143109	노	E+06		노초제	영	노를 배에 연결하는 부분에서 노에 덧붙인 나무 부분이 노초제인데 이 노초제에 쇠나 나무를 얹어 배에 고정하는 부분을 이르는 말.	그는 인자 또 낚잔지에서 또 보면 또 쇠나 나무 부분이 노초제에 쇠나 나무나 박은 게 있어. 그걸 그조도고 {노초제라} 하거든.		김춘상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본 명칭	143110	상앗대	E+06		열레	영	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 배를 열 때나 띄울 때, 또는 물이 얇은 곳에서 배를 밀어 나갈 때 쓴다.	{열레} 열레작대이.		김춘상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본 명칭	143110	상앗대	E+06		열레 작대기	영	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 배를 열 때나 띄울 때, 또는 물이 얇은 곳에서 배를 밀어 나갈 때 쓴다.	{열레} 열레작대이.		김춘상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본 명칭	143111	키	E+06		키	영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	{키구멍}. 키구멍이 키구멍이.	키, 시, 치'라 한다. 어른 생활이 기초어획(2010)에서 키 한 어항만 수집.	김춘상 (육지도)			o	o
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본 명칭	143111	키	E+06		치	영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	그기 {치라} 하는데.		김춘상 (육지도)			o	o
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본 명칭	143111	키	E+06		따리	영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	치를 {따리라} 많이 쓰지.		김춘상 (육지도)			o	o
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1부본 명칭	143112	기타	E+06		삼치	영	배의 돛대 꼭대기 부분.	옆에는 {삼이라} 그래요. 삼.		김춘상 (육지도)			o	o
기초 어획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3배	1432종류	143201	고깃배	E+06		어선	영	낚시로 고기잡이하는 데 쓰는 배.	고기 잡는 배는 {어선}.		김춘상 (육지도)			o	o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기초 어휘 분류 번호 3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통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국 상징	해당 정국 음성	보충국어 상징
1	기초 어휘	143배	1432종 류	143202	독막선	1E+06	독막선	독막선		명	발동기로 움직이는 작은 배.	그걸 뭐 {독막선이라} 하기는 하는데, 고만 주로 여서는 꼬매난 발동기라 하고 뭐 이러 지.	김춘상 (육지도)			0	0
1	기초 어휘	143배	1432종 류	143202	독막선	1E+06	독막선	발동기		명	발동기로 움직이는 작은 배.	그걸 뭐 독막선이라 하기는 하는데, 고만 주 로 여서는 꼬매난 {발동기라} 하고 뭐 이러 지.	김춘상 (육지도)			0	0
1	기초 어휘	143배	1432종 류	143203	기룻배	1E+06	기룻배	x		명	룻이 없는 작은 배.					x	
1	기초 어휘	143배	1432종 류	143204	똥단배(똥 선)	1E+06	똥단배(똥 선)	똥선		명	똥을 달아, 바람으로 이용하여 움직이는 배.	똥을 달아라고 갈 수 있는 건 또 {똥선이라} 하 고} 없고.	김춘상 (육지도)			0	0
1	기초 어휘	143배	1432종 류	143204	똥단배(똥 선)	1E+06	똥단배(똥 선)	똥단배		명	똥을 달아, 바람으로 이용하여 움직이는 배.	이 는 뭐 {똥단배네}.	김춘국 (육지도)			0	0
1	기초 어휘	143배	1432종 류	143204	똥단배(똥 선)	1E+06	똥단배(똥 선)	땃마	땃마	명	똥을 달아, 바람으로 이용하여 움직이는 배.		김춘국 (육지도)			0	x
1	기초 어휘	143배	1432종 류	143204	똥단배(똥 선)	1E+06	똥단배(똥 선)	땃마새끼	땃마새끼	명	똥을 달아, 바람으로 이용하여 움직이는 배.	이 지저 요 뭐고 경상도 말 {땃마새끼} 하거 든.	김춘국 (육지도)			0	x
1	기초 어휘	143배	1432종 류	143204	똥단배(똥 선)	1E+06	똥단배(똥 선)	땃마		명	똥나루를 때로 가지런히 엮어서 똥에 띄워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 것.	똥을 달아갖고 갈 수 있는 건 또 똥선이라고 했고, 그 그물이 서로 상통하는 거예요. 길 이 쓰여졌다. 어떤 그날 그 배를 놓고 똥선 이라 했다가 {땃마라} 했다가 같이 쓰는 거 요.	김춘국 (육지도)		0	x	
1	기초 어휘	143배	1432종 류	143204	똥단배(똥 선)	1E+06	똥단배(똥 선)	전마선		명	큰 배와 육지 또는 배와 배 사이의 연락을 말하 하는 작은 배.	{전마선이고} 그게 전마선이고 이제 우리거 이 지역에서는 그걸 땃마라고 불렀습니다.	김춘국 (육지도)			0	0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부류 번호	기초 어휘 부류 명목	기초 어휘 부류 번호	원표제어	음리말	발음	음사·뜻풀이	유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영단어	영단어	영단어
1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143배어로방법	1432종류	143205	143205	143205	1E+06	뱃목	때배		땡	뽕나무를 때로 가지런히 뒤어서 물에 띄워,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아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목선, 나무배 제시.	김흥국 (육지도)			0	0
1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143배어로방법	1432종류	143206	143206	기타	1E+06		뽕구멍이		땡	남해안에서 아로 활동을 하기 편하게 만든 배로 진해안부터 육지도에 이르는 지역에 서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배의 가장 밑 바닥에 세로 방향으로 항을 지탱하고 배 밑에 물을 정하는 밑판이 있고, 뽕은 큰 뽕과 작은 뽕이 있는데 큰 뽕을 덜 수 있는 뽕대를 배 중간에 세운다.		김흥국 (육지도)			0	0
1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143배어로방법	1432종류	143206	143206	기타	1E+06		뽕구미		땡	= 뽕구멍이.	그래서 인쇄 뽕구미, {뽕구미}.	김흥국 (육지도)			0	x
1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143배어로방법	1432종류	143206	143206	기타	1E+06		뽕줄망이		땡	= 뽕구멍이.	뽕구멍이네요. 뽕구멍이. 이 배 이름이 {뽕구멍이}.	김흥국 (육지도)			0	x
1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143배어로방법	1432종류	143206	143206	기타	1E+06		방배	방배	땡	그물을 끄는 배.	{방배}, 그물을 끄는 배를 방배라 그래요.	김흥국 (육지도)			0	x
1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143배어로방법	1432종류	143206	143206	기타	1E+06		첫배	첫배	땡	제그물로 뽕고기를 잡는 배로 주로 남해, 제주도 근해에서 멸치를 잡을 때 쓴다.	마루치를 잡는 배들이 {첫배라} 첫배.	김흥국 (육지도)			0	0
1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144어로도구	1441기타	144101	144101	작살	1E+06		창		땡	뽕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	{창}은 뽕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를 말한다. 송진면에서는 '수마리', '수사리', '창', '작살'로 사용되는데 이중 '수사리', '수마리'가 많이 사용하였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작살' 제시.	김임옥 (육지도)			0	0
1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144어로도구	1441기타	144102	144102	어살	1E+06		발		땡	뽕고기를 잡는 창치, 싸리, 창대, 장나무의 따위를 개울, 강, 바다 따위에 낚개 모양으로 둘러치거나 쪼아 나무 통타리를 치는 등 그 가운데에 그물을 달아 두거나 길발, 길발, 통발과 같은 장치를 하여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서 잡히도록 한다.	아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어살을 제박지들은 '죽반형'이라 하는데 예전에는 대나무로 엮은 어살을 많이 썼지아었다고 한다.	김임옥 (육지도)			0	0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음리말	발음	조사·도움말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전국 상징	해당 전국 상징	보충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휘	140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4어로 도구	1441기 타	144102	1E+06		죽방		명 물고기를 잡는 장치. 새리, 참대, 장나무 의 파위를 개울 강, 바다 파위에 넓게 모양으 로 둘러치거나 꽃이 나무 통타리를 친다. 물 그 가운데에 그물을 던져 두거나 길발, 깃발, 풍발과 같은 장치를 하여 그 안에 고 기가 들어가서 잡히도록 한다.	{죽방}. 어 맞아, 죽방.		김원옥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40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4어로 도구	1441기 타	144102	1E+06		대나무발		명 대나무로 만든 어살.	{대나무발}. 대나무발. 대나무발, 대나무발 을 뒤라고 해야하나? 대발이란 해오. 대발 이라.		김원옥 (육지도)			o	
기초 어휘	140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4어로 도구	1441기 타	144102	1E+06		대발		명 대나무로 만든 어살.	그냥 {대발이라고}. 대나무발이라고. 대발.		김원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40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4어로 도구	1441기 타	144103	1E+06		풍발		명 가는 머조각이나 새리를 엮어서 통간이 만 든 고기잡이 기구. 아가리에 작은 발을 달 아 낚카를 쓴 것이 가운데로 물리개 하여 한번 들어가 물고기는 가슴과 나오지 못하 게 하고 뒤쪽 끝은 머슴대로 묶고 물게 되 어 있어 안에 든 물고기를 꺼낼 수 있다.	{풍발이네요}. 풍발도 뭐 여서 많이 하고 제시.		김원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40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4어로 도구	1441기 타	144104	1E+06		바구리		명 대나 새리 파위를 쪼개어 통글게 겹어 속 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 테두리에 대나무 를 서너 겹 돌려 손잡이로도 쓸 수 있다.	그 뒤 {바구리라} 하지. 바구리. 바구리라 하지.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바구니'는 대나 새리 파위를 쪼개어 통글게 겹어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 으로 크기나 용도도 여러 가지이다. 어 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 르고, 불린는 이름도 지역에 따라 조금 씩 달리 나타난다. 지역에서도 바구니 에 관한 어휘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바구니, 바구를, 쪼락, 쪼락'이라고 부 리며, 크기나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불 린다. '쪼락, 쪼락'은 바구니의 약칭일 것이다. '아랫부분보다 좁은 형태의 바구니 를 말한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 (2010)에서 바구니, 등거리, 등거리 제 시.	김원옥 (육지도)			o	o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번호 1	기초 어휘 번호 2	원표제어	음리말	발음	중사·뜻풀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보 상지	해당 정보 음성	남해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휘	140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0로 도구	1441기 타	144105	중다래끼	1E+06	두꾸마리		작은 바구니. 다래끼보다 작으며 양쪽에 끈을 달아 허리에 차거나 뿔뿔을 달아 어 깨에 매기도 한다.	{두꾸마리} 하는데 그래 내가 아가새한테 자리를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도 ‘두꾸마 리’ 이런 소리를 하면 뭐라 할랑가 모르겠는데 아새개 뭇때그라 나 놓으면 아새개 뭇때그라 나 놓으면	중다래끼는 작은 바구니로 다래끼보 다 작으며 양쪽에 끈을 달아 허리에 차 거나 뿔뿔을 달아 어깨에 매기도 하는 도구이다. 중다래끼라는 어휘는 사용 하지 않고 ‘두꾸마리’라 하는데 뿔 수 있는 바구니라 한다. 그리고 뭇때그 어 자를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도 ‘두꾸마 리’라는 표현을 한다고 한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1)에서는 중 다래끼라는 어휘는 사용하지 않고 ‘양 태. 뿔부리’라 하는데 뿔 수 있는 바구 니라 한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양 태기. 양태 제시.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40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0로 도구	1441기 타	144106	호미	1E+06	호미		바지락을 켤 때 쓰는 쇠로 만든 기구. 끝은 뾰족하고 위는 대개 넓적한 삼각형으로 되 어 있는데 목을 가늘게 휘어 구부린 뒤 등 근 나무 자루에 박는다.			김임욱 (육지도)		o		
기초 어휘	140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0로 도구	1441기 타	144106	호미	1E+06	호미		바지락을 켤 때 쓰는 쇠로 만든 기구. 끝은 뾰족하고 위는 대개 넓적한 삼각형으로 되 어 있는데 목을 가늘게 휘어 구부린 뒤 등 근 나무 자루에 박는다.			김임욱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40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0로 도구	1441기 타	144107	넛	1E+06	넛		미역 따위를 베는 데 쓰는 기구. 시우산으로 ‘ㄱ’자 모양으로 만들어 아쪽으로 낚을 내 고, 뒤 끝 숟배에 나무 자루를 박아 만든 다. 농기구모다는 크기가 절반 정도로 작 다.			김임욱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40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0로 도구	1441기 타	144107	넛	1E+06	애넛	애넛	넛의 종류로 일본에서 들어온 넛의 형태.	넛. 넛도 {애넛이래}. 일본 넛이.		김임욱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40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0로 도구	1441기 타	144107	넛	1E+06	일본넛		넛의 종류로 일본에서 들어온 넛의 형태.	넛. 넛도 애넛이래. {일본 넛이}.		김임욱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40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0로 도구	1441기 타	144108	물웃	1E+06	물웃		물속에서 일을 할 때 이용하는 장수복 따위의 옷.	{물웃이리} 하더나. 해녀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물 웃. 해녀옷 제시.	김임욱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40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0로 도구	1441기 타	144109	올갈캐	1E+06	오리발		사람이 물속에서 활동할 때에 발에 끼는 오리발 모양의 물건.	{오리발이리} 그러는데.		김임욱 (육지도)		o	o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번호 1	기초 어휘 항목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	조사·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국가 어휘	해당 국가 어휘	비고
1	기초 어휘	140어로와 144어로 어로방법	1441기 타	144109	1E+06		물갈퀴		평	사람이 물속에서 활동할 때에 발에 끼는 오리발 모양의 물건.	{물갈퀴를} 전부 오골이라 하는데.	김원욱 (육지도)			0	0
2	기초 어휘	140어로와 144어로 어로방법	1441기 타	144109	1E+06		오골		평	사람이 물속에서 활동할 때에 발에 끼는 오리발 모양의 물건.	물갈퀴를 전부 {오골이라} 하는데.	이수용 (육지도)			0	X
3	기초 어휘	140어로와 144어로 어로방법	1441기 타	144110	1E+06		이개수		평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육지로 운반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예전 소규모의 육전으로, 어로 활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한 어획도구.	{이개수} 카는 거.	김원욱 (육지도)			0	X
4	기초 어휘	140어로와 144어로 어로방법	1441기 타	144111	1E+06	투구	투구		평	장수할 때 머리에 쓰는 장수 기구. 공기를 받는 번과 공기를 뱉는 번이 달려 있는데, 장수부가 머리에 쓰고 두 번을 조절하면서 물속에서 활동한다.	이 지역에서는 투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머구리, 뿔뿔, 해녀 오자, 장수부' 등이라 하는데 이 지역에는 해녀들이 없어 많이 볼 수 있는 어로 도구가 아니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투구, 두레박 제시.	김원욱 (육지도)			0	0
5	기초 어휘	140어로와 144어로 어로방법	1441기 타	144111	1E+06	투구	머구리		평	장수할 때 머리에 쓰는 장수 기구. 공기를 받는 번과 공기를 뱉는 번이 달려 있는데, 장수부가 머리에 쓰고 두 번을 조절하면서 물속에서 활동한다.	{머구리, 머구리. {머구리인데}, 원래는 머구리	이수용 (육지도)			0	X
6	기초 어휘	140어로와 144어로 어로방법	1441기 타	144111	1E+06	투구	목우리	모구리	평	장수할 때 머리에 쓰는 장수 기구. 공기를 받는 번과 공기를 뱉는 번이 달려 있는데, 장수부가 머리에 쓰고 두 번을 조절하면서 물속에서 활동한다.	투구가 아니고 이게 인제 그 뭐 {목우리}.	이수용 (육지도)			0	X
7	기초 어휘	140어로와 144어로 어로방법	1441기 타	144112	1E+06		수경		평	물속에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눈을 뜨고 물속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인경.	{수경이라} 하는 거라. {수경}.	김원욱 (육지도)			0	0
8	기초 어휘	140어로와 144어로 어로방법	1441기 타	144112	1E+06	수경	물안경		평	물속에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눈을 뜨고 물속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인경.	{물안경}. 근데 이걸 이거는 이 지역말로 칭할 수 있도록 만든 인경으로 이 지역에서 '창경, 창경, 창경, 창경, 창경, 창경, 창경, 창경'으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김원욱 (육지도)			0	0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번호 1	기초 어휘 번호 2	기초 어휘 번호 3	기초 어휘 번호 4	원표제어	음리말	발음	조사/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규 상징	해당 정규 상징	비고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어로 도구	1441기 타	144112	수경	1E+06		수경	창경		명 물속에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눈을 뜨고 물속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안경.	창경. {창경}. 창경.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어로 도구	1441기 타	144112	수경	1E+06		수경	창경		명 물속에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눈을 뜨고 물속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안경.	물안경. 근대 이걸 이거는 이 지역말로 {창 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창경이라 하기도 하 고.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어로 도구	1441기 타	144112	수경	1E+06		수경	창경		명 물속에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눈을 뜨고 물속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안경.	창경. 창경. {창경}.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어로 도구	1441기 타	144112	수경	1E+06		수경	창경		명 물속에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눈을 뜨고 물속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안경.	근대 이걸 이거는 이 지역말로 창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창경이라} 하기도 하고.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어로 도구	1441기 타	144112	수경	1E+06		수경	창경		명 물속에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눈을 뜨고 물속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안경.	물을 {창경이라} 하더라.		이수용 (육지도)			○	×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어로 도구	1441기 타	144113	그물바늘	1E+06			바늘대		명 그물을 짜는 데에 쓰는 바늘. 이 지역에서는 "그물바늘"을 '바늘, 바 늘때, 그물때'라 표현하였다. 바늘때는 그물코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것을 사 용한다고 한다. 이는 '바늘'과 '대'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2010)에서 그물바늘, 바늘대, 바 늘때 제시.		경춘상 (육지도)				○	×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어로 도구	1441기 타	144114	재첩잡이	1E+06			×		명 갈매 모양의 기구로 식은 서너 개의 발을 만들고 자루를 씌어 만든다.					×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어로 도구	1441기 타	144115	물채	1E+06			물채		명 물고기 따위를 건져 올릴 때 쓰는 도구. 오 구 모양의 그물이 달려 있다.	{물채}.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물채 제시.	경임욱 (육지도)			○	○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어로 도구	1441기 타	144115	물채	1E+06		물채	쪽지		명 물고기 따위를 건져 올릴 때 쓰는 도구. 오 구 모양의 그물이 달려 있다.						○	×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어로 도구	1441기 타	144116	낙지가래	1E+06			×		명						×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	동사·동명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어휘 정보 상세	해당 어휘 정보 상세	비고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4이로도구	1441기	144121	상태	E+06	없다	했다	형	수호나 분랑,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을 넘는다.	바쁠때, 바쁠때 뭐 우리집에 가면 {새엣는 데}, 뭐, 바쁠때, 그들 집는 바쁠대지.	어수용 (육지도)			0	x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1조	145101	파다	E+06		파다	동	낙지 따위를 잡기 위해 구멍이나 구덩이를 만든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파다, 굶다, 캐다, 잡다, 때다 제시.	김임옥 (육지도)			0	o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1조	145102	캐다	E+06		캐다	동	바지락 따위를 파서 꺼낸다.	총합 {칼 때}, 총합 칼 때는 그 쉬리.	김임옥 (육지도)			0	o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1조	145103	(전복) 때다	E+06		때다	동	붙어 있는 전복 따위를 잡아때다.	총합도 이런 놈 {따가지고} 전부 저기 나랑 보내고, 저 종국을 보내고.	김임옥 (육지도)			0	o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2해	145201	말리다	E+06		말리다	동	미역 따위를 햇빛에 건조시키다.	그 지장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인제 잘라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김임옥 (육지도)			0	o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2해	145202	붙이다	E+06		x	동	맛탕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다.					x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2해	145202	붙이다	E+06		x	동	뽕을 띄거나 바탕을 띄기 위하여 펼쳐 놓는다.					x	o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2해	145203	베다	E+06		베다	동	늘이 있는 연장 따위로 무엇을 끊거나 자르거나 가른다.	해녀들이 들어 가가지고 그냥 물밑에도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막 해녀도 들어가서 아까 그 낫 있대. 고한 거로 막 {빈다}.	김임옥 (육지도)			0	o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3그	145301	훑리다	E+06		뽕돌리다	동	물체를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하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짜서, 돌리다, 뽕이다.	김임옥 (육지도)			0	x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3그	145301	훑리다	E+06		돌리싸다	동	돌리서 감싸다.	끌고 가는 거, 인자 {돌리싸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거.	김임옥 (육지도)			0	o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3그	145302	짜다	E+06		잡다	동	실 따위로 코를 얹어서 그물을 만든다.	뭐, 바쁠때, 그들 {잡는} 바쁠대지.	김임옥 (육지도)			0	o
기초 어휘	140이로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3그	145303	뜨다	E+06		x	동	물속에 있는 것을 건져 내다.					x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번호 1	기초 어휘 번호 2	원표제어 표준어	음리말	발음	중사·뜻풀이 정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국 상징	해당 정국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휘	140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이론도구와 행위	1453그물류	145304	경다	1E+06	경다		동 사람이나 동물을 따위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이게 하다.	줄 {감는} 거.		경관상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40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이론도구와 행위	1453그물류	145305	끌다	1E+06	끌다		동 바닥에 먼 채로 잡아당기다.	이렇게 망. 고정시키는 거. 방은 {끌고} 가는 거.		경관육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40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이론도구와 행위	1453그물류	145306	던지다	1E+06	던지다		동 낚시를 바다에 던지다.	고기때를 보고 {던지는} 거예요.	그물 던지는 행위를 '차다, 낚다, 뿌리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어촌 생활에 기초어휘(2010)에서 던지다 제시.	경관육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40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이론도구와 행위	1454낚시류	145401	낚다	1E+06	낚다		동 고기가 걸린 낚싯대를 잡아 당기다.	그 기계가 그래 가지고 이제 고기 {낚고}.	어촌 생활에 기초어휘(2010)에서 낚다, 채다, 걸리다, 풀리다 제시.	경관육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40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이론도구와 행위	1454낚시류	145402	채다	1E+06	x		동 갑자기 세게 잡아당기다.						x	o
기초 어휘	140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이론도구와 행위	1454낚시류	145403	걸리다	1E+06	걸리다		동 낚시나 그물에 무엇이 잡힌다.	머루치 깨가지고 낚놓으면 줄이 {걸리다}. 아니라, 줄이 걸리면 아 또 밑에 들어 있구나. 하는 거라.	'고기가 걸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들었다'라고 표현한다. 어촌 생활에 기초어휘(2010)에서 걸리다 제시.	경관육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40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이론도구와 행위	1454낚시류	145404	올리다	1E+06	올리다		동 그물을 바다에서 잡아 당겨 끌어 올린다.	도리리 낚는 사람도 으면 끌고 영기다 보면 도리리도 낚아 {올리고}.		경관육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40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이론도구와 행위	1454낚시류	145404	올리베다	1E+06	올리베다		동 그물을 바다에서 잡아 당겨 끌어 올린다.	이놈을 막 이래 당기놓고 둘 위로 들시면 들아가면 {올리베가튼}.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40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이론도구와 행위	1454낚시류	145404	뱅기뿌다	1E+06	뱅기뿌다		동 그물을 바다에서 잡아 당겨 끌어 올린다.	물고 들어올 때 잡아, 이 {뱅기뿌면} 많이 지.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40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이론도구와 행위	1454낚시류	145404	뱅겨올리베다	1E+06	뱅겨올리베다		동 그물을 바다에서 잡아 당겨 끌어 올린다.	어 밑에 이래 막 끌아 보다가 {뱅겨올리베다} 이말이래 그러면 안에 그 채이리하고 위치 그런 게 다 들어가베, 고마.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40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이론도구와 행위	1454낚시류	145405	끼다	1E+06	끼다		동 벌어진 사이에 무엇을 넣고 죄어서 빠지자지 않게 하다.	블래이는 이만큼 누시다 끼 매가지고 이 길게 이렇게 아랫을 {끼가지고}, 그라 저 덕에 진 데가 가서 인자 이 흘려주기는거라.		이수용 (육지도)			o	o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휘자료(흥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휘 분류 번호 1	기초 어휘 분류 번호 2	원표제어	음리말	발음	동사·동명사·형용사·명사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정보 가진	해당 정보 음성	보충국어 사전 등 표어부
기초 어휘	14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4나 시류	145405	기타	1E+06	출러주다		동	낙신히름이 물에 떠 내려가게 하다.	볼래이는 이깁을 누시다 께 매가지고 이 길 게 이렇게 이깁을 께가지고, 그라 저 덕에 진 데가 가서 인자 이 {출러주기는기라}.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4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4나 시류	145405	기타	1E+06	날바주다		동	낙신히름을 전히히 조금씩 물 속으로 내리 다.	사알 {날바주면} 우리가 보롬 날바준다 그 합니다. 요려 사 이래깁고.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4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4나 시류	145405	기타	1E+06	비름하다		동	물고기가 물러 들도록 밑밥을 주다.	{비름을 한다}.	이수용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4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5배	(키를)잡 다	145501	1E+06	잡다		동	키에 붙인 창니무를 잡고, 배의 방향을 조 중한다.	배가 기로 하나 막 그물로 {잡고} 서가 있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잡 고 소괄어 이 그물을 이리 편들어 가지고 다, 타다, 매다, 또다, 실다 제시.	김임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4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5배	타다	145502	1E+06	타다		동	배에 몸을 엮다.	배를 {타고} 왔느나, 걸어왔느나 그 말이에 요.	김임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4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5배	매다	145503	1E+06	매다		동	곤이나 줄 따위의 두 끝을 엮고잡아당 기어 풀어지지 아니하게 마디를 만들다.	{매} 달아서 이렇게 해 깁고, 손으로 인제 가 그 인력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김임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4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5배	매다	145503	1E+06	x		동	곤이나 줄 따위의 두 끝을 엮고잡아당 기어 풀어지지 아니하게 마디를 만들다.					x	o
기초 어휘	14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5배	뜨다	145504	1E+06	뜨다		동	물속이나 지면 따위에서 가리얏거나 내려 앉지 않고 물 위나 공중에 있거나 위쪽으 로 솟아오른다.	배에 띄어놓고 배야 어디를 가든지 마든가 그야 자갈밭에만 {떠} 가면 되거든.	김임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4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5배	실다	145505	1E+06	실다		동	물체를 운반하기 위하여 배 따위에 올리 다.	그 먼 곳까지 누시 인제 거 께쪽 {실고} 가 서 이렇게 줄누서에서 이렇게 뭐 붙어먹고 사는 사람들 많은 거봐.	김임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4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6기 타	(작살) 쏘 다	145601	1E+06	찌르다		동	작살을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발사하다.	{찌르는} 기라고 창이라.	김임옥 (육지도)			o	o
기초 어휘	14이론도구와 어로방법	145어로 행위	1456기 타	기타	145602	1E+06	들시다		동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린다.	이놈을 막 이래 당가놓고 돌 위로 {들시면} 들어가면 올리배거든.	김임옥 (육지도)			o	x
기초 어휘	15음식	151 발음	1511 첫 발음	151101	세우전	2E+06	x		명	새우로 만든 전갈.					x	
기초 어휘	15음식	151 발음	1511 첫 발음	151102	멸치전	2E+06	멸치전		명	멸치로 만든 전갈.	{멸치전음} 개봉을 해서 우리가 인제 이렇게 먹게 되면은 육 이라 부른다. 어촌 생활어 기초어휘 (2010)에서 멸치전, 멸치전, 매트지전 변해요.	김임옥 (육지도)			o	o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분류	기초 어획량	기초 어획지역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종사자명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면 경도	해면 경도	남해지역 소재지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첫갈류	151102	별지첫	2E+06	별지첫	머루치첫갈	명	명	별치로 만든 첫갈.		김원육 (육지도)			0	X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첫갈류	151103	명란첫	2E+06		X	명	명	명태의 알로 만든 첫갈.					X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첫갈류	151104	항난첫	2E+06		X	명	명	명태 창자로 만든 첫갈.					X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첫갈류	151105	조기첫	2E+06		X	명	명	조기로 만든 첫갈.					X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첫갈류	151106	꿀뚜기첫	2E+06		X	명	명	꿀뚜기로 만든 첫갈.					X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첫갈류	151107	아가미첫	2E+06		X	명	명	아가미로 만든 첫갈.					X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첫갈류	151108	곤쟁이첫	2E+06		X	명	명	곤쟁이로 만든 첫갈.					X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첫갈류	151109	오징어첫	2E+06		오징어첫	명	명	오징어로 만든 첫갈.					X	X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첫갈류	151110	기타	2E+06	낙지첫	명태첫	명	명	낙지로 만든 첫갈.		김원육 (육지도)			0	0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1첫갈류	151110	기타	2E+06	굴첫	굴첫	명	명	굴로 만든 첫갈.		김원육 (육지도)			0	0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2지역음식	151210	재료	2E+06		고구마	명	명	메꽃과의 여러해살이풀. 줄기는 덩굴이 되어 땅 위로 뻗으며 꽃은 보통 피지 않으나 때로 연한 붉은빛의 꽃이 나팔 모양으로 피기도 한다. 땅속파리는 식용하거나 콩아용으로 쓰고 잎과 줄기도 나물로 식용한다.	육지도를 대표 음식은 '고구마 배태기'를 이용한 것이다. 다른 국물에 비해 고구마가 많이 생산되나 이는 저장성이 없어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생강, 해반, 방파제, 배태기이다. 고구마는 육지도에서는 '고매'라 하고, 고구마를 썰어 말린 것을 '고구마배태기', 절간이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만든 음식이 '배태기 죽, 떡, 조우래기'가 있다. '조우래기'는 배태기를 갈아 밀가루에 넣어 만든 빵이다.	김원육 (육지도)			0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2지역음식	151210	재료	2E+06		고매	명	명	고매지 {고매}.		김원육 (육지도)			0	0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량 단위	기초 어획량 변동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종사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면 정확 상치	해면 정확 음성	보존국어 사전 등재여부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2지 역 음식	151210	재료	2E+06	정간	명	고구마를 썰어 말린 것. 고구마의 저장성 을 높인다.	정간고구마를 만드는 {정간을} 만들죠. 라서 그 인제 건조를 시키는 거죠.		김홍국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2지 역 음식	151210	재료	2E+06	배태기	명	고구마를 썰어 말린 것. 고구마의 저장성 을 높인다.	말린, 고구마 말린 게 {배태기}라고.		김홍국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2지 역 음식	151211	음식명	2E+06	배태기 죽	명	고구마 배태기로 만든 죽.	{배태기 죽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는거 그기 인제 대부분이었었고.		김홍국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2지 역 음식	151211	음식명	2E+06	떡	명	고구마 배태기로 만든 떡.	{떡도} 시루떡같이 짜면은 맛이 있어요.		김홍국 (육지도)			o	o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2지 역 음식	151211	음식명	2E+06	고구마 빵	명	고구마 배태기로 만든 빵.	{고구마 빵} 정도도 이렇게 작은 그걸 인제 인제 그 성향을 해서 손으로 그냥 주물러서 인제 이렇게 성해를 해가지고 찌서 먹는 그 거를 그걸 조무래기라 그래요.		김홍국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2지 역 음식	151211	음식명	2E+07	조무래기	명	고구마 배태기로 만든 빵.	고구마 빵 정도도 이렇게 작은 그걸 인제 인제 그 성향을 해서 손으로 그냥 주물러서 인제 이렇게 성해를 해가지고 찌서 먹는 그거 를 그걸 조무래기라 그래요.		김홍국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2지 역 음식	151211	음식명	2E+06	고구마잎차 두 갈절이	명	고구마 잎을 양념에 버무린 갈절이.	고구마 줄기가 줄기가 아니고 잎자루지 {잎 자루 갈절이} 하듯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 었어요		김홍국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5음식	151	1512지 역 음식	151211	음식명	2E+06	갈치호박국	명	호박을 넣어 끓인 갈치국.	{갈치호박국은} 굉장히 유명하지요, 갈치호 박국은 갈치, 갈치가 여게 인제 갈치가 많 이 넣거든요.		김홍국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1	배고사	2E+06	고사	명	백운(厄運)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 도록 집안에서 성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차례 놓고 비는 제사.	그래서 인제 배에서 막 돼지잡고 이래갖고 {고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김홍국 (육지도)			o	o
기초 어획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1	배고사	2E+06	풍신제	명	음력 2월 초하룻날부터 스무날 사이에 풍신 이 영등할머니에게 지내는 제사. 집집마다 누둑이나 위돌에 제단을 차리고, 북동우의 피해를 단하여 주고 집안 식구에게 복을 내려 주기를 빈다.	우리가 {풍신제를} 음력 이월에 올려요. 게 정중 막 볼어올 때, 막 이렇게 올려요.		김홍국 (육지도)			o	o
기초 어획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1	배고사	2E+06	진수식	명	새로 만든 배를 처음으로 물에 띄울 때에 하는 의식.	이제 배라는 게, 인제 우리가 어기 {진수식 이잖아요}, 진수식인데 서남, 서남하는 거 있어요.		김홍국 (육지도)			o	o
기초 어획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2	행위	2E+06	고사 하다	동	백운(厄運)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 도록 집안에서 성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차례 놓고 비는 제사를 지낸다.	이래라고 {고사 한다}고 그래가지고 인제 그래 인자 의지를 할 때가 없으니까.		김홍국 (육지도)			o	o

4 남해 근해(육지도) 기초 어획자료(홍기육)

번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초 어획분류 번호1	기초 어획분류 번호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발음	종사·포획이 정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해당 국가 상징	해당 국가 음성	남중국아 서진 등피어부
기초 어획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2	행위	2E+06	고사 지내다		동 (동(東)은 얻어지고 폭우와 행동이 오도록 집안에서 섬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지내 놓고 바는 제사를 지낸다.	행위가 배에 인해 약간의 {고사 지내는} 수준 정도로 하죠.		김홍국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2	행위	2E+06	할맛내 지내다		구 종신인 영등할머니에게 복종우를 피해를 면하고 집안 식구를 위한 제사를 지낸다.	{할맛내} 이렇게 지낸다} 아래가지고 뭐 일 주일을 주기로 해갖고 한 삼주 정도 해요.		김홍국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2	행위	2E+06	바람 올린다		구 종신인 영등할머니에게 복종우를 피해를 면하고 집안 식구를 위한 제사를 지낸다.	그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거, {올린다는} 말 그 자체가 인해 잠재운다는 그런 뜻이예요.		김홍국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2	표현	2E+06	할맛내 올라가다		구 영등할머니 즉 종신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종신인 영등할머니를 잠재우다.	{할맛내} 올라간다} 그런 말을 해요.		김홍국 (육지도)			o	x
기초 어획	16민속	161제의	1611	161102	표현	2E+06	바람 잠재우다		구 영등할머니 즉 종신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종신인 영등할머니를 잠재우다.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농경사회 혹은 우리 특히 바다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그 주술적인기 제시. 행위지요.	어른 생활어 기초어휘(2010)에서 육고	김홍국 (육지도)			o	x

기초 어휘 항목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번호	어휘 항목
11 행위자	111	1111	111101	어부
			111102	해녀
12 환경	121 시간	1211 물때	121101	한무날
			121102	두무날
			121103	서무날
			121104	너무날
			121105	다섯무날
			121106	여섯무날
			121107	일곱무날
			121108	여덟무날
			121109	아홉무날
			121110	열무날
			121111	열한무날
			121112	열두무날
			121113	조금
			121114	아츠조금(선조금)
		1212 미세기	121201	밀물
			121202	썰물
			121203	물밀다
			121204	물써다
		1213 하루	121301	새벽
			121302	아침
			121303	낮
			121304	저녁
			121305	밤
	122 날씨	1221 바람	122101	동풍
			122102	서풍
			122103	남풍
			122104	북풍
			122105	동북풍
			122106	북서풍
			122107	동남풍
			122108	서남풍
			122109	회오리바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번호	어휘 항목
			122110	불다
			122111	세다
			122112	약하다
			122113	시원하다
		1222 비	122201	소나기
			122202	이슬비
			122203	장맛비
			122204	여우비
			122205	내리다
			122206	그치다
			122207	개다
		1223 눈	122301	함박눈
			122302	싸라기눈
			122303	진눈깨비
			122304	고드름
			122305	얼다
			122306	녹다
		1224 해·달·별	122401	해돋이
			122402	해넘이
			122403	햇무리
			122404	달무리
			122405	은하수
			122406	뜨다
			122407	지다
		1225 기타	122501	번개
			122502	벼락
			122503	천둥
			122504	우레
			122505	구름
			122506	안개
			122507	서리
			122508	무지개
			122509	맑다
			122510	흐리다
			122511	밝다
			122512	어둡다
			122513	춡다
			122514	따뜻하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번호	어휘 항목
	123 공간	1231 방위	123101	동향
			123102	서향
			123103	남향
			123104	북향
			123105	동서향
			123106	동남향
			123107	동북향
			123108	서남향
			123109	서북향
		1232 바다	123201	먼바다
			123202	연안
			123203	바닷물
			123204	민물
			123205	파도
			123206	거품
			123207	너울
			123208	파도치다(동사)
			123209	넓다
			123210	좁다
			123211	깊다
			123212	얕다
			123213	높다
			123214	낮다
			123215	짜다
			123216	싱겁다
			123217	파랗다
			123218	하얗다
			123219	빠지다
		1233 해안가	123301	모래
			123302	모래사장
			123303	갯벌
			123304	돌
		1234 지형	123401	포구
			123402	항구
			123403	어귀
			123404	개
			123405	곶
			123406	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번호	어휘 항목
13 어획물	131 물고기	1311 부분명칭	123407	바위
			123408	암반
			123409	낭떠러지
			131101	머리
			131102	입
			131103	눈
			131104	등
			131105	아가미
			131106	지느러미
			131107	비늘
			131108	껍질
			131109	배
			131110	창자
			131111	부레
			131112	살
			131113	알
			131114	꼬리
			131115	꼬리지느러미
			131116	가시
			131117	뼈
		1312 종류	131201	물고기
			131202	멸치
			131203	정어리
			131204	갈치
			131205	고등어
			131206	고도리
			131207	가오리
			131208	홍어
			131209	가자미
			131210	명태
			131211	동태
			131212	황태
			131213	노가리
			131214	북어
			131215	생태
			131216	조기
			131217	굴비
			131218	꽁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번호	어휘 항목
			131219	복어
			131220	고래
			131221	상어
			131222	넙치
			131223	바다장어(붕장어)
			131224	도미
			131225	병어
			131226	도루묵
			131227	임연수어
			131228	삼치
			131229	방어
			131230	옥돔
			131231	전갱이
			131232	전어
			131233	준치
			131234	청어
			131235	농어
			131236	쥐치
			131237	쥐포
			131238	민어
			131239	대구
		1313 상태	131301	얕다
			131302	두껍다
			131303	굵다
			131304	가늘다
			131305	길다
			131306	짧다
			131307	크다
			131308	작다
			131309	넓적하다
			131310	길쭉하다
			131311	싱싱하다
			131312	상하다
			131313	(가시) 찌르다
	132 조개류	1321 부분명칭	132101	조가비
			132102	입
			132103	아가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번호	어휘 항목
			132104	심장
			132105	내장
			132106	조개관자
			132107	(조개)발
		1322 종류	132201	조개
			132202	소라
			132203	고둥
			132204	전복
			132205	굴
			132206	꼬막
		1323 상태	132301	동그랗다
	133 게	1331 부분명칭	133101	집게발
			133102	등딱지
			133103	배
			133104	내장
			133105	심장
			133106	살
			133107	눈
			133108	가시
		1332 종류	133201	게
			133202	소라게(집게)
			133203	털게
			133204	꽃게
			133205	대게
			133206	참게
	134 해조류	1341 종류	134101	미역
			134102	김
			134103	감태
			134104	파래
			134105	모자반
			134106	톳
			134107	우뭇가사리
			134108	풀가사리
			134109	도박
		1342 상태	134201	바래다
			134202	간피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번호	어휘 항목
	135 기타	1351 종류	135101	거북
			135102	오징어
			135103	해파리
			135104	낙지
			135105	문어
			135106	꼴뚜기
			135107	해삼
			135108	멍게
			135109	성게
			135110	말뚝성게
			135111	말미잘
			135112	불가사리
			135113	거북손
		1352 상태	135201	비리다
			135202	붙다
			135203	빨강다
			135204	노랑다
			135205	뽀죽하다
			135206	날카롭다
			135207	딱딱하다
14 어획도구와 어로방법	141 그물류	1411 부분명칭	141101	그물코
			141102	벼리
		1412 종류	141201	그물
			141202	후릿그물
			141203	사들
			141204	망사리
			141205	테왁
			141206	쪽지그물
			141207	설망
	142 낚시류	1421 부분명칭	142101	낚싯대
			142102	낚싯줄
			142103	얼레
			142104	미늘
		1422 종류	142201	낚시
			142202	삼봉낚시
			142203	주낙
	143 배	1431 부분명칭	143101	갑판
			143102	이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번호	어휘 항목
			143103	고물
			143104	돛
			143105	돛대
			143106	활대
			143107	닷
			143108	닷줄
			143109	노
			143110	(노) 젓다
			143111	상앗대
			143112	키
		1432 종류	143201	고깃배
			143202	똑딱선
			143203	거룻배
			143204	돛단배(풍선)
	144 어로도구	1441 기타	144101	작살
			144102	어살
			144103	통발
			144104	바구니
			144105	종다래끼
			144106	호미
			144107	낚
			144108	물옷
			144109	물갈퀴
			144110	고기살리는배
			144111	투구
			144112	수경
			144113	그물바늘
			144114	도구로써 재첩잡이
			144115	뜯채
			144116	낙지가래
			144117	얼음끌
			144118	걸쇠
			144119	미끼
	145 어로행위	1451 조개류	145101	파다
			145102	캐다
			145103	(전복) 떼다
		1452 해조류	145201	말리다
			145202	널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번호	어휘 항목
		1453 그물류	145301	후리다
			145302	짜다
			145303	뜨다
			145304	감다
			145305	끌다
			145306	던지다
		1454 낚시류	145401	낚다
			145402	채다
			145403	걸리다
			145404	올리다
		1455 배	145501	(키를)잡다
			145502	타다
			145503	내리다
			145504	매다
			142205	풀다
			145506	뜨다
			145507	가라앉다
			145508	신다
		1456 기타	145601	(작살) 쏘다
15 음식	151	1511 젓갈류	151101	새우젓
			151102	멸치젓
			151103	명란젓
			151104	창난젓
			151105	조기젓
			151106	꼴뚜기젓
			151107	아가미젓
			151108	곤쟁이젓
			151109	오징어젓
16 민속	161 제의	1611	161101	뱃고사
	162 금기, 속설, 은어, 노래	1621 노래	162101	뱃노래

〈2012년 민족생활어 조사〉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질문지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11101	어부	〈사진〉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바다 따위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11102	해녀	〈사진〉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삼, 전복, 미역 따는 일을 하는 여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21101	한무날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볼 때, 음력 열흘과 스무닷새를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121102	두무날	밀물과 썰물 차이를 볼 때, 음력 열하루와 스무엿새를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10~12일, 22~25일 사이의 밀물은 가장 낮은 때에 속한다.)		
121103	서무날	밀물과 썰물 차이를 볼 때, 음력 열이틀과 스무이레를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121104	너무날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볼 때, 음력 열사흘과 스무여드레를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121105	다섯무날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볼 때, 음력 열나흘과 스무아흐레를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121106	여섯무날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볼 때, 조수 간만의 차가 같은 음력 보름과 그믐을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21107	일곱무날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볼 때, 음력 초하루와 열엿새를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121108	여덟무날	밀물과 썰물 차이가 같은 음력 초이틀과 열이레를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121109	아홉무날	밀물과 썰물 차이가 같은 음력 초사흘과 열여드레를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121110	열무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같은 음력 초나흘과 열아흐레를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121111	열한무날	밀물과 썰물 차이를 볼 때, 음력 초닷새와 스무날을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121112	열두무날	밀물과 썰물 차이를 볼 때, 음력 초엿새와 스무하루를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121113	조금	조수(潮水)가 가장 낮은 때를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대개 매월 음력 7, 8일과 22, 23일에 있다.)	같은 말 : 소조(小潮)·작은 사리·한조금	
121114	아흐조금(선조금)	밀물과 썰물 차이를 볼 때, 음력으로 초이렛날과 스무이틀을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121201	밀물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들어 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1202	썰물	반대로 바닷물이 나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1203	물밀다	밀물 때는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물이 어떠한다고 합니까?)		
121204	물써다	썰물 때는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물이 어떠한다고 합니까?)		
121301	새벽	하루 중 동이 틀 무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21302	아침	새벽 다음 시간 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21303	낮	아침이 지나고 저녁이 되기 전까지의 동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1304	저녁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사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21305	밤	해가 저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101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102	서풍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103	남풍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104	북풍	북쪽에서 부는 바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105	동북풍	동북쪽에서 부는 바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106	북서풍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107	동남풍	동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108	서남풍	서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109	회오리바람	바람이 한 곳에서 뱅뱅 돌아 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110	불다	눈은 내린다 또는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람은 어떠한다고 합니까?		
122111	세다	바람이 보통 때보다 강하게 불면 바람이 어떠한다고 합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22112	약하다	‘세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122113	시원하다	몸이나 손이 찬물에 닿으면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122201	소나기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다가 곧 그치는 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202	이슬비	아주 가늘게 내리는 비로, 가랑비보다는 가늘게 오는 비를 무슨 비라 합니까?		
122203	장맛비	장마 때에 오는 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204	여우비	별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205	내리다	비, 눈, 서리, 이슬 따위가 오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122206	그치다	비가 내리다가 안 오면 비가 어떠하다고 합니까?		
122207	개다	곳은 날씨가 맑아지는 것을 두고 날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122301	함박눈	굵고 탐스럽게 내리는 눈을 무엇이라 합니까?		
122302	싸라기눈	썰알 같은 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303	진눈깨비	비가 섞여 내리는 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304	고드름	〈사진〉 겨울에 지붕의 물기가 얼어서 처마 밑에 길게 굳어진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305	얼다	액체나 물기가 있는 물체가 찬 기운 때문에 단단해지는 것을 두고 물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얼음은 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122306	녹다	얼음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22401	해돋이	해가 막 솟아오르는 때 또는 그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402	해넘이	해가 막 넘어가는 무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403	햇무리	〈사진〉 햇빛이 대기 속의 김에 비치어 해의 둘레로 둥그렇게 보이는 테 모양의 빛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404	달무리	〈사진〉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405	은하수	〈사진〉 칠석날 전우성과 직녀성 사이에 있는 강같이 하얗게 보이는 별의 무리를 무엇이라 합니까?		
122406	뜨다	아침이 되면 해가 어떻게 됩니까?		
122407	지다	저녁이 되면 해가 넘어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122501	번개	〈사진〉 뭉가 잣으면 천둥 한다고 합니까? 흐리거나 비 오는 날, 하늘에서 번쩍이는 불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502	벼락	번개가 땅에 내리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지는 사람은 이것 맞을까봐 비 오는 날 밖에 못나간다고 합니다.		
122503	천둥	번개 친 다음에 오는 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번개가 잣으면 뭐 한다고 합니다.		
122504	우레	천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122505	구름	〈사진〉 하늘에 하얗고 뭉쳐서 떠다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흐린 날은 ‘하늘에 무엇인지 잔뜩 떠있다 또는 끼어있다’라고 합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22506	안개	〈사진〉 바닷물이 따뜻해져서 배가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바다가 안 보이게 수증기가 연기처럼 푹 찬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507	서리	〈사진〉 초겨울 아침에 물방울이 땅이나 물건들 위에 하얗게 얼어붙은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 까? 백발이 된 노인들보고 ‘머리에 이겨 내렸다’고도 합니다.		
122508	무지개	〈사진〉 비가 그친 뒤 해의 반대쪽에 생기는 것으로, 일곱 색깔의 둥근 줄로 되어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2509	맑다	구름이나 안개가 끼지 아니하여 날씨가 깨끗한 것을 두고 어떠한다고 합니까?		
122510	흐리다	하늘에 구름이나 안개 따위가 끼어 햇빛이 밝지 못한 것을 두고 어떠한다고 합니까?		
122511	어둡다	빛이 없어 밝지 아니한 것을 어떠한다고 합니까?		
122512	밝다	‘어둡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122513	춥다	겨울에 옷을 얇게 입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122514	따뜻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날씨가 어떻습니까?		
123101	동향	동쪽 방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102	서향	서쪽 방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103	남향	남쪽 방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104	북향	북쪽 방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23105	동남향	동남 방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106	동북향	동북 방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107	서남향	서남 방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108	서북향	서북 방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201	면바다	거리로 따졌을 때,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를 ‘가까운 바다 또는 근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진 바다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202	연안	육지와 면한 바다의 물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203	바닷물	바다에 피어 있는 짙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204	민물	강이나 호수 따위와 같이 소금기가 없는 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205	파도	〈사진〉 바닷물은 바람의 세기나 방향에 따라서 출렁거립니다. 이런 현상/ 모습 또는 물결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206	거품	계가 물을 빨아들여 아가미에서 산소를 걸러내야 하는데 사람에게 붙잡힌 탓에 숨이 막힐 지경이 되면 입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계() 문다’이라고도 합니다.		
123207	너울	〈사진〉 파도가 넘실대는 모습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208	파도치다(동사)	파도가 출렁대거나, 칠썹대는 것을 다른 말로 ‘파도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23209	넓다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큰 것을 어떠한다고 합니까?		
123210	좁다	넓지 않은 것을 어떠한다고 합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23211	깊다	바다 표면에서 바다 밑바닥까지, 거리가 멀면 ‘바다가 어떠한가’고 합니까?		
123212	얕다	깊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123213	높다	파도가 평소보다 위로 솟으면 ‘파도가 어떻게’고 합니까?		
123214	낮다	높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123215	짜다	소금의 맛은 어떻습니까?		
123216	싱겁다	짜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국에 소금이 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123217	파랗다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와 같이 밝고 선명하게 푸른 것을 어떠한다고 합니까?		
123218	하얗다	겨울에 오는 눈이나 우유의 빛깔은 어떻게 합니까?		
123219	빠지다	물속이나 어떤 깊숙한 곳에 잠기거나 잠겨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123301	모래	〈사진〉 바닷가에 깔린 돌 부스러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막에 가면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123302	모래사장	바닷가에 있는 넓고 큰 모래벌판, 해변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303	갯벌	〈사진〉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 또는 그 주변의 넓은 검은 진흙땅입니다. 이곳을 한 번 빠지면 발을 빼어서 걸어 나오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이런 검은 진흙 해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304	돌	〈사진〉 바위보다는 작고 모래보다는 큰 덩어리를 뭐라고 합니까?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을 ‘이것 부처’라고 합니다. 무슨 부처라고 합니까? 김 종류에서도 ‘이것 김’은 맛이 아주 좋습니다. 무슨 김입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23305	포구	〈사진〉 강어귀나 바닷가에 배가 드나들 수 있게 된 곳으로, 항구보다 규모가 작은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306	항구	〈사진〉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고 사람이나 짐을 오르내리기 편리하게 부두 따위의 설비를 한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307	어귀	배가 포구로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출입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동네로 들고나는 출입구를 옛날에는 ‘동네 이것’이라고도 했습니다.		
123308	개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309	곶	〈사진〉 바다 쪽으로 좁고 길게 뻗어 있는 육지의 지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310	만	바다가 육지로 깊이 들어와 출입구 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육지로 둘러 싸여서 호수처럼 잔잔한 곳입니다. 서해안에서는 이곳을 매워서 농경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123311	바위	〈사진〉 산이나 바다에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는 부피가 매우 큰 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돌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123312	암반	다른 바위 속으로 들어가서, 굳어진 큰 바위를 무엇이라 합니까?	표준국어대사전 에는 ‘바위 바닥’으로 순화. 바다 속 지형에 관한 어휘도 조사.	
123313	낭떠러지	〈사진〉 깎아지른 듯한 언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31101	머리	〈정어리 사진〉 동물의 목 위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31102	입	〈정어리 사진〉 이곳으로 음식물을 먹습니다. 이곳은 무엇입니까?		
131103	눈	〈정어리 사진〉 이것으로 사방을 봅니다. 이것을 쓸 수 없을 때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31104	등	〈정어리 사진〉 사람이나 동물의 가슴과 배의 반대쪽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31105	아가미	〈정어리 사진〉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들은 이곳으로 숨을 쉽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131106	지느러미	〈정어리 사진〉 물고기 또는 물에 사는 포유류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헤엄치는데 쓰는 기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31107	비늘	〈정어리 사진〉 물고기의 껍질을 덮고 있는 얇고 단단하게 생긴 작은 조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선 중에는 이것이 없는 종류와 있는 종류가 있는데, 없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고등어, 갈치, 방어, 삼치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생선이 ‘조기’입니다. 이것을 다듬는 일을 ‘이것을 긁어낸다’고도 합니다.		
131108	껍질	〈정어리 사진〉 물고기 몸에서 비늘과 살 사이에 있는 질긴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131109	배	〈정어리 사진〉 표준어로 바다에 뜨는 ‘배’와 발음이 똑 같은 사람 또는 동물의 몸 부위 이름은 무엇입니까? 옛말에 ‘내 무엇 부르면 총 무엇 고픈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131110	창자	물고기 배 안에 있는 내장 가운데 길이가 가장 긴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명태의 이것으로 만든 젓갈을 ‘창란젓’이라고 합니다.		
131111	부레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공기주머니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31112	살	물고기 비늘과 껍질을 벗겨내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선구이를 먹을 때 가시는 발라내고 이것을 먹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31113	알	명란젓은 명태의 무엇으로 만듭니까?		
131114	꼬리	〈정어리 사진〉 동물의 꼬무나 몸뚱이의 뒤 끝에 붙어서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31115	꼬리지느러미	꼬리 뒤 끝에서 헤엄치기 쉽게 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31116	가시	생선 중에서 오징어는 이것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물고기의 잔뼈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선 중에 ‘준치’가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목에 걸렸다고도 말합니다.		
131117	뼈	생선 몸 전체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살을 바르면 이것만 남았다고 합니다.		
131201	물고기	물에서 사는,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있는 등뼈동물을 일컫는 말은 무엇입니까?		
131202	멸치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길이는 13cm 정도이며, 등은 검푸르고 배는 은빛을 띠는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131203	정어리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멸치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더 크고 둥글며 기름이 많은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31204	갈치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길이는 1.5미터 정도이며, 파처럼 길고 알팍하고, 비늘이 전혀 없고 은빛을 띤 흰색의 가루 같은 것이 덮여 있는 물고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31205	고등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은 기름지고 통통하며 등에 녹색을 띤 검은색 물결무늬가 있고 배는 은백색인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31206	고도리	고등어 새끼를 뭐라고 합니까?		
131207	가오리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은 가로로 넓적한 마름모 모양이고 꼬리가 긴 근해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131208	홍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길이는 1.5미터 정도이고 마름모 모양으로 가오리와 비슷하나 더 둥글고 가로 퍼진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등은 갈색이고 연한 색의 크고 작은 둥근 무늬가 있으며 배는 흰색입니다.		
131209	가자미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납작하여 타원형에 가깝고, 두 눈은 오른쪽에 몰려 붙어 있으며 넘치보다 몸이 작은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131210	명태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길이는 40~60cm이며, 등은 푸른 갈색, 배는 은빛이고, 등 지느러미가 세 개인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물고기입니다.		
131211	동태	이것은 무엇입니까? 얼린 명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31212	황태	이것은 무엇입니까? 얼부풀어 더덕처럼 마른 북어, 빻칼이 누르고 살이 연하며 맛이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31213	노가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태의 새끼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31214	북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린 명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31215	생태	이것은 무엇입니까? 얼리거나 말리지 아니한, 잡은 그대로의 명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31216	조기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어과의 보구치, 수조기, 참조기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황해에서 많이 나는 물고기 이름은 무엇입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31217	굴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에 약간 절여서 통으로 말린 조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31218	꽁치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치’자 돌림의 생선으로 값이 싸고, 겨울에 많이 먹습니다. 몸의 길이는 30cm 정도이고 등은 검은 청색, 배는 은빛 백색인 물고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통조림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131219	복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살은 먹지만 알은 맹독성이 있어 ‘이것 알’을 먹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조리할 때 주의해야 하는 물고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확장어휘 조사 필요.	
131220	고래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에 사는 유일한 포유류입니다. ‘이것 싸움에 세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131221	상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서 가장 사납고 위험합니다. 가끔 해녀들이 이것에 물려서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1222	넙치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넓적한 긴 타원형이며, 눈이 있는 왼쪽은 어두운 갈색 바탕에 눈 모양의 반점이 있고 눈이 없는 쪽은 흰색인, 이 물고기 이름은 무엇입니까?		
131223	바다장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양은 뱀장어처럼 생겼습니다. 등은 회갈색, 배는 회백색이며 옆줄의 작은 구멍이 흰 점 모양입니다.		
131224	도미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11월 초에서 3월 말이 제철이고, 봄철 가장 맛있는 생선으로 지방이 적고 살이 단단합니다. 대부분 갯바위 근처에 삽니다. 이것은 맛이 좋아 ‘썩어도 준치, 또는 이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낚시로도 잡습니다.	도미/도미 종류	
131225	병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의 크기는 어른 손바닥만큼 하며 납작하고 둥그스름하며, 흰색이고 등은 파란색을 띤 백색인 물고기입니다. 등과 배의 지느러미가 뽀족하고 딱딱한데 그 모양은 꼬리와 같습니다.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31226	도루묵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다 속 모래가 섞인 썰 바닥에서 몸의 일부분을 바닥에 묻은 채 삽니다. 이 물고기는 선조대왕과의 일화로 유명합니다. 맛이 없어서 도로 돌려주었다고 해서 이름이 부쳐졌다고 합니다.		
131227	임연수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암초지대에 주로 살고, 꼬리지느러미는 깊게 두 갈래로 갈라져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131228	삼치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길이는 1미터 정도이고 가늘며, 옆으로 납작한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청색에 푸른 갈색의 얼룩무늬가 있고 배는 흰색입니다.		
131229	방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길이는 1미터 정도로 긴 방추형이고 주둥이는 뾰족합니다. 몸은 등이 푸른빛을 띤 회색, 배는 은빛을 띤 흰색이고 옆구리에 누런색 세로띠가 하나 있는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131230	옥돔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주도 연안에서 나는 제주 특산물입니다. 몸의 길이는 30~60cm이고 옆으로 편평하며 선명한 붉은색인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머리, 등은 짙은 붉은색이고 옆구리에 4~5줄의 누런빛을 띤 적색 가로띠가 있습니다.		
131231	진갱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길이는 40cm 정도이고 원뿔형이며, 등은 어두운 녹색, 배는 흰색인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몸에 하나의 구부러진 옆줄이 있고 그 위에 방패 비늘이 발달하여 있습니다.		
131232	전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을에 이것을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가 이것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31233	준치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맛이 아주 좋으나 가시가 매우 많습니다. ‘썩어도 이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벤딩이와 비슷한데 몸의 길이는 50cm 정도이고 옆으로 납작하며, 등은 어두운 청색, 배는 은백색인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131234	청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양은 풍치와 비슷하지만 풍치보다 통통하고 잔 가시가 많습니다. 주로 구이를 많이 해 먹습니다.		
131235	농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길이는 50~90cm이고, 등은 검푸르고 배는 회며, 어릴 때는 등과 등지느러미에 검은 갈색의 작은 점이 많습니다. 몸은 옆으로 납작하며 주둥이가 크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며, 온몸에 잔 비늘이 많은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131236	쥐치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로 살을 잘라 말려서 ‘포’를 만듭니다. 이것을 어린이 손바닥만 하게 포로 말린 것은 술안주와 간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131237	쥐포	쥐치를 포를 펴서 만든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131238	민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길이는 60~90cm이고 길고 납작하며, 주둥이는 둔하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짧습니다. 낮에는 바다 속 깊은 곳에 있다가 밤이 되면 물 위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131239	대구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양과 색깔은 아주 큰 명태와 비슷하지만 머리에서부터 창자 있는 부분까지는 조금 더 큼니다.		
131301	얇다	두께가 두껍지 아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131302	두껍다	‘얇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31303	굶다	길쭉한 물체의 둘레나 너비가 넓다는 말로, ‘갈다’의 반대말을 무엇입니까?		
131304	가늘다	바늘은 길고 어떻습니까?		
131305	길다	갈치는 병어에 비해 길이가 어떻습니까?		
131306	짧다	‘갈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131307	크다	고래는 새우에 비해서 몸집이 어떻습니까?		
131308	작다	‘크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131309	넓적하다	편편하고 얇으면서 꽤 넓은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넓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131310	길쭉하다	조금 길게 생긴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갈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131311	싱싱하다	생생하고 산뜻하다는 뜻으로, 좋은 생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은 무엇입니까?		
131312	상하다	‘싱싱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131313	(가시) 찌르다	‘가시에 뭍하다, 바늘로 뭍한 듯이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뭍하다’는 무슨 동작입니까?		
132101	조가비	〈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개의 껍데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개 곁에 딱딱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32102	임	먹이를 먹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132103	아가미	〈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32104	심장	모든 생명체는 신체의 이 기관이 멎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멈추는 듯 했다’, 또는 무 섭거나 긴장했을 때 ‘이것이 뼓다’고도 합니다. 조개의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32105	내장	물고기 뱃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알, 창자, 부레,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무엇이라고 합 니까? 이것으로 탕을 끓인 요리도 있습니다. ‘무슨 탕’이라고 합니다.		
132106	조개관자	연체동물 부족류의 조개껍데기를 닫기 위한 한 쌍의 근육으로, 큰 가리비, 큰 키조개, 국자가리 비 따위에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32107	(조개)발	조개의 끝 부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32201	조개	몸은 두 쪽의 단단한 조가비에 싸여 있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132202	소라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껍데기는 두껍고 견고하며, 나사탐 모양으로 생겨서 뿔 같은 돌 기가 있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132203	고둥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라, 소라고둥, 총알고둥 따위처럼 대개 말려있는 껍데기를 가지 는 종류를 통칭하는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32204	전복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깊은 바다 속 바위에 붙어서 삽니다. 이것은 회로 먹거나 특히 이것으로 만든 죽은 영양가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껍데기 안쪽은 자개로 쓰이며, 껍데 기 겉 가장자리에 구멍이 출지어 나 있습니다.		
132205	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닷가 바위에 붙어서 삽니다. 겨울 특히 2월에 맛이 가장 좋습 니다. 이름으로 ‘석화, 갯굴, 가시굴, 토굴 따위가 있는데 이 이름들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32206	꼬막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돌조개과의 하나로 껍데기에는 부챗살마루가 있으며 요리방법은 이것 하나하나에 양념을 얹어서 찌냅니다. 양념이 된 이것 살을 하나씩 떼어먹습니다. 이 작은 조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32301	동그랗다	보름달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것보다 작은 동전 모양은 어떻다고 합니까?		
133101	집게발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가재 등의 끝이 집게로 된 발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33102	등딱지	계나 거북 따위의 등을 이룬 단단한 껍데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33103	배	계의 여기를 보면 암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133104	내장	계의 딱지 속에 들어 있는 누르스름한 물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33105	심장	모든 생명체는 신체의 이 기관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멈추는 듯 했다’, 또는 무섭거나 긴장했을 때 ‘이것이 뻔다’고도 합니다. 계의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33106	살	계 곁에 딱딱한 껍질을 벗기면 무엇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먹습니다.		
133107	눈	〈대개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133108	가시	〈대개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133201	계	이것은 유일하게 옆으로 걷습니다. 등 쪽은 한 장의 등딱지로 덮여 있고, 다섯 쌍의 발 중에 첫째 발은 집게발로 먹이를 잡는데 쓰며 다른 네 쌍의 발은 헤엄치거나 걷는데 쓰는 동물 이름은 무엇입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33202	소라게(집게)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우와 게의 중간형인데, 쾡무니를 소라쾡의 다른 빈껍데기 속에 박고 살면서 그 껍데기를 그대로 쾡무니에 달고 다니는 동물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라 속에 사는 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33203	털게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 전체에 털이 촘촘히 나 있으며 배 쪽의 털이 더 길며 몸 옆구리에는 여러 개의 가시가 나있는 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33204	꽃게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은 검은 자주색에 푸른 무늬가 있으며 등딱지는 마름모꼴이고, 집게발이 크고 길며 나머지 발은 모두 넓적한 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33205	대게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등딱지의 길이는 22cm 정도이며, 갑각의 가장자리에 작은 가시가 있고 등에는 돌기가 있는 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가운데 가장 크며 맛이 좋은 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33206	참게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등딱지는 길이 53mm, 너비 70mm가량이고, 겉면은 딱딱하며 우툴두툴하며, 배는 7마디로 된 게를 무엇이라 합니까?		
134101	미역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후 조리 또는 생일 때 국거리로 많이 애용되는 바다 식물은 무엇입니까?		
134102	김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워서 밥을 싸먹는 검은 종이처럼 생긴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34103	감태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줄기는 원기둥 모양이며, 전복의 먹이로 쓰는 바다 식물 이름은 무엇입니까?		
134104	파래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을 이루고 빛깔은 광택이 있는 푸른빛이며, 김과 같이 넓적하고 얇은 것, 가늘고 긴 것 따위가 있는 바다 식물은 무엇입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34105	모자반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잎은 바소꼴로 엮고 말리면 빛이 푸르는데, 나물을 해서 먹는 식물 이름은 무엇입니까?		
134106	톳	몸은 섬유상의 뿌리로 지탱되며, 줄기는 원기둥 모양이고, 바닷가 바윗돌에 붙어 자라는데 채취하여 잎을 먹는 식물 이름은 무엇입니까?		
134107	우뭇가사리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천의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시마와 미역보다 거칠게 생겼습니다. 줄기에 잔가지가 많이 나 나뭇가지 모양이며, 몸빛은 주로 검붉은 바다 식물입니다.		
134108	풀가사리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은 나뭇가지 모양이고, 줄기의 속은 비어 있고 겉은 미끄럽고 끈끈하며 광택이 나는 식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삶은 물로는 명주, 비단 따위의 옷감에 풀을 먹입니다.		
134109	도박	붉은 말에 딸린 바다에 나는 풀로, 붉은 자줏빛의 기죽 조각 같고 마르면 자줏빛이 되는데, 풀이나 점착제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바다 식물은 무엇입니까?		
134201	바래다	햇빛을 받아 색이 변한 것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34202	간피다	미역이나 다시마 따위를 말릴 때 생기는 하얀 가루를 보고 미역 따위가 어떻다고 합니까?		
135101	거북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수를 뜻하는 동물로, 토끼와 무엇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135102	오징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서 유일하게 뼈나 가시가 없습니다. 머리 부분에 다섯 쌍의 쌍의 다리가 있고, 그 중 한 쌍의 측안에 있는 빨판으로 먹이를 잡는 동물 이름은 무엇입니까? 말려서 구워먹거나 속초에서는 이것 순대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135103	해파리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갯이나 종처럼 생겼으며, 몸은 투명하고, 바닷물에 떠다니며 사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35104	낙지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징어와 비슷한데, 오징어보다 약간 작으며 여덟 개의 발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빨판이 있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135105	문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징어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크기는 매우 큼니다. 몸의 길이는 발 끝까지 3미터 정도이며, 붉은 갈색이고 연한 빛깔을 띤 그물모양의 무늬가 있고 몸빛이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몸통은 공 모양이고 몸 표면에는 유두가 많으며, 발은 여덟 개인데 빨판이 많이 있는 물고기 이름은 무엇입니까? 삶아서 제사상에 올리거나 말려서 먹기도 합니다.		
135106	꿀뚜기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징어와 비슷하나 5cm 정도로 작은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어물전/생선전 망신은 이것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35107	해삼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초봄에 먹는 것으로서 몸은 둥근통 꼴이며 온몸에 사람 얼굴의 여드름처럼 오돌도돌한 돌기가 나 있고, 몸빛은 검푸른 갈색 또는 검붉은 갈색을 띤 물고기입니다.		
135108	멍게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은 15~20cm이고 길에 젖꼭지 같은 돌기가 있으며, 터듬이는 나뭇가지 모양이고 수가 많으며 껍질은 두꺼운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35109	성게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에 사는 이것의 모양은 밤송이처럼 둥근 몸에 석회질의 가시가 뾰족하게 박혀 있는 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35110	말뚥성게	성게인데 말뚥처럼 생기고 바늘 같은 가시가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135111	말미잘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몸은 원통 모양이며 구반(口盤), 체벽, 족반(足盤)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반 가운데 입이 있고 주위에 촉수가 나 있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135112	불가사리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다 속에서 완전한 생활을 하는데, 몸은 체반(體盤)과 팔로 되어 있고 편평하며 별모양 또는 오각형인 동물 이름은 무엇입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35113	거북손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닷가 바위에 붙어서 삽니다. 거북의 다리처럼 생긴 머리와 자루 부분을 가진 동물 이름은 무엇입니까?		
135201	비리다	물고기, 동물의 몸이나 피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를 어떠한다고 합니까?		
135202	불다	맛달아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어떠한다고 합니까? 전복은 바위에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135203	빨갳다	익은 고추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명계 색깔이 어떻습니까?		
135204	노랗다	명계의 살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개나리꽃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135205	뽕죽하다	성계의 가시나 바늘 끝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135206	날카롭다	생선 가시는 뽕죽하고 어떠한습니까?		
135207	딱딱하다 / 물렁하다	몹시 굳고 단단한 것을 어떠한다고 합니까? 거북이 등껍질은 어떠한습니까? ‘딱딱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문어를 손으로 찢어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141101	그물코	그물에 뚫려 있는 구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1102	벼리	그물 위쪽 코에 꿰어 잠아당기게 된 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1103	그물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노끈이나 실, 쇠줄 따위로 여러 코의 구멍이 나게 엮은 물건으로, 물고기 따위를 잡는데 쓰는 도구입니다.		
141104	후렛그물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강이나 바다에 둘러치고 여러 사람이 벼리의 두 끝을 끌어 당겨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41105	시들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손잡이가 길고 모양이 국자처럼 생긴,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1106	망사리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녀가 채취한 해물 따위를 담아 두는, 그물로 된 그릇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1107	테왁	〈사진〉 박의 씨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1108	쪽지그물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착에서 고기받이에 모인 어군을 운반선에 담거나 어항에 도착해서 양육할 때 고기를 푸기 위한 작은 그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1109	설망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견지낙시에서, 미끼를 담아 물밑으로 내리는 그물주머니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2101	낙싯대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낙싯줄을 매는 가늘고 긴 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2102	낙싯줄	낙싯대에 낙싯바늘을 매어 달기 위하여 쓰는 가늘고 질긴 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2103	얼레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낙싯줄 따위를 잡는 데 쓰는 기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2104	미늘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낙시 끝의 안쪽에 있는, 거스리미처럼 되어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작은 갈고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2201	낙시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데 쓰는 작은 쇠갈고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2202	삼봉낙시	세 갈래의 갈고리가 달린 낙싯바늘로 강바닥에 가라 앉혀 놓고 물고기가 지나가다 걸리게 하는 낙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42203	주낙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하나로 긴 낙시줄에 여러 개의 낙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도구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3101	갑판	〈돛단배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큰 배 위의 넓고 평평한 바닥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143102	이물	〈돛단배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배의 앞머리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3103	고물	〈돛단배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배의 뒷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3104	돛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배 바닥에 세운 기둥에 매어서, 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넓은 천으로 바람을 받아 배를 가게 하는 물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3105	돛대	〈돛단배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돛을 달기 위하여 배 바닥에 세운 기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3106	활대	〈돛단배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돛 위에 가로 댄 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3107	돛	배를 한 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3108	돛줄	돛을 매다는 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3109	노	〈거룻배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헤쳐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3110	(노) 젓다	노를 가지고 배를 나아가게 하려고 움직이는 것을 노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43111	상앗대	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로 배를 댈 때나 띄울 때, 또는 물이 얇은 곳에서 배를 밀어 나갈 때 쓰는 도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3112	키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기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3201	고깃배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기잡이를 하는 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3202	뚝딱선	발동기로 움직이는 작은 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3203	거룻배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돛이 없는 작은 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3204	돛단배(풍선)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 돛을 단 배를 무슨 배라고 합니까?		
144101	작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찢러 잡는 기구로, 작대기 끝에 삼지창 비슷한 뾰족한 쇠를 박아 만드는데, 간혹 한두 개의 쇠꼬챙이를 박은 것도 있는 도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4102	어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 막대기나 밧을 물 가운데에 돌려 꽂은 고기잡이 장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4103	통발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는 덧조각을 엮어서 통과 같이 만든 고기잡이 기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4104	바구니	대나 싸리 따위를 쪼개어 동글게 결어 속이 깊숙하게 만든 그릇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4105	종다래끼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바구니로 다래끼보다 작으며 양쪽에 끈을 달아 허리에 차거나 뿔뿔을 달아 어깨에 메기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44106	호미	〈사진〉 이것 무엇입니까? 끝은 뽕죽하고 위는 대개 넓적한 삼각형으로 되어있는데 목을 가늘게 휘어 구부린 뒤 둥근 나무자루에 박아 만든 도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개를 채취할 때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144107	낫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역, 다시마 따위를 베는 데 쓰는 기구로 쇠로 ‘ㄱ’ 자 모양으로 만들어 안쪽으로 날을 내고, 뒤 끝 스펀에 나무 자루를 박아 만든 도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4108	물웃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속에서 일을 할 때 입는 잠수복 따위의 옷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4109	물갈퀴	사람이 물속에서 활동할 때에 발에 끼는 오리발 모양의 물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4110	고기살리는배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육지로 운반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예전 소규모의 목선으로 어로활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144111	투구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깊은 바다에 잠수할 때 쓰는 얼굴 전체를 덮는 모자로 높은 수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금속으로 되어 있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144112	수경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속에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눈을 뜨고 물속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안경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4113	그물바늘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물을 뜨는 데 쓰는 도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 왕대로 만들며, 모양은 조봇하고도 가름하고 얇팍한데 앞은 뽕죽하고 뒤는 오목하게 반달 모양으로 파며, 앞쪽에는 가운데 혀를 남겨 놓고 파내어 이 혀와 뒤의 오목한 홈에 실을 감는다.)		
144114	재침잡이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첩을 잡을 때 쓰는 작은 그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44115	뜰채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따위를 건져 올릴 때 쓰는 도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4116	낙지가래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낙지를 잡거나 갯벌의 진흙을 떠서 옮길 수 있도록 만든 기구입니다. 크기가 작고 삼날이 좁아 갯벌 속의 낙지를 잡기 쉽게 만들었으며 자루에 손잡이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144117	얼음끌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얼음낚시를 할 때에, 얼음 구멍을 뚫는 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4118	걸쇠	〈사진〉 이것은 무엇입니까?		
144119	미끼	낚시 끝에 꿰는 물고기의 먹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45101	파다	조개를 잡으려면 갯벌(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5102	캐다	조개를 땅에서 파내는 것을 무엇한다고 합니까?		
145103	(전복) 떼다	바위에 붙은 전복을 채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붙어 있거나 잇닿은 것을 떨어지게 하는 것을 무엇한다고 합니까?		
145201	말리다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게 하는 것을 무엇한다고 합니까? 오징어를 잡거나 미역을 채취해서 햇빛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45201	널다	오징어를 말리려면 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별을 띄거나 바람을 쐬기 위하여 펼쳐 놓는 것을 무엇한다고 합니까?		
145301	후리다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 휘몰아 채거나 쫓는 것을 무엇한다고 합니까?		
145302	짜다	실이나 끈 따위를 씨와 날로 결어서 그물 따위를 만드는 것을 무엇한다고 합니까? 스웨터를 만드는 작업을 ‘스웨터를 실로 무엇하다’합니다.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45303	뜨다	물속에 있는 것을 건져 내는 것을 무엇한다고 합니까?		
145304	감다	어떤 물체를 다른 물체에 말거나 빙 두르는 것으로 무엇한다고 합니까?		
145305	끌다	물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바닥에 있는 채로 잡아당겨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무엇한다고 합니까?		
145306	던지다	공놀이할 때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공중으로 주는 동작을 ‘공을 어떻게 주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줍니까?		
145401	낚다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동작을 무엇 한다고 합니까?		
145402	채다	낚싯대에 고기가 걸리면 다음 동작은 어떻게 합니까?		
145403	걸리다	낚시를 이용해 고기를 잡을 때 고기가 미끼를 물었으면 고기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145404	올리다	낮은 곳에 있는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옮기는 동작을 무엇한다고 합니까?(그물을 끌어 올리다)		
145501	(키를) 잡다	선장이 배를 부리기 위해, 키로 배를 조정하는 동작을 ‘키를 무엇한다’고 합니까?		
145502	타다	사람들이 버스, 기차, 택시, 배에 올라가는 동작을 ‘버스, 기차, 택시, 배를 무엇한다’라고 합니까?		
145503	내리다	‘타다’의 반대 동작은 무엇한다고 합니까?		
145504	매다	말을 말뚝에 매듯이 배가 바닷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려면 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5505	풀다	‘매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45506	뜨다	배가 바다의 물속에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물 위에 있는 상태를 '배가 어떠한다'라고 합니까? '뜨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145507	가라앉다	물 파위에 떠 있던 것이 차차 내리어 밑바닥에 이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45508	신다	물체를 운반하기 위하여 배에 짐 따위를 올리는 것을 무엇한다고 합니까?		
145601	쓰다	화살이나 총알 따위를 나가게 하다는 뜻으로, 작살로 고기를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작살)로 쓰다	
151101	새우젓	〈사진〉 새우로 만든 젓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51102	멸치젓	〈사진〉 멸치로 만든 젓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51103	명란젓	〈사진〉 명태 알로 만든 젓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명태의 알을 소금에 절여 담근 젓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51104	창난젓	〈사진〉 명태의 창자로 만든 젓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명태의 창자에 소금, 고춧가루 따위의 양념을 쳐서 담근 젓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51105	조기젓	조기로 만든 젓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51106	꿀뚜기젓	〈사진〉 꿀뚜기로 만든 젓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51107	아가미젓	〈사진〉 아가미로 만든 젓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51108	곤쟁이젓	〈사진〉 곤쟁이로 만든 젓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51109	오징어젓	〈사진〉 오징어로 만든 젓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류 번호	어휘 항목	질문문	비고	응답
161101	뱃고사	배에서 액운(厄運)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집안에서 섬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차 려 놓고 비는 제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62101	뱃노래	뱃사공이 노를 저어 가며 부르는 노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찾 아 보 기

ㄱ

가네끼	142	감다	143
가또	251	감새가 높이 뜨면 바람 분다	33
가라	136	감시 맛봤나	257
가랑비	31, 101	갑오징어	120
가래	142	갯담추	49
가리이	252	갯바리	93
가리재이	111	강구가 산중으로 간다	238
가부리	109	강남쥐치	112
가사리	54	강정	246
가새	105	개도박	119
가실바리	91	개리다	35
가오리	42, 109, 254	개명계	56
가을바리	93	개물	52
가을방어	111	개발 가다	245
가자미	42	객선	65
각재 비가 오다	101	갯가시	37
간꼬	129, 135	갯발	188
간꼬집 피었다	55	쟁개미	190
간꼬집	55	쟁문 가다	245
간꽃 올르다	55	쟁문	245
간꽃	55	쟁물	37
간자미	109	쟁심	128
간재미	109	거무리	266
간판	62	거시이	266
간판장	25, 92	거품	105
갈매기 높이 떠빠리면 바람 분다	238	건장마	231
갈바람	99	결노	63
갈방비	101	게고디	115
갈서마	228	게껍테기	116
갈치	42	게딱지	116
갈퍼레	52	게알	116
		게엄지	194
		게오동발	116

게웃	48	구섬탱이	194
게조디	116	국퍼레	52
게창대기	116	군등바람	228
게통발	142	군붓	49
경대	270	굴밤수	56
경심	61	굶다	125
고구마 빼떼기	287	굶은기	120
고기망태기	128	굶은칼치	108
고기빚	108	굶시이	255
고도리	250	굶턱	242
고두메	206	긱날 지다	237
고등어	109	긱니	241
고등에	42	긱니가 오면 긱날이 가다(지다)	241
고무옷	67, 142	귀머거리	48
고무찌	136	그무리	266
고부리	251	그물	127
고사바	250	그물바리	93
고시	44	그물배	129
고씨	44	그물살	127
고아지	252	그저까자미	109
고을개	246	근해바다	105
골뚜기	120	글개	142
굶다	57	급새	100
굽새기	110	급풍	100
공갈낚시	68	기	50
공갈미끼	283	기계선	64
과깨바다	37	기젯배	129, 137
과메기	112	기고동	50
광어	109	기관선	137
광에	44	기관장	92
광풍	100	기관조	92
괴생이	188	기등어리	116
구량	200	기이빨	116
구러기	55	기작	233
구레기	55	기장	116
구로다이	111	기조디	116
구름빨	103	김	51
구무니	105	김틀	68
구섬	194	깃 꽃았다	149

까꾸리	66
까랑지다	72
까막전복	114
까만굴밤수	56
까만뿔래기	253
까만성계	122
까시	41
까자미	42, 109
까잘미	42
까재미	109
까지메기	251
까지메이	251
까치복	110
까칠복	110
갈치	108
감물	105
꺼먼우럭	45
겉떼기	45
검은구름	103
겹떡	41
꼬다리	110
꼬대기	136
꼬두리	250
꼬드박	128
꼬랑대기	108
꼬불	62
꼬을	274
꼭사리	41
꿀뚜기	265
꿀뚜기젓(갈)	145
꽁돌	272
꽁지	108
꽁치	43
꽁치바리,	91
꽃게	117
꽁치젓	205
꾸득꾸득하다	70
꾸죽	47
꾸죽퐁이	47

꿀	49
꿀통	57
꿀통이	51
끄다	143
끄집어올린다	144
끼리다	75



나감지	108
나끄다	71
나무재이	254
나온 연똥	39
뉘는다	144
뉘대	270
뉘수	127, 128
뉘시	127, 128
뉘시비늘	128
뉘싯대	128
뉘아올린다	144
난쟁이	42
난깁이	42
난킨사바	250
날 곳치다	34
날 되게 섰다	125
날 섰다	125
날감지	110
날개끝	108
날개미	108
날개쪽	41
날개쪽	41
날물	95, 224
날바주다	285
날이 개다	102
남갈	98
남바다	104
남박	92
남쪽	104
납	67, 127

납딱새기	111
납딱치	112
낫	66, 142
낭쟁이	42
낭낭끄티(기)	106
낫바리	91
낫치기	93
내려가다	144
내려앉다	144
내린다	144
넷물(내물)	95
냉끼	200
냉동선	129
너린 바다걸다	106
너무새날	27
너울(놀)	105
너울	37
너울성파도	105
너울파도	105
넬다	143
넵떡눈	102
넵떡치	109
넵작허다	46
넵치	109
네물	27
노	63
노가리	110
노구제	206
노따개비(놀딱개비, 노썸)	136
노따개비	136
노란돔	111
노란사배기	111
노란성게	122
노손	275
노썸	136
노우데	136, 275
노잎(놀잎)	136
노잎	136
노추리	275

놀딱개비	136
놀손	136
놀잎	136
놀쫓	136
놉바람	30
놉새	30
놉하누	30
농어	45
농울이 굶다	187
높새바람	228
높셋갈	228
뇌성	103
누른창대기젓	145
눈	67
눈까리	116
(괴기)눈까리	108
눈티	116
늪	37
늪치다	37
능성돔	111
늦갈	228
늦마	183
늦마과람	183
늦바람	29
늦하누	30
니	241
니물	27



다섯물	27
다이버	94
달구지	116
달도 월식하고 해도 해식하는데 사람이라고	
맘이 안 변하겠는가	35
달머리 지다	234
달무리 생겼다	103
달무리	33, 103
달식	34

달치기	93	돌너덜	106
담추	49	돌멍게	56
담추젓	74	돌맹이집	51
닷	62	돌문애	121
닷줄	62	돌문어	121
당일바리	93	돌미역	118
당제	147	돌빼발	106
대	120	돌새기	117
대갈빠리,	108	돌집	51
대갈빼기	116	돌채	272
대게	117	돌풍	100
대멜치	41	돛	62
대방	119	돛대	62
대부리	251	동갈	99
대왕	119	동그란고디	115
대조금	95	동력선	129, 137
대태	110	동마손	30
대풍 분다	184	동바다	104
덴갈	98, 99	동방구름 뜨면 날 좋다	238
덴갈바람	98, 99	동방구름	236
덴갈청풍	98	동삼바리	91, 93
댓마	277	동새	98, 99, 104
댓마새끼	277	동새바람	98
던지다(뎌지다)	143	동쌀 준다	32
덴마	64	동쌀 뜬다	32
도다리	109	동이 뜬다	97
도모	135, 199	동제	147
도미	44	동쪽	104
도박	119	동태	110
도토리고동	48	동태바리	93
독도돔	111	동풍	29
독도전복	114	돛풍	136
독두말	38	돼지발톱	195
독수,	242	된갈	228
독한거	121	된둥	188
독해심	56	된새바람	99
돌고래	110	두대배기	201
돌김	51	두도배기	201
돌까재미	109	두름박	128, 269

두름발	269
두무샛날	26
두물	26
두불짐	51
두지바람	183
둡병	39
둥근전복	114
드리친다	125
들물 채다	96
들물	95
들어간 연똥	39
들어붓다	102
들이	269
등때기	108
등떠리	116
등사등빼	108
따리	276
딸딸이	64
땅게	42
맞줄	275
맞줄말때기	136
맞칸	136
떡방어	111
떡사배기	111
떤지바리	93
떼다	143
떼배	64, 129, 136, 277
땨마	64
땨마	129, 136, 277
땨목	129, 136
땨기다	70
뚝딱선	64, 137
뚝돔(돌돔)	111
뚝방어(뚝빼~)	111
뚜꾸마리	280
뜨다	143, 144
뜰물	224
뚝부기	54



마구리	251
마다리	48
마드레기	48
마른 번개	236
마른 장마	231
마른번개	103
마발물	95
마발물 간다	96
마안들물	95
마침맞게 분다	100
마과람	29
마과람 쏘나기 떨어지다	31
막내(이)	92
만들	95
만물	95
만선 했다	149
말뚝성계	122
말른명태	110
말리다	69, 143
말전복	114
말취치	112
맑은구름	103
망	268
망지기	49
망태	269
망태기	128, 142
맞바람 불면 굶니가 많이 온다	243
매끼	51
맨들고디	115
맹물	105
머구리	94, 281
머구리머리	142
머구리배	136
먹구름	103
먹는기	117
먹뽕래이	253

먹짱어	44	문대	121
먹칼치	108	문애	121
먼바다	105	문애비개	121
멀건	101	문애통발	142
멀건 날에 비 온다	101	물 밑에 삼	56
멍게	56, 265	물가오리	109
메가리	252	물갈퀴	281
멜	41	물거시이	266
멜젓	73	물그시이	266
멜치	41	물까재미	109
멜치젓	73	물칸	65
멜치젓갈	73	물든다	28
멩태	43	물문애	121
머르치젓갈	145	물문어	121
면그물	59	물바리	221
명란	145	물보라	103
명태바리	91	물수건	67
명태배	129	물쓰다	28
명태새끼	110	물안개	103
모다	129	물애저녁	97
모래밭	38	물었다	144
모린 장마	231	물웃	142
모야	136	물이 간다	96
모태	271	물이 뿔다	96
목선	129	물이 뿔었다	96
목우리	281	물질	69
목자팡	197	물질 가기 전에 돈 놔 안 준다	76
물	52	물칸	65
물대	68	물항장	106
물리다	69	뭇	51
물뽕이	52	뭉디까재미	109
몸티	108	미기	241
못먹는기	117	미까	142
묘시	136	미나라이	92
무동력선	129	미더덕	265
무레꾼	25	미시기	241
무레질	69	미역	118
무수	28	미역낫	142
무에나무	54	민물	28, 37

민어	45
밀복	110
밍크	110
밀노	63

ㅂ

바구리	66, 280
바굽지	66
바늘대	68
바다 쪽에서 흰하게 일 때 왁새가 터진다	148
바다기	117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예펜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가라.	76
바닥	36
바닷물	105
바람 올리다	289
바람 잡다	229
바람쌀	101
바람풍	136
바르다,	54
바리	257
바우	39
박대	42
발동기	64, 129
발동선	137
밤송어	265
밤싱이	265
밤중	97
밤치기	91, 93
방	268
방계	117
방배	268, 278
방어	44, 251
방에	251
배 한장	136
배대기	116
배때지	116
배를 처음 지았을 때 여자는 안 태운다	147

배밑	136
배발	136
배빨다리	136
배선원	92
배에다가 여자 한 사람 신지 마라	147
배짖까리	92
배찌느러미	108
배창시	41
백삼	56, 123
백조구	43
백해심	56
뱃고사	147
뱃놈	25, 92
뱃대기	108
뱃머리	136
뱃밑	200
뱃사람	25, 92
뺨어둠	111
뺨치	106
버끔	37
버리	62
버릿줄 타고 쥐가 내려오다	238
버릿줄	62, 275
범고래	110
병장에	44
벗굴	259
베말	48
뺨어	44
벼락 때린다	103
별	121
별가사리	121
별이 달무리에 딱 붙어 있으면 날 곳다	235
별치기	97
보구	110
보라성계	122
보름조금	95
보슬비	101
보신	91, 92
보재기	221

보재이	221
보지기	91, 94
보찰	57
본채	136
봄방어	111
봉돌	272
봉알퐁	53
부시리	44
부실이	111
부자리상	136
부찰	195
부채발	194
북바다	104
북새	98, 99
북어	110
북쪽	104
북쪽말뚝성계	122
북청바람	99
불가사리	57, 121
불새	33
붉은 뿔래기	253
붉은돔	111
붕장에	44
비가 올라고 무지개 친다	35
비끼겠다	125
비눌	142
비단복	110
비대	127
비렁내 나다	57
비렁내	57
비름하다	285
비룽내 난다	125
비창	66
빛날 지다	237
뽀지락	47
뽀간우럭	45
뽀게	117
뽀떼기 죽	287
뽀뽀하다	125

뽀쭈하다	125
뽀치	111
뽀	106
뽀땅	188
뽀발	188, 245
뽀탕	245
뽀다구	108
뽀쟁이	43
뽀지	110, 254
뽀징이	254
뽀찌	110
뽀라구	253
뽀래기	253
뽀래이	253
뽀돌	272
뽀돌	272
뽀고동	115
뽀고디	115
뽀굴밤수	56
뽀소라	115
뽀취치	112
뽀쭈쭈하다	125
뽀쭈다	58



사공	25
사꾸라지기	120
사리때	222
사리뽀	29
사말고디	115
사바	109, 250
사바고	109
사바새끼	109
사배기	111
사배기새끼	111
사앗대	200
사요리	112
사천내기	228

사천내이	228	생태	110
산태미	66	서마 불면 태풍 온다	229
살 찼다	125	서마	228
살대	63	서물	26
살따구	108, 116	서바다	104
(게)살따구	116	서쪽	104
살찐방어	111	섞이는 데	241
살케이	116	선물	28
삼	123, 200, 276	선미	135
삼치	44, 251	선수	62, 136
상바리	221	선원	92
상사리	252	선원짓까리	92
상에	43	선장	25, 91, 92
상괭이	191	선장집	136
새담추	49	선장짓까리	92
새바람	98	선착장,	106
새발물	95	선채	136
새벽복새	225	설래끼꾼	220
새복	97	설상	136
새복에 여자가 지나가면 작업 안 나간다	147	성계	265
새비젓	73	성허다	46
새비젓갈	73	세대배기	201
새안들물	95	세도배기	201
새우젓갈	145	세백	29
새지	200	센조	92
새쪽	104	셈복	48
새치	111	셈복겍떡	48
셈복죽	74	소	120
셋갈	228	소낙비	101
셋날 불면 작업 되겠나	148	소다	106
셋바람 불 때는 오징어가 적게 난다	148	소라뽕이	48
셋바람 불고 서마 하면 날이 안 좋다	229	소태	110
셋바람 불라고 동쌀 뜬다	32	속곳	67
셋바람 불면 고기가 나다가도 안 잡힌다	148	속수리바람	184
셋바람 불면 고기가 머리 아파한다	184	손 비긴다	125
셋바람 불면 고기가 안 잡힌다	148	손꽁치	112
셋바람	29, 98, 99	손사공 죽었는 날은 바람이 세게 분다	149
셋별치기	91, 93, 97	숨눈	32, 102
생꾸죽	47	수경	67, 142

수루매	120	아구태가리	108
수매	120	아까다이	111
수설	193	아까성계(은단)	122
수주칸	142	아도줄	136
수지자망	197	아랫굽	59
수질 가다	71	아바	59, 127
수커	121	아부라사시	92
수퍼전복	114	아서라/어서라	147
수협배	65	아적	29
순풍	100	아적조기	27
술	61	아지	252
술몽테	61	아침	97
술테	61	아침나절	97
숨새다	40	아침나제	226
숫대황	119	아침조기	27
스슬 들어보다	102	아쿠	255
슬래끼꾼	220	아홉물	27
시마	228	악풍,	100
시마다이	111	안개비	101
시원하게 분다	100	안경까재미	109
시큼하다	125	안골	37
식전	97	안마	183
싫어주다	144	안마셋바람	183
심장	116	안어장	206
싸락눈	32, 102	알	108
싸래기	102	알금치	40
쌀눈	102	알금치젓	74
쌍칼치	108	알야도	251
썩었다	125	암대황	119
썰물	95, 224	암바위	39
쏘나기	31	암커	121
씨원하다	30	양까	62
썰그물	59	양시때	222
		앞바다	105
		앞줄 끌러라	200
		앞줄 매라	200
아감지	108	야도	251
아감지젓	145	야도바리	257
아구지	40	야스	44



야차다	37	예대배기	201
알브다	46	오골	281
양식전복	114	오끼야	92
양엇돛	199	오동가오리	109
양엇돛	199	오른다	144
양호돛	136	오른도모	91, 92, 136
앞다	37	오른도모끄티	136
앞우다	106	오리발	67, 142, 281
어금	241	오무라해파리	123
어둠사리 낀다	97	오방풍	100
어부	25, 92	오분자기	48
어선	129	오아지	252
어판장제	147	오야지	91, 94
억수로 온다	102	오징어	120, 264
억수장마	31	오징어가 텃다	149
얼룩꾸죽	47	오징어바리	91
얼룩취치	112	오징어배	129
얼은명태	110	오징어젓갈	145
에프알피	129	오징에젓	74
에프알피선	137	(제주)옥돔	111
여덟물	27	옹등바구리	66
여름방어	111	왁새	100
여섯물	27	왕시	222
여식에	117	왕장구	122
연뚱	39	원도모	91, 92, 136
연안	105	원도모끄티	136
열기	253	용골	136
열두무셋날	27	우내	103
열두물	27	우네,	35
열레 작대기	276	우니	265
열레	276	우데	275
열물	27	우렁심이	265
열한물	27	우렁송이	265
열합	115	우무 낀다	103
열흘조금	95	우무 바르다	54
염통	116	우무	53, 103
영덕기	117	우무가시리	119
영자(어른)	92	우무까시리	119
영자,	91	우뭇가사리	119

우뭇국	74	자리돔	111
우박	102	자반	52
우박눈	102	자세	128
웃굽	59	자주복	110
원앙바리	93	자짤하다	125
원줄	127	자채	128
월남쥐치	112	작가	64
월식	34	작가선	64
은복	110	작다	125
은칼치	108	작발	244
은하수 꼬랑지다	34	작은거	121
을진	99	작은고등어	109
을진바람	99	작은꾸죽	47
음뽕	110	작은명태	110
이까	120, 264	작은배	129
이깎	68	작은해피	123
이깃대	142	잔기	120
이깨수칸	142	잔물	187
이끼수	281	잔소리	47
이늘	128	잔자갈	106
이루꾸찌	106	잔칼치	108
이면수	111	잘잘하다	46
이물	62, 136	잠뱅이	67
이바다	105	잠수선	129, 136
이슬비	31, 101	잡는다	144
이숫물 간다	96	잡패	45
이숫물	95	장마	31
이시가리	109	잘	105
이쪽바다	105	젯방어	111
인간풍	99	저녁나절	97
인조이깎	68	저녁	97
일곱물	27	저녁나제	226
일본조	220	저바다	105
임명수	111	저쪽바다	105
		적군	220
		적은기	120, 123
		적은파도	105
		적은풍	136
		전쟁이	252
자갈기	117		
자갈밭	106		

전노179
전마선64
전복망태60
전복48
점나제226
정때225
정월 초나흔날은 출항 안 한다77
정월 초하룻날은 돈 안 빌려준다76
제사상에는 비늘 없는 고기는 안 올린다76
제사상에는 치자 든 고긴 안 올린다76
제주사람91, 94
조구43
조금27, 95
조기120
조기장92
조플래기265
조디(주디)108
조락66
조망태60
조무래기287
좀 오네102
줍다106
종달치112
종자용전복114
종패114
주낙127, 128
주낫198
주낫바쿠198
주우사바250
주지272
주치112
줄128
줄모태'198
줄모태271
중120
중바리221
중부리251
중태110
취고기112

쥐치112
 주아지252
 지네발미역118
 지태206
 진갈비102
 질이 질다125
 짐51
 짐대274
 짐발68
 짐틀68
 집계발116
 징어리42
 짚우다106
 짹살(작살)142
 짹살142
 째거110
 째물105
 째에44
 쨌는거110
 쪼래기128
 쪼불락45
 쪼불락45
 쪽대128, 142
 쪽바지68
 쫄맹이41
 쫄끗하다,58
 쫄래기45
 찌그레기102
 찌르다144
 찢르다47
 찢다(잡다)143

大

참가오리=참가부리	109
참게	50, 117
참고둥	48, 115
참고디	115
참기	117

참까재미	109
참도박	119
참돔	44, 111
참때	97
참명게	56
참몰	52
참문애	121
참문어	121
참미역	118
참복(참뻑)	110
참소라	115
참자반	52
참전복	114
창	65, 142
창가사리	54
창갱	282
창경	282
창대기	108, 116, 145
창란젓갈	145
창시	41
창질	65
창질하다	65
챗배	278
챙경	282
처갓집물건	115
처진갈	98, 99
천둥소리	34
천초	119
철갑게	117
철선	129, 137
첨대	61
첫짐	51
청갱	282
청경	282
청삼	123
청풍	98, 99
청해삼	123
초등바리	93
초등오징어	120

초매식	147
초이레조금	95
초저녁	97
초조금	95
춧대바위	106
추리	275
축강	106
축강목	106
춘대	110
춘대바리	91, 93
춧돌	128
치	63, 136
치구멍	136
치송	75
치송하다	75
치패	114
칠성	34



칼날 섰다	125
칼치	108
캐다	143
코	127
코뚱	111
코쟁이	111
콤파스	142
쿠쌌다	125
쿵쿵하다	125
큰개안	38
큰게	121, 123
큰기	117, 120, 123
큰꾸죽	47
큰눈	67
큰문애	121
큰불가사리	121
큰소라	47
큰파도	105
큰풍	136

큰해피123

ㅅ

타발 쓰다46
 택택이137
 털게117
 털기117
 텃고기250
 톱박구름236, 238
 톳51, 53
 통구미278
 통구밍이278
 통굴맹이278
 통발65, 142
 통배 땀다149
 통치45
 통통배129, 137
 통통하다125
 퇴송206
 투거리67
 투구142
 투망59
 투망그물59

ㅌ

파다143
 파도37
 패철142
 퍼레52
 퍼부어뽀다102
 펜푸55
 펜푸젓74
 편갈228
 편푸55
 평지바위39
 풀까사리54
 풀까재미109

풍기미136
 풍선64, 129
 피둥어꼴뚜기120
 피말다35

ㅎ

하노63
 하누바람29
 하늘바람98
 하늘소리34
 하다가94
 하마치44
 하바리221
 하얀굴밤수56
 하장179
 학꼴치43, 112
 한나절97
 한낮97
 한도배기201
 한무새날26
 한무셋날26
 한물26
 한밤중97
 한장92
 한조금28
 한조기28
 한치120
 할맛네 올라가다288, 89
 할맛네 지내다289
 함박눈102
 향구목106
 향목106
 해 뜬다97
 해가 기울어진다97
 해가 질 때 별가면은 이삼일 후에 비온다33
 해꽃103
 해녀복142

해무리 지다	234	홍어리	269
해무리 지면 날 좋고 달무리 지면 날 꺾다	235	홍에	42
해무리	103	홍합	49, 115
해물 미웠다	103	홍합젓	74
해물	103	홍해삼	123
해방고디	115	홍해심	56
해비	101	화노	179
해삼	123	화장	92, 206
해식	34	화장,	91
해신제	147	황가오리	42
해심	56	황복	110
해우	51	황새기젓	205
해우발	68	황조구	43
해우틀	68	황태	110
해치기	91, 97	회오리바람	30
해파리	123	후리기	143
해패	220	후리치	127
해피	123	후리치기	127
해흐름	185	후리치기하는그물	127
햇머리	33	홀치다	71
햇머리 한 것이 날 꺾치겠다	33	흑구름	103
허릿뚫	199	흑돔	111
헛깨비불이 산에 보이면 날씨가 마이		흑물까재미	109
나빠진다	149	흑삼	56, 123
헛불이 있으면 이삼일 내로 큰바람이 분다	149	흑해삼	123
형서리	60	흑해심	56
호도로바람	100	흰구름	103
호래이	265	흰해삼	123
호랭이 장계가다	31	히라수	111
호리기	265	히모	59
호매이	280	히바리	91, 94
호맹이	66		
호미	142		
흑돔	111		
흑돔고래	110		
훗꾸대	142		
홍게	117		
홍삼	56, 123		
홍어	109		

■ 연구책임자: 강 정 희(한남대학교)
■ 공동연구원: 김 순 자(제주대학교)
 김 지 숙(영남대학교)
 박 원 호(한남대학교)
 홍 기 옥(경북대학교)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발 행 인 민 현 식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 쇄 일 2012년 9월 26일

발 행 일 2012년 9월 28일

인 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